경기도 문화재 총람

국가지정편 _ 1

국보
보물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경기도

경기도 문화재 총람

경기도

일러두기

1. 이 책은 2018년 '경기도문화재원형기록화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총 380건을 집대성하여 편찬한 경기도문화재총람(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편)이다.
2. **제1권**에는 국보 11건, 보물 160건, 국가무형문화재 11건, 국가민속문화재 22건,
   제2권에는 사적 69건, 명승 4건, 천연기념물 19건, 등록문화재 84건 등을 수록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 분류에서 "기타"로 분류한 것은 제외하고, 경기도지정종목 11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3. 편집은 지정종목과 지정번호 순으로 하였으며, 활용의 편의를 돕고자 시·군별 지정문화재 목록을 색인으로 작성하였다.
4. 문화재 개요는 지정명칭, 지정구분, 수량·면적, 지정일, 소재지, 소장자, 시대 순으로 명기하였고,
   문화재 지정명칭은 한자를 병기하였다. 명칭과 수량 단위는 지정고시 상의 명칭과 수량에 따랐다.
5. 문화재의 기본 규격 단위는 cm 또는 m이며, 세로·가로·높이·지름·두께 등의 순으로 표기하였다.
   그림은 장황을 제외한 화면의 규격, 불상은 전체 높이와 무릎의 폭, 건조물은 정면과 측면의 칸수를 표기하였다.
6. 개별문화재에 대한 설명은 기존에 작성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문화재의 조영·제작 시기, 용어 등
   세부 사항은 기존의 내용을 따랐다.
7. 문화재 사진은 최근(2017~2018)의 모습을 기본으로 하고,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과거 촬영 사진도 수록하여
   그 변화과정을 알 수 있게 하였다.
8. 사진 수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문화재연구원이 보유한 사진을 검토하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 및
   문화재 소장기관 등으로부터 사진을 제공 받았으며, 일부는 문화재사진 전문작가에게 의뢰하여 촬영하였다.
   발굴 유적의 경우 현재 모습과 더불어 문화재조사 당시의 유적·유구의 모습은 개별 문화재조사기관으로부터
   현장조사 사진을 제공받아 수록하였다. 사진 수집 또는 촬영이 불가한 경우(소장자 거부 등)에는
   문화재청에서 공개·제공하고 있는 사진을 활용하였다.

경기도 문화재 총람

국가지정편 _ 1

국보
보물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경기도

目次

일러두기 02

1 국보

제4호 여주 고달사지 승탑 10
제120호 용주사 동종 14
제244호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17 16
제248호 조선방역지도 18
제256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 20
제262호 백자 달항아리 22
제263호 백자 청화산수화조문 항아리 24
제283호 통감속편 26
제296호 칠장사오불회괘불탱 30
제319-2호 동의보감 32
제320호 월인천강지곡 권상 36

2 보물

제4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42
제6호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44
제7호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 46
제8호 여주 고달사지 석조대좌 48
제9호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50
제11-4호 사인비구제작 동종-안성 청룡사 동종 52
제11-7호 사인비구제작 동종-의왕 청계사 동종 56
제12호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58
제13호 하남 동사지 삼층석탑 60
제14호 수원 창성사지 진각국사탑비 62
제91호 여주 창리 삼층석탑 64
제92호 여주 하리 삼층석탑 66
제93호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68
제180호 여주 신륵사 조사당 72
제225호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74
제226호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 78
제228호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80
제229호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 82
제230호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 84
제231호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앞 석등 86
제288호 청동 은입사 향완 90
제387호 양주 회암사지 선각왕사비 92

제388호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96
제389호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앞 쌍사자 석등 100
제397호 남양주 봉선사 동종 102
제402호 수원 팔달문 104
제403호 수원 화서문 108
제435호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112
제488호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114
제531호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116
제565호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120
제567호 평택 만기사 철조여래좌상 122
제569-11호 안중근의사유묵-사군천리망안욕천이표촌성행물부정 124
제569-21호 안중근의사유묵-욕보동양선개정략시과실기추회하급 126
제611호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128
제715호 김중만 초상 132
제733-2호 헌종가례진하도 병풍 136
제749호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 140
제822호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142
제823호 안성 석남사 영산전 144
제824호 안성 청룡사 대웅전 146
제874호 이충원 호성공신교서 148
제930호 이경석 궤장 및 사궤장 연회도 화첩 150
제941-1호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및송언신초상-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 154
제941-2호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및송언신초상-송언신초상 156
제948-2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3 158
제978호 백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9 160
제980호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4
제981호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166
제982호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170
제983호 안성 봉업사지 석조여래입상 174
제1008호 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 176
제1010-2호 묘법연화경(언해) 권1 4 180
제1051-1호 분류두공부시(언해)권13 182
제1052호 천태사교의 184
제1053호 진언권공(언해) 186
제1065호 백자 태항아리 및 태지석 188
제1095호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불좌상복장전적일괄 190
제1110-2호 정몽주 초상 194
제1128호 대방광불화엄경소 권21, 24 196
제1129호 대불정다라니 198
제1130호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200
제1131호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10의하 202
제1132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204
제1133호 원균 선무공신교서 206
제1135호 조온 사패왕지 208
제1136-1호 입학도설 210
제1144호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214
제1145호 묘법연화경 권1 216
제1146호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24 218
제1148호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220
제1149호 신간표제공자가어구해 222
제1174-1호 이중로 정사공신교서 및 초상-이중로 정사공신교서 224

제1174-2호 이중로 정사공신교서 및 초상-이중로 초상 226
제1175호 심대 호성공신교서 228
제1176호 유수 초상 230
제1177호 오명항초상및양무공신교서 232
제1197호 기묘제현수필 236
제1198호 기묘제현수첩 240
제1211호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244
제1216호 손소 초상 246
제1219-2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상2의2 권하3의1~3의2 248
제1225호 묘법연화경 권7(언해) 250
제1239호 감로탱화 252
제1256호 칠장사삼불회괘불탱 256
제1257호 청룡사영산회괘불탱 258
제1281-3호 자치통감 권193-195 260
제1286호 수월관음도 262
제1298호 조영복 초상 264
제1302호 청룡사감로탱 266
제1323호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270
제1324호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272
제1398호 청자 상감오리모양 주전자 274
제1400호 분청사기 상감모란당초문 장군 276
제1406호 이십삼 상대회도 및 김종한 교지 278
제1435호 이원익초상 282
제1477-1호 채제공 초상 일괄 - 시복본 284
제1480호 심환지 초상 288
제1481호 김유 초상 292
제1489호 박유명 초상 294
제1511호 국조정토록 296
제1512호 20공신회맹축 - 영국공신녹훈후 298
제1513호 20공신회맹축 - 보사공신녹훈후 300
제1514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상1의1 302
제1515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2 10 304
제1521호 경국대전 권3 308
제1532호 여주 효종 영릉재실 312
제1535호 숙빈최씨 소령원도 314
제1536호 월중도 318
제1573호 청자 양각연판문 접시 322
제1577호 증급유방 324
제1579호 초조본 성지세다라니경 326
제1597호 아국여지도 328
제1598호 함경도·경기도·강원도 지도 332
제1622호 서거정 필적 336
제1627호 인목왕후 어필 칠언시 338
제1630호 숙종어필칠언시 340
제1631-1호 영조어필-숙빈최씨사우제문원고 342
제1631-2호 영조어필-숙빈최씨소령묘갈문원고 344
제1631-3호 영조어필-읍궁진장첩 346
제1632-3호 정조어필-시국제입장제생 348
제1658호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42 350
제1668호 이지정 초서 취영구절 352
제1669호 조문수 필적 위심수재서 354
제1672-1호 송준길 행초 동춘당필적 356
제1673호 이하진 필적 천금물전 358
제1674호 박세당 필적 서계유묵 362
제1675호 박태유 필적 백석유묵첩 366
제1680호 강세황 행초 표암유채 368
제1708호 반야심경소현정기(언해) 370
제1709호 수원 방화수류정 372
제1710호 수원 서북공심돈 376
제1724호 박사익 초상 380
제1728호 허전 초상 382
제1741호 구리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 384
제1742호 구리 동구릉 숭릉 정자각 386
제1743호 구리 동구릉 목릉 정자각 388
제1754호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 390
제1756호 김응남 호성공신교서 및 관련 고문서 394
제1781호 대혜원명 동종 396
제1789호 안성 청룡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398
제1790호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 400
제1791호 여주 신륵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402
제1792호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404
제1793호 가평 현등사 동종 406
제1794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9 408
제1795호 안성 청원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복장전적 410
제1796호 정선필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 화첩 412
제1798호 남양주 흥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16나한상 일괄 416
제1803호 구리 태조 건원릉 신도비 420
제1808호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422
제1830호 분청사기 상감 '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 424
제1897호 서경우 초상 및 함 426
제1898호 서문중 초상 및 함 428
제1901-2호 조선왕조의궤 430
제1924호 조선경국전 436
제1926호 협주명현십초시 440
제1927호 박동형 초상 및 함 442
제1942호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444
제2003호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 446

3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452
제11-2호	평택농악	458
제22호	매듭장	462
제27호	승무	466
제57호	경기민요	470
제58호	줄타기	474
제70호	양주소놀이굿	478
제92호	태평무	480
제98호	경기도도당굿	482
제118호	불화장	484
제120호	석장	488

4
국가민속문화재

제1호	덕온공주 당의	494
제2호	심동신 금관조복	496
제114호	과천 출토 광주이씨 의복	500
제123호	수원 광주이씨 고택	504
제124호	화성 정시영 고택	506
제125호	화성 정수영 고택	510
제126호	여주 보통리 고택	512
제127호	이천 어재연 고택	514
제128호	양주 매곡리 고택	516
제129호	남양주 동관댁	518
제130호	남양주 궁집	520
제209호	김함의 묘 출토의복	524
제210호	고종의 누비저고리	528
제211호	덕온공주 의복	530
제212호	덕온공주 유물	534
제213호	항아당의	540
제214호	흥선대원군 자적 단령	542
제215호	광해군비 당의	544
제216호	윤용구 유물	546
제243호	이언충 묘 출토복식	550
제276호	의원군 이혁 일가 묘 출토유물	554
제283호	옥동금	558



1

국보

국보 제4호

여주 고달사지 승탑

驪州 高達寺址 僧塔

고려시대
1기
높이 3.4m
석재(화강암)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4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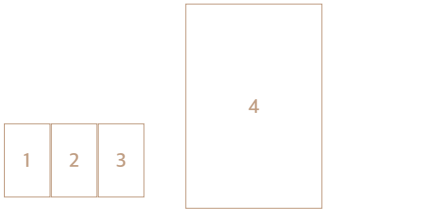
지정일 : 1962.12.20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여주시

<여주 고달사지 승탑>은 고달사高達寺 터에 남아 있는 고려시대의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 승탑이며 고달사 터의 서쪽 산 중턱에 위치한다. 고달사는 고려시대 대표적인 선종사원이며, 764년(경덕왕23)에 창건된 절로, 고려 광종 이후에는 왕실의 보호를 받아 큰 사찰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기도 하였으나, 조선시대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1950년대에 도굴범들에 의해 파손된 옥개석과 토사의 유출로 인해 매몰되어 있던 지대석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건립 당시의 배면背面 석축과 더불어 배례석, 8각형의 석재가 확인되었다. 1979년에 이르러 옥개석에 대한 접합공사가 이루어진 후 보존되다가, 2002년 도굴범에 의해 귀꽃의 일부와 상륜부재가 파손된 것을 그해 8월에 정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여주 고달사지 승탑의 기단은 판석으로 짜인 8각 지대석 위에 2단의 받침을 조각한 후 하대석·중대석·상대석을 차례로 놓았다.

하나의 돌로 조성된 하대석은 2단으로 구성되었는데, 하단석의 각 면에는 가늘고 긴 안상을 2구씩 음각하였고, 각 안상의 중심에는 귀꽃을 1구씩 새겼다. 측면 상단에는 갑석을 돌리고 그 윗면에는 각 변과 여덟 모서리에 1판씩 16판의 복엽 복련문覆蓮紋을 조각하였다. 복련문 위로는 얕은 1단의 받침을 조각하여 중대석을 받치고 있다.



1. 여주 고달사지 승탑, 일제강점기_ 국립중앙박물관
2. 여주 고달사지 승탑, 1968_ 경기도
3. 여주 고달사지 승탑, 1982_ 여주시
4. 여주 고달사지 승탑,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조각이 화려한 중대석은 8각이라기보다는 거의 원을 이루고 있다. 거북을 중심으로 4마리의 용을 전체면적에 새기고, 나머지 공간에 구름무늬를 가득 채워 조각하였다. 거북 머리의 굵은 눈썹, 똑바로 뜬 커다란 눈, 이빨을 드러낸 커다란 입 등에서 고려초기의 조형물에 나타나는 강건하고 웅장한 기풍을 엿볼 수 있다. 머리 아래로는 U자형의 인갑문이 새겨진 목과 앞으로 살짝 들어 올린 가슴, 5조의 발가락과 발톱이 선명히 새겨진 발이 표현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양발을 딛고 가슴을 들어 올리는 형상이다.

용머리는 중앙에 배치된 화염보주火焰寶株를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민 발이 보주를 받치고 있다. 네 마리의 용은 모두 몸체에 비해 머리가 크게 조각되었는데, 각 부의 표현이 섬세할 뿐만 아니라 웅장하고 세련된 기법을 보이고 있다. 중대석의 상·하단에는 1단의 갑석 받침을 팔각으로 돌려서 각각 하대석과 상대석의 부재에 맞게 하였다.

조성된 상대석은 팔각형으로 하면에는 1단의 받침을 각출하였다. 흥법사지 염거화상탑(844년) 이래 조성된 승탑은 대부분 상대석 하면의 받침이 중대석 상단보다 더 넓은 것에 비하여, 이 승탑은 반대로 훨씬 좁은 것이 특징이다. 측면에는 복엽 8판의 앙련仰蓮을 조각했는데, 넓고 부드럽게 조성된 꽃잎은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더해준다. 상단에는 갑석을 돌리고 그 위에 각호각형 3단의 받침을 조각해 탑신석을 받치고 있다.

탑신에는 각 면 모퉁이에는 우주를 모각하고 문비형門扉形과 사천왕상·영창映窓 등을 조각하였다. 문비형은 비교적 굵은 선으로 장방형의 외곽을 구성한 후 내부에 자물통을 양각하였는데, 탑신에 비해 작게 조성되었다. 영창은 장방형의 액額 내에 세로 방향의 창살을 묘사했는데, 이 역시 탑신에 비해 작게 표현되었다. 사천왕상은 문비형 좌·우에 각각 1구씩 조각했다. 각 상像은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형상으로 원형의 두광을 두고 있으며, 발아래에는 악귀를 밟고 있는 모습이다. 전체적으로는 몸이 옆으로 약간 튼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갑옷의 옷주름은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옥개석은 평면 8각으로 아랫면에는 낮고 널찍한 받침을 조각하여 탑신석 상단부와 맞게 하였다. 낙수면은 석탑 옥개형으로 낙수면의 합각선이 뚜렷하다. 모서리 전각에는 큼직한 귀꽃을 조각하였으며, 옥개석의 밑면에는 비천상飛天像을 조각하였다. 귀꽃은 다른 승탑 옥개석의 귀꽃보다 높은 편이나 표면에 나타난 조각은 다소 가늘어 보인다. 비천상은 신체가 풍만하게 표현되어 날렵한 인상을 주지는 못하지만, 유려하게 날리는 천의자락에서 역동적인 자태를 느낄 수 있다.

옥개석의 정상에는 복련대覆蓮臺를 돌리고 상륜부를 받치도록 하였는데, 복발과 보개석만 남아있다. 복발의 중앙에는 2조의 선문線紋을 돌렸고, 보개의 하면에는 복엽 8판의 앙련을 조각했는데, 전체적인 형상은 옥개석과 비슷하다. 보개석 상면에는 찰주擦柱를 꽂기 위한 원공圓孔이 관통되어 있다.

여주 고달사지 승탑은 기단부·상륜부·탑신부를 모두 갖춘 전형적인 팔각원당형 석조승탑으로 건립연대나 주인공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제된 조형과 세련된 조각수법으로 미루어보아 고려초기 석조승탑의 양식을 대표할 수 있는 걸작이다.

1 2 3

1. 여주 고달사지 승탑 중대석,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여주 고달사지 승탑 탑신,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여주 고달사지 승탑, 상륜부,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국보 제120호

용주사 동종

龍珠寺 銅鍾

고려시대
1구
총높이 145㎝, 종신높이 111.6㎝, 입지름 87.8㎝, 중량 827kg
금속(청동)
화성시 용주로 136

지정일 : 1964.03.30
소유자 : 용주사(사유)
관리자 : 용주사



1

2

1. 용주사 동종 전경, 1972_ 화성시
2. 용주사 동종,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용주사 동종>은 신라 동종의 양식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고려시대 범종이다. 용뉴龍鈕는 단용單龍과 음통音筒으로 고리를 형성하는 전형적인 신라종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용은 크게 벌린 입에 둥근 여의주를 물고 둥근 눈을 치켜뜬 채 전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몸통의 동세는 ∩형으로 신라종의 전형을 따랐으며, 등에는 톱니모양의 기기奇技가 돋아있다. 왼발은 앞을 향해 위로 쳐든 모습이며, 오른발은 뒤로 벌려 날카로운 발톱을 천판에 딛고 있다.

음통은 연주문聯珠紋을 돌려서 6단으로 구분하고 넝쿨무늬와 크고 작은 연꽃무늬를 장식하였는데, 연판은 원형, 반원형, 타원형 등 여러 형태이다.

종신은 높이와 구경의 비례가 적당하여 안정된 균형을 보여준다. 상대는 섬세한 연주문대를 상하로 돌려 구획한 뒤 그 내부에 반원권半圓圈문양을 상하 엇갈리게 장식하고 그 사이사이에 덩굴무늬를 장식하였다. 하대는 상하로 큰 연주대와 작은 연주대를 2중으로 장식하고, 그 내부에 만개한 평화문平花紋을 감싸듯이 휘감아 돌아가는 덩굴무늬를 새겼다.

종신 상부에는 네방향에 연주문을 돌리고 내부에 당초문을 선각線刻한 연곽대를 구획하고, 내부에 줄기와 이파리로 구성된 덩굴무늬로 장식되었다. 연곽의 내부에는 9개씩 모두 36개의 연뢰형 돌기를 배치하였다. 연곽사이 공간에는 2구의 비천상飛天像과 2구의 삼존상을 교대로 배치하였다. 비천상은 천의를 휘날리며 구름 위를 날고 있는 모습이고, 삼존상은 결가부좌結跏趺坐한 채 천의를 휘날리며 승천하는 모습이다.

연곽 아래에 각각 1개씩 모두 4구의 원형 당좌가 장식되어 있는데, 연화를 주문양으로, 그 둘레에 연주문대과 당초문으로 돌린 다음 다시 연주문을 돌렸다. 이 종은 주성할 당시에는 명문이 새겨지지 않았으나, 몸체 두 곳에 후대에 새긴 갈양사의 초창기 당시인 854년(신라 문성왕 16)에 주성되었음을 밝히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 '成皇山葛陽寺梵鍾一口釋般若鑄成二萬五千斤今上十六年九月日沙門廉居(성거산 갈양사 범종 1구를 반야스님이 2만5천근으로 주성하다. 금상 16년 9월일 사문 염거)', '緣起成皇山之後身花山葛陽寺之後身龍珠寺新羅文聖王十六年五月□建同時鑄比梵鍾佛紀二千九百五十年七月住持釋居大蓮記(성황산의 후신 화산 갈양사의 후신 용주사 신라 문성왕 16년5월일에 창건과 동시 이 범종을 주성하다. 불기 2천9백5십년 7월 주지 석거 대연기록)'

명문상의 2950년은 구불기舊佛紀로서 A.D.1923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기록은 1923년에 당시 주지 대연에 의하여 임의로 추정한 주성연대를 새긴 것임을 알 수 있다.

용주사 동종은 고려전기에 제작된 성거산 천흥사명 동종(국보 제280호)과 유사하며,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장식요소를 가지고 있어 고려전기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보 제244호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17

初雕本 瑜伽師地論 卷十七

고려시대
1권 1축
세로 28.5㎝, 가로 1194.2㎝
종이(닥종이)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지정일 : 1988.12.28
소유자 : 명지학원(사유)
관리자 : 명지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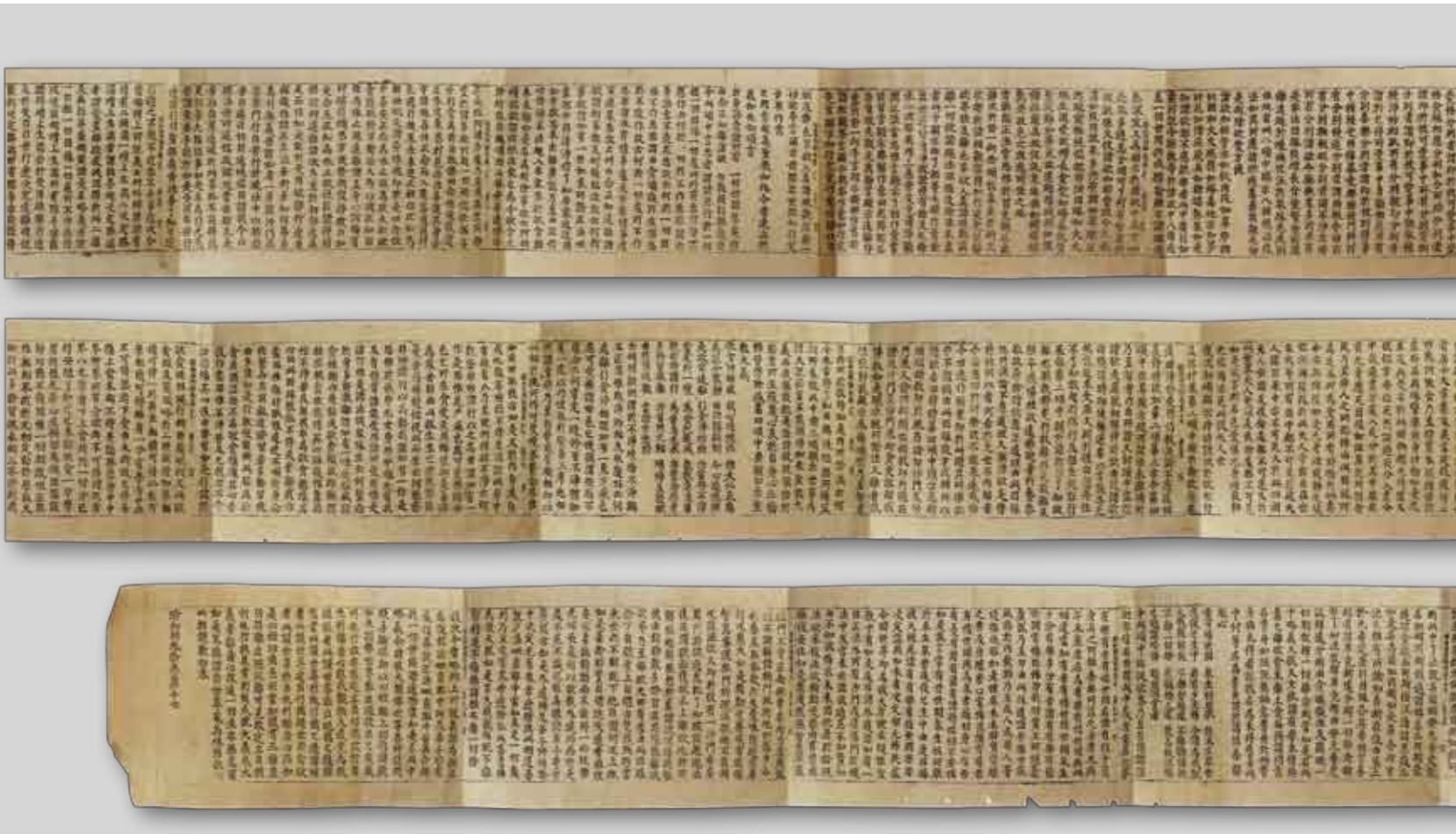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17>은 유가행파瑜伽行派의 기본적인 논서論書인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100권 중 17권에 해당한다. 유가사지론은 당나라 현장玄奘(602~664)이 646~648년에 100권으로 한역하였으며, 한역본漢譯本에서는 미륵彌勒이 저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티베트본에는 무착無着이 지었다고 전한다.

『유가사지론』은 고려 현종(1011~1031) 때 거란의 침입을 극복하고자 조성한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 중 하나로 이 책은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간행한 『유가사지론』 100권 중 권17에 해당하는 1권 1책이다.

제책은 두루마리인 권자장卷子裝이며, 표지는 쪽물로 염색한 감지紺紙를 사용하였다. 천자문으로 함의 순서를 적은 함차函次는 습함習函에 해당한다. 장수張數의 표시는 해인사 대장경에서 확인되는 '장張'자와는 달리 '장丈'자로 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본문의 행과 글자 수는 23행 14자이다.

본문의 여러 부분에서는 송나라 태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인 '은殷'자와 '경敬'자가 각각 결획缺劃되어 있다.

현존하는 초조대장경 중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감색표지, 지질紙質, 각자刻字, 묵색墨色 등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현양성교론顯揚聖教論』 권11(국보 제243호)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11세기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17, 2003_ 문화재청



국보 제248호

조선방역지도

朝鮮方域之圖

조선시대
1폭
세로 132㎝, 가로 61㎝
종이
과천시 교육원로 86

지정일 : 1989.08.0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방역지도>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전도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 유출되어 대마도 소가宗家에 소장되어 있던 것을 1930년대 조선사편수회에서 조선사 편수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입수하였으며, 현재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1463년(세조9)에 정척鄭陟(1390~1475)과 양성지梁誠之(1415~1482)가 만든 『동국지도東國地圖』 계통의 지도로 상단·중단·하단의 3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계회축契會軸 형식을 따르고 있다. 지도의 상단에 제목이 있고 중단에는 지도가, 하단에는 지도 제작에 관련된 사람들의 관등·성명을 기록한 좌목座目이 있다. 좌목에 의하면 책임 제작자는 이이李瀷(1497~?), 안사웅安士雄(1505~1592) 등 12명인데 대부분 궁중에서 진상품을 관할하던 제용감濟用監과 관련되는 사람들이어서 제용감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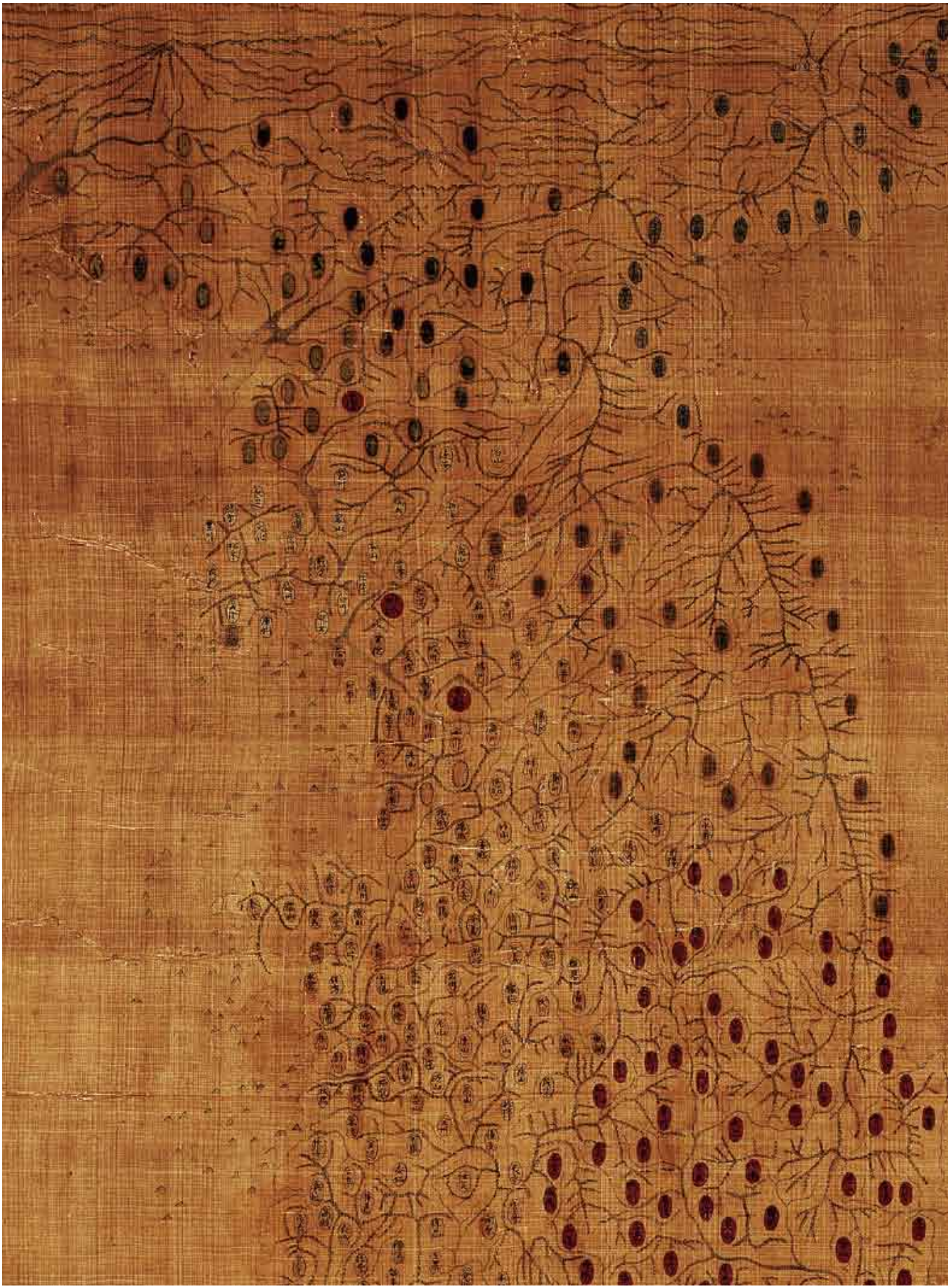
제작연대는 충주忠州가 유신惟新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충주목이 유신현으로 강등된 1549년(명종4)부터 1567년(명종22)까지 19년간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좌목에 나타난 인물들의 관등·성명을 살펴보면 1557년 또는 1558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조선방역지도는 현재의 우리나라 전도와 윤곽이 비슷하나 북쪽으로는 만주지역을 포함하고, 남쪽으로는 대마도를 제주도와 대칭을 이루게 표현하여 우리영토로 명기하고 있어 조선 초기의 영토의식을 엿볼 수 있다. 지도는 타원형 안에 조선팔도의 주현州縣과 수영水營 및 병영兵營을 기입하였다. 타원형은 도별로 색을 달리 하는데 경기도는 주황색, 충청도는 황색, 강원도는 연녹색, 황해도는 연백색, 경상도는 적색, 전라도는 백색, 함경도는 청색, 평안도는 녹색으로 표시하였다. 만주지방에는 흑룡강과 송화강이 상징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산계山界와 하계河界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 지도는 1402년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에 나타나는 이회李回의 『팔도지도八道地圖』보다 두만강을 비롯한 북동부 지방이 많이 수정되어 있다. 즉, 『팔도지도』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나 이 지도에서는 두만강이 하류에서 남류하고 있음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조선방역지도는 제작자와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조선전기의 작품으로서 조선전기 지도제작의 수준 및 형식을 가늠하는 자료이자, 이와 유사한 다른 지도의 제작연대를 밝히는 데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조선방역지도, 2008_ 국사편찬위원회



국보 제256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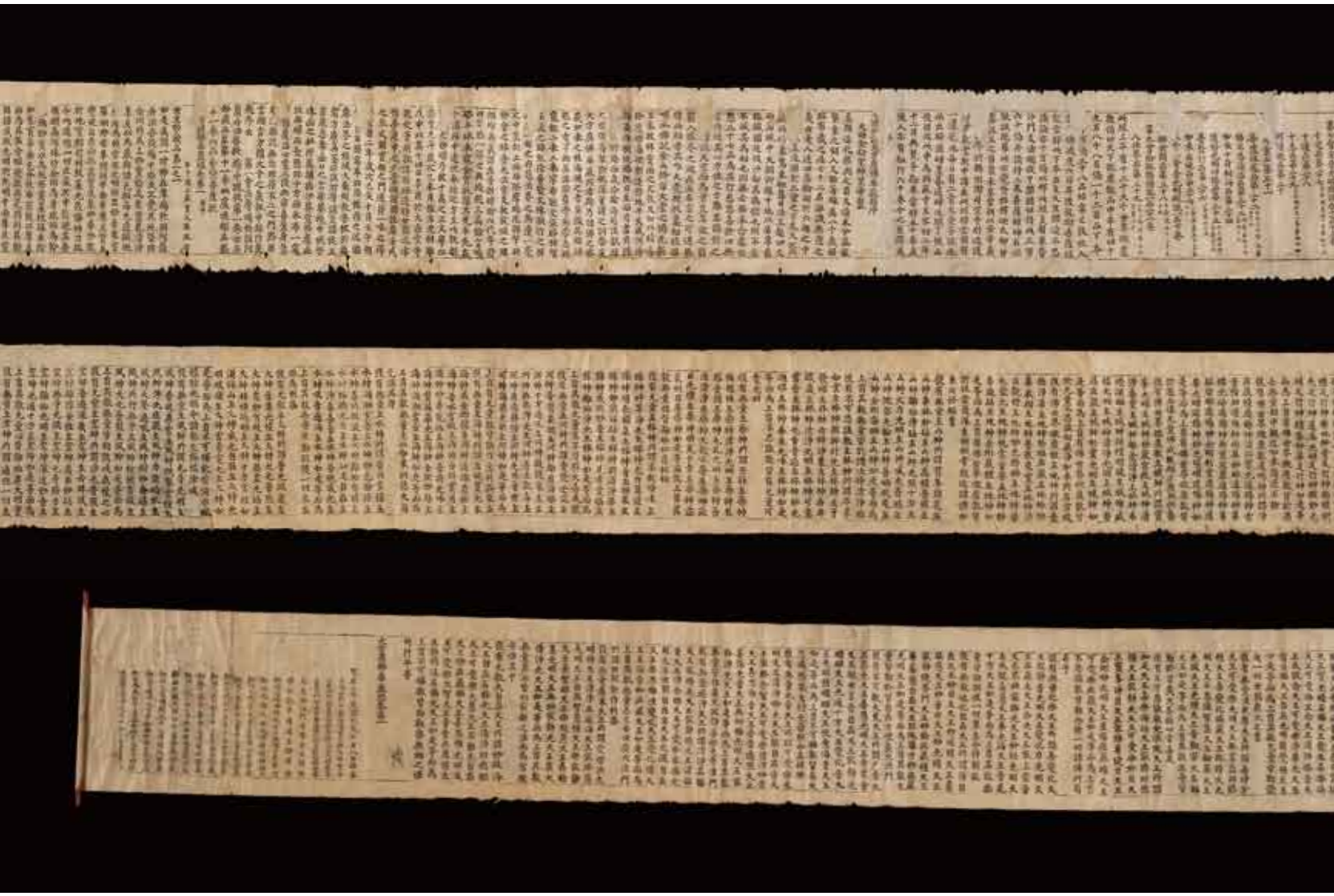
고려시대
1권 1축
세로 28.7㎝, 가로 1223.5㎝
종이(닥종이)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1990.09.20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은 당나라의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화엄경』 80권 가운데 제1권이다. 『대방광불화엄경』은 줄여서 『화엄경』이라 부르기도 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기본사상에 근거하여 부처가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正覺을 이루고 7처 9회에서 깨달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책은 고려시대 목판본으로 현종 때(재위 1011~1031)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의 침입을 극복하고자 만든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 가운데 하나로 제작되었다. 80화엄경 전체 39품 가운데 서문에 해당하는 세주묘엄품世主妙嚴品 첫 번째 권으로 '부처가 이 세상에 나옴으로서 모든 중생들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화목을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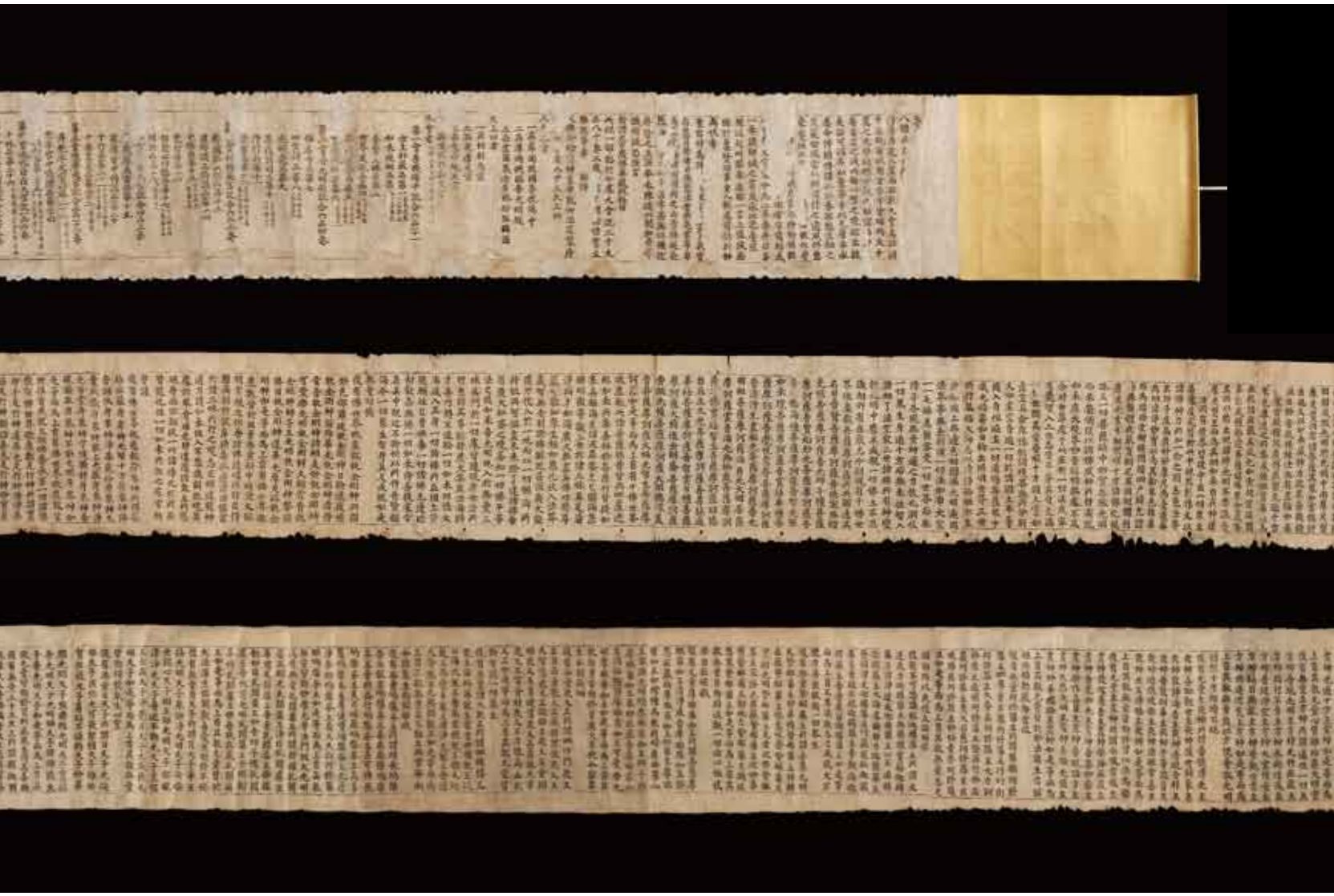
권수는 홍경弘景 등의 표전문表箋文으로 시작하여 새롭게 번역한 80화엄경의 총목차가 7처處 9회會순으로 39품명과 80권차가 수록되고, 이어서 천책금륜성신황제天冊金輪聖神皇帝(측천무후)의 서문, 그리고 제1권의 세주묘엄품이 시작되고 있다.



권말에는 '聖曆二年歲次乙亥 十月八日譯畢'이라는 기록이 있어 699년 10월 8일에 번역을 완료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어 석범본자釋梵本者·역어자譯語者·필수자筆受者·증의자證義者 등 역경에 참여한 승려의 소속과 역할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이후에 만들어진 해인사대장경(재조대장경 또는 고려대장경)과 비교해 볼 때 '敬(경)'자의 한 획이 빠져있는 점, 각 장의 글자 수가 23행 14자로 해인사대장경의 24행 17자와 다른 점, 책의 장수 표시로 '丈(장)'자를 쓰고 있는 점, 간행기록이 없는 점 등에서 초조대장경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초조대장경의 주본화엄경은 총 80권 중 권29(국보 제257호), 권13(국보 제265호), 권74(국보 제279호), 권75(국보 제266호) 등이 국내에서 발견되었으나, 제1권은 이 책이 유일본으로서 초조대장경 판본의 원형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 2007_ 경기도박물관



국보 제262호

백자 달항아리

白磁 壺

조선시대
1점
높이 49.0㎝, 아가리 지름 20.1㎝, 밑 지름 15.7㎝
흙(자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지정일 : 1991.01.25
소유자 : 우학문화재단(사유)
관리자 : 용인대학교

<백자 달항아리>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커다란 백자 항아리이다. 전체적인 모양이 둥글고 유백색乳白色을 띄는 모습이 둥근 달을 연상하게 하여 일명 '달항아리'라고 불린다.

달항아리의 짧은 아가리는 예각을 이루면서 꺾여있고, 아가리의 아랫부분부터는 목이 따로 없이 큰 곡선을 그리면서 벌어지다가, 몸체 중앙의 접합부를 지나면서 다시 좁아져, 아가리의 지름보다 짧은 굽에 이른다. 비슷한 크기의 아가리와 수직의 굽이 조화를 이루며 풍만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백자 달항아리와 같이 큰 규모의 항아리는 형태를 만들거나 구워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물레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따로 만든 후, 두 부분을 접합시켜 완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백자 달항아리의 몸체 중간 부분에는 이러한 성형 방식에 따른 이음 자국이 남아 있으며, 좌우대칭이 완벽하기 보다는 부정형의 둥근 형태를 보이고 있다. 유색은 엷은 청색을 띄는 유백색으로 내·외면에 고르게 시유되었으며, 굽 밑바닥에는 모래받침 자국이 남아있다.

편년을 판단할 수 있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항아리의 기형과 적용된 기법 등을 미루어보았을 때 18세기 전반 경기도 광주 일대에 위치했던 사옹원司饔院 분원分院에서 왕실 및 관청의 생활용 항아리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의 둥근 항아리는 17세기 말경부터 18세기 중엽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을 조형적으로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시기의 항아리는 그 수도 많고 걸작도 많지만 이 달항아리는 이때까지 발견된 것 중 비교적 큰 규모로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형태가 시원하고 당당하여 이 무렵의 대표적인 백자 달항아리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백자 달항아리, 2016_ 우학문화재단



국보 제263호

백자 청화산수화조문 항아리

白磁 靑畵山水花鳥文 立壺

조선시대
1점
높이 54.8㎝, 아가리지름 19.2㎝, 밑지름 18.0㎝
흙(자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지정일 : 1991.01.25
소유자 : 우학문화재단(사유)
관리자 : 용인대학교

<백자 청화산수화조문 항아리>는 조선후기에 제작된 대형 항아리이다. 아가리 부분은 수직으로 낮고, 아가리 아랫부분에서부터 서서히 몸체가 벌어지면서 어깨부분에 이르러 가장 크게 팽배되었다가 다시 급히 좁아져 아가리의 지름(19.2㎝)과 굽의 지름(18㎝)이 거의 비슷해진다. 몸체의 내면에는 물레자국이 보이며, 내·외면 중간에는 상·하부를 따로 만들어 접합시킨 흔적이 있다. 굽은 안으로 파여져 있으며 바닥과 닿는 부분에는 굵은 모래를 받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유약釉藥은 투명하고 광택이 좋은 백자유로 전면에 고르게 시유施釉되었고, 표면의 색조는 옅은 회백색灰白色이며 빙렬氷裂은 없다.

백자 청화산수화조문 항아리의 아가리에는 양식화된 넝쿨무늬 띠가 둘러져 있고, 어깨부분에는 여의두문如意頭紋과 변형된 연판문蓮瓣紋이 번갈아 시문된 문양대가 있으며, 아래에는 안상문眼象紋이 있는 띠가 둘러져 있다.

몸체에는 청화선靑華線으로 네 개의 호弧를 연결시켜 만든 능형菱形의 화창花窓을 네 면에 큼직하게 그린 다음, 그 속에 봉황모란도鳳凰牧丹圖, 쌍학매화초도雙鶴梅花草圖와 소상팔경瀟湘八景의 동정추월도洞庭秋月圖, 어촌석조도漁村夕照圖의 모습을 각각 그려 넣었다.



봉황모란도는 괴석을 중심으로 한 쌍의 봉황이 그려져 있고, 주위로 모란이 피어 있는 모습이다. 공작과 비슷한 꼬리를 가진 수컷 봉황은 전면에 부각되어 괴석 옆에 서 있고, 도식적인 넝쿨무늬의 꼬리를 가진 암컷 봉황은 괴석 위에 앉아 있다.

쌍학매화초도는 화분의 받침대와 화분에 놓인 괴석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매화, 왼쪽에는 패랭이꽃이 그려져 있다. 한 쌍의 학 중 한 마리는 화분받침대 위에 한 다리로만 서 있고, 또 한 마리는 위쪽의 공중에서 날아오는 자세이다.

봉황모란도와 쌍학매화초도를 그린 필선은 매우 가늘게 깃털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다. 능형의 화창 사이사이에는 도안화된 '富'자를 넣은 사다리꼴의 화창이 있으며, 그 위아래로는 길상의 의미를 가진 '壽'자와 '疆'자가 들어 있는 둥근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동정추월도는 근경에 돛대와 나뭇가지 일부분을, 중경에 절벽 위의 누각과 간략히 그려진 성곽, 배를 타고 있는 네 명의 사람들, 호수에 비친 일그러진 달을, 원경에 안개 속에 떠 있는 듯 한 뾰족한 봉우리와 달무리 진 달을 그렸다.

어촌석조도는 근경에 누각과 한 척의 배, 도롱이를 입은 사람, 나무가 서있는 낮은 언덕을, 중경에는 강안의 좌우를 잇는 다리, 뒷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원경에는 산이 횡으로 길게 그려져 있다. 두 곳 모두 삼단구도와 사선구도로 화창이라는 좁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짜임새 있게 배치하였다.

이 항아리의 편년을 판단할 수 있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기형과 시문되어 있는 문양 등으로 미루어보아 18세기 중·후반 경에 경기도 광주 관요官窯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백자 청화산수화조문 항아리는 당당한 양감을 지닌 모습도 빼어날 뿐 아니라, 청화로 그려진 화창 내의 사실적인 문양이나 종속된 각종 장식문양들도 보기 드물게 우수하고 다양하여, 이 무렵의 대표적인 백자항아리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1. 백자 청화산수화조문 항아리 봉황모란도, 2016_ 우학문화재단
2. 쌍학매화초도, 2016_ 우학문화재단
3. 동정추월도, 2016_ 우학문화재단
4. 어촌석조도, 2016_ 우학문화재단



국보 제283호

통감속편
通鑑續編

조선시대(1422년)
24권 6책 활자본(180면)
가로 18.3㎝, 세로 29.2㎝
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1995.03.10
소유자 : 손성훈(사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통감속편>은 중국 원나라 말과 명나라 초 사이 『자치통감資治通鑑』과 『강목綱目』의 미흡함을 보충하여 진경陳桱이 편찬한 편년체의 역사서이다. 1361년 원나라에서 간행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1422년(세종4) 당시 새로 만들어진 금속활자인 경자자庚子字로 간행되었다.

목차를 살펴보면 총 24권 6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1은 중국 고대의 반고씨盤古氏부터 고신씨高辛氏까지, 권2는 거란契丹에서 오대五代까지, 권3부터 권24까지는 송나라 태조太祖에서 상흥祥興 2년(1279)까지 역대왕조의 사적事蹟이 수록되어 있다.

서지사항으로는 흑구黑口, 사주쌍변四周雙邊에 반곽半郭이 세로 23.7㎝, 가로 15.5㎝이다.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에 유계有界로 권1에서 권4는 8행 21자이고, 나머지는 권은 11행 21자이다.

권1의 권수에는 1361년 주백기周伯琦(1298~1369)의 서序가 있고, 이어 1358년 진기陳基, 1362년 총계당叢桂堂과 강절姜浙, 1350년 찬자撰者 진경의 서가 있다.

2

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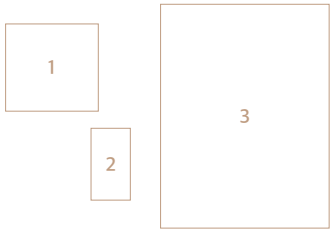
1. 통감속편 표지, 2003_ 문화재청
2. 진경의 서문, 2003_ 문화재청
3. 1책 목록, 2003_ 문화재청




余讀歷代史輯事之大者爲筆記百卷
之曰子之志勤矣然周威烈王而下至于宋
與其取舍之審有逾于司馬公資治通鑑者
乎況宋子綱目筆削之愼耶游而至于唐堯
則金先生前編方爲世所重子書無乃複乎
余曰吾備吾緒閱而已豈覬與諸書並傳哉
雖然盤古至高辛傳疑之言近理有徵者
可不知也契丹因俗纂華其國所
不存也宋三百年之治亂興亡
要觀者思約而來得也吾不易
義彷彿通鑑而規模網目述近理而刪繁辭
使志學之士開卷而上下數千年之事得以
簡見可乎曰此則是也乃取筆記盤古至高
辛爲通鑑世編一卷唐天復至周亡遼晏初
事爲通鑑外編一卷宋有國至
大元爲通鑑新編廿二卷總之爲廿四卷合
名曰通鑑續編惟其不敢取前編綱目二書
以入其中故於世編之末則舉歷代有國之
先後以見意焉其謂之續者取連續之義耳
若曰續先儒之筆竊褒貶之旨則非知我者
矣至正十年歲在庚寅夏六月甲子四明陳
桱題


通鑑續編目錄
卷第一
盤古氏 至 高辛氏
卷第二
契丹 始唐及五代事
卷第三
庚申 宋太祖建隆元年至 戊寅 宋
凡一十九年
卷第四
宋太宗太平興國四年 己卯 至道三
年 丁酉
凡一十九年
卷第五
宋真宗咸平元年 戊戌 至
乾興元年
凡二十五年
卷第六
宋仁宗天聖元年 癸亥 至 慶曆三年 癸
凡二十一年
卷第七
宋仁宗慶曆四年 甲申
英宗治平四
年 丁未
凡二十四年
卷第八





1. 1책 권말 변계량의 발문, 2003_ 문화재청
2. 2책 뒷 표지 내면의 '송첨' 묵서, 2003_ 문화재청
3. 1책 권수 주백기의 서문, 2003_ 문화재청

권1의 권말에는 1422년(세종4) 변계량卞季良(1369~1430)이 지은 발문이 있어 간행경위 및 시기를 알 수 있는데, 이 발문에 의하면 이 책은 1420년(세종2) 11월에 왕이 이천李蕆, 남급南汲, 김익정金益精, 정초鄭招 등에게 명하여 만들어진 경자자로 인쇄된 경자자본이며 1422년에 간행되었고, 서序·목록目錄·서례序例는 조선조 최초의 금속활자인 계미자로 인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각 책의 권수 및 권말에는 '즙희경지緝熙敬止', '눌재訥齋', '국노國老', '경보景寶', 효중孝仲 등의 소장인이 날인되어 있고, 앞·뒤 겉표지 이면에는 '송첨松簷'이란 지기識記가 묵서로 쓰여 있다. 이 중 '즙희경지'는 단종이 왕세자 시절 공부하던 자선당資善堂의 소장인으로 이 책이 본래 자선당 소장본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송첨'은 양동良洞의 별칭이므로 경주 양동마을의 경주 월성 손씨 집안에 소장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책은 본래 월성손씨 종가 서백당에 소장되어 있다가 현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위탁 보관되고 있다. 조선 초기 경자자로 찍은 완질본의 책으로 『통감속편』은 중국사와 서지학, 고인쇄기술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史學尚矣紀事肇於書編年肇於春秋其
類分昉於遷記而歷代則之各有全史書簡
而核春秋正而嚴諸史博而該宋司馬文
公睹諸史之汗漫而有國家者不能以盡
而勸戒也徧紬全帙研覃事實愼擇機要
次年月自周威烈王二十三年訖于五代
成一書名之曰資治通鑑文公子朱

국보 제296호

칠장사오불회괘불탱

七長寺五佛會掛佛幀

조선시대(1628년)
1폭
길이 656㎝, 폭 404㎝
비단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

지정일 : 1997.09.22
소유자 : 칠장사(사유)
관리자 : 칠장사

<칠장사오불회괘불탱>은 1628년(인조6) 화승이었던 법형法炯이 그린 불화이다. 이 괘불탱은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7:2:1의 비율로 구름을 활용하여 공간을 상·중·하단으로 구분하고, 각 분할된 공간마다 도상들을 배치하였다.

상단은 비로자나불·노사나불·석가불·약사불·아미타불을 일컫는 오불五佛과 권속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쪽에는 연판형 광배를 갖춘 지권인을 결한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그 왼쪽에 설법인의 노사나불, 오른쪽에는 항마인의 석가불로 구성된 삼신불을 배치하고, 비로자나불을 축으로 삼신불 사이에는 십대제자十大弟子와 4위의 타방불他方佛을 배치하였다. 아래쪽에는 약사불과 아미타불을 두었고, 약사불의 양쪽에는 일광·월광보살을 협시로 우측에는 약사12신장을 배열하였다. 아미타불의 양쪽에는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협시로 좌측에는 6위의 보살을 배열하였고, 약사불과 아미타불의 사이에는 총 4위의 보살상을, 약사불과 아미타불의 가장자리 아래쪽에는 사천왕상을 각각 2위씩, 위쪽에는 천부상과 금강상을 각각 1위씩 배치하였다. 중단은 수미산과 도솔천궁兜率天宮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수월관음보살과 선재동자善財童子, 오른쪽에는 지장보살과 그의 권속인 도명존자道明尊者와 무독귀왕無毒鬼王, 지옥의 판관 및 선악동자善惡童子 등이 둘러 서 있다. 하단은 미륵보살이 도솔천궁에서 빨리 지상에 강림하기를 염원하는 총 24명의 군상들이 공양물을 받들고 위를 향해 우러러보는 모습을 담고 있다.

칠장사오불회괘불은 불상의 모습에서 보이는 상투 모양의 육계肉髻, 팽창된 둥근 얼굴에 가늘게 뜬 눈과 작은 입, 안정감 있는 신체 등에서는 16세기 전통불화의 영향이 남아있으며, 비로자나불의 연판형 광배의 위쪽 가장자리 양쪽에 살짝 들어간 부분, 장년 및 노년층의 아라한 머리에 붉은 색의 둥근 모양이 부처의 육계처럼 그려진 부분, 패턴화된 구름모양, 변형된 여의두문 같은 의습 표현 등에서는 부분적으로 새로운 모티프들을 구사하여 17~18세기 괘불의 양식의 요소들이 확인된다.

칠장사오불회괘불탱의 화면 가장 아래쪽 중앙 붉은 색 바탕의 화기란에는 제작일시, 발원문, 시주품목 및 시주자, 화연을 맺은 승려들의 소임에 관해 40행에 이르는 글귀가 적혀있다. 발원문에 따르면 칠장사오불회괘불탱은 숭정 원년(1628) 3월 1일에 제작을 시작하여 4월에 완성하였고, '當來龍華會中隨喜等盡同受記者也(다가올 용화회에 함께 기뻐하는 자들은 모두 성불할 것이다)'라고 발원하였다. 괘불탱 등 거대한 크기의 조선 후기 불화는 공동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칠장사오불회괘불탱은 흔치 않은 사례로 17세기 전반 칠장사 권역에서 활동한 화승畵僧인 법형이 단독으로 그린 것이다. 칠장사오불회괘불탱은 당시 유행하던 불교신앙을 집약적으로 표출한 구성, 안정된 형태, 뛰어난 채색기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당대를 대표하는 걸작이다.



❶ 비로자나불
❷ 석가모니불
❸ 노사나불
❹ 아미타불
❺ 약사불
❻ 지장보살
❼ 관음보살
❽ 시방제불
❾ 천개
❿ 건달바
⓫ 야차
⓬ 타방불
⓭ 십대제자
⓮ 아난
⓯ 가섭
⓰ 금강역사
⓱ 약사십이신장
⓲ 사천왕
⓳ 대세지보살
⓴ 관음보살
㉑ 미륵보살
㉒ 일광보살
㉓ 월광보살
㉔ 도명존자
㉕ 무독귀왕
㉖ 수미산과 도솔천상
㉗ 선재동자

칠장사오불회괘불탱, 촬영일미상_ 성보문화재연구원



국보 제319-2호

동의보감

東醫寶鑑

조선시대(1616년)
25권 25책(적상산사고본)
세로 36.6㎝, 가로 22.0㎝
종이(닥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2015.06.22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의보감>은 허준許浚(1539~1615)이 1610년(광해군2)에 조선과 중국에 유통되던 의서와 임상의학적 체험을 통한 치료법을 엮어놓은 우리나라 최고의 한의서韓醫書이다. 1596년(선조29) 왕의 명으로 허준을 비롯한 김응탁金應鐸, 양예수楊禮壽(?~1597), 이명원李命源 등이 의서의 편찬에 착수하였으나 1년 뒤 일어난 정유재란으로 편찬이 중단되었다가 1610년에 이르러서 허준이 완성하였다.

『동의보감』은 목록 2권, 「내경편內景篇」 4권 26조, 「외형편外形篇」 4권 26조, 「잡병편雜病篇」 11권 38조, 「탕액편湯液篇」 3권 17조, 「침구편鍼灸篇」 1권 1조 등 모두 25권 108조목으로 구성되었다. 신체에 관한 내용을 안팎으로 나누어 신체 내부와 관련된 내용을 「내경편」에, 신체 외부와 관련된 내용을 「외형편」에 두고, 신체 관련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병 이론과 구체적인 병 내용은 「잡병편」에 묶었다. 「탕액편」은 가장 주요한 치료수단인 약에 관한 이론과 구체적인 약물에 관한 각종 지식을 실었고, 「침구편」은 또 하나의 치료수단인 침·뜸의 이론과 실재를 다루었다. 전개방식은 내경, 외형, 잡병, 탕액, 침구 등의 5대강大綱을 기준으로 각각 분류한 다음 해당되는 병과 관련된 다양한 학설 및 처방, 병의 증상·진단·예후·예방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동의보감』은 동양의 주요 의학서적 230여종의 내용을 검증하면서 자신이 편집한 맥락에 맞추어 내용을 재해석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본문 내용이 거의 인용문인 것이 특징이며, 참고한 자료의 인용처를 일일이 밝힘으로써 원原 저작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동의보감』은 당시 조선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지에도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중국에서는 1763년 이후 수차례 간행되었으며, 일본에서도 1724년에 교토서림京都書林에서 처음 간행된 이후 1799년에는 오사카서림大坂書林에서 재판본이 간행되는 등 동양의학의 필독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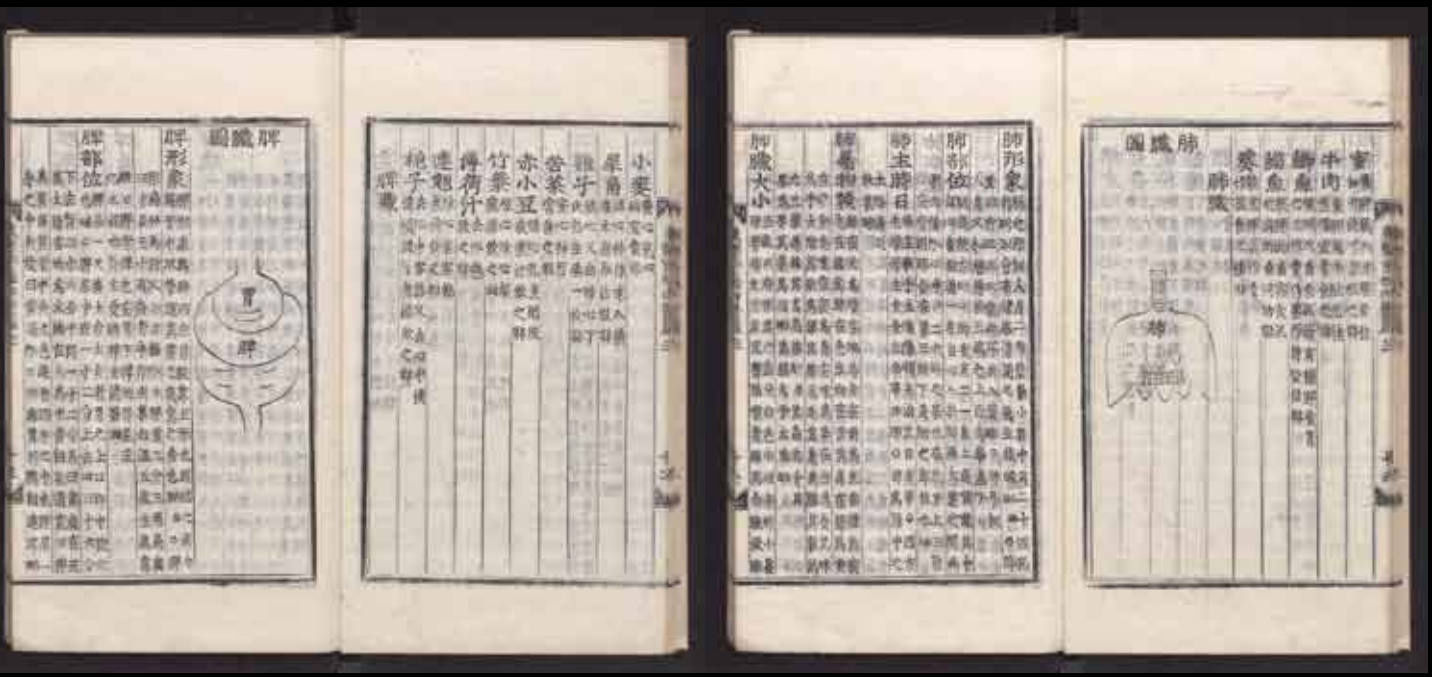
1. 동의보감 1책 목차상, 2013_ 한국학중앙연구원
2. 동의보감 2책 목차하, 2013_ 한국학중앙연구원
3. 동의보감 3책 서문, 2013_ 한국학중앙연구원
4. 동의보감 7책 외형편 권1, 2013_ 한국학중앙연구원
5. 동의보감 3책 내경편 권1「신형장부도」, 2013_ 한국학중앙연구원







泥丸宮
髓海腦
玉枕關
喉
咽
肺
心
膜
膈
脾
胃
小腸
大腸
肝
膽
腎
膀胱
臍
轆轤關
水道
穀道
尾閭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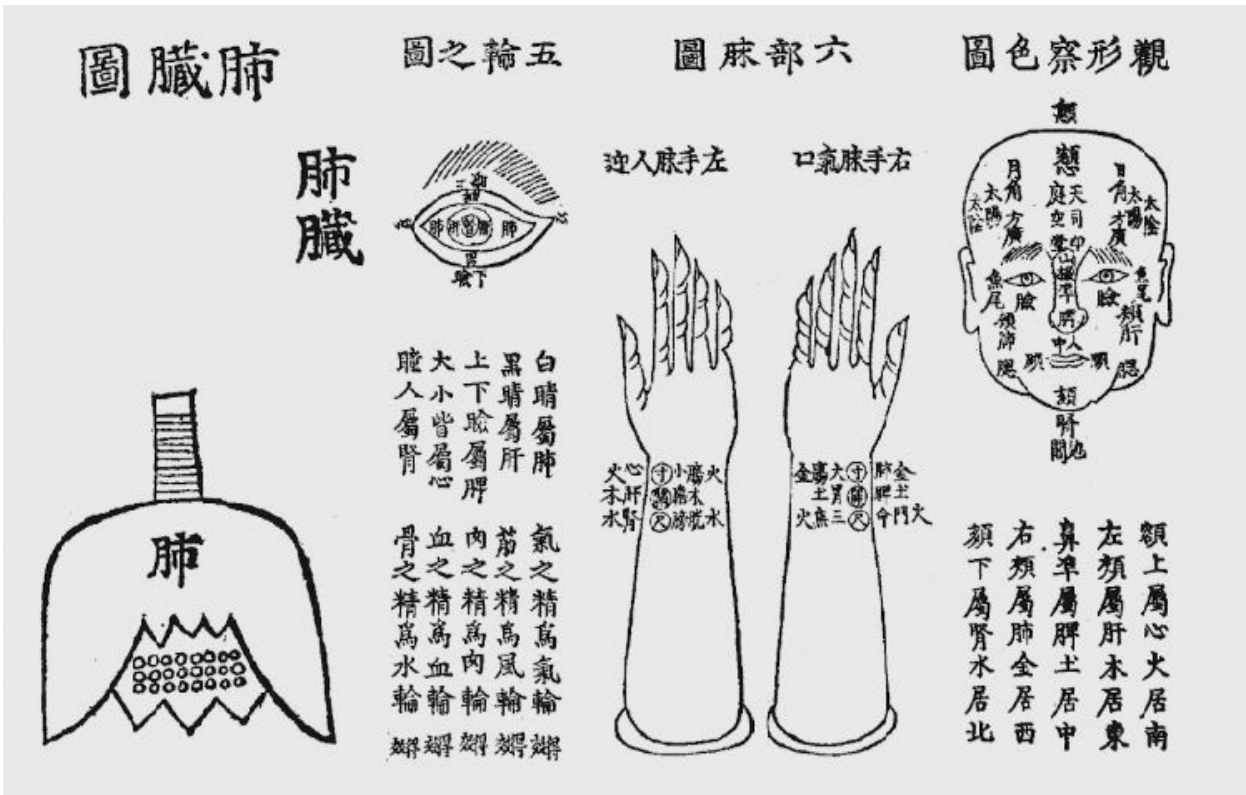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동의보감』은 허준이 직접 쓴 동의보감이 편찬된 지 3년 후인 1613년(광해군5) 11월 내의원에서 간행된 초간본으로, 모두 25권 25책 목활자로 간행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동일본으로 완질을 갖추고 있으며, 내사기內賜記가 결실되기는 했으나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서문의 권두에는 '宣賜之寶(선사지보)'가 찍혀있고, 우측 변란 밖으로 후에 조선총독부에서 찍은 '茂朱赤裳山 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무주적상산 사고소장 조선총독부기증본)'이라는 장방형의 도장이 찍혀 있어 적상산사고赤裳山史庫에 소장되어 있던 어제본御製本임을 알 수 있다.

『동의보감』은 국가가 주도하여 공공의료와 예방 의학의 확립을 선포하기 위해 통치자의 명령으로 편찬이 시작되었다는 점, 동아시아에서 2,000년 동안 창안하고 발전시켜 온 다양한 의학 지식을 단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하여 편찬했다는 점, 전문적이면서도 배우기 쉬운 최초의 의학 서적이라는 점, 양생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예방 의학의 개념을 의학 이론이나 실제에 폭넓게 통합한 의학서로 비견될 만한 것이 없다는 점 등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동양의학서적으로는 최초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	2
3	4
5	6

1·2. 동의보감 5책 내경편 권3 「비장도」·「폐장도」, 2013_ 한국학중앙연구원
3·4. 동의보감 7책 외형편 권1 「명당부위」·「팔곽지도」·「오륜지도」, 2013_ 한국학중앙연구원
5. 동의보감 11책 잡병편 권1 「오행성쇠도」, 2013_ 한국학중앙연구원
6. 동의보감 21책 잡병편 권11 「관형찰색도」·「삼관도」, 2013_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보 제320호

월인천강지곡 권상

月印千江之曲 卷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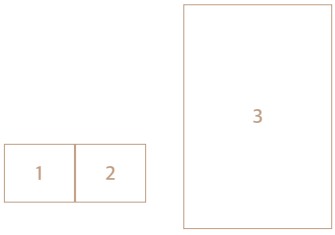
조선시대(1447년)
1책(71장)
세로 30.9㎝, 가로 20.5㎝
종이(닥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2017.01.02
소유자 : ㈜미래엔(사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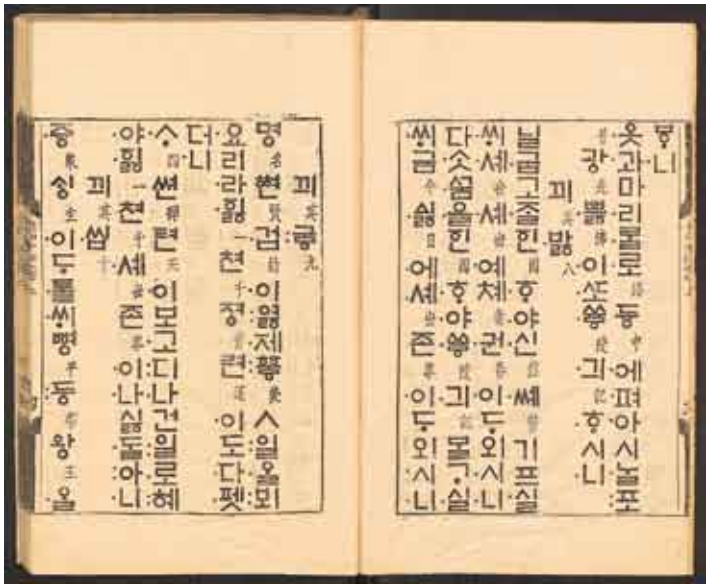
<월인천강지곡>은 조선초기인 1447년 세종이 그의 아내인 소헌왕후의 공덕을 빌기 위하여 석가의 공덕을 칭송하여 악장 형식으로 지은 찬불가이다. 본래 상·중·하 3권이 완질이지만, 현재 상권 1책과 중권의 낙장落張 만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석보상절』에 끼어 전할 뿐이다. 『월인천강지곡』은 『석보상절釋譜詳節』과 함께 합편되어 『월인석보月印釋譜』로 간행되었기 때문에 『월인석보』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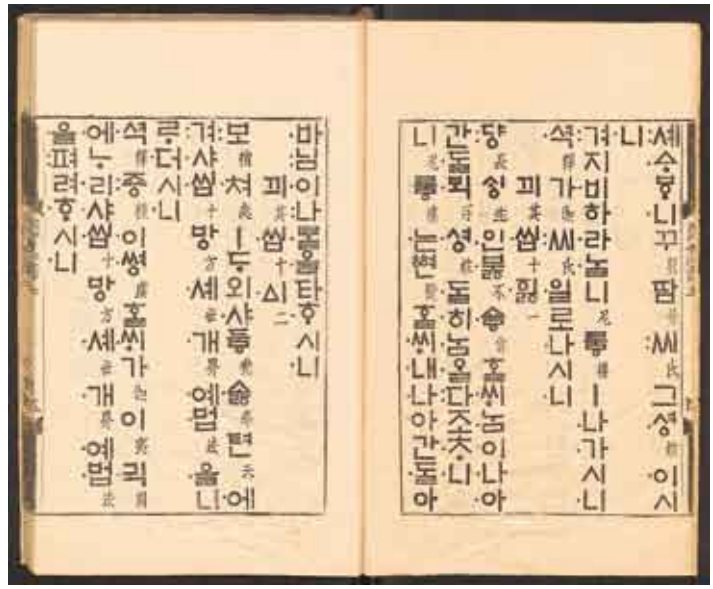
『월인천강지곡』은 석가의 전생부터 도솔천에 하강한 뒤 왕자로서의 삶과 성장, 화려한 결혼생활과 인생에 대한 번민, 출가와 수도, 중생의 교화와 제도, 열반, 열반 후에도 계속되는 신중들의 믿음까지 전 생애를 소설적인 서사구조로 풀어내고 있다. 권상에 실린 노래가 모두 194곡이므로 전체로는 모두 580여 곡의 노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월인석보』에 실린 노래까지 합하면 모두 약 440곡 정도가 알려져 있다.

1459년 7월에 작성된 『월인석보』 서문과 『월인석보』에 실린 「석보상절서」에 의하면, 세조가 대군 시절 중국에서 편찬된 승우僧祐의 『석가보釋迦譜』와 도선道宣의 『석가씨보釋迦氏譜』를 합쳐서 한문본 『석보상절』을 편찬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음으로 번역하여 진상하였는데, 이를 본 세종이 『석보상절』의 내용에 맞추어 부처의 공덕을 칭송하여 읊은 것이 『월인천강지곡』이라고 한다.



1. 월인천강지곡 8·9·10,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2. 월인천강지곡 11·12,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3. 월인천강지곡 1·2,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월 月 인 印 천 千 강 江 지 之 곡 曲 상 上

피 其 일 一

외 巍 외 巍 석 釋 가 迦 불 佛 무 無 량 量 무

無 변 邊 공 功 덕 德 욜 劫 겁 劫 에 어 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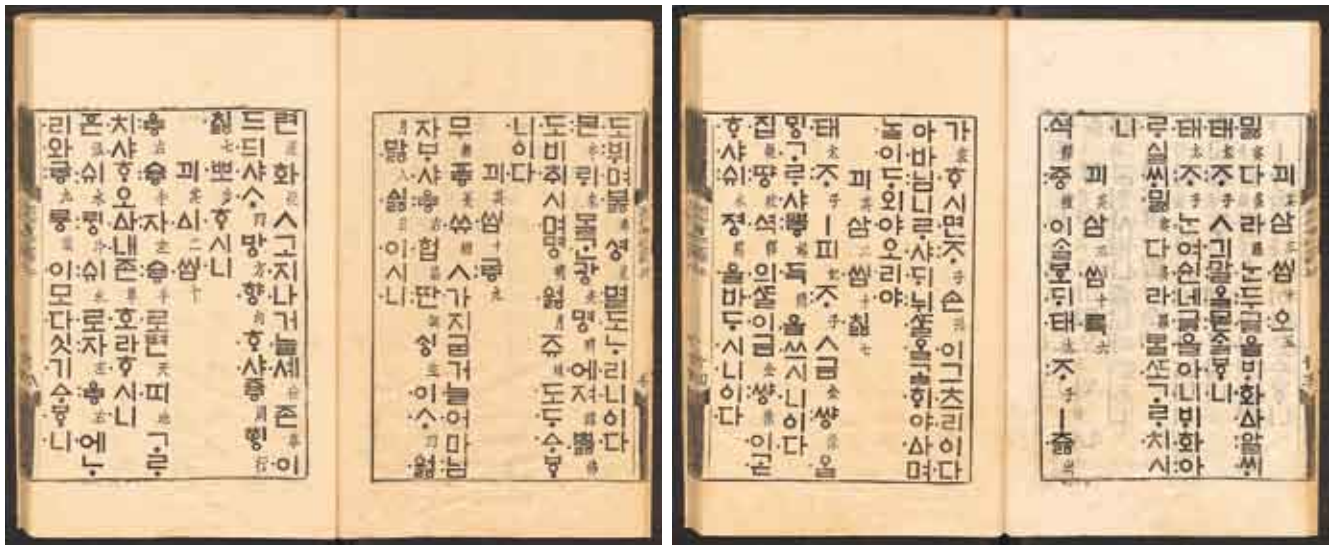
다 슬 동 리

피 其 사 四 二

세 世 존 尊 스 일 슬 로 리 니 만 萬 리 里 외

外 세 世 스 일 이 시 나 눈 에 모 눈 가 너 기 슬 용

光 三 昧 어 노
괴 其 힘 一 변 變 뵉 百 화 化 : 귱 九 쎰 十 ᄉᆞ 四
쇵 國 내 : 니 왕 王 쎤 臣 이 : 이 면 ᄲᅡ 下 금 : 金 강 剛 도 : 셔 : 杵 저 허 : 모 : 린 : 이
룡 龍 : 숨 고 : 티 : 니 : 라 羅 찰 刹 도 : 솓 고 : 티 : 니 : 이
다 : 월 : 인 : 천 강 江 지 之 곡 曲 ᄲᅡᆼ 上
月 印 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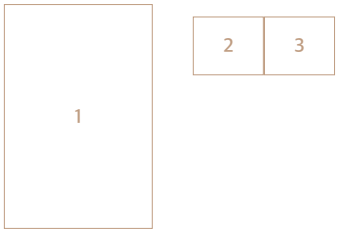
‘월인천강’이라는 명칭은 『월인석보』 권1의 첫머리에, “부톄 百億世界에 化身ᄒᆞ야 敎化ᄒᆞ샤미 ᄃᆞ리 즈믄 ᄀᆞᄅᆞ매 비취요미 곧ᄒᆞ니라(부처가 백억세계에 화신하여 교화하심이 달이 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으니라).”라고 한 주석에서 알 수 있듯, 곧 부처의 본체는 하나이지만 백억세계에 화신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것이 마치 달이 하나이지만 시공時空을 초월해서 수많은 강에 비치는 것과 같다는 의미에 비롯된 것이다.

『월인천강지곡』의 간행 시기는 『석보상절』이 만들어진 1447년(세종29)에서 그 다음해인 1448년 사이에 완성하여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월인천강지곡』은 한글을 큰 활자로 한자를 작은 활자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글 위주의 체재는 한자를 먼저 놓고 한글을 그 아래에 달아놓은 『월인석보』의 「월인천강지곡」 부분과 대조적이어서 한글을 존중한 세종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훈민정음으로 쓰인 중세국어의 문헌자료들은 대부분 음소적 표기를 따르고 있는 반면에, 『용비어천가』와 함께 『월인천강지곡』은 ‘낱’, ‘앒’, ‘눗’ 등과 같이 형태음소적 표기를 따르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어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사이시옷의 표기는 모두 ‘ㅅ’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한자음 표기에 있어서도 음가音價 없는 종성에 ‘ㅇ’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같은 중세국어의 문헌자료이지만, 『석보상절』 이후의 문헌에서는 동국정운식東國正韻式 한자음 표기의 한 특징으로서 위와 같은 환경의 종성에 ‘ㅇ’을 사용하였다. 이 밖에 중성中聲의 자형字形에 있어서도 ‘ㆍ’, ‘ㅣ’의 경우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한글 자형의 변천을 이해하는 데 소중한 자료이다.

한편, 활자는 『석보상절』과 똑같이 갑인자甲寅字인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쓰인 한글 활자를 포함하여 서지학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월인천강지곡』은 본래 15세기 중반 전북 부안 실상사 불상의 복장물로 납입되었는데, 1914년 실상사 인근에 있는 내소사의 주지가 훼손된 불상을 소각하기 직전 복장을 열면서 발견되었다. 이후 1972년 당시 진기홍 광주체신청장이 보관하던 것을 ㈜미래엔(당시 대한교과서)이 인수하여 소장하고 있다가 2013년부터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기탁 보관되고 있다.

『월인천강지곡』은 훈민정음 창제 직후 간행된 최초의 한글활자본으로, 「용비어천가」와 함께 가장 오래된 국문 시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같은 시기에 간행된 다른 문헌과 달리 한글을 큰 활자로 한자를 작은 활자로 표기한 문헌이라는 점에서 초기 국어학적, 출판 인쇄사적 가치가 높아 2017년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되었다.



1. 월인천강지곡 194,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2. 월인천강지곡 19·20,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3. 월인천강지곡 35·36·37,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2

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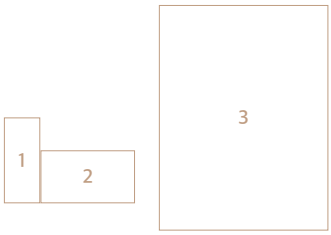
보물 제4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安養 中初寺址 幢竿支柱

통일신라시대
1기
높이 3.64m, 양 지주 간격 0.85m
석재(화강암)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103번길 4

지정일 : 1963.01.2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안양시



1.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측면 명문,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평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정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중초사지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당간지주로, 양 지주가 85㎝의 간격을 두고 동서향으로 마주 서 있으며 서쪽 지주의 측면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 당간지주는 상부 꼭대기를 둥글게 깎았으며 당간을 고정시키는 고정쇠를 끼울 수 있는 홈을 위·중간·아랫부분 등 세 군데에 마련하였는데 윗 부분의 홈은 지주 안쪽 면 꼭대기에 긴 네모꼴로 파여있고, 중간과 아랫부분의 홈은 원형으로 지주의 안팎을 관통하고 있다. 지주의 밑 부분에는 장대석長大石이 양 지주 사이와 외측에 각기 1매씩 총 3매가 남아있으며 양 지주 사이의 장대석 중심부에는 지름 26㎝의 둥근 홈을 파서 당간을 꽂아 세울 수 있는 간대석竿臺石을 마련하고 그 주변에 둥근 테를 조각하였다. 간대석과 양 지주의 바닥돌이 바로 지면 위에 같은 높이로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기단부基壇部에는 이 밖에 다른 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세 군데에 당간을 고정시키는 홈이 나 있는 점, 지주의 꼭대기가 둥글게 깎여진 점, 지주의 바깥 면 중간 부분부터 표면이 돌출된 점, 사각형의 돌로 지대석만을 구축한 점 등에서 통일신라시대의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작된 조형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당간지주는 서쪽 지주 측면에 새겨진 명문에 의해 사찰의 명칭이 알려졌다. 명문은 모두 6행 123자의 해서체楷書體로 새겨져 있으며 이 명문에는 '중초사中初寺'라는 사찰 이름과 826년(흥덕왕1) 8월 6일 돌을 캐어 이듬해인 827년 2월 30일에 조성한 내용과 조성책임자인 절주통節州統 황룡사 항창화상恒昌和尙을 위시하여 참여한 법사法師 10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조성연대造成年代가 확실한 국내 유일의 당간지주로서 다른 당간지주의 편년을 고찰할 수 있는 기준자료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문에는 신라식의 속한문俗漢文을 혼용한 흔적이 있어 고대 국어사의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고 있다.







보물 제6호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驪州 高達寺址 元宗大師塔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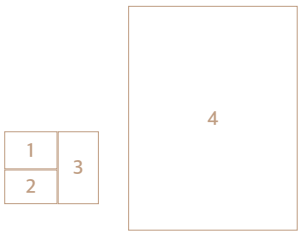
고려시대(975년)
1기
비신 - 높이 2.91m, 너비 1.62m, 두께 0.31m
귀부 - 높이 0.91m, 너비 3.21m, 폭 2.97m
이수 - 높이 1.09m, 너비 2.33m
석재(화강암)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419-3(귀부, 이수)
여주시 신륵사길 6-12 여주박물관(비신)

지정일 : 1963.01.2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여주시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는 고려시대 고승 원종대사 찬유元宗大師璨幽(869~958)를 기리기 위해 975년에 세워진 것이며, 전면 제액題額에 기록되어 있는 정식명칭은 '慧目山高達禪院國師元宗大師之碑(혜목산고달선원국사원종대사지비)'이다.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958년(광종9) 8월 20일 원종대사가 고달사에서 입적하자 광종은 사신을 보내 조문하고 이어서 시호와 탑호를 내리며 진영眞影을 조성하게 한다. 그리고 국공國工을 파견하여 승탑과 탑비를 건립하게 한다. 승탑과 탑비 건립은 966년(광종17) 시작하여 977년(경종2)에 완료되는데 탑비는 975년(광종26) 10월에 세워졌다. 비문은 김정언金廷彦이 찬하였고, 이정순李貞順이 각자하였다.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의 귀두龜頭는 눈을 부릅뜨고 정면을 직시하고 있는데, 눈꼬리가 길게 치켜 올라가 매우 험상궂은 모습이다. 코는 들려서 콧구멍이 깊게 표현되어있고 중첩된 주름이 정수리까지 이어져 있다. 일반형의 귀부와는 달리 입을 꽉 다물어 여의주를 물지 않았고, 길게 찢어진 입 가장자리에는 물갈퀴 형상이 조각되었으며, 그 뒤로 갈기 같은 털이 머리 뒤까지 길게 뻗쳐 있다. 앞발은 귀갑龜甲 전면 양단에 가지런히 두었으나 마치 땅을 밀치고 나가려는 듯 역동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목은 길지 않아 머리가 귀갑에 바짝 붙은 느낌을 준다. 귀갑에는 2중의 귀갑문이 정연하게 조각되었으며, 중앙부로 가면서 한 단 높게 와운문渦雲紋을 추가하였다. 비좌碑座 부분 역시 운문을 깊게 조각하여 돌출되게 장식하였고, 위로 복련覆蓮을 조각하였다.

이수螭首 형태는 직사각형에 가깝고 고부조高浮彫로 입체감을 강조하여 생동감이 넘친다. 이수 맨 아래에는 복판複瓣의 앙련대仰蓮帶를 사면에 두르고, 1단의 층을 두었다. 전면에는 정중앙의 두전頭篆을 중심으로 서로 뒤엉킨 반룡蟠龍을 구름사이로 배치하였다. 좌우로 각각 2마리씩 4마리의 용을 조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용의 모습은 서로 조금씩 다른 형태이다. 측면부는 용의 몸이 구름에 내비친 역동적인 모습으로 조각하였고, 후면 역시 2구의 용을 조각하였다.









1.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일제강점기
_ 국립중앙박물관
2.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귀부, 1968
_ 경기도
3.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비신, 2016
_ 여주박물관
4.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전경, 2018
_ 경기문화재연구원

귀두가 험상궂은 용두형龍頭形에 가깝고, 목이 짧고 정면 직시형直視形인 점, 이수의 표현이 역동적이며, 특히 와운문으로 번잡하게 장식한 점 등은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시대 초기로 진전되는 탑비 형식을 잘 보여준다.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는 1915년에 무너진 이후 귀부와 이수는 절터에 남았지만, 여덟 조각으로 깨진 비신碑身은 경복궁 회랑에 진열되다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었다. 1963년 귀부와 이수만 보물로 지정되었고 비신은 2014년에 이르러 복제 및 탑비복원공사가 완료된 뒤 2016년 추가로 지정되어 현재 여주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다.



보물 제7호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

驪州 高達寺址 元宗大師塔

고려시대(977년)
1기
높이 4.5m
석재(화강암)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412-1

지정일 : 1963.01.2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여주시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은 958년 입적한 원종대사의 승탑으로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을 기본으로 하지만 하대석과 기단석을 방형으로 조성한 구조이다.

기단부는 4매석으로 짜인 네모난 지대석 위에 하대석·중대석·상대석·탑신석·옥개석이 차례로 올려져 있다. 하대석은 방형으로 한 면에 5판씩, 각 모서리에 1판씩, 모두 24판의 단엽복련연화문單葉覆蓮蓮花紋이 돌려져 있다. 그 위에 1단의 굄이 있고, 중대석과의 사이에 갑석형의 네모난 판석이 얹혀 있다.

중대석은 상단부에 갑석처럼 팔각으로 만들고, 정면에는 거북과 용을 조각하였다. 거북은 몸은 정면을, 머리는 오른쪽을 향하고 있으며, 양쪽 앞발과 귀갑龜甲 부분이 표현되어서 마치 비석의 귀부龜趺와도 같은 느낌을 준다. 두상은 용두龍頭와 유사하며 부리부리한 눈과 코·입 등의 표현이 사실적이다. 용은 거북조각을 중심으로 네 마리의 용이 구름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형상으로 부조되어 있다.

상대석은 앙련석仰蓮石으로 하면에는 8각의 각형받침 2단이 각출되었으며, 가운데는 8판의 큼직한 단엽연화문이 각 모서리에 한 판씩 조각되어 있다. 상단은 팔각으로 만들고, 상면에는 굄대를 마련하여 탑신석을 받치고 있다.

탑신석은 팔각형이며 4면에는 문호형門戶形이, 다른 4면에는 사천왕 입상이 새겨져 있다. 옥개석은 8각형으로 다듬었으며, 하면부에 연목椽木 등의 모각은 없으나, 호형弧形을 중심으로 상하에 낮은 받침이 있다. 이를 중심으로 넓고 높은 또 한 단의 받침이 있어 연목을 대신하고 있다. 추녀는 수평이나 전각에 이르면 반전이 큰 편이며, 그 위에는 삼산형三山形의 귀꽃이 조각되었다. 낙수면의 각 면은 합각에 우동隅棟이 표시되었으며, 경사는 완만한 편이다.

정상부는 8각으로 만들어서 상륜부를 받치고 있다. 상륜부는 8각의 노반과 화문이 조각된 복발 위에 보개를 얹었으며 보륜과 보주가 남아있다. 보개는 8각 1석으로 옥개석처럼 여덟 귀퉁이 전각에 삼산형의 귀꽃이 조각되어 있으며 낙수면은 완만하다. 보주는 함주含珠한 화염형火焰形이다.



1



2

1.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 일제강점기_ 국립중앙박물관
2.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보물 제8호

여주 고달사지 석조대좌

驪州 高達寺址 石造臺座

고려시대
1기
높이 1.57m
석재(화강암)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420-5

지정일 : 1963.01.2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여주시

1
2
3

1. 여주 고달사지 석조대좌, 1968_ 경기도
2. 여주 고달사지 석조대좌 전경,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여주 고달사지 석조대좌,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여주 고달사지 석조대좌>는 고달선원高達禪院의 주존불主尊佛을 안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좌臺座이다. 금당金堂터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대석, 중대석, 하대석을 모두 갖추고 있다.

대좌는 직사각형의 판석 2매를 사용하여 지대석을 구축한 후 그 위에 방형의 하대석을 놓았다. 하대석은 상·하 2단으로 구성되는데 하단에는 각 면에 4개씩 모두 16개의 안상眼象을 조각하고, 상단에는 각 면에 5엽, 모서리에 1엽씩 모두 24판의 복판복연화문複瓣覆蓮花紋을 조각하였으며, 연화문 위에는 중대석을 받치는 3단 받침을 마련하였다. 중대석은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사각형의 간석竿石으로 단순하게 조각하였다. 각 모퉁이에는 우주隅柱를 새기고 상하에는 테로 윤곽을 만든 다음 그 속에 큼직한 안상을 1구씩 4면에 조각하였다.

상대석에는 각 면에 5엽, 모서리에 1엽씩 모두 24판의 복판앙련화문複瓣仰蓮花紋이 하대석과 같은 배열로 조각되어 있다. 상대 받침은 3단이며, 가운데 2단은 둥글고 1단과 3단은 각진 형태이다. 이 대좌는 사각형이고 거대한 규모임에도 상대석과 하대석에 새겨진 연꽃잎이 팽창감이 있고 율동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유연한 느낌을 준다. 이와 같은 연꽃잎의 표현 수법은 여주 고달사지 승탑(국보 제4호) 하대석과 매우 비슷하며, 가운데 꽃잎을 중심으로 좌우로 퍼져나가는 모양으로 배열하는 방법은 고려시대의 양식적인 특징이다.

이 석조대좌는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보물 제6호)의 귀부, 이수와 유사한 규모와 조각수법을 보이고 있어 10세기 후반 무렵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각형 대좌로서 통일신라시대의 팔각형 대좌와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고려 전기 방형 대좌의 예로 주목된다.





보물 제9호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龍仁 瑞鳳寺址 玄悟國師塔碑

고려시대(1185년)
1기
높이 1.88m, 너비 0.97m
비신 높이 1.88m, 너비 0.97m, 두께 0.12㎝
석재(화강암, 점판암)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산110

지정일 : 1963.01.2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용인시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는 고려시대 고승 현오국사 종린玄悟國師宗燐(1127~1179)의 공덕을 추모하고자 1185년(명종15)에 세운 탑비로, 두전頭篆에 기록되어 있는 정식명칭은 '贈諡玄悟國師碑銘(증시현오국사비명)'이다.

탑비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현오국사는 고려 중기의 승려로 이름은 종린宗璘, 자는 중지重之, 속성俗姓은 왕씨王氏이다. 인종仁宗(1122~1146)이 대각국사 의천大覺國師義天을 이을 사람이 없음을 두려워하였으나 현오가 뒤를 이어 나이 15세에 불일사佛日寺에서 출가하여, 귀신사, 국태사, 중흥사, 부석사 등의 주지를 지냈으며 명종이 내전에 초빙하여 백고좌회百高座會를 주관하는 등 활동하다가 1178년(명종8) 53세의 나이로 귀법사에서 입적하였다. 이에 왕이 크게 슬퍼하여 국사國師로 봉하고 시호를 현오玄悟라 하였으며, 동림산東林山 기슭에서 다비茶毘하게 하였다. 비문은 이지명李知命이 짓고 유공권柳公權이 해서로 써서 민구敏求가 새겼다.

비좌는 화강암이며 장방형 비좌의 윗면은 네 변을 비스듬히 잘라서 모를 죽이고 문양도 새기지 않았다. 비신은 점판암이며 윗부분의 양 모서리 끝을 사선으로 잘라서 마무리하였다. 비신의 테두리, 두전과 비문의 경계에는 보상화문寶相華紋, 두전頭篆이 있는 부분은 직사각형으로 얇은 와문渦紋을 새겼고 그 양 옆으로는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고서 아래로 향하는 봉황을 새겨 놓았다.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는 귀부, 비신, 이수 등으로 구성되는 이전 시기 비석 조형양식에서 벗어나 개석과 장식을 생략하고 간략화하는 고려 말의 새로운 비석의 계통과 대각국사 입적 이후 화엄종단과 고려 왕실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이고, 또한 현오국사의 행적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1979년 현오국사탑비의 비각을 건립하는 공사 중 '서봉사瑞鳳寺'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조각이 발견되어 서봉사 옛터에 탑비가 세워진 것임이 확인되었다.

서봉사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산의 경사에 따라 6단으로 석축을 마련하였으며, 석축 위에 금당지와 중정지·요사채·석탑지 등을 조성한 대규모 사찰이었음이 밝혀졌다. 정확한 창건시기와 폐사시기를 특정지을 수는 없으나, 국사로 추봉한 최고 고승을 기리는 탑비를 이곳에 세웠다는 점은 고려 중기에 번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1. 용인 서봉사지 전경, 2015_ 한백문화재연구원
2.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보물 제11-4호

사인비구 제작 동종-안성 청룡사 동종

思印比丘製作 銅鍾-安城 靑龍寺 銅鍾

조선시대(1674년)
1구
높이 128㎝, 입지름 86㎝, 윗지름 56㎝, 종뉴높이 20.5㎝, 두께 7.5㎝
금속(청동)
안성시 서운면 청룡길 140

지정일 : 2000.02.15
소유자 : 청룡사(사유)
관리자 : 청룡사

<안성 청룡사 동종>은 1674년(현종15) 4월에 승려 장인 사인思印 등이 제작한 청동종이다.

청룡사 동종의 종신鍾身에 '康熙十三年甲寅四月日 京畿安城郡地南面 瑞雲山靑龍寺 大鐘八百斤入 大施主 應楚 大施主 守淨 … 緣化秩畵員 思印 智俊 太行 道兼 淡衍 淸允'라는 주종기鑄鍾記가 남아있어 1674년(현종15) 4월에 경기도 안성 남면(현재 서운면)에 있는 서운산 청룡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중량 8백 근의 대종大鍾을 만들었고, 사인思印을 비롯한 지준智俊·태행太行·도겸道謙·담연淡衍·청윤淸允 등 6명의 주종장이 제작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사인은 조선 현종과 숙종 때 경기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한 승려로 40여 년간 종을 만들었던 당대 최고의 주성장鑄成匠이다.

사인비구의 정확한 생몰년을 알 수 없지만, 1667년에 만들어진 포항 보경사 소장 서운암 동종瑞雲庵銅鍾에 처음 이름이 등장한 이래 1711년 제작된 강화동종江華銅鍾에도 이름이 남아 있다. 강화동종에 '舊鍾都畫員 嘉善摠攝思印 次造都畫員嘉善祖信(옛 종은 가선총섭 사인이 만들었고, 이어서 가선 조신祖信이 종을 만들었다)'라는 명문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에 제작된 원래의 종은 사인비구가 만든 것으로 보이지만, 1711년에 다시 만든 종은 사인을 계승한 조신의 작품으로 여겨진다. 현존하는 동종 중 사인비구가 가장 마지막으로 만든 것은 1701년의 청계사 동종淸溪寺銅鍾이다.

이러한 기록들로 볼 때 사인비구는 약 40여년 가까이 장인으로서 활동했음을 알 수 있으며, 안성 청룡사 동종은 사인비구가 비교적 젊었을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인비구의 작품은 현재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 8구(포항 보경사 서운암 동종, 문경 김룡사 동종, 홍천 수타사 동종, 안성 청룡사 동종, 서울 화계사 동종, 양산 통도사 동종, 의왕 청계사 동종, 강화 동종)가 전해지고 있으며, 강화동종이 1963년 보물 제11호로 지정된 이후 1999년 나머지 7구의 동종을 조사하여 일괄 보물로 지정하였다.

청룡사 동종은 17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동종 가운데 규모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한다. 천판天板은 높고 둥글며 몸체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이다. 천판 위에 있는 용뉴龍鈕는 몸을 구부려 고리를 만든 한 마리의 용이 고개를 들어 올린 모습을 하고 있다. 발톱이 4개인 사조용四爪龍으로 네 발을 모두 천판에 붙이고 입 안에 보주寶珠를 문 채 긴 꼬리로 음통音筒을 휘감고 있다. 음통은 5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넝쿨무늬가 장식되어 있고 가장 위쪽은 연꽃으로 마무리했다.

안성 청룡사 동종, 2017_ 국립중앙박물관



종신鍾身 상단은 범자梵字로, 하단은 넝쿨무늬로 꾸몄다. 범자 아래쪽에 연곽蓮廓과 위패형位牌形장식, 보살입상을 4개씩 두었고 나머지 부분에는 군데군데 명문을 배치했다.

종신鍾身 상단에는 직사각형의 판 안에 두 줄의 테두리가 있는 원권圓圈이 두 개가 있고, 그 안에 양각으로 범자가 표현되어 있다. 범자가 위치한 곳에는 같은 형식으로 '육자대명六字大明', '왕진언王眞言'을 표기한 것이 있다. '六字'는 상하로, '大明'은 좌우로 배치한 반면, '王' 아래의 '眞言'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도록 배치했다. 이 글자를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는 '옴, 마, 니, 파드, 훔'이 5번 반복된다. 그리고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인지 '옴, 마' 두 글자가 추가되었다. '마'자의 좌측과 '육자대명왕진언'의 우측에 위치한 좁은 직사각형 안에는 '파옥지진언破獄地眞言'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것은 '파지옥진언'의 오기로 보인다. 범자가 표기된 직사각형 판 아래에는 굵은 당초문 띠에 9개의 만개한 연꽃을 표현한 사각형 연곽蓮廓 4개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안쪽에는 9개의 연꽃봉오리가 놓여있고 끝이 뾰족한 5장의 연꽃잎이 각각의 봉오리를 에워싸고 있다.



연곽과 연곽 사이에는 구름 위에서 연꽃 가지를 든 보살 입상과 왕실의 안녕과 불법의 전파를 기원하는 '宗畾磐石 王道弥隆 惠日長明 法周沙界(종도반석 왕도미륭 혜일장명 법주사계)'라고 쓴 위패형 장식을 부조하였다. 하대下帶는 문양판 7개를 이어 붙여 장식하였는데 문양대 안에는 4장의 꽃잎을 가진 꽃을 중심으로 작은 잎들이 출렁이는 넝쿨무늬를 시문했고, 그 아래쪽에 3㎝ 정도의 띠를 둘러 연곽 테두리와 유사한 넝쿨무늬를 장식했다.

안성 청룡사 동종은 신라종의 전통 양식을 따른 종으로 한국종의 특징인 음통과 안으로 오므라든 종신, 용뉴와 상대, 연곽, 보살상, 그리고 하대에 표현된 연화당초문 등에서 생동감 넘치는 사실적 표현수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사인비구가 김룡사종(1670), 수타사종(1670)을 제작한 이후 완숙한 기량을 발휘한 수작이자 조선후기 장인 사회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1·2. 사인비구 제작 동종-안성 청룡사 동종 세부, 2017_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11-7호

사인비구 제작 동종-의왕 청계사 동종

思印比丘製作 銅鍾-儀旺 淸溪寺 銅鍾

조선시대(1701년)
1구
높이 111㎝, 입지름 76.8㎝, 종뉴높이 18㎝
금속(청동)
의왕시 청계로 475

지정일 : 2000.02.15
소유자 : 청계사(사유)
관리자 : 청계사

1

2

1. 사인비구 제작 동종-의왕 청계사 동종 세부,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사인비구 제작 동종-의왕 청계사 동종,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의왕 청계사 동종>은 1701년(숙종27) 승려 장인 사인思印 등이 제작한 동종이다.

청계사 동종의 종신鍾身에 '康熙四十年辛巳四月日鑄成 廣州靑龍山淸溪寺大鐘七百斤 緣化秩 通政畵 思印明侃戒日餘釋首剛貴性任善'라는 명문이 남아있어 1701년(숙종27) 4월에 청계산 청계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중량 7백 근의 큰 종을 만들었고, 사인思印을 비롯한 명간明侃, 계일戒日, 여석餘釋, 수강首剛, 귀성貴性, 임선任善 등의 주종장이 제작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사인은 조선 현종과 숙종 때 경기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한 승려로 40여 년간 종을 만들었던 당대 최고의 주성장鑄成匠이다. 현존하는 동종 중 사인비구가 가장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이 1701년의 청계사 동종淸溪寺銅鍾으로 사인비구의 노년기 때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 청계사 동종은 청계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주성되었던 것인데, 일제강점기 쇠붙이 공출로 인해 수탈 위기를 맞게 되어 봉은사奉恩寺에 감추어 두었다가 1975년 본래의 장소인 청계사로 옮겨져 봉안되었다.

청계사 동종의 천판天板은 높고 둥글며 몸체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이다. 천판 위에 있는 용뉴龍鈕는 두 마리의 용이 종을 매다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발톱이 4개인 사조용四爪龍으로 고개를 들어 올린 모습을 하고 있으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입을 벌리고 있다.

종신鍾身은 그 외형이 띠 장식대까지 벌어져 내려오다 구연부를 향하여 약간 오므라드는 모양을 하고 있어 중간 부분이 팽창되어 보인다. 종신은 상단은 넝쿨무늬를 띠모양으로 장식하고 상단의 띠 아래로는 굵은 당초문 띠로 만든 사각형 연곽蓮廓이 4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연곽 내부에는 9개의 만개한 연꽃이 표현되어 있다. 연곽과 연곽 사이에는 구름 위에서 연꽃 가지를 든 보살 입상이 표현되었는데 모두 모양이 같은 것으로 보아 한 개의 문양판을 이용하여 네 곳에 시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살상은 법주사종(1636), 김룡사종(1670), 통도사종(1686)과 같은 17세기의 승장계열僧匠系列의 몇몇 종에서만 보이는 특징이다.

종신의 가운데에는 굵기가 같은 횡선이 두 줄 둘러져 있다. 이러한 횡선은 조선 초기부터 보이는 외래적 요소이다. 횡선 아래에는 제작자와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명문이 배치되어 있다. 종신 하단에는 줄기를 중심으로 만개하거나 잎이 뒤로 젖혀진 연꽃과 넝쿨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의왕 청계사 동종은 18세기 초 외래적 요소가 포함된 양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사인비구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 뿐 아니라 중국종의 양식을 따른 작품도 제작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보물 제12호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河南 桐寺址 五層石塔

고려시대
1기
높이 7.5m
석재(화강암)
하남시 춘궁동 466

지정일 : 1963.01.2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하남시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은 하남시 춘궁동 동사지에 있는 고려시대 석탑으로, 2층 기단 위에 5층 탑신과 옥개석을 올려놓은 형태이다.

여러 개의 판석으로 구성된 지대석은 윗면에 1단의 굄이 있다. 지대석 위에는 수매의 판석으로 구성된 하대중석이 있으며, 그 위로는 하대갑석이 올려져 있다. 하대갑석의 윗면은 경사를 이루며, 우동隅棟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 상대중석을 받치기 위한 굄을 1단 두었다. 상대중석의 네 면 모서리와 면 가운데에는 각각 우주隅柱와 탱주撐柱를 얕게 새겼다. 남쪽 면이 파손되어 안쪽에 높이 1.1m, 너비 0.93m의 거대한 찰주석擦柱石을 볼 수 있다. 상대갑석은 4매의 판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밑에는 부연副椽, 윗면에는 탑신 받침이 모두 낮게 조각되어 있다. 윗면은 하대갑석에 비해 현저한 경사를 이루며, 우동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1층의 탑신은 2단으로 조성되어 있다. 하단에 4매의 방형석재를 두었고, 상단에는 1매의 돌을 얹어놓은 모습이다. 이러한 예는 성거사지 오층석탑(보물 제109호)에서도 볼 수 있는데, 고려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양식이다. 2층 이상의 탑신은 1층 탑신과 달리 각각 하나의 돌로 만들었으며 1~5층의 탑신에는 우주가 얕게 모각되어 있다.

옥개석은 1층부터 3층까지는 판석 4장으로, 4층은 판석 2장으로, 5층은 판석 1장으로 조성되어 있다. 각 층마다 옥개석 윗면에는 1단의 굄이 있어서 탑신을 받치고 있다. 옥개석 아랫면의 받침은 1층이 5단, 2층부터 4층까지가 4단, 5층이 3단으로 줄어들고, 상층으로 갈수록 탑신을 따라 급속한 체감률을 보이고 있다. 추녀는 수평을 이루다 전각에 이르러 약간 반전한다. 상륜부에는 일반적인 법식을 따른 네모진 노반露盤만 남아 있다.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은 기본적으로 신라 석탑의 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구성상 불규칙적인 짜맞춤이 많고 기둥새김이나 석재를 다듬은 모양새가 질박한 면을 보이고 있어서 조성 시기는 고려 전기인 10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1 2 3





1.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일제강점기_ 국립중앙박물관
2.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1996_ 하남시
3.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보물 제13호

하남 동사지 삼층석탑

河南 桐寺址 三層石塔

고려시대
1기
높이 3.6m
석재(화강암)
하남시 춘궁동 465

지정일 : 1963.01.2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하남시

<하남 동사지 삼층석탑>은 하남시 춘궁동 동사지에 있는 고려시대 석탑으로, 2층 기단 위에 3층 탑신과 옥개석을 올려놓은 형태이다.
여러 개의 판석으로 구성된 지대석 위에는 바닥돌과 면석을 붙여 만든 하대중석이 놓여 있고, 하대중석의 4면에는 3개씩 총 12개의 안상眼象이 조각되어 있다. 하대갑석은 2장의 판석으로 만들었으며, 아랫면에는 얕은 부연副椽이, 윗면에는 2단으로 굄을 조각하였다. 상대중석은 우주와 탱주를 새긴 4장의 면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쪽의 면석은 소실되어 복원되었다. 상대 갑석의 아랫면에는 낮은 부연을 조각하고 윗면에는 2단으로 굄을 조각하였다.
탑신석은 4면에 양 우주가 모각되어 있을 뿐 다른 조각은 없다. 옥개석은 낙수면의 경사는 완만한 편이고, 처마는 수평을 이루다 끝에서 약하게 반전한다. 옥개석 아랫면의 받침은 1층부터 2층은 5단, 3층은 4단이다.
이 석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각 층 몸돌의 체감률이다. 1층 탑신석이 지나치게 넓고 높은 데 비해 2층과 3층 탑신의 크기가 급격히 작아지고, 옥개석도 탑신석에 비례해서 크게 줄었다. 동사지 삼층석탑에서 보이는 뚜렷한 체감률은 다른 석탑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다. 하남 동사지 삼층석탑은 전체적으로 매우 안정감을 보이며, 명확하고 세련된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조성 시기는 고려 전기인 10세기 후반으로 추정되지만, 기본적으로 신라 석탑의 양식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모습이다.
1966년 삼층석탑 보수공사 과정에서 납석蠟石으로 만든 작은 탑들이 석탑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납석제소탑은 하남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 2 3

1. 하남 동사지 삼층석탑, 일제강점기_ 국립중앙박물관
2. 삼층석탑 안에서 출토된 납석제소탑, 2017_ 하남역사박물관
3. 하남 동사지 삼층석탑,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보물 제14호

수원 창성사지 진각국사탑비

水原 彰聖寺址 眞覺國師塔碑

고려시대(1386년)
1기
총높이 2.12m, 비신높이 1.51m, 비신너비 0.81m, 두께 0.13m
석재(화강암, 점판암)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3-1

지정일 : 1963.01.2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수원시

2

1

1. 수원 창성사지 진각국사탑비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수원 창성사지 진각국사탑비,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수원 창성사지 진각국사탑비>는 진각국사 천희眞覺國師千熙(1307~1382)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탑비로, 1386년(우왕12) 광교산 기슭의 창성사에 만들어졌다.

진각국사의 이름은 천희千熙, 호는 설산雪山으로 1307년 흥해興海(현재 경북 포항)에서 출생하여 1319년(충숙왕6) 화엄종華嚴宗 반룡사盤龍社의 주지인 일비대사一非大師의 제자가 되었다. 1325년(충숙왕12) 19세에 선종에서 실시하는 시험인 상품선上品禪에 합격하여 금생사金生寺, 덕천사德泉寺, 부인사符仁寺, 개태사開泰寺 등 여러 사찰에서 수행하였다. 1364년 원나라에 갔다가 1366년 전후에 귀국하여 치악산에 은거하였다. 5월 공민왕이 국사대화엄종사 선교도총섭國師大華嚴宗師禪敎都總攝으로 추대하고 인장印章과 법복法服을 헌납하였다. 1372년부터 영주榮州 부석사浮石寺에 머물면서 부석사를 대대적으로 중수하였으며, 1382년(우왕8) 창성사에서 입적하였다. 우왕이 시호를 진각국사, 탑명을 '대각원조탑'이라 내리고 이색李穡에게 비문을 짓도록 하였다. 1386년 정월에 제자인 개태사 주지 통조대사 충술通照大師冲述이 비석을 세웠다. 글씨는 승려 혜잠惠岑이 썼다.

탑비는 지대석 위에 직사각형의 비좌를 놓고 비신을 세운 다음 옥개석屋蓋石을 얹힌 형식으로 이러한 형식의 고려시대 비석으로는 유일하다. 비신은 점판암이며, 전면 상단의 제액은 '증시진각국사비명贈諡眞覺國師碑銘'이 전서로 새겨져 있다. 전면에는 진각국사의 행적과 추모시가 새겨져 있고 후면에는 비석을 세우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관직과 함께 적혀 있다. 글씨는 구양순歐陽詢 서체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고려 전기의 힘 있는 풍모가 사라져 투박하다.

옥개석은 목조건축의 지붕을 묘사하였으나 경사면이 완만하고 기와골, 공포, 기와 등 세부적인 표현이 없다. 양식적으로 칠곡 선봉사 대각국사비(보물 제251호)와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보물 제229호),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보물 제230호) 등과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조각 양식은 더욱 간략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려 후기부터 등장하는 실용적인 비석양식이 더욱 간략화되면서 조선시대의 비석양식으로 이행해 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본래 광교산 기슭의 창성사지에 있던 것을 1965년 6월 9일 화성의 방화수류정 근처로 이전하고 보호각을 설치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한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하는 수원 창성사지(경기기념물 제225호)의 발굴조사에서 탑비 터가 확인되어 본래 탑비 위치가 밝혀지게 되었다.



보물 제91호

여주 창리 삼층석탑

驪州 倉里 三層石塔

고려시대
1기
높이 2.46m
석재(화강암)
여주시 주내로 13

지정일 : 1963.01.2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여주시

1

2

1. 여주 창리 삼층석탑, 일제감점기_ 국립중앙박물관
2. 여주 창리 삼층석탑,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여주 창리 삼층석탑>은 여주 창리의 옛 절터에 남아있던 고려시대의 석탑이다. 평면 형태는 방형이며, 기단을 2층으로 구성한 뒤 그 위에 여러 층의 탑신석과 옥개석을 얹은 모습으로 고려시대의 석탑의 기본수법을 따르고 있으나, 기단부의 폭이 좁고 세부 꾸밈새는 조금 다른 양식을 보이고 있다.

여러 장의 석재를 사용하여 2단의 지대석을 마련하고 그 위에 1석으로 된 하층기단下層基壇 면석을 얹었다. 하대중석의 각 면에는 안상眼象이 2구씩 새겨져있고 그 안에는 고려시대에 유행한 솟은 꽃 모양의 장식무늬가 있다.

하대중석과 하대갑석의 윗면에는 16판瓣의 복련覆蓮이 조각되어 있고 윗면 중앙에는 상대중석을 받는 1단 굄이 있다. 이러한 기법은 탑의 기단을 불상의 연꽃대좌와 같은 형태로 꾸미고자 했던 의도가 보이는 것으로 보기 드문 사례이다.

상대중석은 하나의 돌로 만들었고 우주隅柱는 생략되었으며 상대갑석은 매우 두꺼운데 밑에는 안쪽으로 구부러진 곡선을 두어 부연副椽을 대신하고 있고, 윗면에는 탑신 굄을 2단으로 만들었다.

탑신석은 1층만 하나의 석재로 만들어졌고, 2층 이상은 급격히 체감되면서 옥개석과 탑신석이 하나의 석재로 조성되었다. 즉 1층 옥개석 위에 2층 탑신을, 2층 옥개석 위에 3층 탑신을 만들었다. 옥개석은 낙수면의 경사가 극히 완만하며, 추녀는 수평을 이루다가 전각轉角에 이르러 약간의 반전反轉이 있다. 옥개석의 밑면에는 각 층마다 3단의 받침이 조각되어 있다.

이 석탑은 부재가 모두 투박하여 전체적으로 무게감이 느껴지고 기단면이 좁아 약간 길쭉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석재의 질과 조각 수법이 우수하지 못하고, 탑신석과 옥개석을 하나의 돌로 만드는 등 간략화 경향이 두드러진다. 현재 최상층의 탑신석과 옥개석의 비례는 2층 옥개석과 3층 탑신석의 크기와 맞지 않아 그 사이에 한 층이 더 있어서 원래는 5층탑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여주 창리 삼층석탑에서 보이는 상대갑석의 부연양식, 하대중석 안상의 솟은 꽃장식, 3단 옥개석받침 등의 모습은 고려후기 석탑의 특징으로 조성시기를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이 석탑은 본래 여주 창리의 과수원 안 옛 절터에 있던 것을 1958년 11월 현재의 위치인 영월루 아래 공원 중턱에 옮겨 세웠다. 탑을 옮겨 세울 당시 1층 탑신석 윗면에서 크기 16.7×10㎝, 깊이 3㎝의 얕은 사리공舍利孔이 발견되었으나 사리장치는 완전히 없어졌고, 하대석 밑에서는 높이 4.4㎝의 동제여래좌상銅製如來坐像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보물 제92호

여주 하리 삼층석탑

驪州 下里 三層石塔

고려시대
1기
높이 3.7m
석재(화강암)
여주시 주내로 13

지정일 : 1963.01.2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여주시

<여주 하리 삼층석탑>은 여주 하리의 옛 절터에 남아있던 고려시대의 석탑이다. 방형 평면의 석탑으로 기단을 구성한 뒤 그 위에 탑신석과 옥개석을 얹은 모습이다.

방형의 지대석 윗면에는 2단으로 굄이 조각되어 있고 그 위에 4매의 판석을 세워 기단면석을 만들었다. 기단면석의 2면에는 우주隅柱를 측면에까지 모각模刻하였고, 다른 2면에는 평편한 판석을 그 사이에 끼워서 조성하였다. 기단의 갑석은 얇고 평편하며 아랫면에는 얕은 부연副椽이 조각되어 있고, 윗면 중앙에는 1층 탑신석을 받치는 굄이 2단 조각되어 있다.

탑신석과 옥개석이 하나씩의 돌로 이루어졌으며 각 층의 탑신에는 우주가 얕게 새겨져 있다. 옥개석 아랫면의 받침은 모두 4단이고, 옥개석 윗면의 굄은 모두 1단이다. 옥개석의 낙수면 경사는 극히 완만하며, 추녀는 수평을 이루다가 전각轉角에 이르러 약간의 반전反轉이 있다. 상륜부는 모두 결실되었다.

이 석탑은 1층 탑신석이 너비보다 높고, 다른 부재들도 다소 길쭉한 편이어서 전체적인 탑의 형태도 약간 길쭉해 보인다. 전체적으로 돌을 짜서 올리는 수법에는 규칙성이 있으나 각 부재 구성의 비율감이나 돌다듬새는 평범하다.

여주 하리 삼층석탑은 본래 여주 하리의 옛 절터에 서 있었던 것을 1958년 11월 현재의 위치인 영월루 아래 공원 중턱에 옮겨 세웠다. 탑을 옮겨 세울 당시 1층 탑신석에서 독특한 모습의 사리홈이 발견되었다. 탑신석 윗면 중앙에 높이 3㎝의 얇은 띠가 둘러져 있고 그 안으로 지름 3㎝와 1.5㎝의 2개의 구멍이 파여져 있으며 이와 닿게 되는 옥개석의 밑면에도 홈이 깊게 파여져 있다. 이와 같은 사리공의 구조는 탑신의 윗면에만 깊은 홈을 두어 사리를 담아두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특이하게 정반대의 형태인 예로서 매우 주목된다.



1

2

1. 여주 하리 삼층석탑, 일제강점기_ 국립중앙박물관
2. 여주 하리 삼층석탑,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보물 제93호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坡州 龍尾里 磨崖二佛立像

고려시대
2구
원립불 높이 2.45m, 방립불 높이 2.36m
석재(화강암)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8

지정일 : 1963.01.2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파주시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은 파주시 용미리에 있는 고려시대 마애불로 2구의 불상이 나란히 서 있다. 거대한 자연암벽을 활용하여 2구의 불신佛身을 조각하고 불두佛頭를 따로 만들어 올렸다.

전면에서 볼 때 좌측의 마애불은 우측 마애불에 비해 키가 더 크고 둥근 갓을 썼다. 왼손을 어깨높이로, 오른손은 가슴 높이로 들어 연꽃 줄기를 잡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여래로서 연꽃 줄기를 들고 있는 경우는 석가모니, 혹은 미륵불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불상의 명문에 미륵불을 언급하고 있어 미륵으로 추정된다.

좌측 마애불은 넓은 어깨를 당당하게 벌리고 있어 웅장한 느낌을 준다. 통견通肩의를 착용하였는데 연꽃 줄기 아래의 가슴 부분에는 속의 가사를 입을 때 묶은 리본 모양의 띠 매듭이 보인다. 그 아래로 왼쪽 어깨로 쏠려 올라가는 듯한 'U'자형 옷주름이 반복적으로 흘러내리게 표현되었는데 바위 맨 아래까지 흐릿하게 이어지고 있다. 좌우로는 양팔에서 흘러내린 소맷자락은 은행잎 모양의 옷주름을 만들며 허리 아래에까지 늘어져 있다.

전면에서 볼 때 우측의 마애불은 좌측의 마애불보다 키가 조금 작지만, 얼굴이 더 크며 네모난 갓을 쓰고 합장하고 있다. 바위의 자연적 상태 때문에 몸은 약간 옆으로 튼 모습이지만, 얼굴은 둥근 갓을 쓴 마애불과 마찬가지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착의법이나 옷자락의 흐름은 좌측의 마애불과 같지만 바위 면의 폭이 좁기 때문에 바위 측면에도 옷자락을 새겼다. 연꽃을 든 상은 남성, 합장한 상은 여성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한다.

1

2

1.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원경, 2018_ 경기도지적연구회
2.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2018_ 경기도지적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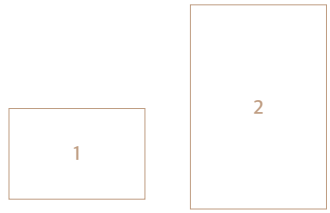




용미리 마애불입상 조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구전되고 있다. 고려 선종(재위 1083~1094)이 자식이 없어 원신궁주元信宮主를 맞이했는데, 역시 후사가 없었다. 그러던 중 궁주의 꿈에 두 도승道僧이 나타나 말하기를, '우리는 장지산長芝山 남쪽 기슭 바위틈에 사는데 지금 매우 시장하다'하였다 한다. 다음날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 장지산 아래에 두 개의 큰 바위가 나란히 서 있다고 하자 왕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이 바위에 꿈속의 두 도승을 새기게 하고는 절을 지었는데, 마침 그 해에 왕자 한산후漢山候가 탄생하였다는 것이다.

용미리 마애불입상의 제작시기는 기존에는 이 설화에 근거하여 고려 전기인 11세기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암벽 면에서 '성화成化 7년…'이라는 명문이 발견되어 조선 초기의 작품일 가능성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즉 '성화 7년'은 1471년(성종2)에 해당하는데, 이전에는 이 명문을 마애불을 제작할 때 새겨 넣은 것이 아니라 후대인 조선 초기에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명문에 등장하는 추모 대상인 세조 및 그와 연관된 인물들의 능묘가 파주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마애불을 조성할만한 의미가 충분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아울러 연꽃을 든 마애불이 쓴 둥근 갓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관모에 사용된 것이므로 이들 마애불은 조선 초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은 천연암벽의 자연미를 불상 조각에 적절히 활용해 미적 수준을 높인 작품이다. 바위가 자연적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한 마애불에서는 연꽃 줄기를 잡기 위해 들어 올린 팔의 모습으로 묘사하였고, 다른 마애불에서는 합장한 팔로 응용하였다. 옷자락의 흐름 역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바위와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1.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측면,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2006_ 파주시





보물 제180호

여주 신륵사 조사당

驪州 神勒寺 祖師堂

조선시대
1동
정면 1칸, 측면 2칸
목재
여주시 신륵사길 73

지정일 : 1963.01.21
소유자 : 신륵사(사유)
관리자 : 신륵사

<여주 신륵사 조사당>은 여주시 신륵사에 있는 조선 전기의 불전으로 정면 1칸, 측면 2칸의 다포계 형식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기단은 지형의 높낮이가 없으므로 정면에 외벌대 장대석 마름돌로 만들어 정면과 측면의 높이는 거의 같다. 모서리기둥隅柱 초석은 운두가 높은 주좌柱座를 하고 있지만 모서리기둥 사이에 있는 평기둥平柱초석은 거칠게 다듬은 사각형을 하고 있다. 기둥은 고식古式에서 많이 보이는 배흘림기둥이다. 정면에는 육분합문을 달았고, 양 측면에는 외짝의 정자살문으로 출입구를 두었으며, 측면과 배면의 벽은 회벽으로 구성하였다. 마루는 앞뒤로 걸쳐 짜 넣은 장귀틀과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동귀틀로 이루어지는 우물마루로 되어있다.

가구는 5량가 집이며 주심도리와 외목도리는 굴도리이며 중도리는 납도리로 되어있다. 대들보 밑에 우물반자를 짜서 내부가구는 전혀 볼 수 없고, 외부 보머리도 외목도리에 가려져 있어 일반적으로 대들보가 없는 건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2개의 대들보를 전후로 걸쳐 댄 건물로 2개의 대들보 위에 도리방향으로 가로재를 놓아 그 위에 동자주를 세우고 종보를 올린 구조로 일반적이지 않다. 공포의 짜임은 내·외2출목內·外二出目으로 전후면의 주간에는 4개, 측면의 각 주간에서는 1개씩 공간포를 두었다. 첨차는 공안이 남아있고 마구리는 직절直切하였으며, 바닥은 둥글게 깍은 교두형 첨차의 모습을 하고 있다. 외부의 살미는 앙서형으로 하부에 화두자가 있는 쇠서형이고 내부에는 삼분두로 되어 있으며 최상부에는 파련형의 살미가 운궁雲宮처리 되어 우물천장을 받치고 있다. 전면 창방의 뺄목은 기둥머리에서 나와 보아지를 이루어 평방을 받치고 있으나 후면의 뺄목은 마구리를 수직으로 절개하여 평방을 받치고 있다.

신륵사 조사당은 조각적 수법과 장식적 요소가 적어 조선 초기의 건물로 알려져 있지만, 공포의 장식과 결구를 보면 현재 조사당 건물은 조선 초기(1473년)와 중기(1671년)의 모습이 혼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는 통간通間으로 되어 있어 가운데 불단에는 목조로 된 나옹화상懶翁和尙의 독존을 안치해놓았고, 배면에는 무학無學, 지공指空, 나옹화상의 영정을 모셔놓았다.





신륵사는 1379년(우왕5) 나옹화상이 입적한 이후 대전, 조당, 승당, 선당 등이 크게 중창되었다. 1469년(예종1)에는 신륵사를 세종대왕의 능인 영릉英陵의 원찰願刹로 삼게 되면서 1473년(성종4)에 크게 중수되었다. 목은 이색이 지은 「보제존자진당시병서普濟尊者進唐詩幷書」에 1397년에 진영당眞影堂을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신륵사에 진영을 모시던 건물은 고려시대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현재의 신륵사 조사당은 건축양식으로 미루어볼 때 영릉의 원찰로 중건되던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조사당은 신륵사의 중창과 중수에 따라 몇 차례의 보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록에 따르면 1671년(현종12)과 1858년(철종9)에 신륵사가 중수되었다. 1972년에는 조사당 해체복원공사를 하면서 번와飜瓦 목재를 교체하였고, 1983년에는 벽체보수 및 번와, 1995년에는 지붕의 해체보수, 1996년에는 단청 및 미장공사를 하였다. 최근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건물 전체를 해체하여 보수하고 기단 및 배수로 정비 등이 이루어졌다.

여주 신륵사 조사당은 규모는 작지만 균형이 잘 잡힌 건물로 조선 초기와 중기의 건축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 건축학적 가치가 큰 건축물이다.



3

1 2

4

1. 여주 신륵사 조사당, 일제강점기_ 국립중앙박물관
2. 여주 신륵사 조사당, 1965_ 여주시
3. 여주 신륵사 조사당 내부,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여주 신륵사 조사당,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보물 제225호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驪州 神勒寺 多層石塔

조선시대
1기
높이 3m
석재(대리석)
여주시 신륵사길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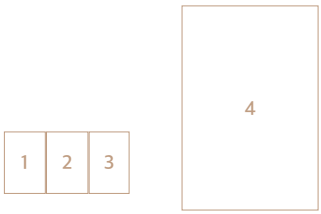
지정일 : 1963.01.21
소유자 : 신륵사(사유)
관리자 : 신륵사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은 여주 신륵사 극락보전 앞에 있는 조선 전기의 석탑이다. 이 석탑은 백색 대리석으로 조성한 평면 방형의 석탑으로 기단을 2층으로 구성한 뒤 그 위에 여러 층의 탑신석과 옥개석을 얹은 모습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구조는 고려시대의 일반형 석탑의 기본수법을 따르고 있으나, 각 부재部材의 세부 조형은 전혀 다른 양식을 보이고 있다.

기단부부터 탑신부에 이르기까지 각 층의 부재는 모두 하나의 석재로 만들어 조립하였다. 지대석 위로 높은 굄을 두고 상단 4면에 단엽單葉 40판의 복련覆蓮이 조각되어 있다. 연화문은 중앙에서 모퉁이로 향할수록 사선으로 배치되어있는 모습인데 이는 고려시대 연화문 배열수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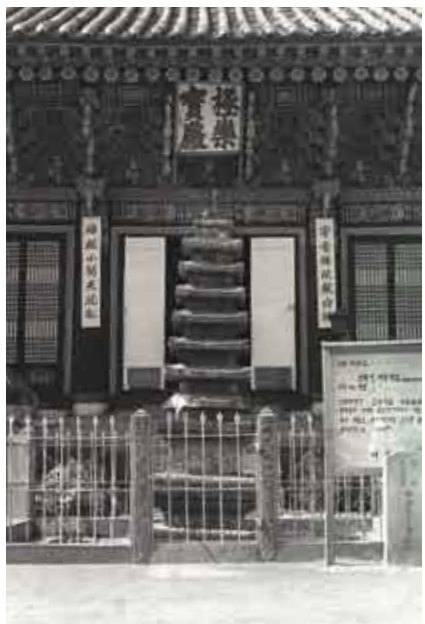
하대중석의 모서리에는 화형花形과 연주문連珠紋으로 장식한 우주隅柱가 표현되어있고, 그 사이 4면에는 파도문양을 돋을새김하였다. 면석 위 하대갑석의 측면에는 한 줄의 넓은 돌대突帶을 두르고 그 위와 아랫면에 단판單瓣으로 앙련仰蓮·복련覆蓮을 새겼다. 다시 아랫면에는 1단의 각형 받침을 새기고, 윗면에는 1단의 각형 굄을 마련하여 상대중석을 받치고 있다.

상대중석에는 하대중석과 같은 우주가 새겨져 있고, 각 면에는 생동감 넘치는 용과 구름을 돋을새김하였다. 상대갑석은 하대갑석을 뒤집어놓은 형태로, 탑신이 놓이는 윗면은 아무런 굄도 없이 평평하다. 측면에서 보면 상단에는 넓은 돌대를 두르고 있고, 하단에는 단엽 9판의 앙련을 조각하였다.



1.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일제강점기_ 국립중앙박물관
2.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1968_ 여주시
3.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1985_ 여주시
4.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著得心頭切莫忘
阿弥陀佛在何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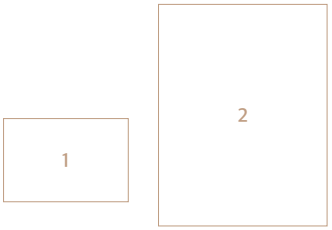
탑신부는 현재 8층 탑신까지만 원형대로 남아 있다. 대개 탑의 층수는 홀수를 이루며 짝수를 이루는 경우라도 2층 또는 10층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석탑도 원래는 8층이 아니라 9층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륜부는 대부분 없어지고 철제 찰주가 꽂힌 부재가 하나 얹혀 있으나 본래의 모습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각 층의 탑신석 네 모서리에는 우주만 새겨져 있으며 너비와 높이가 비슷하여 체감이 적은 편이다.

옥개석은 낙수면의 경사가 극히 완만하고, 우동隅棟도 거의 수평이며 전각의 반전도 약하여 경쾌한 느낌이 없다. 밑면에는 얕게 3단 받침을 두고 있으며, 가운데 받침에는 단엽의 앙련을 새겼다. 옥개석의 윗면에는 탑신 굄이 1단 조각되어 있다.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은 고려시대 석탑양식을 일부분 계승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기법 등에서 고려시대 석탑양식을 벗어나려는 여러 가지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대리석의 질감이 탑을 한층 우아하게 보이게 한다.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은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국보 제2호)의 구조와 표면장식기법을 모방하고 있으며 조성기법은 고려 말에 세워진 경천사지 십층석탑(국보 제86호)으로 부터 계승된 것으로 고려시대 말기에 새롭게 등장한 석탑양식이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신륵사는 세종대왕릉인 영릉英陵의 천장과 함께 왕명에 따라 영릉을 보살피는 원찰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1472년(성종3)에 중창된 기록이 있어 이 석탑의 조성 시기도 그 무렵으로 추정된다.



1. 여주 신륵사 극락보전과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2018 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기단부,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보물 제226호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

驪州 神勒寺 多層塼塔

고려시대
1기
높이 9.4m
석재(화강암), 전
여주시 신륵사길 73

지정일 : 1963.01.21
소유자 : 신륵사(사유)
관리자 : 신륵사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은 여주 신륵사에 있는 고려시대 전탑이다. 이 탑은 신륵사 동남편 한강이 굽어보이고, 강 건너 멀리까지 시야가 확 트인 전망 좋은 곳에 세워져 있다. 탑은 사찰의 한 가운데에 세워지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부처님의 원력으로 땅의 기운을 보호하기 위해 사찰 밖의 전망 좋은 언덕, 벼랑 또는 산봉우리 등지에 탑을 세우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 역시 바로 이러한 의도에서 사찰 밖의 강 언덕에 세워졌다고 할 수 있다.

지대석 위에 화강암 장대석으로 5단의 기단을 쌓고, 그 위에 여러 층의 탑신을 올린 모습이다. 최하단의 각 면 한 가운데에는 세로로 돌출되게 석재를 놓아 평면은 사방돌출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방돌출형 기단은 중국 송대 건축과 라마탑의 기단에서 유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단 위에는 화강암으로 탑신받침을 1단 만들고 그 위로는 전塼으로 3단의 받침과 탑신부를 만들었다. 탑신부는 벽돌로 6층까지 쌓고 그 위로 다시 몸체 하나를 올려놓아 얼핏 보면 7층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층수가 애매하여 지금까지도 이 탑은 다층전탑으로 불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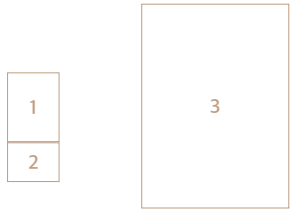
탑신은 높이의 체감이 거의 없고 6층이 높이와 너비가 급격하게 줄어든 형태이다. 신라시대의 전탑이 거의 간격을 두지 않고 벽돌을 쌓은 데 비하여, 이 전탑은 벽돌 사이를 넓게 떼어서 면토面土를 발랐다.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전탑과 달리 옥개屋蓋는 탑신에 비하여 매우 얇게 처리되어 탑신간의 경계 역할을 할 뿐이다. 또한 옥개 밑면의 받침은 1~3층이 2단, 4층 이상은 1단이며, 윗면에도 1층 4단, 2층 이상 2단씩의 받침을 두는 것 또한 특이한 형태이다. 탑을 구성하고 있는 벽돌의 일부에는 연주문連珠紋을 두르고 그 안에 당초문唐草紋을 돋을새김한 반원문半圓紋이 새겨져 있다.

상륜부에는 벽돌로 만든 방형의 노반露盤이 있고, 그 위에 화강석제의 복발覆鉢·앙화仰花·보륜寶輪·보개寶蓋 등이 얹혀 있다.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은 벽돌 무늬, 사방돌출형 기단, 특이한 탑신과 상륜부재 등 이국적 양식을 고려하면 중국문물이 크게 영향력을 미치던 고려 말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탑의 북쪽에 조선시대 후기 이 탑을 수리할 때 세운 비에 '崇禎紀元之再丙午仲秋日立(숭정기원지재병오중추일립)'이라는 연대가 명기되어 있어 현재 모습은 조성 당시가 아닌 1726년(영조2) 탑을 중수할 때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며, 여러 차례 수리되는 과정에서 벽돌의 반원 무늬 배열상태가 어지럽혀지고 전체 형태가 다소 변형된 것으로 추측된다.







1.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 1929_ 국립중앙박물관
2.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 세부 문양, 1929_ 국립중앙박물관
3.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보물 제228호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驪州 神勒寺 普濟尊者石鍾

고려시대(1379년)
1기
높이 1.9m
석재(화강암)
여주시 신륵사길 73

지정일 : 1963.01.21
소유자 : 신륵사(사유)
관리자 : 신륵사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은 고려 말에 활동하였던 보제존자 혜근普濟尊者惠勤(1320~1376)의 사리를 봉안한 승탑이다. 공민왕의 왕사王師였던 혜근은 1376년(우왕2)에 양주의 회암사檜巖寺에서 밀양의 영원사瑩源寺로 가던 길에 신륵사에서 입적하였다. 1379년에 각신覺信과 각주覺珠 등이 주선하여 신륵사를 크게 중창한 뒤, 조사당 뒤쪽의 명당을 골라 혜근의 묘역을 마련하고 승탑을 건립하였다.

승탑은 신라 승탑의 전형적인 양식인 팔각원당형八角圓堂型을 따르지 않고, 고려 말기에 영향을 준 라마탑喇嘛塔 양식으로 조성되었다. 석축石築으로 넓은 기단을 마련하고 중앙에 잔돌을 깔아 그 위에 2장의 판석板石을 놓고 종처럼 생긴 석종형石鐘形 탑신을 안치하였다. 기단의 정면과 좌·우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각 면의 모서리에는 간략한 세로줄이 새겨져 있다. 석종형 탑신은 위로 올라갈수록 완만한 타원을 이루어 가운데 부분이 볼록한 편이며, 겉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어깨부분은 마치 잘린 포탄처럼 평평하게 다듬어졌으며, 그 위에는 화염火焰무늬를 새긴 단면 4각의 보주寶珠가 얹혀 있다.

이 승탑은 통도사와 금산사의 석종형 승탑과 함께 계단탑 양식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조선시대에 주로 조성되었던 석종형 승탑의 선구적인 양식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
2
3

1.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전경, 일제강점기_ 국립중앙박물관
2.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전경,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보물 제229호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

驪州 神勒寺 普濟尊者石鍾碑

고려시대(1379년)
1기
총높이 2.12m , 비신석 1.21m, 비신폭 0.61m
석재(대리석, 화강암)
여주시 신륵사길 73

지정일 : 1963.01.21
소유자 : 신륵사(사유)
관리자 : 신륵사

1

2

1.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 일제강점기_ 국립중앙박물관
2.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는 고려 말의 고승 보제존자 혜근普濟尊者惠勤(1320~1376)의 비로, 1379년(우왕5)에 건립되었다. 보제존자 혜근은 선교양종의 통합운동을 통해 불교 재건에 힘쓰던 명승으로, 새로운 유교세력과의 미묘한 정세로 양주 회암사檜巖寺 주지로 있다가 왕명에 따라 밀양 영원사瑩原寺로 가던 중 1376년(우왕2) 신륵사에서 입적하자 그의 문도들이 사리를 안치한 석종과 석종비를 세웠다.

비문의 내용은 사리석종기舍利石鐘記와 진당시眞堂詩로 구성되어 있다. 사리석종기는 일반 비와 달리 생애를 기술한 것이 아니라 신륵사에 이 석종을 안치하고, 기문記文을 짓게 된 연유를 담았다. 왕사의 입적 후 제자들이 진영당을 짓고 석종을 만들어 사리를 봉안하였으며, 비문을 신륵사와 연관 있는 염제신廉悌臣(1304~1382)을 통해 이색李穡(1328~1396)이 지었음을 기술하였다. 진당시는 제자 지선志先이 이색에게 사리를 봉안한 신륵사에 후대 사람들이 탑에만 예경하고 왕사의 모습을 알지 못할까 염려하여 영정을 봉안하고 지었음을 기술하였다. 음기에는 200여 명에 달하는 문도門徒와 석종과 비의 건립에 관여한 도속道俗(승려와 세속인을 함께 일컫는 말)의 명단이 남아있다. 비문의 글씨는 부드러운 필치의 해서체로 한수韓脩(1333~1384)가 썼다. 일반적으로 글을 지은 사람과 쓴 사람의 이름은 비문 전면에 적는데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에서는 특이하게 비문의 끝 부분에 밝히고 있다.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는 지대석地臺石 위에 직사각형의 석재를 4장 놓고, 다시 그 위에 복련覆蓮·간석竿石·앙련仰蓮으로 구성된 비좌를 올렸다. 비좌 하단에는 앞·뒷면에 5엽씩, 양 측면에 2엽, 모서리에 각 1엽 등 모두 16엽의 단판복련單瓣覆蓮을 조각했다. 중단에는 앞·뒷면에 각 2구씩, 측면에 각 1구씩 모두 6구의 안상을 새겼는데, 안상 안에는 동물문양을 조각하였다. 상단에는 하단에 새겨진 연화문과 동일하게 생긴 복판앙련複瓣仰蓮이 조각되어 있다. 비신 양 옆에는 화강암으로 기둥을 세우고 비좌의 중앙에 세로로 홈을 파서 비신을 끼워 넣었다. 기둥의 전면에는 2조의 세로선문을 양각하였다. 비신 위에는 지붕모양의 개석을 덮었다. 개석은 우진각지붕으로 지붕아래에는 공포와 서까래, 낙수면에는 기와골이 조각되어 있으며, 용마루의 양 끝에는 각각 1구씩의 용두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는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보물 제228호), 여주 신륵사 석종 앞 석등(보물 제231호)과 함께 당시 석조미술의 수준을 살필 수 있는 작품이자 신라시대 이후 전형적인 비석 양식인 귀부, 비신, 이수 등으로 구성되는 조영 양식에서 벗어나 고려 말기 장방형의 대석臺石과 지붕형의 개석蓋石으로 양식이 전환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보물 제230호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

驪州 神勒寺 大藏閣記碑

고려시대(1383년)
1기
높이 1.33m, 폭 0.88m
석재(대리석, 화강암)
여주시 신륵사길 73

지정일 : 1963.01.21
소유자 : 신륵사(사유)
관리자 : 신륵사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는 극락보전 서쪽 언덕에 있었던 대장각(불경을 만들어 보관하던 곳)의 조성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을 적은 비로, 1383년(우왕9) 건립되었다.

신륵사에는 고려 말의 이색李穡(1328~1396)과 나옹 혜근懶翁惠勤(1320~1376)의 문도들이 발원하여 인출印出한 『경률론經律論』을 수장하던 대장각이 극락보전極樂寶殿 서쪽, 지금의 명부전 근처에 있었다고 전하나 현재는 그 자취를 찾을 수 없고 신륵사 다층전탑 위쪽에 이 비만 남아있다.

비문의 내용은 이색이 상총尙聰의 권유로 현릉玄陵(공민왕의 능)의 자복資福과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대장경을 판각·보시하고자 했지만 힘이 부족하여 나옹의 문도들과 함께 각지에서 사람들을 모아 1381년(우왕7) 대장경을 인쇄하고 책으로 꾸며 신륵사에 봉안한 사실을 기술한 것이다. 음기에는 비구·비구니·우바새(남자 신도)·우바이(여자 신도)를 구분하여 단월(절에 시주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였는데 특히 우바새에 당대 고위 관료들이, 우바이에 고관 부인들이 대거 열거되어 있다. 비문은 이숭인李崇仁(1347~1392)이 짓고, 권주權鑄(?~1394)가 해서로 썼다.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는 지대석 위에 귀꽃문과 단판복련單瓣覆蓮을 새긴 비좌를 놓고, 중앙에 세로로 홈을 파서 비신碑身을 끼워 넣은 후 양옆에 기둥을 세웠다. 비신 위에 얹혀진 지붕모양의 개석蓋石은 팔작지붕으로 낙수면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신라시대 이후 전형적인 비석양식인 귀부, 비신, 이수 등으로 구성되는 조영 양식에서 벗어나 고려 말기 장방형의 대석臺石으로 이수는 지붕형의 개석蓋石으로 양식이 전환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1
2 3
4





1.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 전경, 2018
   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 일제강점기
   _ 국립중앙박물관
3.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 1965_ 여주시
4.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 2018
   _ 경기문화재연구원



보물 제231호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앞 석등

驪州 神勒寺 普濟尊者石鍾 앞 石燈

고려시대(1379년)
1기
총높이 1.94m
석재(화강암)
여주시 신륵사길 73

지정일 : 1963.01.21
소유자 : 신륵사(사유)
관리자 : 신륵사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앞 석등>은 신륵사 서북쪽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고려시대 석등으로, 보제존자 혜근普濟尊者惠勤(1320~1376)의 승탑 앞에 있다. 석조부도石造浮屠의 형식을 모방한 석등으로서, 상대上臺·하대下臺가 구분없이 한 돌로 구성되어 석등이 형식화되는 시대적 추이를 짐작하게 한다.

이 석등의 기본형은 부도형 팔각석등으로서 팔각기단 위에 팔각의 화사석과 옥개를 얹고 그 정상에 보주를 놓은 구조이며 높은 팔각의 지대석 위에 한 돌로 연화하대를 비롯하여 중대와 연화상대를 조각하였다.

하대부는 높은 족대와 연화하대로 구성되어 있다. 족대로 보이는 각 면에 첨두형 안상을 조각하였고, 족대 위에 1단의 낮은 각형받침과 복엽16판 복련화대를 두른 뒤 1단의 중대받침을 조출하였다.

중대인 간석은 팔각에 각 우주는 연주형 기둥 모양으로 조각하였으며 각 면에는 '亞'자형의 안상을 음각하고 그 안에 4엽화판을 조각하였다.

상대석은 복엽16판의 앙련을 조각하고 판단부에는 2단의 굄대를 각출하여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단 형식은 장흥 보림사 서부도(보물 제156호)의 기단과 매우 흡사하여 주목된다.

상대 위에는 받침없이 바로 화사석을 얹었으며, 이 화사석은 다른 부재의 재질이 화강암인데 비해, 납석제蠟石製인 점이 특이하다. 8면의 면마다 상부를 꽃모양으로 장식한 화창火窓을 뚫었고, 각 면의 모서리에는 돌출된 원형기둥과 생동감 넘치는 용을 고부조高浮彫로 표현하였다.

1

2



1.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앞 석등 전경, 일제강점기_ 국립중앙박물관
2.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앞 석등, 2018 _ 경기문화재연구원



화사석 상부면에는 창방昌枋과 평방平枋을 조각하고 그 아래 기둥 사이 면에는 하강하는 비천상飛天像을 고부조로 새겼다. 화사석 위로는 전각轉角이 두꺼운 옥개석이 얹혀있다. 옥개석은 기왓골은 없고 각 면의 합각에 우동隅棟만을 둥글게 돌출시켰다. 옥개석 밑면에는 화사석의 평방과 잘 어울리도록 각형 옥개받침을 조출하였다. 옥개석과 한 돌로 이루어진 상부면 중앙에는 복발覆鉢을 표현하였으며, 그 위로는 둥근 노반과 연봉형의 보주寶珠를 놓아 상륜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 석등은 전체적으로 크기가 작으면서도 각 부의 구성이 안정감 있고, 특히 화사석의 화려한 장식미가 돋보이는 작품으로서 고려 말·조선 초기 석조부도나 석등의 옥개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식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석등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1379년(우왕5)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보물 제228호) 및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보물 제229호)와 함께 세워진 것으로 추측된다.

1

2

1.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앞 석등 전경,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앞 석등 화사석,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보물 제288호

청동 은입사 향완

靑銅 銀入絲 香垸

고려시대(1346년)
1점
높이 28.8㎝, 입지름 29.1㎝
금속(청동, 은)
의왕시 의왕시 내손로

지정일 : 1963.01.21
소유자 : 곽영대(사유)
관리자 : 곽영대

<청동 은입사 향완>은 1346년(충목왕2)에 만든 청동제 향완香垸이다.

향완은 불전佛殿에 향을 피우는 향로의 일종으로, 그릇 몸체에 나팔 모양의 높은 받침대가 있는 형태이다. 향을 피우는 부분인 노신爐身과 나팔 모양의 간주, 원형 받침대로 구성되며 노신의 구연부에는 넓은 테를 가진 전脣이 달려 있다.

향완의 노신과 받침의 표면에는 은입사銀入絲 기법으로 문양을 새겨 넣었다. 노신에는 당초문·여의두문·연화문·범자문 등이 나타난다. 몸체의 표면 4곳에는 이중선으로 원을 만든 뒤 그 안에 범자를 1자씩 놓았고, 주변에는 꽃무늬를 새겨 넣었으며, 몸체 아래와 받침대 윗부분에는 연꽃을 둘렀다. 받침대 아래에는 용과 굽은 당초문을 세선으로 새겨 넣었는데 그 형태가 극히 단순화된 모습이다.

향완 받침의 하단부에는 '正六年 丙戌 四月日 弥智山上院寺觀音齋香垸 施主奉善大夫花質金永華郡夫人權氏○○○○○執義尹○○○眷 佛寺辰韓國夫人金氏同願昔氏○○公○○入○○松法界 施主○○后○自明靑銅匠人夫令白銀香垸一'라는 은입사로 음각된 90여 자의 명문이 남아 있어 당시 사용된 기물의 명칭, 시주자, 재료 등에 대한 내역을 살펴볼 수 있다. 명문에 따르면 이 향완은 지정至正 6년 즉, 1346년(충목왕2) 4월 봉선대부를 비롯한 여러 부인들이 시주하여 미지산彌智山(현재 양평 용문산) 상원사上院寺의 관음재觀音齋용으로 만들었고, 청동장인靑銅匠人 부령夫令이 백은白銀으로 제작하였다고 한다.

이후 금강산 용공사龍貢寺에 보관되어 있다가 한국전쟁 때 남쪽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이 향완은 은입사 기법으로 표현한 장식문양은 화려하지만 다소 섬약하고 도식화된 모습이며, 외형은 전체적으로 노신에 비해 받침대가 짧고 구연부의 전은 넓은 편이어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기형의 비례와 문양은 14세기 중엽에 제작된 향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다.

청동 은입사 향완, 1998_ 경기도



보물 제387호

양주 회암사지 선각왕사비

楊州 檜巖寺址 禪覺王師碑

고려시대(1377년)
1기
높이 3.06m, 폭 1.6m
귀부 - 석재(화강암)
비신과 이수 - 석재(대리석)
양주시 회암동 산8-1

지정일 : 1963.09.02
소유자 : 회암사(사유)
관리자 : 회암사

<양주 회암사지 선각왕사비>는 고려 말 승려인 선각왕사 혜근先覺王師惠勤(1320~1376)을 추모하기 위해 1377년(우왕3) 건립되었다. 비문의 내용은 일반적인 비와 달리 생애를 처음부터 기술하지 않고 선각왕사의 입적과 탑비 건립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기술한 후 왕사의 가계와 출생 이하 생애와 업적을 담고 있다.

왕사의 휘는 혜근惠勤, 호는 나옹, 초명은 원혜元惠이고, 영해부寧海府 사람이며, 선각은 시호, 법호는 보제존자普濟尊者이다. 아버지의 휘는 서구瑞俱로 벼슬은 선관령膳官令을 지냈다. 어머니는 정씨鄭氏로 금색의 새가 오색이 찬란한 알을 떨어뜨려 가슴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1320년(충숙왕7)에 왕사를 낳았다고 한다. 선각왕사는 겨우 20살 때 이웃에 사는 친한 벗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공덕산 묘적암의 요연선사了然禪師에게 출가하였고, 1344년에 회암사에 입문하여 홀로 깨달았다. 1347년에는 원나라에 가서 인도 출신의 지공指空으로 부터 법을 전해 받고, 법의·불자拂子·범서를 받았다. 또한 원나라의 순제順帝로부터 연도燕都의 광제사廣濟寺 주지로 임명받아 머물렀으며, 금란가사金襴袈裟와 폐백幣帛을 하사받았다. 1358년(공민왕7)에 공민왕과 태후의 청으로 신광사神光寺에 주석하다가 구월산·금강산 등 여러 산을 순례하면서 수행하였다. 1370년(공민왕19) 왕이 행차한 자리에서 공부선功夫選(승려에서 실시한 시험)을 주관하고 회암사檜巖寺에 돌아가 왕사王師로 책봉되었다. 1376년(우왕2) 회암사를 중창하고 낙성落城을 축하하는 법회를 크게 열었을 때 사람이 많이 모여들자 이를 경계한 중신들의 탄핵으로 밀양의 영원사靈源寺로 이주하라는 왕명을 받고 내려가던 중 신륵사에서 입적하자 사리는 신륵사에 봉안하고 회암사에 탑비를 세웠다.

1 2



1. 양주 회암사지 선각왕사비 전경, 1980년대_ 양주시
2. 양주 회암사지 선각왕사비, 1997년 이전_ 문화재청





비문은 이색李穡이 짓고, 글씨는 고려 말의 대표적인 서예가인 권중화權仲和가 썼는데, 우리나라 금석문에서 드물게 보이는 예서체隸書體이다. 이수의 중앙에는 비의 명칭을 새기는 제액題額을 만들어 '선각왕사지비禪覺王師之碑'라고 음각되어 있다.

비석은 당나라의 형식을 닮은 복고풍으로, 귀부 위에 하나의 돌로 만든 비신과 이수가 놓여있다. 이러한 형식은 연복사탑 중창비를 비롯한 고려 말, 조선 초의 비석에서 간혹 나타난다.

귀부는 입자가 굵고 무른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몸집은 투박하고 발은 뭉툭하며, 굵고 짧은 목을 가지고 있다. 귀는 짧고 작으며, 입은 굳게 다물고 있고 아가미는 짧고 간단하다. 그러나 등에 육각형의 등 무늬만은 좌우대칭으로 정연하게 새겨져 있다. 이수부분은 쌍뿔이 돋은 용이 매우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마치 비신의 네 모서리를 물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 각각 쌍을 이룬 앞뒷면의 용들이 앞발로는 가운데 있는 여의주를 받들고, 몸체는 윗부분에서 서로 휘감아 자연스럽게 비의 머리를 원두형圓頭形으로 만들고 있다.

선각왕사비는 회암사지 왼편 산등성이에서 북쪽으로 50m지점에 위치해 있었는데 1997년 3월 천보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보호각이 불타면서 비석 역시 심하게 파손되었다. 파손된 비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서 약 3년 간 보존처리와 복원 과정을 거쳤다. 복원된 비는 경기도박물관을 거쳐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원래의 자리에는 파손된 귀부만이 남아있으며, 1999년 8월에 원형을 본 떠서 만든 비가 세워져 있다.





1

2

3

1. 양주 회암사지 선각왕사비(복원),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3. 양주 회암사지 선각왕사비 귀부,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보물 제388호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楊州 檜巖寺址 武學大師塔

조선시대(1407년)
1기
높이 2.7m
석재(화강암)
양주시 회암동 산8-1

지정일 : 1963.09.02
소유자 : 회암사(사유)
관리자 : 회암사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은 고려말 조선 초의 명승이었던 무학대사 자초無學大師自超(1327~1405)의 승탑으로 회암사지의 북쪽 능선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승탑의 뒤쪽에는 무학대사의 스승인 나옹 혜근懶翁惠勤(1320~1376)의 승탑과 나옹의 스승인 지공指空(?~1363)의 승탑이 있다.

무학대사의 법명은 자초自超, 속성은 박씨朴氏, 호는 무학無學, 당호는 계월헌溪月軒이다. 1344년 18세에 출가하여 소지선사小止禪師의 제자로 구족계를 받고, 혜명국사慧明國師에게서 불법을 배웠다. 1353년(공민왕2) 원나라 연경燕京에서 유학 중에 혜근惠勤과 인도승 지공指空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1392년(태조1)에는 태조의 부름을 받고 그의 스승이 되어 도읍지를 물색하기도 하였다. 그 후 회암사에서 머물다가 1407년(태종7) 금강산의 금장암金藏庵에서 78세에 입적하였다.

이 승탑은 무학대사가 입적한 직후에 조성된 것으로 무학대사가 태조의 지극한 예우를 받은 만큼 조선시대의 승탑 중에서 형식상 빼어나게 조성되었다. 8장의 길고 큰 돌을 2단으로 쌓아 단면 8각의 석단石壇을 만들고 그 위에 꼭대기부분을 보주寶珠모양으로 장식한 네모난 돌기둥을 세운 뒤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길고 넓은 돌을 끼워 넣었다. 길고 넓은 돌 위에는 보주 모양의 기둥을 연결하여 난간을 둘렀는데, 승탑을 보호하는 동시에 장엄함을 보여준다.

지대석은 평면이 팔각인 하나의 돌로, 각 면에는 굵은 선으로 구름무늬를 돋을새김하였다. 하대석은 편구형으로 윗면에 복엽 16판의 복련을 새겼고, 각 모서리 끝에는 귀꽃을 조각하였다. 중대석은 마치 단면 8각의 북을 옆으로 엎어 놓은 듯한 모습으로 각 면에는 네 모서리가 안쪽으로 접힌 네모꼴의 안상眼象이 조각되어 있고 안상 가운데에는 각각 모양이 다른 꽃무늬가 돋을새김되어 있다.

1 2 3





1.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일제강점기_ 국립중앙박물관
2.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1990년대_ 양주시
3.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상대석의 밑면에는 3단의 각진 받침이 새겨져 있고, 그 위에는 꽃잎이 위로 솟은 복엽 16판의 앙련을 돋을새김하였다. 앙련의 모습과 연꽃잎 안의 장식은 하대석의 복련과 같지만 귀꽃은 없다. 앙련 위에는 단면 8각의 높은 받침이 있는데, 윗면은 굄 없이 평편하며, 옆면에는 각 면마다 네모꼴 구획을 마련하고서 당초문을 굵은 선으로 돋을새김하였다.

탑신부는 구형으로 표면 전체에 구름 속을 날고 있는 용을 조각하였다. 용의 머리와 몸통, 비늘 등은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생동감을 주며, 구름무늬 역시 뒤엉킨 몸통 사이에 빈틈없이 조각되어 역동감을 한층 더하고 있다. 비교적 급경사를 이루는 옥개석의 낙수면에는 각 모서리마다 전각까지 우동隅棟을 굵게 표현하였다.

추녀는 평박平薄한 편으로, 각 모서리는 약간 치켜 올라갔고, 전각轉角에는 약간의 반전反轉이 있어 둔중함이 조금 감소되었다. 전각을 만나기 전에 특이하게 용머리를 하나씩 돋을새김하였다. 옥개석의 밑면에는 서까래가 뻗어 있고, 대들보 위에 올리는 짧은 기둥인 두공枓栱 모양이 새겨져 있다. 상륜부相輪部는 옥개석 꼭대기 부분에 구멍을 뚫고서 둥그런 노반과 단정한 연봉우리 모양의 보주만을 올렸다.

이 승탑은 고려 말부터 활력을 얻기 시작한 승탑 조영의 기운이 조선왕조의 건국과 함께 새로운 기세로 완성된 역작이라고 할 수 있다. 기단부 하대석의 다단식 구성이나 기단부와 탑신의 본체를 가득 채운 다양한 장식 모티브의 채용, 그리고 탑신부의 용무늬 표현 등에서 조선왕조의 새로운 활력으로 완성된 탁월한 조형수준이 나타나고 있다.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과 쌍자사 석등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보물 제389호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앞 쌍사자 석등

楊州 檜巖寺址 武學大師塔 앞 雙獅子 石燈

조선시대
1기
총높이 2.5m, 간석높이 0.68m,
화사석높이 0.41m, 지붕높이 0.5m, 상륜높이 0.33m
석재(화강암)
양주시 회암동 산8-1

지정일 : 1963.09.02
소유자 : 회암사(사유)
관리자 : 회암사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앞 쌍사자 석등>은 회암사지 동쪽 능선 위에 있는 무학대사無學大師(1327~1405)의 부도 앞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석등의 기본형은 방형이며, 대석을 비롯하여 화사석 및 옥개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대석과 하대석은 한 돌로 만들었다. 윗면과 아랫면의 평면은 방형으로 하대석의 윗면에는 일단의 각형 받침을 각출하여 중대석을 받고 있다. 하대석에는 각 모퉁이와 그 중간에는 연판을 배치하였다. 연판 중 각 일면 중앙에 배치된 연판은 복엽이며 전각부에 배치된 연판은 단엽으로 8판의 복련을 돌렸다. 둥글고 넓게 조성된 연판의 중앙에는 삼산형의 귀꽃문과 자엽이 조각되어 있다.

방형의 간주받침 위에 쌍사자형 간주가 간주석을 대신하고 있다. 2마리의 사자상은 서로 마주보며 뒷발을 웅크려 하대석을 딛고, 앞발과 머리를 올려 상대석을 떠받치고 있는 형상인데, 가슴과 배가 서로 붙어 입체감이 없고 엉덩이가 밑에 닿아서 하지의 표현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앞다리의 표현도 짧고 빈약해보여 육중한 상층부를 지탱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각된 사자는 통일신라시대의 사자처럼 뒷다리를 힘껏 세우고 선 것이 아니라 뒷다리는 엉덩이와 함께 하대석 위에 닿아 있으며, 머리는 위를 향하여 입을 굳게 다물고 있고 앞다리로 상대석을 떠받고 있는 형상이다.

하나의 돌로 만든 상대석의 밑면에는 1단 받침이 조각되어있고, 측면에는 하대석과 동일한 양식의 복엽 8판 앙련이 조각되어 있다. 화사석은 두 장의 석재를 좌우에 간격을 두고 세워 만들었고 화사석의 네 모퉁이에는 원형의 우주隅柱를 조각하였다.

옥개부와 상륜부는 하나의 돌로 조각되었다. 옥개석은 처마 밑이 반원을 그리면서 들려있고 낙수면落水面의 우동隅棟은 뚜렷하게 표현되었다. 옥개석의 밑면은 옥개받침 대신 목조건축의 처마 밑 구조와 같이 평방형과 빨목형, 추녀와 사래형 등을 표현하였다. 옥개석 정상에는 높고 낮은 2단의 원좌를 조각하고 그 위에 두툼한 보륜을 각출한 뒤 보주를 놓았다.

삼국시대 이래 우리나라 고유의 석등은 그 기본형태가 팔각형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방형으로 변형된 예도 있으며 이러한 형식은 조선시대까지 전승되었다.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앞 쌍사자 석등에서 볼 수 있는 대석의 연판조각, 네 모서리에 원주를 배치하고 창구를 전후로 관통시킨 화사석 등의 양식은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앞 사자 석등(보물 제656호)에서 엿볼 수 있다.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에 새겨진 기록으로 미루어 함께 세워진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앞 사자 석등은 조선 전기인 1392년(태조1)부터 1394년에 걸쳐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앞 쌍사자 석등 역시 거의 비슷한 시기의 작품으로 추측된다.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앞 석등,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보물 제397호

남양주 봉선사 동종

南楊州 奉先寺 銅鍾

조선시대(1469년)
1구
높이 238㎝, 입지름 168㎝, 두께 23㎝
금속(청동)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 32

지정일 : 1963.09.02
소유자 : 봉선사(사유)
관리자 : 봉선사

<남양주 봉선사 동종>은 남양주 봉선사에 전하는 조선시대의 동종이다. 동종은 둥근 곡면을 이루는 천판에서부터 종구鍾口로 내려오면서 폭이 조금씩 넓어지는 형태로 고려 후기 연복사종에서 비롯된 중국종 양식을 따르고 있다.

종뉴鐘紐는 단용單龍과 음통音筒으로 고리를 형성하는 전통형 동종과는 달리 쌍용이 서로 등진 모습으로 종의 고리가 만들어져 있고 음통은 없다. 종견鐘肩에는 이중의 가로줄을 돌려 몸통 부분과 구분짓고 있으며 가로줄 위로는 복엽 연화문이 둘러져 있다. 종 중간에는 가로줄을 3줄 돌려 몸통을 상·하로 나누고 있다. 종신鐘身의 상단에는 사각형의 연곽과 4구의 보살입상을 번갈아 배치하였고, 보살의 두광 좌우와 연곽 아래에는 범자를 배치하였다. 보살상은 화려한 보관과 영락을 갖추고 있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아 합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몸을 한쪽으로 비스듬하게 돌린 채 연화좌 위에 서 있다. 보살의 두광 좌우에는 '옴'자를 새겼고 연곽 아래에는 옴마니반메훔의 육자광명진언六字光明眞言이 있다. 4곳에 조형된 연곽대의 내부에는 줄기와 이파리로 구성된 덩굴무늬가 유연한 선각으로 장식되었다. 연곽의 내부에는 반구형으로 돌기된 9개의 연뢰가 배치되어 있고 연뢰의 주변에는 8엽의 연화문이 새겨져 있다. 종의 입구와 가까운 곳에는 넓은 띠가 둘러져 있는데 그 안에는 당시에 유행하던 파도치는 모양이 사실적으로 잘 표현되었다. 종신의 하단에는 종을 만들게 된 연유와 종의 제작과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 등이 열거되어 있는 명문이 남아있다.

명문에 따르면 세조가 승하한 이후 명복을 빌기 위해 성화成化 5년인 1469년(예종1)에 봉선사를 짓고 7월에 이 종을 만들었으며, 명문은 강희맹姜希孟(1424~1483)이 짓고 글씨는 정난종鄭蘭宗(1433~1489)이 썼다. 주성鑄成을 주도한 인물은 정략장군定略將軍 김덕생金德生이며, 주성장으로는 정길산鄭吉山, 이파회李波廻, 이명구지李命仇知, 오춘경吳春敬이, 화원으로는 조봉대부朝奉大夫 이백련李百連, 선교랑宣教郎 김중경金仲敬이, 조각장으로는 장금음동張今音同, 김물금金勿金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남양주 봉선사 동종은 왕실의 후원으로 당대 최고 주성장의 솜씨가 발휘되었고 세부 문양의 도안을 위해 화원이 참여하여 완성도를 높인 작품이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종에 비해 종 입구가 넓어지고, 몸통에 있는 가로 띠, 보살입상의 모습, 육자광명진언 등 조선시대 종의 새로운 요소가 등장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종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3

1 2

1. 남양주 봉선사 동종 보살입상,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남양주 봉선사 동종 종뉴,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남양주 봉선사 동종,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보물 제402호

수원 팔달문

水原 八達門

조선시대(1796년)
1동
정면 5칸, 측면 2칸, 2층 건물
목재, 전, 석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정조로 780

지정일 : 1964.09.03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수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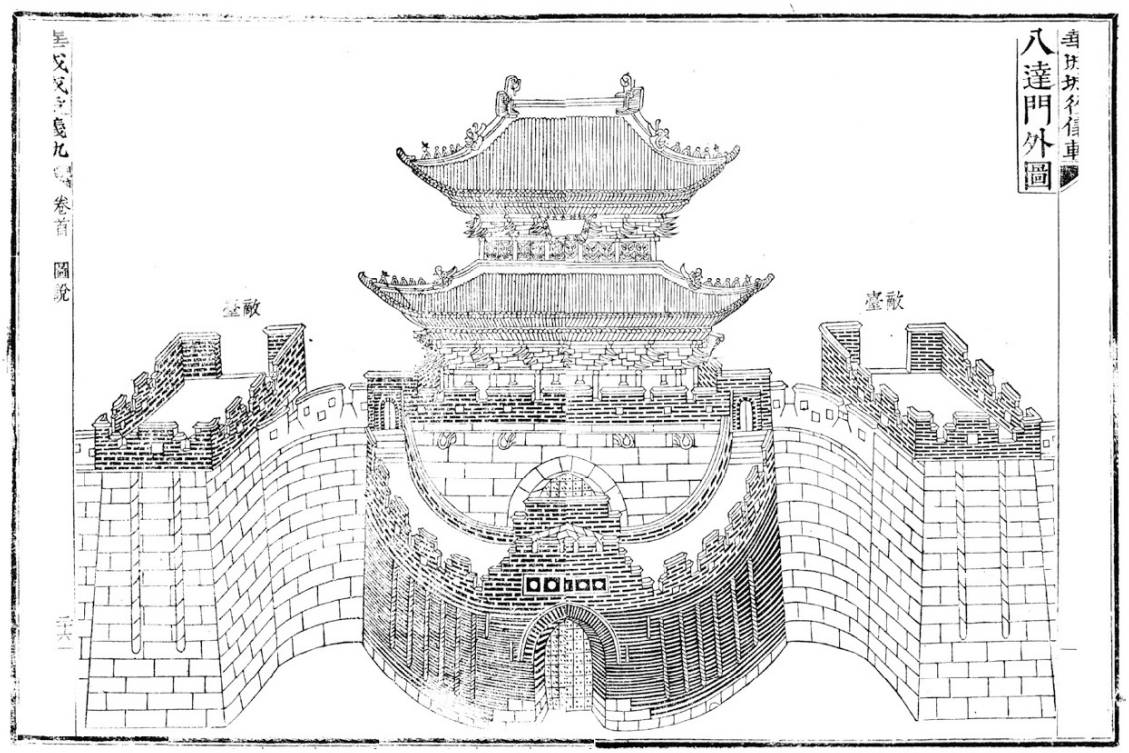
<수원 팔달문>은 수원 화성의 남쪽 성문으로, 서쪽에 위치한 팔달산八達山에서 그 명칭을 따왔다. 수원 화성에 있는 장안문長安門(북문), 팔달문(남문), 창룡문(동문), 화서문(서문) 등 네 곳의 성문 중에서 팔달문은 모든 면에서 월등한 격식을 갖추고 있다. 팔달문은 1794년(정조18) 2월 28일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고유제를 시작하여 그 해 9월 15일 누각을 완성하고, 이듬해 5월 20일 옹성甕城을 완료하는 것으로 공사를 마쳤다. 팔달문은 화성의 단일 건물 중 가장 많은 비용인 5만 2천 423냥 1전 3푼을 들여서 완성하였다.

팔달문의 축조는 높은 화강암 석축에 홍예문虹蜺門을 내고 그 위로 무사석武砂石 기부基部를 쌓았으며, 정면 5칸, 측면 2칸의 중층重層 문루를 세웠다. 문루 아래층 중앙칸에는 마루를 놓았으며, 상층에는 우물마루를 깔았다. 기부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둥근기둥을 세웠으며, 기둥 위에는 다포식의 화려한 공포를 짜서 건물의 위용을 더했다. 공포는 아래층 내삼출목, 외이출목, 위층은 내외삼출목이다. 기둥 위에 안초공安草工을 두었고, 외부로는 앙서仰舌와 수서垂舌를 두어 끝이 가늘고 길게 나왔으며, 내부로는 운공雲空과 같은 복잡한 조각을 보이고 있다. 지붕은 추녀선이 지붕꼭대기에서 처마 끝까지 길게 내려오는 우진각 지붕이며, 지붕의 용마루와 추녀마루에는 취두와 잡상을 올려 멀리서도 특별한 격식을 지닌 건물임을 알 수 있도록 꾸몄다.

1

2

1. 화성성역의궤 팔달문외도, 200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수원 팔달문 전경, 2013_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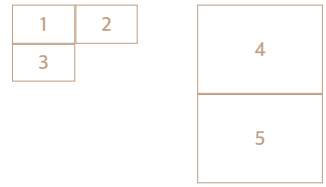












1. 수원 팔달문, 일제강점기_ 국립중앙박물관
2. 수원 팔달문, 일제강점기_ 국립중앙박물관
3. 수원 팔달문, 1969_ 경기도
4. 수원 팔달문, 2013_ 수원시
5. 수원 팔달문, 2018_ 경기도지적연구회

문 바깥쪽에는 반원형의 옹성을 벽돌로 쌓아 2중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옹성 상부의 안쪽 너비는 3.28m로 그 위 양측에는 凸모양의 여장女墻을 쌓아서 타垜와 타구垜口, 근·원총안近·遠銃眼·현안懸眼을 두고 있으며, 중앙부에는 통행할 수 있게 홍예문을 내어 사통팔달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화성 축성을 위하여 성역소城役所라는 임시기구가 조직되었는데 공사의 책임자는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쳐 당시 중추부사로 있던 채제공蔡濟恭과 당시 화성유수華城留守로 있었던 조심태趙心泰가 임명되었으며, 이 두 사람 밑에서 현장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도청都廳에는 이유경이 임명되었다. 채제공, 조심태, 이유경 이 세 사람 밑에는 작업내용에 따라 많은 감독관이 조직되었는데 팔달문의 감독과 시공을 담당한 사람의 명단을 살펴보면 감동監董은 김낙순金樂淳이며 별감동은 이방운李邦運이었다. 감동 김낙순은 화성성역에서 485일을 일한 인물로, 주로 궁궐 경호를 담당하는 무관이었으나 화성성역에서 팔달문을 비롯한 몇몇 공사장에서 감동을 맡았다. 이방운은 화성 축성을 시작할 때 팔달문 공사 특별 감독관으로 일을 하다가 성곽 공사가 중지되자 온양부사로 갔다가 이듬해 4월 다시 축성공사가 시작되자 팔달문 옹성을 마무리하기 위한 감독관이 되었다. 팔달문 배면 동측 무사석에 새긴 공사실명판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 역시 김낙순과 이방운이다. 이외에도 패장牌將으로는 이도문李道文, 한상희韓尙禧, 임준창林俊昌, 신속申曦, 마지막에 석수 대표로 김상득金尙得이 기록되어 있다.

팔달문의 변화를 살펴보면 1795년 축조 당시에는 옹성 홍예에 문루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1801년에 간행된 『화성성역의궤』에서 확인된다. 1824년(순조24) 팔달문의 옹성 위에 문루가 만들어졌고 1847년(헌종13) 폭우로 무너진 팔달문 옹성을 보수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팔달문 일대 시가지 정리를 명목으로 팔달문 옹성의 홍예가 철거되었고 성벽이 잘려나갔지만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전쟁 동안에는 수원비행장을 둘러싸고 인민군과 미군의 교전이 벌어지면서 장안문 등 화성의 시설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다행히 팔달문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한국전쟁 이후 팔달문의 지붕보수가 이루어졌으며, 1975년 수원화성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홍예를 복원하였다. 1993년 한 차례에 걸쳐 보수가 이루어졌고, 2010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는 해체보수공사를 진행하여 변형된 목부재를 교체하였다.

수원 팔달문은 이처럼 건립된 이후 수차례 수리·보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화성의 주요 시설물 중 하나로서 역사적, 학술적, 건축적 가치가 매우 높아 보물로 지정되었다.





보물 제403호

수원 화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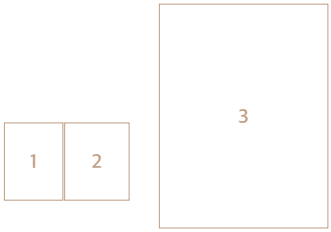
水原 華西門

조선시대(1796년)
1동
정면 3칸, 측면 2칸, 단층 건물
목재, 전, 석재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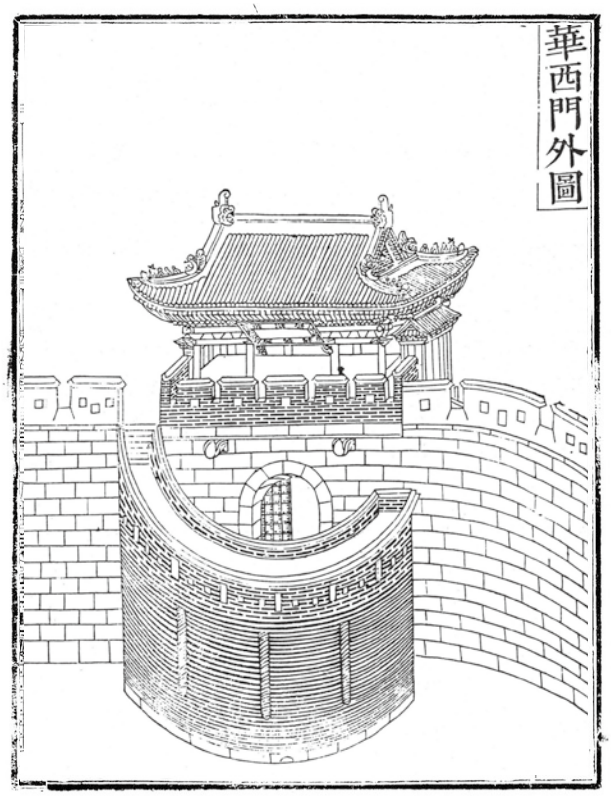
지정일 : 1964.09.03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수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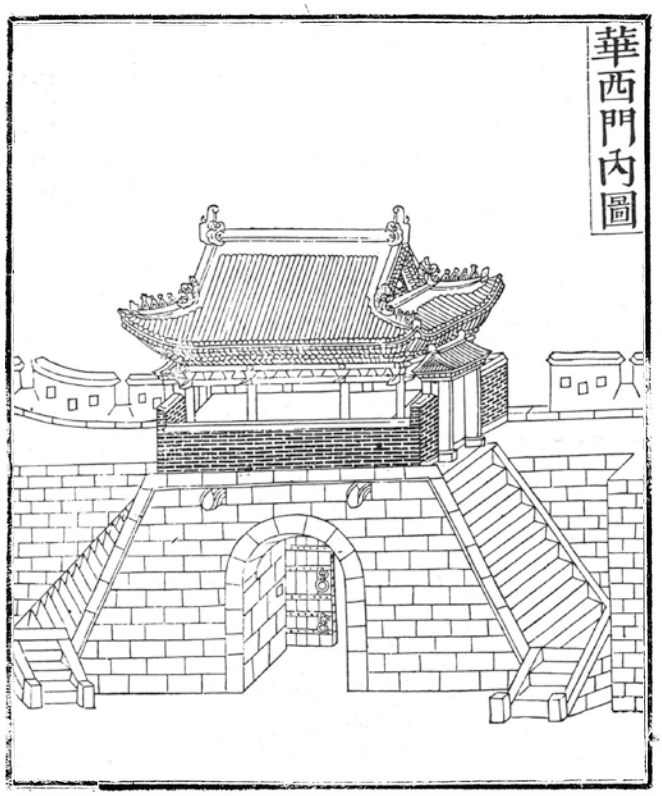
<수원 화서문>은 수원 화성의 서쪽 성문으로 서북공심돈과 함께 화성의 서북측에 위치하고 있다. 성문의 형식은 동측에 위치한 창룡문과 비슷하지만 창룡문은 한국전쟁으로 파손되어 다시 중건된 반면 화서문은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아 건립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화서문은 1795년 7월 21일에 터를 닦고, 11월 13일 홍예를 완성하였으며, 18일에 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워 12월 11일에 상량을 하였다. 상량 이후 약 30일 후인 1796년 1월 8일 화서문 누각까지 완성하였다. 터를 닦은 후에 공백기를 빼면 약2개월여 만에 홍예 위의 문루를 완성한 것이다. 성문 바깥쪽의 옹성은 체성공사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져서 1796년 8월에 완성되었다.

화서문은 높은 화강암 석축에 홍예문虹蜺門을 내고 그 위로 무사석武砂石 기부基部를 쌓았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문루를 세웠다. 홍예문 밖으로는 반달형의 옹성甕城을 설치하였다. 옹성의 내부는 지대석 위로 무사석을 쌓았지만 외부는 벽돌로 쌓은 후 현안懸眼을 설치하였다. 옹성 개구부의 위치는 팔달문이나 장안문과는 달리 중앙에 통로를 두지 않고 남측 끝을 터놓아 문을 출입할 때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옹성 위에는 장안문長安門이나 팔달문八達門과 같이 용도가 문루 기부에서 통할 수 있게 하고, 그 양면에 여장女墻을 쌓아 외부로 근총안近銃眼·원총안遠銃眼·현안懸眼을 뚫어 철저한 방어가 되도록 하였다.



1. 화성성역의궤 화서문외도, 200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화성성역의궤 화서문내도, 200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수원 화서문, 2009_ 수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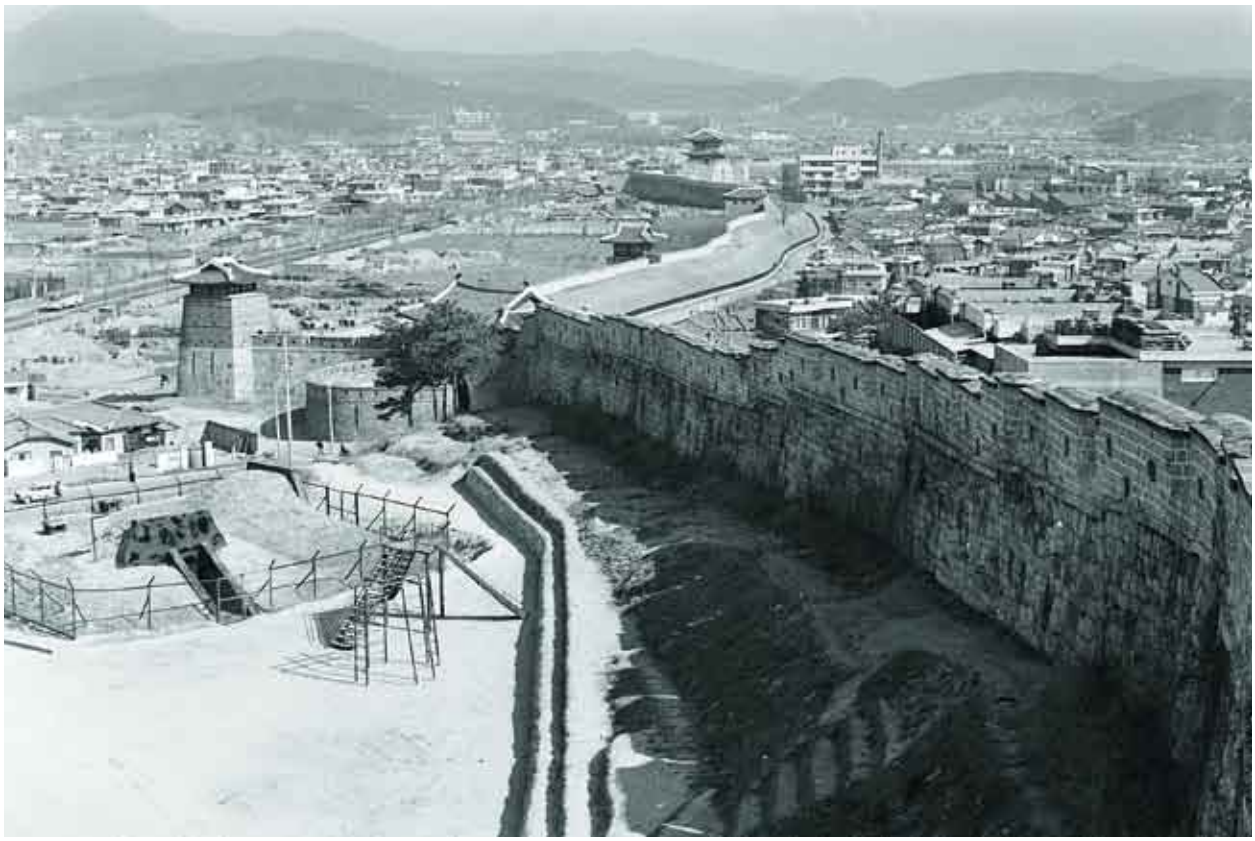
문루는 기단부 양측에 내부로 계단을 두어 오르게 되어 있으며, 약 6m 높이 위에 여장으로 사방을 두르고 있다. 여장의 밑, 기부 전후면 상부에는 석루조石漏槽를 2개씩 설치하고 있다. 또 양측 계단과 연결되는 곳에는 누각으로 통하는 일각문 형식의 협문夾門이 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누각은 사각초석 원형주좌 위에 원기둥을 올려 세운 이익공二翼工의 형식이다. 바닥은 중앙 칸에만 마루를 깔아 아래에 홍예 부분의 천장을 이루도록 하였고, 그 밖의 부분은 강회다짐 흙바닥으로 되어 있다.

상부는 연등천장椽背天障으로 목가구木架構가 노출되게 꾸몄는데 외목도리를 둔 이익공 굴도리 5량五樑의 구조이고, 대량大樑과 종량宗樑을 두고 있다. 익공 쇠서와 첨차檐遮, 보아지의 형태는 전형적인 조선 후기 양식이다. 또 창방昌枋과 주심도리 장여 사이에는 화반花盤을 배열하고 그 위에서 소로를 하나씩 끼워서 장여를 받치고 있다. 보머리와 마룻대공宗臺工 등은 간단하게 주름무늬 조각을 하였다. 지붕은 비교적 기울기가 낮게 꾸며진 팔작지붕이며 지붕마루는 양성을 바르고 서까래와 부연을 가진 겹처마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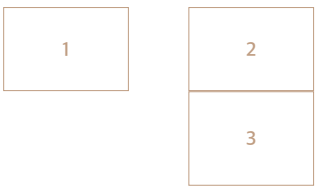
화성 축성을 위하여 성역소城役所라는 임시기구가 조직되었는데 공사의 총 책임자는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쳐 당시 중추부사로 있던 채체공이었다. 채제공 아래 실제로 공사를 촐괄하는 책임자로 당시 화성유수로 있었던 조심태가 임명되었으며, 이 두 사람 밑에서 현장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도청都廳에는 이유경이 임명되었다. 채제공, 조심태, 이유경 이 세 사람 밑에는 작업내용에 따라 많은 감독관이 조직되었는데 화서문의 감독과 시공을 담당한 사람의 명단을 살펴보면 별감동은 김처한金處漢과 조운상趙雲祥, 패장牌將으로는 이도문李道文, 박중수朴宗秀, 석수로는 한시웅韓時雄, 박상길朴尙吉 등, 목수로는 손삼득孫三得, 손동현孫東顯 등, 미장으로는 김명철金明喆, 박도성朴道成 등이 기록되어 있다.





1796년 화서문이 완성된 이후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화서문의 수리·개축에 관련된 기록은 찾기 어렵다. 다만 1865년(고종2) 당시 수렴청정 중이던 대왕대비가 수해를 당한 수원의 백성들에게 수원부 수성고修城庫의 돈 3,000냥을 특별히 이획移劃해서 재해를 당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주도록 지시한 기록이 있고, 1875년(고종12)에도 성곽과 행궁의 시설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요청한 기록이 있어 수차례 크고 작은 수리와 보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1932년 10월 4000여 환을 들여 화서문을 중수하였고, 해방 후에는 1971년 보수가 이루어졌다. 1975년 수원화성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수리공사가 진행되어 지붕 연목이상을 해체하여 노후 부재를 교체하였다. 1993년 노후된 기와고르기 작업이 진행되었고, 1999년에는 북측계단 상단 부분을 완전히 해체 설치하면서 계단과 물려있는 안쪽 성벽(석축)을 해체보수 하였다. 옹성과 함께 화서문의 마루널, 기둥의 수리처리, 지붕기와 교체 등을 수리했다. 화서문은 이처럼 건립된 이후 큰 수리나 재난을 만나지 않아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화성의 주요 시설물 중 하나로서 역사적, 학술적, 건축적 가치가 매우 높아 보물로 지정되었다.



1. 수원 화서문 전경, 1978_ 경기도
2. 수원 화서문, 2018_ 경기도지적연구회
3. 수원 화서문 전경, 2018_ 경기도지적연구회





보물 제435호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安城 奉業寺址 五層石塔

고려시대
1기
높이 7.8m
석재(화강암)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148-5

지정일 : 1966.02.28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안성시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은 안성 죽산지역의 봉업사터에 있는 고려 초기의 석탑으로,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봉업사奉業寺 '금지유석탑今只有石塔'이 바로 이 석탑이다.

이 석탑은 단층기단 위에 5층의 탑신석과 옥개석을 올리고 정상에 상륜부를 장식한 일반형 석탑이다.

탑의 조성은 여러 장의 크고 넓적한 돌로 지대석을 마련하고 그 위에 기단 면석을 놓았는데 이처럼 석탑의 기단이 단층으로 축소되는 경우는 중부권의 석탑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다. 기단의 면석은 3면은 1매의 판석으로, 서쪽 면석만 2매의 판석으로 짜였으며, 면석 모서리에는 우주隅柱가 매우 희미하게 표현되어 있다. 갑석은 4매의 두꺼운 판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두텁고 둔중한 느낌을 준다. 갑석의 아랫면에는 부연이 없이 평편하고, 윗면에는 탑신부를 받치는 각형 굄이 있다.

탑신부는 1층 탑신석은 4매의 판석으로, 2층 탑신석은 2매의 판석으로 이루어졌으며, 3~5층의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각 1매의 석재로 조성하였다. 1층 탑신석은 기단의 면석보다 높고, 각 모서리마다 폭이 좁은 우주가 얕게 모각模刻되어 있다. 남쪽면의 중앙에는 형식적인 감실龕室이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2층 이상의 탑신석은 1층 탑신석에 비하여 높이가 급격히 줄었고, 상층으로 갈수록 심한 체감비례를 보이고 있다. 탑신석에는 얇은 우주가 새겨져 있다.

옥개석은 낙수면落水面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각 면의 합각合閣은 예리한 편이다. 얕은 추녀가 전각轉角에 이르기까지 수평을 이루고 있으며, 전각에 이르러 약간의 반전을 보인다. 옥개석 밑면의 받침은 5단씩이 조각되어 있으며, 옥개석 윗면에는 탑신을 받치기 위한 굄이 낮게 조각되어 있다. 지붕 꼭대기를 장식하는 상륜부는 모두 소실되었다.

봉업사지 오층석탑은 기단부가 둔중하고 기단부와 탑신부에 새겨진 우주는 형식적이며, 탑 전체의 균형감도 양호하지 못하다. 그러나 석재의 결구방식에서는 규모 있는 석탑으로 축조하고자 한 의도가 엿보인다. 이 석탑은 고려시대 초기에 들어 비록 솜씨는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에 못 미치더라도 각 지역마다 웅대한 석탑을 세우기 위한 노력과 사회적 분위기에서 지역인들에 의하여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안성 지역에 산재한 많은 석탑 중에서 우수한 석탑으로 손꼽힌다.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사리구(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69년 안성 죽산리의 오층석탑을 수리하던 중 발견되었다. 납석으로 만든 사리기의 바닥쪽으로 금동제 사리병을 넣은 다음 동그란 마개로 바닥을 막았고, 사리병 안에서 사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1

2

1.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사리구, 촬영일미상_ 국립중앙박물관
2.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보물 제488호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安城 七長寺 慧炤國師碑

고려시대(1060년)
1기
총높이 4.96m, 너비 1.28m 비신높이 3.48m
석재(대리석)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

지정일 : 1968.12.19
소유자 : 칠장사(사유)
관리자 : 칠장사

1
2
3

1.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이수,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귀부,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비신,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는 고려 전기 법상종의 고승 혜소국사 정현慧炤國師鼎賢(972~1054)의 비이다. 비문은 김현金顯이 짓고 민상제閔賞濟가 구양순법歐陽詢法의 해서로 썼으며, 배가성裴可成과 이맹李孟 등이 새겨 1060년(문종14)에 세웠다. 혜소국사의 이름은 정현鼎賢, 속성은 이씨李氏이다. 비문에 의하면 모친이 보현보살 500탱을 조성하고 빌어 972년(광종3) 태어났고 10세에 광교사光敎寺 충회忠會에게 구법하였으며, 17세에 칠장사에서 융철融哲의 가르침을 받은 후, 영통사靈通寺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그 뒤 미륵사彌勒寺를 거쳐 칠장사로 돌아와서, 999년(목종2) 28세에 칙명에 의하여 대사大師가 되었다. 41세에 중대사重大師, 60세가 넘어 덕종德宗(1032~1034)대에는 승통僧統이 되어 현화사玄化寺에 있었으며 1054년 11월 15일에 칠장사에서 83세로 입적하자, 문종이 절 남쪽 산에 장사를 지내게 하고 혜소국사라는 시호를 내렸다.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는 현재 칠장사 원통전 뒤 계곡을 따라서 약 2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귀부龜趺, 이수螭首, 비신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있다. 귀부는 용머리를 한 거북이 머리를 치켜들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데, 목이 거의 없어서 등에 붙은 모습이다. 입을 벌려서 이를 드러내고 있으며 수염과 목 지느러미도 묘사되어 있다. 귀 뒤에는 지느러미가 크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같은 양식은 고려 전기에 세워진 비석들에서 보이는 공통된 점 중 하나이다. 등에는 이중 6각형의 귀갑문龜甲紋을 표현하였고 귀갑 주변에는 연주문을 돌렸다. 네 발은 모두 앞으로 향하고 있는데, 발가락의 표현이 형식적이며, 꼬리는 우측을 향하고 있다. 귀부 중앙에는 직사각형의 비좌가 마련되어 있는데 고려 초기의 비석에 비하여 높이가 현저히 낮고 상면에는 연화문을 새겼다. 전반적으로 귀부는 고려 초기의 석비에 비하여 조각이 얕고 입체감이 떨어진다.

비신은 흑대리석으로 만들었으며, 현재는 새로 조성한 방형 비좌에 세워져 있다. 전면 상단에는 제액을 '증시혜소국사비명贈諡慧炤國師碑銘' 8자를 횡으로 새기고 그 밑으로 경계선을 그어 본문을 새겼다. 비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측면의 조각이다. 두 마리 용이 여의주를 가운데 두고 서로 엉켜있는 형태를 정교하게 새겼다.

이수는 비신에 비하여 크기가 큰 편으로, 구름 위를 날고 있는 용을 조각하였다. 환조에 가까울 정도로 깊게 조각하고 입체감도 있어서 귀부에 비하여 훨씬 세련된 조각 양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전 시기의 비석과 비교하면 간략화되었다. 상면에는 용을 한 마리 더 조각하고 그 위로 연화문이 조각된 원판형 석재를 올려놓았으나 원래 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는 신라 말 고려 초의 비석 조성 양식을 계승하면서 고려화된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비신의 중앙부가 절단 난 채로 방치되어 있던 것을 1975년 보호비각을 세우고 보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보물 제531호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楊平 龍門寺 正智國師塔 및 碑

조선시대(1398년)
2기
부도 - 높이 2.15m
비 - 높이 1.2m, 너비 0.6m, 두께 0.2m
부도 - 석재(화강암)
비 - 석재(점판암)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산99-6

지정일 : 1971.07.07
소유자 : 용문사(사유)
관리자 : 용문사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활동하였던 정지국사 지천正智國師智泉(1324~1395)의 승탑과 그의 행적을 기록한 탑비로 1398년(태조7)에 건립되었다. 용문사 은행나무의 오른쪽 산 능선에 있으며, 탑비와 승탑은 80m 정도 떨어져 있다.

정지국사의 성은 김씨金氏, 호는 축원竺源으로 황해도 재령 출신이다. 1332년(충숙왕 복위1) 장수산 현암사懸菴寺로 출가하여 바로 선禪을 닦다가, 뒤에 『능엄경楞嚴經』을 배워 깊은 뜻을 깨달았다. 1353년(공민왕2)에는 무학대사와 함께 원나라로 가서 지공선사指空禪師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후에 나옹선사懶翁禪師의 제자가 되었다. 정지국사는 항상 말이 적고 근엄하였으며, 깊은 산에 숨어 지낼 뿐 대중을 거느리고 법회를 여는 일이 없어 나옹의 법통法統은 무학대사가 이어받게 되었다고 한다.

정지국사 승탑은 지대석과 하대석이 4각이고 상대석과 탑신부는 8각으로 되어있는 팔각원당형圓堂形으로 조성되었다. 길고 큰 널돌을 연결하여 마련된 공간 중앙에 수매의 방형 판석으로 지대석을 만들었다.

기단부의 하대석은 방형으로 옆면에는 하나의 꽃잎이 아래로 향한 복련覆蓮의 연꽃무늬가 각 모서리마다 1개씩, 각 변에는 5개씩 모두 24개가 새겨져 있다. 하대석의 윗면 가운데에는 방형과 원형의 굄이 마련되어 있다. 중대석은 위아래의 너비가 좁고 가운데의 너비는 넓은 부드러운 곡선형태이며 조각 장식은 없다.

기단부의 상대석은 밑면에 3단의 각진 받침이 있고, 옆면에는 하나의 꽃잎이 위로 솟아 있는 앙련仰蓮의 연꽃무늬 16개가 장식되어 있다. 윗면에는 탑신석을 받치기 위해서 각진 1단의 굄을 새겼다. 탑신석은 팔각형으로 각 면의 좌우에는 우주가 조각되어 있고, 한 면에는 문비門扉모양이 새겨져 있다. 옥개석은 아래에 3단의 받침이 있고, 처마 밑에는 낮은 부연副椽이 조각되었으며, 각 모서리마다 각진 서까래를 표현하였다. 옥개석 윗면에는 우동隅棟을 두드러지게 표현되었고 추녀 끝에는 추녀에 박힌 형태로 꽃장식이 조각되어 있다. 지붕 꼭대기의 상륜부에는 연꽃 모양의 장식이 놓여 있다.

이 승탑은 연꽃대좌형 기단 위에 팔각의 탑신부가 놓이고, 기단부의 중대석과 탑신에는 장식이 생략되는 등 간결한 수법이 돋보인다. 기단과 하대석은 방형, 중대석은 북 모양으로 구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승탑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들만으로 구성되었다. 기단부의 길쭉한 연꽃잎 표현과 지붕의 처마형태에서 고려 말 조선 초기의 조형양식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정지국사탑비는 윗부분의 양 모서리가 모두 형태인데 이러한 형식의 비는 고려시대 후기에 등장하여 조선시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앞면의 둘레에는 테를 두른 듯 가는 선을 한 줄 돌리고 그 안쪽에 44자씩 모두 20행의 비문을 새겼다.
비명은 권근權近이 지었고, 비액碑額은 소전小篆으로, 비문명은 해서체로 쓰였다. 뒷면의 비음碑陰에는 찬조자 명단이 6단 21행으로 적혀 있다.
이 탑비는 원래 정지국사부도에서 20m 아래 자연석 바위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도중에 뽑혀서 절 안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1970년경에 지금의 위치로 옮겨 세웠다고 한다. 비석의 하단 왼쪽이 약간 파손된 것을 제외하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깔끔한 필치와 정갈한 구성이 돋보인다.

1

2 3

1.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 탑비(전면),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용문사 정지국사 탑비(전면 탁본), 2009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관
3. 용문사 정지국사 탑비(후면),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보물 제565호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平澤 深福寺石造毘盧遮那佛坐像

통일신라시대
1구
총높이 2.28m, 불상높이 1.21m, 연대높이 1.07m, 상대직경 1.13m, 하대직경 1.15m
석재(화강암)
평택시 현덕면 심복사길 22

지정일 : 1972.03.02
소유자 : 심복사(사유)
관리자 : 심복사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평택 심복사 금당의 주불主佛로 봉안되어 있는 고려시대 초기 석불좌상이다.

불상의 머리에는 큼직한 나발螺髮이 새겨져 있으며, 머리 정상에는 육계가 낮게 표현되었다. 얼굴은 둥글고 원만한 모양으로 가늘게 선각된 이목구비는 차분하면서도 온화한 인상을 주고 있다. 목에는 삼도三道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 두 손은 마주 모아 왼손의 검지檢指를 오른손 주먹으로 감싸 쥔 지권인智拳印의 수인手印을 결하고 있다. 불상의 명칭은 수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9세기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한 비로자나불상의 수인이 바로 '지권인'이다. 비로자나불은 불교의 진리 그 자체를 상징하는 부처로 진신眞身 혹은 법신法身이라고도 하며 비로자나불이 결하고 있는 '지권인'은 이理와 지智, 중생衆生과 부처, 미혹迷惑과 깨달음悟이 본래 하나라는 것을 상징한다.

착의법은 양쪽 어깨를 감싼 통견식通肩式이며, 대의大衣 안에 입은 내의內衣의 매듭이 배 앞에 리본처럼 양쪽으로 늘어져 있다. 대의에는 옷주름이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한 띠 모양으로 새겨져 있다. 대의의 양쪽 깃과 소매에는 반원형의 꽃무늬가 서로 엇갈리게 양각되어 있어 장식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대좌臺座는 상·중·하대로 이루어진 삼단의 연화대좌이다. 상대에는 2중의 단판연화문單瓣蓮花紋을 새겼고, 둥근 중대의 앞면에는 두 마리의 사자가 상대를 받친 모습으로 부조되어 있으며, 하대에는 8판의 복엽연화문複葉蓮花紋을 조각하였다.

이 불상은 전체적으로 둥글고 풍만한 조형미, 팔이 접히는 팔꿈치 부분에 꽃잎 두 장이 겹쳐진 모습으로 새겨진 독특한 주름 등에서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867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서산 보원사지 철불좌상, 원주 출토 철불좌상 등 원주지역에서 전해오는 일련의 10~11세기 석불좌상들과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유사성을 토대로 미루어볼 때,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조성 시기는 고려 초기인 10세기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신라말기와 고려초기의 석불조각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좀 더 도식화가 진행된 단계의 불상으로 광배는 분실되고 없지만 불신佛身과 대좌臺座는 잘 보존되어 있다.



1

2

1.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대좌, 2006_ 오세윤
2.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2006_ 오세윤



보물 제567호

평택 만기사 철조여래좌상

平澤 萬奇寺 鐵造如來坐像

고려시대
1구
높이 1.42m, 어깨폭 0.58m, 무릎폭 0.92m
금속(철)
평택시 진위면 진위로 181-82

지정일 : 1972.07.22
소유자 : 만기사(사유)
관리자 : 만기사

<평택 만기사 철조여래좌상>은 평택 만기사에 봉안되어 있는 고려시대의 철불이다. 불상의 머리에는 작은 나발螺髮이 있고, 정수리 부근에는 상투 모양의 육계肉髻가 큼직하게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계주髻珠가 표현되어 있다.

얼굴은 갸름하고 이목구비는 분명하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다. 상체가 약간 긴 편이나 결가부좌結跏趺坐를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비례가 알맞은 편이다. 수인手印은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으로 오른손은 손끝이 땅을 향한 채로 무릎 위에 올려 놓았고,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채로 배 앞에 올려 놓았다. 법의法衣는 왼쪽 어깨에만 걸친 우견편단식右肩偏袒式이다. 어깨부분에서 법의를 크게 접어 뒤로 넘긴 모습으로 팔과 다리 부분에는 계단식의 옷주름이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광배光背와 대좌臺座는 없고 불신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몸에서 분리되어 보관해 온 팔과 손을 다시 접합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이 철조여래좌상은 9세기경에 제작된 경주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26호), 경주 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국보 제27호), 영천 선원동 철조여래좌상(보물 제513호) 등의 불상들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 신라 말부터 유행하던 철불의 전통을 계승한 고려시대의 철불로 추측된다. 불상은 전면에 두껍게 개금改金되어 원래의 모습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어깨와 가슴 등의 신체에 양감이 줄어든 점, 옷주름 표현의 도식화가 진행된 점, 법의가 몸에 밀착되어 자연스럽게 신체굴곡이 드러나고 있는 점 등에서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1

2

1. 평택 만기사 철조여래좌상 전경,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평택 만기사 철조여래좌상,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보물 제569-11호

안중근의사유묵-
사군천리망안욕천이표촌성행물부정

安重根義士遺墨-思君千里望眼欲穿以表寸誠幸勿負情

대한제국시대(1910년)
1점
본문 - 세로 136.3㎝, 가로 32.9㎝
장황 - 세로 190.3㎝, 가로 45.8㎝
종이
군포시 금산로

지정일 : 1972.08.16
소유자 : 오영욱(사유)
관리자 : 오영욱

<안중근의사유묵-사군천리망안욕천이표촌성행물부정>은 안중근安重根(1879~1910)이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뒤 뤼순감옥旅順監獄에서 1910년 3월 26일 사망하기 전까지 옥중에서 휘호揮毫한 유묵을 일괄 지정한 것 중 하나이다.

유묵의 내용은 『논어論語』, 『사기史記』 구절 등 교훈적인 것이 많은데, 자신의 심중을 나타낸 것, 세상의 변함을 지적한 것, 일본을 경계한 것, 이 밖에 어떤 사람의 당호堂號를 써준 것 등이다.

「사군천리망안욕천이표촌성행물부정」은 '思君千里 望眼欲穿 以表寸誠 幸勿負情(천리 밖 임 생각에 바라보는 이 눈 뚫어질 듯 합니다. 작은 정성을 바치오니 행여 이 마음을 저버리지 마소서)'이라는 글이 4행 16자로 적혀있다. 글씨 좌측에는 '庚戌二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安重根(경술이월 어여순옥중, 대한국인안중근)'라고 쓴 뒤 왼쪽 장인掌印(손바닥으로 찍은 도장)을 찍고, 그 옆에는 '삼가 절한다'라는 뜻의 근배謹拜를 적었다.

일반적으로 증여의 대상이 없으면 '안중근 서書'라고 적고, 증여의 대상이 있으면 '안중근 근배謹拜'라고 적은 뒤 받는 사람의 이름을 함께 적는데, 이 유묵에는 근배가 적혀있지만 받는 사람의 이름이 없는 것이 특이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를 고종에게 쓴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안중근의사유묵-사군천리망안욕천이표촌성행물부정, 촬영일미상_ 문화재청

思君千里
望眼欲穿
以表寸誠
聿勿負情

庚戌二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謹拜



보물 제569-21호

안중근의사유묵-
욕보동양선개정략시과실기추회하급

安重根義士遺墨-欲保東洋先改政略時過失機追悔何及

대한제국시대(1910년)
1점
세로 100.3㎝, 가로 34.2㎝
종이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지정일 : 1991.07.12
소유자 : 단국대학교(사유)
관리자 : 석주선기념박물관

<안중근의사유묵-욕보동양선개정략시과실기추회하급>은 안중근安重根(1879~1910)이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뒤 뤼순감옥旅順監獄에서 1910년 3월 26일 사망하기 전까지 옥중에서 휘호한 유묵을 일괄 지정한 것 중 하나이다. 유묵의 내용은 『논어論語』, 『사기史記』 구절 등 교훈적인 것이 많은데, 자신의 심중을 나타낸 것, 세상의 변함을 지적한 것, 일본을 경계하는 것, 이밖에 어떤 사람의 당호堂號를 써준 것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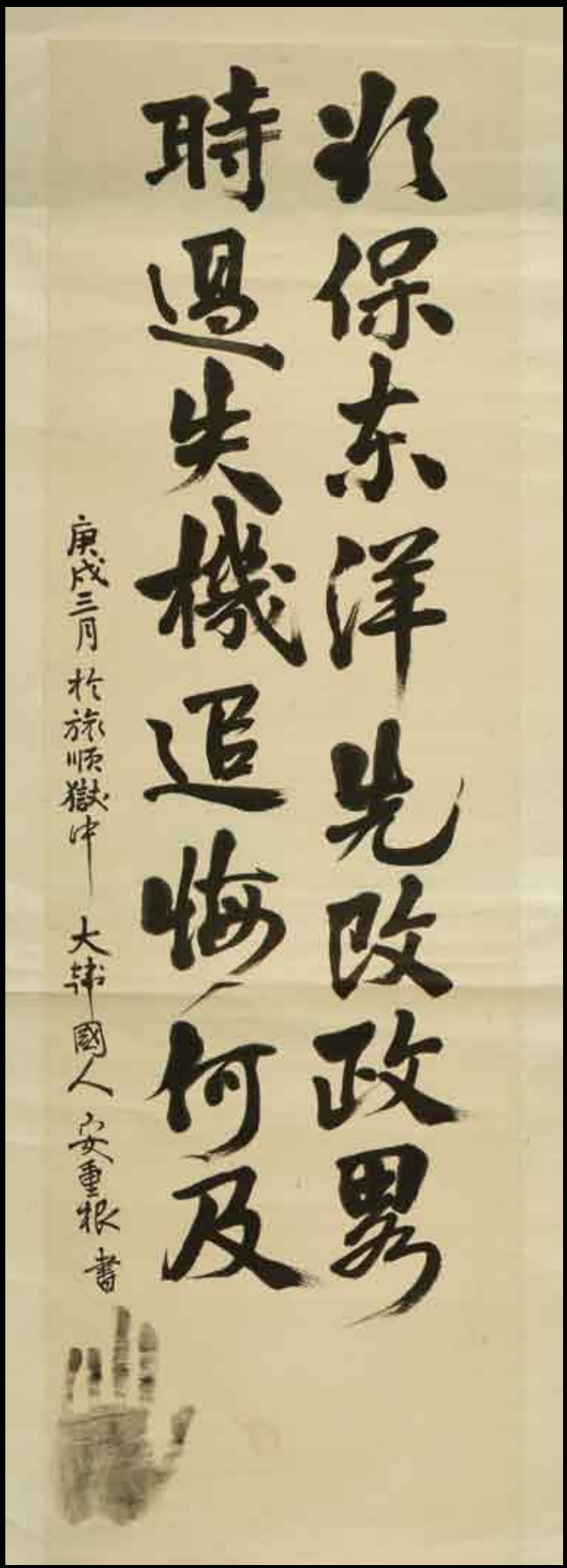
「욕보동양선개정략시과실기추회하급」은 선지宣紙에 '欲保東洋 先改政略 時過失機 追悔何及(동양을 보존하려면 먼저 정략을 바꾸어야 한다. 때가 지나고 기회를 놓치면 후회한 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이라는 내용이 2행 16자로 적혀있다. 이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東洋平和論과 연관된 글귀로서 일본인의 침략정책에 개과改過를 촉구하는 계고戒告이며, 또한 일본 집정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는 뜻이 담겨 있다. 글씨 좌측에는 '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安重根 書(경술삼월 어여순옥중 대한국인안중근 서)'라고 쓴 뒤 왼손 장인掌印(손바닥으로 찍은 도장)을 찍었다.

이 유묵은 러일전쟁 당시 전의典醫(대한제국 때 태의원의 벼슬)로 종군하였다가 종전이 되자 만주 뤼순감옥에서 근무하던 일본인 오리타 타다스折田督가 1910년 3월 옥중에서 안중근에게 직접 받아 간직해오던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그의 가족들은 일본으로 귀국하였고, 오리타 타다스의 조카 오리타 간지折田幹二가 보관하게 되었다.

오리타 간지는 일본 오카야마岡山대학병원의 암 진료 권위자로, 1989년 2월 20일 단국대학교에서 천안단국대병원의 개원을 기념하여 그를 초청하자, 고마움의 인사로 당시 단국대학교 장충식張忠植 총장에게 이 유묵을 기증하였다. 현재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안중근의사유묵-욕보동양선개정략시과실기추회하급, 2006_ 문화재청


非保东洋先改政略
時過失機追悔何及
庚戌三月於旅順獄中
大韓國人安重根書

보물 제611호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高陽 太古寺 圓證國師塔碑

고려시대(1385년)
1기
높이 2.25m, 폭 1.05m
석재(화강암)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406

지정일 : 1977.08.22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고양시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는 고려 말기 승려인 원증국사 보우圓證國師普愚(1301~1382)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탑비로 1385년(우왕 11) 북한산 태고사 경내에 세워졌다.

비신 상단에는 '원증국사탑명圓證國師塔銘'이라는 두전頭篆이 있고, 그 아래에는 해서체로 원증국사 보우의 출생부터 입적에 이르기까지의 내력을 적은 비문이 있으며, 뒷면의 음기에는 문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원증국사는 속성은 홍씨, 이름은 보우普虛, 호는 태고太古로, 1301년 충남 홍주洪州에서 태어났다. 13세에 출가하여 회암사檜巖寺 광지廣智의 제자가 되었으며, 얼마 후에는 가지산迦智山으로 가서 수행하였다. 26세에 화엄선華嚴選에 합격하고 이후에는 불경을 열람하면서 깊이 연구하였으나 불경의 연구가 진정한 수행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참선에 몰두하였다. 1341년(충혜왕 복위2)에 북한산 중흥사重興寺에서 후학들을 지도하였고, 중흥사 동쪽에 태고암太古庵을 창건하여 5년 동안 머물렀다. 이후 원나라에 유학하여 연경燕京을 거쳐서 1347년 7월에 호주湖州 천호암天湖庵에서 석옥石屋을 만나 임제선臨濟禪을 공부하였다. 석옥으로부터 제자로 인정받고 1348년에 귀국하여 중흥사에 머물렀으며, 이후 미원迷源의 소설산小雪山으로 들어가 임제선을 전파하였다.

1

2

1.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전경,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2.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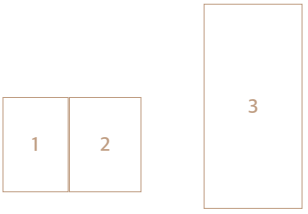




1363년(공민왕12) 신돈辛旽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왕사王師의 인장을 반납하고 전주 보광사普光寺에 가서 머물렀다. 1368년(공민왕17) 신돈에 의해 속리산에 금고禁錮되었다가 신돈이 실각한 후 1371년(공민왕20) 공민왕이 국사에 책봉하고 영원사에 머물기를 청하였으나 사양하였다. 1381년(우왕7) 국사에 다시 책봉되었고 이듬해인 1382년 82세가 되던 해 소설산에 머물던 중 입적하였다.

탑비는 입적 3년 후인 1385년(우왕11)에 건립되었다. 비문은 당대 명신 이색李穡(1328~1396)이 짓고, 명필인 권주權鑄(?~1394)가 썼다. 음기에는 문도를 승계에 따라 열거하여 기록하였는데 운수雲水(선승)는 1천 3인에 이르렀으며, 재가신도在家信徒는 높은 관직에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탑비는 이수螭首, 비신碑身, 귀부龜趺로 구성되어 있다. 장방형의 지대석과 귀부는 한 돌로 만들어져 있다. 귀부의 머리는 용머리를 형상화한 모습으로 꼿꼿하게 직립한 목에는 세로 주름이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부리부리한 두 눈에 큼직한 입은 꾹 다물고 있고 입의 주변으로 수염이 넓게 표현되어 있다. 귀부의 몸은 정육각형의 귀갑龜甲을 두르고 있고 귀갑의 밖으로는 꼬리와 네 발이 모두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수는 삼산형三山形으로 비신과 맞닿은 부분에는 연화문을 둘렀으며, 상부에는 겹겹의 구름 속에서 여의주를 중간에 두고 다투는 두 마리의 용을 조각하였다. 귀부의 조각은 형식화된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이수에 새겨진 운룡문雲龍紋과 연화문은 퇴화된 느낌이다.



1.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귀부(정면),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2.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귀부(측면),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3.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비신 탁본,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圓鑑國師塔銘

高麗國國師大曹溪嗣祖傳佛心印行解妙嚴悲智圓融貫理玄化扶宗樹教大願普濟一國大宗師尊者諡圓鑑塔之銘

推忠保節同德贊化功臣三重大匡韓山府院君領藝文春秋館事臣李穡奉 教撰

前奉翊大夫判典校寺事進賢館提學臣權 近奉 教書并篆額

上之十一年正月十日左代言臣仲容傳

旨若曰國師大古淨圓汝其銘之臣謹案國師諱普愚號大古俗姓洪氏洪州人世孝謹延膺閑府儀同三司上柱國門下侍中判吏部事洪陽公妣鄭氏贈三韓國大夫人之夢日輪入懷既而有娠以大德五年辛丑九月二十一日生師之成童穎悟絕倫十三投檜巖廣智禪師出家十九參葛法歸一詰之終癸酉寓城西甘露寺一日聚圍打落作頌八句佛祖嶼山河無口悉吞却其結句也後至元丁丑師年三十七冬寓猶權圍參無字話明年己卯月初七日夜豁然大悟作頌八句打破牢關後清風吹入古貝結句也二月還楊根草堂侍親也師容貌十七百則至臘頭參啓處通不得良久忽然投地冷笑一聲云噫頭雖善斡不覺露溫衣草已泰作漢陽三角山重興寺卓菴於東峰扁曰大古傚永嘉體作歌一篇至正丙戌師年四十六遊遍都鄽世源盛禪師在南嶽注見之則已逝矣至湖州霅溪山見石屋珙禪師具陳所得且獻大古菴歌石屋深器之問日用事師答記徐又曾曰未審此外還更有事否石屋云老僧一如是三世佛冠如是遂以袈裟衣信曰老僧今日屐脚跡矣屋臨濟十八代孫當師半月臨別賜以拄杖曰善路三師拜受迴下泰都元大德擒

天子聞之請開堂于永寧寺賜金襴袈裟沉香拂子

皇后

天子

皇太子降香幣王公士女奔走禮拜戊子春東歸入遂源小雪山躬耕以養者四年歲壬午夏

玄陵遣使請益勤師乃至秋力辭還山士幾日新龕作而申三月請師說法于泰恩寺禪教俱集

玄陵親臨獻滿繡袈裟水精念珠及餘服用師性廣闊楊宗旨

天子賜雜色段疋袈裟三百領是日分賜禪教碩德法遠之盛古而未有師請還山

玄陵曰師不留我倡道矣四月十四日封為

王師立府曰圓融置僚屬長官三品尊崇之至也留居廣明寺明年辭位不允師夜遁

玄陵知師志不可奪乘送法服印章于師所于南秋請住陽山寺、寺叅卯春請住迦智寺師皆應命丙午十月辭位封還印章仍乞任性養真

玄陵從之辛酉用事故也先是師上書論時曰國之治貞當得其志國之危邪僧進其時願上察之遠之宗社幸甚戊申春寓全州普光寺疏必欲置師死地百計莫能中後以師將渡江浙曰

玄陵曰大古宗恩至矣安居遠先是崇職也今欲遠遊必有異圖請上加察其言甚急

玄陵悔之請還小雪庵玄七月疏謝

玄陵不得已從之疏悔之請還小雪庵玄七月疏謝

玄陵遣使備禮進封國師請住崇源寺師以疾辭有旨通領寺事凡七年戊子冬被令

上命始至寺居一年而還辛酉冬移陽山寺入陟之日先君之思也丈戊夏還小雪冬十月十七日感微疾二十三日召門

上親幸問疾師起坐說四句偈聲盡而逝計聞于

上輟朝三日賜諡曰圓鑑塔曰寶月明日酉時吾當去矣可請知郡封印口占辭世狀數通時至沐浴更衣端坐說四句偈聲盡而逝計聞于

上輟朝三日賜諡曰圓鑑塔曰寶月

上上甚悼癸亥正月十二日降香茶毗其夜光明屬天舍利無算進百枚于內上嘗敬重焉命俊川縣、國設樹塔于重興寺之東岭曰寶月堂作石塔以藏之者述源小雪也臣備寫行狀念師之德浮杯飛錫歸而遇知王者之師躬耕小雪隱現維時

惟師之心海闊天臨

月隱堀嶺餘光之存

照耀山門惟三角山翠倚雲端樹塔其下與國恒安

先王崇信釋教可謂極矣而議說行乎其間大古扶持宗教亦可謂至矣而患難及于其躬此所以因緣果報雖聖人言不能免也歟至於釋名洋溢華

利照耀古今代皇多見我臣

禰再拜稽首而銘曰

寫弄刊名

雲蔵日

何猶

猫子大衆

法拜作銘

庶傳之

門人尊祖廣寺住持大禪師 釋宏 立石

보물 제715호

김중만 초상

金重萬 肖像

조선시대
3폭
전신상 - 세로 170㎝, 가로 103㎝
반신상① - 공신화첩(功臣畵帖) : 세로 42.5㎝, 가로 29㎝
② - 족자(簇子) : 세로 43㎝, 가로 29㎝
비단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1981.03.18
소유자 : 언양김씨 언성군파 문중(사유)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김중만 초상>은 조선 후기의 무신 김중만金重萬(1681~1755)을 그린 초상화로, 전신좌상 1점, 반신상 2점이다. 김중만은 1712년(숙종 38) 무과에 급제한 후 1728년 3월에 일어난 이인좌李麟佐의 난과 정인량의 반란을 평정한 공로로 분무공신奮武功臣 2등에 녹훈되었고 언성군彦城君에 봉해진 인물이다.

전신상은 검은색 사모에 짙은 청록색의 단령團領을 입고 의자에 공수拱手자세로 앉아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바닥에는 아무것도 깔려 있지 않으며 의자에는 표범가죽이 걸쳐져 있다.

가슴에는 쌍학이 수놓인 흉배를 착용하고 있으며, 허리에는 학정금대鶴頂金帶를 두르고 있어 1728년(영조4)경 분무공신에 책봉된 뒤 가의대부嘉義大夫에 올랐을 때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1 2

1. 김중만 초상(전신좌상), 촬영일미상_ 경기도박물관
2. 김중만 초상(반신상) 공신화첩, 2017_ 경기도박물관

높은 사모, 표범 가죽이 깔린 의자, 족좌대 위 표범의 앞모습이 정면으로 나타난 점, 단령의 깃이 깊게 파여 있는 점, '八'자형으로 벌린 발의 모습 등은 동시기 그려진 조문명 초상(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19호), 권희학 초상(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281호) 등과 유사하여 당시 공신상의 기본적인 형식을 알 수 있다. 얼굴은 갈색을 주색으로 하여 이목구비 등 굴곡이 있는 부분에는 음영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였다. 전신상은 다른 두 점의 반신상이 흰 수염에 주름이 진 노년의 모습인 데 반해 검은 콧수염과 짧은 턱수염을 한 젊은 모습이다.

두 점의 반신상 중 한 점은 화첩형식이고, 다른 한 점은 족자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이 두 초상화는 화법이 같지만 화첩형식에서는 해태흉배에 학정금대를 하였으나 족자형식에서는 쌍학흉배가 묘사된 점이 다르다. 반신상은 전신상과는 달리 노년기의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750년(영조26) 5월 10일 기록과 조현명의 「훈부화상첩기勳府畵像帖記」에 근거하여, 1751년(영조27)에 「훈부화상첩勳府畵像帖」을 제작하던 무렵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김중만 초상은 김중만의 공신책록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공신도상功臣圖像으로서 초상화사肖像畵史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김중만 초상(반신상) 공신화첩, 2017_ 경기도박물관



김중만 초상(반신상), 2017_ 경기도박물관

보물 제733-2호

헌종가례진하도 병풍

憲宗嘉禮陳賀圖 屛風

조선시대(1844년)
1좌(8첩 병풍)
각 첩당 세로 112.5㎝, 가로 46.5㎝
비단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2011.11.01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헌종가례진하도 병풍>은 1844년(헌종10) 헌종과 효정왕후孝定王后(1831~1903)가 혼인한 뒤 이를 축하하기 위해 거행된 진하례陳賀禮의 모습을 그린 궁중 행사도이다.

헌종은 1843년(헌종9) 효현왕후孝顯王后(1828~1843)가 죽자 이듬해 10월 18일 익풍부원군 홍재룡益豊府院君洪在龍(1794~1863)의 딸을 계비로 책봉하고 21일에 친영례親迎禮를 치렀다. 헌종은 가례嘉禮 의식을 모두 마친 이튿날인 10월 22일 경희궁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 교서를 반포하고 문무백관의 진하를 받았는데 「헌종가례진하도 병풍」은 바로 이 진하례 모습을 그린 것이다.

헌종가례진하도 병풍은 8첩으로, 제1첩에는 '가례 후 진하교시시 반교문嘉禮後陳賀敎是時頒敎文', 즉 진하례 때 반포된 교서가 쓰여 있다. 이 교서는 예문관 제학 조병구趙秉龜(1801~1845)가 지어서 올린 것임이 명시되어 있다. 제8첩에는 '선전관청 좌목宣傳官廳座目'이라 제목을 쓰고 절충장군 윤명검折衝將軍尹明儉(1779~?) 이하 선전관 25명의 성명과 인적 사항이 쓰여 있다. 이 좌목을 통해 헌종가례진하

헌종가례진하도 병풍, 2011_ 경기도박물관



도 병풍은 선전관청의 관원들이 주축이 되어 제작한 기념화, 즉 계병契屛임을 알 수 있다. 반교문과 좌목을 제외한 나머지 6첩에는 진하례 광경이 인정전에 큰 비중을 두고 그려졌다. 인정전 좌·우의 건물은 이문원, 숙장문, 금천교, 금호문, 그리고 궐내 각사各司, 선정전, 희정당, 후원의 불로문 등 주요한 전각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인정전 대청에는 호위 의장과 승지·사관, 그리고 치사문을 낭독하는 뒷모습의 대치사관代致詞官이 자리하고 있다. 마당에는 금관조복을 입은 문무백관이 열을 지어 앉아 있고 헌가軒架 악공과 노부 의장이 줄 맞추어 도열하였다. 인정전 안팎의 인물과 의물儀物의 배치를 통해 정전正殿 의식을 대표하는 진하례의 화려한 면모를 상세하게 엿볼 수 있다.

19세기에는 사실적인 궁궐의 모습을 재현한 궁궐도 제작이 발달함에 따라 국가의 경사스러운 의례를 마친 후에 관원들은 진하도 형식의 기념화를 선호하였다. 진하도 형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 건물을 정면의 부감시로 그린 조대비 사순칭경진하도 병풍趙大妃四旬稱慶陳賀圖屛風(보물 제732호)과 같은 계열이 있고 사선 방향의 부감시로 그린 계열이 있다. 헌종가례진하도 병풍은 후자의 형식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헌종실록憲宗實錄』이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의 사료에 의하면, 실제 헌종가례 후의 진하례는 경희궁 숭정전에서 거행된 것이 분명하지만 계병에는 기록과 달리 인정전 진하가 그려져 있다. 현전하는 19세기 진하도 병풍의 배경이 모두 인정전임을 감안하면, 관원들은 당시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정전인 인정전에서의 진하 장면을 선호하였으며 주문을 받은 화원들 사이에는 '인정전 진하仁政殿 陳賀'라는 정해진 도상의 밑그림이 준비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19세기가 되면 궁중 행사도가 사실적인 기록화로서의 성격보다 기념화로서의 성격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여 주는 일면이기도 하다.









1. 헌종가례진하도 제5첩 인정전 모습, 2011_ 경기도박물관
2. 헌종가례진하도 제1첩 가례후진하교시시반교문, 2011_ 경기도박물관
3. 헌종가례진하도 제4첩 선정전 모습, 2011_ 경기도박물관
4. 헌종가례진하도 제6첩 진선문 모습, 2011_ 경기도박물관

현재 헌종가례진하도 병풍은 경기도박물관 소장본 이외에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본(보물 제733-1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이 전한다. 조선시대의 계병은 좌목에 이름이 오른 관원들의 숫자대로 제작하여 나누어 갖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현재 같은 내용의 그림이 여러 벌 남아 있다는 것은 계병 제작의 관행을 방증한다.

왕실 가례는 가장 중요한 국가 의례 중의 하나이며, 헌종가례진하도 병풍은 이와 관련된 궁중 행사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19세기 인정전仁政殿을 배경으로 한 헌종가례진하도는 병풍의 전형으로 삼을 만하며 그 중에서도 장대한 궁궐을 사선 부감俯瞰 구도로 묘사한 계열의 진하도를 대표한다.

보물 제749호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

高陽 太古寺 圓證國師塔

고려시대
1기
높이 4m
석재(화강암)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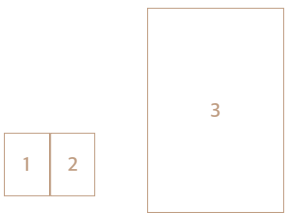
지정일 : 1983.12.27
소유자 : 태고사(사유)
관리자 : 태고사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은 고려 말기 승려인 원증국사 보우圓證國師普愚(1301~1382)의 승탑으로, 북한산 태고사 북쪽 봉우리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이 부도는 도굴로 인해 무너져 있어 원형을 알 수 없는 상태였으나, 1980년 10월에 흩어져 있던 각 부재를 수습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여러 개의 장대석으로 넓은 축단築壇을 마련하고 그 중앙에 탑을 세웠다. 하대석은 정방형으로 측면에는 각 면마다 3칸의 네모곽을 조각하였고, 그 윗면에는 연꽃모양을 고부조高浮彫로 돋을새김하였다. 중대석은 8각형으로 각 모서리에 원기둥을 새긴 후 면마다 큼직한 화문을 새겨 장식하였다. 원형에 가까운 상대석의 측면에는 넓은 복엽 8판의 앙련仰蓮을 새겼다. 탑신은 전체적으로 위·아래가 납작한 원구형이지만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다. 옥개석은 팔각형으로 처마가 거의 수평을 이루며, 전각轉角의 끝에는 여의두문형如意頭紋形의 귀꽃을 새겨 넣었다. 옥개석의 처마에는 장막帳幕을 드리운 듯 무늬를 새겨 넣어 독특한 장식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상륜부에는 편구형扁球形 복발, 옥개석과 비슷한 형태의 보개寶蓋, 화염보주火焰寶珠 등이 놓여 있다.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의 비문에 의하면 원증국사는 1382년(우왕8)에 입적하였고, 1385년(우왕11)에 탑비를 세웠다고 하였으므로 이 승탑 역시 적어도 1385년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승탑은 고려시대 말기에 세워진 만큼 중국식의 석물조형기법이 적용되어 모든 부재가 묵직한 느낌으로 조성되었고, 선의 감각도 둔감해진 모습이다.



1.·2.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 일제강점기
_ 국립중앙박물관
3.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보물 제822호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利川 映月庵 磨崖如來立像

고려시대
1좌
높이 9.6m, 견폭 3m
석재(화강암)
이천시 관고동 산64-1

지정일 : 1985.01.08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이천시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은 이천시 영월암 대웅전 뒤편의 거대한 바위에 새겨진 고려시대의 마애불입상이다. 자연 암석을 다듬어 바위면 전체를 조각하였는데, 머리에서부터 오른팔까지는 도드라지게 부조浮彫한 반면 하반신의 옷주름 등은 모두 얕은 선각線刻으로 처리하였다.

불상의 머리는 육계肉髻가 없는 민머리이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다. 육계가 표현되지 않아 여래상이 아니라 이 절의 창건과 관련이 있는 승려 또는 나한상羅漢像, 조사상祖師像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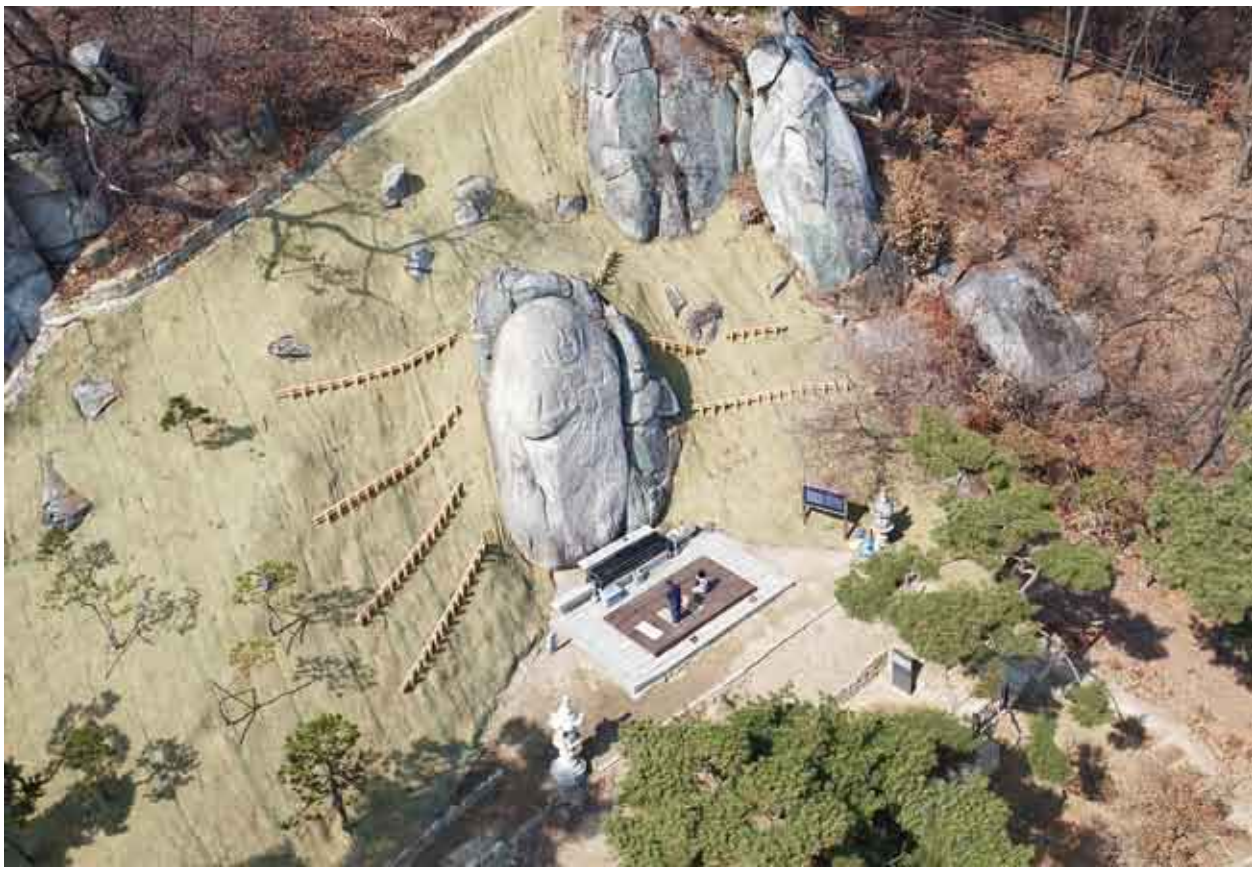
얼굴은 둥글고 넓적하며 귀는 길어서 어깨에 닿을 정도이다. 얼굴에 표현된 길게 반개한 눈과 큼직한 코, 두툼한 입술 등이 토속적인 인상을 준다. 수인手印은 가슴 앞에서 두 손을 모아 아래·위로 교차시킨 모습으로 두 손 모두 엄지와 약지를 둥글게 맞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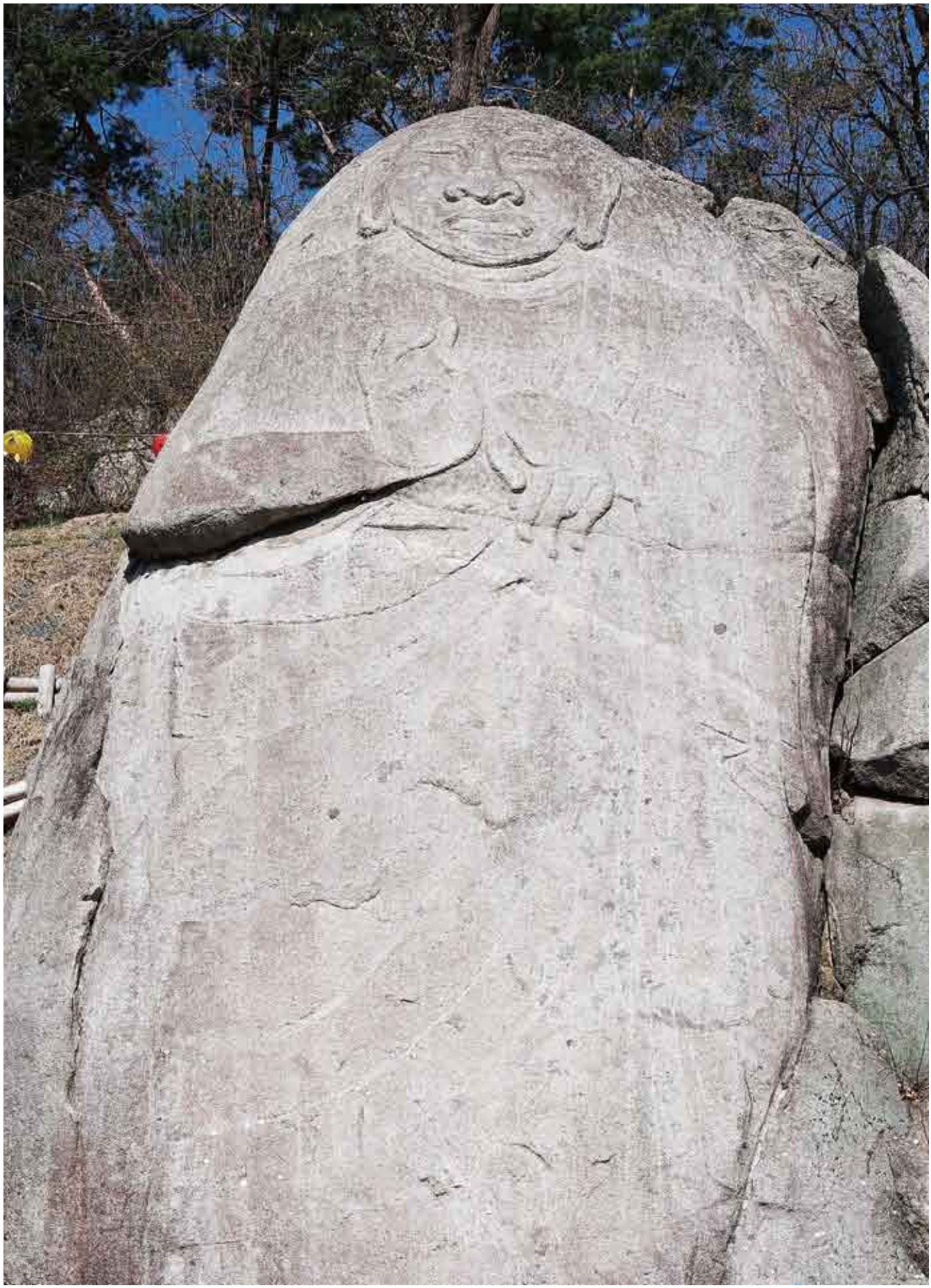
법의法衣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에만 걸친 우편편단식右肩偏袒式으로 옷주름은 몸 전체에 유연한 사선을 이루며 넓은 띠모양으로 새겨져 있고, 왼팔을 돌아 내려간 끝단은 지그재그 모양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장대하고 힘찬 솜씨를 보이고 있는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은 고려 중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

2

1.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원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보물 제823호

안성 석남사 영산전

安城 石南寺 靈山殿

통일신라시대
1동
정면 3칸, 측면 2칸, 단층 건물
목재, 석재
안성시 상촌새말길 3-120

지정일 : 1985.01.08
소유자 : 석남사(사유)
관리자 : 석남사

<안성 석남사 영산전>은 안성시 석남사에 있는 조선시대의 불전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계 형식의 팔작지붕의 건물이다.

석남사는 용주사의 말사로 사적기에 의하면 680년(문무왕20)에 고승 담화曇華가 창건하였으며 이후 왕실에서 '서운산瑞雲山 석남사石南寺'라는 사찰명을 하사받았다고 한다. 856년(문성왕18)에는 염거선사廉居禪師가 중수하였고, 953년(광종5) 고려시대에 광종의 아들인 혜거국사惠居國師가 한 차례 더 중수하였다고 전한다. 조선초에는 자복사원資福寺院의 하나로 지정될 정도로 규모가 큰 사찰이었으나 1592년(선조31) 임진왜란으로 사찰전체가 소실되었다. 한동안 폐허였던 석남사는 조선 영조 때의 승려인 함월선사涵月禪師가 3년에 걸쳐 중수하였다. 영산전과 대웅전의 기와 중에 '雍正三年乙巳三月日造成(옹정삼년을사삼월일조성)'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남아 있어 1725년(영조1)에 영산전과 대웅전에 번와공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78년 영산전 앞에 위치한 대웅전을 영산전 뒤 가장 높은 지대에 새롭게 터를 조성하여 이건移建하였다.

대웅전 이건 이전의 배치를 살펴보면 대웅전을 중심으로 앞으로 2기의 쌍탑이 위치하고 대웅전보다 한 단 아래에 중정이 놓였으며 현재의 요사채가 중정을 감싸는 모습을 하고 있다. 영산전은 주불전主佛殿인 대웅전보다 뒤에 위치하여 부불전副佛殿의 역할을 하였다.



안성 석남사 영산전의 기단은 자연석을 허튼층쌓기방식으로 1~2단 조성하였고, 바닥은 강회로 마감하였다. 초석은 자연석에 기둥이 놓이는 자리만 평평하게 다듬어 사용하였고, 우주는 평주보다 약간 굵게 만들었다. 기둥머리는 다포계의 법식에 따라 창방으로 결구하고 그 위에 평방이 올려져 있다. 평방 위 공간포는 각 칸마다 1구씩 놓여진 간단한 기법이며 공포의 짜임은 내·외2출목으로 출목간격이 모두 같은 초기의 다포계 건물의 모습을 하고 있다.

바깥쪽 공포의 초제공과 이제공은 앙서형仰舌形 살미첨차이고, 삼제공은 삼분두형, 사제공은 운공형으로 마감되었다. 안쪽의 경우 바깥쪽과는 달리 1, 2제공은 교두형이고, 3제공은 양봉형으로 되어 있다. 귀공포의 경우 쇠서형으로 된 살미첨차와 교두형으로 된 첨차가 혼합되어 있어 간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공포의 짜임은 조선 초기에서 중기로 접어드는 짜임새를 보여 준다. 창호는 정면 3칸과 우측면 협칸에 설치되어 있는데, 정면 3칸에는 2분합 정자살창호문을, 우측 협칸에는 정자살창호 한짝을 두었다. 가구는 5량집으로 주심도리는 생략되어 없고, 중도리가 매우 적다. 대들보는 전후면의 평주에 걸리고 종보는 대들보의 중간에 위치한 화반위에 얹혀있는데 단면이 매우 작은 각재를 사용하였다. 서까래는 덧서까래를 사용하여 이중서까래를 만들었다. 이러한 구조는 전통적인 가구방식은 아니고, 1940년에 일제에 의해 시행된 보수공사에서 지붕의 가구법이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천장은 대들보 위에 우물천장을 가설하였고, 바닥은 장귀틀과 동귀틀을 짜서 청판을 깐 우물마루로 되어 있다. 후벽 어칸 앞에는 불단佛檀을 조성하여 삼존불을 봉안하였고 상부에는 닫집을 만들었다.

안성 석남사 영산전은 공포의 구성이 조선 초기~중기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시되는 건물이며 정확한 조성연대는 알 수 없지만 간략한 공포와 앙서·운공·삼분두의 모습 등으로 미루어보아 대웅전의 중수시기인 1725년보다는 이른 17세기경의 건물로 추정된다.

1 2

1·2. 안성 석남사 영산전,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보물 제824호

안성 청룡사 대웅전

安城 靑龍寺 大雄殿

조선시대
1동
정면 3칸, 측면 4칸, 단층 건물
목재, 석재
안성시 서운면 청룡길 140

지정일 : 1985.01.08
소유자 : 청룡사(사유)
관리자 : 청룡사

<안성 청룡사 대웅전>은 안성시 서운산 청룡사에 있는 조선시대의 불전으로 정면 3칸, 측면 4칸의 다포계 형식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고려시대인 1265년(원종6) 명본국사明本國師가 창건한 청룡사의 본당으로 공민왕 때 중건되었으며 현 건물은 조선 후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 조성된 사찰의 주불전은 일반적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의 평면구성인 것에 비해 청룡사 대웅전은 중층건물重層建物에서 보이는 측면 4칸의 평면구성인 것이 특징이다. 내부 평면은 정면 3칸 중 전칸 후면 열에 내진주內陣柱를 설치하고 그 사이에 불벽佛壁을 마련하였으며, 그 앞으로는 불단佛檀을 조성하여 삼존불을 봉안하였다.

전면 기단은 장대석으로 쌓았고, 초석은 자연석에 기둥과 면하는 부분만 그랭이질한 덤벙주초이다. 외진열의 초석 21개와 활주초석 4개를 합하면 총 25개의 초석이 사용되었는데 일부 확인되지 않은 원형 초석은 후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안성 청룡사 대웅전의 기둥은 전혀 가공하지 않은 원목 그대로의 괴목을 사용한 것이 특이하다. 18세기에 목재수급이 활발하지 못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굽은 자연목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마도 대웅전을 조성한 대목장의 의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주는 평주보다 상당히 굵고 길이가 짧은 기둥을 사용하여 건물 전체의 안정감을 높이고 있는 점은 청룡사 대웅전에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이다. 기둥 상부에는 창방을 두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였고, 창방 위에는 평방을 두어 공포를 받고 있다. 창방은 정면과 배면에 3개씩, 좌·우측면에 4개씩을 두어 총 14개로 기둥 칸수만큼 사용되었다. 반면 평방은 정면과 배변에서 3개씩 두면서 기둥 상부에서 연결하였다.
공포는 외3출목, 내3출목이다. 전체적으로 팔작지붕의 다포계 법식을 따르고 있으나 주간포의 배열은 불규칙하다. 즉 주간포는 정면 3칸에는 2개씩, 좌·우측면에는 전후 퇴칸에만 들어가며, 배면 정칸에는 2개가 아닌 1개가 들어가 있다. 가구는 주심도리, 하중도리, 상중도리, 종도리를 두는 1고주 7량집이다. 주심도리 앞·뒤로는 외목도리와 내목도리를 결구하였다.
안성 청룡사 대웅전의 지붕 구조는 정면과 나머지 3면이 다르다. 정면은 부연을 갖춘 겹처마 방식이나 나머지 3면은 홑처마방식으로 정면을 부각시켰다. 천장은 일반적인 다포계 팔작지붕의 전각들이 우물천장인 것에 비해 안성 청룡사 대웅전은 서까래가 훤히 보이는 연등천장이다. 이는 낮은 충고에 따른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웅전에 남아있는 암막새의 '萬曆二十九(1601)', '崇禎六年(1633)', '康熙二十年(1681)' 명문으로 미루어보면 적어도 17세기 초부터 번와공사 또는 중수공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이후의 대웅전에 관한 기록은 청룡사사적기비에 1720년 보수기록이 있으며, 1745년 단청보수 및 1821년과 1863년의 중수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1974년 경기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는 1976년 단청공사, 1977년 번와보수가 행해졌다. 1984년 보물로 승격된 이후에는 1985년 기단공사 및 대웅전 수리공사(창방수리와 연목교체 포함), 1993년 번와공사, 2003년 마루 및 석축공사, 활주시설 등의 보수공사, 2010년 번와공사, 2012년 노후화된 청판을 비롯한 마루교체와 기단부의 수리공사가 이루어졌고 근래에는 2017년부터 해체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1 2

1. 안성 청룡사 대웅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안성 청룡사 대웅전 전경, 2017_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874호

이충원 호성공신교서

李忠元 扈聖功臣敎書

조선시대(1604년)
1축
세로 36㎝, 가로 230㎝
비단, 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1986.10.15
소유자 : 이용선(사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충원 호성공신교서>는 1604년(선조37) 10월 이충원李忠元(1537~1605)에게 상장과 훈장을 내린 교서이다.

조선이 개국한 이래 1392년(태조1)의 개국공신을 비롯해 공신의 마지막인 1728년(영조4)의 분무공신奮武功臣에 이르기까지 약 340년 동안 28개의 공신이 책록되었다. 그 중에 호성扈聖·선무宣武 두 공신은 왜적을 물리치고 국토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시되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서울에서 의주까지 왕을 호종한 사람을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왜병을 정벌한 장수들과 원병과 양곡 요청을 위해 명나라에 왕래한 사신을 선무공신으로 책봉하고, 이를 다시 1등부터 3등으로 나누어 상사賞賜 등을 달리하였다.

이충원의 자는 원보元甫, 호는 송암松庵, 본관은 전주이며, 덕천군德泉君 후생厚生의 현손玄孫이다. 1566년(명종21)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장원壯元하여 수찬修撰·대간臺諫·승지承旨 등을 지내고, 1592년(선조25) 임진왜란 때 형조참의刑曹參議로 왕을 호종하고 돌아와 형조참판刑曹參判에 특진되었다. 그 뒤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한성판윤漢城判尹·형조판서刑曹判書를 역임하고, 호성공신 2등으로 완양부원군完陽府院君에 봉해졌다.

이충원 호성공신교서의 내용을 적은 바탕은 두꺼운 선지宣紙에 명주를 접착한 것으로, 천두天頭와 지두地頭 부분은 쪽빛으로 염색된 비단이 사용되었으며, 교서의 위·아래 가장자리는 밤색 비단이 사용되었다. 글이 쓰여 있는 부분의 위·아래로 굵은 주사선朱砂線이 각각 한 줄씩 그어져 있고, 본문 행간 사이에도 2.5㎝ 간격으로 주사선이 가늘게 그어져 있다.



내용은 총 60행에 걸쳐 해서楷書로 묵서墨書되어 있다. 교서의 첫머리에는 '교敎 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이충원李忠元 서書'라는 문서의 정확한 제목이 적혀있으며, 제목의 좌측에는 대략 네 부분으로 나뉘어 교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책훈의 이유와 보답, 이충원의 가풍과 인품, 문장실력과 그의 빈틈없는 성격을 서술하고, 임진왜란 때 충정을 다하여 국난을 회복한 공을 적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충원에게 내려지는 상사賞賜와 왕이 공신에게 국가의 존립과 함께 영원히 휴척休戚(안락과 근심걱정)을 같이 할 것임을 맹서하는 내용을 적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은 공신의 명단으로, 1등에는 이항복李恒福과 정곤수鄭崑壽, 2등에는 신성군信城君·정원군定遠君·이원익李元翼·윤두수尹斗壽 등 31명, 3등에는 정탁鄭琢·이헌국李憲國·유희림柳希霖 등 53명으로 총 86명의 공신명단功臣名單을 3단으로 적고 있다. 이충원은 2등 공신명단의 12번째에 기록되어 있는데, 2등 공신에게는 본인과 부모·처자에게 각기 2품계가 더해지고, 반당 6인, 노비 9구, 구사丘史(관노비) 4인, 밭 80결, 은 7냥, 내구마內廐馬 1필이 하사되었다. 교서의 마지막에는 교서를 내린 날짜인 '만력萬曆 32년 10월 일'이 적혀 있고, 바로 아래에 정방형의 「시명지보施命之寶」란 어보御寶가 찍혀 있다.

문서 첫 부분의 뒷면에는 문서의 이름인 '호성공신완양부원군 이충원扈聖功臣完陽府院 君李忠元'과 '이정혐李廷馦 제製, 한호韓濩 서書'라고 두 줄로 병서되어 제진자製進者와 필사자筆寫者를 밝히고 있다.

이충원 호성공신교서는 문서형식과 장황裝潢 형식 등 조선시대 교서의 전형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충원 개인의 전기적 자료일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며, 특히 조선 전기 4대 명필 중 한명인 석봉 한호石峯韓濩(1543~1605)의 글씨라는 점에서 예술적 가치 또한 높이 평가된다.





1·2. 이충원 호성공신교서, 2011_ 한국학중앙연구원

보물 제930호

이경석 궤장 및 사궤장 연회도 화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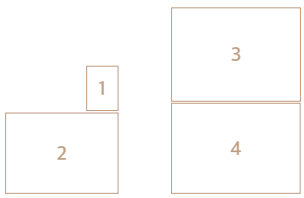
李竟奭 几杖 및 賜几杖 宴會圖 畵帖

조선시대(1668년)
2종 6점
*궤 - 높이 91㎝, 폭 77.4㎝
*장 - 새머리 모양 지팡이 : 길이 189.5㎝
칼이 들어있는 지팡이 : 길이 149.5㎝
삽모양 지팡이(2점) : 길이 141㎝
*화첩 - 세로 42.5㎝, 가로 30.4㎝
궤장 - 목재, 금속
연회도첩 - 비단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1987.12.26
소유자 : 이용우(사유)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이경석 궤장 및 사궤장 연회도 화첩>은 조선 중기의 대학자 백현 이경석白軒李景奭(1595~1671)이 현종에게 하사받은 지팡이杖와 궤几, 그리고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글과 그림으로 구성된 화첩이다.
조선시대는 당상관 정2품 이상의 관원으로 70세가 되면 퇴직을 할 수 있었는데, 70이 넘어도 정사에 임해야하는 정1품 관원에게 왕이 친히 접이식 의자인 '궤'와 몸을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를 하사하였다.
이경석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서예가로,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상보尙輔, 호는 백헌白軒,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인조·효종·현종 3대에 걸쳐 안팎으로 얽혔던 난국을 적절하게 주관했던 명재상이다. 그는 65세 때인 1659년(효종10)에 영돈령부사로서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고, 74세 때인 1668년(현종9) 11월 27일에는 이원익李元翼(1547~1634)이 1623년(인조1) 궤장几杖을 하사 받은 이래로 약 50년 만에 임금으로부터 궤 1점과 지팡이 4점을 하사받는 영예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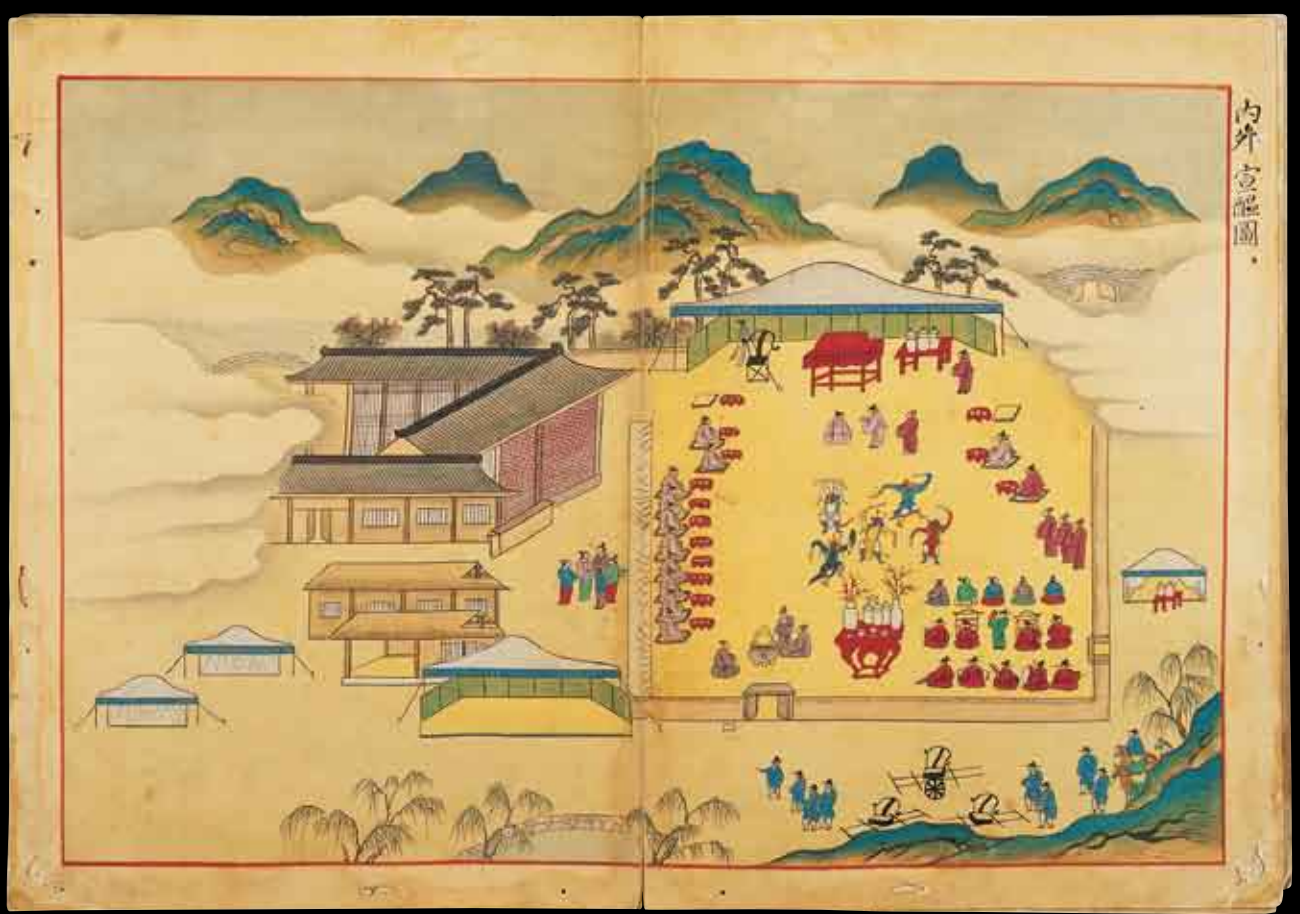




1. 연회도첩 표지, 2016_ 경기도박물관
2. 지영궤장도, 2008_ 경기도박물관
3. 선독교서도, 2008_ 경기도박물관
4. 내외선온도, 2008_ 경기도박물관




宣賞教官圖


內外宣誥圖

궤장을 하사할 때 임금은 친히 축하연을 베풀어 주었는데 이를 '궤장연'이라 한다. 이 궤장연에는 삼공三公과 육경六卿, 의정부의 동서반東西班, 한성판윤, 예조의 참판 및 참의, 낭원郎員들이 모두 참여하였으며, 교서敎書는 예문관에서 작성하고 주서注書가 낭독하였다. 궤장은 공조의 공장工匠이 제작하여 승지가 전달하였는데, 궤장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날에 감사하다는 사은문謝恩文을 써서 올리도록 되어 있었다.

이경석 사궤장 연회도 화첩에는 이러한 과정들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교서와 궤장을 싣고 온 행렬이 이경석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그린 '지영궤장도祗迎几杖圖', 뒤이어 왕의 교서를 낭독하고 궤장을 전달하는 모습을 담은 '선독교서도宣讀敎書圖', 그리고 의식이 끝난 뒤 연회를 거행하는 '내외선온도內外宣醞圖'로 구성되어 있다.

세 장면은 모두 근경에는 산수를, 중경에는 연회하는 모습을 그리고 원경에는 청록산수를 표현하였다. 인물들의 동작은 질서가 있고 고정되어 있으며, 건물은 계화界畵형식으로 그려져 있다. 색채는 호화로운 당채唐彩를 써서 거의 탈색되지 않았다. 그림의 수법으로 보아 당시 수준 있는 화원의 작품으로 생각된다. 화첩에는 그림 외에 현종의 교서, 연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목록, 이경석의 사은전문, 송시열의 서문, 연회에 참여한 제신들의 송찬시가 차례로 실려 있다.

그림의 중앙부 우측 제일 큰 천막 아래로는 '궤'가 마치 주인공처럼 작지만 정교하게 그려져 있다. 궤는 앉을 때만 펴고 평상시에는 접어둘 수 있게 만든 의자이다. 노끈을 단단하게 'X' 자로 엮어 접어두기 편하게 만들었다. 괴목 가운데 구멍을 뚫어 몸을 기댈 수 있게 했으며, 등받이 표면은 자작나무 껍질로 쌌다.

지팡이는 새가 조각된 지팡이 1점, 칼이 든 지팡이 1점, 아무런 장식이 없는 지팡이 2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가 조각된 지팡이는 윗부분에 오리로 추정되는 새모양 장식을 조각해 끼웠고, 그 아래 쪽 2곳에는 국화꽃 장식을 단 고리를 부착하였으며, 반대쪽 아랫 부분 끝에는 방형의 무쇠장식을 끼웠다.

칼이 든 지팡이는 겉으로 볼 때 일반적인 지팡이의 모습이지만 윗부분이 뾰족한 손잡이를 잡아 빼면 얇고 긴 칼이 나오는 형식이다.

이경석 궤장은 조선새대 왕실 발주 공예품의 제작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경석 사궤장 연회도 화첩은 당시 축하잔치의 풍속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1995년 전주이씨 덕천군파 백헌상공종중으로부터 경기도박물관이 위탁받아 보관·전시되고 있다.

1

2



1. 이경석 사장, 2002_ 경기도박물관
2. 이경석 사궤 및 사장, 2009_ 경기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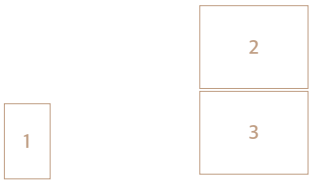
보물 제941-1호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 및 송언신초상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

宣祖御書賜宋言愼密札帖 및 宋言愼肖像 -宣祖御書賜宋言愼密札帖

조선시대(1593~1599)
2권 2책, 고문서 1건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 - 세로 36.6㎝, 가로 24.2㎝
『정조어제선조어서밀찰발』 - 세로 36.5㎝, 가로 34.4㎝
「만력십삼년십이월십팔일예조입안」 - 세로 92.3㎝, 가로 55.7㎝
표지 - 비단
내지 - 종이(닥종이)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1987.12.26
소유자 : 여산송씨호봉공종회(사유)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1. 예조입안, 2016_ 경기도박물관
2.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 2006_ 경기도박물관
3. 정조어제선조어서밀찰발, 2006_ 경기도박물관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은 조선 제14대 임금 선조宣祖(재위 1552~1608)가 송언신宋言愼(1542~1612)에게 내린 어서밀찰御書密札 7건을 첩장帖裝한 것이다. 이 밀찰첩과 함께 정조가 직접 쓴 발문을 별책으로 장정하여 도합 2책으로 보관되어 있다.

어찰을 받은 송언신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字는 과우寡尤, 호號는 호봉壺峰, 본관은 여산礪山이다. 1567년(명종22)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1577년(선조10)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 예문관 검열檢閱과 사간원 정언正言 등을 지냈다. 1592년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를 거쳐 함경·강원·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를 두루 역임하였다. 1593년에서 1599년까지는 함경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재직하였고, 이후 이조 참판을 거쳐 호조戶曺를 제외한 나머지 5조의 판서判書와 좌·우참찬參贊을 역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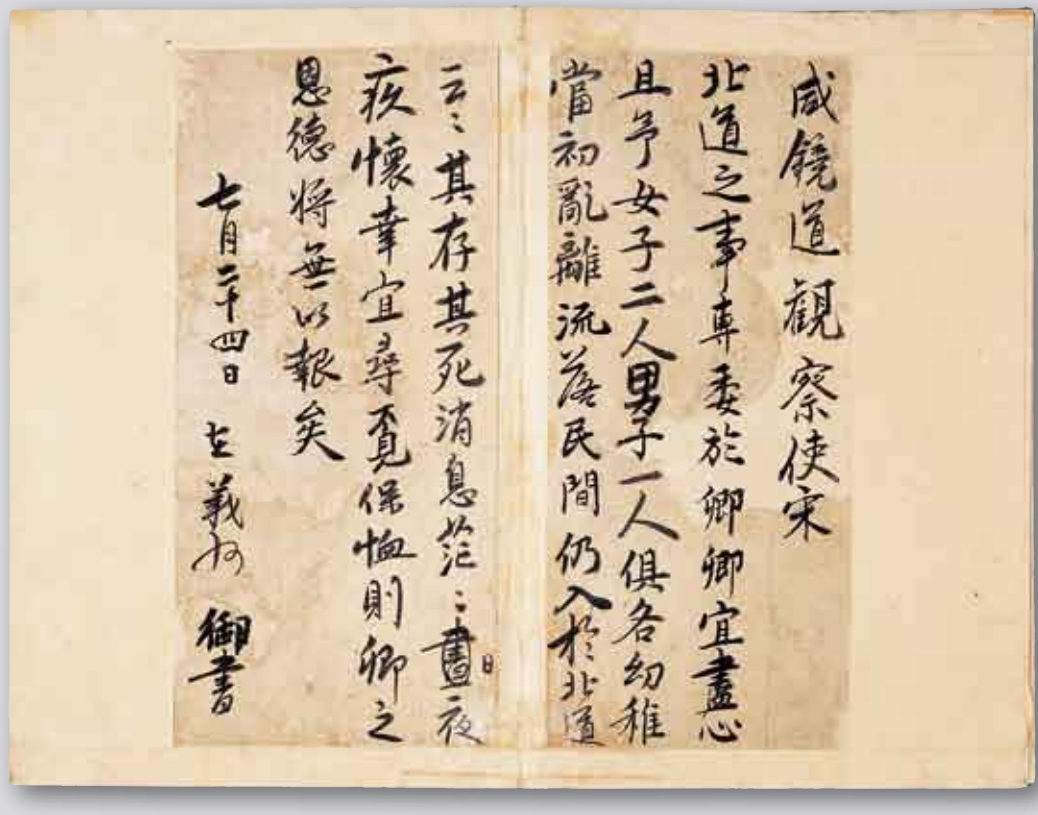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은 원래 길게 이어져 있던 종이를 옆으로 적당하게 잘라, 그 앞뒤에 따로 표지를 붙여 제작하였다. 형태상 12절의 절첩으로, 3절은 내용이 없는 백지이다. 행서로 쓰여진 밀찰의 내용은 임진왜란 중이던 1593년에서 1599년까지 6년간에 걸쳐 당시 함경도관찰사 송언신에게 보낸 7통의 편지글로, 본래 12통이었으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7통 뿐이다. 편지글에는 선조가 의주로 피난하면서 왕의 자녀 3인을 찾아 보호해 달라는 내용과 그 공을 높이 사서 물품을 하사한다는 내용, 진상품을 잘 받았다는 내용, 변방의 방어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은 선조가 직접 쓴 어제어필로서 문학적·서예적 가치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어찰의 내용에 당시의 전쟁 상황을 논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국방에 관한 사료로서도 가치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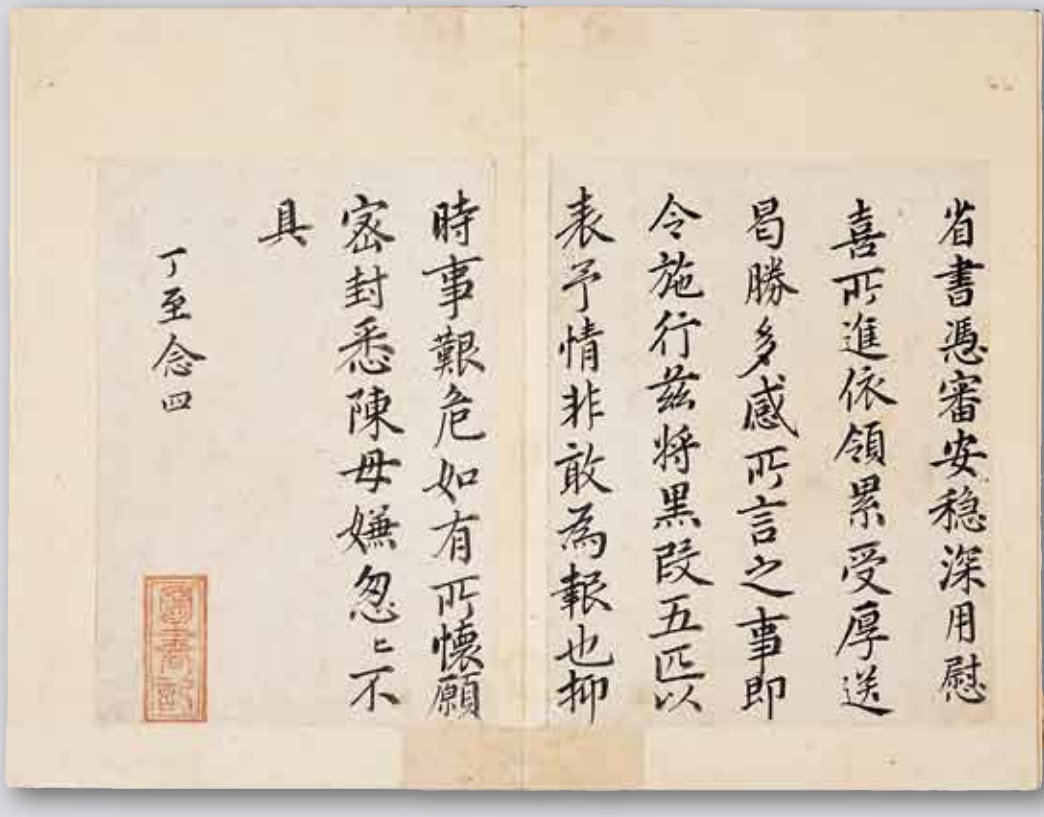
정조는 1794년(정조17)에 송언신 후손가에 소장된 선조밀찰을 보고 난 후 해당 밀찰에 대한 해설을 곁들여 직접 발문을 지어내리고, 호조판서에게 명하여 원첩을 궤에 담아 송언신의 후손에게 되돌려주었으며, 따로 한 부를 똑같이 써서 내각內閣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은 이때 개장改粧되고 모사模寫된 것이다.

별첩으로 구성된 『정조어제선조어서밀찰발』은 총 59줄을 6줄씩 총 10면으로 나누어 만들었다. 정조가 반초서半草書로 직접 쓴 발문은 선조 어찰의 내용을 해설·평가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동시에 시문·서예에도 뛰어난 정조의 면모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만력萬曆 13년年 2월月 18일日 예조입안禮曹立案」은 1585년 2월 18일에 예조에서 당시 병조정랑인 송언신에게 발급한 문서로서, 송언신이 자식이 없어서 10촌형 송승희宋承禧의 둘째아들 송준宋駿을 후사로 삼겠다는 소지所志에 대해 예조에서 이를 허가한 것이다. 이 문서는 입양 관계 문서로서 송언신 가계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咸鏡道觀察使宋
北道之事專委於卿卿宜盡心
且予女子二人男子一人俱各幼稚
當初亂離流落民間仍入於北道
云云其存其死消息茫然晝夜
疾懷寧宜尋覓保恤則卿之
恩德將無以報矣
七月二十四日 主義君 御書



省書憑審安穩深用慰
喜所進依領累受厚送
曷勝多感所言之事即
令施行茲將黑段五匹以
表予情非敢為報也抑
時事艱危如有所懷願
密封悉陳毋嫌忽忘不
具
丁至念四

보물 제941-2호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 및 송언신초상-송언신초상

宣祖御書賜宋言愼密札帖 및 宋言愼肖像-宋言愼肖像

조선시대
1폭
세로 160㎝, 가로 90㎝
비단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2004.05.07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송언신 초상>은 조선 중기의 문신 송언신宋言愼(1542~1612)을 그린 초상화로 전신좌상이다.

송언신의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과우寡尤, 호는 호봉壺峰이다. 이황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1577년(선조10)에 문과에 급제한 후 예조좌랑, 사간원 헌납獻納, 부수찬副修撰, 홍문관의 전적典籍·수찬 등을 거쳐 평안도 관찰사를 역임하였으며, 1602년(선조35) 공조 판서에 오른 뒤 예조 판서, 우참찬, 대사헌, 이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송언신 초상은 단령을 입고 의자에 공수拱手자세로 앉아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가슴에는 모란과 운안雲雁문양의 흉배가 부착되어 있으며, 삽금대를 두르고 있어 1603년에서 1614년 사이에 정2품의 대사헌과 이조판서를 지낸 송언신의 당시 품계와 정확히 일치한다. 오사모는 높이가 낮고 윗부분이 평평하며 날개는 넓고 끝이 둥글다. 단령은 구름무늬를 평면적으로 연속해서 묘사했고 목에 파진 부분이 옆으로 완만하게 넓으며 단령 소매 사이로 흰 창의가 짧게 나와 있다. 의자의 손잡이는 인물의 양쪽으로 뻗어 있고, 의자 뒤로는 단령에 덧댄 무가 삼각형 모양으로 뒤로 뻗쳐 튀어나와 있다. 바닥에는 채전彩氈이 깔려 있고 족좌대足座臺 위에는 검은색 가죽신을 신고 양쪽으로 벌린 발이 일부 보이고 있다. 얼굴 표현에서는 음영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윤곽선과 주름에만 약간씩 어둡게 처리하였다.

높은 사모, 양옆으로 튀어나온 의자 손잡이, 단령의 트임 사이로 보이는 의복을 둥글게 처리한 점에서 정탁 초상(보물 제487호), 고희 초상(보물 제739호) 등 선조대에 그려진 공신초상과 유사하다.

화면에는 세 곳에 글이 적혀있는데 왼쪽의 글은 광해군이 즉위한 후 관직에서 물러난 송언신이 1611년(광해군3)에 광주廣州 방암放菴에 은거하면서 직접 써 넣은 것으로 과거의 영화가 드러나는 초상화를 보면서 만년의 처지를 칠언시로 읊은 것이다.

오른쪽 하단의 글은 그림이 그려진 내력을 밝힌 것이다. 임진왜란 후 선조가 송언신을 선무공신宣武功臣으로 책록하려고 했으나 의견이 분분하자 스스로 사양하여 정공신이 아닌 원종공신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공신에게만 해당하는 공신초상을 이미 만들었기에 보내왔다고 한다. 오른쪽 상단에는 '만력 32년萬曆 三二年…선무공신이조판서宣武功臣吏曹判書 송언신宋言愼'이라고 적혀있다. 오른쪽 하단의 내용에 따르면 '선무공신'이 아니라 '선무원종공신'이라 적혀 있어야 맞다.

이 초상은 17세기 초 선조대 공신초상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선조가 송언신에게 남모르게 보낸 서찰인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宣祖御書賜宋言愼密札帖』과 함께 보물로 지정되었다.

송언신 초상, 2008_ 경기도박물관



보물 제948-2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 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3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諺解) 卷3

조선시대(1461년)
1권 1책
세로 38.3㎝, 가로 25.0㎝
종이(닥종이)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361번길 29-11

지정일 : 2010.10.25
소유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법사(사유)
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법사

1
2
3

1. 육입 관련 내용, 2011_ 문화재청
2. 십이처 관련 내용, 2011_ 문화재청
3. 십팔계 관련 내용, 2011_ 문화재청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1461년(세조6) 을해자로 간행한 『능엄경』의 언해본이다. 당나라 반자밀제般剌蜜帝가 처음 한역하고 송나라 승려 계환戒環이 요점을 뽑아 주해한 불경이며 『능엄경』으로 약칭한다. 『금강경』, 『원각경』, 『대승기신론』과 함께 불교전문강원의 사교과四教科 과목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간행되어 배포되었고, 남아있는 판본도 매우 다양하다.

1461년 간행된 을해자 『능엄경』언해본은 최근까지 계속 발견되어 전10권이 모두 전해지며 대부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권10 말에 수록된 어제발언해주御製跋諺解註에 의하면, 『능엄경』 언해본은 계환의 요해要解에 세조가 직접 한글로 구결을 달았고, 이에 의거하여 한계희韓繼禧와 김수온金守溫이 번역하였으며, 박건朴楗·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정효상鄭孝常 등이 비교 교열을, 영순군 이부李溥는 체제를 결정하였다. 또한 조변안曹變安·조지趙祉는 한자음 표기를 하였고, 신미信眉·사지思智·학열學悅·학조學祖 등이 교정하여 세조가 확정하였으며 조씨두대曹氏豆大가 낭독하였다. 1461년 9월에 교서관에서 주자鑄字로 400벌을 인쇄하였고 10월에 인쇄가 모두 끝나서 반포되었다.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대법사 소장본은 전 10권 중 권3에 해당하는 책으로, 1455년(세조1)에 세조의 친필을 바탕글자로 삼아 만들어진 을해대자와 강희안姜希顔의 글씨를 바탕글자로 삼아 만들어진 을해중·소자 그리고 정방형 고딕체의 한글활자로 1461년에 인출되었다.

권3은 육입六入, 십이처十二處, 십팔계十八界, 칠대만법七大萬法(地大, 火大, 水大, 風大, 空大, 見大, 識大)이 모두 여래장묘진여성如來藏妙眞如性이라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아난과 대중들은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번뇌가 없는 경지를 얻어 각자 마음이 시방에 두루함을 깨닫는다는 내용이다. 책의 체제는 크게 한문원문과 언해문으로 나누어지는데, 한문원문은 경전의 본문과 계환의 주해문으로, 언해문은 원전의 언해문과 주해문의 언해문으로 나누어진다. 한문원문의 각 구절마다 한글 구결이 달려있으며, 언해는 한자를 크게 쓰고 한글로 토를 작게 달은 뒤에 번역을 2줄로 싣는 방식으로 쓰여 있다. 앞뒤의 표지에 능화문菱花紋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복佛腹에서 발견된 이후 근래 새로 개장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은 총 102장으로 첫 장은 결락되었고, 본문 여러 곳에 붉은 글씨로 교정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마지막장에는 음석音釋이 수록되어 있다. 형태사항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고, 반광半匡 크기는 27.5×20.0㎝이다. 본문에는 계선界線이 있고, 9행에 대자17자, 중자21자, 소자쌍행21자로 되어 있다. 판심은 상하백구上下白口,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다.

대법사 소장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3 본문의 한글에는 방점傍點이 붙어 있어 한글 창제 무렵의 국어의 특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을해대·중·소자와 한글 활자가 혼용되고 있어 조선초기의 인쇄사 연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
首楞嚴經卷第三
溫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
二即六入明如來藏前明五陰此明六入文二
初牒標
復次阿難云何六入本如來藏妙真
如性
六根 吸塵
二別明六 一眼入三 一依眞起妄
阿難即彼目睛瞪發勞者兼目與
勞同是菩提瞪發勞相
即彼者指色陰中目瞪發勞別見妊爭明
眼入之妄同彼也熙目乃浮根勞
因瞪發菩提性中元無妄故云同是菩
提瞪發勞相



非自然性
三即十二處顯如來藏二 初牒標
復次阿難云何十二處本如來藏妙
真如性
六根六塵名十二處
二別明六 一眼色處三 一舉相問處
阿難汝且觀此祇陀樹林及諸泉



池於意云何此等爲是色生眼見
眼生色相
樹林泉池色也能觀此者眼也
二辯處無實二 一依根
辯
阿難若復眼根生色相者見空
非色色性應銷銷則顯發一切
都無色相既無誰明空質空



是故當知法則與心俱無處所
則意與法二俱虛妄本非因緣非
自然性
四即十八界明如來藏二 初牒標
復次阿難云何十八界本如來藏妙真
如性
根塵識三 各六 分內外中 名界



二別明六
一眼色界三 一舉相問界
阿難如汝所明眼色爲緣生於
眼識此識爲復因眼所生以
眼爲界因色所生以色爲界
眼色色眼與色也由徹心故識生其中則爲
心在故曰如汝所明

보물 제978호

백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9

白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二十九

조선시대
1권 1첩
세로 41.2㎝, 가로 (접었을때) 14.7㎝, 가로 (폈을 때) 102.5㎝
종이(닥종이)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지정일 : 1988.12.28
소유자 : 우학문화재단(사유)
관리자 : 용인대학교



<백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9>는 당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 연간에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80권 주본 화엄경周本華嚴經 가운데 권29에 해당되는 경문을 저본으로 고려 말기 또는 조선 초기에 개인의 공덕을 발원하기 위하여 백지에 금니金泥로 사성寫成한 것이다.

표지는 중앙에 연화문蓮花紋이 금니로 그려져 있고, 그 바탕의 보상화문寶相華紋은 은니로 장식되어 있다. 테두리는 자색 바탕에 금니로 굵은 쌍선을 긋고, 그 사이에 일정한 무늬로 장엄하여 병풍식 첩장 형태로 만들었다. 표지의 경제經題는 장방형의 자색 바탕에 쌍선 금니로 테두리를 만들고 그 안에 학립사횡鶴立蛇橫 표시와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九(대방광불화엄경 권제29)'라는 표제表題를 기재하였다.

권수에는 백지에 금니로 그린 변상도가 그려져 있는데, 부처가 여러 나한에 둘러싸인 채 대중에 설법하는 장면을 선묘 형식으로 그렸다. 변상의 사주 테두리는 금강저金剛杵를 형식화한 문양이 장식되어 있으며, 변상도의 우측에 경제經題가 쓰여 있다. 이어 표제와 동일한 경제가 기재되어 있고, 다음 행에 실차난타가 한역했음을 밝히는 역자譯者표시가 있어, 이 사경은 측천무후 연간에 한역된 주본 신역 화엄경을 저본으로 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역자 표시 다음에 '십회향품十廻向品'이란 품제가 보이고 있어, 해당 경전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1

2

1. 백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9 표지, 2017_ 경기도박물관
2. 백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9 변상도, 2017_ 경기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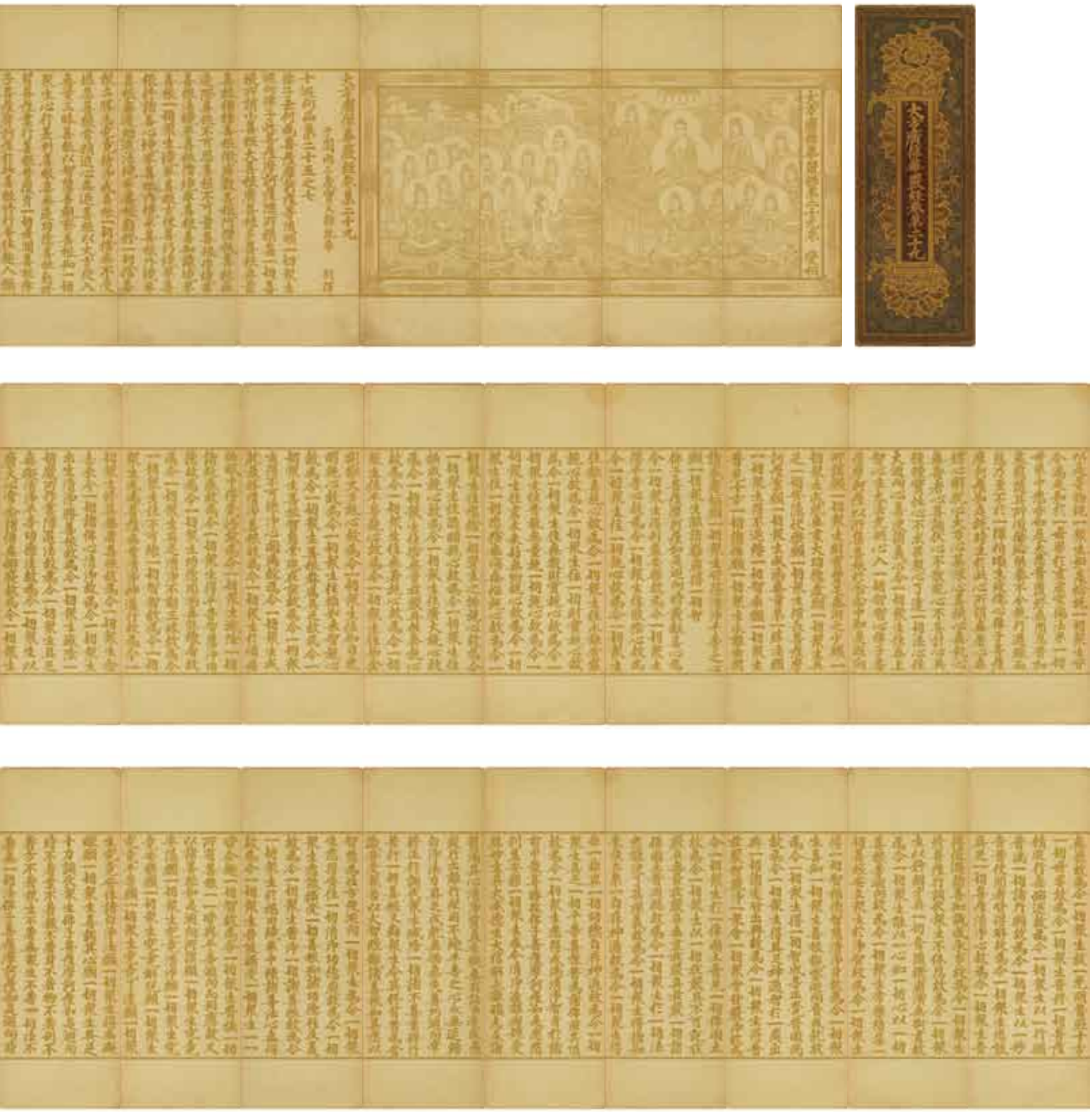


사경면의 위아래 변란邊欄은 쌍선으로 되어 있는데, 외변은 금니로 굵게 내변은 가느다랗게 그어져 있으며, 행을 구분하는 계선은 매우 가는 실선으로 그어져 있다. 한 장은 42행씩 배열되어 있고, 한 행에는 17자씩 배자되어 있다. 상하변란 사이의 높이는 27.5㎝이며, 한 장의 길이는 대략 102.5㎝로 전체 7장이 연결되어 있다. 지질은 닥나무 만을 재료로 만든 종이로 두텁게 떠서 도침이 매우 잘되어 있다.

우학문화재단 소장 백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9은 금·은니로 그린 표지와 백지에 금니로 그린 변상도가 수록되어 있는 우수한 사경으로 전체적인 품격이 내소사 법화경(보물 제278호)과 비슷하다. 사성기寫成記가 없어 제작시기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본문의 서체가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 사경寫經에서 보이는 조맹부체趙孟頫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고려 말 또는 조선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백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9, 2003_ 문화재청

보물 제980호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華城 鳳林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고려시대(1362년)
1구
몸높이 0.89㎝, 머리높이 0.31m, 무릎폭 0.78m
목재
화성시 남양읍 주석로80번길 139

지정일 : 1989.04.10
소유자 : 봉림사(사유)
관리자 : 봉림사

1

2

1.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전경,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화성 봉림사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다. 불상의 머리에는 작은 나발螺髮이 있고 머리와 경계가 구별되지 않는 육계肉髻가 표현되어 있으며, 가운데에 둥근 중앙계주가, 정수리에는 뾰족한 정상계주髻珠가 표현되어 있다. 얼굴은 이마가 넓고 턱 부분이 둥근 편이며 반개한 눈에 오뚝한 콧날, 외곽선이 뚜렷한 입술이 표현되어 있어 부드러우면서도 위엄있는 인상이다. 수인手印은 가슴 앞에 양손을 올린 채 왼쪽 손바닥은 안으로, 오른쪽 손바닥은 밖으로 향하게 하고 각각 엄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을 둥글게 맞대고 있다.

법의法衣는 두 어깨를 모두 감싸고 있는 통견식通肩式이며 안에는 편삼偏衫을 입고 있는데 띠매듭은 사라지고, 3줄의 옷주름이 묘사되었다. 대의가 왼쪽 어깨로 넘어가면서 생긴 좁은 잔주름의 표현은 이 불상의 특징으로 13세기 여래상에 나타나는 표현 중 하나이다. 이 여래좌상에 보이는 얼굴의 형태, 굴곡진 가슴, 매듭이 없는 승각기 그리고 옷주름 등은 1274년 중수된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1649호)과 비슷하다.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체구에 비해 큰 얼굴과 안정감 있는 신체, 부드러운 옷주름과 양감이 특징인 고려시대 후기의 불상을 대표하는 우수한 작품이다.

1978년 개금불사 과정에서 사리병, 전적류, 섬유류, 곡물류, 구슬 등의 복장유물과 함께 조성개금기造成改金記가 발견되었다. 조성개금기에 의하면 이 불상의 존명은 무량수여래無量壽如來(아미타여래)로 1362년(공민왕11)과 1583년(선조16)에 개금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불상은 1362년 이전에 조성된 고려시대 불상으로 추측된다. 복장유물로 발견된 『소자금강반야바라밀경小字金剛般若波羅密經』의 권말에 무의자혜심無衣子慧諶(1178~1234)이라고 적은 발문이 있어 불상의 제작시기 추정에 참고가 된다.





보물 제981호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河南 校山洞 磨崖藥師如來坐像

고려시대(977년)
1구
총높이 0.93m, 좌상 높이 0.43m
석재
하남시 교산동 산10-3

지정일 : 1989.04.10
소유자 : 선법사(사유)
관리자 : 선법사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은 하남 교산동 선법사善法寺 경내 바위에 새겨져 있는 고려시대의 불상이다.

불상의 머리는 소발素髮에 작은 육계肉髻가 표현되어 있다. 얼굴은 둥글고 갸름한 편이며, 위로 치켜 올라간 두 눈과 오뚝한 코, 작은 입 등이 표현되어 있어 단정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자아내는데 이러한 이목구비는 하남 하사창동 철조석가여래좌상(보물 제332호)을 비롯한 고려 초기 불상의 얼굴 표현과 유사하다. 수인手印은 무릎 위에 놓은 왼손 손바닥은 위로 보게 하고 그 위에 약합藥盒을 들고 있으며, 오른손은 가슴 높이로 올려 시무외인施無畏印을 결하고 있다.

법의法衣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에만 걸친 우견편단식右肩偏袒式으로 왼쪽 어깨 부분에서 크게 접혀져 있다. 법의의 단이 왼쪽 어깨에서 재쳐진 표현은 개성 적조사 철조여래좌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포천 출토 철불좌상 등에서 나타나는 표현으로 주목된다. 광배는 3중선으로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계단식으로 새겼으며, 그 주위에는 화염문火焰紋이 둘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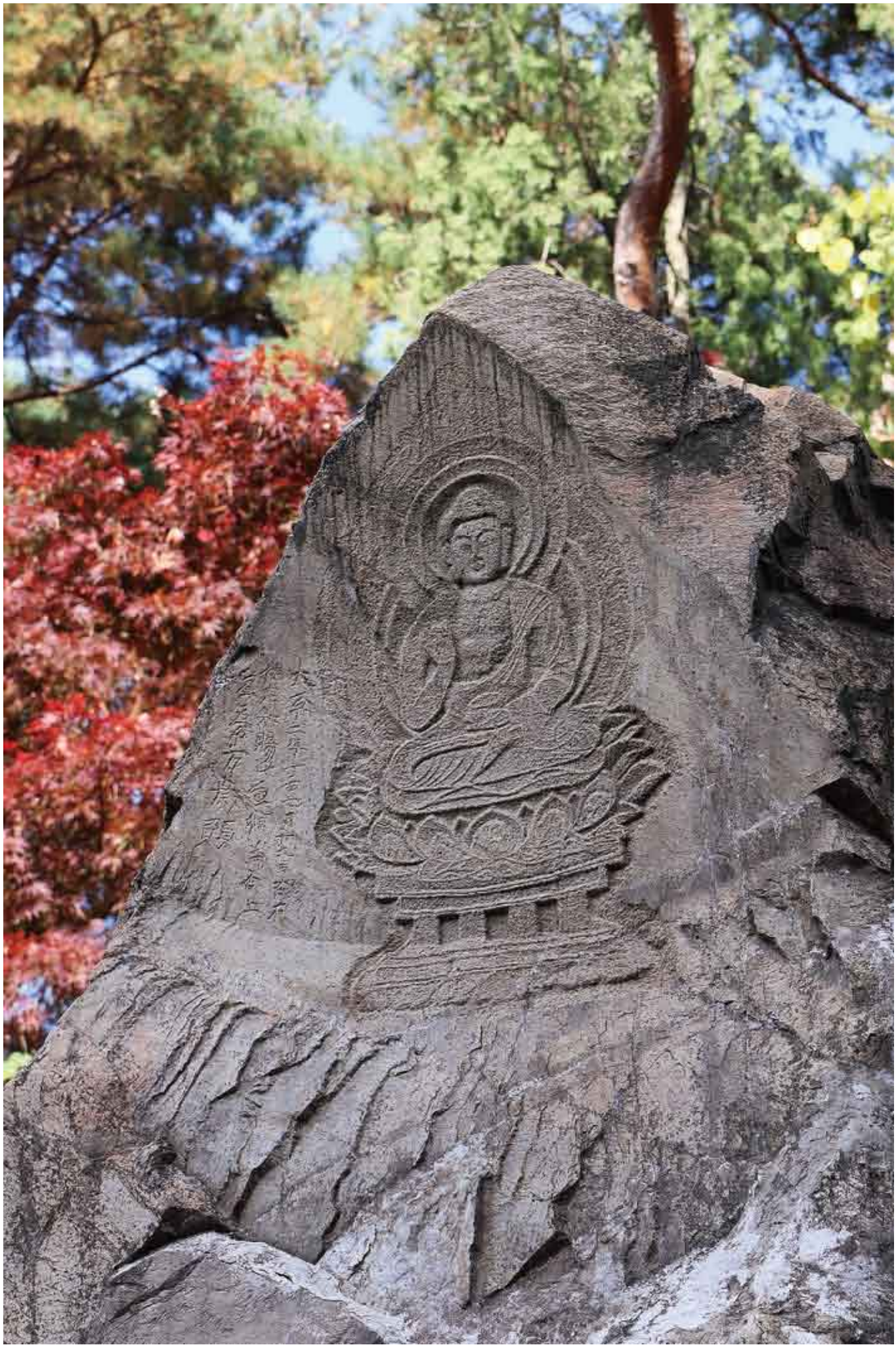
대좌는 복련伏蓮 위에 2중의 대석臺石이 있고, 그 위에 4개의 짧은 기둥으로 이루어진 중대中臺가 있으며, 그 위에는 보상화문寶相華紋이 새겨진 5개의 앙련仰蓮이 불신佛身을 떠받치고 있다. 전체적으로 회화를 연상하게 하는 얕은 부조로 조각되었으며 그 기법이 섬세하고 정교하다.

1

2

1.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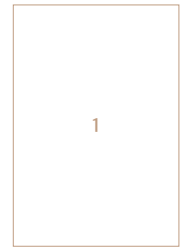


불상 옆 벽면에 '太平二年丁丑七月二十九日古石 佛在如賜乙重修爲今上 皇帝萬歲願(태평이년 정축 칠월이십구일에 옛 석불을 중수하며 금상황제의 만세를 원한다)'이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어 977년(경종2)에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상의 최초 조성시기는 977년보다 앞선 10세기 전반 무렵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마애불상이 위치한 곳은 현재 하남시 교산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으나 원래는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교리에 해당한다. 이 곳에서 멀지 않은 하사창동에서 철불이 출토되었고 춘궁동에는 두 기의 석탑이 전해오고 있어 고려 초기에 이 일대에서 불교가 융성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일대는 고려 초기 광주廣州의 호족이었던 왕규王規의 근거지였다. 왕규는 원래 함규咸規였는데 왕건으로부터 왕씨 성을 사성賜姓받아 왕규가 되었으며 2명의 딸을 태조 왕건에게 출가시키고, 혜종에게도 1명을 출가시키는 등 2대에 걸친 국구國舅로서 막강한 세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고려의 사절로 중국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태조의 임종을 지켜본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의 세력근거지였던 광주에서 출토된 하남 하사창동 철조석가여래좌상은 고려왕실과 외척세력의 배경으로 창건되었을 사찰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 마애약사여래좌상 역시 이와 같은 정치사회적 배경에서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마애약사여래좌상이 있던 사찰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하남 하사창동 철조석가여래좌상이 봉안되었던 본 사찰의 부속 암자 혹은 원院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형으로 미루어보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보이는 약정사藥井寺일 가능성도 있다.

비교적 마모없이 선명하고 명문이 남아 있어 이 불상은 고려 초기 불상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1.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세부,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명문,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보물 제982호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利川 長岩里 磨崖菩薩半跏像

고려시대(981년)
1구
총높이 3.2m
석재(화강암)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822

지정일 : 1989.04.10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이천시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은 고려초기인 981년(경종6)에 조성된 마애불이다. 머리에는 보관이 선각되어 있는데 보관 정면에는 삼산형三山形의 장식이 양각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작은 화불化佛(또는 단순화된 형태의 불탑)이 새겨져 있으며, 보관의 양 모서리 부분에는 금속제 장식을 달았던 것으로 추측되는 원공이 남아있다.

보관 아래에는 머리카락이 반원형을 이루며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얼굴형은 사각형에 가깝지만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되어 있고, 얼굴크기에 비해 긴 눈썹, 짧은 코, 작지만 두꺼운 입, 늘어져 있는 귀를 묘사하였다.

오른손은 연화 줄기를 잡고 있으며, 왼손은 손바닥을 위를 향하게 한 후 왼발 위에 올려놓았다. 연화 줄기는 오른쪽 귀 끝부분의 위치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서 한 줄기에는 작은 연봉, 다른 한 줄기에는 마치 부챗살처럼 퍼진 특이한 연꽃이 표현되어 있다. 천의天衣는 두 어깨를 모두 감싸고 있는 통견식通肩式이며 하반신을 지나 대좌 밑바닥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하반신은 상체보다 한단 앞으로 튀어나온 바위 면에 조각되어 있다. 마애보살반가상은 상현좌裳懸座에 반가부좌半跏趺坐를 하고 있는데 반가상의 연화 족좌는 일반적으로 1개만 표현되는데 비해 마애보살반가상은 2개의 연화 족좌가 조각되어 있다.

2개의 연화 족좌가 마련되는 경우는 송나라 불상에서 보이는 특징으로, 특히 쓰촨성四川省의 대족석굴大足石窟과 윈난성雲南省의 석종산석굴石鐘山石窟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대족석굴은 당말오대에서 송대까지 개착된 석굴이며, 석종산 석굴은 대리국大理國(937~1253) 전기에 개착하여 원대까지 조성된 석굴이다. 이러한 점을 통해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의 도상은 송나라 불상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

2

1.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도면, 2002
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1.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이 조각된 바위의 뒷면에는 중앙에서 약간 좌측으로 치우쳐서 세로로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명문은 총 3행으로 2행과 3행은 마모가 진행되어 부분적으로만 판독이 가능하다. 1행에는 '太平興國六年辛巳二月十三日…香徒(태평흥국육년신사이월십삼일…향도)'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 명문으로 보면 마애불은 981년(경종6)에 조성되었으며, 불교신앙 활동을 위해 결성된 승속僧俗의 단체인 '향도'가 주체가 되어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은 1982년 단국대학교 학술조사단의 조사로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2001년 발굴 조사되었다. 발굴 조사결과 보살상의 전·후면에서 보호각의 초석과 적심, 기단열로 추정되는 석재들이 확인되었다. 보살상 앞에 놓여 있었던 판석 2매 중 1매는 마애불의 보개寶蓋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석의 윗면 모서리 합각선은 도드라지게 조각되어 있고, 중앙에는 마애불의 상단부 다듬어져 돌출된 부분의 크기와 일치하는 홈이 있다.

1

2

1.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전경, 2002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탁본, 2002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보물 제983호

안성 봉업사지 석조여래입상

安城 奉業寺址 石造如來立像

고려시대
1구
총높이 1.98m, 불상 높이 1.57m
석재(화강암)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

지정일 : 1989.04.10
소유자 : 칠장사(사유)
관리자 : 칠장사

<안성 봉업사지 석조여래입상>은 안성 죽산지역의 봉업사 터에 있던 고려시대 불상이다. 안성 봉업사지 석조여래입상은 불상과 광배가 하나의 돌로 조성되었으며, 대좌는 후대에 제작된 것이다.

불상의 머리는 소발素髮에 높은 육계肉髻가 있고, 목에는 삼도三道가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다. 얼굴은 둥글고 갸름한 편이며 마모가 심하여 전체적인 인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양쪽 귀는 어깨에 닿을 듯 길게 늘어져 있다. 오른손은 가슴부분까지 들어 손바닥을 가슴에 붙이고 있고, 왼손은 자연스럽게 내려 법의자락을 잡고 있다.

법의法衣는 두 어깨를 모두 감싸고 있는 통견식通肩式으로 왼쪽 어깨 부분에서 크게 접혀있다. 옷주름은 여러 겹의 원호圓弧를 이루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군의裙衣가 양다리 사이에서 지그재그 모양을 이루고 있다. 얇은 법의를 착용하고 있어서 인체를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인도의 굽타양식(Gupta)을 계승한 것이다. 옷주름은 유려한 Ω자형 주름이 양다리를 걸쳐 흘러내리고 가슴의 옷깃이 반전하는 등 우드야나(Udyana)식 또는 우전왕상식優塡王像式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슴은 U자형으로 트여 있어서 변형된 굽타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광배光背는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이 모두 있는 주형舟形의 거신광擧身光으로 두광과 신광의 외연을 따라 좁은 공간에 화염문火焰紋이 새겨져 있다. 두광頭光 안에는 구름 위에 앉아 여러 가지 모양의 수인手印을 취하고 있는 화불化佛 3구軀를 단순하게 부조하였다.

안성 봉업사지 석조여래입상은 경주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국보 제81호) 등 8세기 신라 전성기의 불상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나 두·신광의 외연을 따라 좁은 공간에 불꽃무늬를 새긴 도식적인 표현이나 장대한 광배 형태 등 세부 표현에서는 신라 양식과는 구별되는 고려시대 석불이다. 이 불상은 원래 죽산면 죽산리 봉업사지에 있었던 것을 죽산중학교 교정으로 옮겼다가 다시 칠장사七長寺로 옮겨 현재는 칠장사 경내에 있다.



1

2

1. 안성 봉업사지 석조여래입상 전경,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안성 봉업사지 석조여래입상,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보물 제1008호

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

咸陽朴氏 正郎公派 門中 典籍

조선시대
일괄(7종 46점)
①『나암수록』4책
- 책1 : 세로 23.0㎝, 가로 25.9㎝
- 책2 : 세로 31.0㎝, 가로 16.5㎝
- 책3 : 세로 29.0㎝, 가로 17.0㎝
- 책4 : 세로 28.0㎝, 가로 17.0㎝
②『당시고취』1책 - 세로 26.5㎝, 가로 15.5㎝
③『당조책림』1책 - 세로 21.5㎝, 가로 14.2㎝
④『만국전도』- 세로 71.5㎝, 가로 133㎝
⑤『저상일월』20책 - 세로 28㎝, 가로 16㎝
⑥『저상일용』16책 - 세로 28㎝, 가로 16㎝
⑦『통감』3책 - 세로 24㎝, 가로 14.7㎝
종이(닥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1989.08.01
소유자 : 박재문(사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은 함양 박씨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던 전적들로, 『나암수록羅巖隨錄』을 비롯하여 『당시고취唐詩鼓吹』, 『당조책림唐朝策林』, 『만국전도萬國全圖』, 『저상일월渚上日月』, 『저상일용渚上日用』, 『통감通鑑』 등이 있다. 1989년 함양 박씨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던 수많은 전적 가운데 연대가 오래된 것, 희귀한 것,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 7종 46점을 보물로 지정하였다. 이들 전적은 조선 후기 당시의 사회·경제·문화·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전적들은 본래는 함양 박씨 정랑공파 종중의 미산고택에 보관되어 전해 내려오다가 현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위탁·보관되고 있다.

『나암수록』은 경상북도 예천 저상渚上(현재 용문면 대저동)에 은거하며 생활했던 조선 말기 유학자 박주대朴周大(1836~1912)가 지은 책으로 총 8권 4책으로 되어 있다. 이 책에는 연차적으로 고종의 즉위와 대원군의 집정, 병인양요, 진주민란, 임오군란, 동학란, 갑오경장, 경술국치, 그리고 파리강화조약 등 구한말 국내·외의 중요한 사건과 사실事實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통감』은 조선 초기에 목활자로 간행된 책으로 권1~5, 31~37, 45~50, 18권 3책만이 남아있다.

『당시고취』는 원호문元好問 등이 당나라의 유자후柳子厚부터 서현徐鉉에 이르기까지 96인의 7언 율시를 모은 책으로, 이 책은 원대元代에 간행된 본을 조선 초기에 번각한 복각본覆刻本이다. 현존하는 것은 권1~4까지 1책만 있는 영본零本이다. '적선당간積善堂刊'이란 원본原本의 간행처가 복각본에 그대로 나오지만, 확실한 연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지질紙質이나 판식板式의 형태로 보아 조선 초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1. 통감 권31 권수, 2014_ 문화재청
2. 나암수록 제1책 표지, 2004_ 문화재청
3. 나암수록 제1책 본문(서원철폐 관련 기록), 2004_ 문화재청
4. 나암수록 제2책 표지, 2004_ 문화재청
5. 나암수록 제2책 본문(일본이 강화를 청한 조약), 2004_ 문화재청
6. 나암수록 제3책 표지, 2004_ 문화재청
7. 나암수록 제3책 본문(임오군란 관련 기록), 2004_ 문화재청








隨錄 卷二






隨錄 卷二






隨錄

『당조책림』은 편자가 교서랑校書郞을 그만두고 원진元縝과 함께 제거制擧에 응시하기 위해 상도上都에 물러나 살면서 당나라 조정의 책문策文을 수집하여, 칠십오문七十五門으로 엮은 것이다. 갑진자甲辰字 소자小字로 조선 전기에 간행한 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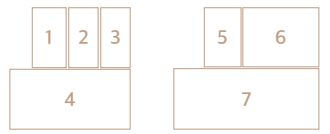
『만국전도』는 조선후기 사헌부장령, 사간원헌납, 공조참의 등을 역임한 문신 박정설朴廷薛(1612~?)이 그린 세계전도로 바다와 육지의 위치가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 지도 후면에 '上之二年辛丑汝弼寫(상지이년신축여필사)'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 1661년(현종2)에 박정설이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박정설의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여필汝弼, 호는 돈우당遯愚堂이다. 1993년경 서울에서 도난당해 현재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다.

『저상일월』은 경상북도 예천 저상渚上(현재 용문면 대저동)에 거주하는 박한광朴漢光·득녕得寧·주대周大·면진冕鎭·희수熙洙·영래榮來로 이어지는 6대의 한문초서일기로 2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한광朴漢光(1770~1834)에 의해 1834년(순조34) 작성된 이래 박한광의 차남 박득녕朴得寧(1808~1886)이 일기를 이어 썼으며, 『나암수록』의 저자인 아들 박주대朴周大



(1836~1912)를 거쳐 손자 박면진朴冕鎭, 증손 박희수朴熙洙, 그리고 현손 박영래朴榮來가 계속 쓰다가 6·25가 발발한 1950년으로 끝나 있다. 이 일기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긴 작품이다. 조선왕조 23대 순조 말년에서 시작되어 24대 헌종, 25대 철종, 26대 고종, 27대 순종을 거쳐 일제 36년, 그리고 광복 후 6·25에 이르는 긴 역사가 실려 있다. 파란만장했던 이 시기의 사회·경제·정치·문화상이 드러나 있으며, 특히, 집필자의 거주지인 경상북도 예천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소상하게 기록된 것은 다른 일기류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특징이다.

『저상일용』은 『저상일월』을 쓴 박한광 외 5인이 6대에 걸쳐 쓴 가계부로 총 16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후변동·농사일지·길흉사 등 일상생활에 관하여 두루 기술되어 있다.



1. 당시고취 2권, 2004_ 문화재청
2. 당시고취 1권, 2004_ 문화재청
3. 당시고취 표지, 2004_ 문화재청
4. 당시고취 목록 및 간행록, 2004_ 문화재청
5. 당조책림 표지, 2004_ 문화재청
6·7. 당조책림 목차 및 본문 시작부분, 2004 _ 문화재청









보물 제1010-2호

묘법연화경(언해) 권1, 4

妙法蓮華經(諺解) 卷一, 四

조선시대(1463년)
1권
권1 - 세로 31.5㎝, 가로 23.0㎝
권4 - 세로 33.5㎝, 가로 24.0㎝
종이(닥종이, 고정지)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137-48

지정일 : 2010.08.25
소유자 : 원각사(사유)
관리자 : 원각사

<묘법연화경(언해) 권1, 4>는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구마라집이 번역한 한역본에 계환戒環이 주해註解하고 일여一如가 집주集註한 것을 저본으로 하여 세조가 직접 경문에 구결口訣을 달고 윤사로尹師路 등이 간경도감에서 번역하여 1463년(세조9)에 목판으로 간행한 국역불경이다. 법화사상의 핵심 경전인 『묘법연화경』은 한국불교의 근본경전 중 하나로 불교전문강원의 수의과隨意科 과목으로 채택되었으며, 『화엄경』과 함께 한국불교 사상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경전이다.

원각사에는 국역법화경 전7권 가운데 권1과 권4, 2책이 소장되어 있다. 원각사본의 표지는 연화문 문양 바탕의 갈색 종이로 오래전에 선장으로 개장한 것이다. 우측 내지에는 '己卯(1519)十一月日 兵馬虞侯 朴有鎭'이란 묵서가 있어 박유진이 이 책을 입수하여 보수한 이후 기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권수卷首에는 1463년에 간행된 간경도감본 중에서 유일하게 변상도가 남아있는데 「영산설법도靈山說法圖」를 그린 것으로 1459년 광평대군부인 신씨 발원 『묘법연화경』(일본西來寺藏) 변상도에 수정을 가해 번각飜刻한 것이다. 1463년 9월 도제조 영천부원군 윤사로 이하 김영견金永堅에 이르는 18명의



관원목록이 열거되어 있다. 권두제 다음 행에 '계환 해戒環 解' '일여 집주一如集註'가 있고 뒤에 경문이 시작되는데 본문은 한글로 토를 달고 국역의 한글에는 방점을 찍는 방식이다. 지정된 동일본에 있는 요광효姚廣孝의 신주법화경서新註法華經序, 도선의 홍전서弘傳序 등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권1의 장차張次표시는 1~113장까지 남아 있고, 권4는 107~181장의 일부만이 남아 있어 완전하지는 않다.

한편 권1 앞부분에는 '교정校正' 인印이 찍혀 있고, 본문 곳곳에 교정을 본 흔적이 발견되기도 하여 이 책은 『법화경』의 본격적 간행에 앞서 교정본으로 쓰였던 책임을 알 수 있다.

판식板式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사주쌍변四周單邊으로 반곽의 크기는 세로 21.7㎝, 가로 18.2㎝이다. 반엽을 기준으로 9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한 행은 17자씩 새겨져 있다. 판면에는 계선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중앙의 접힌 부분에 판심부가 보이고 판심의 상하에 대흑구大黑口가 있으며, 그 사이에 상하의 흑어미가 내향하고 있는 형식이다. 특히 어미는 흑지부분 테두리에 가늘게 여백을 둔 간경도감판 특유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 어미 사이에 '法華經법화경'이라는 약서명이 보이며, 그 아래로는 권수 및 장수표시가 새겨져 있다.

지질紙質은 조선 초기에 주로 간경도감에서 불경 인출에 사용된 전형적인 인경지印經紙로, 간혹 약간의 볏짚이 가미된 고정지藁精紙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원각사 소장 묘법연화경(언해) 권1, 4는 한글로 번역하여 정음正音의 명맥을 이어 발전을 보게 한 귀중한 국역자료로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판본의 형태적 특징을 잘 갖추고 있다. 『묘법연화경』은 중세국어사 및 조선전기 판본연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불교판본학 및 중세국어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현존본은 대부분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1

2

1. 묘법연화경(언해) 권1·권4 표지, 2011_ 문화재청
2. 묘법연화경(언해) 권1 권수, 2011_ 문화재청



보물 제1051-1호

분류두공부시(언해)권13

分類杜工部詩(諺解) 卷十三

조선시대
1권 1책
세로 18.7㎝, 가로 29.3㎝
종이(닥종이)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1990.09.20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3>은 1481년(성종12) 왕의 명을 받고 유윤겸柳允謙(1420~?), 조위曺偉(1454~1503), 의침 등이 중국 당나라 두보杜甫(712~770)의 시 전편을 기행紀行·술회述懷·회고懷古·우설雨雪·산악山嶽·강하江河·문장文章·서화書畵·음악·식물·조수鳥獸·충어蟲魚 등 52부部로 분류하여 한글로 번역한 초간본初刊本이다. 흔히 '두시언해杜詩諺解'라고도 불린다. 책의 제목을 '두공부시杜工部詩'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두보가 공부원외랑工部員外郞의 벼슬을 지냈기 때문이며 '분류分類'는 중국 송나라의 분문집주두공보시分門集注杜工甫詩를 참고하여 따온 것이다.

이 책은 원나라 때 편찬된 『찬주분류두시纂註分類杜詩』 등을 원본으로 삼아 두보의 시 1,647편 전부와 다른 사람의 시 16편에 승려 의침義砧을 비롯하여 유윤, 유휴복柳休復, 조위 등이 주해하였다.

조위曺偉가 쓴 서문에 의하면 1481년 가을에 왕의 명을 받아 한글 번역을 착수하여 그 해 12월에 완성하였는데 1481년에 금속활자인 을해자乙亥字의 중자中字와 소자小字 및 한글자를 사용하여 인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482년 7월 6일 유윤겸이 올린 차자箚子에 간행 당시 가뭄이 극심하여 두시杜詩를 비롯한 『사전四傳』, 『춘추春秋』, 『강목신증綱目新增』, 『문한류선文翰類選』, 『이백시李白詩』, 『용학구결庸學口訣』의 간행을 중지하고, 그 비용을 가뭄을 극복하는데 쓰자는 건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 인출印出은 완성된 이후 뒤에 이루어진 듯하다.

경기도박물관 소장 『분류두공부시(언해)』는 전체 25권 가운데 권13, 1책이다.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3에는 「망악望嶽」 등 산악山嶽과 관련된 고시古詩 3수와 율시律詩 3수, 「삼천관수창이십운三川觀水漲二十韻」, 「미피행渼陂行」 등 강하江河와 관련된 고시 9수, 「낭산가閬山歌」, 「낭수가閬水歌」 등 도읍都邑과 관련된 고시 2수와 율시 35수 등이 수록되어 있다. 판식板式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사주단변四周單邊으로 계선이 있으며 판심의 상하에는 흑어미黑魚尾가 내향內向하고 있는 형식이다. 본문에 쓰인 한문의 원문은 단행單行, 언해는 쌍행雙行으로 되어 있으며, 한글에는 사성四聲의 방점傍點이 표기되어 있다.

분류두공부시(언해)는 초간본은 전 25권, 활자본으로 간행되었으나 1권, 2권, 4권이 전해지지 않아 전질全帙을 이루지 못한 채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다. 초간본은 매우 희귀한 판본으로 조선 초기의 한글 표기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분류두공부시(언해)의 초간본이 간행된 지 150여 년이 지난 1632년(인조10)에 경상도 관찰사 오숙吳䎘이 대구부사 김상복金尙宓의 도움으로 초간본을 교정하여 개각改刻하였는데, 현재 완질이 전하고 있다. 이 중간본을 보면 초간본의 내용을 그대로 번각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언어로 개각改刻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간본에는 반치음半齒音, 방점, 'ㅿ'과 'ㆁ'이 쓰인 반면, 중간본에는 방점이 없고 'ㅿ'과 'ㆁ'을 쓰지 않은 점이 크게 다르다. 1481년에 나온 초간본과 1632년에 나온 중간본의 이러한 표기 방법의 차이는 한글의 변화 양상을 살필 수 있어서 국어학과 국문학 및 인쇄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1. 분류두공부시(언해)권13 표지, 2016_ 경기도박물관
2~4. 산악과 관련된 고시, 2004_ 문화재청
5·6. 강하와 관련된 고시, 2004_ 문화재청
7·8. 도읍과 관련된 고시, 2004_ 문화재청

보물 제1052호

천태사교의
天台四教義

고려시대(1315년)
1책
세로 24.5㎝, 가로 16.5㎝
종이(닥종이)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1990.09.20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1 2

1. 천태사교의 권수, 2015_ 경기도박물관
2. 천태사교의 권말 목암노인의 제, 2015_ 경기도박물관

<천태사교의>는 고려의 승려 체관諦觀(?~970)이 천태종의 중심 사상인 '제법실상일념삼천諸法實相一念三千'의 요지를 표현하고자 천태종 창시자인 천태 지의天台智顗(538~597)가 제시한 교판론教判論과 수행론修行論을 간결하게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천태학의 골자와 요지를 교教와 관觀의 2문門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교는 『법화경』의 신해품信解品과 『열반경』의 오미五味, 『화엄경』의 삼조三照의 비유에 근거를 두어 오시五時와 팔교八教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오시는 석가여래의 49년간 설법을 화엄華嚴·녹원鹿苑·방등方等·반야般若·법화열반法華涅槃의 순서로 정리한 것이고, 팔교는 석존의 교리와 가르침인 화법사교化法四教와 화의사교化儀四教를 합한 것이다. 관은 관심문觀心門(자신의 마음을 관조하는 것)으로 『마하지관摩訶止觀』의 25방편과 10승관법에 근거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

『천교사교의』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이 있는 『불조통기佛祖統記』에 의하면, 중국 오월吳越 국왕이 사신을 보내어서 천태관계 서적을 얻고자 하였으므로 고려 광종光宗(재위 949~975)은 체관諦觀(제관, ~970)을 보냈다. 체관은 960년(광종1)에 천태종 계통의 서적을 전하기 위하여 오월吳越에 갔다가 중국 천태종 제15조인 의적義寂(919~987)의 강의에 감명을 받고서 그의 문인이 되고, 그 뒤 천태학을 익히고 널리 알린 지 10년 만에 입적入寂하였는데, 입적한 뒤에 주변 사람들이 그의 집에 있던 낡은 상자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뚜껑을 열었더니 『천태사교의』가 들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천태종의 중심사상인 제법실상일념삼천諸法實相一念三千의 심오하고 광대한 철학사상의 요지를 설명하고 있어 천태종 뿐 아니라 불교계 일반에게 널리 읽혔다.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義天(1055~1101)의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에 수록되어 있으며,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는 연구 주석서가 70여부 이상이 간행되었다. 간행 후 중국에서는 송나라의 고산 지원孤山智圓(976~1022)이 교정 및 판각을 하였고, 준식遵式(964~1032), 정각淨覺(1091~1157) 등이 과문科文이나 주석註釋을 추가하여 판각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간본刊本 및 장경藏經에 수록된 주석서가 50여 부 간행되었고, 메이지시대明治時代이후에도 여러 학자들의 주석서가 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에 『사교의四教儀』 1권이 수록되었다. 이 목록에는 정각淨覺이 지은 『사교의과四教儀科』 1권, 종의從義(1042~1091)의 『사교의과』 1권과 『사교의집해四教義集解』 3권, 종진從陳의 『강의講義』 3권, 지은 이를 알 수 없는 『문답問答』 1권과 『지위집해地位集解』 1권이 수록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에 승려 언기彦機(1581~1644)의 저술인 『편양집鞭羊集』의 「선교원류禪教源流」에서 이 책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조선 중기에도 『천태사교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박물관 소장본 『천교사교의』는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2권의 책 중 상권 1책이다. 1315년(충숙왕2) 5월에 기복도감祈福都監에서 이전의 판본을 고쳐 간행하였다. 책장의 테두리를 둘러싼 광곽匡郭의 크기는 세로 18.1㎝, 가로 13.2㎝이고, 테두리의 변란邊欄은 한 개의 굵은 선으로 된 사주단변四周單邊이며, 계선界線은 없다. 행자수는 9행 17자이고, 어미의 형태는 상하향흑어미上下向黑魚尾이다. 표지에는 책이름이 묵서된 흔적이 있으나, 현재는 거의 지워져 있다. 권말卷末에 목암노인牧庵老人이 제題한 내용에 의하면 본서本書의 구본舊本이 있었는데 글자가 크고 책이 무거워서 사람들이 휴대하고 다니기에 불편하여 굉지대선사宏之大禪師가 산인山人 수여水如에게 개서改書시켜 1315년 5월 기복도감에서 개판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복잡하게 조직된 천태 지의의 교판설에 비해 알기 쉬우면서도 간결하고, 이 책을 익힌 뒤에 경전을 읽으면 여러 가지 번뇌설煩惱說과 수행계위설修行階位說 등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천태학의 입문서로 불가佛家의 기초 교재로 오늘날까지 활용되고 있다. 이 책은 본문을 완전하게 판독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서지학·사학·천태종 및 불교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자료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보물 제1053호

진언권공(언해)

眞言勸供(諺解)

조선시대(1496년)
1책
세로 34.5㎝, 가로 21.2㎝
종이(닥종이)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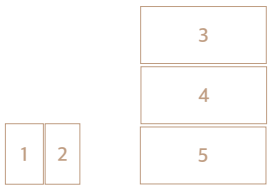
지정일 : 1990.09.20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진언권공(언해)>는 사찰에서 불교의례 행위와 의례 중에 쓰이는 진언을 모아놓은 것을 한글로 번역하여 1496년(연산군2) 5월에 인경목활자로 간행한 사찰 의식집이다.

성종成宗(재위 1469~1494)이 승하하자, 어머니인 인수대왕대비仁粹大王大妃(1437~1504)와 성종의 계비繼妃인 정현대비貞顯大妃(1462~1530)는 1495년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원각사圓覺寺에서 대대적으로 인경印經하고 이어 그 다음해에 내탕금內帑金으로 인경자印經字와 인경印經 한글자字를 만들어 먼저 『천지명양수륙잡문天地冥陽水陸雜文』을 인출하였다. 또한 학조學祖로 하여금 시식권공施食勸供, 일용상행日用常行 등 불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한글로 번역하여 『육조법보단경六祖法寶壇經』과 『진언권공』을 찍어냈다. 권말의 발문에 '인수대왕대비전하仁粹大王大妃殿下…명승이국어번역육조단경命僧以國語飜譯六祖壇經 간조목자인출삼백건刊造木字印出三百件…차시식권공일용상행지법사且施食勸供日用常行之法事…상교득정인출사백건詳校得正印出四百件 반포중외언頒布中外焉 홍치구년弘治九年 하오월일夏五月日 발跋'라는 기록이 있어 기존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1496년(연산군2) 『육조단경六祖壇經』 300건과 『진언권공』 400건을 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판식板式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사주단변四周單邊으로 반곽半郭의 크기는 세로 24.5㎝, 가로 15.0㎝이다. 계선과 흑구黑口가 있으며 판심의 상하에는 흑어미黑魚尾가 내향內向하고 있는 형식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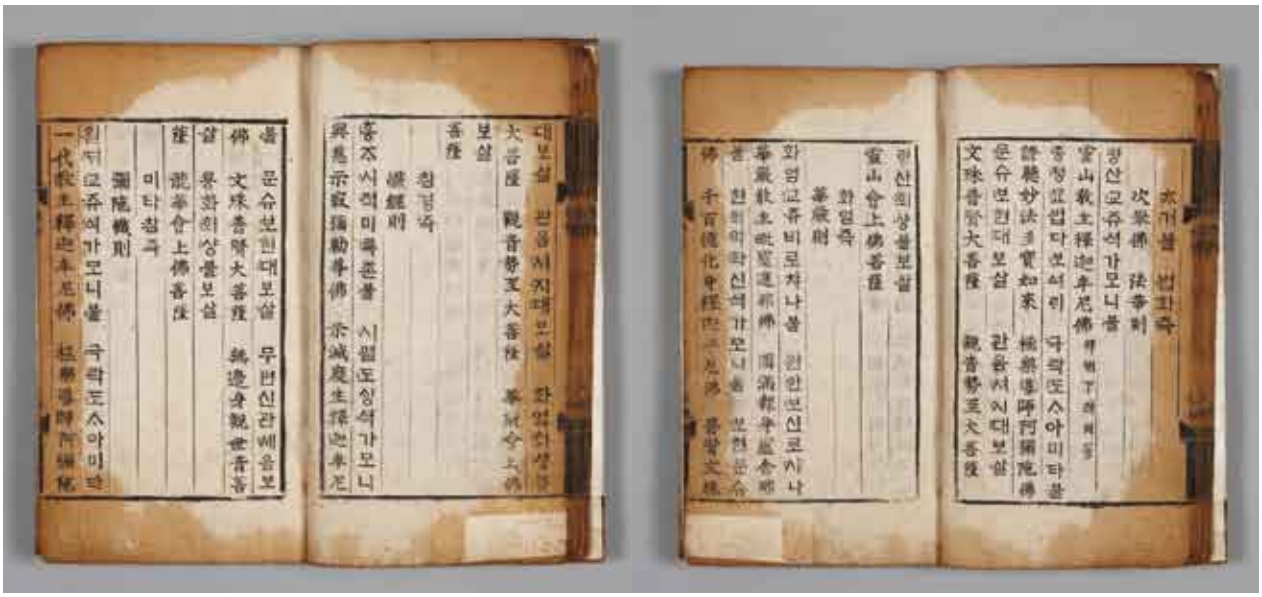
대비들이 내탕금內帑金(궁중에서 사적으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정성껏 활자를 만들어 찍었기 때문에 자체가 해정하고 글자새김이 잘되어 인쇄가 매우 정교하다. 한글을 먼저 쓰고 한자를 배열하여 국역되었는데, 한글의 표기가 완전하게 실제 소리로 환원되었으므로 국어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1. 진언권공(언해) 표지, 2015_ 경기도박물관
2. 진언권공(언해) 권수, 2015_ 경기도박물관
3. 관음청·향화청·삼청후쇄수게 부분, 2015_ 경기도박물관
4. 육거불 법화즉·화엄즉·참경즉·미타참즉 부분, 2015 _ 경기도박물관
5. 권말의 발문, 2015_ 경기도박물관









보물 제1065호

백자 태항아리 및 태지석

白磁 胎壺 및 胎誌石

조선시대
1조(3점)
*외항아리
- 전체높이 35.2㎝, 항아리높이 30.6㎝, 아가리지름 19.7㎝ 밑지름 14.6㎝
*내항아리
- 전체높이 25.1㎝, 항아리높이 21.7㎝, 아가리지름 9.0㎝, 밑지름 9.2㎝
*태지석 - 21.0×21.0×5.7㎝
흙(자기), 석재(오석)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지정일 : 1991.01.25
소유자 : 우학문화재단(사유)
관리자 : 용인대학교

<백자 태항아리 및 태지석>은 조선시대 왕자의 태胎(태반, 탯줄 등)를 담던 태항아리와 태의 주인공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록한 태지석이다. 조선 사람들은 갓난아기의 태를 잘 처리하면 그 태의 주인공이 건강하고 좋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고 믿었다. 조선 왕실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길일을 택하여 태를 깨끗하게 물로 일백 번을 씻은 후 작은 항아리인 내內항아리에 담고, 그것을 다시 큰 항아리인 외外항아리에 넣어 입구를 감당甘糖으로 밀봉을 하고 붉은 끈으로 묶었다. 태항아리는 다시 태함에 담아 길지로 알려진 산 정상의 태실胎室까지 봉송하여 태지석胎誌石과 함께 봉안하여 봉분을 만들고, 태실의 옆에 태비胎碑를 세웠다.

태항아리는 15세기 전반에는 분청사기로 만들어지다가, 15세기 후반부터는 백자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왕실 도자기를 제작하던 경기도 광주의 무갑리, 우산리, 번천리 요지에서 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학문화재단 소장 백자 태항아리는 외항아리와 내항아리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항아리는 짧은 목을 지나 어깨 부분에 이르러 급히 벌어졌다가 서서히 좁아진 긴 몸체를 가지고 있고, 어깨 부위 4곳에는 작은 고리가 달려있다. 뚜껑은 넓은 접시 모양으로, 윗면 중앙에 단추 모양의 납작한 꼭지가 달려 있는데, 네 곳에 구멍이 나 있어 어깨에 있는 고리와 서로 연결하여 묶도록 되어 있다. 내항아리는 전체적으로 외항아리의 형태를 닮았으나, 크기는 그보다 작아서 외항아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유색은 회백색으로 가는 빙렬氷裂이 나 있으며, 항아리의 굽다리는 안 바닥을 깎아 세웠고, 굵은 모래받침을 받쳐 구웠다.

태지석은 방형의 오석烏石을 썼는데, 윗면에 '皇明萬曆三年四月二十六日卯時生 王子慶龍阿只氏胎 萬曆九年四月初一日癸時藏(황명만력삼년사월이십육일묘시생 왕자경룡아기씨태 만력구년사월초일일계시장)'이라는 해서체의 명문이 5줄로 음각되어 있다. 이 명문을 통하여 백자 태항아리 속 태胎의 주인은 1575년 4월 26일 태어난 왕자 경룡아기씨이며, 1581년(선조14) 4월경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학문화재단 소장 백자 태항아리는 엄정하고 단정한 격식을 갖춘 유물로 조선 중기 왕실에서 사용하던 태항아리와 태지석을 대표한다.



1
2

1. 태지석, 2016_ 우학문화재단
2. 백자 태항아리, 2016_ 우학문화재단





보물 제1095호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일괄

華城 鳳林寺 木造阿彌陀佛坐像腹藏典籍 一括

고려시대
일괄(8종 17점)
①수진본금강반야바라밀경제1장 - 세로 41.4㎝, 가로 7.5㎝
②백지묵서묘법연화경 - 세로 38.0㎝, 가로 12.5㎝
③백지묵서범망경 - 세로 55.6㎝, 가로 31.4㎝
④과주묘법연화경합부 - 세로 44.7㎝, 가로 25.4㎝
⑤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권48 - 세로 55.2㎝, 가로 28.5㎝
⑥소자금강반야바라밀경(4점) - 세로 27.9~30.5㎝, 가로 13.2~13.7㎝
⑦소자범총지집일부(5점) - 세로 29.2~30.0㎝, 가로 13.4~14.0㎝
⑧소자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3점) - 40.8~46.5㎝8.2~8.4㎝
종이(닥종이)
화성시 용주로 136

지정일 : 1991.09.30
소유자 : 봉림사(사유)
관리자 : 용주사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불좌상복장전적일괄>은 1978년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좌상의 개금불사 과정에서 나온 8종 17건의 전적이다. 전적들은 크게 사경과 목판본으로 나뉘는데 사경은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권48 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 券48 1건, 백지묵서묘법연화경 1건, 백지묵서범망경 1건 등 3종 3건이고, 목판본은 수진본袖珍本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1건, 과주묘법연화경합부科注妙法蓮華經合部 1건, 소자금강반야바라밀경小字金剛般若波羅蜜經 4건, 소자범총지집일부小字梵摠持集一部 5건, 소자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3건 등 5종 14건이다.

① 수진본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반야바라밀경』은 구도자求道者는 사물에 대한 집착을 뛰어 넘고 나와 너라는 대립 감정을 없애야 실체를 바로 깨달을 수 있음을 강조한 공사상空思想을 설說한 경전으로 『금강경』으로 약칭된다.
이 책은 후진後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한 『금강경』 수진본袖珍本이다. 권수卷首에는 신중상神衆像과 설법상說法像, 금강경계청金剛經啓請,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 팔금강상八金剛像과 사보살상四菩薩像, 발원문發願文, 운하범云何梵이 실려 있고, 권말에는 지기誌記와 범자梵字로 된 불정심다라니佛頂心陀羅尼 등 6개의 짤막한 다라니陀羅尼와 여의인如意印 등 10개의 부符가 있으며 마지막에 강금강姜金剛의 인출기印出記가 붙어있다.
권말의 기록에 의하면, 각원覺圓이 고연古燕에서 우연히 본국의 승려 홍준洪准이 쓴 소자본小字本 금강경을 구하여 비구 달현達玄·영흥永興·이기李琦·전대동田大同 등과 함께 발원하여 1311년(충선왕 3)에 판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붙어 있는 강금강의 인출기를 보면, 1339년(충숙왕 복위8) 원나라에서 활약하던 진성



수진본 금강반야바라밀경, 2004_ 문화재청

군晉城君 강금강姜金剛이 시주하여 인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강금강은 고려 출신 환관으로 원나라 기황후奇皇后의 심복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한동안 수지독송受持讀誦하다가 복장腹藏되었던듯 일부 해진 곳도 있다. 그렇지만 판각된 지 18년이 지난 후에 인출한 것임에도 글자에 마멸이 별로 없고 인쇄상태가 양호하다. 이 판본은 고려시대 금강경 독송을 위한 수진본으로 당시의 신앙 형태를 볼 수 있고 원나라에서 활약하던 강금강에 의해 인출한 책으로 동일본의 간행과 인출관계를 뚜렷하게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이 책이 나온 봉림사 목조여래좌상의 개금기改金記에 의하면 1362년(공민왕) 개금改金 때 복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② 백지묵서묘법연화경

백지묵서묘법연화경은 후진의 구마라집이 한역한 『묘법연화경』 7권 가운데 제2권으로 법화경 28품 가운데 제3 「비유품譬喩品」과 제4 「신해품信解品」이 수록되어 있다. 「비유품」은 불타는 집에 머물고 있는 중생에게 3가지 수레를 주어 구원한다는 내용이며, 「신해품」은 부자 아버지가 거지 아들을 믿고 이해하도록 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비유를 들어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지도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사경은 후반부가 탈락되어 있고 사성기가 없어 확실한 제작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감색의 종이에 금니로 묘사된 표지 장식과 본문 체제와 글씨로 보아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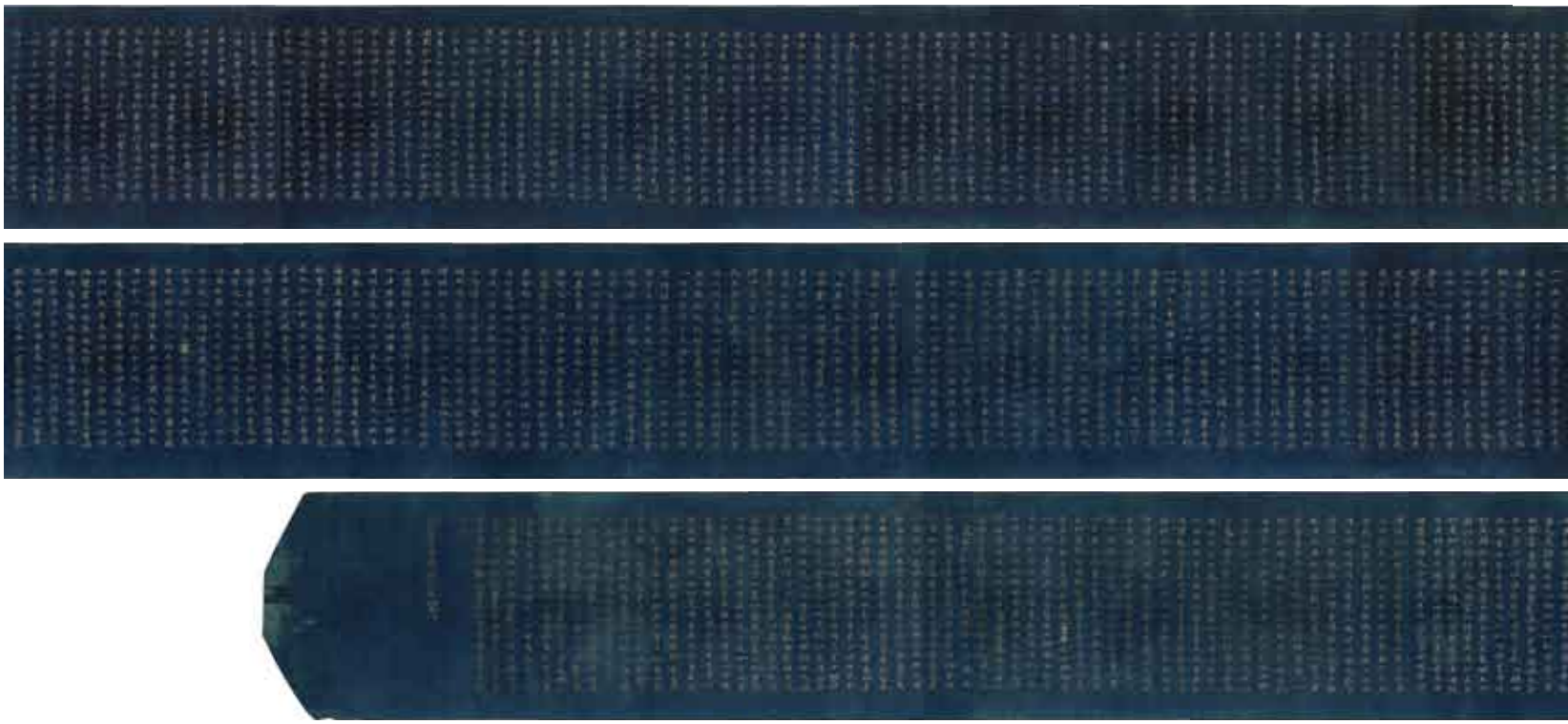
③ 백지묵서범망경

백지묵서범망경은 후진의 구라마집이 한역한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권10의 하下이다. 『범망경』은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하권만 따로 뽑아 보살계본으로 삼아 불교도의 신행 규범으로 삼고 있다. 내용은 보살이 지켜야 하는 10가지 무거운 계十重大戒와 십선계十善戒 등 보살이 지녀야 할 몸가짐, 말씨, 마음자세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실천덕목을 담고 있다.

이 사경의 권말에는 '화주혜상묘원최신성시주경화택주이씨化主惠尙妙圓崔信誠施主慶和宅主李氏' 등 사경에 참여한 화주와 시주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사성기가 없고 사경 제작에 참여한 화주와 시주자들의 생존시기가 현재로서는 미상이므로 확실한 연대를 알 수 없다. 다만, 남아 있는 뒤표지의 장식과 본문 글씨로 보아 조선 초기의 사경으로 추정된다.

④ 과주묘법연화경합부

과주묘법연화경합부는 후진의 구마라집이 한역한 『묘법연화경』 7권으로 명나라 초기에 간행된 과주科注가 붙어 있다. 본문 위에다 본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전체 내용을 과로 나누어 주를 단 과주를 붙이고, 양질의 중국 종이인 모변지毛邊紙의 앞뒤로 인쇄하여 간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간행한 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간행연대는 알 수 없으나 명나라 초기에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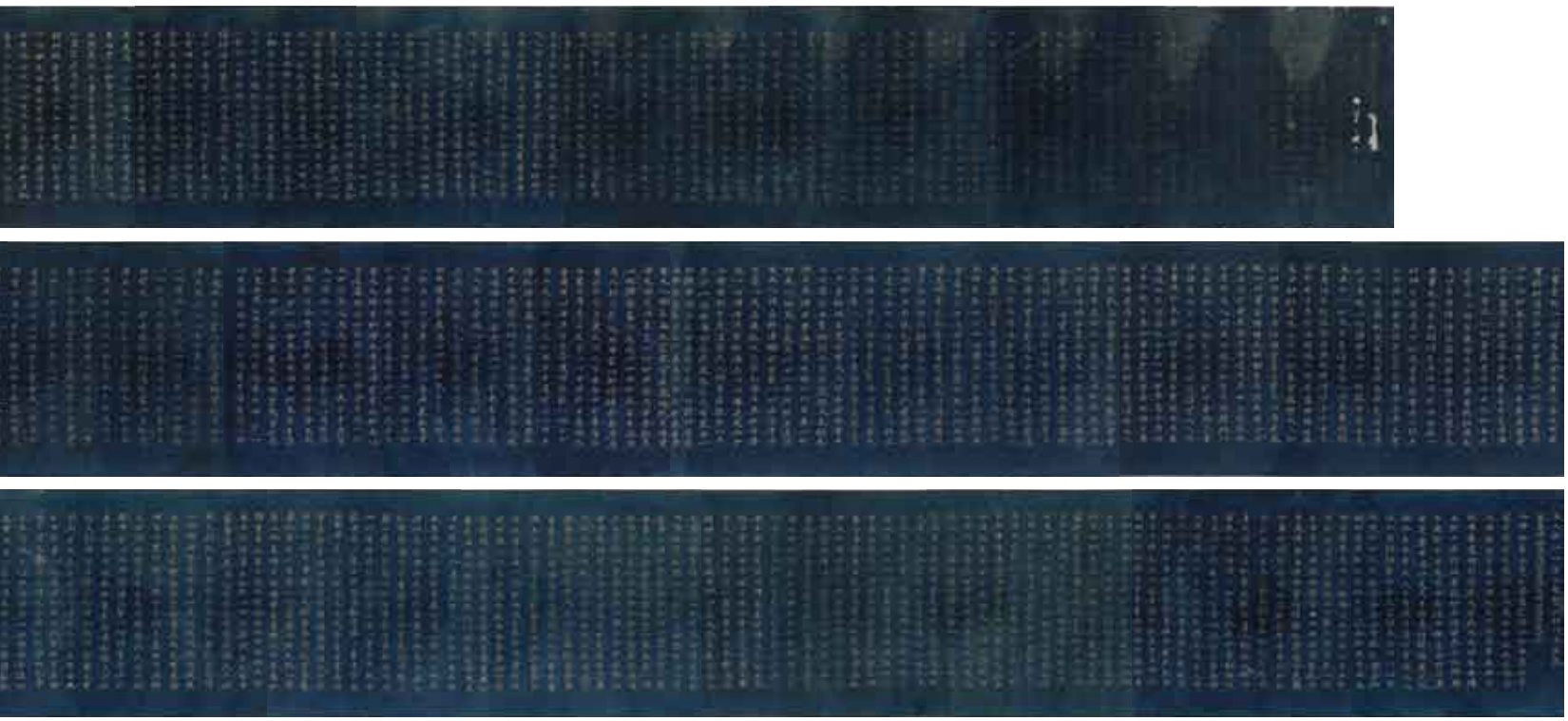
⑤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권48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은 감지에 은니로 쓴 주본周本『화엄경』80권 가운데 제48권이다. 이 책은 당나라 실차난타實叉難陀가 한역한『화엄경』으로 내용은 화엄경 전체 39품 중 제34품「여래십신상해품如來十身相海品」과 제35품「여래수호광명공덕품如來髓好光明功德品」이 수록되어 있다. 제34품 여래십신상해품은 부처님의 눈, 코, 입 등 10가지 신체는 거룩한 모습으로 일체 법계의 바다에 두루 비추며 신통변화를 나타내는 신비한 존재라는 것을 설하는 내용이고, 제36품 여래수호광명공덕품은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광명의 위력에 대한 내용인데 나쁜 업과 어리석음에 얽매여서 지옥과 몸이 생겼으므로 일체 탐욕을 버리고 성정을 얻어 여래의 지혜를 얻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비록 변상도와 사성기寫成記가 없고 표지 장식이나 본문 글씨가 뛰어나지는 않으나 전체 품격이 고려 사경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사경체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⑥ 소자금강반야바라밀경

소자 금강반야바라밀경은 후진의 구마라집이 한역한『금강경』으로 모두 5장의 낱장에 경문經文을 수록하였다. 마지막장(제5장) 말미에 조계산 수선사修禪社 제2세第2世 국사國師 무의자無衣子 혜심慧諶(1178~1234)의 발문이 실려 있다. 이 발문에 의하면 사문 보관普觀이 주선하여 일반인들이 본심을 바로 깨쳐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교敎를 통해 단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장 요긴한『금강경』·『법화경보문품』·『화엄행원품』 등을 도인道人 열가悅可에게 그리고 범자대장신주梵字大藏神呪는 혜귀惠歸에 부탁하여 쓴 것을 시랑侍郎 이굉李紘과 삼중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권48, 2004_ 문화재청

대사三重大師 문광文光의 시주로 간행한 것이다. 이때 석광釋光이 각수刻手로 참여했다. 이 판본은 가지고 다니면서 독송하기 위한 수진본이지만, 제책하지 않고 낱장으로 불복에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둘째 장이 결실되고 4장이 남아 있다.

⑦ 소자범총지집 일부

소자범총지집 일부는 범어로 된 다라니집의 목판본 낱장이다. 권말의 결신진언決身眞言부터 시작하여 회향법계주廻向法界呪로 마감되고 있다. 낱장 한 장에 내용은 두 장씩 찍어 내어 배열하였는데, 현재 제3장과 제4장이 결실되어 있고 낱장 5장(내용 10장)이 남아 있다. 간행기록은 없으나 전체 인쇄조건으로 보아 금강경 권말의 무의자 혜심의 발문에 보이는 범자대장신주 금강경과 함께 1228년(고종15)에 새기고, 고려 말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⑧ 소자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소자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은 고려 고종 연간(1213~1259) 사이 목판에 새기고 고려 말에 찍은 낱장 3장이다. 권말에 발문이 있는데 먹색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간행 연대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聖壽萬歲 淸河相國福壽無疆(성수만세 청하상국복수무강)'이라는 기록에 따르면, 청하상국은 고려 고종 때의 권신인 최우崔瑀의 관직이므로, 이 판본은 최우의 수복壽福을 빌기 위하여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소자 금강반야바라밀경이나 범총지집과 간행 조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고려 고종 때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물 제1110-2호

정몽주 초상

鄭夢周 肖像

조선시대(1555년경)
1폭
세로 172.7㎝, 가로 104.0㎝
비단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2011.12.23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1

2

1. 정몽주 초상, 2008_ 경기도박물관
2. 정몽주 초상 안면부, 2008_ 경기도박물관



<정몽주 초상>은 고려 말기문신이자 학자인 정몽주鄭夢周(1337~1392)를 그린 초상화이다. 정몽주의 본관은 영일迎日, 호는 포은圃隱이다. 1360년(공민왕9) 문과에서 장원급제한 뒤 예조정랑, 대사성, 대제학, 문하찬성사 등의 벼슬을 지냈다. 1389년에는 이성계와 함께 공양왕을 세웠으나, 조준·정도전 등에게 이성계를 추대하려는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이들을 제거하려다 이방원에 의해 선죽교에서 사망하였다.

정몽주 초상은 오사모에 단령을 입고 의자에 공수拱手자세로 앉아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검은색의 사모는 낮고 둥글며, 날개는 좁고 아래로 쳐져 있다. 단령은 원래 청포靑袍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퇴색이 심하여 거의 회색계열로 보인다. 관복의 목선과 소매통은 좁은데 이런 형태는 고려 말에서 조선초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이다. 흉배는 없으며 허리에는 삽금대鈒金帶를 두르고 있다. 얼굴은 옅은 살색을 주조로 하였으며, 갈색 필선으로 이목구비와 얼굴 주름만을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입은 어두운 적색으로 묘사하였는데, 윤곽선을 따라 담묵으로 덧그었으며, 입술색은 아주 흐리게 칠하였다. 단령의 윤곽선과 주름은 가늘고 예리한 묵선으로 묘사하였으며, 양 허벅지 사이로 흘러내리는 주름선은 세로선과 가로선을 교차시켜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의자에는 방석이 깔려있는데 고정할 수 있는 자색의 끈이 달려 있다. 족좌대 위에는 검은색 가죽신을 신은 발이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놓여 있으며, 족좌대 윗면과 바닥에는 아무 것도 깔려 있지 않다.

정몽주 초상의 화면 왼쪽에는 '가정嘉靖○○○고본皐本', 오른 쪽에는 '포은圃隱○○○상像' 이라고 쓰여 있다. 『포은집圃隱集』을 참조해 보면, 왼쪽 상단의 표제는 '가정을묘임고본嘉靖乙卯臨皐本'일 것으로 추측되므로 1555년(명종10) 이모본移模本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포은집』 권2, 엽8 화상 항목에 따르면 정몽주 초상화는 1390년(공양왕2)에 공양왕을 추대한 공으로 좌명공신佐命功臣에 책록되어 입각도형立閣圖形이 되었을 때의 본이 처음 제작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 이 원본은 전해오지 않는다. 이 원본으로부터 이모한 본들이 경북 영천의 임고서원과 경기도 용인의 포은선생 영당, 전남 장흥의 용강영당, 국립중앙박물관(이한철 중모본)과 서울대학교 박물관(초본) 등에 소장되어 있다. 정몽주의 초상화는 모두 이모본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본(좌명공신도상)으로부터 모사하여 동일한 양식이다.

경기도박물관 소장 정몽주 초상은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의 양식적 특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이모본이자 가장 오래된 정몽주 초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영일 정씨延日鄭氏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던 것을 경기도박물관에 기증하였다.









보물 제1128호

대방광불화엄경소 권21, 24

大方廣佛華嚴經疏 卷二十一, 二十四

고려시대
2권 2첩
세로 32.4㎝, 가로 10.6㎝
종이(닥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1992.04.20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대방광불화엄경소 권21, 24>는 『대방광불화엄경소』의 전체 목판 120권본에서 고려 후기에 인출印出된 책 중 잔존하는 2권 2첩의 절첩본折帖本이다. 『대방광불화엄경』은 줄여서 「화엄경華嚴經」이라고 약칭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不二)'라는 것을 중심 사상으로 하고 있다. 화엄종華嚴宗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의 불교사상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불교에서 부처의 가르침을 담은 경經(경전)이나 그 가르침을 연구한 논論(논문)에 단 주석을 '소疏'라고 한다. 『대방광불화엄경소』 120권은 서역 우전국于闐國 출신의 역경승譯經僧 실차난타實叉難陀(652~710)가 7세기말 8세기 초에 번역한 『화엄경』 80권본을 당나라의 승려 징관澄觀(738~839)이 소疏를 저술하고, 송나라의 승려 정원淨源(1011~1088)이 다시 이 소를 적절하게 편차하여 120권으로 엮은 것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 120권의 특징을 간파한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大覺國師義天(1055~1101)이 송나라에 가서 정원 법사를 만난 뒤 1086년(선종3) 귀국하기 전에 은3천 냥을 주고 그 전질의 판각을 항







1 2 3 4 5 6

1. 대방광불화엄경소 권21 권수,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2. 대방광불화엄경소 권21 권말,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3. 대방광불화엄경소 권21 표지,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4. 대방광불화엄경소 권24 권수,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5. 대방광불화엄경소 권24 권말,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6. 대방광불화엄경소 권24 표지,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의 각수 엄명嚴明 등에게 주문하였고, 정원 법사는 1087년 3월 송나라의 상인 서전徐戩 등을 통해 모두 2,900여 판에 이르는 목판을 의천에게 전달하였다. 전달된 목판은 「주화엄경판注華嚴經板」으로 지칭되었는데, 대방광불화엄경소 권21, 24는 바로 이 「주화엄경판」으로 인쇄된 것이다.

상즙橡汁(상수리나무 열매)으로 물들인 표지에는 금물로 그은 직사각형 안에 역시 금물로 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경전을 펼치는 진언이라는 뜻)의 부호를 표시하였다. 이어서 각각 '大方廣佛華嚴經疏卷第二十一', '大方廣佛華嚴經疏卷第二十四'라고 경의 명칭과 권차卷次를 써 놓았다. 내부는 큰 글자로 세로 각 행 15자씩 20행을 1장으로 하여 각 장을 이어 붙였고, 이를 다시 4행씩 1면이 되도록 접었다. 큰 글자들은 『대방광불화엄경』의 본문이고, 작은 글자로 된 것은 그것에 대한 징관의 소疏, 즉 주석인데 쌍행雙行으로 되어있다.

권21 말미에는 '丁巳七月日〇(정사년 7월 일)'라는 글과 수결手決이, 권24 말미에는 '丁巳七月日南白寺持任(정사년 7월 일 남백사 주지)'라는 글과 동일한 수결이 묵서되어 있어 남백사 주지의 보관 아래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1424년(세종6)에 일본이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재조대장경(팔만대장경) 목판을 달라고 조선 조정에 억지를 부리듯 요청할 때, 세종은 1424년에 팔만대장경판 대신 이 목판을 일본 사신에게 주어 돌려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의 불교문화의 교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으며, 의천이 완성하고자 한 제종교장諸宗敎藏의 완성과정과 경판의 후대 전래사실 및 실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방광불화엄경소 권21·권24를 비롯하여 권42(보물 제891호), 권28~30·권100~102(보물 제892호), 권41(보물 제964호), 권68(보물 제1013호), 권84·권100·권117(보물 제1106호), 권30(보물 제1124호), 권48·권64·권83(보물 제1409호) 등 동일한 판본 여러 점이 전래되고 있다.



보물 제1129호

대불정다라니

大佛頂陀羅尼

고려시대
1권 1첩
세로 25.6㎝, 가로 (접었을 때) 8.8㎝
종이(닥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1992.04.20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대불정다라니>는 『수능엄경首楞嚴經』 권7에 수록되어 전하는 다라니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유통된 다라니 중 하나로 대불정여래가 마음속에서 불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범문梵文으로 된 짧은 구절을 '진언眞言' 또는 '주呪'라 하고 긴 구절로 된 것을 '다라니陀羅尼'라 하는데, 구별없이 다라니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다라니를 모은 것을 진언집眞言集이라 하며 조선시대에는 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 등 5종의 다라니를 모아 편집한 『오대진언집五大眞言集』이 널리 유통되었다.

대불정다라니는 당나라 불공不空(705~774)이 범문梵文(산스크리트어)을 한문으로 번역해 놓은 것으로, 범어와 한문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병풍처럼 펼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며, 접었을 때의 크기는 세로 25.6㎝, 가로 8.8㎝이다. 상하단변上下單邊으로 1장張 42행行 13자字가량이 찍혀있다.





이 판본은 간행기록이 없어 정확한 간행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판각한 글자가 많이 닳아있고 인쇄가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고려말에 새기고 조선초에 찍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 대불정다라니의 판본은 본래 안춘근安春根 박사가 가지고 있던 책을 기증한 것으로 조선시대 『오대진언』 간행 배경의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고려 말, 조선 초의 밀교 신앙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1

2

1. 대불정다라니,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2. 대불정다라니 표지,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보물 제1130호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

고려시대
1권 1책
세로 30㎝, 가로 16㎝
종이(닥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1992.04.20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1

2

3

1.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2005_ 문화재청
2.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권수,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3.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권말 및 간행기록, 2014
_ 한국학중앙연구원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은 질병의 치유를 기원하기 위해 널리 염송되는 경전으로 『약사본원공덕경藥師本願功德經』, 『약사경藥師經』으로 약칭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약사경』은 당나라 삼장법사 현장三藏法師玄奘(602~664)이 650년 번역한 것으로 사주단변에 광고匡高는 22.3cm, 계선은 없고, 반엽半葉 6행 15자로 되어있다. 권수제 아래에 대장경의 천자함千字函(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책의 번호를 매기는 방법) 표시인 '鞠(국)'자가 적혀 있다. 일반적으로 천자함 표시는 대장경 간행 때만 한정되고 개별 경전 간행에는 사용하지 않는데, 이 경전은 일반 경전임에도 천자함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저본底本에 적혀있던 것을 그대로 새긴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장에는 건통乾統 2년 즉, 1102년(숙종7)에 흥왕사興王寺에서 간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흥왕사는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 속장續藏을 간행했던 곳이다. 대각국사 의천이 병에 걸리자 치유를 기원하며 1101년 대장경판에 근거하여 『약사경』의 간행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그해 10월 대각국사 의천이 입적하자 잠시 간행이 중지되었다가 다음해인 1102년에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이 책은 일본 도다이지도서관東大寺圓書館 소장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抄』 제1~20권 40축 초간본初刊本과 다이토큐기념문고大東急記念文庫 소장 『정원신역화엄경소貞元新譯華嚴經疏』 제10권 1축 초간본과 비교해보면 지질과 판식이 다르고 판각한 글자 획에 번각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 1102년 당시에 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고려시대의 목판을 보고 다시 새긴 것을 조선시대에 찍어낸 것으로 추정되는 『정명경집해관중소淨名經集解關中疏』 권3~4(보물 제736호), 송광사 소장 『금강반야경소개현초金剛般若經疏開玄抄』 권4~5(보물 제207호) 등과 새김의 솜씨, 글자획, 종이질이 비슷하여 1102년 흥왕사 판본을 저본底本으로 조선 초에 번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번각수법이 매우 정교한 편으로 종이질·표장법·새김의 솜씨 그리고 본래 무계본無界本임에도 권수제卷首題의 앞뒤에 계선界線을 추각追刻한 점, 권말경장卷末經張의 앞면 끝 1행과 뒷면 시작 2행에 계선을 추각한 점을 고려하면 조선초기 왕실이나 국가기관에서 간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판본의 번각飜刻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경전의 판본이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소장본은 성종의 계비인 자순대비慈順大妃의 발원에 의하여 1528년(중종23)에 봉은사에서 중간한 판본으로 1459년(세조5) 어제발御製跋(왕의 명령에 의해 조성했다는 발문)이 붙어 있어 1459년 간행하였던 판본을 저본으로 번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은 1102년 흥왕사본을 가지고 1459년 어제발을 붙여 번각했던 판본일 가능성이 높으나, 어제발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할 수는 없다.

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一卷

三藏法師玄奘奉　詔譯

如是我聞一時薄伽梵遊化諸國至廣嚴城住樂音樹下與大苾芻衆八千人俱菩薩摩訶薩三萬六千及國王大臣婆羅門居士天龍藥叉人非人等

大衆恭敬圍遶而為說法

尒時曼殊室利法王子承佛威神從座而起偏袒一肩右膝著地向薄伽梵曲躬合掌白言世尊唯願演說如是相類諸佛名号及本大願殊勝功德令諸聞者業障消除為欲利樂像法轉時諸有情故

尒時世尊讚曼殊室利童子言善哉善哉曼殊室利汝以大悲勸請我說諸佛名号本願功德為拔業障所纏有情利益安樂像法轉時諸有情故汝今諦聽極善思惟當為汝說曼殊室利言唯然

來恭德者常應如是利益安樂一切有情

尒時阿難白佛言世尊當何名此法門我等云何奉持佛告阿難此法門名說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亦名說十二神將饒益有情結願神呪亦名拔除

一切業障應如是持時薄伽梵說是語已諸菩薩摩訶薩及大聲聞國王大臣婆羅門居士天龍藥叉健達縛阿素洛揭路荼緊捺洛莫呼洛伽人非人等一切大衆聞佛所說皆大歡喜信受奉行

藥師如來本願功德經一卷

乾統二年壬午歲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

보물 제1131호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 심지계품 제10의하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第十之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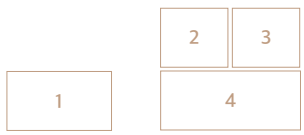
고려시대
1권 1책
세로 22.6㎝, 가로 14.9㎝
종이(닥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1992.04.20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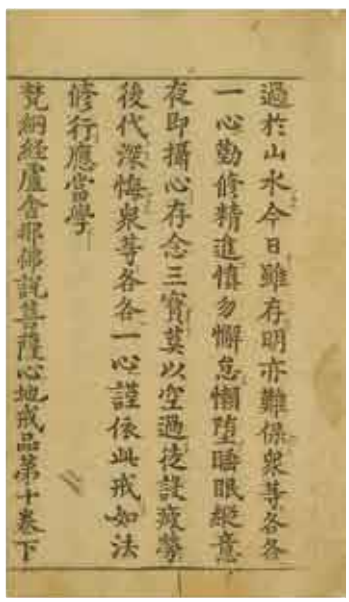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10의하>는 고려 말기에 간행된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권10의 상·하 가운데 하권에 해당하는 책이다.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은 줄여서 『범망경』으로도 부르며, 자기 안에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개발하는 것을 핵심주제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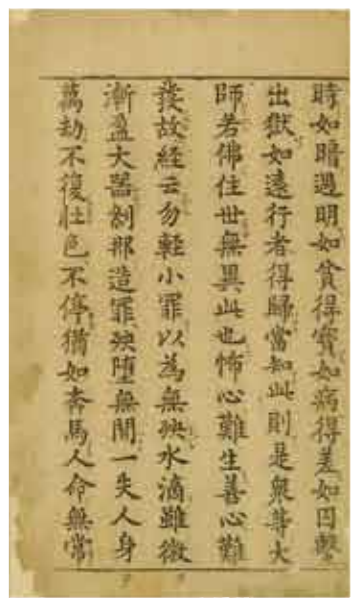
『범망경』에 수록되어 있는 동진의 승려 승조僧肇(384~414)의 후서後序에 따르면 『범망경』은 112권 61품으로 구성되었다고 전하는데, 전체는 한역漢譯되지 않았고, 후진後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범망경 중 보살이 지녀야 하는 10가지 무거운 계十重大戒와 48가지 경범죄에 해당하는 계四十八輕戒를 설한 부분인 하권이 대승불교의 기본 계율서로 널리 유통되었다.

이 책의 권말에 1306년(충렬왕30)에 원나라의 고승인 소경紹瓊이 쓴 글이 있다. 소경은 혜감국사 만항慧鑑國師萬恒·보감국사 혼구寶鑑國師混丘와 친밀하게 교유했던 몽산 덕이선사蒙山德異禪師의 제자로 『고려사』, 『고려사열전』등에 그에 대한 여러 기록이 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에 따르면 1304년 7월 소경이 고려를 방문하였고, 왕이 승지 안우기安于器를 교외에 보내어 영접하였으며, 친히 군신을 거느리고 예복을 갖추어 수령궁壽寧宮에 맞이하여 설선說禪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또한 궁중에서는 불화佛畵에 점안하고 『화엄경』을 전독轉讀(돌려가며 읽음)하였으며 왕과 왕비가 보살계를 받았다고 한다. 충렬왕 때 지첨의부사 권단權坦은 소경에게 머리를 깎고 출가하였다고도 한다.



1. 범망경 권수 서문, 2005_ 문화재청
2. 제2경계 술을 마시지말라(飮酒戒), 2005_ 문화재청
3. 제1중계 상생하지 말라(殺戒), 제2중계 훔치지 말라(盜戒), 2005_ 문화재청
4. 원나라 고승 소경의 후서, 2005_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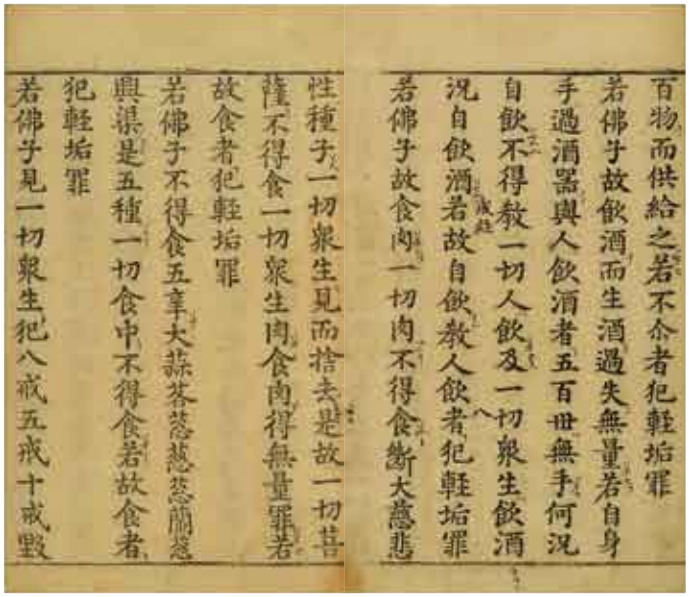

過於山水今日雖存明亦難保衆等各各
一心勤修精進慎勿懈怠懶墮睡眼縱意
夜即攝心存念三寶莫以空過後謀疲勞
後代深悔衆等各各一心謹依此戒如法
修行應當學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卷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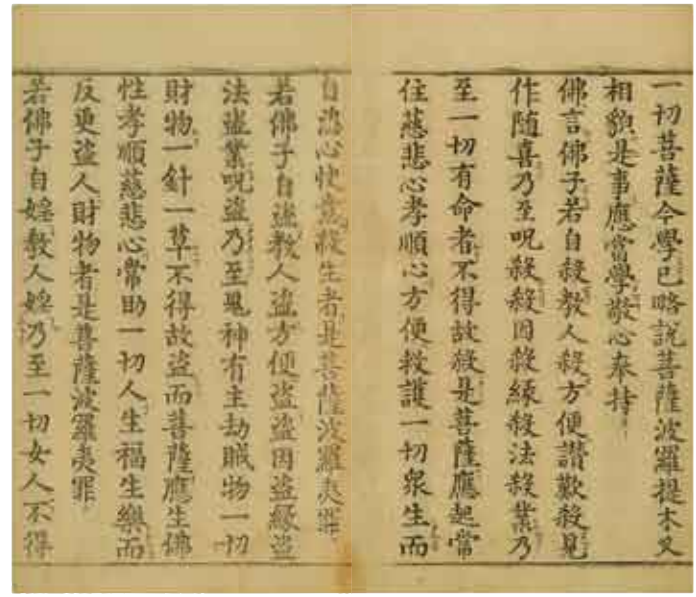

時如暗遇明如貧得寶如病得差如囚繫
出獄如遠行者得歸當知此則是衆等大
師若佛住世無異此也怖心難生善心難
發故經云勿輕小罪以為無殃水滴雖微
漸盈大器刹那造罪殃墮無間一失人身
萬劫不復壯色不停猶如奔馬人命無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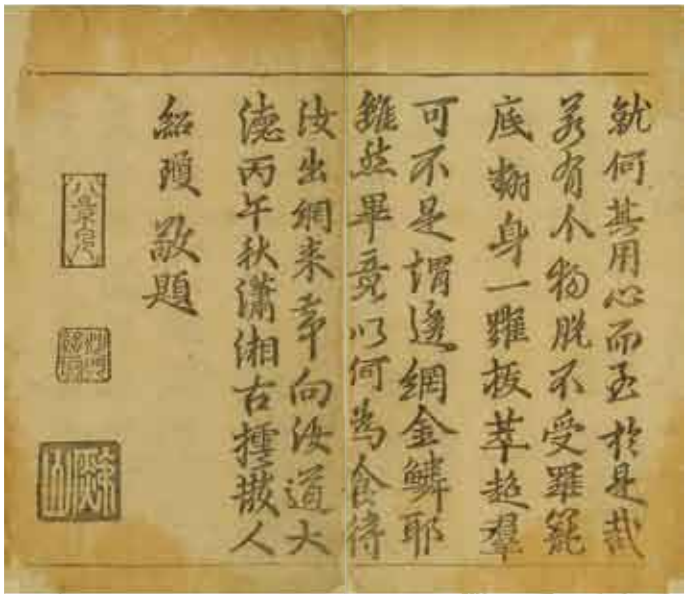

梵網經菩薩戒序
請佛子等合掌至心聽我今欲說諸佛大
戒序衆集默然聽自知有罪當懺悔懺悔
即安樂不懺悔罪益深無罪者默然默然
故當知衆清淨諸大德優婆塞優婆夷等
諦聽佛滅度後於像法中應當尊敬受當
提木叉者即是此戒持此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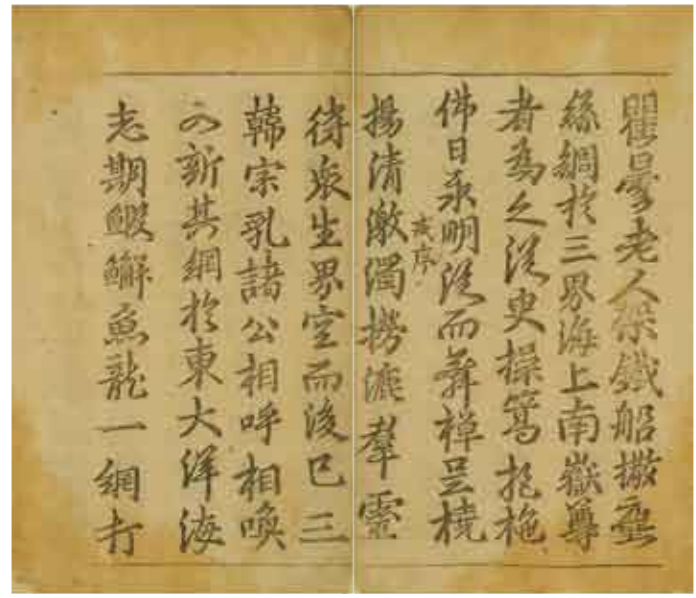
이 책은 소경의 후서가 붙어있어 원본 계열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간행할 당시 고려 승려와 친교를 맺고 있던 소경의 후서를 받아 고려에서 간행한 책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 판본의 본문은 송설체松雪體를 잘 새겼지만 뒤에 있는 소경의 후서는 번각의 흔적이 보이므로 원래의 판본을 보고 고려말기 다시 새겨 찍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서지사항으로는 상하단변上下單邊에 광고匡高는 18.6㎝이며, 전엽全葉 12행~13행 16자이다. 원래의 판본은 두루마리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 1판에 25행의 글씨를 새겼는데, 이것을 12행과 13행으로 나누어 찍어 책 형태로 만들었다. 이 책은 고려시대 불교가 원나라와 교류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보물로 지정되었다.









보물 제1132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고려시대(1378년)
2권 1책
세로 21.4㎝, 가로 15.8㎝
종이(닥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1992.04.20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은 1378년(우왕4) 여주 취암사鷲巖寺에서 간행한 『불조직지심체요절』 목판본 2권 1책이다. 과거칠불過去七佛부터 석옥청공石屋淸珙화상의 제자인 법안선사法眼禪師에 이르는 제불과 고승들의 법어·대화·편지 등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엮은 것으로 '사람이 마음을 바르게 가졌을 때 그 심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직지심체'를 핵심주제로 삼고 있다.

1372년(공민왕21) 백운화상 경한白雲和尙景閑(1299~1375)이 75세가 되던 해 제자인 법린法隣·정혜靜慧의 요청에 의하여 임제종臨濟宗의 18대손인 원나라 석옥청공石屋淸珙 화상으로부터 받은 『불조직지심체요절』 1권의 내용을 대폭 늘려 상·하 2권으로 엮었다. 백운화상이 입적한지 3년 후인 1377년 석찬釋璨의 주도로 성사달成士達의 서문을 받아 청주목 흥덕사興德寺에서 비구니 묘덕妙德의 시주에 의해서 주자鑄字로 인쇄하였다. 그러나 지방 사찰의 금속활자 인쇄술로는 인쇄부수뿐만 아니라 후쇄後刷할 수 없는 제약으로 많이 찍어 널리 퍼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금속활자본을 다시 목판으로 간행을 추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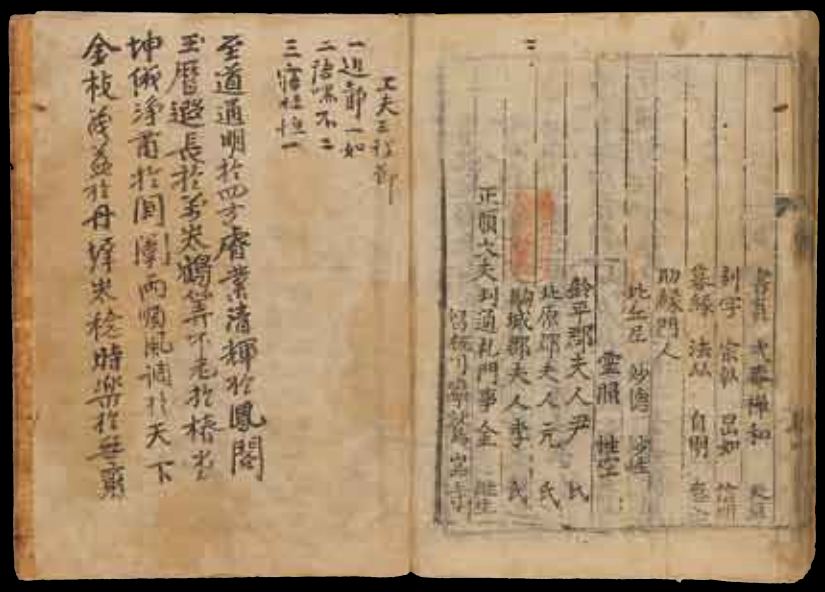
간행기록에 의하면 이 책은 1378년 6월 백운화상이 입적한 취암사에서 1377년에 흥덕사에서 간행한 금속활자본을 바탕으로 간행한 목판본이다. 제자인 법린, 자명自明 등이 모연募緣하고 흥덕사의 주자본鑄字本 인출 때 시주자였던 묘덕 등이 조연助緣하여 판통예문사判通礼門事 김계생金繼生 등의 시주를 받아 판각板刻하고, 1377년에 쓴 성사달의 서문에 1378년 이색李穡이 쓴 서문을 새로 덧붙여 펴냈다. 이때 판서본板書本은 과암戈菴, 선화禪和, 천선天亘 등이 썼고 각수刻手로는 종간宗軋, 참여昆如, 신명信明등이 참여하였다. 이와 동일한 판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있으나, 이 판본이 인쇄상태가 좋은 편이고 두 개의 서문이 붙어있는 완전한 형태이다.











1.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표지, 2014 _ 한국학중앙연구원
2. 1378년 이색이 쓴 서문,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3. 성사달의 서문,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4. 권말의 간행기록,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보물 제1133호

원균 선무공신교서

元均 宣武功臣敎書

조선시대(1603년)
일괄(1축, 1건)
세로 37.9㎝, 가로 272㎝
비단(황색 명주)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1992.04.20
소유자 : 원제대(사유)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원균 선무공신교서>는 1604년(선조37) 10월 선조가 원균元均(1540~1597)에게 상장과 훈장을 내린 교서이다.

원균의 본관은 원주原州, 자는 평중平仲이다. 무과에 급제하고, 선전관을 거쳐 조산만호造山萬戶로 있을 때 변방의 오랑캐를 무찌른 공으로 부령부사로 특진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종성으로 옮겨 병사 이일李鎰을 따라 시전부락時錢部落을 격파하는 데도 공을 세웠으며, 1592년(선조25) 경상우수사가 되었다. 그 해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이순신의 원병과 합세해 옥포玉浦·당포唐浦 등지에서 연전연승하였다. 그러나 포상 과정에서 이순신과 공로 다툼이 심해 불화가 발생하면서 급기야 1593년 8월 이순신이 신설된 삼도수군통제사직에 임명되어 지휘권을 장악하자 크게 반발해, 이듬해 12월 충청병사로 전출되었으며, 얼마 뒤에는 전라좌병사로 전속되었다. 조정에서 여러 번 수사로 재기용할 것을 검토하던 중, 이순신이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서울로 잡혀가 국문을 받게 되자, 1597년 2월에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되어 이순신을 대신해 삼도 수군을 통제하게 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왜적이 조선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군을 이겨야 한다는 각오 아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기 중인 것도 모르고, 조정의 무리한 명령에 따라 삼도 수군을 이끌고 부산의 적을 공격하던 중 칠천량해전漆川梁海戰에서 행방불명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왜병을 정벌한 공으로 선무공신에 책록되었으며 원릉군靑原君에 봉해졌다.



원균 선무공신교서, 2011_ 경기도박물관

원균 선무공신교서의 내용을 적은 바탕은 두꺼운 선지宣紙에 명주를 접착한 것이 사용되었다. 글이 쓰여 있는 부분의 위·아래로 굵은 주사선朱砂線이 각각 한 줄씩 그어져 있고, 본문 행간 사이에도 3.3㎝ 간격으로 주사선이 가늘게 그어져 있다. 내용은 총 69행에 걸쳐 해서楷書로 묵서墨書되어 있다. 교서의 첫머리에는 '교敎 자헌대부資憲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증贈 효충장의적순협력効忠仗義迪毅協力 선무공신宣武功臣 원릉군原陵君 원균元均 서書'라는 문서의 제목이 적혀있으며, 제목의 좌측 '왕약왈王若曰' 이하는 전형적인 공신교서의 양식에 따라 공을 치하하고 공신으로서 받게 될 상전과 특권을 적었다.

교서의 맨 좌측에는 총 18명의 공신명단功臣名單을 1단으로 적었다. 선무공신 1등에는 이순신李舜臣·권율權慄·원균元均, 2등에는 신점申點·권응수權應銖·김시민金時敏·이정암李廷馣·이억기李億祺 등 5명, 3등에는 권준權俊·권협權鋏·이광악李光岳·이운룡李雲龍 등 10명의 이름이 적혀있다. 원균은 1등 공신명단의 3번째에 기록되어 있는데, 1등 공신에게는 본인과 부모·처자에게 각기 3품계가 더해지고, 반당 6인, 노비 9구, 구사 4인, 전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이 하사되었다. 교서의 마지막에는 교서를 내린 날짜인 '만력萬曆 32년 10월 일'이 적혀 있고, 바로 아래에 정방형의 「시명지보施命之寶」란 어보御寶가 찍혀 있다.

원균 선무공신교서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권응수 선무공신교서(보물 제668호), 이광악 선무공신교서(보물 제952호), 김시민 선무공신교서(보물 제1476호), 이순신 선무공신교서(보물 제1564호), 이운룡 선무공신교서(보물 제1212호) 등과 함께 선무공신 연구 및 임진왜란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보물 제1135호

조온 사패왕지

趙溫 賜與王旨

조선시대(1399년)
1폭
세로 82.4㎝, 가로 80.7㎝
종이(닥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1992.07.28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온 사패왕지>는 1399년(정종1) 2월 8일, 왕이 제1차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운 정사공신定社功臣 조온趙溫(1347~1417)에게 공전功田을 내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문서이다.

조온은 용원부원군龍原府院君 조인벽趙仁璧의 아들로, 1392년(태조1) 조선 개국에 공을 세워 개국공신開國功臣 2등이 되고 한천군漢川君에 봉해졌다. 1398년(태조7) 왕위계승권을 둘러싸고 제1차 왕자의 난이 벌어지자 이방원을 도와 세자인 의안대군宜安大君 이방석李芳碩을 옹호하는 정도전鄭道傳과 남은南誾 등을 몰아내는 데에 공을 세워 정사공신 2등이 되었다. 1400년(정종2) 제2차 왕자의 난 때에도 회안대군懷安大君 이방간李芳幹의 군사를 평정하여 이듬해 좌명공신佐命功臣 4등에 부원군으로 진봉進封되었다.

「사패왕지」는 1398년(태조7) 제1차 왕자의 난에 공을 세운 정사공신에 대한 포상으로 전지를 내린 문서로, 이 때 공을 세운 공신은 모두 29명이었다. 이들은 두 등급으로 나누어 포상되었는데 1등 공신 12명, 2등 공신 17명을 선정하여 포상이 이루어졌다. 조온에게는 이중 이등공신의 특전이 베풀어졌다. 공신녹권功臣錄券에는 그 특전과 포상의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이 왕지王旨에는 녹권에 기재된 150결結 공전의 위치와 결結·부負·속束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사패왕지」의 정식명칭은 '정사공신 조온 사패왕지'로 양질의 저지楮紙에 총 11줄에 걸쳐 행서체行書體로 작성되었다. 문서에는 당해 지번이 적혀있는데, 예컨대 '업자業字, 월자月字' 등의 우측에 바뀐 지번 '금채今彩, 금영今盈' 등을 적고 있다. 그 공전은 양주楊州·견주見州·교하交河·개성開城·광주廣州·연안延安·이천利川·강화江華·서원瑞原·마전麻田·수원水原 등에 위치한 전답 150결 38부이며, 이를 자손들이 영구히 소유한다는 왕지를 적었고, 문서의 말미에 왕지를 받은 연월일을 적었다. 또한 이를 확증하는 3개의 '조선왕보朝鮮王寶'라는 새보璽寶를 '왕지', '한천군 조온', '연월일'의 위치에 각각 주인朱印으로 찍었다. 그리고 끝에 왕지를 받들어 사급賜給하는 '도승지都承旨…지이조사知吏曹事…이[이문화李文和]李'가 서명, 수결手決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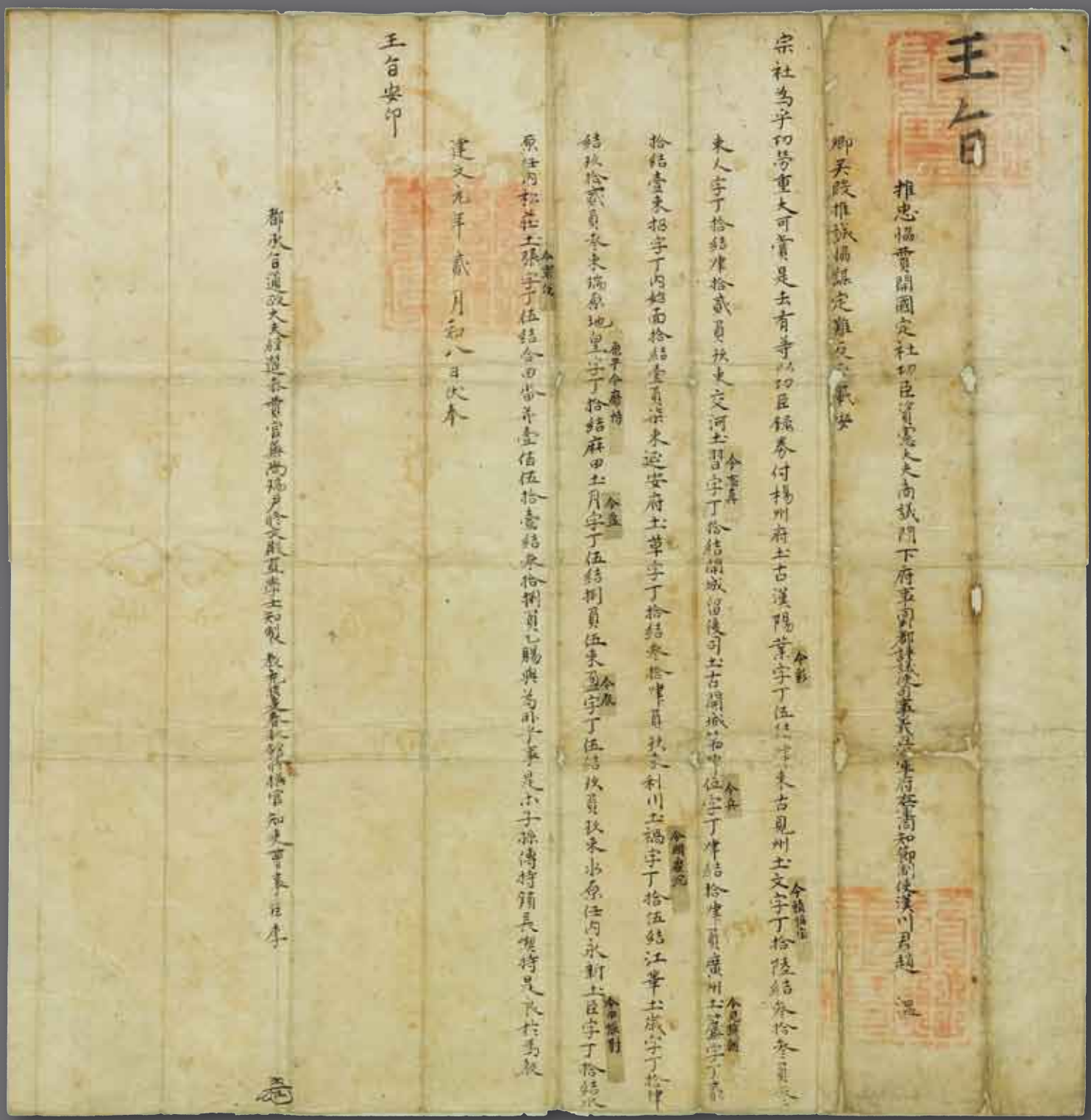
이 왕지는 정사공신에게 사여한 공전문권功田文券 가운데 처음 발견된 것으로, 조선 초기 공신 연구는 물론, 고문서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조선 초기의 사령홍패 등의 왕지는 현재 10여 건이 발견되어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사패왕지는 처음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1

2

1. 조온 사패왕지 표지,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2. 조온 사패왕지,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王旨

推忠協贊開國定社功臣資憲大夫商議門下府事領都評議使事兼判書筵事知經筵春秋館事漢川君趙 溫

卿矣陵推誠協謀定難安社稷

宗社為乎功勞重大可賞是去有等以功臣錄券付揚州府土古漢陽業字丁伍結半米古見州土文字丁拾陸結參拾參負

來人字丁拾結半拾貳負扶東文河土習字丁拾結開城留後司土古開城府中位字丁半結拾壹負廣州土慕字丁

拾結壹束招字丁內地面拾結壹負梁來迎安府土草字丁拾結參拾半負扶余利川土福字丁拾伍結江華土歲字丁拾半

結扶拾貳負參束瑞興地皇字丁拾結麻田土月字丁伍結捌負伍束豆字丁伍結扶負扶束水原府內永新土臣字丁拾結伍

原任內部社土張字丁伍結合田拾壹負壹束伍拾捌負七賜與為昨乙事是尒子孫傳持領長懷持是旀於馬旀

建文元年 歲 月 初八日 次奉

王旨安印

都僉白通政大夫經筵參贊官兼尚瑞尹修文殿直提學知製教兼春秋館編修官知史事臣李 詹

보물 제1136-1호

입학도설
入學圖說

조선시대(1425년)
1책
세로 33.3㎝, 가로 19.2㎝
종이(닥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1992.07.28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입학도설>은 1390년(공양왕2) 권근權近(1352~1409)이 처음 학문을 시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저술한 성리학 입문서이다.

권근은 1370년(공민왕19) 과거에 급제하여 춘추검열春秋檢閱에 임명되면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고, 이후 1389년 이숭인李崇仁(1349~1392)을 옹호한 언사로 탄핵을 받아 유배될 때까지 19년간 관료로 활동하였다. 『입학도설』은 권근이 1390년 금마군金馬郡(오늘날의 익산)에 유배되어 있을 때 저술하였다.

『입학도설』은 주돈周敦의 『태극도설』을 모방하고 주자의 『중용장구中庸章句』를 참고하여 만든 것으로, 천인 심성天人心性의 합일을 다루고 있으며, '도설圖說'이라는 용어처럼 그림과 도표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입학도설』은 전집 단간본과 전·후집 합간본 두 가지가 있다. 전집 단간본은 1397년(태조6) 경상도 진양晉陽(오늘날의 진주)에서 도호부사 김이음金爾音이 간행한 초간본으로, 도합 26종의 도설이 실려 있다. 전·후집 합간본은 1425년(세종7) 경상도 진양에서 전집의 26종에 14종의 도설을 첨가하여 출간되었으며, 변계량卞季良의 발문이 실려 있다.

『입학도설』의 체제는 크게 서문序文, 도해圖解, 발문跋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은 저자 권근이 직접 지은 것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초학자들에게 『대학大學』과 『중용中庸』을 가르치기 위해 이 책을 지었다고 기록하면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도해圖解의 방식을 이용하였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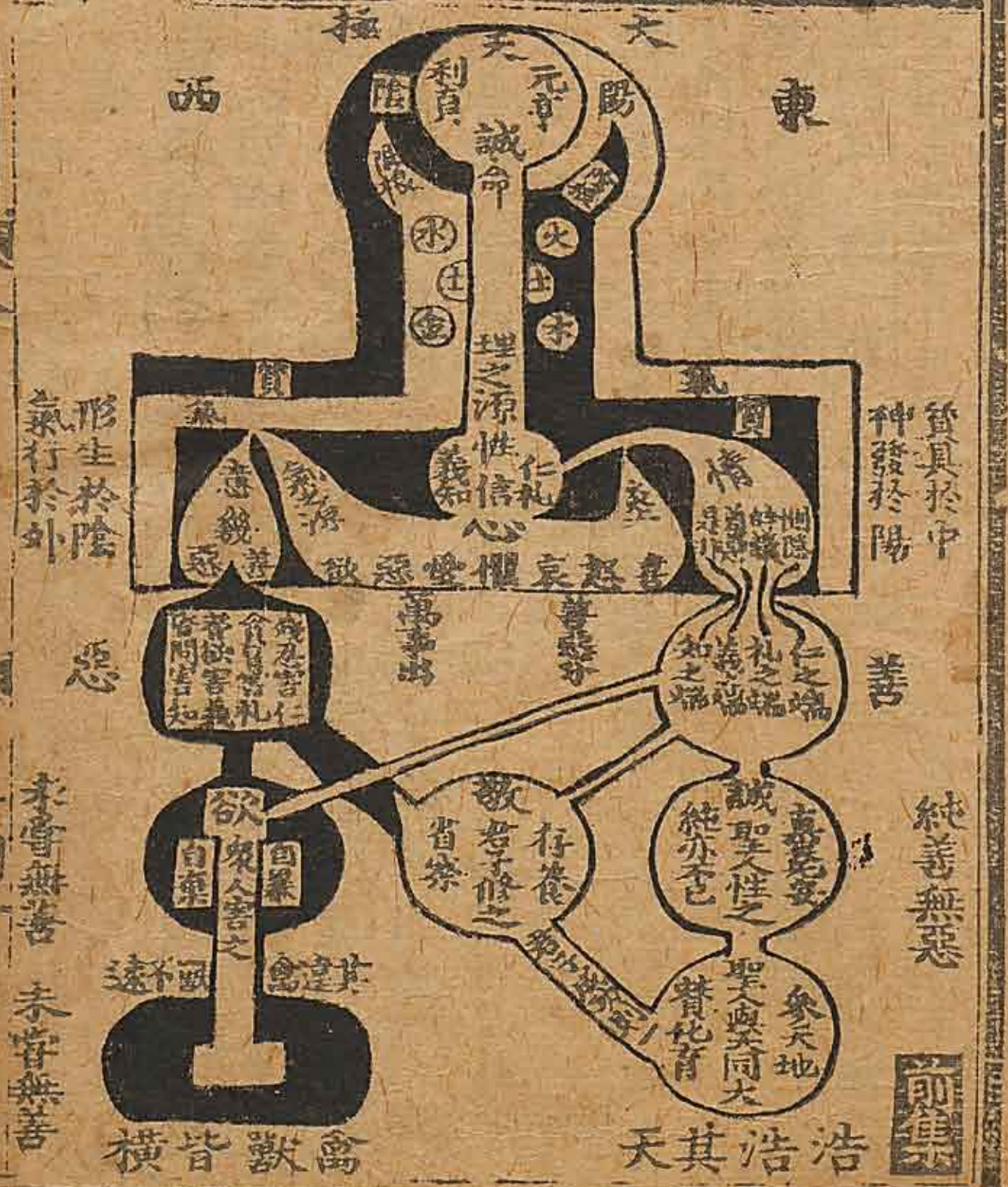






1. 입학도설 표지,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2. 입학도설 첫장 '陽村先生入學圖說', 2014 _ 한국학중앙연구원
3. 입학도설 서문,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4. 변계량의 발문,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天人心性合一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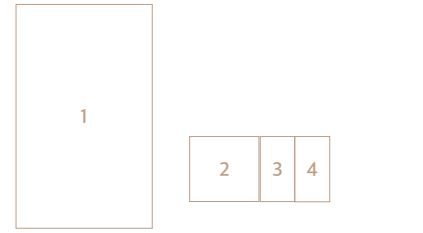

太極
東
西
陽
陰
元亨利貞
誠命
理之源性
仁禮義知
信心
木
火
土
金
水
貞
氣
質具於中
神發於陽
形生於陰
氣行於外
惻隱辭讓羞惡是非
喜怒哀懼愛惡欲
情
意念善惡
萬事出
善
惡
仁之端
禮之端
義之端
知之端
純善無惡
誠聖人性之
純亦不已
喜怒哀
樂未發
行養
教者修之
省察
參天地
贊化育
聖人與天同大
欲衆人害之
自棄
自暴
其違禽
獸不遠
浩浩其天
禽獸皆橫
未嘗無善
未嘗無善

발문은 1425에 변계량卞季良이 지은 것이다. 간행자들의 역할과 명단을 기록한 간기刊記가 탈락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동일한 판본인 대성암 소장본 『입학도설』(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94호)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내용에 따르면 권근의 아들 권도權蹈(1387~1445)가 경상도감영에 있던 박융朴融에게 간행을 위촉한 것인데, 당시의 전후감사前後監司 이숙무李叔畝와 하연河演의 협조를 받아 봉상시奉常寺의 주부注簿 정척鄭陟(1390~1475)에게 판서본版書本을 쓰게 하여 진양晋陽 목사 이수李穗와 판관 반무량潘茂良의 감독아래 간역을 마치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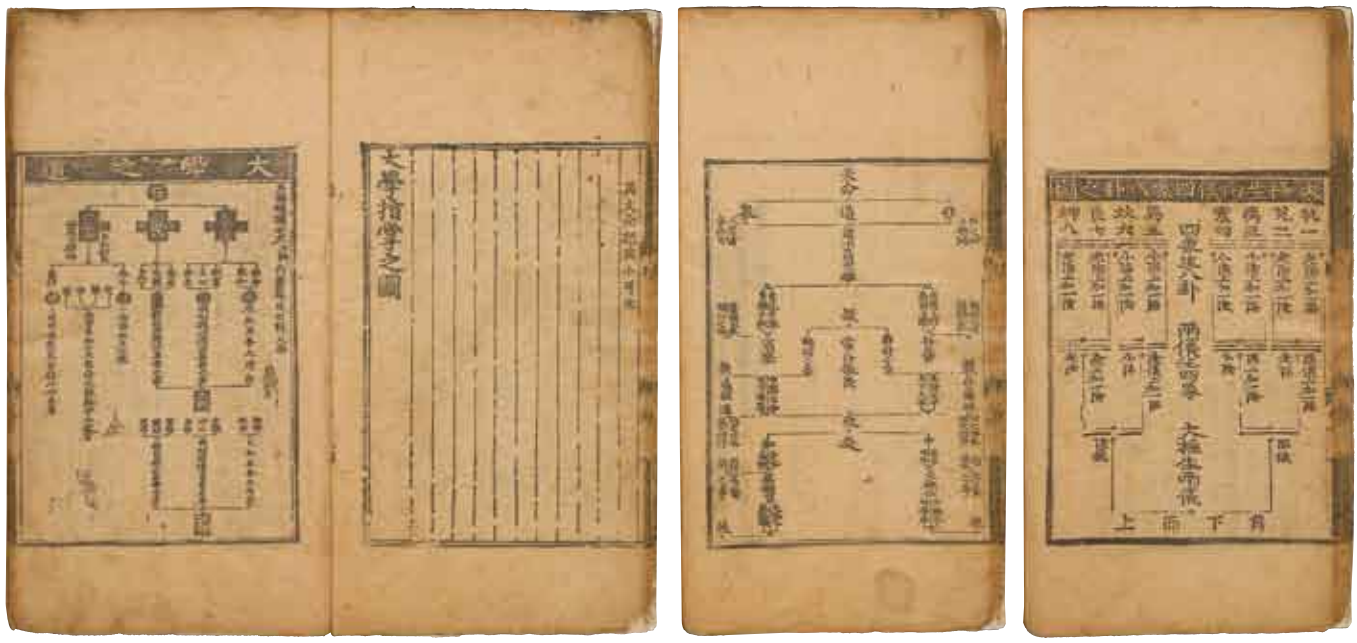
저자가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이 책은 초학자들에게 성리학의 기초 지식을 쉽게 이해시키는 데 저술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문자의 설명 속에 그림을 끼워 그 부족한 것을 보조한 풀이 방식, 즉 도설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내용은 전집 수록분인 「천인심성합일지도天人心性合一之圖」, 「천인심성분석도天人心性分釋圖」, 「대학지장지도大學指掌之圖」, 「중용수장분석도中庸首章分釋圖」, 「제후소목오묘도궁지도諸侯昭穆五廟都宮之圖」 등 26종과 후집에서 추가된 「십이월괘지도十二月卦之圖」, 「주천삼신지도설周天三辰之圖說」, 「일기생윤지도설日期生閏之圖說」 등 14종을 합해 총 40종의 도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첫머리에 나오는 「천인심성합일지도」는 가장 중요한 도설로 성리학의 중심개념인 태극·천명·이기·음양·오행·사단·칠정 등의 문제를 하나의 도표 속에 요약하고 이들의 상호관계와 각각의 특성들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도설은 후대에 이황李滉과 정지운鄭之雲의 『천명도설 天命圖說』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후대 성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대학지장지도」, 「중용수장분석도」, 「논맹대지 論孟大旨」, 「오경체용합일지도五經體用合一之圖」 등은 사서와 오경의 세계를 일목요연하게 해설하고 체계화하였다. 「대학지장지도」는 이황의 『성학십도聖學十圖』 중 제4도인 「대학도大學圖」에 거의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그 밖에 「하도河圖」, 「낙서洛書」, 「태극」, 「선천先天」, 「후천後天」, 「율려律呂」, 「오성五聲」 등의 도설로 성리철학의 우주론 및 형이상학적 주제들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입학도설』은 제자 김반金泮에 의하여 계승되어 『속입학도설續入學圖說』을 저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카 권채權採의 『작성도作聖圖』, 『작성도론 作聖圖論』의 저술로 이어졌다. 또한, 이황과 정지운으로 연결되어 조선시대 성리학을 심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 제1도 천인심성합일지도,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2. 제6도 대학지도,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3. 제7도 중용수장분석지도,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4. 제16도 태극양의사상팔괘지도,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보물 제1144호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禮念彌陀道場懺法 卷六~十

조선시대(1474년)
5권 1책
세로 33.4㎝, 가로 22.0㎝
종이(닥종이)
여주시 강천면 이문안길 21

지정일 : 1992.12.11
소유자 : 박찬수(사유)
관리자 : 목아불교박물관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은 원나라 왕자성王子成이 집록集錄한 것을 고려의 승려 혜랑慧朗 등이 1376년(우왕2)에 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초기 1474년(성종5) 왕실에서 새로운 체제로 편집하여 목판으로 간행한 불교의식집이다. 참법懺法이란 경전을 읽으면서 죄를 참회하는 불교의식을 말하며, 서방극락정토의 아미타불阿彌陀佛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禮拜하고 여러 가지 지은 죄업惡業을 참회하는 법회의 내용 및 의례절차를 담은 것을 미타참법彌陀懺法이라고 한다.

이 책은 나무판에 새긴 다음 닥종이에 찍은 것으로 권1에서 권5까지를 1책으로, 권6에서 권10까지를 1책으로 묶었다.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판식版式은 사주쌍변四周雙邊에 계선界線이 있고, 반엽 9행에 한 행의 글자 수는 15자이다. 판심版心은 상하 대흑구大黑口에 상하내향흑어미上下下向黑魚尾이며, 판심제版心題는 '미타참彌陀懺'이다. 표지에는 제목을 '미타참문彌陀懺文 곤坤'으로 하고 있고, 완질이 2책임을 나타내는 '공이共二'가 묵서되어 있다.

발문에 이어 시주자 및 간행에 관여한 인물의 명단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이 판본은 왕실에서 인수대비仁粹大妃, 인혜대비仁惠大妃를 비롯하여 공주公主, 숙의淑儀, 상궁尙宮 등과 월산대군月山大君, 재안대군齊安大君 등의 종친宗親 그리고 신미信眉, 학열學悅, 학조學祖 등의 고승高僧들이 대거 참여하여 조판彫板하였고, 그 판각에 있어서는 백종린白終麟, 이장손李長孫, 장막동張莫同, 이영산李永山 등 당대 최고의 화원畵員과 각수刻手들이 총동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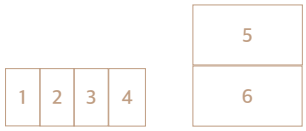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0 말에는 1474년 책을 간행하면서 경위와 의의 등을 적은 김수온金守溫의 발문跋文이 수록되어 있다. 발문에 따르면 1474년(성종5)에 세조의 비妃 정희왕후가 공혜왕후恭惠王后(1456~1474) 한씨韓氏를 비롯하여 세종·소헌왕후昭憲王后·세조·의경세자懿敬世子·예종睿宗 등 선대왕과 왕비의 명복을 빌기 위해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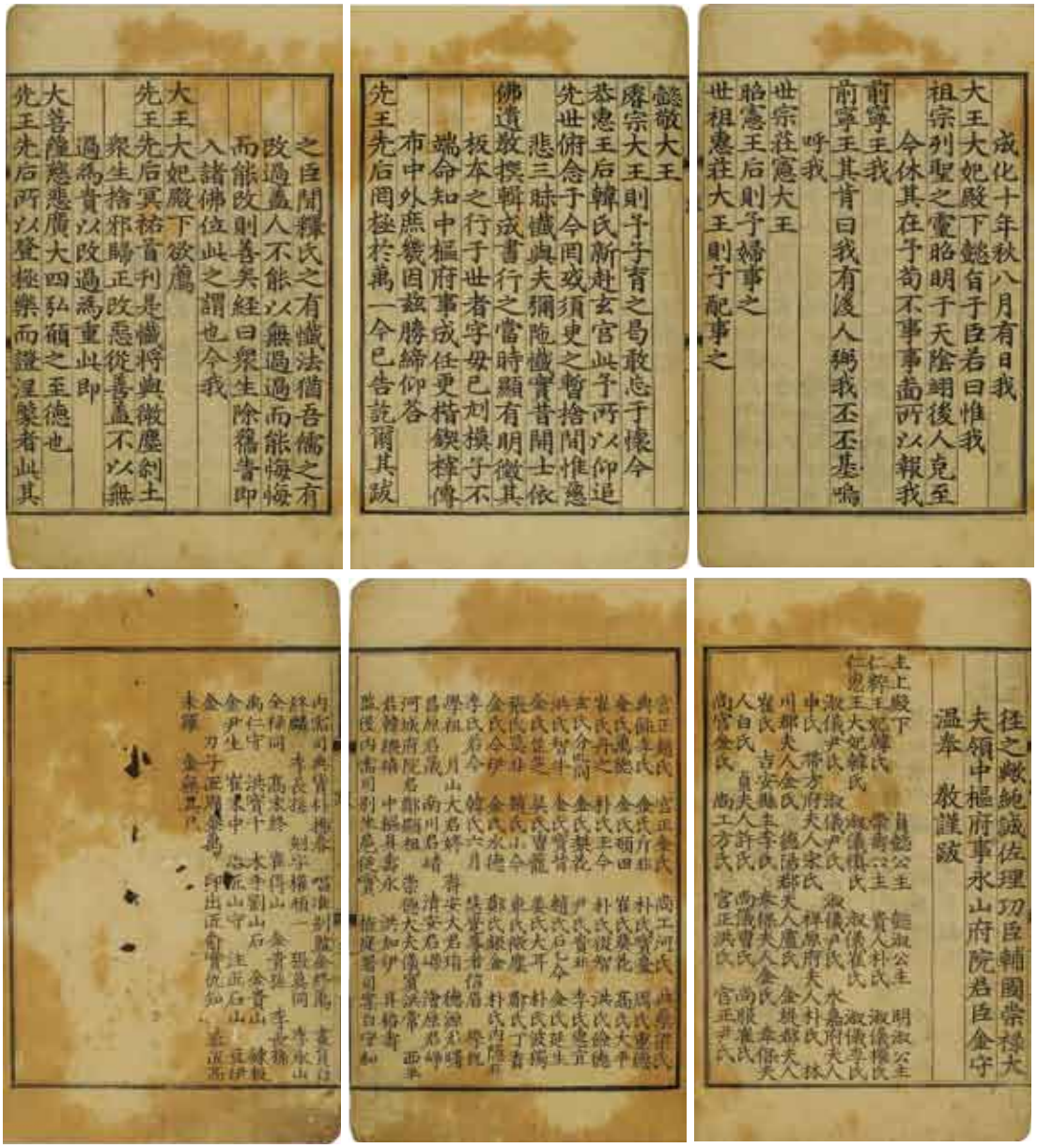
각한 것으로, 이 때 참법서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도 함께 간행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동일판본으로는 이 책을 포함하여 예념미타도량참법 10권 2책(보물 949호), 예념미타도량참법 권3~4, 7~8(보물 제1165호), 영광 불갑사 소장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보물 1470-1호), 원주고판화박물관소장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권5(강원도문화재자료 제148호) 등 5종이 전하고 있다.

이 책은 조선 초기 왕실 발원으로 간행된 불경으로 이후 전국 각처에서 간행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모본으로 활용된 자료로 간행의 과정을 적은 김수온의 발문과 서적의 간행에 후원하거나 판각에 참여한 인물들의 명단이 남아있어 조선 전기 고인쇄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1. 예념미타도량참법 표지, 2005_ 문화재청
2~4. 권6, 권8, 권10의 권수, 2005_ 문화재청
5. 김수온의 발문, 2005_ 문화재청
6. 시주자 및 간역자 명단, 2005_ 문화재청



보물 제1145호

묘법연화경 권1

妙法蓮華經 卷一

조선시대
1권 1첩
세로 26㎝, 가로 10.6㎝
종이(닥종이)
여주시 강천면 이문안길 21

지정일 : 1992.12.11
소유자 : 박찬수(사유)
관리자 : 목아불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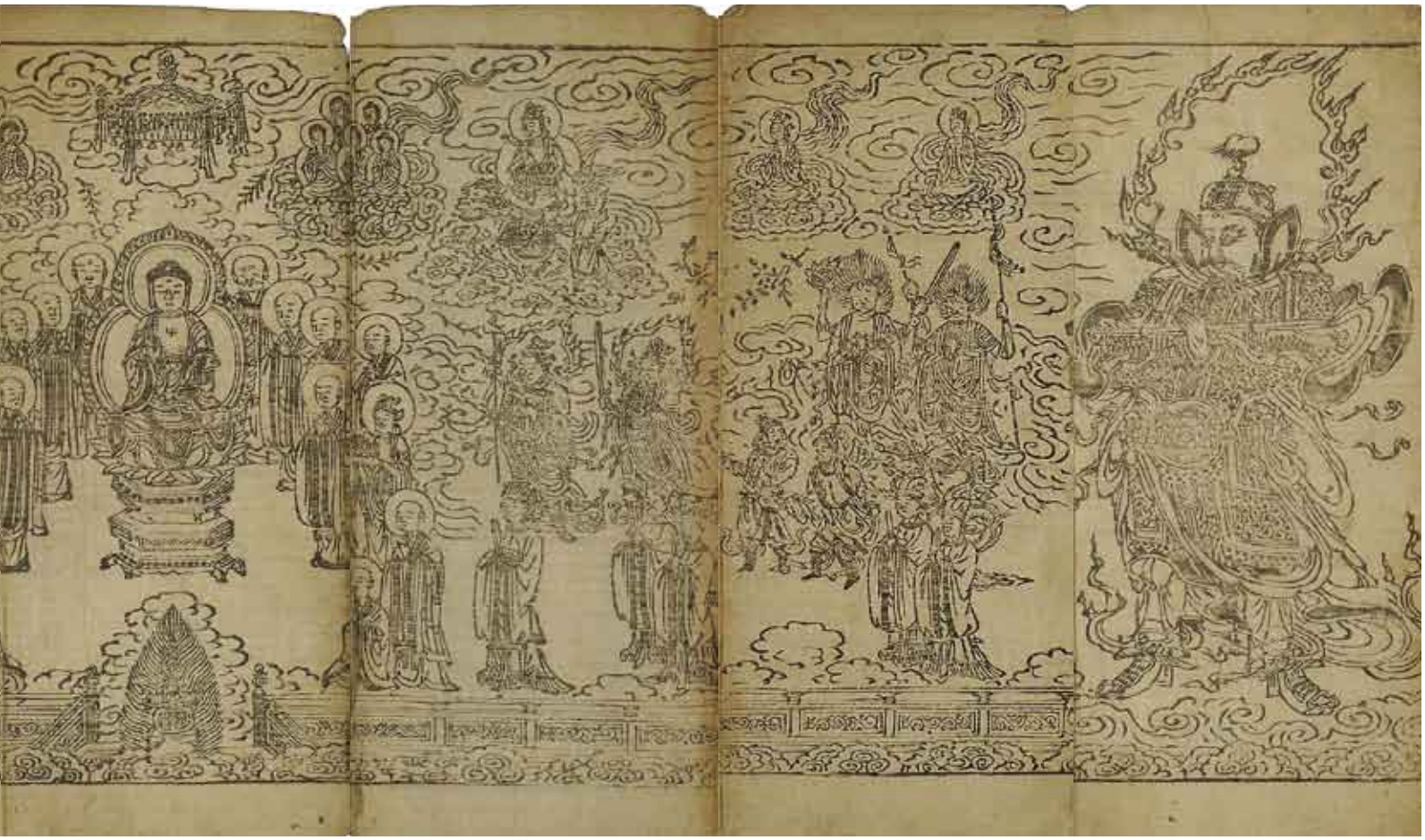


1·2. 묘법연화경 권1, 2005_ 문화재청
3. 묘법연화경 권1 표지, 2005_ 문화재청

<묘법연화경 권1>은 406년 후진後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344~413)이 한역漢譯한 법화경을 조선 초기 양정사楊井寺 주지를 지낸 명필가 신총信聰의 정서본淨書本을 조선 초기에 목판으로 간행한 불경이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석가모니의 40년 설법을 집약한 천태종天台宗의 근본 경전으로, 흔히 『법화경法華經』으로 약칭된다.

이 책은 『묘법연화경』 전7권 중에서 권1의 영본零本 1책으로 병풍처럼 겹친 절첩장折帖裝으로 장책粧冊되어있다. 표지는 감지紺紙로 만들었는데, 앞표지 중앙에는 금니金泥로 제첨을 긋고 안에 '묘법연화경권제일妙法蓮華經卷第一'이라고 서명을 기재하였다. 앞표지를 넘기면 권두에는 변상도變相圖가 수록되어 있다. 우측에는 호법선신護法善神이 자리하고 있고 이어 왼쪽으로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가 전개되고 있다. 변상도에 이어 당나라 도선道宣의 홍전서弘傳序가 실려 있고, 이 서문 다음에 '妙法蓮華經卷一(묘법연화경권일)'의 권두제가 보이고 있다. 권두제에 이어 역자표시와 '序品第一(서품제일)'의 품제가 차례로 기재되어 정형적인 서명사항을 보이고 있다. 품제品題에 이어 제4행의 '如是我聞(여시아문)'으로부터 경문이 시작되고 있다. 판식版式은 상하단변上下單邊에 1장 36행에 한 행의 글자 수는 18자이다.

『묘법연화경』 권1의 본문에는 간행기록을 담은 부분은 없다. 다만, 1401년(태종1)에 신총이 태조 이성계의 명령을 받아 판각한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蔓行首楞嚴經』(보물 제759호)과 서법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같은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묘법연화경』 권1은 권두에 변상도를 장식한 조선 초기의 독자적인 판본으로 현재까지 같은 판본은 이 책을 포함하여 『묘법연화경』 권2(보물 제1194호)와 『묘법연화경』 권3(보물 제968호) 등 3책만이 확인되는 희귀본이다.









보물 제1146호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24

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卷二十四

고려시대
1권 1첩
세로 30.5㎝, 가로 12.3㎝
종이(닥종이)
여주시 강천면 이문안길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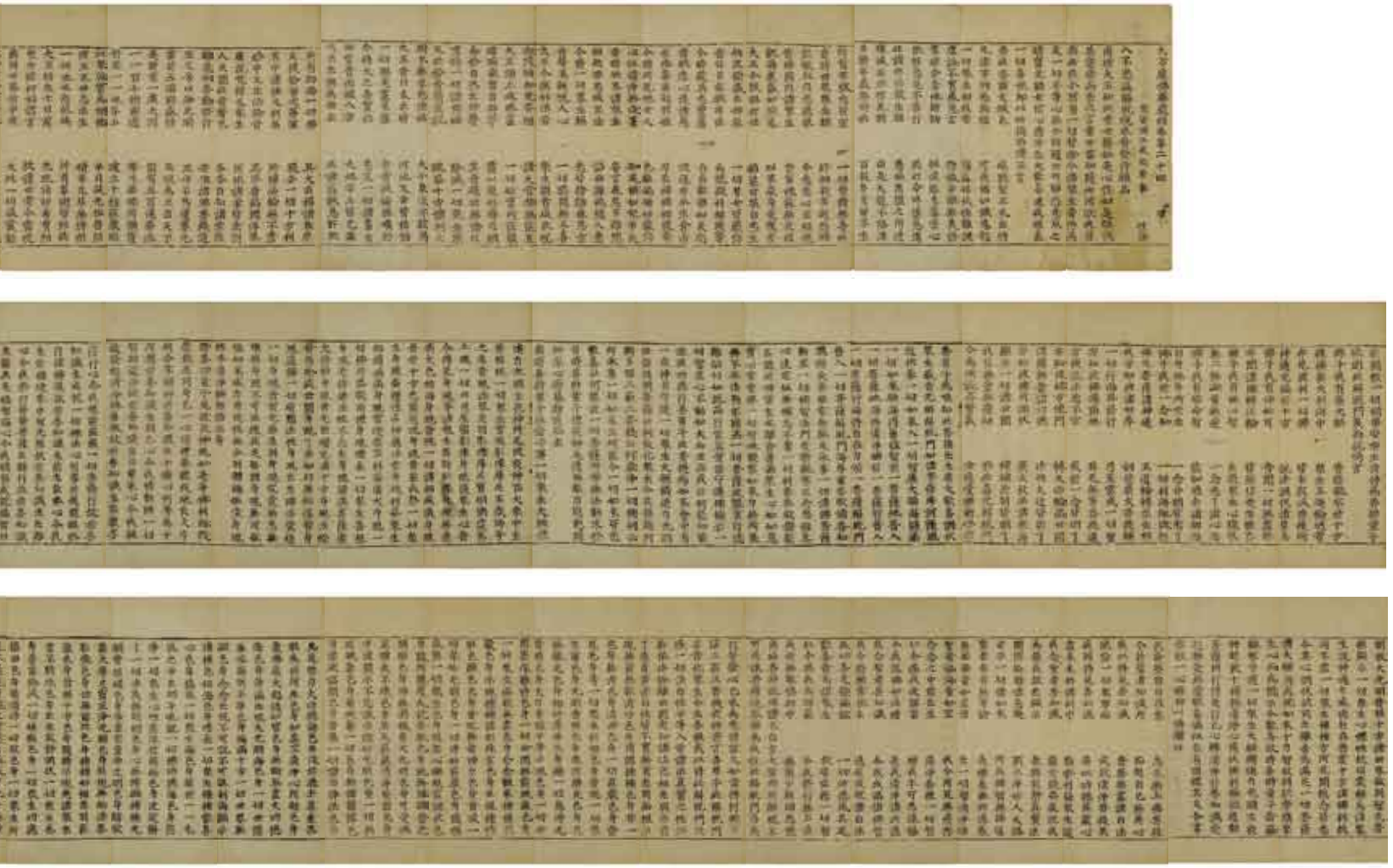
지정일 : 1992.12.11
소유자 : 박찬수(사유)
관리자 : 목아불교박물관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24>는 고려전기 당나라의 반야삼장般若三藏(748~810)이 한역漢譯한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을 저본으로 고려 중기에 간행한 불경이며 정원본 40권 가운데 제24권이다. 『대방광불화엄경』은 불타의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표명한 경전으로 『화엄경』으로 약칭된다.

이 경의 형태적 특징을 보면 판식은 상하단변上下單邊에 모두 24행으로 한 행은 17자로 배자되었고, 한 면은 6행씩 절첩折帖되어 있다. 판수제板首題는 '정원 이십사貞元 二十四'등이며, 경명經名, 권차卷次, 장차張次 표시가 있다. 표지는 감지紺紙 만들었는데 바탕에는 금니金泥로 그려진 연화문이 장식되어 있다.

앞표지 중앙에는 금니金泥로 쌍선의 제첨을 긋고 학립사횡鶴立蛇橫 표시와 '대방광불화엄경권제이십사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四'라고 서명을 기재하였다. 그 아래에는 정원본임을 표시하는 '정貞'자가 원형 속에 금니로 묘사되어 있다.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은 화엄경 진본晋本 60화엄경과 주본周本 80화엄경 중에서 「입법계품入法界品」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계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24, 2005_ 문화재청

품」은 화엄경의 마지막 품으로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보현보살의 행원을 이루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보현보살의 행원을 이루려면 보살로서 도를 닦는 목적이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고 그 목적을 실현하자면 모든 과정을 다 거쳐 불교의 이치를 깨닫는 법계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설하고 있다. 이 24권은 밤의 신神 능개부일체수화안락能開敷一切樹華安樂을 만나 법을 구하는 내용이다. 이 신은 전생의 일을 설하고 분별력 없이 다섯 가지 욕망에 마음을 끌리지 않아야 한다고 설하면서 다섯 가지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늙고 병들어 죽는 모습을 보여주어 무지와 번뇌를 끊게 하고, 인색한 자에는 베풀어 줄 것을 말해주며, 성내는 자에게는 자비심과 참을성을 가지도록 가르쳐준다고 한다. 또한 마음이 산란한 자에게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켜 깨끗하게 하며 그릇된 소견에 빠진 자는 지혜를 배우게 한다고 하였다.

이 경은 해인사고려각판(국보 제206호)에서 찍어낸 사간본寺刊本으로 판을 새긴 시기는 12~13세기로 추정되며, 인출 시기는 표지장식·종이질·인쇄상태 등으로 볼 때 14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유사한 판본으로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2(보물 제1017호), 권7(보물 제689호), 권20(보물 제1083호), 권31(보물 제1154호), 권38(보물 제1017호) 등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보물 제1148호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法集別行錄節要屛込私記

조선시대(1486년)
1권 1책
세로 25.7㎝, 가로 16.3㎝
종이(닥종이)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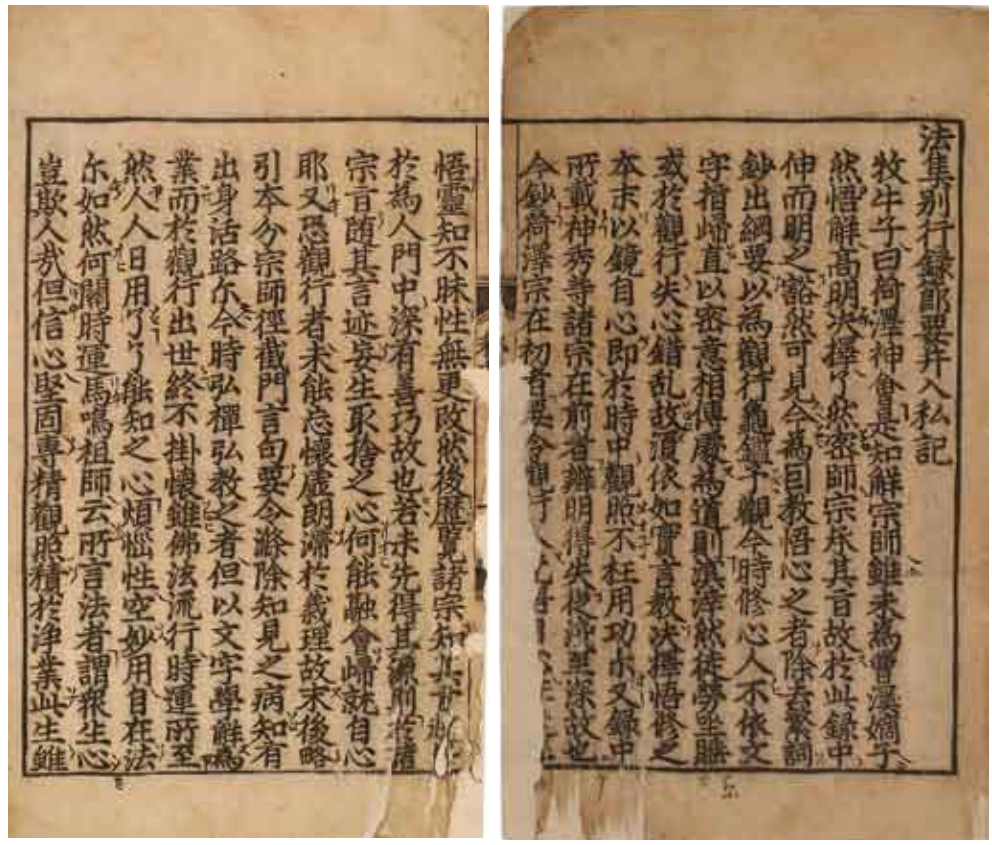
지정일 : 1993.01.15
소유자 : 명지학원(사유)
관리자 : 명지대학교박물관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는 보조국사 지눌普照國師知訥(1158~1210)이 1209년(희종5)에 참다운 수행자修行者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 저술한 일종의 수행지침서이다. 당나라 종밀宗密(780~841)이 저술한 『법집별행록』에서 중요한 요점만을 초록한 '절요節要'와 자신의 견해인 '사기私記'를 수록하였다.

이 책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판식版式은 사주단변四周單邊에 계선界線은 없고, 반엽 10행에 한 행의 글자 수는 21자이다. 판심版心은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며, 판심제版心題는 '사기私記'이다.

권말에 '成化二十二年丙年夏全羅道光州無等山圭峯菴改版'이라는 간기가 남아 있어 1486년(성종17) 여름에 전라도 광주 무등산 규봉암에서 간행한 목판본임을 알 수 있다.

동일 판본인 서울 성룡사星龍寺 소장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보물 제1222-2호)와 비교해보면 이 책은 나월당蘿月堂 고옹孤翁이 지은 서문 2장과 1486년 4월에 대걸大傑이 쓴 발문 1장이 결락되어 있다. 대걸의 발문에는 왕과 세자가 건강하고 조정이 안정되어 온 나라가 화평해지기를 기원하기 위해 이 책을 간행하였고 대시주로는 이순기李順基 부부, 판각에는 선우善牛 등, 각수刻手로는 의경義敬 등이 참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
牧牛子曰尙澤神會是知解宗師雖未爲曾漑嫡子然悟解高明決擇了然密師宗旨其旨故於此錄中伸而明之豁然可見今爲目教悟心之者除去繁詞鈔出綱要以爲觀行龜鑑矣觀今時修心人不依文字指歸直以密意相傳豪爲道則滯淨然徒勞坐勝或於觀行失心錯亂故須依如實言教決擇悟修之本末以鏡自心即於時中觀照不枉用功亦又錄中所載神秀等諸宗在前者辨明得失使諸學深致疑今鈔尙澤宗在初者要令觀于
悟靈知不昧性無更改然後歷覽諸宗知其甘於爲人門中深有喜巧故也若未先得其源則於諸宗旨隨其言迹妄生取捨之心何能融會歸就自心耶又恐觀行者未能忘懷處朗滯於義理故末後略引本分宗師徑截門言句要令滌除知見之病知有出身活路尒今時弘禪弘教之者但以文字學雖爲業而於觀行出世終不相懷雖佛法流行時運所至然人人日用了了能知之心煩惱性空妙用自在法尒如然何關時運馬鳴祖師云所言法者謂衆生心豈欺人哉但信心堅固專精觀照精於淨業此生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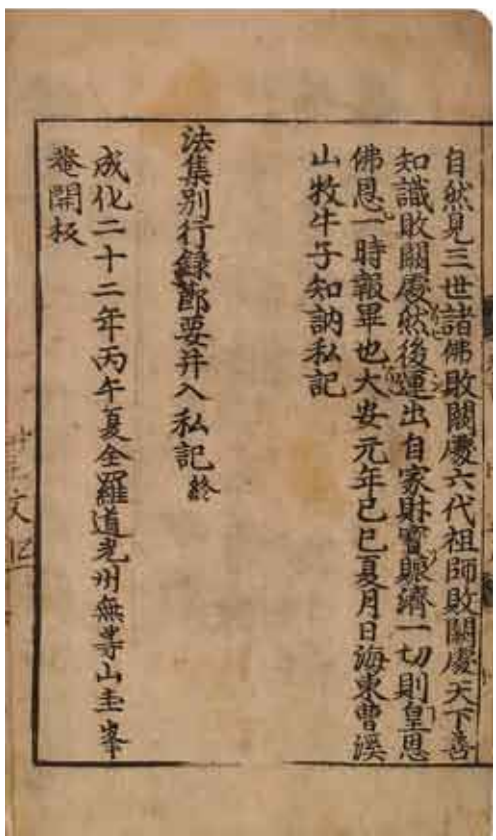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는 고려시대 선교통합禪敎統合을 이룩하고 사교입선捨敎入禪의 한국불교의 전통을 확립한 보조국사 지눌의 선사상禪思想이 결집된 한국 최고의 철학서로 불교이론과 실천의 결정체로 평가받고 있다. 일찍부터 한국불교의 강원講院 필수교과목인 사집과四集科의 하나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승의 저술로서는 드물게 여러 차례 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책의 판본은 현재까지 전래되고 있는 22종의 판본 가운데 가장 간행연대가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2 4 3

1.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표지, 2003_ 문화재청
2.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권수, 2003_ 문화재청
3. 돈오頓悟와 점수문漸修門에 대한 선문 4종의 견해, 2003_ 문화재청
4. 권말의 간기, 2003_ 문화재청





보물 제1149호

신간표제공자가어구해

新刊標題孔子家語句解

조선시대(1402년)
6권 1책
세로 26.8㎝, 가로 16.3㎝
종이(고정지)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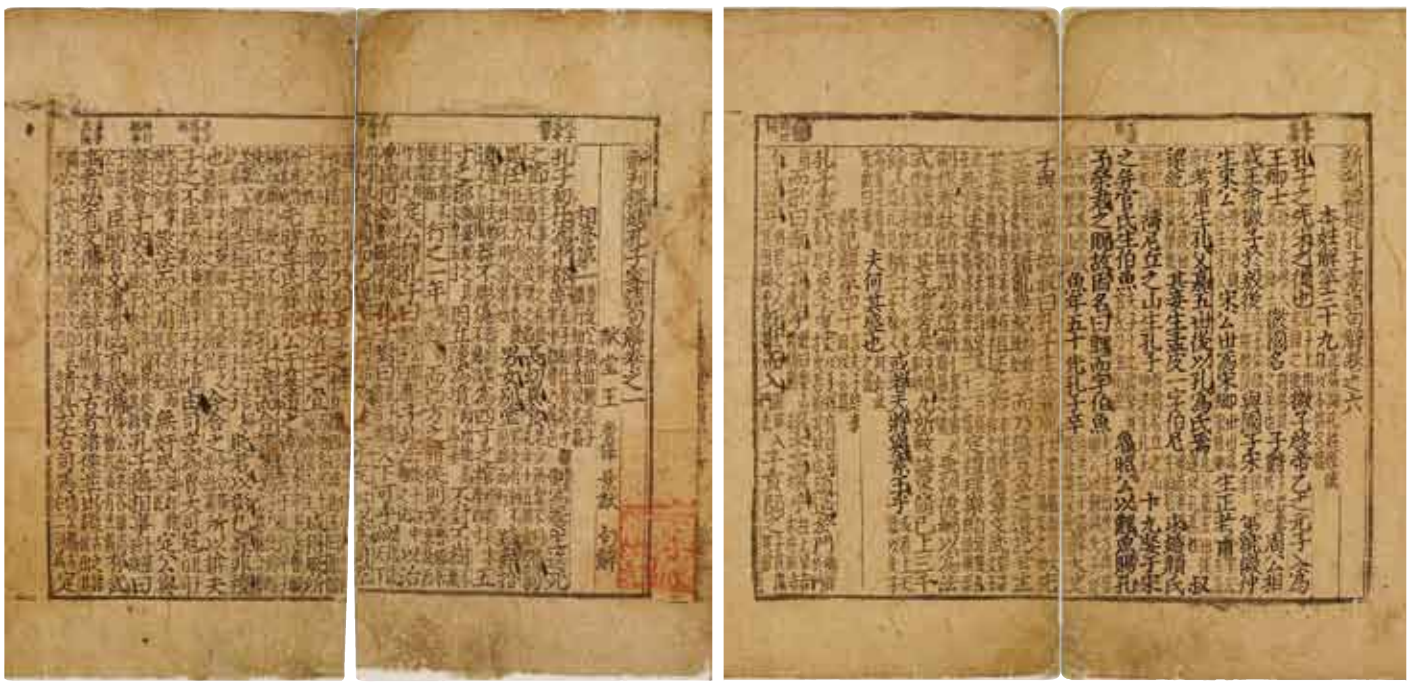
지정일 : 1993.01.15
소유자 : 명지학원(사유)
관리자 : 명지대학교박물관

<신간표제공자가어구해>는 공자가 공경대부公卿大夫 및 72제자들과 서로 문답한 내용 중에서 『논어論語』에 편입되지 않은 것을 모아 원나라의 왕광모王廣謀가 각 장별로 표제標題하고 소상하게 구해句解를 덧붙여 찬술한 것이다.

이 책의 권말에는 공자의 생애와 그 학덕과 공덕을 칭송하는 여러 사적을 시대별로 정리한 「신간소왕사기新刊素王事記」가 부각附刻, 추기追記되어 있다. '소왕素王'이란 제왕은 아니나 제왕의 덕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으로 곧 공자를 지칭한다.

권말의 「신간소왕사기」 목차에는 '泰定甲子秋蒼巖書院刊行(태정갑자추창암서원간행)'라는 간기刊記가 있고, 권말에는 '新刊素王事紀 卷終 右家語 古今天下寶之 而吾 大東 未有板本 予得是本 命刊于江陵 以貽後學焉 建 文四年七月望 潘溪朴訔 誌'이라는 간기가 있어 이 책이 본래 원나라 진종晋宗 때인 태정泰定 원년元年(1324)에 창암서원蒼巖書院에서 간행된 것이며,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1402년(태종 2)에 당시 강원도감사 박은朴訔(1370~1422)에 의해 강릉감영江陵監營에서 번각飜刻,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박은은 고려말기의 유학자 박상충朴尙衷의 아들로 제1차·제2차 왕자의 난 때 태종을 도와 좌명공신 3등에 녹훈되고 1402년에 강원도 도관찰출척사江原道都觀察黜陟使로 부임하였다. 이때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간행되지 않았음을 알고 그곳에서 번각한 것이다.



이 책은 목판본 6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지사항으로는 세흑구細墨口, 사주단·쌍변 혼합에 반곽半郭이 세로 11.9㎝, 가로 19.0㎝이다. 하향흑어미下向墨魚尾에 상단은 무계無界, 하단은 유계有界로 12행 22자이다. 지질은 고정지藁精紙로 지면이 거친 편이고, 선장線裝으로 장정되어 있으며, 권수卷首의 권차별 목차 중 권 1~4의 목차가 수록된 2장이 결락되어 백지를 끼워 넣었다. 이 책은 조선초기의 지방관이 주도하여 만든 강릉감영 판본으로 조선 전기 출판문화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1. 신간표제공자가어구해 제1권 '상노' 부분, 2003_ 문화재청
2. 신간표제공자가어구해 제6권 '본성해' 부분, 2003_ 문화재청
3. 「신간소왕사기」 목차와 간기, 2003_ 문화재청
4. 「신간소왕사기」 본문, 2003_ 문화재청
5. 권말의 간기, 2003_ 문화재청











보물 제1174-1호

이중로 정사공신교서 및 초상 -이중로 정사공신교서

李重老 靖社功臣敎書 및 肖像-李重老 靖社功臣敎書

조선시대(1625년)
1축
세로 39.5㎝, 가로 263.1㎝
종이(닥종이), 비단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1993.11.05
소유자 : 이재충(사유)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이중로 정사공신교서>는 1625년(인조3) 4월 인조가 이중로李重老(1577~1624)에게 상장과 훈장을 내린 교서이다.

이중로의 본관은 청해靑海, 자는 진지鎭之, 호는 송계거사松溪居士이다. 개국공신 이지란李之蘭의 후손이며, 16세에 무과에 급제하여 이듬해 선전관이 되었고, 1621년(광해군13)에는 이천부사가 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 때 훈련대장 이흥립李興立 등과 함께 군사를 모아 참여하였으며, 1624년 2월 이괄李适의 난을 진압하던 중 예성강 상류인 마탄馬灘에서 반군의 기습으로 관군이 포위되자 자결하였다. 인조반정에 참여한 공으로 정사공신에 책록되었으며 청흥군靑興君에 봉해졌다.

이중로 정사공신교서의 내용을 적은 바탕은 저지楮紙에 생견生絹으로 배접되어 있다. 천두天頭와 지두地頭 부분은 쪽빛으로 염색된 비단이 사용되었으며, 교서의 상하 가장자리는 밤색 비단이 사용되었다. 글이 쓰여 있는 부분의 네 변에는 굵은 주사선朱砂線이 각각 한 줄씩 그어져 있고, 본문 행간 사이에도 3㎝ 간격으로 주사선이 가늘게 그어져 있다. 내용은 총 51행에 걸쳐 해서楷書로 묵서墨書되어 있



이중로 정사공신교서, 2010_ 경기도박물관

다. 교서의 첫머리에는 '교敎 분충찬모입기정사공신 가의대부강화부윤증자헌대부병조판서奮忠贊謨立紀靖社功臣嘉義大夫江華府尹贈資憲大夫兵曹判書 겸兼 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도총관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 청흥군靑興君 이중로李重老 서書'라는 문서의 정확한 제목이 적혀있으며, 제목의 좌측 '왕약왈王若曰' 이하는 전형적인 공신교서의 양식에 따라 공을 치하하고 공신으로서 받게 될 상전과 특권을 적었다.

교서의 맨 좌측에는 총 50명의 공신명단功臣名單을 1등부터 3등으로 나누어 2단으로 적었다. 1등인 분충찬모입기명륜정사공신으로는 김류金瑬·이귀李貴 등 9인, 2등 분충찬모입기정사공신으로는 이괄李适·김경징金慶徵 등 14인, 3등 분충찬모정사공신으로는 박유명朴惟明·한교韓嶠 등 27인의 이름이 적혀있다. 이 중 1등 공신 중 김자점金自點(1588~1651), 심기원沈器遠(?~1644)의 이름 위에는 묵서로 원圓이 그려져 있는데 이들은 교서 발급 이후 역모로 인해 삭탈된 인물들로 이를 표시하기 위해 그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중로는 2등 공신명단의 윗단 2번째에 기록되어 있다. 교서에는 이중로의 도상圖像(초상화)을 그려 후세에 전하게 하고 이중로 본인과 그의 부모·처에게 각기 2품계씩을 올려주며, 이중로의 큰 아들의 경우 이중로가 누리던 지위를 영원히 세습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관에서 일하는 노비와 공신에게 내리는 노비 등을 합쳐 19명의 노비, 밭 80결, 은 30량, 옷감 1단, 말 1필 등을 내리도록 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다. 교서의 마지막에는 교서를 내린 날짜인 '천계天啓 5년 4월 일'이 적혀 있고, 바로 아래에 정방형의 「시명지보施命之寶」란 어보御寶가 찍혀 있다.

이중로의 정사공신교서는 인조반정에 참여한 정사공신에 대한 대우와 포상 내역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교서에서 언급된 이중로 초상(보물 제1174-2호)이 함께 남아 있어 더욱 가치가 높다. 2000년 청해이씨 세마공 종중에서 기증받아 경기도박물관에서 소장·보관하고 있다.

보물 제1174-2호

이중로 정사공신교서 및 초상 –이중로 초상

李重老 靖社功臣敎書 및 肖像-李重老 肖像

조선시대
1폭
세로 169㎝, 가로 94㎝
비단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2004.05.07
소유자 : 이재충(사유)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이중로 초상>은 조선 중기 무신 이중로李重老(1577~1624)를 그린 초상화이다.

이중로의 본관은 청해靑海, 자는 진지鎭之, 호는 송계거사松溪居士이다. 개국공신 이지란李之蘭의 후손이며, 16세에 무과에 급제하여 이듬해 선전관이 되었고, 1621년(광해군13)에는 이천부사가 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 때 훈련대장 이흥립李興立 등과 함께 군사를 모아 참여하였으며, 1624년 2월 이괄李适의 난을 진압하던 중 예성강 상류인 마탄馬灘에서 반군의 기습으로 관군이 포위되자 자결하였다. 인조반정에 참여한 공으로 정사공신에 책록되었으며 청흥군靑興君에 봉해졌다. 정사공신교서와 공신도상은 이중로의 사후死後인 1625년(인조3)에 내려졌다.

이중로 초상은 오사모에 단령을 입고 의자에 공수拱手 자세로 앉아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검은색의 사모는 낮고 편평하며, 날개는 짧고 넓다. 의자 뒤로 단령이 접히면서 측면으로 세모꼴의 무가 드러난 모습이며, 의습선과 옷주름은 검은 먹선으로 간단하게 표현하였다. 가슴에는 모란 및 해태 문양이 수놓인 흉배를 착용하고 있으며, 허리에는 학정금대鶴頂金帶를 두르고 있어 이 초상화가 무관武官 종 2품 때의 도상圖像임을 말해준다.

안면처리는 적갈색 선으로 이목구비의 특징을 포착하여 묘사한 뒤 엷고 밝은 살빛으로 안색을 채색하였으며, 콧등과 이마, 양 뺨의 광대뼈 부근 등 도드라진 부위에는 홍색을 부분적으로 더하여 생기를 주었다. 바닥에는 채전이 높이 깔려 있으며, 족좌대 위에 검은 가죽신을 신은 발을 팔자형八字形으로 올려놓았다.

이중로는 이괄의 난을 진압하다 사망하였으므로 이후 공신초상을 그릴 때는 후손의 얼굴과 증언을 참고하여 그린 것으로 추측된다. 임진왜란 때에는 공신 책록 당시에 사망한 공신초상화는 흠전欠典이라 하여 그리지 않았으나 정사공신의 경우는 사망한 공신의 초상화도 그렸음을 알려주는 사례이다. 채전이 높이 깔린 점, 사모의 높이가 매우 낮은 점, 날개가 짧고 넓은 점 등 17세기 공신도상의 전형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이중로 정사공신 교서와 함께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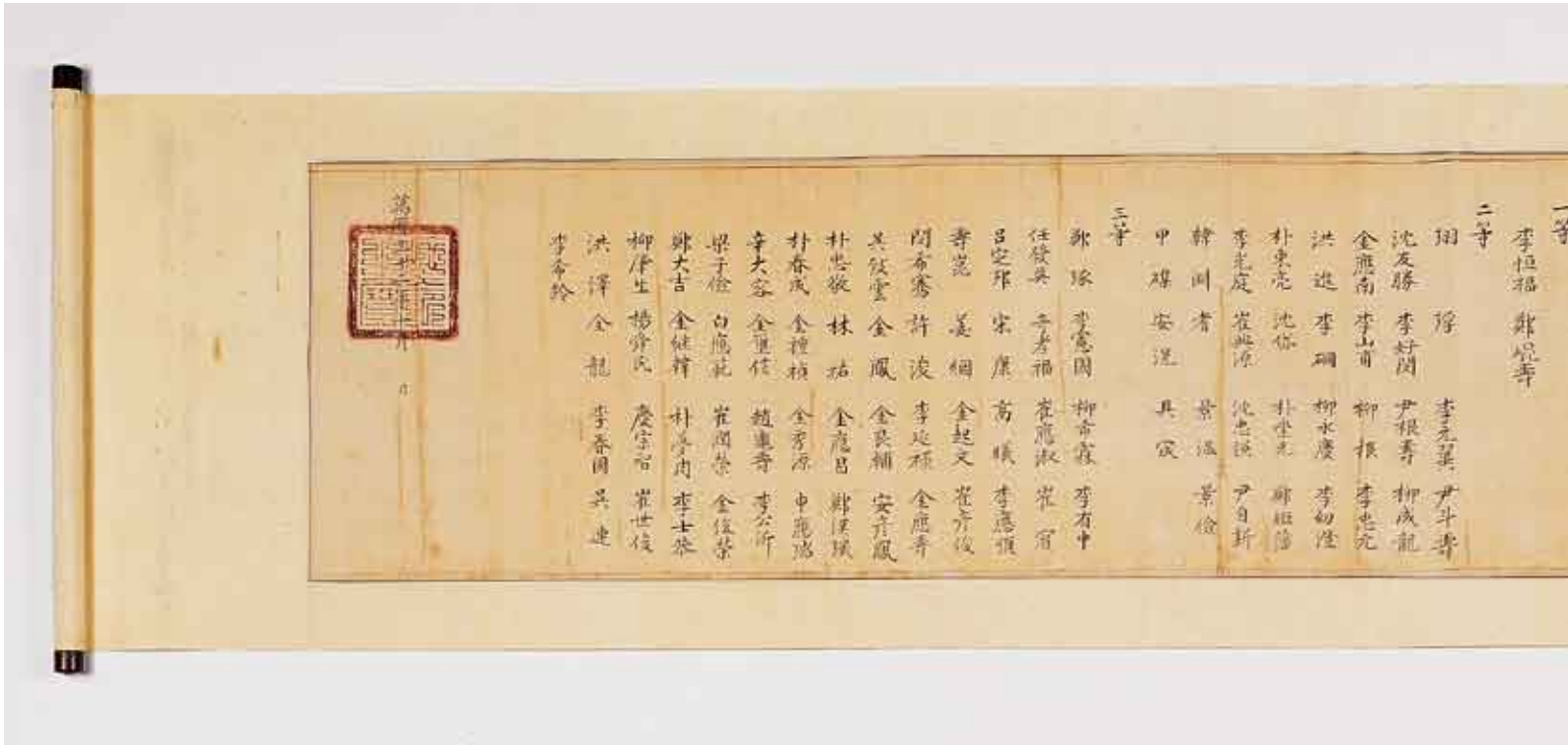


1

2

1. 이중로 초상 안면부, 2008_ 경기도박물관
2. 이중로 초상, 2008_ 경기도박물관





보물 제1175호

심대 호성공신교서

沈岱 扈聖功臣敎書

조선시대(1604년)
1축
세로 48.5㎝, 가로 261㎝
종이(닥종이), 비단(생견)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1993.11.05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심대 호성공신교서>는 1607년(선조37) 10월 선조가 심대沈岱(1546~1592)에게 상장과 훈장을 내린 교서이다.

심대의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공망公望, 호는 서돈西墩으로, 영의정 심온沈溫의 5대손이며, 심미沈湄의 증손이다. 1572년(선조5) 춘당대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홍문관에 들어가 정자正字·박사·수찬修撰을 지내고, 1584년 지평持平이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보덕輔德으로서 근왕병勤王兵 모집에 힘썼다. 그 공로로 왕의 신임을 받아 우부승지·좌부승지를 지내며 승정원에서 왕을 호종하였다. 왜군의 기세가 심해지자 선조를 호종하여, 평양에서 다시 의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권징權徵의 후임으로 경기도관찰사가 서울을 수복하기 위해 시민들의 내응을 시도하다 삭령朔寧에서 왜병들의 습격을 받고 사망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왕을 호종한 공으로 호성공신에 책록되었으며, 청원군靑原君에 봉해졌다.

심대 호성공신교서의 내용을 적은 바탕은 저지楮紙에 생견生絹으로 배접되어 있다. 천두天頭와 지두地頭 부분은 쪽빛으로 염색된 비단이, 교서의 상하 가장자리는 밤색 비단이 사용되었다. 이 교서는 글이 쓰여 있는 부분의 네 변 모두에 굵은 주사선朱砂線이 각각 한 줄씩 그어진 양식이나 글씨를 적은 바탕을 제외한 부분은 새로 개장되어 있



심대 호성공신교서, 2006_ 경기도박물관

고, 좌우에 그어져 있던 주사선이 잘려나가 있다. 현재는 상하에 굵은 주사선이 한 줄씩 그어져 있고 본문 행간 사이에 3.4㎝ 간격으로 주사선이 가늘게 그어져 있다. 내용은 총 56행에 걸쳐 해서楷書로 묵서墨書되어 있다. 교서의 첫머리에는 '교敎 가선대부경기관찰사嘉善大夫京畿觀察使 겸兼 개성유수병마수군절도사開城留守兵馬水軍節度使 증贈 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 숭정대부의정부좌찬성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 겸兼 판의금부사세자이사지경연관 춘추관사判義禁府事世子二師知經筵春秋館事 청원부원군심대靑原府院君 沈岱 서書'라는 문서의 정확한 제목이 적혀있다. 제목의 좌측 '왕약왈王若曰' 이하는 전형적인 공신교서의 양식에 따라 공을 치하하고 공신으로서 받게 될 상전과 특권을 적었다. 좌측에는 총 86명의 공신명단功臣名單을 4단으로 적었다. 1등에는 이항복李恒福·정곤수鄭崑壽 2인, 2등에는 후珝(신성군信城君), 부琈(정원군定遠君)·이원익李元翼·윤두수尹斗壽 등 31인, 3등에는 정탁鄭琢·이헌국李憲國·유희림柳希霖 등 53인의 이름이 적혀있다.

심대는 2등 공신명단의 두 번째 단 5번째에 기록되어 있다. 교서에는 심대의 도상圖像(초상화)을 그려 후세에 전하게 하고 심대 본인과 그의 부모·처에게 각기 2품계씩을 올려주며, 큰아들의 경우 심대가 누리던 지위를 영원히 세습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노비 9구口, 밭 80결結, 은 7량, 옷감 1단, 말 1필 등을 내리도록 하라는 지시가 적혀있다. 교서의 마지막에는 교서를 내린 날짜인 '만력萬曆 32년 10월 일'이 적혀 있고, 바로 아래에 정방형의 「시명지보施命之寶」란 어보御寶가 찍혀 있다.

심대 호성공신교서는 이충원 호성공신교서(보물 제874호), 김응남 호성공신교서(보물 제1756호), 홍진 호성공신교서(보물 제1308호), 이헌국 호성공신교서(보물 제1617호), 박숭원 호성공신교서(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6호), 박동량 호성공신교서(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50호), 이공기 호성공신교서(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04호) 등과 함께 호성공신 연구 및 임진왜란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청송심씨 충장공파 종중에서 기증받아 현재 경기도박물관에서 소장·보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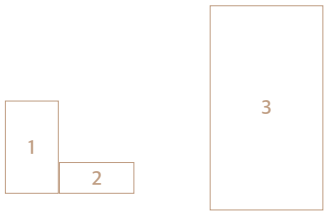
보물 제1176호

유수 초상

柳綏 肖像

조선시대(1726년)
2점(영정 1폭, 함 1점)
초상 - 세로 165.5㎝, 가로 88㎝
비단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1993.11.05
소유자 : 유태홍(사유)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1. 유수 초상 안면부, 2008_ 경기도박물관
2. 초상화 함, 2008_ 경기도박물관
3. 유수 초상, 2008_ 경기도박물관



<유수 초상>은 조선 후기 문신 유수柳綏(1678~1705)를 그린 초상화이다. 유수의 호는 성곡聖谷, 자는 여회汝懷이다. 1706년(숙종32) 생원진사시에 합격하고, 1721년(경종1) 문과에 급제, 1724년 통정대부가 되었다.

유수 초상은 오사모에 단령을 입고 의자에 공수拱手자세로 앉아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검은색 사모는 높이가 상당히 높고 날개가 좌우로 곧게 뻗어 있는 모습이다. 짙은 청녹색 단령團領은 깃이 깊게 파여 있고 소매가 넓다. 가슴에는 구름과 백한白鷴문양이 수놓인 흉배를 착용하고 있으며, 허리에는 삽은대鈒銀帶를 두르고 있어 초상화가 제작될 당시 유수의 품계인 정3품(1734년 이전에는 정3품의 경우 백한흉배에 삽은대 사용)과 일치한다.

얼굴은 이목구비를 선묘 위주로 형용하면서 안면의 움푹 들어간 부위를 거듭 칠해 어둡게 함으로써 안면이 지닌 굴곡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의자에 표피가 걸쳐져 있고, 바닥에는 아무것도 깔려 있지 않다. 족좌대足座帶 위로는 화문석花紋席이 깔려 있고, 검은 가죽신을 신은 발을 팔자형八字形으로 올려놓았다.

화면의 우측상단에는 초상화가 그려진 경위를 밝히는 글 '四九歲丙午年在東萊倩西生鎭僉使秦再奚摹眞'이 남아있어 그의 나이 49세 때(1726) 화사畵師 진재해秦再奚(1691~1769)가 동래에서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화면의 좌측 상단에는 「화상자찬畵像自讚」이라는 제목으로 유수가 쓴 찬문贊文이 적혀있다. 그 내용은 유수 자신이 어려서 부모를 잃고 늙어서는 자식이 없고, 마음을 가다듬고 벼슬에 나아갔지만 성품이 세속에 굴하거나 아첨하지 않았으며, 권력자와 부귀한 자를 싫어하며 물러가 부모 묘소에 자리하고 살면서 농사짓고 낚시와 바둑으로 소일하며 자연과 벗했다는 것을 적어 넣었다. 이 자찬문은 이 초상화가 그려진지 13년 뒤인 그의 나이 62세 진갑進甲에 초상화를 보고 감회에 젖어 적은 글이다. 이 찬문의 아래쪽에는 위로부터 성곡聖谷, 진산인晋山人, 유수柳綏, 여회汝懷라는 양각과 음각 도장이 교대로 찍혀 있다.

유수 초상은 의자에 깔린 호피虎皮, 족좌대 위에 '八'자형으로 벌어진 발의 놓임, 바닥에 아무것도 깔려 있지 않은 점 등 영조 연간 초기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 준다. 이 초상화는 제작 연대가 확실하고 어용화사인 진재해의 이름과 솜씨를 여실히 드러내 준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보물 제1177호

오명항 초상 및 양무공신교서

吳命恒 肖像 및 揚武功臣敎書

조선시대
3점(영정 1폭, 함 1점, 교서 1축)
초상 - 세로 173.5㎝, 가로 103.4㎝
교서 - 세로 42.9㎝, 가로 289.5㎝
영정 - 비단
교서 - 종이(닥종이)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1993.11.05
소유자 : 오원석(사유)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오명항 초상 및 양무공신교서>는 1728년(영조4) 4월 영조가 오명항吳命恒(1673~1728)에게 상장과 훈장을 내린 교서와 오명항의 초상화이다.

오명항의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사상士常, 호는 영모당永慕堂 또는 모암慕菴으로, 영의정 오윤겸吳允謙의 현손이며, 아버지는 오수량吳遂良, 어머니는 영의정 여성제呂聖濟의 딸이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슬하에서 공부하여 1705년(숙종31) 문과에 급제했다. 이듬해 부수찬, 1713년 필선弼善을 겸하고 1715년 부응교, 이조좌랑을 지냈다. 승지에 이어 경상도, 강원도, 평안도 등의 관찰사를 역임하고 사직司直으로 있다가 1724년(영조1) 소론이 실각하자 물러나고, 1727년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등용될 때 지중추부사에 기용되어 이조와 병조의 판서를 지냈다. 이듬해 이인좌李麟佐(?~1728)의 난이 일어나자 판의금부사 겸 사도四道 도순무사道巡撫使로 임명되어 박문수를 종사관으로 난을 평정하였다. 이후 좌찬성에 병조판서를 겸하였고 이어 우찬성이 되었다. 자신이 이인좌와 같은 소론이라는 것을 자책하여 사퇴를 청하였지만 다시 우의정으로 발탁되었다. 우의정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사망하였다.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을 당시 난을 평정한 공으로 양무공신에 책록되었으며, 해은부원군海恩府院君에 봉해졌다.



오명항 양무공신교서, 2008_ 경기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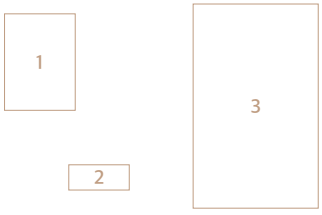
오명항 양무공신교서의 내용을 적은 바탕은 두꺼운 선지宣紙에 명주를 접착한 것이 사용되었고, 천두天頭와 지두地頭 부분은 쪽빛으로 염색된 비단이 사용되었으며, 교서의 상하 가장자리는 밤색 비단이 사용되었다.

글이 쓰여 있는 부분의 네 변 모두에 굵은 주사선朱砂線이 각각 한 줄씩 그어져 있고, 본문 행간 사이에도 3㎝ 간격으로 주사선이 가늘게 그어져 있다. 내용은 총 60행에 걸쳐 해서楷書로 묵서墨書되어 있다. 교서의 첫머리에는 '교敎 수충갈성결기효력양무공신輸忠竭誠決幾效力揚武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우의정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 겸兼 영경연감춘추관사領經筵監春秋館事 해은부원군海恩府院君 오명항吳命恒 서書'라는 문서의 정확한 제목이 적혀있으며, 제목의 좌측 '왕약왈王若曰' 이하는 전형적인 공신교서의 양식에 따라 공을 치하하고 공신으로서 받게 될 상전과 특권을 적었다. 양무공신이라는 명칭은 본래 분무공신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는데, 명나라 의종毅宗의 휘호와 겹친다는 이유로 1764년(영조 40)에 바뀌었다. 이 교서에도 '분奮'자를 '양揚' 자로 바꾼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좌측에는 총 15명의 공신명단功臣名單을 1단으로 적었다. 1등에는 오명항吳命恒 1인, 2등에는 박찬신朴纘新·박문수朴文秀·이삼李森 등 7인, 3등에는 이수량李遂良·이익필李益馝·김협金浹 등 7인의 이름이 적혀있다. 이 중 2등 공신 박찬신朴纘新(1679~1755)은 교서 발급 이후인 1755년(영조31) 역적으로 몰려 상훈이 삭제된 인물로, 그의 이름 위에는 묵으로 '朴'자를 지워 이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교서에는 1등에 책록된 오명항의 도상圖像(초상화)을 그려 후세에 전하게 하고 오명항 본인과 그의 부모·처에게 각기 3품계씩을 올려주며, 큰 아들의 경우 오명항이 누리던 지위를 영원히 세습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관에서 일하는 노비와 공신에게 내리는 노비 등을 합쳐 47명의 노비, 밭 150결, 은 50량, 옷감 1단, 말 1필 등을 내리도록 하라는 지시가 적혀있다. 교서의 마지막에는 교서를 내린 날짜인 '옹정雍正 6년 7월 일'이 적혀 있고, 바로 아래에 정방형의 「시명지보施命之寶」란 어보御寶가 찍혀 있다. 뒷면에는 '申致謹 製 曹命敎 書'라는 명문이 남아 있어 신치근이 만들고 조명교가 글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오명항 초상 안면부, 2008_ 경기도박물관
2. 초상화 함, 2008_ 경기도박물관
3. 오명항 초상, 2008_ 경기도박물관

오명항 초상화는 검은색 사모에 짙은 청록색의 관복을 입었고 의자에 공수拱手자세로 앉아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린 전신교의좌상全身交倚坐像이다. 의자에는 표범 가죽이 깔려 있고 나뭇결이 정교하게 묘사된 족좌대 위에는 화문석花紋席이 깔려 있다. 흉배는 쌍학문양雙鶴紋樣이며, 서대犀帶를 두르고 있어 공신 책록 후의 '좌찬성 겸 병조판서'라는 품계와 부합된다. 높이가 높은 사모, 표범 가죽이 깔린 의자, 족좌대 위 표범의 앞모습이 정면으로 나타난 점, '八'자형으로 벌린 발의 모습은 동시기 그려진 조문명 초상(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19호), 권희학 초상(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81호), 김중만 초상(보물 제715호) 등과 유사하여 그 당시의 양식적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얼굴은 갈색을 주색으로 윤곽선과 양턱, 눈주위에 붉은색을 사용하여 얼굴의 굴곡을 표현했고 종두 자국과 코 밑의 점까지 나타내 강직하고 진지한 오명항의 표정을 잘 포착해내고 있다.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는 '수충갈성결기효력분무공신輸忠竭誠決幾効力奮武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우의정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 겸兼 영경연감춘추관사領經筵事監春秋館事 해은부원군海恩府院君 증시충효공오공화상贈諡忠孝公吳公畵像'이라는 화기畵記가 적혀 있어 분무공신 책정 때에 받은 공신도임을 드러내고 있다.

오명항 초상화는 18세기 전반 공신 교서를 내릴 때 그려지던 공신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명항 양무공신 교서와 같이 일괄로 남아 있어, 당시 오명항 양무공신 교서와 함께 초상화가 제작되었던 사례를 증명해 주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다.





보물 제1197호

기묘제현수필

己卯諸賢手筆

조선시대(1518년)
1첩
세로 50.0㎝, 가로 37.8㎝
종이(닥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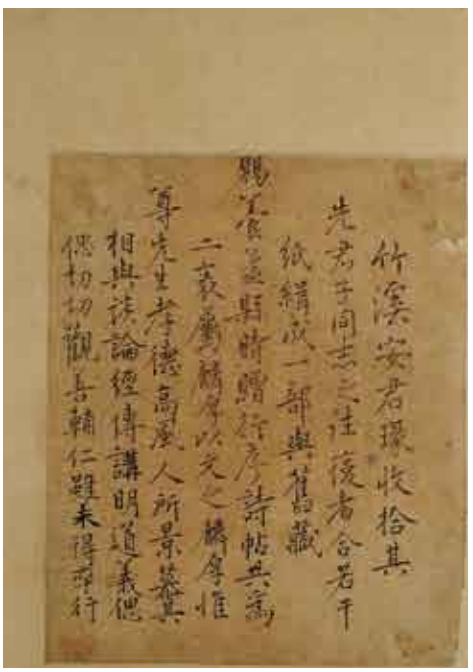
지정일 : 1994.05.02
소유자 : 순흥안씨 종중(사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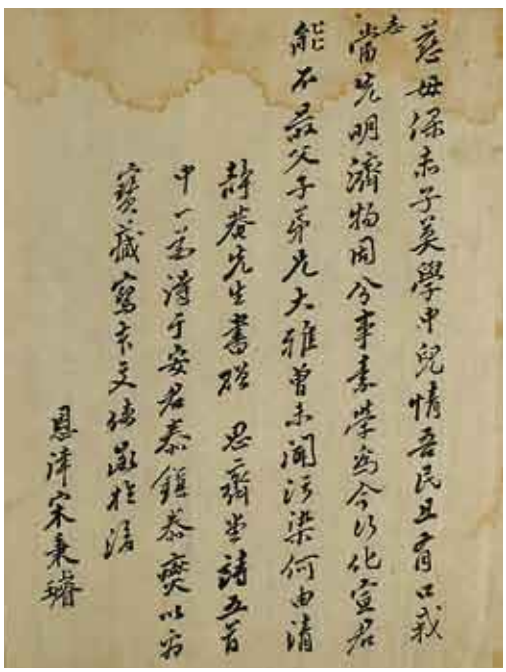
『기묘제현수필』은 1518년(중종13)에 안처순思齋安處順(1492~1534)이 구례현감에 제수되어 떠날 때, 동료·친우들이 송별의 뜻에서 서序·시詩 등을 지어준 것을 모아 엮은 첩이다.

안처순의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순지順之, 호는 사재思齋 또는 기재幾齋로 고려시대 성리학을 처음으로 소개한 안향安珦(1243~1306)의 9대손이자 전적典籍을 역임한 안기安璣의 아들이다. 예문관검열을 거쳐 홍문관 박사와 구례현감 등의 벼슬을 지냈다. 1518년 홍문관 박사로 재직할 때 남원에 계신 모친을 위해 가까운 곳의 지방관을 자청하게 되면서 구례 현감에 제수되었다. 이때 유용근柳庸謹(1485~1528), 조광조趙光祖(1482~1519)를 비롯한 동료와 친우들이 송별의 뜻에서 서序·시詩 등을 지어준 것을 안처순 사후에 엮어서 하나의 첩으로 만든 것이 『기묘제현수필』이다.

『기묘제현수필』에는 김인후金麟厚가 1549년(명종4) 7월에 쓴 서문, 조인영趙寅永이 1830년(순조30)에 쓴 발문, 송병선宋秉璿의 발문이 있다.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김인후의 서문은 본문의 중간에 끼어 있는데, 1549년(명종4) 7월 안처순의 아들 안전安璿이 안처순과 그 동지들이 주고받은 서간과 안처순이 현감에 제수되었을 때 전별에 임하여 지어준 서시첩을 수습한 뒤 도합 2책으로 만들었고 김인후에게 서문의 찬술을 부탁하였다는 수필의 내력이 담겨있다.







수필의 후미에는 1830년 2월 작성된 당시 전라도관찰사 조인영趙寅永의 발문이 남아있는데 이 발문에는 두 첩에 대해 개괄한 뒤 수필의 개장 경위를 적고 있다. 조인영의 발문에 따르면, 1829년 조인영은 남원을 경유하는 길에 안처순 후손가에서 수필과 수첩을 빌렸는데 수필이 수첩에 비해 손상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호민의 전례에 따라 장인을 시켜 새로 장정을 꾸몄으며 시건장치가 달린 보관함까지 마련하여 돌려주었다고 기록하며, 수필 마지막 면에 '崇禎四己丑仲冬, 完營改粧(전주에 있던 전라도 감영完營에서 1829년(순조29) 11월에 수필을 개장했다)'는 장황기를 적어놓았다.

맨 끝에는 송병선宋秉璿이 조광조의 「서증 사재당 시 오수書贈 思齋堂 詩 五首」 중 일수를 안처순의 후손인 안태진安泰鎭, 안태섭安泰燮으로부터 입수하여 보장寶藏하는 것임을 밝히는 글이 있다.

『기묘제현수필』에는 모두 24명의 동료가 써준 31편의 전별시문이 총 48면에 수록되어 있다. 안처순에게 서·시 등을 지어준 이들은 훗날 기묘사화(1519)에 휘말려 죽음을 당한 인물들이 많은데, 이들을 기묘제현己卯諸賢 또는 기묘명현己卯名賢이라고 불렀으며, 『기묘제현수필』의 서명 역시 기묘제현이 쓴 수필이라는 뜻에서 붙여졌다.

『기묘제현수필』은 안처순이 기묘제현에게서 받은 서간을 모은 『기묘제현수첩』과 함께 16세기 정치사상사 및 서예사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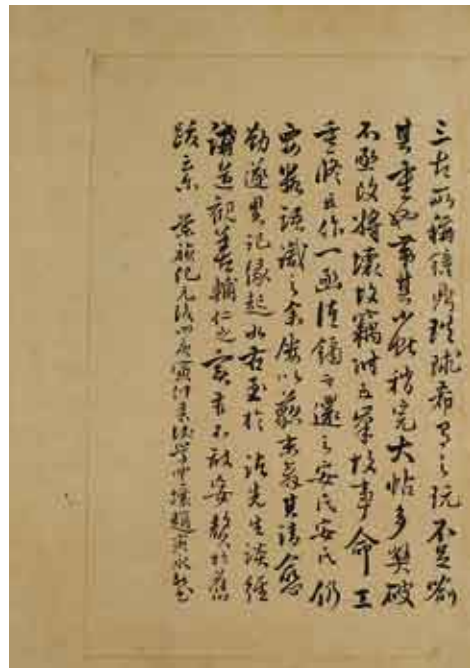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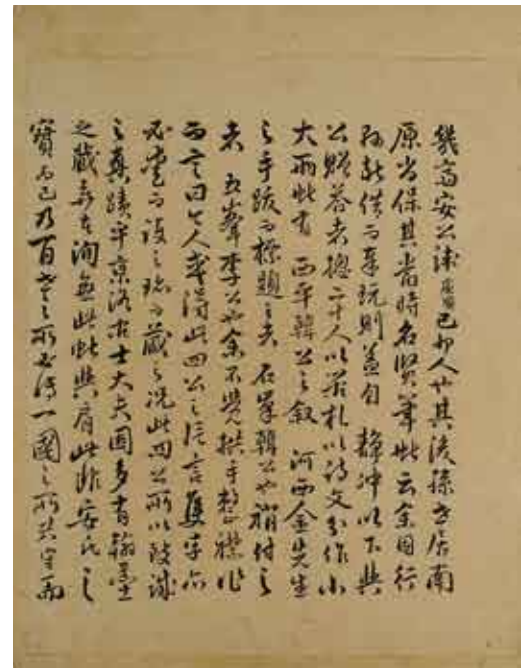
1

2 3 4

1. 기묘제현수필 표지, 2004_ 문화재청
2. 김인후의 서문, 2004_ 문화재청
3. 송병선의 글, 2004_ 문화재청
4. 조인영의 발문, 2004_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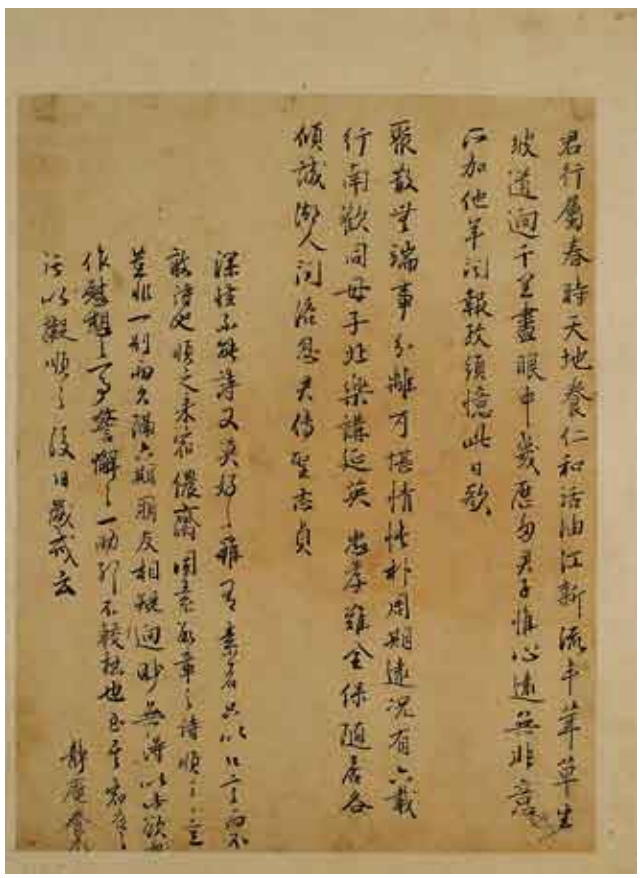




모이고 흩어짐은 끝없는 일이니 聚散無端事
헤어지는 감정은 슬퍼함 직하네. 分離可堪情
일 년도 멀어 슬픈데 悵朴周期遠
하물며 육년의 길을 떠남에랴. 況有六載行
남쪽에서는 모자가 함께함을 기뻐하고 南歡同母子
북쪽에서는 연영전延英殿에서 강론함을 즐거워하였네. 北樂講延英
충성과 효도 다 온전히 하기 어려우니 忠孝難全保
처한 바에 따라 각각 정성을 다해야 한다네. 隨居各傾誠
호남湖南 사람들 서울 소식 묻거든 湖人問洛息
그대는 성상의 올바른 뜻을 전하구려. 君傳聖志貞

나는 천성으로 시를 잘 짓지 못하고 또 좋아하지 않아서 비록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만 입으로만 말하고 감히 시를 짓지 못하였다. 순지順之가 나의 서재書齋에 찾아 와서 유숙留宿할 때에 굳이 몇 장章의 시를 지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니 순지의 뜻은 아마도 한 번 작별하면 6년의 긴 세월 동안 소식이 막힐 것이니 친구 사이에 서로 규계規戒해줌을 얻을 길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때문에 그리움을 위로하는 한 가지 일과 게으름을 경계하는 한 가지 도움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졸렬함을 따지지 않고 지난밤의 이야기를 써서 순지의 후일 경계로 삼는 바이다.

- 정암 조광조靜庵趙光祖 -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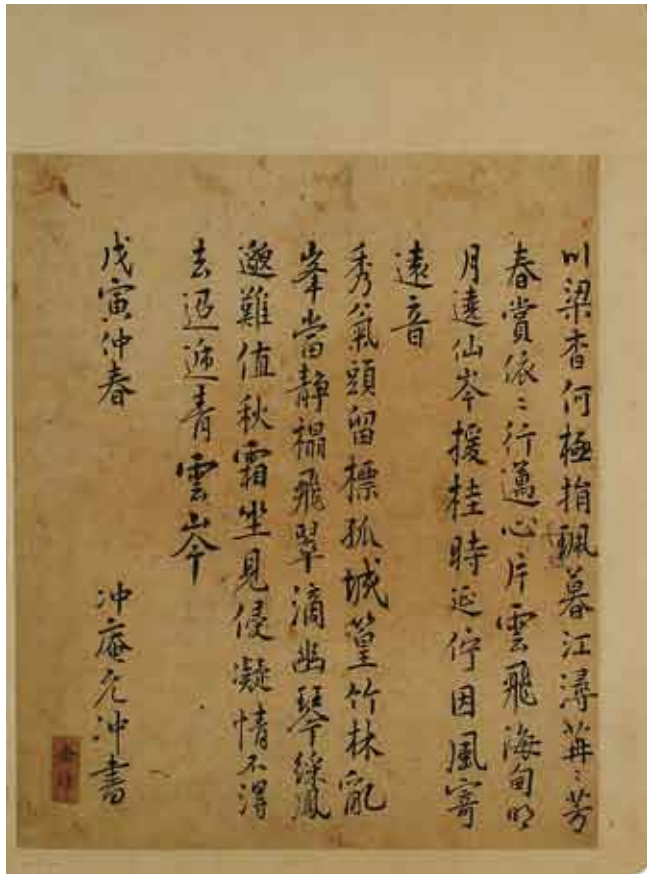
1. 조광조의 글, 2004_ 문화재청
2. 김정의 글, 2004_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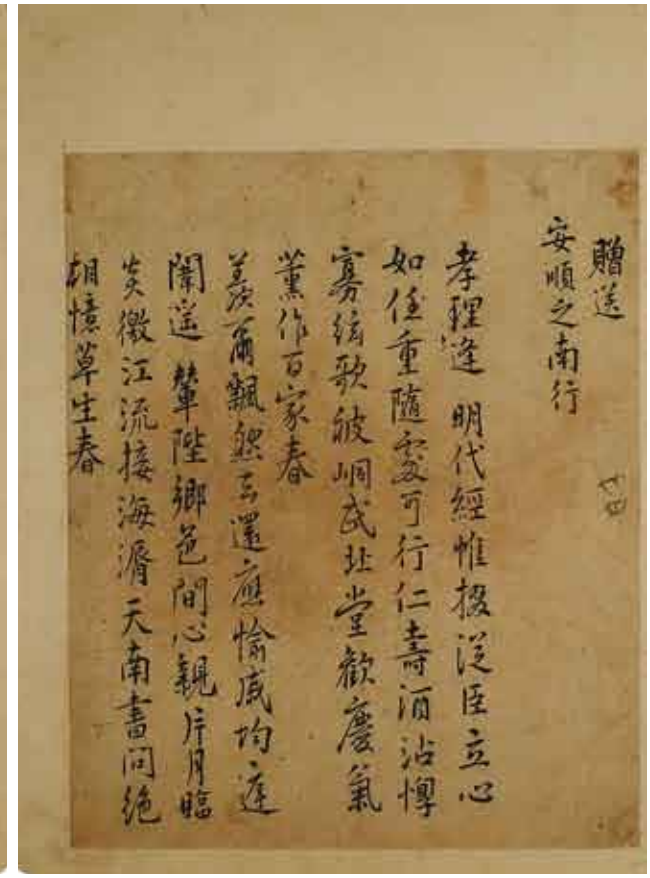
남쪽으로 부임하는 안순지에게 주어 전송함 贈送安順之南行
효도로 다스리는 밝은 시대를 만나 孝理逢明代
경연의 시종관이 떠나가네. 經帷掇從臣
마음을 세움에 중임을 맡은 것처럼 하면 立心如任重
가는 곳마다 인을 행할 수 있으리라. 隨處可行仁
축수하는 술 외로운 이와 과부들에게 흡족하고 壽酒沾惸寡
현가 소리 산골 백성들에게 울려 퍼진다. 絃歌被峒民
북당의 경사를 기뻐하는 기운 北堂歡慶氣
훈훈하게 백성들 집에 봄이 되었네. 薰作百家春
표연히 떠나는 그대 부러우니 羨爾飄然去
응당 기뻐하고 슬퍼하는 마음 같으리라. 還應愉戚均
정위를 모시려고 전폐를 멀리하니 庭闈遙輦陛
시골에는 마음으로 친한 자 있으리라. 鄉邑間心親
조각달은 남쪽 변방에 임하고 片月臨炎徼
흐르는 강물은 바닷가에 닿았도다. 江流接海濱
하늘 남쪽에 소식마저 끊기니 天南書問絶
풀 돋아나는 봄에 서로 생각하리라. 相憶草生春
냇물의 다리 어쩌면 이리도 아득한가 川梁杳何極
저문 강가에서 패옥佩玉을 버리네. 捐佩暮江潯

한가롭게 꽃다운 봄을 감상하고 苒苒芳春賞
아련히 길 떠나는 마음이라오. 依依行邁心
조각구름은 바다 고을에 날고 片雲飛海甸
밝은 달은 신선 봉우리를 맴도누나. 明月遶仙岑
계수나무 잡고 때로 멀리 바라보며 援桂時延佇
바람에 먼 소식 전하노라. 因風寄遠音
빼어난 기운 두류산頭流山에 우뚝하니 秀氣頭留標
외로운 성에 무성한 대숲이 있다오. 孤城篁竹林
어지러운 봉우리는 조용한 책상에 마주하고 亂峯當靜榻
나는 아지랑이 그윽한 거문고 적시누나. 飛翠滴幽琴
채색 봉황은 아득하여 만나기 어렵고 綵鳳邈難値
가을 서리는 앉아서 다가오겠지. 秋霜坐見侵
정이 많아 떠나갈 수 없으니 凝情不得去
청운의 산봉우리 아득하여라. 迢遞靑雲岑

무인년(1518, 중종13) 중춘仲春에 충암沖庵 원충元沖 지음

- 충암 김정沖庵金淨 -


贈送
安順之南行
孝理逢 明代經帷掇從臣立心
如任重隨處可行仁壽酒沾惸寡
絃歌被峒民北堂歡慶氣
薰作百家春
羨爾飄然去還應愉戚均
庭闈遙輦陛鄉邑間心親
片月臨炎徼江流接海濱天南書問絶
相憶草生春


川梁杳何極捐佩暮江潯苒苒芳春賞
依依行邁心片雲飛海甸明月遶仙岑援桂時延佇因風寄
遠音
秀氣頭留標孤城篁竹林亂
峯當靜榻飛翠滴幽琴綵鳳
邈難值秋霜坐見侵凝情不得
去迢遞靑雲岑
戊寅仲春
沖庵元沖書

보물 제1198호

기묘제현수첩

己卯諸賢手帖

조선시대(1517년~1531년)
1첩
세로 38.0㎝, 가로 27.0㎝
종이(닥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1994.05.02
소유자 : 순흥안씨 종중(사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기묘제현수첩』은 안처순思齋安處順(1492~1534)이 동료·친우들에게서 받은 서간書簡을 모은 것이다.

안처순의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순지順之, 호는 사재思齋 또는 기재幾齋로 고려시대 성리학을 처음으로 소개한 안향의 9대손이자 전적典籍을 역임한 안기安璣의 아들이다. 예문관검열을 거쳐 홍문관 박사와 구례현감 등의 벼슬을 지냈다. 1518년 홍문관 박사로 재직할 때 남원에 계신 모친을 위해 가까운 곳의 지방관을 자청하게 되면서 구례 현감에 제수되었다. 1519년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이행李荇과 함께 연루되었으나 겨우 화를 면하고 은퇴하였다가 뒤에 복관復官되었다.

『기묘제현수첩』의 앞쪽에는 한준겸韓浚謙(1557~1627)이 1603년에 쓴 지문識文이 있고, 뒤쪽에는 조광조의 11대손 조성교趙性敎가 쓴 1875년의 발문이 있다. 한준겸의 지문에서는 수필과 수첩의 한양 유입과정, 성첩 및 장황 경위 등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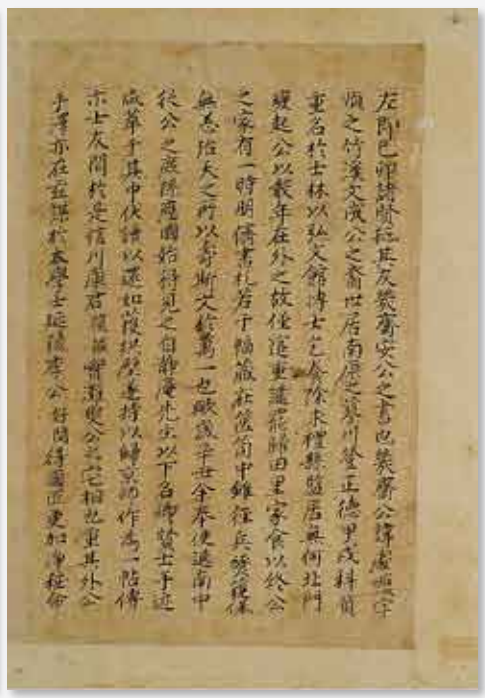
한준겸의 서문에 따르면, 1601년 당시 사도도체찰부사에 제수된 한준겸은 군비를 점검하기 위해 남원을 지나다가 안처순의 손자인 안응국安應國을 통해 서첩과 서간을 보게 되고, 이를 서울로 가지고 가 친우들에게 보이게 된다. 그중 당시 현조정랑을 역임하던 강복성康復誠(1550~1634)은 자신의 외조부인 이연경李延慶의 편지를 발견하게 되고 이에 대제학 이호민李好閔(1553~1634)과 상의하여 궁중장인을 동원해 다시 정결하여 정장淨粧토록 하고, '기묘제현수첩'이라

1

2 3

1. 기묘제현수첩 표지, 2005_ 문화재청
2. 한준겸의 지문, 2005_ 문화재청
3. 조성교의 발문, 2005_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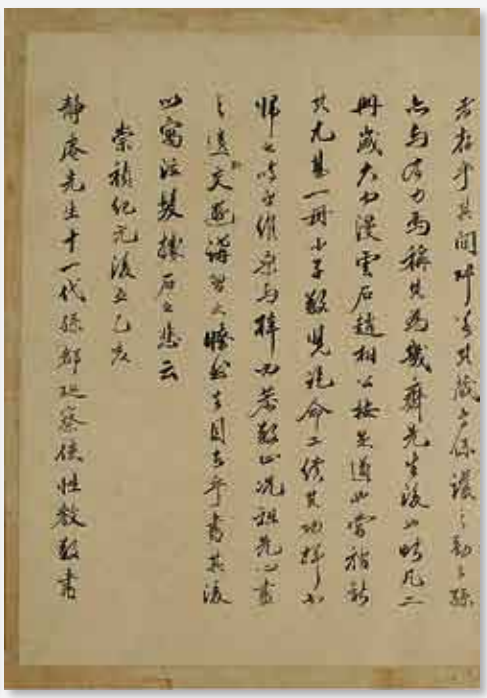
명명한 뒤 명필 한호韓濩(1534~1605)에게 부탁하여 표제表題를 썼다고 한다. 조성교의 발문에 의하면, 자신은 정암 조광조靜庵趙光祖의 11대손으로 이곳 도순찰사로 부임하여 이 서첩을 열람하고 전라감영에서 개장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서첩의 끝에도 '을해중추완영개장乙亥仲秋完營改粧'이라 하여 1875년(고종12) 중추仲秋 완영完營에서 개장改粧한 것임을 밝히는 장황기를 적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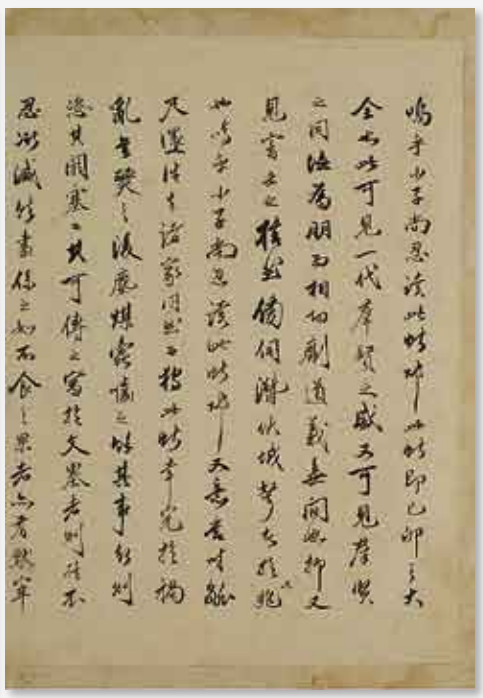
『기묘제현수첩』에는 모두 12명의 서간 39통이 70면에 실려 있다. 이들 서간은 1517년부터 1531년 사이에 작성된 것이며, 인물별로 서간의 수를 살펴보면, 장옥張玉, 조광조趙光祖, 성수완成守琓, 남주南趎는 1통씩, 정응鄭膺, 한충韓忠, 유용근柳庸謹은 2통씩, 이정경李廷慶은 3통, 박상朴祥, 김구金緑는 4통씩, 김정金淨은 5통, 최산두崔山斗는 11통으로 최산두의 서찰이 가장 많다.

안처순에게 서간을 보낸 이들은 훗날 기묘사화(1519)에 휘말려 죽음을 당한 인물들이 많은데, 이들을 기묘제현己卯諸賢 또는 기묘명현己卯名賢이라고 부른다. 이 서간첩에는 당시의 개인적인 정황(부채는 잘 받았다, 은순어銀脣魚를 보내달라는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음은 물론이고, 기묘사화와 관련된 당대 명현들의 필적이 모여 있어 사화士禍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아울러 구례 현감으로 부임하는 안처순에게 친우들이 지어준 송별시를 모은 『기묘제현수필』과 함께 중종연간의 정치사 및 서예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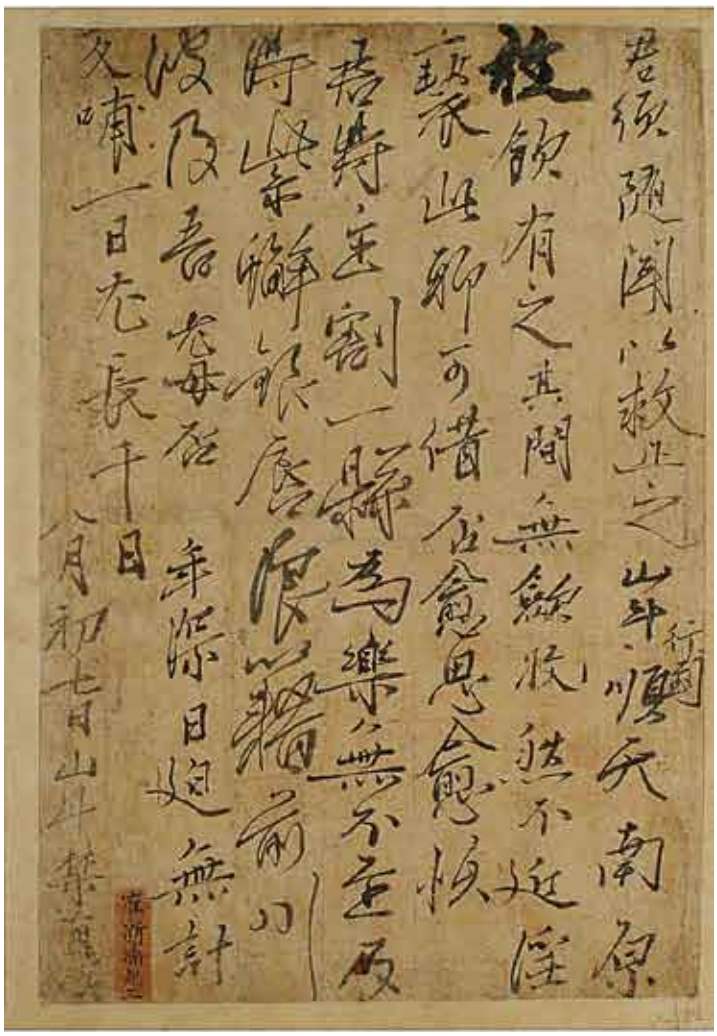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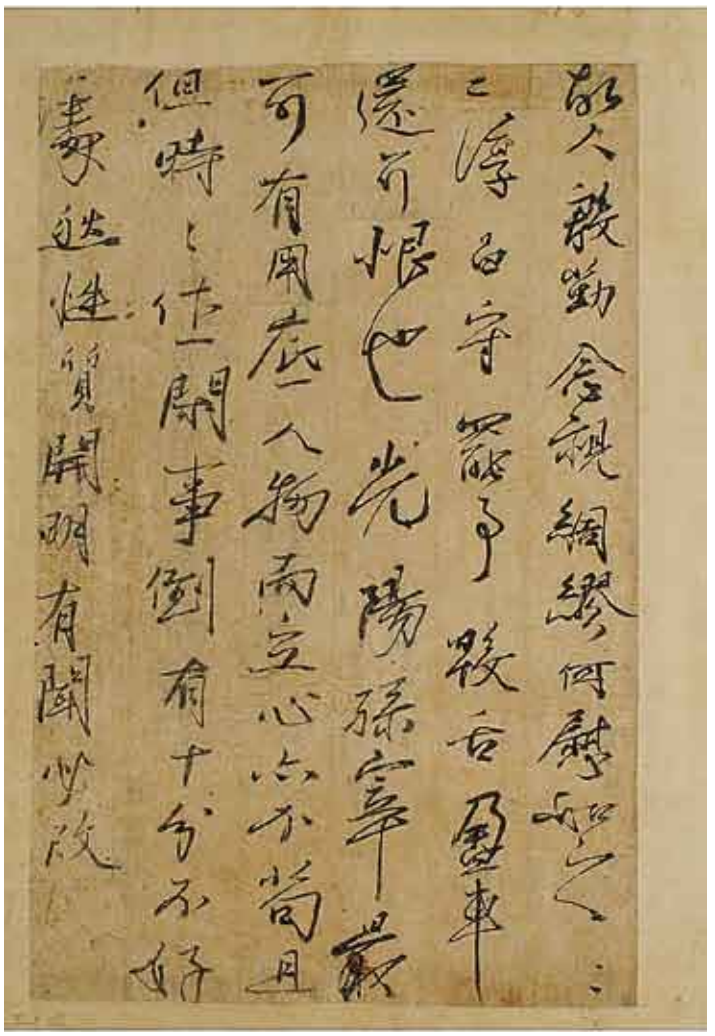




벗이 간곡히 보살피고 주선해주시니 어떤 위로가 이만하겠습니까. 순창 군수淳昌郡守가 파직된 일은 비방하는 말이 수레에 가득하니 참으로 한스럽습니다.
광양光陽의 손재孫宰는 가장 쓸 만한 인물이요 입지立志 또한 구차하지 않습니다. 다만 때때로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내어 아주 좋지 못한 점이 있으나 성질이 열려있고 밝아서 좋은 말을 들으면 반드시 잘못을 고치니 그대는 듣는 대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두山斗는 출행하여 순천順天과 남원南原에 이르러서 술을 크게 마셔 그 사이에 몸을 수렴收斂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음탕하고 설만褻慢함에는 가깝지 않았으니 그런 대로 용서해 줄만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할수록 더욱 두렵습니다. 그대는 한 고을을 맡아서 즐거움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붉은 게와 은순어銀脣魚가 앞의 냇가에 낭자하거든 우리 노모老母에게 좀 보내주실 수 없겠습니까? 연세가 많고 돌아가실 날이 임박하였는데 반포反哺 할 방법이 없으니 하루가 천 날처럼 깁니다.
8월 7일에 산두山斗는 금중禁中에서 숙직하며 대강 올립니다.

- 신재 최산두新齋崔山斗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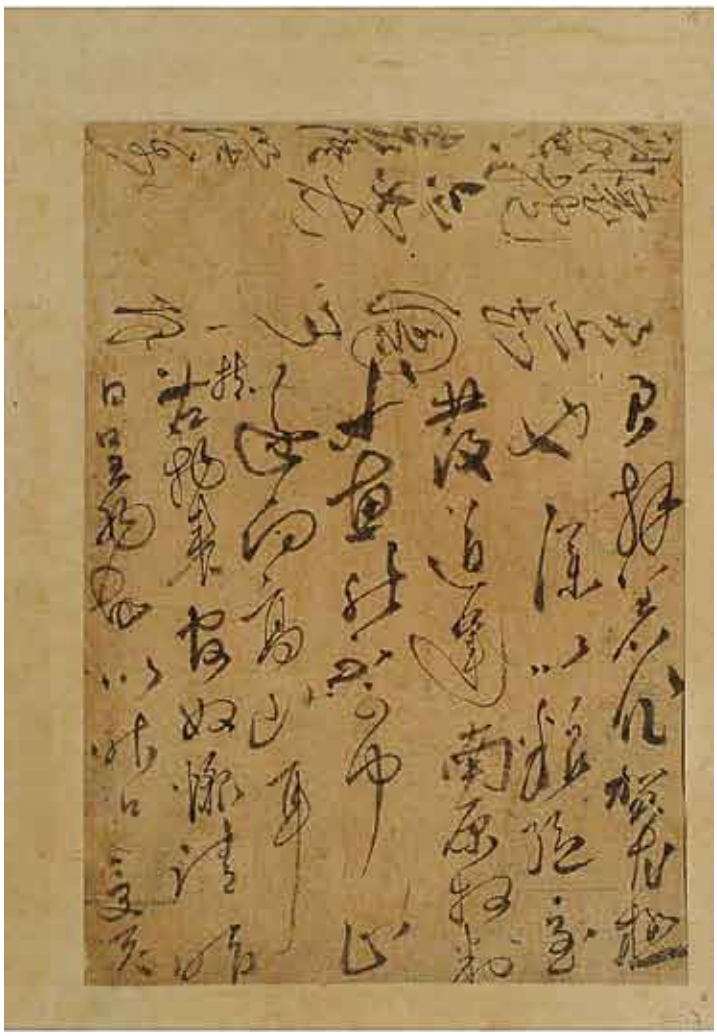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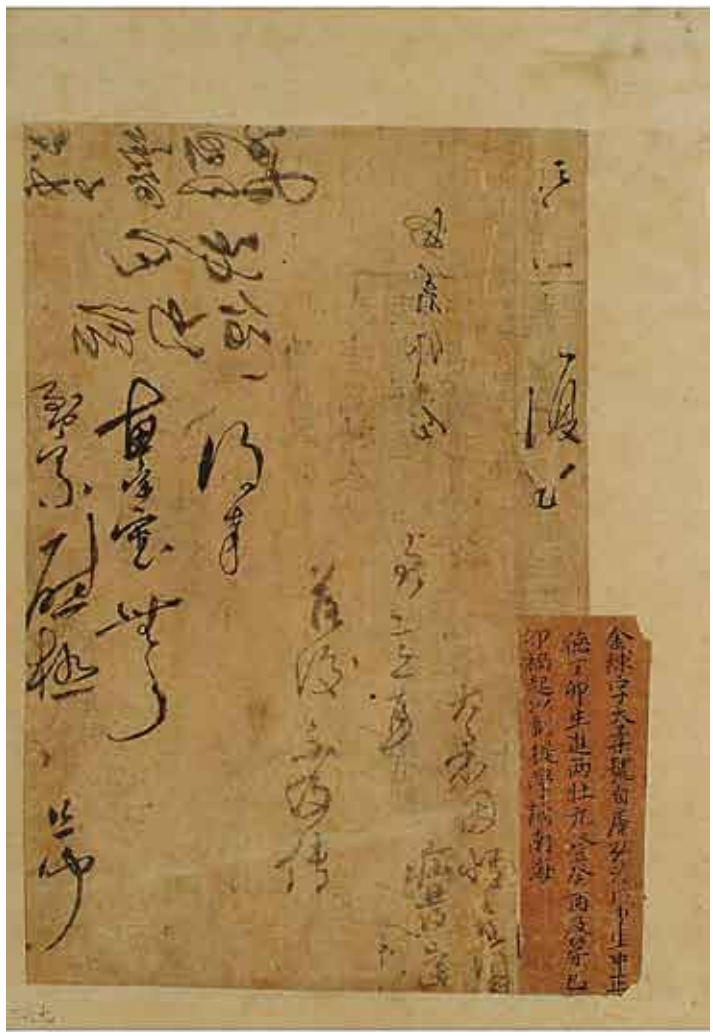
그대가 저작著作에 제수되셨다 하니 축하하는 마음이 더욱 지극합니다.
저는 양식이 떨어져서 급히 출발하였다가 도중에 남원 부사南原府使의 은혜를 입었으나 길을 중지할 수가 없어 마침내 고산高山으로 향했습니다. 위의 물건을 가지고 온 관노官奴가 어제 물건을 바친 것으로 해 달라고 간청하기에 어제 받았다고 준례準例대로 써서 주었으니 그대 또한 그렇게 아십시오. 참으로 우습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에 이르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장子長의 회포도 저와 같으니 자세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문안하는 서찰을 받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언징彦澄은 도보徒步로 오느라 뒤에 처져서 미처 그대의 뜻을 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저 대유大柔는 바쁘게 보내다가 도중에 산증疝症이 나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 대유 김구大柔金緑 -

1 2

1. 최산두의 편지글, 2005_ 문화재청
2. 김구의 편지글, 2005_ 문화재청





보물 제1211호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

조선시대(1464년)
1권 1책
세로 31.0㎝, 가로 19.1㎝
종이(닥종이)
동두천시 평화로2910번길 406-65

지정일 : 1994.10.17
소유자 : 자재암(사유)
관리자 : 자재암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는 당나라 법장法藏이 찬술한 『반야심경약소般若心經略疏』에 송나라 중희仲希가 찬술한 『현정기顯正記』를 저본으로 세조의 왕명에 따라 효령대군孝寧大君과 한계희韓繼禧 등이 국역國譯하여 1464년(세조10)에 간행한 불경이다.

이 책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판식版式은 사주쌍변四周雙邊에 계선界線이 있고, 반엽을 기준으로 8행에 한 행의 글자 수는 19자이다. 중앙의 판심부에는 상하에 대흑구大黑口가 보이며, 그 사이로 상하흑어미上下黑魚尾가 서로 내향하고 있다. 상어미 아래에는 '심경心經'이란 판심제가 보이며, 그 아래에는 장수가 표시되어 있다. 지질은 얇게 뜬 저지楮紙로 조선 초기 세종에서 성종연간에 자주 사용되었던 인경지印經紙이다.

권수에는 1464년(세조10)에 황수신黃守身이 쓴 진전문進箋文인 '진금강경심경전進金剛經心經箋'이 실려 있다. 권수면에는 내용을 알 수 없는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고, 아래에는 간경도감 '교정校正'인이 찍혀 있다. 전문에 이어 권두제에는 '반야심경소현정기병서般若心經疏顯正記幷序'라는 서제序題가 기재되어 있고, 다음 행에 '진운사문석 중희 술縉雲沙門釋 仲希 述'이란 저자 표시가 있다. 그리고 5행에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라는 서명이 보이고 있으며, 이하 약소의 내용이 장14까지 수록되어 있다. 장15부터는 심경의 내용이 주석과 함께 수록되어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

권말에는 한계희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말미의 일부가 잘려있



다. 이 발문에 의하면 효령대군과 한계희가 왕명으로 『반야심경소』를 국역하고 당시 교종판사敎宗判事인 해초海超 등 고승과 대군의 교정을 거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목판에 새겨 간행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계희의 발문이 1464년 2월, 전문은 그해 4월에 쓰인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 시기에 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자재암自在庵 소장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와 동일한 판본은 서울대 규장각과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3곳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쇄면의 글자 상태로 보아 초간본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1. 황수신이 쓴 진금강경심경전, 2005_ 문화재청
2.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권두제, 2005_ 문화재청
3.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장15, 2005_ 문화재청
4. 한계희의 발문, 2005_ 문화재청

보물 제1216호

손소 초상

孫昭 肖像

조선시대(1476년)
1폭
세로 160㎝, 가로 105㎝
비단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1995.03.10
소유자 : 손성훈(사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손소 초상>은 조선 초기의 무신인 손소孫昭(1433~1484)를 그린 초상화이다. 손소의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일장日章, 호는 송재松齋로, 손현검孫玄儉의 증손이자 할아버지는 손등孫登이고, 아버지는 증 병조참판 손사성孫士晟, 어머니는 권명리權明理의 딸이다. 1463년(세조9)에 문예시文藝試 장원, 성균주부, 병조좌랑을 지냈다. 1467년(세조13) 이시애의 난 때 종묘서령宗廟署令으로 강순의 종사관이 되어 출정하였고, 난이 평정된 뒤 적개공신敵愾功臣이 되어 내섬시정內贍寺正에 특진했다. 그 후 성주목사, 공조참의工曹參議를 거쳐 계천군溪川君에 봉해지고, 안동부사, 진주목사 등을 역임했다. 시호는 양민襄敏이다.

손소 초상은 검은색 사모에 아청색 단령團領을 입고 의자에 공수拱手자세로 앉아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가슴에는 화려한 금색의 구름과 학이 그려진 흉배가 부착되어 있으며, 허리춤에는 무소의 뿔로 장식한 서대를 착용하고 있다. 사모는 각이 없이 둥근 형태로 타원형의 양각이 수평으로 부착되어 있다. 외곽선이 각 지게 표현된 단령은 목이 파진 부분이 옆으로 완만하게 넓으며 직령이 목 바로 아래까지 곧게 뻗어있다. 단령 소매 사이로 흰 창의가 짧게 나와 있으며 단령의 트임 사이로는 직령과 붉은 포가 드러나 있다. 바닥에는 아무것도 깔려 있지 않고 족좌대足座臺 위에는 백피혜白皮鞋(흰색 가죽 신발)를 신고 나란히 올려놓은 발이 일부 보이고 있다. 의자는 손잡이 끝부분만이 몸체 양쪽으로 살짝 드러나 있고, 방석을 고정시켰던 끈으로 추정되는 자색의 끈이 의자에 묶여 있는 모습이다.

손소 초상은 현재 전해오는 장말손 초상(보물 제502호), 오자치 초상(보물 제1190호) 등 다른 적개공신상들과 동일한 면모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초상은 그가 적개공신 2등에 녹훈된 것을 기념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손소의 문집『양민공유사襄敏公遺事』중「양민공연보襄敏公年譜」에 따르면 '憲宗皇帝成化十二年丙申(헌종황제성화12년병신) 上命忠勳府圖畫諸功臣影像賜給藏于本家(상명충훈부도화제공신영상 사급장우본가)'라는 기록이 있어 이 초상은 공신호가 내려진 후 10년이 경과한 1476년(성종7)경에 성종이 충훈부忠勳府에 명하여 공신의 영상影像을 그려 본가에서 소장하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주서朱書로 '右鷄川君孫俟昭之眞成化十二年丙申上命忠勳府圖諸功臣影焉賜時俟年四十四爾(우계천군손 사소지진 성화12년 병신 상명충훈부도제공신영언사 시사 연사십사이)'라는 표제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후세에 써 넣은 것으로 보인다.

손소초상은 조선 초기 공신도상의 전형을 잘 드러내주는 작품으로 조선 초기 초상화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양좌영각良佐影閣에 봉안되어 있다가 현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위탁 보관되고 있다.



손소 초상, 2013_ 문화재청

보물 제1219-2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상2의2, 권하3의1~3의2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 卷上二之二, 卷下三之一~三之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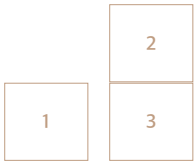
조선시대(1465년)
3권 2책
1책 - 세로 27.7㎝, 가로 18.0㎝
2책 - 세로 27.5㎝, 가로 18.2㎝
종이(닥종이)
하남시 하남대로545번길 180

지정일 : 2008.06.27
소유자 : 광덕사(사유)
관리자 : 광덕사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상2의2, 권하3의1~3의2>는 1465년(세조11) 주자소鑄字所에서 금속활자인 을유자乙酉字로 인출한 불교경전이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북인도의 고승인 불타다라佛陀多羅가 한역漢譯한 것으로 『대방광원각경』, 『원각수다라요의경』, 『원각요의경』으로 불리는데, 흔히 『원각경』이라고 한다. 관심수행觀心修行을 위주로 원만한 깨달음에 이르는 중요한 방법을 설說한 대승경전大乘經典으로서 석가여래가 12명의 보살과 문답한 것을 제1 문수보살장文殊菩薩章, 제2 보현보살장普賢菩薩章, 제3 보안보살장普眼菩薩章, 제4 금강장보살장金剛藏菩薩章, 제5 미륵보살장彌勒菩薩章, 제6 청정혜보살장淸淨慧菩薩章, 제7 위덕자재보살장威德自在菩薩章, 제8 변음보살장辯音菩薩章, 제9 정제업장보살장淨諸業障菩薩章, 제10 보각보살장普覺菩薩章, 제11 원각보살장圓覺菩薩章, 제12 현선수보살장賢善首菩薩章으로 구성하여 상·하편에 나누어 수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현전본으로는 1380년(우왕6)에 이색이 지은 발문이 있는 고려본을 비롯하여, 1461년(세조7)에 을해자乙亥字로 간행한 활자본, 1464년(세조10)에 함허 득통得通이 주석을 단 한문본, 1465년에 세조가 정문에 구결을 달고 이를 언해하여 개판한 간경도감 국역본, 1465년에 간경도감 언해본을 저본으로 재편한 을유자로 찍어낸 활자본 등이 있다. 이밖에 조선시대에 간행된 사찰본으로 1570년(선조3)에 전라도 안심사에서 간경도감판을 복각한 판본 등 대략 12종이 알려져 있다.



1.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상2의2 제3 보안보살장, 2011_ 문화재청
2.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하3의1 제9 정제업장보살장, 2011_ 문화재청
3.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하3의2 제11 원각보살장, 2011_ 문화재청



이처럼 다양한 판본 가운데 하남 광덕사 소장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종밀宗密이 소초疏鈔한 것에 세조가 한글로 구결을 달아 간행된 간경도감 국역본을 저본으로 1465년(세조 11) 주자소에서 경문의 한글 구결 부분만을 편집하여 을유자로 인출한 금속활자본이다.

을유자는 1465년 원각사를 준공한 기념으로 세조의 명에 따라 정난종鄭蘭宗(1433~1489)이 쓴 송설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활자이다. 을유자로는 대자·중자·소자의 동활자를 주로 주조하였으며, 구결을 인쇄하기 위하여 한글 활자도 주조하였다. 그러나 글자의 모양이 바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로 불경을 간행할 목적으로 주성鑄成되었던 까닭에 당시 유신들의 강한 반대로 사용되지 못하다가 갑진자甲辰字 주조 시 이 활자를 녹여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래본傳來本이 많지 않은 편이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의 상편은 일一과 이二로 구분하고, 하편은 일一, 이二, 삼三으로 구분하며, 상일上一을 다시 일一과 이二로, 상이上二를 일一, 이二, 삼三으로, 하편 일一, 이二, 삼三을 각각 일一, 이二로 다시 분권되어 있다.

하남 광덕사 소장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상편의 2의2, 하편의 3의1, 3의2로 구성된 3권 2책의 결본缺本이다. 상편 2의2에는 제3 보안보살, 하편 3의1에는 제9 정제업장보살, 제10 보각보살, 하편 3의2에는 제11 원각보살, 제12 현선수보살과의 문답 내용을 담고 있다.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판식版式은 사주단변四周單邊에 계선界線이 있고, 반엽 6행에 한 행의 경문은 대자13자, 소자19자씩 배자되어 있다. 판심版心에는 상하흑어미上下黑魚尾가 서로 내향하고 있으며, 어미 사이에 있는 판심제版心題는 '圓覺'이다.

권수의 첫 행에는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이라는 서제序題와 '상이지이上二之二', '하삼지일下三之一', '하삼지이下三之二'라는 권수가 표시되어 있다. 다음 행에는 '종남산초당사사문終南山草堂寺沙門 종밀宗密 소초疏鈔'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 책은 종밀이 소초한 것의 국역판본을 저본으로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전래본이 많지 않은 을유자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으로 초인본이라 인쇄상태가 깨끗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15세기 국어학 및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 책의 동일본으로는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상1의2,하1의1~2의2(보물 제1219-1호), 권하 1의1~2, 2의1~2(보물 제1219-3호), 권상 1의1(보물 제1514호) 등이 있다.



보물 제1225호

묘법연화경 권7(언해)

妙法蓮華經 卷七(諺解)

조선시대(1472년)
1책
세로 32.5㎝, 가로 23㎝
종이(닥종이)
김포시 승가로 123

지정일 : 1995.07.19
소유자 : 중앙승가대학교(사유)
관리자 : 중앙승가대학교



<묘법연화경 권7(언해)>은 406년 후진後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344~413)이 한역漢譯한 것을 저본으로 송나라 계환戒環이 본문의 뜻을 쉽게 풀이한 주해본註解本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제법諸法의 실상을 바로 깨치면 일체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승경전大乘經典으로 『법화경法華經』으로 약칭된다.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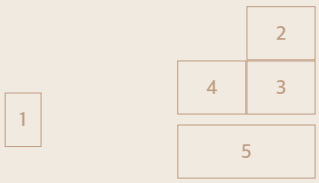
이 판본은 송나라 계환이 주해註解하고 일여一如가 집주集註 한 것을 조선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국역하여 1463년(세조9) 9월에 목판으로 판각한 것으로 이 책은 그 판에서 1472년(성종3)에 찍어낸 것이다.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판식版式은 사주단변四周單邊에 계선界線이 있고, 반엽 9행에 한 행의 글자 수는 17자이다. 판심版心에는 상하에 흑구黑口가 보이고, 그 사이로 상하흑어미上下黑魚尾가 서로 내향하고 있으며, 판심제版心題는 '법화경권7法華經卷七'이다.

본래 법화경 권7에는 제24품에서 제28품에 해당하는 묘음보살품妙音菩薩品,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 다라니품陀羅尼品, 묘장엄왕본사품妙莊嚴王本事品,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책은 그 중 제26품에서 제28품까지의 내용만을 수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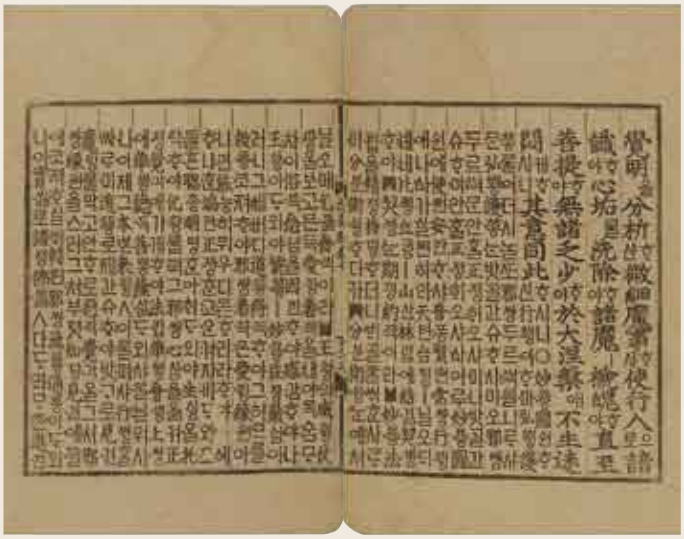
이 책의 권말에는 갑인소자甲寅小字로 된 김수온金守溫(1410~1481)의 발문跋文이 남아있다. 이 발문에 의하면, 이 책은 인수대비仁粹大妃(1437~1504)가 세조·예종·의경왕(덕종)의 초생정계超生淨界, 인성대군仁城大君의 선지수생善地受生, 세조의 비 정희대왕대비貞喜大王大妃와 성종 및 성종비 공혜왕후恭惠王后의 수복壽福, 그리고 먼저 떠난 친정 부모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간행되었으며, 1463년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목판으로 1472년에 인출하였다고 한다. 또한 인수대비는 여러 경판의 소장처로 사람을 보내어 총 29종의 경판을 모았고 적게는 5부, 많게는 500부까지 모인模印하게 하였으며 그 전체에 걸친 동일한 발문을 작성하고 갑인소자로 찍어 각 경의 말미에 붙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화경』은 인수대비의 발원에 의해 인출한 29종의 불경 중 간경도감 판본에서 찍어낸 60부 중 하나로 15세기 중반의 한글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자 당시의 왕실불교 경향 및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1. 묘법연화경 권7(언해) 표지, 2004_ 문화재청
2~4. 묘법연화경 권7(언해) 제27품 묘장엄왕본사품, 2004_ 문화재청
5. 김수온의 발문, 2004_ 문화재청











보물 제1239호

감로탱화

甘露幀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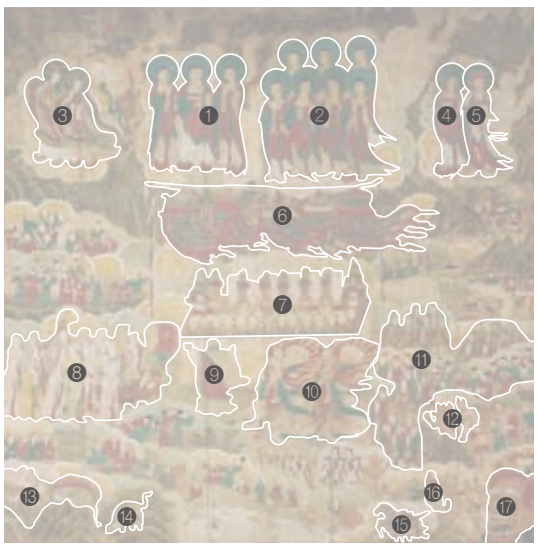
조선시대(1681년)
1폭
세로 220.3㎝, 가로 197.5㎝
삼베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지정일 : 1996.04.04
소유자 : 우학문화재단(사유)
관리자 : 용인대학교

<감로탱화>는 1681년(숙종7) 철현哲玄, 영현靈現, 행청行淸, 탁진卓眞 등의 화승이 그린 불화이다. 감로탱화는 죽은 이의 영혼을 극락세계로 보내는 영가천도靈駕薦度때 주로 봉안하며 조선시대에 성행하였다. 우학문화재단이 소장한 이 감로탱화는 국내 현존 작품 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석사 감로탱화(1649)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작품이며, 세계적으로도 일본의 약산사藥山寺(1589), 조전사朝田寺(1591)에 이어 네 번째로 오래된 작품이다.

이 감로탱화는 형식상으로는 상·중·하의 3단 구도로 되어 있고, 내용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三世의 시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상단에는 이상세계理想世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뾰족하게 솟은 봉우리의 험준한 산악을 청록산수靑綠山水 기법으로 묘사하여 불보살이 하늘에서 내영하는 모습을 더욱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중앙에는 일곱 여래七如來와 세 여래三如來가 각각 그려져 있으며, 그 좌우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관음보살과 지장보살, 번幡을 들고 여래를 향하여 몸을 비틀고 서있는 인로왕보살 2구가 묘사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극락왕생하는 고혼孤魂(외로운 넋)들을 맞이하여 극락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감로탱화처럼 인로왕보살을 2구로 그린 예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아마도 반대편의 관음지장보살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단은 굶주림의 고통을 받는 아귀들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시아귀施餓鬼의 광경이다. 넓은 시식대施食臺 위에 성반盛飯이 가득 차려져 있고, 제사상 위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오색번五色幡이 휘날리고 있어 의식을 행하는 현장의 모습을 더욱 실감나게 해주고 있다. 그 앞에는 의례를 지내는 승려와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아귀餓鬼 한 쌍이 묘사되어 있으며, 제단 좌측으로는 한 무리의 승려들이 법고法鼓와 바라, 요령 등을 들고 제단을 향해 서서 시식의례施食儀禮를 행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❶ 아미타삼존불
❷ 칠불
❸ 인로왕보살
❹ 지장보살
❺ 관음보살
❻ 번개화금줄
❼ 제단
❽ 승려들의 법회장면
❾ 집전승(執典僧)
❿ 아귀
⓫ 왕후장상
⓬ 감로를 받으려는듯 발우를 받치고 있는 작은아귀떼
⓭ 지옥
⓮ 호랑이에게 물려죽는 모습
⓯ 말발굽에 깔려죽는 모습
⓰ 뱀에 물려죽는 모습
⓱ 아귀머리



감로탱화, 2011_ 우학문화재단

중단에서부터 하단에 걸쳐서는 삼세의 윤회를 반복해야하는 다양한 고혼들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다. 고혼들은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중단의 제단과 가깝게 배치된 고혼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버린 관원, 장사, 병졸들과 선업을 이룬 왕과 후비, 불교와 관련된 비구·우바이·우바새 그리고 당시 사찰을 근거지로 활약했던 걸립패 등이다. 이들은 무릎을 꿇은 채 합장을 하고 있거나, 홀을 들고 있다. 아래 부분에 묘사된 도상은 물에 빠져 죽는 사람, 달리는 말발굽에 깔려 죽는 사람, 독사에 물려 죽는 사람,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사람, 돌에 깔려 죽는 사람 등 예측 못한 죽음을 맞이한 고혼들의 모습들이다.

하단의 우측 모서리에는 아귀의 얼굴이 놓여있고 아귀의 입속에는 세 사람이 다소곳이 앉아 있다. 아마도 이제 막 죽음을 맞이한 고혼으로서 아귀로 탄생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귀의 커다란 입은 아귀도에 들어가는 고혼들의 출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 입을 통하여 들어간 고혼들은 작은 모습의 아귀가 되어 커다란 아귀의 머리 위 화염 속에서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 아귀의 얼굴 주변에는 이렇게 탄생한 작은 아귀의 무리가 벗은 몸을 한 채 감로를 갈구하며 제단을 향해 나서고 있다. 그림 화면 곳곳에 이와 같은 모습의 아귀가 나타나는데, 때로는 고혼의 모습을 띠기도 하고, 때로는 입에서 불을 뿜어내는 아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감로탱화의 화면 아래쪽에는 감로탱화의 제작일시, 시주자施主子, 화사畵師의 이름이 나열된 화기가 묵서되어 있다. 화기에 따르면 이 감로탱화는 '康熙二十年(강희20년)' 즉 1681년(숙종7) 제작된 불화로 송절이宋節伊, 박노정朴路貞 등 다수의 상궁들이 시주에 참여하였으며, 철현哲玄, 영현靈現, 행청行淸, 탁진卓眞 비구 등에 의해 그려진 것을 알 수 있다.

우학문화재단 소장 감로탱화는 16세기 형성된 감로탱 초기 양식을 계승하면서 이후 도상이 정립되어가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까지의 과도기적 양상, 18세기부터 정형화되는 도상적 특징 등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선구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1 2

1·2. 감로탱화 세부, 2011_ 우학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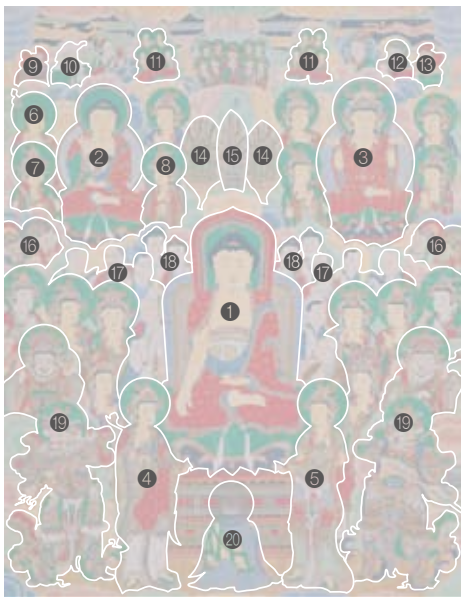
보물 제1256호

칠장사삼불회괘불탱

七長寺三佛會掛佛幀

조선시대(1710년)
1폭
세로 628㎝, 가로 454㎝
삼베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

지정일 : 1997.08.08
소유자 : 칠장사(사유)
관리자 : 칠장사



❶ 석가모니불 ❷ 아미타불 ❸ 노사나불 ❹ 보현보살 ❺ 문수보살 ❻ 지장보살 ❼ 대세지보살 ❽ 관음보살 ❾ 아수라 ❿ 야차 ⓫ 시방제불 ⓬ 건달바 ⓭ 가루라 ⓮ 보수(寶樹) ⓯ 보탑 ⓰ 팔부중 ⓱ 십대제자 ⓲ 타방불 ⓳ 사천왕 ⓴ 청문자

<칠장사삼불회괘불탱>는 1710년(숙종36) 승장勝藏, 인혜印惠, 경상敬尙, 현책玄冊, 영안玲眼 등 5명의 화승이 그린 불화이다. 영산회괘불도는 석가모니가 영축산靈鷲山에서 『법화경法華經』을 설하는 장면을 묘사한 도상으로 사찰 내 대웅전이나 영산전에 봉안되거나 야외에서 의식을 행할 때 걸 수 있도록 괘불탱으로 조성되었다.

칠장사 삼불회괘불탱의 화면구성은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한 하단과 노사나불과 아미타불이 있는 상단으로 구성된다. 하단은 키모양의 광배에 결가부좌한 석가모니불을 8대보살·10대제자·사리불·제석천과 범천·사천왕·금강역사 등의 협시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형상이다. 좁은 어깨를 덮은 통견通肩의 법의를 걸친 석가모니불은 신체에 비해 다소 크게 묘사된 방형의 얼굴에 올라간 눈과 쳐진 눈썹, 작은 입 등이 표현되어 있으며 표정이 경직되고 엄숙한 느낌이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연꽃을, 관음보살은 오른손에 연꽃, 왼손에 정병을 들고 있으며, 나머지 권속들은 합장한 자세이다. 수미단 앞에는 석가모니불에게 법을 청하는 사리불존자舍利弗尊者의 뒷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설법을 듣는 청문자聽聞者의 모습으로 사리불이 등장하는 도상은 명대明代 「법화경변상도」에 이어 조선전기 「법화경변상도」의 영향을 받아 그려진 것으로서 괘불에서는 보기 드문 예이다.

상단에는 보탑寶塔과 보수寶樹 좌우로 두 손을 어깨 높이까지 들고 있는 노사나불과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하고 있는 아미타불좌상이 각각4구의 보살을 거느리고 있다. 노사나불은 보살형으로 영락장식이 화려한 보관에 설법인을 결하고 있으며, 아미타불은 지장보살과 대세지보살 등 4대보살이 협시하고 있다. 최상단에는 용왕·용녀·야차·건달바·아수라·가루라 등이 배치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반원형의 광배 안에 9구의 보살과 좌우 5구씩의 타방불他方佛이 천상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불화는 보통 붉은 색, 녹색, 남색의 진채眞彩 위주로 그려지는데 비해 이 괘불탱은 밝은 적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하고 노란색, 하늘색 등의 중간색을 사용하여 맑고 산뜻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옷 문양에는 금니金泥를 일부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불·보살상의 신체는 살구색, 천중天衆의 얼굴은 흰색으로 구별하여 크기와 채색에서도 불佛·보살菩薩과 신중神衆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칠장사 삼불회괘불탱 화면 아래쪽 주선 외곽에는 화기가 묵서되어 있다. 화기에 따르면 이 삼불회괘불탱은 '康熙四十九年庚寅五月(강희49년 경인5월)' 즉 1710년에 완성되었고, 인혜비구印惠比丘, 경상비구敬尙比丘, 현책비구玄冊比丘, 영안비구玲眼比丘 등의 화승이 참여하여 제작되었으며, 탄명비구坦明比丘 1인이 주상삼전하主上三殿下와 그의 어머니比丘坦明爲母를 위해 '대영산회괘불탱大靈山會掛佛幀' 1부를 조성하면서 미타회탱 1부, 현왕탱 1부를 함께 조성하였다고 한다.

칠장사삼불회괘불탱은 삼신불사상과 삼세불사상을 가장 간략하게 묘사한 불화로, 하단에는 영산회상도, 상단은 노사나불과 아미타불을 묘사하고 있어 상단을 떼어내어도 단독의 영산회상도가 되는 독특한 도상이다. 이러한 구성은 조선 전기에 대두된 이래, 조선 후기 괘불탱에 성행하였다.



칠장사삼불회괘불탱, 2015_ 성보문화재연구원

보물 제1257호

청룡사영산회괘불탱

靑龍寺靈山會掛佛幀

조선시대(1658년)
1폭
세로 900㎝, 가로 656㎝
삼베
안성시 서운면 청룡길 140

지정일 : 1997.08.08
소유자 : 청룡사(사유)
관리자 : 청룡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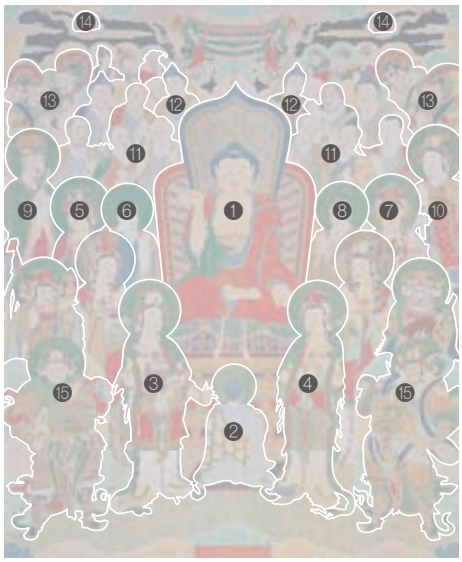
<청룡사영산회괘불탱>은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6대보살, 10대 제자, 범천·제석천, 사천왕, 팔부중 등이 에워싼 모습이다. 중앙의 석가모니불은 사각대좌에 결가부좌한 모습으로 오른손은 어깨까지 올리고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채 무릎에 둔 특이한 설법인을 취하고 있다. 좌상형식의 영산회상도가 대체적으로 항마촉지인의 수인을 하고 있는데 비해 청룡사영산회괘불탱은 유일하게 설법인의 수인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석가모니불의 얼굴은 네모진 형태로 가운데에는 이목구비가 작게 표현되었으며 키모양의 광배光背는 덩굴무늬, 불꽃무늬로 화려하게 채워져 있다. 제석천은 화관을 쓰고 둥근 목깃의 천의天衣를 입은 모습이며, 범천은 면류관에 홀笏을 든 제왕의 모습이다. 6대보살은 연꽃을 든 문수보살, 연꽃에 경책經冊을 얹은 보현보살, 보관寶冠에 화불化佛을 모신 관음보살, 보관에 정병이 뚜렷한 대세지보살 그리고 합장한 두 보살이다. 둥근 두광의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만 석가모니불 가까이에 위치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상단에 배치되어 있다. 석가모니불의 위쪽 최상단에는 보개寶蓋 좌우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타방불, 용왕과 용녀, 팔부신중인 야차夜叉와 건달바乾闥婆, 금강역사상이 표현되어 있다. 국화와 연꽃이 흩어진 하단의 녹색 불토佛土에는 우람한 체격에 화려한 갑옷을 입고 선 사천왕과 석가모니불에게 법을 청하는 사리불존자의 뒷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설법을 듣는 청문자의 모습으로 사리불이 등장하는 이러한 도상은 명대明代 「법화경변상도」에 이어 조선전기 「법화경변상도」의 영향을 받아 그려진 것으로서 괘불에서는 보기 드문 예이다.

불화는 보통 붉은 색, 녹색, 남색의 진채眞彩 위주로 그려지는데 비해 이 괘불탱은 적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담채淡彩를 병용하여 맑고 산뜻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노란색, 하늘색 등의 중간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불·보살상의 신체는 살구색, 천중天衆의 얼굴은 흰색으로 구별하여 크기와 채색에서도 불·보살과 신중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청룡사영산회괘불탱의 화면 아래쪽 중앙의 붉은색 화기란과 주선의 외곽부분에는 시주질施主秩, 축원문, 제작화승, 조성 연월일 등의 화기가 묵서되어 있다. 화기에 따르면 순치 15년인 1658년(효종9) 이 괘불을 조성하였고, 왕·왕대비·왕비·세자의 만수무강을 빌기 위해 성주 김홍석 부부가 발원하여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곽선 밖의 묵서에는 화원 사과司果 박란朴蘭을 비롯하여 명옥明玉, 응상應尙, 정심淨心, 법능비구法能比丘 등 청룡사영산회괘불탱을 제작한 인물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박란은 오위五衛에 두었던 정6품의 군직軍職인 사과司果를 부여받은 인물로 도화서에 소속된 화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후기 일반적으로 불화의 제작을 승려집단이 맡았었는데 이 불화에서 화원의 이름이 맨 머리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다. 법능비구는 명옥비구와 함께 진천 영수사 영산회괘불도를 조성한 승려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1682년(숙종8) 청룡사감로탱 불사에서 수화승으로 불화의 제작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청룡사영산회괘불탱은 직접적으로 왕실의 인물을 축원하는 문구가 적혀있을 뿐만 아니라 인목왕후 김씨仁穆王后金氏(1584~1632)의 친정조카인 김홍석이 시주로 참여하였고, 화원이 제작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왕실발원 불화로 볼 수 있으며 17세기에 사례가 많지 않은 왕실과 관련이 깊은 불화로서 의미가 깊다.



❶ 석가모니불
❷ 청문자
❸ 보현보살
❹ 문수보살
❺ 대세지보살
❻ 관음보실
❼ 아난존자
❽ 가섭존자
❾ 범천
❿ 제석천
⓫ 십대제자
⓬ 타방불
⓭ 팔금강
⓮ 시방제불
⓯ 사천왕



청룡사영산회괘불탱, 2015_ 성보문화재연구원

보물 제1281-3호

자치통감 권193-195

資治通鑑 卷一白九十三~一白九十五

조선시대
3권 1책
세로 36.8㎝, 가로 24.6㎝
종이(닥종이)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137-48

지정일 : 2012.12.27
소유자 : 원각사(사유)
관리자 : 원각사

<자치통감 권193-195>은 중국 송나라 사마광司馬光(1019~1086)이 1084년 편찬한 편년체編年體의 중국역사서 『자치통감』의 권193-195의 3권 1책의 잔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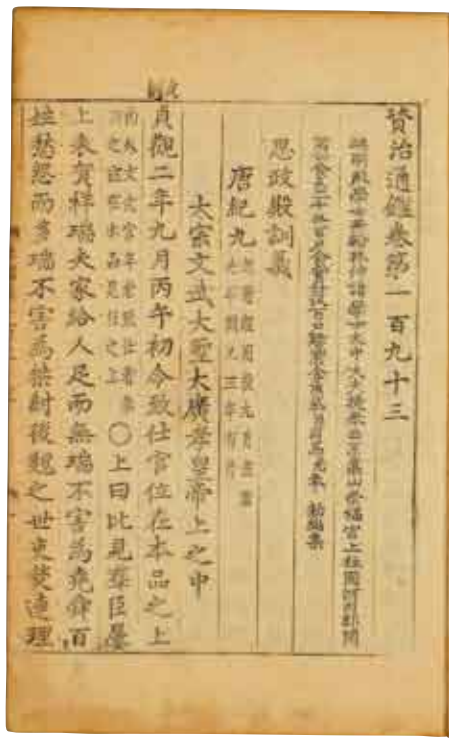
『자치통감』은 우리나라에도 일찍부터 들어와 1192년(명종 22) 최선崔詵(?~1209) 등의 교정으로 간행된 바 있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세종의 명으로 윤회尹淮(1380~1436)·권도權蹈(1387~1445)·설순偰循·김말金末·유의손柳義孫 등 문신 40여명이 사마광의 『통감음주通鑑音注』, 『통감원위通鑑源委』, 『통감집람通鑑輯覽』, 『통감석의通鑑釋義』등 역대 중요 주석서를 바탕으로 교정하고 주석을 가감해서 1436년(세종18)에 주자소에서 초주갑인자로 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치통감』의 편집이 경복궁의 사정전思政殿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자치통감사정전훈의資治通鑑思政殿訓義』로 불리기도 한다.

『자치통감』은 주周 위열왕威烈王부터 오대五代까지 1,362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주기周紀 5권, 진기秦紀 3권, 한기漢紀 60권, 위기魏紀 10권, 진기晋紀 40권, 송기宋紀 16권, 제기齊紀 10권, 양기梁紀 22권, 진기陳紀 10권, 수기隋紀 8권, 당기唐紀 81권, 후양기後梁紀 6권, 후당기後唐紀 8권, 후진기後晋紀 6권, 후한기後漢紀 4권, 후주기後周紀 5권으로 나뉘며 16개 왕조 113개 군주로 구분되어 294권으로 간행되었다. 그 중 이 책은 권193, 권194, 권195로 당기唐紀 81권 중 권9, 권10, 권11에 해당된다.

1

2 3

4 5





1. 자치통감 표지, 2012_ 문화재청
2. 자치통감 권193, 2012_ 문화재청
3. 자치통감 권194, 2012_ 문화재청
4. 자치통감 권195, 2012_ 문화재청
5. 자치통감 권195, 2012_ 문화재청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판식版式은 사주단변四周單邊에 계선界線이 있고, 반엽 10행에 한 행의 글자 수는 19자이다. 판심版心은 상하하향흑어미上下下向黑魚尾이며, 판심제版心題는 '通鑑'이다.

권수의 첫 행에는 서제序題가 기재되어 있고, 다음 행에는 권수 편자卷首編者의 관직과 이름부분이 낱 활자가 아닌 1행 단위활자로 주조한 것이 특이하다. '사정전훈의思政殿訓義'라는 기록이 있으며, 훈의訓義한 내용은 원본의 주석을 산삭刪削하여 취사선택하였다. 연도가 표시된 행 위에는 간지干支를 표시하고, 책의 가운데에는 다루고 있는 대상의 황제묘호廟號를 기록하고 있어 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책은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초쇄본으로, 간행기록은 없으나 완질이 전하는 중간본重刊本의 책 끝에 '정통원년 8월 인출正統元年八月日 印出'이란 기록에서 1436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주갑인자는 1434년(세종16)에 만들어진 동활자로 경자자가 가늘고 빽빽하여 보기가 어려워 다시 금속으로 주조한 활자이다. 활자의 모양이 네모반듯하고 해정하며 아름다운 필서의 진체라 하여 '위부인자衛夫人字'라고 부르기도 한다. 위부인은 중국의 명필 왕희지王羲之(307~365)의 스승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으로, 갑인자가 위부인의 글씨체를 닮아 이러한 별명이 붙었다.

현재 이와 동일본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자치통감』 권236-238의 3권 1책이 보물 제1281호로 지정되어 있고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자치통감』 권 131-135, 246-250의 10권 2책이 보물 제1281-2호로 지정되어 있다. 전본이 아주 드문 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인 점과 집현전 학사를 동원하여 편찬한 책이라는 점에서 조선전기의 인쇄사 및 출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보물 제1286호

수월관음도

水月觀音圖

고려시대
1폭
세로 100.5㎝, 가로 52.5㎝
비단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지정일 : 1998.10.10
소유자 : 우학문화재단(사유)
관리자 : 용인대학교

<수월관음도>는 『화엄경華嚴經』 입법계품入法界品의 내용을 도상화한 불화이다. 『화엄경』 입법계품은 선재동자善財童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떠난 구도의 여정에서 53선지식善知識을 찾아 법을 묻고 도를 구하여 『화엄경』의 진리를 배워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관음보살은 선재동자가 28번째로 찾아간 선지식으로 이 그림에는 관음보살이 머무는 정토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관음보살은 커다란 신광身光과 두광頭光으로 둘러싸인 모습으로 오른발을 왼발 위에 올려놓은 이른바 반가좌半跏坐의 자세로 바위 위에 걸터앉아 선재동자를 굽어보고 있다. 머리에서부터 전신을 감싸고 있는 투명한 백의에는 금니金泥로 연화당초문원문蓮花唐草紋圓紋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 그 아래 받쳐 입은 붉은색의 치마에는 백색 안료로 귀갑문龜甲紋이 촘촘하게 그려져 있다. 오른손은 왼발 위에 얹은 오른쪽 무릎 위에 대어 손목에 걸친 염주를 가볍게 쥐고 있으며, 왼발은 내려서 연화좌를 밟고 있다. 관음보살의 왼발 앞쪽으로는 선재동자가 보살을 향해 허리를 굽히고 합장하는 자세로 서 있다. 관음보살의 등 뒤로는 한 쌍의 대나무가 표현되어 있고, 바위 끝 부분에는 버드나무 가지가 꽂힌 정병淨甁이 놓여 있다.

수월관음도는 먹선 또는 주선朱線으로 윤곽을 그린 후 녹청과 군청, 백색, 황토, 금니 등으로 채색하였다. 육신부는 뒷면에서 백색 안료를 복채伏彩한 후 앞면에 금니를 칠하여 표현하였다.

이 수월관음도는 전체적으로 고려 불화의 형식과 기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작품으로, 고려 후기 수월관음도의 전형적인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 작품은 일본 보수원寶壽院 소장의 수월관음도(14세기)와 도상이 매우 유사하여 주목되는데 관음보살의 자세, 대각선의 화면구성, 중간색의 사용 등이 거의 일치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보수원 소장 수월관음도는 규모가 세로 166.4㎝, 가로 88.8㎝로 본 작품보다 훨씬 크고 선재동자를 묘사한 모습이나 채색, 배일의 형상 등에 차이가 있다. 이 수월관음도는 보수원 소장 수월관음도의 도상을 계승하면서도 세부의 표현에서는 기존의 작품과 차별성을 두고자 작가 나름의 변형을 시도한 작품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의 전형적인 도상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도상의 창출을 시도한 좋은 예로 당시 수월관음도의 양식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❶ 관음보살
❷ 버들가지가 꽂힌 정형
❸ 대나무 한쌍
❹ 산호
❺ 선재동자
❻ 연꽃

수월관음도, 2016_ 우학문화재단



보물 제1298호

조영복 초상

趙榮福 肖像

조선시대
* 유복본 - 1724년
* 공복본 - 1725년
2폭
유복본 - 세로 120㎝, 가로 76.5㎝
공복본 - 세로 154㎝, 가로 80㎝
비단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1999.12.15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조영복 초상>은 조선시대 문신 조영복趙榮福(1672~1728)을 그의 동생 조영석趙榮祏(1686~1761)과 화원 진재해秦再奚(1691~1769)가 각각 그린 두 점의 초상화이다.

조영복의 본관은 함안咸安, 자는 석오錫五, 호는 이지당二知堂이다. 조일趙鎰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조봉원趙逢源, 아버지는 군수 조해趙楷, 어머니는 강유姜游의 딸이다. 또한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으로,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사대부 화가인 조영석의 장형長兄이기도 하다. 조영복의 초상화로는 동생 조영석이 그린 사방건에 도포 차림의 유복본儒服本 한 점과 당대를 대표하는 초상화가인 진재해가 그린 공복본公服本 한 점, 두 점이 전하며 모두 조영복이 54세 때의 초상이다.

조영석이 그린 조영복의 유복본은 사방건을 쓰고 도포를 입은 평상복 차림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 유난히 둥근 얼굴과 몸체가 인상적이다. 화면 왼편을 향하여 약간 돌아앉은 자세이고 배경은 전혀 없다. 가슴에는 붉은 세조대細條帶를 매고 중간에 부채를 매달았으며 양손을 다리에 얹고 있는 모습인데 조선시대 초상화로서는 드물게 양손이 모두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얼굴과 손은 옅은 선염으로 명암을 나타내어 실체감을 표현한 반면, 의복은 선묘로만 윤곽과 주름을 나타냈는데 자유롭고 활력있게 구사된 선의 필세가 절묘하다. 화면의 오른쪽 위에 조영석이 직접 쓴 제기題記에 따르면 조영석이 자신의 큰 형님인 조영복 54세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1724년(경종4) 신임사화辛壬士禍로 유배 중이던 조영복을 찾아가 초본을 그려두었다가 1725년 조영복이 사면되어 복직하자 초본을 수정한 후 자신은 유복본을 그리

1

2

1. 조영복 초상(유복본), 2008_ 경기도박물관
2. 조영복 초상(공복본), 2008_ 경기도박물관

고 진재해로 하여금 공복公服을 입은 공복본을 따로 그리도록 하였다고 한다. 문인화가로 이름을 날렸던 조영석은 풍속화를 선구적으로 그렸으며 인물화와 말 그림에 뛰어났다. 이 초상화를 보고 감탄했던 영조는 1748년(영조24) 숙종어진肅宗御眞을 모사할 때 조영석에게 그리라고 했지만 조영석은 사대부가 화원이 할 일을 대신하여 임금을 섬기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거부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복본은 사모에 담홍색 단령을 입고 공수한 채 호피가 깔린 의자 위에 화면 왼편으로 조금 비켜 틀어 앉아 있는 모습이다. 오른편 위에 개성 유수 조영복의 54세 초상을 진재해가 그렸다고 적혀있다. 진재해는 당시 초상화를 잘 그려 국수國手로 알려졌는데 분명한 윤곽선을 위주로 얼굴을 표현했다. 굳게 다문 가는 입술, 짧고 성긴 수염, 약간 처진 눈꺼풀, 넓적한 얼굴 표현 등은 조영석이 그린 초상화와 거의 동일하여 같은 초본을 바탕으로 삼아 그렸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진재해의 작품에서는 극사실적으로 정교하게 그린 호랑이 가죽, 발받침, 돗자리 등에서 그의 솜씨가 잘 드러난다.

한편 높은 오사모에 넓은 소매는 숙종 이후의 복식제도가 반영되어 있으며 바닥에 아무것도 깔려 있지 않고 의자에 호피를 걸친 점, 의복의 색과 동일한 계열의 색으로 음영을 넣어 굴곡진 주름의 입체감을 살려낸 점 등은 18세기 전반 초상화의 양식적 특징을 잘 드러내준다. 당대 최고의 초상화사였던 진재해의 기량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작품이다.



보물 제1302호

청룡사감로탱
靑龍寺甘露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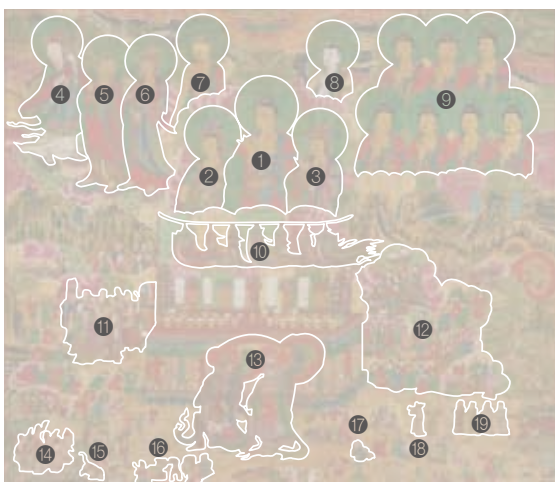
조선시대(1682년)
1폭
세로 200㎝, 가로 239.9㎝
삼베
안성시 서운면 청룡길 140

지정일 : 2000.10.16
소유자 : 청룡사(사유)
관리자 : 청룡사

<청룡사감로탱>은 1682년(숙종8) 법능法能, 민윤敏允, 취감就甘, 경걸景桀, 상윤尙允 등의 화승이 그린 불화이다. 감로탱화는 망자의 영혼이 고통을 벗어나 좋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불보살에게 음식을 공양하며 영혼을 천도하는 의식을 표현한 불화로 조선시대에 성행하였다.

이 감로탱화는 형식상으로는 상·중·하의 3단 구도로 되어 있고, 내용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삼세三世의 시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상단에는 이상세계理想世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뾰족하게 솟은 봉우리의 험준한 산악을 청록산수靑綠山水 기법으로 묘사하여 불·보살이 하늘에서 내영來迎하는 모습을 더욱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으며, 다른 작품에 비하여 아미타여래의 내영 장면을 크게 부각하여 표현하였다. 이것은 '아미타여래에 의해 아귀고餓鬼苦에서 벗어나 극락정토로 왕생한다'는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자 한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상단 중앙의 아미타여래는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거느리고 구름 속에 몸을 반쯤 드러낸 모습으로 오른쪽을 향하고 있다. 아미타삼존을 중심으로 우측에 일곱 여래七如來와 아난존자가 합장을 하고 서 있고, 좌측에는 관음보살·지장보살이 번幡을 든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과 함께 서 있으며, 그 옆으로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한 여래 1구가 몸을 반쯤 드러낸 채 오른쪽을 향하고 있다. 인물들을 둘러싼 분홍, 노랑, 하늘색의 채운彩雲은 화면 전반을 밝고 환한 느낌이 들도록 하고 있으며, 인로왕보살과 비구를 제외하고는 불·보살의 신체를 금색으로 칠하여 붉은색의 가사, 녹색의 두광頭光과 함께 화려한 색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❶ 아미타불
❷ 대세지보살
❸ 관음보살
❹ 인조왕보살
❺ 지장보살
❻ 관음보살
❼ 석가모니
❽ 아난존자
❾ 칠불
❿ 번개와 금줄
⓫ 승려들의 법회장면
⓬ 왕후장상
⓭ 아귀
⓮ 감로를 받으려는 듯 발우를 받치고 있는 작은 아귀떼
⓯ 호랑이에게 물려죽는 모습
⓰ 장구치고 피리불며 재주넘기를 하는 모습
⓱ 독사에 물려죽는 모습
⓲ 탕건형태의 모자를 쓰고 염주를 쥐고있는 모습
⓳ 합장한 네 명의 남자 재가신도



청룡사감로탱, 2016_ 국립중앙박물관



중단에는 산수山水를 배경으로 영혼이 극락으로 인도되길 기원하는 제사상을 차려 공양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넓은 시식대施食臺 위에 성반盛飯이 가득 차려져 있고, 제사상 위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오색번五色幡이 휘날리고 있어 의식을 행하는 현장의 모습을 더욱 실감나게 해주고 있다. 그 앞에는 입에서 불을 뿜는 아귀餓鬼 한 쌍이 묘사되어 있고, 제단 좌측으로는 한 무리의 승려들이 법고法鼓와 바라, 요령 등을 들고 제단을 향해 서서 시식의례施食儀禮를 행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제단 우측으로는 나라를 위해 몸을 버린 관원, 장사, 병졸들과 선업을 이룬 왕과 후비 등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중단 바로 아래에는 경계없이 하단이 이어져 있고, 하단에는 상단의 큼직한 인물 표현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인물들이 묘사되어 있다. 감로를 받으려는 듯 발우鉢盂를 받치고 있는 한 무리의 작은 아귀 떼, 호랑이에게 물려죽는 모습, 말에서 떨어져 죽는 모습, 사당패가 노는 모습 등 속세의 여러 장면이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당시 풍속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감로탱의 화면 아래쪽 주선 외곽에는 시주질施主秩, 축원문, 조성연월일과 봉안처, 본사질本寺秩의 순서로 화기畵記가 묵서되어있다. 화기에 따르면 이 감로탱은 '康熙三十日年壬戌四月日(강희21)' 즉 1682년(숙종8) 제작된 불화로, 이진한李進漢, 최말춘崔末春, 김득민金得民, 김대건金大建, 정철석鄭哲石, 이계남李戒男, 김신백金信白, 박동질이朴同叱伊, 류명일劉命日, 김준량金俊良, 진백금陳白金 등 20명이 시주에 참여하였으며, 법능法能을 비롯한 민윤敏允, 취감就甘, 경걸景桀, 상윤尙允 등 5명에 의해 그려진 것을 알 수 있다. 감로탱 화기의 연화질에 가장 먼저 적혀 있는 법능은 1658년(효종9) 청룡사 영산회괘불도의 조성에서 동참화승 중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승려였지만, 약 35년 이후인 감로도 불사에서는 수화승으로 제작을 주도하게 된다.

청룡사감로탱은 유려한 필선으로 그려진 인물의 형태와 밝고 은은한 채색의 설채設彩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를 잇는 과도기적인 작품이자 이후 전개되는 경기지역과 충청지역에서 그려진 감로왕도의 선구적인 도상과 양식을 선보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1

2

1·2. 청룡사감로탱 세부, 2016_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1323호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坡州 恭孝公 朴仲孫墓 長明燈

조선시대(1466년)
2기
높이
석재(화강암)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산19

지정일 : 2001.09.21
소유자 : 밀양박씨 규정공파 대종회(사유)
관리자 : 밀양박씨 규정공파 대종회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은 공효공恭孝公 박중손朴仲孫(1412~1466)과 정경부인貞敬夫人 남평문씨南平文氏의 쌍분 앞에 놓여 있는 2기의 장명등이다.

박중손의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경윤慶胤, 호는 묵재默齋, 시호는 공효恭孝이다. 박침朴忱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찬성사贊成事 박강생朴剛生, 아버지는 교서관정자校書館正字 박절문朴切問, 어머니는 왕고王高의 딸이다. 1425년(세종7) 15세에 성균시成均試에 합격하여 진사進士가 되었고, 1435년(세종17) 대과에 급제하여 집현전 박사에 뽑혔으며, 서운관에 임명되어 천문과 역관曆官의 역할을 발휘하였다. 홍문관의 부수찬·지제교를 거쳐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지병조사知兵曹事·동부승지·도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453년(단종1) 계유정난 때 수양대군을 도와 김종서金宗瑞 등을 제거한 공으로 정난공신靖難功臣 1등에 책록되고 응천군凝川君에 봉해지면서 병조참판에 제수되었다. 그 뒤 대사헌, 공조·이조·형조·예조의 판서를 거쳐 1425년 밀산군密山君으로 개봉改封되었고, 좌참찬 등을 역임하다가 1466년(세조12)에 55세로 사망하였다. 정경부인 남평문씨는 공조정랑工曹正郎 문승조文承祚의 딸로서 공효공 박중손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며 같은 언덕에 봉분이 조성되어 있다.

파주 공효공 박중손 묘역에 있는 2기의 장명등은 각 2개의 화강암



으로 조각되어있다. 밑 부재에는 하대석과 간주석, 상대석, 화사석을 조각하였고, 윗부재에는 개석蓋石과 그 위에 얹혀있는 연꽃봉우리 모양의 보주寶珠를 조각하였다.

박중손 묘 앞 장명등의 하대석은 평면방형으로 중간부분에 두 줄의 띠가 돌려져 있으며, 띠를 중심으로 상단부분은 높은 곡형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다. 하대석 위로는 아랫부분에서 윗부분으로 갈수록 약간씩 좁아지는 형태의 간주가 조각되어 있으며, 간주 위로는 하대석과 비슷한 모양의 상대석이 조각되어 있다. 상대석에 이어서는 약간의 턱을 남기고 화사부가 조각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화사부의 정면과 뒷면에는 방형, 향좌측에는 반달형, 향우측에는 원형의 화창이 설치되어 있다. 옥개석은 둔후屯厚한 사각추형四角錘形으로, 옥개석 밑면 전각부위에는 사래를 조출하여 목부조의 처마 밑 구조를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옥개석 상단의 용마루에 해당되는 부위는 방형평면으로 수평을 유지하면서 우동隅棟에는 명확한 추녀마루를 형성하고 있다. 추녀마루의 2/3지점에서 약간의 반전곡선을 유지하면서 전각과 합해진 모습이다. 옥개석의 정상부 중앙에는 연주대가 둘러져있고 그 위로 큼직한 연봉이 올라가 있다.

박중손의 부인 남평문씨 묘 앞의 장명등은 박중손 묘 앞의 장명등과 비교했을 때 높이와 조각수법은 비슷하지만 보다 너비가 좁아 전체적으로 세장한 모습을 하고 있다. 화창火窓은 네 면 모두 방형으로 크기는 박중손 묘 앞의 장명등 보다 더 크다. 옥개석 상단은 평면을 이루지 않고 바로 보주장식과 이어져 있다.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처럼 화사석에 땅을 상징하는 방형의 화창, 달을 상징하는 반달형 화창, 해를 상징하는 원형 화창을 설치한 예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 조각수법과 형태가 매우 희귀할 뿐만 아니라 같은 묘역에 있는 신도비가 조성연대를 확실히 밝혀주고 있어 역사적·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

1 2 3

1. 파주 공효공 박중손 묘 전경,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박중손 묘 앞 장명등,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박중손 부인 남평문씨 묘 앞 장명등,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보물 제1324호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始興 蘇萊山 磨崖菩薩立像

고려시대
1좌
총높이 12.3m, 보관높이 1.42m, 머리높이 3.27m, 어깨폭 3.75m
석재(화강암)
시흥시 대야동 산140-3

지정일 : 2001.09.2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시흥시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은 시흥 소래산 중턱의 거대한 바위 면에 새겨진 고려시대 보살상이다.

보살상은 머리에 원통형의 높직한 보관寶冠을 쓰고 있다. 보관 좌우에는 사모의 각과 비슷하게 생긴 작고 좁은 관대冠帶가 달려 있고 보관 전체에는 당초문을 새겼다.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과 같이 원통형의 높은 보관을 쓴 보살상의 조성은 고려시대 초기에 유행하였다.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국보 제124호)이나 강릉 신복사지 석조보살좌상(보물 제84호),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국보 제48-2호), 김천 광덕리 석조보살입상(보물 제679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국보 제323호),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보물 제217호) 등 예가 있다.

얼굴은 사각형의 각진 편으로 이목구비가 큼직하게 새겨져 있고 귀가 길게 늘어져 있으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굵은 띠처럼 새겨져 있다. 오른손은 가슴높이까지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고, 왼손은 허리부근까지 올린 채 손바닥을 위를 향하게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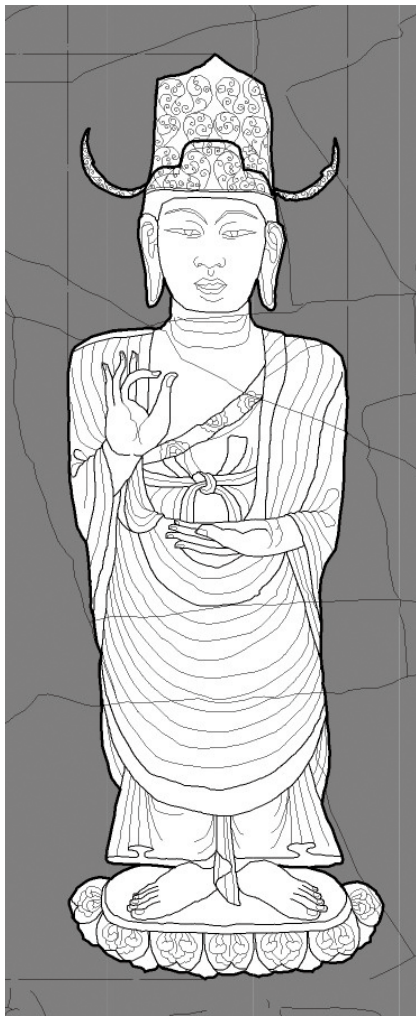


천의天衣는 불상佛像의 가사袈裟처럼 양어깨를 덮는 통견식通肩式으로 입었다. 안에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에만 걸친 형태의 승각기僧脚崎가 화문으로 장식되어 있고 그 아래에 띠매듭이 있으며 밑에는 군의裙衣를 받쳐 입었다. 옷주름은 가슴 밑에서부터 반원을 그리며 규칙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볼륨감은 없으나 유려한 선으로 이어져 있다. 천의 아래에 드러난 두 발은 발끝을 옆으로 하고서 뒤꿈치를 모은 모습인데, 발등과 발가락, 발톱 등의 표현이 매우 섬세하다. 발밑으로는 앙련仰蓮형식의 중판연화문이 새겨진 대좌가 표현되어 있다.

이 보살상은 바위에 얕게 선각線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며 회화적인 표현 기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화려한 보관과 자연스럽고 원만한 얼굴, 연꽃무늬가 새겨진 받침대 등으로 보아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1.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전경, 2018_ 시흥시
2·3. 정면도와 3D 폴리곤, 2018_ 시흥시
4.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2018_ 시흥시





보물 제1398호

청자 상감오리모양 주전자

青磁 象嵌鴨形 注子

고려시대
1점
높이 15.3㎝, 입지름 2.5㎝, 밑지름 9.5㎝
흙(자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로

지정일 : 2004.03.03
소유자 : 박영숙(사유)
관리자 : 박영숙

<청자상감오리모양주전자>는 고려 중기에 제작된 오리의 형태를 채용하여 만든 상형청자像型青磁 주자이다. 상형청자의 소재로 주로 등장하는 것으로는 오리, 사자, 인물, 용, 어룡 등이 있는데, 연적이나 주자, 베개, 향로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오리는 주로 연적으로 제작되었는데 주자의 형태로 전해지는 예는 매우 드문 편이다.

이 주자는 몸통이 둥글며 흑토로 눈을 표현한 오리의 머리와 주둥이가 주구注口의 역할을 하도록 제작되었고, 그 반대편에는 오리의 두 다리를 모아 올려붙인 듯한 손잡이가 달려 있다. 등에는 작은 연잎과 줄기를 늘어뜨렸는데, 연잎 중앙에 구멍을 뚫고 연밥의 형태를 응용한 뚜껑을 만들어 막았다. 넓적한 부리를 조금 벌려 물을 따를 수 있게 하고 다리를 모아 뒤편으로 연결하여 손잡이 기능을 부여한 점, 연밥 형상으로 뚜껑을 만든 점 등 오리주자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매우 구조적이며 참신한 발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유태의 색은 맑고 투명하며 약간의 담녹색을 띤다. 유층은 기본적으로 균열이 없지만 위편 날개 부분에 굵은 수직상의 관입貫入(도자기의 유釉에 생겨나는 갈라진 금)이 몇 줄 나 있으며, 전체에 미세한 기포가 꽉 차고 광택은 비교적 강하면서 은은한 편이다. 꼭지 밑 유약을 씌우지 않은 부분에 흑갈색의 거친 입자가 포함된 내화토 비짐을 받친 흔적이 있으며, 접지면 주변의 유약을 완전히 닦아낸 밑바닥에도 비슷한 재질의 내화토 비짐을 받친 흔적이 있다. 엷은 녹색을 띠는 유약층을 통해 회청색 태토가 비춰 보이면서 나타나는 색은 최상급 청자에서 볼 수 있는 상태이며, 음각과 양각, 백상감과 흑상감을 적절히 응용하여 나타내려는 형상의 질감을 잘 묘사하고 있다.

오리를 주제로 한 파격적이고 독창적인 기형과 화려하고 정교한 문양장식의 표현, 비색翡色의 유약釉藥과 정선된 태토胎土로 제작된 12세기의 고려시대 최절정기 청자이다. 현존하는 예도 극히 드문 상형청자의 새로운 자료로 고려시대 도자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2

1

1. 청자 상감오리모양 주전자 뚜껑, 2005_ 경기도
2. 청자 상감오리모양 주전자, 2005_ 경기도

보물 제1400호

분청사기 상감모란당초문 장군

粉靑沙器 象嵌牡丹唐草文 獐本

조선시대
1점
높이 20.2㎝, 입지름 6.9㎝, 밑지름 19.3㎝
흙(자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로

지정일 : 2004.03.03
소유자 : 박영숙(사유)
관리자 : 박영숙

<분청사기 상감모란당초문장군>은 조선 전기에 상감기법으로 제작된 분청사기 장군이다. 이 장군은 측면이 직사각형에 가깝고 양쪽 옆면이 직선에 가까운 완만한 곡면을 이루고 있어서 양감이 크고 듬직하며 무게감이 느껴지는 형태이다. 몸통의 듬직함과 같이 입술도 넓고 굵으며 굽다리도 완전한 직사각형으로 넓게 만들었다. 전면에는 윤곽선이 굵은 모란당초문과 조밀하게 찍은 인화문印花紋을 중심으로 가는 상감선을 사용하였는데 굵은 면은 더욱 굵고 듬직하게, 가는 선은 섬세하고 유려하게 새겨 넣어 강약의 조화를 꾀하였다.

문양은 넓은 몸통을 수직상으로 나누고 다시 구연부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되게 나누었는데, 중심부에 가는 선상감線象嵌의 당초문대를 내리고 좌우편에 간결한 선으로 윤곽을 두른 넓은 잎과 모란꽃을 좌우 대칭으로 면상감面象嵌 한 후 옆면 둥근 마구리면은 인화상감印花象嵌을 조밀하게 찍어 넣었다. 굽의 안바닥에는 복부에 2~3줄의 음각선이 있는데 이것은 음각하고 굽을 붙인 후 백상감을 한 흔적이다.

태토는 밝은 회청색이며 좁쌀만 한 크기의 철분이 유층으로 튀어나온 상태이며, 유약釉藥은 얇고 투명하여 기포가 거의 없고 부분적으로 두껍게 뭉친 곳은 약간의 녹색을 띠며 불투명한 상태를 나타낸다. 전체에 결손 부분이 없는 완전한 작품으로 전면에 망상의 균열이 있고 백토분장白土粉粧은 순수하게 밝은 흰색이다. 특히 백토 상감된 부분의 균열은 매우 가늘고 조밀하게 나 있으며 부분적으로 유층이 탈락된 곳이 있다. 측면 마구리 한쪽을 밑으로 하여 받쳤는데 이면裏面에는 8개의 사질 내화토 비짐을 받쳤다. 저부 일부에 태토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약을 두껍게 바른 흔적이 남아 있다.

면面과 선線의 상감기법으로 모란문과 당초문, 그리고 인화문이 몸체 전면에 화려하게 시문施紋된 분청사기로 유약이 굽 안 바닥에 이르기까지 전면에 시유施釉되어 기형, 장식과 더불어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 장군은 안정감 있는 당당한 기형에 활달하고 대담한 문양, 섬세한 인화기법의 표현 등에서 15세기 분청사기장군을 대표하는 예이며 도자사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1

2

1. 분청사기 상감모란당초문 장군 정면, 2005_ 경기도
2. 분청사기 상감모란당초문 장군 윗면, 2005_ 경기도





보물 제1406호

이십삼 상대회도 및 김종한 교지

二十三 霜臺會圖 및 金從漢 敎旨

조선시대
2종 6점(계회도 1폭, 교지 5장)
계회도 - 세로 92㎝, 가로 32.5㎝
교지 - 세로 73~82.5㎝, 가로 45.5~48.5㎝
비단, 종이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2004.05.07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이십삼 상대회도 및 김종한 교지>는 상대霜臺 감찰관원監察官員 23인의 계회를 기념하여 그린 계회도契會圖와 이 계회에 참여했던 김종한金從漢의 교지이다.

김종한에 대한 자세한 이력은 전해지지 않으나 계회도와 교지의 내용에 의하면, 본관은 상산商山(상주), 자는 종해宗海로 수의교위修義校尉 김하金遐의 아들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교지 5장 중 3장의 이름이 김종근金從謹으로 되어 있으며 문과방목文科榜目에도 이름이 김종근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때 이름을 김종근으로 개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김종한은 일찍이 생원시에 합격한 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는데 특히 유교 경전에 밝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세조실록』에 의하면, 그가 1462년(세조8) 8월에 겸예문 성균 박사兼藝文成均博士 박시형朴始亨, 승문원 박사承文院博士 김종직金宗直, 예문 대교藝文待敎 허선 등과 함께 경연에서 경서經書를 강講하자 왕이 술을 내려주었다고 한다. 당시 그는 성균생원成均生員이었는데 그가 겨우 생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연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유교 경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가 역임했던 관직이 주로 훈도訓導, 교수敎授, 전적典籍, 사성司成 등이었던 점도 이러한 추측을 가능케 해준다.



이십삼 상대회도는 사헌부에서 벼슬을 지낸 김종한 등 23명이 가졌던 계회를 토대로 제작되었다. 세로로 긴 화면을 굵은 주사선朱砂線으로 5등분하여 표제와 계회도, 찬시贊詩, 참가자들의 이름 및 품계, 참가자 부친의 관직 및 이름 등을 기록한 좌목座目, 추기追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체제는 조선시대 초기 계회도에서 볼 수 있는 형식으로서 그 보다 후에 제작된 계회도에 비해서 그림 자체의 비중이 적으며, 참가자 부친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기 위해 단을 따로 설정한 점도 이채롭다.

상단의 제액題額은 단정한 전서로 쓰였고, 정방형의 결구에 획의 처음과 끝을 힘주어 마무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계회도는 화면의 중심을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게 하여 상단과 왼쪽에 여백을 살리고 있는 구도에 구불구불한 선으로 바위와 언덕을 묘사한 방식으로 그려졌다. 이는 남송시대 마하파馬夏派 화풍과 북송대 이곽파李郭派 화풍의 특징이 융합되어 간략하게 묘사된 것으로 15세기 후반 조선화된 화풍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계회도에 그려진 정자亭子는 15세기의 관아건축 면모를 알 수 있어 좋은 자료가 된다.

찬시贊詩는 이옥녀李玉如가 초서로 썼는데 조선화한 송설풍松雪風과 왕희지풍王羲之風이 어우러진 높은 격조를 보여주며, 좌측에 '홍치원년弘治元年'이라고 적힌 관지款識가 있어 1488년(성종19)에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하단에는 행간 사이 세로로 주사선이 가늘게 그어져 있고 23명의 사헌부 감찰의 품계와 성명·자·본관과 그들의 아버지의 신분·직역과 이름을 기재하였다. 한편 하단의 추기를 별도로 기록한 좌목 추기座目追記가 있는데 이 문서는 후손에 의하여 정서된 것으로 위의 글보다 후대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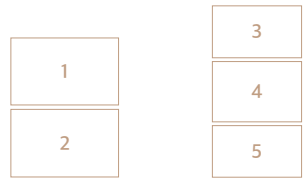

1


2

1. 이십삼 상대회도 세부, 2006_ 경기도박물관
2. 이십삼 상대회도 전체, 2006_ 경기도박물관

김종한의 교지 5점은 모두 직첩職牒에 관한 것으로, 1488년부터 1496년 사이에 발급된 것이다. 5점의 교지를 통해 김종한은 1488년(성종19) 여주목판관, 1494년(성종25) 안동교수, 1495년(연산군1) 성균관전적 겸 중학교수, 1496년 신계현령, 1496년 황해진관병마절제도위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이십삼 상대회도는 지금까지 알려진 계회도 가운데 매우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15세기 계회도의 형식과 양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회화사적 가치가 있다. 아울러 김종한 교지는 김종한의 개인사를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참고자료이며, 당시의 정치사회상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1. 여주목판관 임명 교지, 2017_ 경기도박물관
2. 안동교수 임명 교지, 2017_ 경기도박물관
3. 성균관전적 겸 중학교수 임명 교지, 2017_ 경기도박물관
4. 신계현령 임명 교지, 2017_ 경기도박물관
5. 황주진관병마절제도위 임명 교지, 2017_ 경기도박물관







敕旨
金浣漢爲
中訓大夫
行成均館典
籍兼中學
敎授者
弘治十一月



敕旨
金浣漢爲中
大夫行弘文
令兼
弘治九年八月初四日



敕旨
金浣漢爲資
憲大夫
弘治九年二月廿七日

보물 제1435호

이원익 초상

李元翼 肖像

조선시대(1604년)
1폭
세로 167.5㎝, 가로 89.0㎝
비단
광명시 오리로347번길 5-5

지정일 : 2005.07.07
소유자 : 이승규(사유)
관리자 : 충현박물관

1

2

1. 이원익 초상 안면부,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이익원 초상,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이원익 초상>은 조선시대의 문신 이원익桃元翼(1547~1634)을 그린 초상화이다.

이원익의 자는 공려公勵, 호는 오리梧里로, 1569년(선조2) 문과에 급제하여 교리·우부승지를 거쳐 대사헌, 호조이조판서 등을 지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의 피란길을 선도하고 군사를 모아 싸웠으며, 1593년 평양을 탈환하는데 공을 세우고 변무사辨誣使로서 명나라에 다녀오는 등 큰 활약을 하여 1604년(선조37)에 호성공신 2등으로 완평부원군完平府院君에 봉해졌다. 선조에서 인조에 이르는 3조에서 우의정·좌의정 및 영의정을 여러 차례 역임하였으며, 청빈한 생활을 하여 청백리에 녹선錄選되고 인조에게서 궤장杖을 하사받았다.

이원익 초상은 오사모에 단령을 입고 의자에 공수拱手자세로 앉아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가슴에는 공작흉배와 서대를 착용하고 있어 그의 품계가 정1품임을 알 수 있다. 검은색 사모는 높이가 상당히 높고 구름무늬가 그려진 짧고 넓은 날개가 좌우로 곧게 뻗어 있는 모습이다. 단령의 넓은 소매 사이로는 흰 창의가 보이며, 오른편 의자 뒤로는 단령에 덧댄 무가 세모꼴로 접혀 올라가 있다. 그 아래 트임 사이로는 둥글게 표현된 연두색 안감과 청색의 첩리帖裡가 보인다. 바닥에는 화려한 채전이 깔려있으며, 돗자리가 덮인 족좌대足座臺 위에는 흑피혜黑皮鞋(검은 가죽신)를 신은 발을 '八'자형으로 올려놓았다.

얼굴의 이목구비는 가늘고 붉은 선을 사용하여 묘사했는데, 인물의 생김새를 정확하게 표현했다. 분홍색을 살짝 칠한 코끝과 볼 부분을 제외하고는 음영 효과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듬성듬성 흰 터럭이 섞여 있는 수염은 숱이 그다지 많지 않으나 자연스럽게 처리되었다. 단령의 윤곽과 주름 역시 단순하게 선을 위주로 표현했고, 전체적으로 구름무늬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평면적인 인상을 준다.

이 초상화는 이원익이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종하여 무사히 피난하도록 했던 공적을 인정받아 58세가 되던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녹훈錄勳된 것을 기념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호성공신에 책봉된 정탁鄭琢 초상(보물 제487호), 같은 시기에 녹훈된 선무공신宣武功臣 및 청난공신淸難功臣의 초상과 전반적으로는 거의 유사한 양식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초상화에 비해 오사모 상단이 높은 점은 특이하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청백리로 손꼽히는 이원익의 초상은 현재 여러 점의 다양한 작품이 전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 초상화를 1644년(인조22)에 모사한 것이 소수서원에 소장되어 있고, 초본으로 추정되는 작품도 전하고 있다.



보물 제1477-1호

채제공 초상 일괄-시복본

蔡濟恭 肖像 一括-時服本

조선시대
시복본(1792년)
초본, 72세상(1791년경)
초본 2점, 65세상(1784년경)
초상 1점, 함 1점, 초본 3점, 향낭 1점
시복본 - 세로 120㎝, 가로 79.8㎝
초본(72세상) - 세로 65.5㎝, 가로 50.6㎝
초본(65세상)① - 세로 72.5㎝, 가로 47.2㎝
초본(65세상)② - 세로 71.5㎝, 가로 47.5㎝
향낭 - 길이 8.5㎝, 너비 6.5㎝
함 - 길이 104㎝, 너비 20.5㎝, 높이 23.2㎝
초상 - 비단
초본 - 종이(유지)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

지정일 : 2006.12.29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수원화성박물관

1

2

1. 채제공의 향낭, 2009_ 수원화성박물관
2. 채제공 초상(시복본), 2009_ 수원화성박물관



<채제공 초상>은 조선후기의 문신 채제공蔡濟恭(1720~1799)을 화사 이명기李命基(1756~?)가 그린 초상이다.

채제공의 본관은 평강, 자는 백규伯規, 호는 번암樊巖 또는 번옹樊翁,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1735년(영조11) 15세로 향시에 급제한 뒤 1743년 문과정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권지부정자承文院權知副正字에 임명되면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1753년에 충청도암행어사로 균역법의 실시과정상의 폐단과 변방대비 문제를 진언하였다. 1755년 나주 괘서掛書사건이 일어나자 문사랑問事郎으로 활약했고, 그 공로로 승정원동부승지가 제수되었다. 이후 이천도호부사·대사간을 거쳤고, 『열성지장列聖誌狀』 편찬에 참여한 공로로 1758년에 도승지로 임명되었다. 이 해 사도세자와 영조의 사이가 악화되어 세자 폐위의 비망기가 내려지자 죽음을 무릅쓰고 막아 이를 철회시켰다. 이후 대사간·대사헌·경기감사를 역임하던 중 1762년 모친상으로 관직을 물러나자, 이 해 윤5월에 사도세자의 죽음이 있었다. 복상 후 1764년부터 개성유수·예문관제학·비변사당상을 거쳐 안악군수로 재임 중 부친상을 당하여 다시 관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1767년부터 홍문관제학·함경도관찰사·한성판윤을, 1770년부터는 병조·예조·호조판서를 역임하고, 1772년 이후 세손우빈객世孫右賓客·공시당상貢市堂上이 되었다. 1793년 새로 설치된 화성유수부華城留守府의 초대 유수가 되어 화성華城 축성을 총괄하였다.

1776년 3월에 영조가 죽자 국장도감제조國葬都監提調에 임명되어 행장行狀·시장諡狀·어제御製·어필御筆의 편찬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어 정조의 특명으로 사노비寺奴婢를 폐지하는 절목節目을 마련하여 정1품에 이르렀다. 이 사노비절목은 점차 사노비의 수를 감소시켜 1801년(순조1)의 사노비 혁파를 가능하게 하였다. 1780년(정조4) 홍국영洪國榮의 세도가 무너지고 소론계 공신인 서명선徐命善을 영의정으로 하는 정권이 들어서자, 홍국영과의 친분, 사도세자의 신원에 대한 과격한 주장으로 정조 원년에 역적으로 처단된 인물들과의 연관, 그들과 동일한 흉언을 했다는 죄목으로 집중공격을 받아 이후 8년 간 서울근교 명덕산에서 은거생활을 하였다. 1788년 국왕의 친필로 우의정에 특채되었고, 이후 1790년 좌의정으로서 행정 수반이 되었으며, 3년간에 걸치는 독상獨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爾形爾精父母之恩　네 몸과 네 정신은 부모님의 은혜
爾頂爾踵聖主之恩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금님의 은혜
扇是君恩香亦君恩　부채도 향낭도 임금님의 은혜
賁飾一身何物非恩　온 몸 꾸민 장식품이 뭔들 은혜 아니리오.
所愧歇後無計報恩　부끄럽네 무능한 몸, 은혜 갚을 길이 없네.
樊翁自贊自書　번옹이 스스로 찬문을 짓고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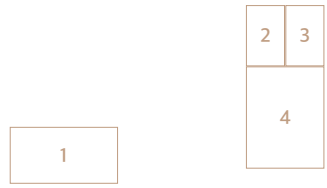
<채제공이 직접 쓴 자찬문>



1791년 10월, 정조의 어진 원류관복遠遊冠服을 제작할 때, 도제조都提調를 맡아준 수고를 치하하여 정조가 향낭과 부채를 하사하고 초상화를 그리도록 전교를 내려 정조의 어진을 그린 이명기에 의해 채제공 초상이 그려졌다. 이 채제공 초상은 오사모에 관대를 하고 담홍색 시복時服(관원들이 평상시 공무복으로 입던 옷)을 입은 모습으로 손부채와 향낭을 들고 화문석에 편하게 앉은 전신 좌상이다.

손에 든 지물持物의 세밀한 묘사와 함께 분홍색 관복이 화면에 가득하여 화사함이 돋보인다. 얼굴은 73세 때의 모습으로 코가 크고 길며 팔자주름이 깊고, 완전히 하얗게 샌 수염은 숱이 적지만 가슴팍까지 길렀다. 얼굴은 분홍색 배채背彩 위에 농담의 변화가 많은 갈색선으로 윤곽선과 주름선을 잡았다. 그 다음 붓끝에 갈색을 약간 묻혀서 짧은 필선을 수없이 비비듯이 덧긋고 엷은 갈색으로 우려서 매우 정교한 명암을 표현하는 필묘법筆描法을 구사하였다. 특히 눈 밑의 누당淚堂 부분과 뺨 부분에 이런 필묘법의 흔적이 잘 나타나 있다. 바닥에는 사선으로 정교하게 무늬를 그린 파란색 띠의 화문석이 깔려있는데, 평행사선투시로 그려 넣어 화면 전체에 깊이감이 느껴진다.

오른쪽 상단에 '樊巖蔡相國濟恭伯規甫七十三歲眞(번암 채제공 상국 백규보의 73세 초상)', '聖上十五年辛亥御眞圖寫後承命摸像內入以其餘本明年壬子粧(1791년)에 어진을 그린 다음 왕명을 받들어 초상을 그려 대궐로 들여보냈다. 그 나머지 본은 다음 해인 1792년에 장황하였다)'라고 쓰여 있으며, 그 아래 '화자 이명기畵者李命基'라고 작가가 밝혀져 있다. 좌측 상단에는 채제공이 직접 쓴 자찬문이 있는데, 이 글은 『번암집樊巖集』 권58에도 '성상십오년신해, 어진도사후, 승명모상내입, 이기여본, 명년임자장聖上十五年辛亥御眞圖寫後承命摸像內入以其餘本明年壬子粧'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자찬문의 내용대로 정조에게서 부채와 향낭을 선물 받은 것을 기념하고 표시하기 위해서인 듯 손을 노출시켜 부채와 향낭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연출한 점이 인상적이다.



1. 초상화 함, 2009_ 수원화성박물관
2·3. 채제공 초상 유지초본(65세), 2009_ 수원화성박물관
4. 채제공 초상 유지초본(72세), 2009_ 수원화성박물관



초상 이외에도 상반신 유지油紙 초본草本 3점이 전한다. 유지초본 1점은 초상화 제작을 위해 그린 채제공 72세상 흉상 밑그림이다. 단순히 소묘로 그치지 않고 수묵과 담채로 정본 초상을 그리듯이 한 점이 주목된다. 얼굴, 사모, 흰 속옷 부분에는 배채를 시도했고, 어깨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의상에는 호분이 사용되었다. 화면의 오른쪽에 '議政文肅公樂巖蔡先生七十二歲眞草本(영의정을 지낸 번암 채제공 어른의 72세 초상화 초본)'이라는 후기後記가 있고, '辛亥 春 察訪 命基 承命畵進藏之內閣(1791년 봄에 찰방 이명기가 왕명을 받들어 그려 올리자 이를 내각에 수장하였다)'라고 밝혀져 있다.

다른 유지초본 2점은 정식 초상화를 제작하기 전에 그린 채제공의 65세 흉상 밑그림이다. 본을 그리는 데 사용한 도구가 유탄炭이 아니라 지금의 연필과 같은 흑연 재료로 추정된다. 아마도 이명기가 활동하던 때 즈음 중국에서 이런 소묘 재료가 수입되지 않았나 싶다. 그중 한 점의 화면 오른쪽 위에 '議政文肅公樂巖蔡先生六十五歲眞草本(영의정 문숙공 번암 채선생 육십오세진 초본)'이라는 후기가 적혀 있다.

채제공 초상은 현재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시복본 1점, 부여 도강영당道江影堂 소장의 흑단령본 1점, 청양군 상의사에 봉안된 금관조복본 1점, 나주 미천서원眉川書院 소장 흑단령본 1점 등 4본이 알려져 있으나 나주 미천서원 소장 흑령단본은 분실되어 사진만이 전한다. 채제공을 그린 초상화는 모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에 채제공이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이 중요하고, 초상화를 그린 이명기의 회화적 수준 역시 당대 최고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후기 문인 초상화의 각종 복식 유형을 다 갖추고 있고, 유지초본까지 보존되어 있어 조선시대 초상화 연구에서 학술적 의미가 크다.







보물 제1480호

심환지 초상

沈煥之 肖像

조선시대(1800년경)
초상 1점, 함 1점
초상 - 세로 149㎝, 가로 89.2㎝
함 - 길이 112㎝, 너비 15㎝, 높이 16㎝
비단, 목재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2006.12.29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심환지 초상>은 조선 후기 정조대의 문신 심환지沈煥之(1730~1802)를 그린 초상화이다. 심환지의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휘원輝元, 호는 만포晩圃이다. 심속沈涑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교리 심태현沈泰賢이고, 아버지는 심진沈鎭이며, 어머니는 부사府使 김이복金履福의 딸이다. 1771년(영조47)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이조·병조·형조 판서 등 각종 요직을 두루 거쳤다. 1798년에 우의정, 1800년(순조1)에 영의정에 임명되었으며 노론 벽파僻派의 영수領袖로 정국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심환지는 50대 늦은 나이에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김종수, 이서구, 유언호 등 노론 벽파들과 독특한 필체와 서화수장가로서 겸재 정선, 표암 강세황, 진재 김윤겸의 작품 등을 수집하였고 직접 발문을 남기기기도 하였다. 또한 정조와는 정치적 동기로서 300여통의 편지를 주고 받았으며, 정조의 마지막 순간까지 편지를 주고받은 신임이 두터운 신하였다.

심환지 초상은 오사모에 단령을 입고 의자에 공수拱手자세로 앉아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가슴에는 불로초를 물고 있는 화려한 쌍학흉배가 부착되어 있으며, 허리춤에는 1품의 품계를 드러내는 서대犀帶를 둘렀다. 오사모는 높은 편으로 약간 짧은 각角을 그렸는데, 신체를 약간 왼쪽으로 튼 것을 감안하여 왼쪽의 각이 오른쪽 것보다 더 짧게 그려졌다. 이는 오사모의 양쪽 각이 동일한 길이로 표현되던 이전 시기와 달리 현실적인 초상화 기법이 적용되었음을 말해준다. 단령은 짙은 녹색으로 명암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운문과 팔보문八寶紋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이런 방식은 19세기 중반에 널리 적용된 방식이다.

의자에는 호피, 바닥에는 화문석을 깔아 시선을 가로로 나누어 화면에 안정감을 주었다. 바닥의 화문석은 문양을 대각선으로 배치하여 깊이 있는 공간감을 부여하고 있으며, 미점米點을 위주로 화문석의 질감과 문양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다. 가구 역시 명암이 가미되었고 나뭇결무늬를 분명하게 묘사하였다. 비교적 낮은 족좌대 위에는 검은 가죽신을 신은 양발이 '八'자형을 하고 있다.

1

2



1. 불로초를 물고 있는 쌍학흉배, 2008_ 경기도박물관
2. 심환지 초상, 2008_ 경기도박물관


領議政文忠公畫圖沈先生真



안면의 윤곽선은 농담을 조절하여 되도록 입체감 있게 표현하려 했고, 이마와 귓불, 콧잔등, 인중은 환하게, 그 외의 부분은 좀 더 짙은 선염으로 높낮이를 자연스럽게 표출하였다. 특히 움푹 팬 눈두덩은 여러 번 붓질로 농담의 자연스런 번짐 효과를 냈고, 가는 수염과 얼굴 표면의 육리문肉理紋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등 대상의 요체를 포착하여 인물의 개성을 잘 드러냈다.

원근법으로 처리된 족좌대와 화문석, 여러 번 붓질을 가하여 섬세한 이목구비, 안면과 의습선에 보이는 입체적 명암법과 운보문雲寶紋의 정교한 붓 터치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반의 시대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화면 상단에 '領議政文忠公晩圃沈先生眞(영의정문충공만포심선생진)'이라고 쓰여 있어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받은 1802년(순조2)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작가 및 제작에 관련된 명문은 보이지 않는다.

이 초상화를 그린 작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생동감 있는 안면의 사실적 묘사와 정교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의복과 기물의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당대 최고의 화원이었던 이명기李命基나 그의 화풍에 영향을 받은 작가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상의 요체를 포착한 얼굴 묘사로 인물의 개성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질감의 특성을 극대화시킨 기물의 표현으로 박진감 넘치는 시각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요컨대 조선후기 초상화의 특징인 사실성과 장식성의 조화를 잘 보여주며 기법 면에서도 매우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2004년 청송심씨青松沈氏 응교공파應敎公派 종중에서 기증하여 현재 경기도박물관에서 소장·관리되고 있다. 초상화와 함께 기증 당시 초상화를 보관하던 함函이 2006년 보물 제1480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1

2

1. 심환지 초상 안면부, 2008_ 경기도박물관
2. 심환지 초상 나무함, 2008_ 경기도박물관



보물 제1481호

김유 초상

金楺肖像

조선시대(1716년경)
1점
세로 172㎝, 가로 90㎝
비단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2006.12.29
소유자 : 청풍김씨 판서공파 종회(사유)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김유 초상>은 조선 후기의 문신 김유金楺(1653-1719)를 그린 초상화이다. 김유의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사직士直, 호는 검재儉齋이다. 숙종대부터 정조대까지 당내堂內에서 다섯 명의 재상을 배출한 경화거족京華巨族 출신으로 관찰사 김징金澄의 아들이고 우의정 김구金構의 동생이며, 좌의정 김약로金榏楼와 영의정 김상로金尙楼의 부친이다. 1699년(숙종25) 문과에 급제하고, 1715년(숙종41) 황해도 관찰사에 오른 뒤 이조참판과 대제학에 이르렀다.

김유 초상은 오사모에 단령을 입고 의자에 공수拱手자세로 앉아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얼굴을 오른쪽으로 약 20도 가량 돌려 좌안8분면左顔八分面을 취하고 있다. 짙은 녹색 단령에 높은 사모와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소매 폭은 당대의 복식을 보여준다. 가슴에는 쌍학문양의 흉배가 부착되어 있으며, 허리춤에는 정2품의 품계를 드러내는 삽금대鈒金帶를 두르고 있다. 이 초상화가 그려질 당시 김유는 종2품 황해도관찰사였기 때문에 당시 김유의 품계와도 부합한다. 안면의 외곽선과 이목구비는 짙은 갈색 선으로 그리고, 눈썹 위에 약간 튀어나온 부분은 붓질을 덜하여 밝음을 강조하였으며, 주름살은 미묘하게 농담의 차이를 주어 표현하였다. 특히 미간사이의 세로 주름과 이마 중앙의 갈매기 날개 같은 주름살, 그리고 눈썹과 궤를 같이하는 주름살의 표현은 화가가 얼마나 정교하고 세밀하게 표현했는지 잘 보여준다.

인물의 양옆으로는 의자의 손잡이가 나와 있는데 심하게 구부러지고 입체감을 전혀 표현하지 않았다. 의자에는 긴 줄무늬의 호피虎皮가 깔려 있는데, 호랑이의 얼굴 부분을 족좌대 위 중앙에 살짝 내비치고 호랑이의 발부분은 족좌대의 양옆으로 내려놓았다. 나뭇결이 정교하게 묘사된 족좌대足座臺 위에는 검은 가죽신을 신은 양발이 '八'자형으로 놓여있다. 김유 초상은 표현형식과 기법면에서 18세기 초반의 초상화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儉齋先生畵像六十四歲時寫(검재선생화상 육십사세시사)'라는 표제가 있어 이 초상화는 1716년(숙종42)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64세 때 그렸다'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이 초상화를 김유가 64세 되던 1716년에 그렸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보다 더 뒤인 1720년대 무렵에 그린 것이지만 64세 때 잡아두었던 초본이나 사본을 토대로 한 것이라는 의미인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초상화는 유수 초상(1726)이나 오명항 초상(1728), 박문수 초상(1728)처럼 1720년대 중·후반의 초상화와 유사하지만, 현재 1710년대 중·후반의 사모단령본紗帽團領本 전신교의좌상은 분명한 기년작紀年作이 적어 이러한 양식이 과연 언제부터 어떻게 나타났는지 명확하게 단계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김유 초상은 현재 1710년대 무렵으로 추정되는 몇몇 작품들과는 유사점이 적고 오히려 1728년(영조4)에 그려진 분무공신상奮武功臣像을 전후한 1720년대 후반경에 그려진 초상화들과 친연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64세 되던 1716년에 그려두었던 초본이나 사본을 1720년대 후반에 다시 그렸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진재해秦再奚가 1713년(숙종39)에 노론들이 주도했던 숙종 어진을 그리며 혜성처럼 등장한 이후 특히 노론 명사들의 초상화를 전담하다시피 했다는 점, 김유의 형인 우의정 김구金構의 초상화도 사후에 진재해가 모사했다는 김유의 아들 김취로金取榔의 1735년(영조13) 증언, 그리고 김유 초상의 얼굴 묘법이나 호피 장식 등이 진재해가 그린 조영복 초상趙榮福 肖像(1725)이나 유수 초상과 흡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김유 초상도 진재해가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

김유 초상은 청풍김씨 판서공파종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2002년부터는 경기도박물관에서 위탁·관리되고 있다.



1

2

1. 김유 초상 안면부, 2008_ 경기도박물관
2. 김유 초상, 2008_ 경기도박물관

보물 제1489호

박유명 초상

朴惟明 肖像

조선시대
1점
세로 170㎝, 가로 91㎝
비단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5

지정일 : 2006.12.29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수원박물관

<박유명 초상>은 조선 중기 무신 박유명朴惟明(1582~1640)을 그린 초상화이다.

박유명의 본관은 상주尙州, 자는 형부炯夫, 아버지는 찰방 박치관朴致寬이며, 어머니는 사간 김서金瀠의 딸이다. 1620년(광해군12) 무과에 급제하고, 서산군수에 초배超拜되어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만포첨사滿浦僉使를 역임하였다. 1623년 덕원부사로 재직할 때 이귀李貴의 별장으로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 3등에 책록되고 상원군商原君으로 봉해졌다. 그 뒤 당상선전관堂上宣傳官을 거쳐 오위장五衛將을 역임했다. 이 초상화는 박유명이 정사공신靖社功臣에 책록된 이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박유명 초상은 낮은 오사모에 단령을 입고 의자에 공수拱手자세로 앉아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단령은 검은 색에 가까운 어두운 색으로, 이보다 짙고 굵기가 같은 먹선으로 의습선을 묘사하고 있다. 가슴에는 한 마리의 호랑이와 모란문, 구름이 수놓아진 흉배를 착용하고 있고, 허리춤에는 서대를 두르고 있다. 바닥에는 중국식 채전이 높게 깔려 있는데, 채전의 표현에는 다소 굵은 점묘를 사용하였다. 안상문眼象紋이 있는 족좌대足座臺 위에는 흑피혜黑皮鞋(검은 가죽신)를 신은 발을 '八'자형으로 올려놓았다. 어깨선은 심하게 둥근 형태로 처리되어 부자연스런 느낌이 들며, 의복 역시 선묘 위주의 어둡고 탁한 색조를 보인다. 얼굴은 옅은 갈색으로 윤곽선을 그었고, 눈과 입의 형상 역시 갈색 윤곽선으로 처리되어 평면적인 느낌이 강하다. 안면의 전반에 걸쳐 농담을 달리하여 갈색의 선염을 가하였다.

단령 자락이 뒤로 뾰족하게 뻗친 모양, 단령의 트임 사이로 보이는 고袴와 첩리帖裡, 내공內工이 가지런히 배열된 형태, 바닥의 채전 등에서 17세기 초반 공신도상의 전형적인 형상이 잘 드러난다.

박유명 초상은 후손이 보관하고 있다가 2005년 수원시에 기증하여 현재 수원박물관에서 소장·관리하고 있다.

1

2



1. 박유명 초상 흉배, 2014_ 수원박물관
2. 박유명 초상, 2014_ 수원박물관



보물 제1511호

국조정토록

國朝征討錄

조선시대
2권 1책
세로 28.2㎝, 가로 18.2㎝
종이(닥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2007.04.20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조정토록>은 1419년(세종1) 대마도 정벌 때부터 1510년(중종5) 삼포왜란까지 7차례에 걸려 일어난 조선 전기의 대외 정벌사를 기록한 책이다. 『국조정토록』은 1책 상·하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의 앞에는 이 책의 「목록目錄」, 편찬 원칙을 밝힌 「범례」가 있는데 모두 4개 조항이 실려 있다.

이 책은 '각년各年의 일기日記'를 근거로 편찬되었고, 그 지명이 오랑캐 강역에 있는 경우 거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조선의 어떤 읍에서 몇 리라고 표시하고,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오랑캐의 땅虜地'이라고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조선의 군사행동은 정征 또는 토討로 칭하고 적병은 구寇 또는 반叛, 적을 격파한 경우는 참斬 또는 로虜로 표현하는 등 역사적 사실에 포폄褒貶을 행한 『통감강목通鑑綱目』의 서례序例를 따르고 있다.

『국조정토록』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무정보감武定寶鑑』, 『속무정보감續武定寶鑑』등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고려사高麗史』와 『천문지天文志』 등 각종 지리지 및 지도를 활용하여 만들었다. 상권 23면, 하권 23면으로 국가의 공식적인 출판이지만 서문이나 발문은 남아있지 않다. 상권에는 대마도 정벌征對馬島(세종1)·파저강 정벌征婆猪江(세종15)·건주위 정벌征建州衛(세조13)이 수록되어 있으며, 하권에는 건주위 정벌征建州衛(성종10)·이마차 정벌征尼麻車(성종22)·서북로구 정벌征西北虜寇·삼포반왜 정벌征三浦叛倭(중종5)이 수록되어 있다. 모두 7건의 대외 전쟁으로 여진족 정벌 기사가 5건이고, 왜구 정벌에 대한 기사는 2건이다. 각각의 대외 전쟁 기사는 편년체로 쓰여 있어 전쟁의 날짜별 경과와 양상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며, 내용은 각 전쟁의 원인, 지휘체계, 작전지시 명령, 동원된 병력과 군량에 대한 상황, 전쟁의 과정과 전과, 그리고 전후 포상 등이다.

『국조정토록』의 편찬시기를 알려주는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국조정토록』의 체재가 『속무정보감』을 많이 참조한 것을 미루어 보아 『속무정보감』이 편찬된 1548년(명종3) 10월 이후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편찬 초기에는 필사본 형태로 전해지다가 광해군대에 이르러 훈련도감에서 활자로 간행되었다. 필사본이 목판본으로 간행된 이유에 대해서도 역시 확인하기 어렵지만, 명종대 부터 선조대 이탕개泥蕩介의 난까지 화평한 시기가 이어지면서 『국조정토록』을 활자로 발행하여 널리 보급할 필요성이 없었다가 광해군대부터 국제정세가 변화되어 『국조정토록』을 활자로 발행할 필요성이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광해군일기』(태백산사고본)를 살펴보면 광해군 6년 7월 29일 기묘조己卯條에 당시까지 사본의 형태로 유포되고 있던 『국조정토록』을 광해군 6년 이후 활자로 인출하였고, 광해군 10년 6월과 7월에는 누르하치의 후금後金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여 명나라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광해군은 『국조정토록』의 여진 정벌 관련 내용을 참조하면서 파병을 위한 여러 준비를 하였다. 예를 들어 파병을 위한 명나라 황제의 칙서 확인 문제, 평안도 지역을 빼고 파병 군사들을 선발하는 문제, 도원수의 종사관 인원수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국조정토록』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탈취해 간 자료를 다시 베낀 필사본의 이본異本이 일본에 남아 있는 것을 제외하면 국내에 현존하는 유일본으로 추정된다. 압록강 및 두만강 너머 북방 지역의 지리 비정 및 당시 조선군의 기동로 및 전투 형태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크며, 조선 전기 전쟁사나 서지학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2
3
1

1. 국조정토록 표지,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2. 국조정토록 목차 및 범례,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3. 국조정토록 상권 대마도정벌 부분,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보물 제1512호

20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

二十功臣會盟軸-寧國功臣錄勳後

조선시대(1646년)
1축
세로 89.2㎝, 가로 2,413㎝
비단, 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2007.04.20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20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는 1646년(인조24)에 영국공신寧國功臣을 녹훈錄勳한 것을 계기로 개국공신부터 영국공신에 이르기까지의 20공신과 그 자손들을 불러 모아 회맹제를 거행하고 작성한 것이다. 『이십공신회맹축二十功臣會盟軸』은 회맹문會盟文과 참여자의 명단인 회맹록會盟錄으로 구성된다.

1644년(인조22) 3월, 심기원沈器遠 등이 인조를 제거하고 회은군懷恩君을 왕으로 추대하려 한다는 고변으로 처형당했는데, 그 후 이 역모사건으로 공을 세운 이들에게 영국공신이라는 훈호勳號가 내려졌다. 영국공신 녹훈이 마무리되자 1646년 9월 3일 개국공신부터 영국공신에 이르기까지의 20공신과 그 자손들을 불러 모아 영국회맹제를 거행하였다. 이 회맹제를 전후하여 회맹축을 제작하고 별도로 1책의 『이십공신회맹록二十功臣會盟錄』을 간행하였다. 영국공신회맹제에는 공신 및 그 장자, 적장손들 332명이 참석했다. 여기서 20공신은 개국開國(1392), 정사定社(1398), 좌명佐命(1401), 정난靖難(1453), 좌익佐翼(1455), 적개敵愾(1467), 익대翊戴(1468), 좌이佐理(1471), 정국靖國(1506), 정난定難(1507), 광국光國(1590), 평난平難(1589), 호성扈聖(1592), 선무宣武(1604), 청난淸難(1596), 정사靖社(1623), 진무振武(1624), 소무昭武(1627), 영사寧社(1628), 영국공신寧國功臣을 말한다. 회맹축에는 4명의 명단이 먹으로 지워져있다. 지워진 사람들의 관직과 이름은 당시 함께 제작한 『이십공신회맹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은 김자점金自點과 그 자손들이다. 김자점은 1623년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공을 세우고 1등 공신에 책록되었으나 그의 아들 김익金鈘이 수어청 군사를 일으켜 숭선군崇善君을 추대

1

2

1·2. 20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 2007_ 한국학중앙연구원





하려고 한 역모가 드러나 결국 1651년(효종2) 12월 김자점, 두 아들 김련金鍊과 김익, 손자 김세창金世昌과 김세룡金世龍이 처형되었다. 그들 중 회맹제에 참석했던 장남 김련, 차남 김익, 손자 김세창이 김자점과 함께 지워진 것이다.

『이십공신회맹축』의 회맹문은 1646년(인조24) 심기원의 역모 사건 이후 영국공신을 녹훈하고 9월 3일에 지낸 공신회맹제의 제문이다. 회맹문에는 그 자손으로서 국은國恩을 충심으로 갚아나가고 공신 자손들끼리도 단결할 것을 천지신명께 맹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지는 회맹록會盟錄에는 김유金瑬 등 영국공신과 개국공신 이하 19공신의 공신 및 그 장자, 적장손들의 군호君號, 공신호功臣號, 직함職銜, 성명姓名을 기록하였다. 이어서 불참자의 명단을 신병질身病秩·인공재외질因公在外秩·재상질在喪秩 등 사유별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작성일자를 순치順治 3년(1646) 9월로 기록하였다.

『이십공신회맹축』은 왕실이나 충훈부忠勳府에서 보관할 목적으로 최고의 재질로 거대하게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글이 쓰여 있는 바탕지 위·아래에는 굵은 주사선朱砂線이 각각 한 줄씩 그어져있고 본문 행간 사이에도 주사선이 가늘게 그어져 있으며, 그 안에 해서楷書로 본문이 묵서墨書되어 있다. 바탕지 사방에는 대능大綾으로 둘렀으며, 앞과 뒤의 회장回粧은 구름문양의 감색藍色 대능을 사용하였다. 축심軸心은 나무인데, 양쪽 끝에는 백옥白玉을 깎아 끼우고 옆에 구멍을 뚫어 대나무 쐐기로 고정하였다. 옥축은 지름이 15.1㎝로 말았을 때 두루마리가 옥축의 안쪽으로 들어가 보관 시 손상위험이 없도록 한 조선시대 초기 녹권에 사용되었던 축과 같은 양식이다.

『이십공신회맹축』은 조선시대 공신과 그 자손들의 동향 및 정치 양상을 연구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서지학적으로 공신 관련 문서류를 연구하는 데에도 활용가치가 높다. 또한 현존하는 완전한 상태의 회맹축이 희소하다는 점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







보물 제1513호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錄勳後

조선시대(1680년, 1694년)
1축
세로 88.5㎝, 가로 2,414㎝
비단, 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2007.04.20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는 1689년(숙종15)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파훈되었던 보사공신 5명이 1694년(숙종20) 복훈된 사실을 종묘에 고하면서 보사공신 회맹 때의 회맹문과 복훈復勳 때의 축문祝文 등을 하나의 권축장으로 꾸민 것이다.

1680년(숙종6) 경신환국庚申換局에 공을 세운 신하에게 보사공신호가 내려졌는데, 서인西人세력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후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득세하면서 5명의 공신이 파훈罷勳되었다가 1694년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서인이 재집권하면서 다시 훈명을 추록하였다.

1680년 보사공신회맹제에는 공신 및 그 장자, 적장손들 490명이 참석했다. 여기서 20공신은 개국開國(1392), 정사定社(1398), 좌명佐命(1401), 정난靖難(1453), 좌익佐翼(1455), 적개敵愾(1467), 익대翊戴(1468), 좌이佐理(1471), 정국靖國(1506), 광국光國(1590), 평난平難(1589), 호성扈聖(1592), 선무宣武(1604), 청난淸難(1596), 정사靖社(1623), 진무振武(1624), 소무昭武(1627), 영사寧社(1628), 영국寧國(1646), 보사공신保社功臣을 말한다. 이것은 인조대 회맹축(보물 제1512호)의 20공신과 차이를 보인다. 인조대 회맹축에 보이는 20공신에 보사공신이 녹훈되면서 21공신이 되어야 하나, 정난李顆의 역모를 평정한 중종대 정난공신定難功臣(1507)이 인조대 영국공신寧國







功臣 녹훈錄勳 이래 삭훈削勳되어 20공신이 된 것이다.

『이십공신회맹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1680년 8월에 있었던 보사공신회맹保社功臣會盟 때 작성된 회맹문會盟文이다. 회맹문에는 공신과 그 자손으로서 국은國恩을 충심으로 갚아 나가고 공신 자손들끼리도 서로 단결할 것을 천지신명께 맹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지는 회맹록會盟錄에는 회맹에 참여한 공신과 자손의 군호·공신호·직함·성명을 기록하였다. 이어서 불참자의 명단을 신병身病, 재상在喪, 발병廢病, 연유年幼, 변장재외邊將在外, 피적被謫 등 사유별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작성 일자를 강희康熙19년(1680) 8월로 기록하였다.

두 번째는 1694년 6월 20일 복훈 사실을 종묘에 고하면서 쓴 「복훈시고종묘제축문復勳時告宗廟祭祝文」을 기록하고 작성 일자를 강희康熙33년(1694) 10월로 적었다. 그리고 세필細筆로 '己巳罷勳甲戌复勳(기사년에 파훈되고 갑술년에 복훈되었다)'는 내용을 쓴 후, 그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날인捺印하였다.

회맹축은 왕실에서 보관할 목적으로 최고의 재질로 거대하게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글이 쓰여 있는 바탕지 위·아래에는 굵은 주사선朱砂線이 각각 한 줄씩 그어져있고 본문 행간 사이에도 주사선이 가늘게 그어져 있으며, 그 안에 해서楷書로 본문이 묵서墨書되어 있다. 바탕지 사방에는 대능大綾으로 둘렀으며, 앞과 뒤의 회장回粧은 구름문양의 감색藍色 대능을 사용하였다. 축심軸心은 나무인데, 양쪽 끝에는 백옥白玉을 깎아 끼웠다. 이러한 형태는 조선초기의 녹권에 사용되었던 축과 같은 양식이다.

이십공신회맹축은 조선시대 공신 녹훈과 삭훈 과정, 숙종대 정국과 변화 양상 등을 연구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이다.









1

2

1·2.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 2007_ 한국학중앙연구원

보물 제1514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상1의1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上 一之一

조선시대(1465년)
1책
세로 27.3㎝, 가로 18.2㎝
종이(닥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2007.04.20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상2의2, 권하3의1~3의2>는 1465년(세조11) 간경도감刊經都監 국역본을 저본으로 주자소에서 금속활자인 을유자乙酉字로 인출한 불교경전이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북인도의 고승인 불타다라佛陀多羅가 한역漢譯한 것으로 『대방광원각경』, 『원각수다라요의경』, 『원각요의경』으로 불리는데, 흔히 『원각경』이라고 한다. 관심수행觀心修行을 위주로 원만한 깨달음에 이르는 중요한 방법을 설說한 대승경전大乘經典으로서 석가여래가 12명의 보살과 문답한 것을 제1 문수보살장文殊菩薩章, 제2 보현보살장普賢菩薩章, 제3 보안보살장普眼菩薩章, 제4 금강장보살장金剛藏菩薩章, 제5 미륵보살장彌勒菩薩章, 제6 청정혜보살장淸淨慧菩薩章, 제7 위덕자재보살장威德自在菩薩章, 제8 변음보살장辯音菩薩章, 제9 정제업장보살장淨諸業障菩薩章, 제10 보각보살장普覺菩薩章, 제11 원각보살장圓覺菩薩章, 제12 현선수보살장賢善首菩薩章으로 구성하여 상·하편에 나누어 수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현전본으로는 1380년(우왕6)에 이색이 지은 발문이 있는 고려본을 비롯하여, 1461년(세조7)에 을해자乙亥字로 간행한 활자본, 1464년(세조10)에 함허 득통得通이 주석을 단 한문본, 1465년에 세조가 정문에 구결을 달고 이를 언해하여 개판한 간경도감 국역본, 1465년에 간경도감 언해본을 저본으로 재편한 을유자乙酉字로 찍어낸 활자본 등이 있다. 이밖에 조선시대에 간행된 사찰본으로 1570년(선조3)에 전라도 안심사에서 간경도감판을 복각한 판본 등 대략 12종이 알려져 있다.







이처럼 다양한 판본 가운데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종밀宗密이 소초疏鈔한 것에 세조가 한글로 구결을 달아 간행된 간경도감 국역본을 저본으로 1465년 주자소에서 경문의 한글 구결 부분만을 편집하여 을유자로 인출한 금속활자본이다.

을유자는 1465년 원각사를 준공한 기념으로 세조의 명에 따라 정난종鄭蘭宗(1433~1489)이 쓴 송설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활자이다. 을유자로는 대자·중자·소자의 동활자를 주로 주조하였으며, 구결을 인쇄하기 위하여 한글 활자도 주조하였다. 하지만 글자의 모양이 바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로 불경을 간행할 목적으로 주성鑄成되었던 까닭에 당시 유신들의 강한 반대로 사용되지 못하다가 갑진자甲辰字 주조 시에 이 활자를 녹여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 전래본傳來本이 많지 않은 편이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의 상편은 일一과 이二로 구분하고, 하편은 일一, 이二, 삼三으로 구분하며, 상일上一을 다시 일一과 이二로, 상이上二를 일一, 이二, 삼三으로, 하편 일一, 이二, 삼三을 각각 일一, 이二로 다시 분권되어 있다, 이 중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서문과 상편1의1로 구성된 1책의 결본缺本이다.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판식版式은 사주단변四周單邊에 계선界線이 있고, 반엽 6행에 한 행의 경문은 대자13자, 소자19자씩 배자되어 있다. 판심版心에는 상하흑어미上下黑魚尾가 서로 내향하고 있으며, 어미 사이에 있는 판심제版心題는 '圓覺'이다.

권수에는 명의대사明義大師 사제思齊의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약초서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略𢎥序」, 배휴裵休의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약소서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略疏序」, 규봉 종밀圭峰宗密의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서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序」의 순서로 서문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종밀의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서」에는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의 특징과 중요성, 그리고 이 주석서의 성립 배경과 이에 얽힌 일화가 밝혀져 있다. 서문에 이어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이라는 서제序題와 '상일지일上一之一'이라는 권수 표시가 있다. 다음 행에는 '종남산초당사사문終南山草堂寺沙門 종밀宗密 소초疏鈔'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 책은 종밀이 소초한 것의 국역판본을 저본으로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권상1의1은 제1 문수보살장文殊菩薩章부분으로 여래인행如來因行의 근본과 과상果相을 설한 내용이다. 누구나 본래부터 갖고 있는 원각에 환원하기만 하면 생사가 곧 열반이요 윤회가 곧 해탈이 됨을 가르치고 있다.

이 책은 전래본이 많지 않은 을유자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으로 초인본이라 인쇄상태가 깨끗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15세기 국어학 및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 책의 동일본으로는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상1의2, 하1의1~2의2(보물 제1219-1호), 권상2의2, 권하3의1~3의2(보물 제1219-2호), 권하 1의1~2, 2의1~2(보물 제1219-3호) 등이 있다.



1 2 3 4

1.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표지, 2014 _ 한국학중앙연구원
2. 명의대사의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약초서, 2014 _ 한국학중앙연구원
3. 종밀의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서, 2014 _ 한국학중앙연구원
4.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상1의1, 2014 _ 한국학중앙연구원

보물 제1515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 보살만행수능엄경 권2, 10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二, 十

조선시대(1462년)
2권 2책
세로 32.5㎝, 가로 22.8㎝
종이(닥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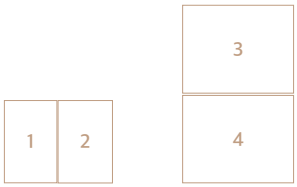
지정일 : 2007.04.20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2, 10>은 1462년(세조8)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을해자본乙亥字本을 교정하여 간행한 『능엄경』 언해본의 일부이다.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줄여서 『대불정수능엄경大佛頂首楞嚴經』, 『수능엄경首楞嚴經』, 『능엄경楞嚴經』으로 일컬으며, 번뇌煩惱에 가득 찬 마음을 버리고 묘명妙明한 마음을 밝히는 것이 그 요지이고, 이를 위한 실천 수행으로 계율을 청정히 지켜 선정禪定을 닦을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능엄경』은 당나라 반자밀제般剌蜜帝가 처음 한역하고 중국 송나라의 계환戒環이 요점을 뽑아 주해註解한 불경으로 고려 소자본 능엄경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초기의 대자본, 활자본,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언해본을 비롯하여 다양한 판본이 전래되고 있다.

이 중 『능엄경』 언해본 계통으로는 1461년 간행한 을해자본과 1462년에 간행한 간경도감본 그리고 을해자본과 간경도감본의 번각본飜刻本으로 알려진 판본들이 남아있다. 간경도감은 불경간행을 국가적 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왕권으로 설치한 임시 기구로, 설치된 이후 세조의 불경간행사업을 도맡아 추진하였다. 『능엄경』은 이러한 세조의 불경간행에 핵심적인 자료로 알려져 있다.



1. 능엄경 권2 권수,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2. 능엄경 권10 권수,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3·4. 능엄경 권2 본문,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第二
溫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
二發明覺元性真使造悟三 初經家叙意
爾時阿難及諸大衆 聞佛示誨 身心泰然 合無始來 失却本心 安認緣塵分別影事 今日 開悟 如失乳兒 忽遇慈母 合掌禮佛 而白佛言 願佛 大慈 發明 如來 顯出身心 真妄 虛實 現前 生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第十
溫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
四行陰四 初示陰相
阿難 彼善男子 修三摩地 想陰盡著 是人 平常 夢想 銷滅 寤寐一恒 一覺朗然 虛靜 猶如晴空 無復麤重 前塵影事 觀諸世間 大地山河 如鏡鑑明 來無所離 過無隱迹 處

라 二合同分二 一牒喩

阿難아 如彼衆生이 同分妄見으로 例彼妄見
別業一人면 一病目人이 同彼一國하며 彼見
圓影眚妄兩生과 此衆同分兩現不祥이 同
見業中엣 瘴惡兩起니 俱是無始見妄이 兩
生이니라 ○阿難난아 져衆중生싱이 同
동分뿐妄망見견으로 져妄망見견은 別
뼐業업엣 ᄒᆞᆫ사ᄅᆞᆷ을 몰견주견댄 ᄒᆞᆫ 衆중이
사ᄅᆞᆷ마ᄃᆞ 져ᄒᆞᆫ나라 ᄒᆞ고 ᄒᆞᆫ가지며 져보ᄂᆞᆫ 病뼝ᄒᆞᆫ
운그리메 眚싱妄망의 난것과 이衆중이 同
동分뿐엣 現현혼 祥썅瑞쒕아ᄂᆞᆫ 거시 ᄒᆞᆫ가
지로 見견業업中등엣 瘴장惡학이니 ᄃᆞᆫ 거
시니라 ■瘴장은 病뼝이라 ■ᄃᆞᆫ 이 無뭉始싱

옛見견妄망
이난 거시라

引別業ᄒᆞ야 例同分ᄒᆞ며 ᄒᆞ시 引眚妄ᄒᆞ야 例瘴惡
ᄒᆞ야 以明妄業이 雖異ᄒᆞ나 妄本은 不殊ᄒᆞᆫ ᄃᆞᆯ
시 故로 曰俱是無始見妄이 兩生이시니라ᄒᆞ
○別뼐業업을 ᄲᅥ야 同동分뿐을 견주야 瘴장惡학을 견주야
며 眚싱妄망을 ᄲᅥ야 妄망業업이 비록 다ᄅᆞ나 妄망의 根근源
원은 다ᄅᆞ디 아니ᄒᆞᆫ ᄃᆞᆯ 기실ᄊᆞᆨ이 러ᄃᆞᆫ
로 니ᄅᆞ샤ᄃᆡ 다 이 無뭉始싱엣 見
견妄망이 난 거시라ᄒᆞ시니라 二正

合

例閻浮提三千洲中과 無四大海와 娑婆世

阿難아 若明際中에 必無見者ᄂᆞᆫ 則不相及
ᄒᆞᆯ지라 自不知其明相所在ᄒᆞ려니 畔이 云何成
이리오 ○阿ᄒᆞᆯ難난아ᄒᆞ다가 몰견ᄒᆞᆫ 곳中등엣
에 반ᄃᆞ기 보이ᄂᆞᆫ 견ᄒᆞᆫ 숨ᄒᆞᆫ 견ᄒᆞᆫ 서ᄅᆞ 잇ᄃᆡ 아니ᄒᆞᆷ
ᄃᆡ라 ᄶᅡᆨ 그 몰견ᄒᆞᆫ 相샹이 잇ᄂᆞᆫ ᄃᆞᆯ 론 ᄒᆞᆯ
ᄃᆡ 몯ᄂᆞᆫ ᄒᆞ려니ᄀᆞ 시엇ᄃᆡ 일라오
相及ᄒᆞ야 乃有畔ᄒᆞ니 畔義不成ᄒᆞ니 非非
和也ㅣ로다 ○서ᄅᆞ 미처 ᄊᆞᆨ이시ᄂᆞᆫ니
ᄊᆞᆨ이ᄲᅳ디 아니ᄒᆞ니 아니 和뽕ᄒᆞᆫ
ᄃᆡ로다 四例明

彼暗與通과 及諸群蹇의 亦復如是ᄒᆞ니라 ○ᄃᆞ더어
고ᄃᆞ움과 通통과 모ᄃᆞᆫ 마
ᄉᆞᆼ이 곧ᄒᆞ니라

四辯非非合三 初惣問

又妙見精이 非和合者ᄂᆞᆫ 則爲非明과 合과 爲
非暗과 合과 爲非通과 合과 爲非蹇과 合가
○또 妙묗ᄆᆡᆼ ᄊᆞᆨ뭉ᄒᆞᆫ 見견精정이 和뽕合ᄲᅢᆸ아니
ᄒᆞᆷ ᄃᆞᆫ 괜 ᄃᆞᆯ 론 곰과 合ᄲᅢᆸᄃᆡ 아니나 ᄒᆞ녀 어ᄃᆞ 움과
合ᄲᅢᆸᄃᆡ 아니ᄒᆞ녀 通통과 合ᄲᅢᆸᄃᆡ 아
니ᄒᆞ녀 마곰과 合ᄲᅢᆸᄃᆡ 아니ᄒᆞ녀

二別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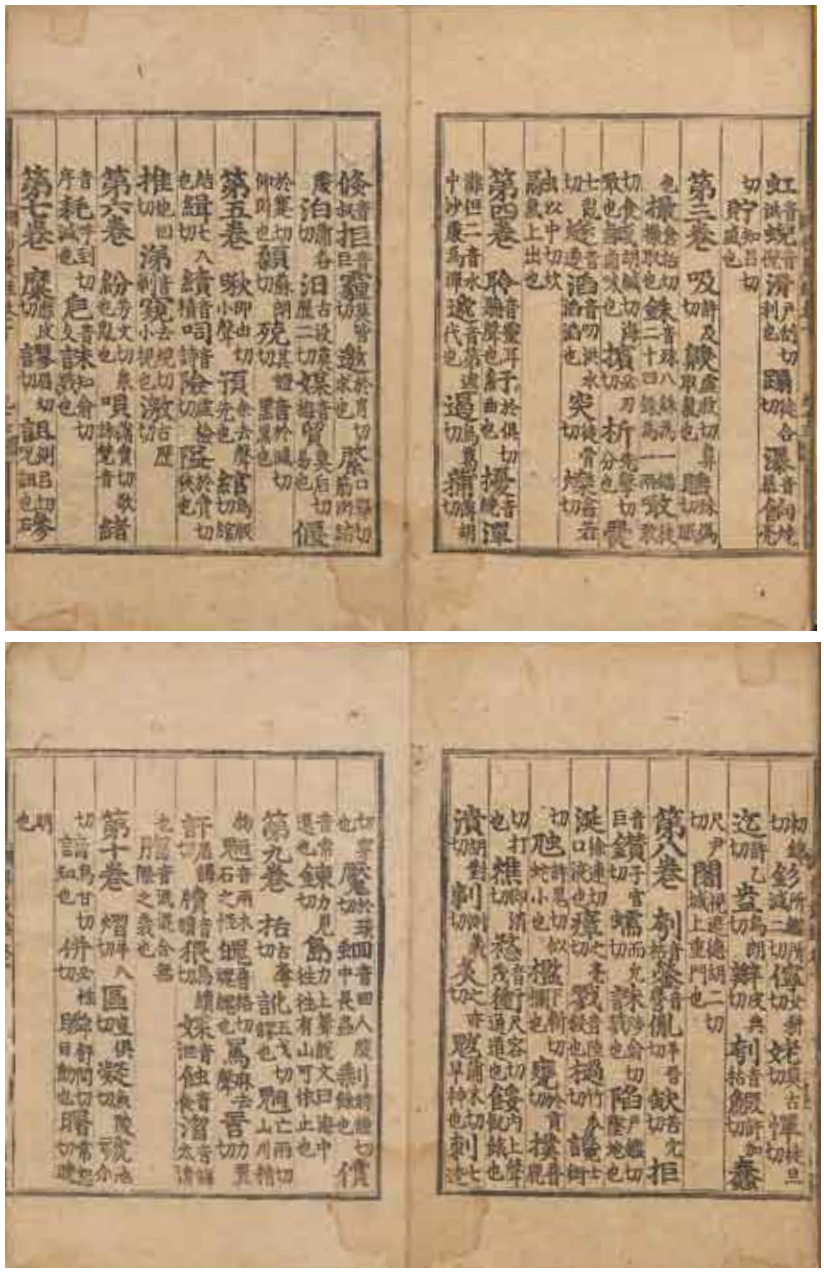
若非明과 合댄 則見與明이 性相乖角ᄒᆞ미 如
見與明과 了不相觸ᄒᆞᄂᆞᆫ듯ᄒᆞ야 見도 ᄒᆞ야 且不知明
相所在ᄒᆞ리어니 云何數明合과 非合괏 理ᄒᆞ리
오



『능엄경』 언해본은 본래 1449년(세종31) 왕명으로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착수한 것이나 그 해석에 어려운 것이 많아 완성시키지 못하고 뒤로 미루어졌다. 그러다가 1461년(세조7) 효령대군孝寧大君이 다시 그 국역의 완성을 세조에 주청함에 혜각존자 신미信眉·한계희韓繼禧·김수온金守溫 등에 국역과 교정을 명하여 완성하게 된 것이다. 이후 1461년에 간행된 을해자본을 교정하여 1462년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다시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전10권 중 권2와 권10에 해당된다. 『능엄경』 권2의 내용은 깨달음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밝혀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한 것이고, 『능엄경』 권10은 오음五陰(색色·애愛·상想·행行·식識)의 근본을 설하여 경의 본론을 끝낸 뒤, 이 경의 공덕과 유통에 관하여 덧붙인 것이다.

'언해'와 '요해要解의 언해'를 구분하여 수록하였고 판형도 경의 대문과 요해·언해에 따라 크기를 달리하였으며, 대·중·소자가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있다. 판식은 사주쌍변四周雙邊으



1 3
2 4

1~4. 능엄경 권10 권말 전권의 음석, 2014
_ 한국학중앙연구원

로 본문에는 계선界線이 있으며, 9행에 대자 17자, 소자쌍행으로 되어있다. 판심版心은 상하대흑구上下大黑口에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다. 이 책 본문의 일부에는 오자誤字를 오려내고 수정자를 배면에 붙이는 방식으로 수정되어 있는데, 주로 아난阿難의 한글음 '아'자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체字體는 매우 해정한 해서체로 세조의 친필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송설체의 필의가 느껴진다. 한글자체는 당시 활자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정방형의 고딕체 소자로 쓰여 있다. 한글에는 방점傍點이 붙어 있어 15세기 한글 창제 무렵 국어의 특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이 『능엄경』은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국역 을해자본의 완성본으로 이후 간경도감에서 간행되는 언해본의 규범이 된 불경으로 한글과 동국정운식 한자음東國正韻式漢字音을 적용한 국역서로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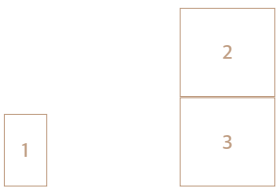
보물 제1521호

경국대전 권3

經國大典 卷三

조선시대
1권 1책
세로 34㎝, 가로 22㎝
종이(닥종이)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지정일 : 2007.07.13
소유자 : 황세희(사유)
관리자 : 황세희



1. 경국대전 권3 표지, 2011_ 문화재청
2·3. 예전 중 제과 부분, 2011_ 문화재청



<경국대전 권3>은 조선 건국 초기에 편찬된 『경제육전經濟六典』의 원전原典과 속전續典,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통합하여 성종 때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한 조선의 통합법전이다. 편제와 내용은 『경제육전』과 같이 6분 방식에 따라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순서로 되어 있고, 각 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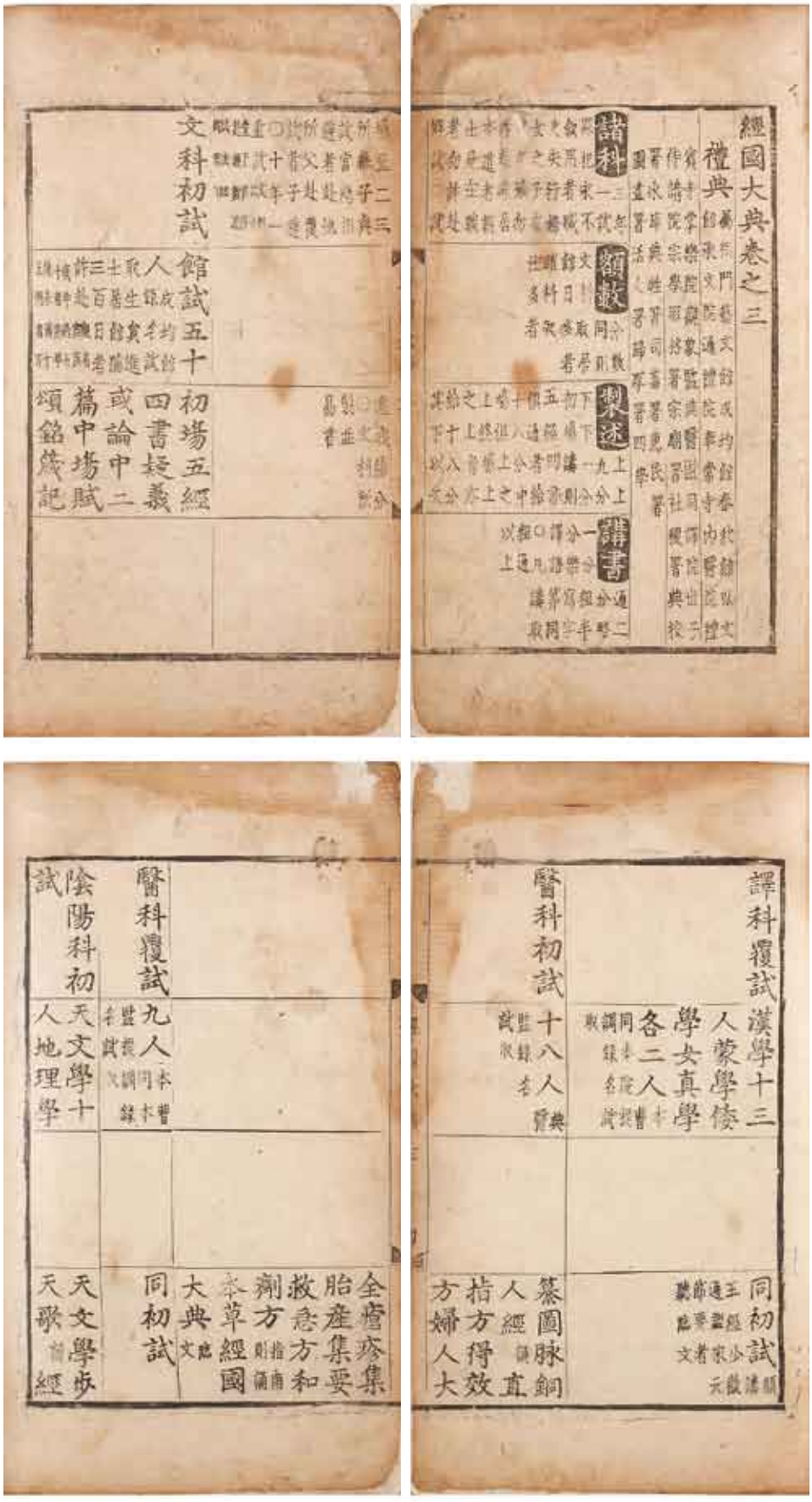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새로운 법령이 계속 쌓이고 그것들이 전후 모순되거나 미비해 결함이 발견될 때마다 속전을 간행하는 고식적 법전 편찬 방법을 지양하였다. 이에 따라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가 설치되고 최항崔恒·노사신盧思愼·서거정徐居正 등이 왕명을 받들어 당시까지 간행된 모든 법을 전체적으로 조화시킨 통일법전 편찬에 착수하였다.

1460년(세조6) 7월에 먼저 재정·경제의 기본이 되는 호전戶典과 호전등록戶典謄錄을 완성, 이를 『경국대전』 '호전'이라 이름 하였다. 이듬해 7월에는 형전刑典을 완성해 공포·시행했으며, 1466년에는 나머지 이전吏典·예전禮典·병전兵典·공전工典도 완성하였다. 또 호전·형전도 함께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해 14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세조는 신중을 기해 반행頒行을 보류하였다. 그 후 예종도 육전상정소를 설치해 원년 9월에 매듭지어 2년 1월 1일부터 반포하기로 결정했으나, 예종이 갑자기 죽어 시행하지 못하였다. 성종이 즉위하자, 이를 다시 수정해 드디어 14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신묘본辛卯本'이다. 그런데 누락된 조문이 있어 다시 개수해 1474년 2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이것이 '갑오본甲午本'이다. 그 때 대전에 수록되지 않은 법령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72개 조문은 따로 속록續錄을 만들어 함께 시행하였다. 그러나 1481년 9월에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어, 감교청勘校廳을 설치하고 대전과 속록을 개수해 14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것이 '을사본乙巳本'인데, 이것을 시행할 때에 앞으로 다시는 개수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규정지었다.

이렇게 경국대전은 처음 찬집이 시작된 이래 4차의 편찬과 수정을 거쳐 1485년 '을사대전乙巳大典'으로 완성을 보았으며, 이후부터는 수정과 증보를 하지 않고 영세불변永世不變의 법전으로 준행하도록 하였다. '을사본'은 편찬 당시 초주갑인자로 인출되어 반포되었고, 그 뒤에도 이 활자본을 저본으로 여러 차례 복각 간행되었다.

이 책은 1486년(성종17) 초주갑인자로 인출된 금속활자본이다. 전6권 중 권3에 해당되는 1책으로 내용상 '예전禮典'을 다루고 있다. 초주갑인자는 1434년(세종16)에 조선시대에 세 번째로 동銅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주조된 활자로 1434년에 인출된 간본은 판식의 특징상 사주쌍변四周雙邊에 판심 위아래의 흑어미가 하향하는 형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활자 주조 이후 50여년이 지난 성종 때 간행된 초주본으로 사주단변四周單邊에 판심 위아래의 흑어미가 안쪽으로 향하는 형식을 보이고 있어 초기 인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법전은 '정치의 요체는 법치法治에 있다'고 서약·선언한 태조의 강력한 법치의지를 계승하면서 당시의 법사상인 양법미의良法美意에 대한 자신감과 실천의지가 표명되어 있다. 법전에 수록된 조문들은 이후에 편찬되는 법전에서도 삭제되어서는 안되는 신성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조선시대 제도사를 연구하는 데 기본 사료가 된다. 이 책은 비록 완질본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훼손된 부분도 많지만 현전본이 극히 희귀하여 보물로 지정되었다.


經國大典卷之三

禮典

諸科

額數

製述

講書

文科初試

館試五十人

初場五經四書疑義或論中二篇中場賦頌銘箴記

譯科覆試漢學十三人蒙學倭學女真學各二人

同初試

譯科初試十八人

簒圖脉銅人經直指方得效方婦人大全瘡疹集胎產集要救急方和劑方本草經國大典同初試天文學步天歌

醫科覆試九人

醫科初試

陰陽科初試天文學十人地理學

예전 - 제과諸科

문과文科, 역과譯科, 의과醫科, 음양과陰陽科, 율과律科 등 각종 과거를 횡으로 제시한 후, 각 과거마다 제과諸科, 액수額數, 제술製述, 강서講書의 항목으로 관련 규정을 정리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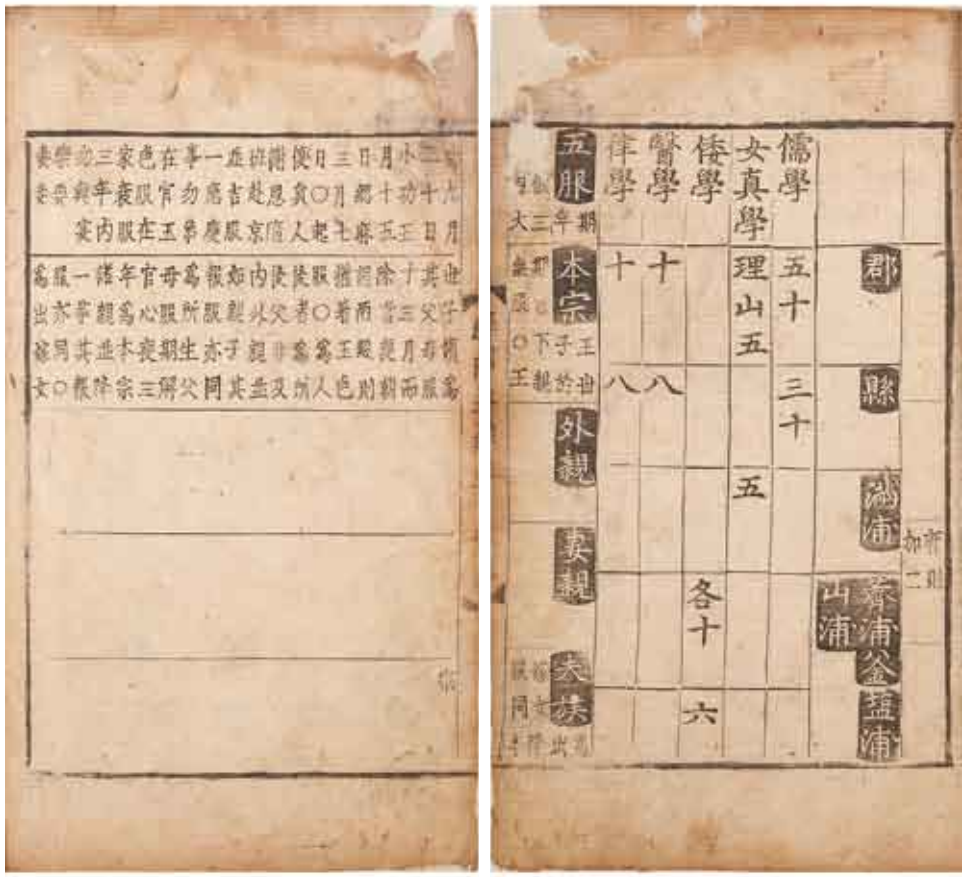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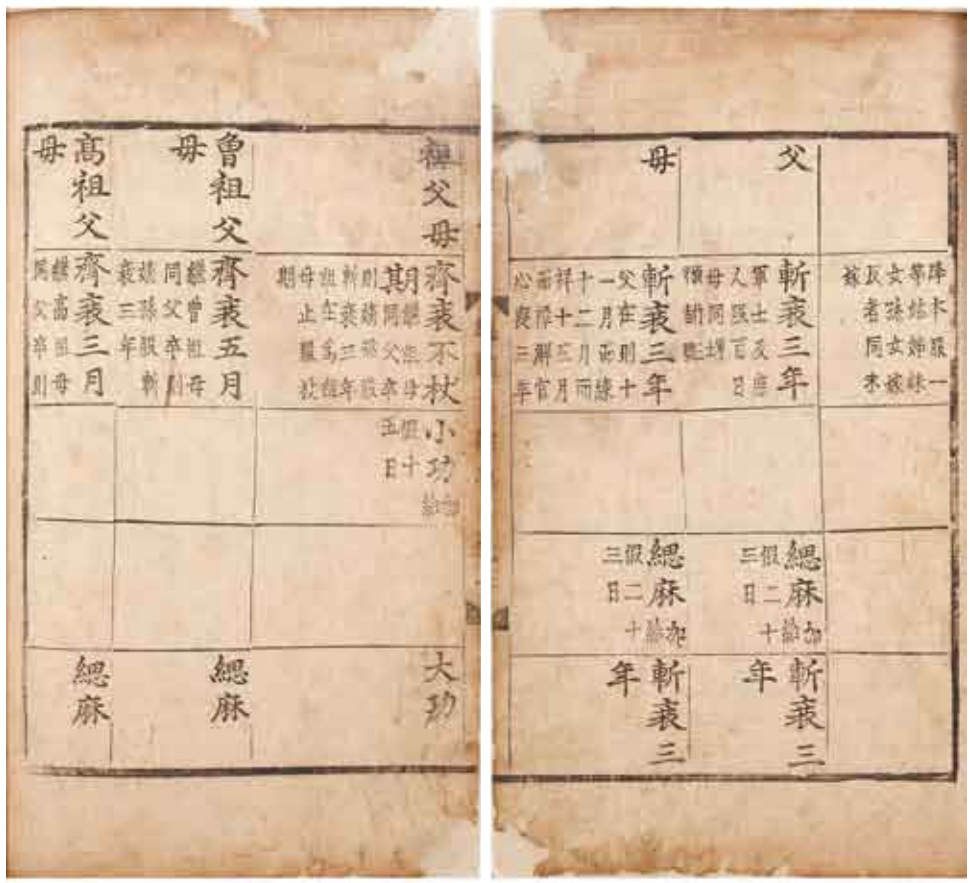



1·2. 예전 중 의장 부분, 2011_ 문화재청
3·4. 예전 중 오복 부분, 2011_ 문화재청

예전 - 의장儀章

1품부터 9품, 녹사錄事, 서리書吏, 향리鄕吏, 별감別監, 궐내각차闕內各差, 인로引路, 나장羅將, 조예皂隷 등 품계에 따라 관冠, 복服, 대帶(허리띠), 홀笏, 말襪(버선), 화혜靴鞋(신발), 안구鞍具(말 안장에 딸린 여러 가지 기구) 등을 규정한 부분





예전 - 오복五服

참최斬衰(3년), 자최齊衰(3년), 대공大功(9개월), 소공小功(5개월), 시마緦麻(3개월) 등 상을 치르는 기간과 옷차림을 망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규정한 부분

보물 제1532호

여주 효종 영릉재실

驪州 孝宗 寧陵齋室

조선시대(1659년)
1곽
안향청 - 정면 3칸, 측면 2칸, 단층건물, 팔작지붕
재실(참봉청) - 정면 6칸, 측면 2칸, 단층건물, 맞배지붕
집사청 - 정면 4칸, 측면 1칸, 단층건물, 맞배지붕
목재, 석재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327

지정일 : 2007.11.29
소유자 : 문화재청
관리자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여주 효종 영릉재실>은 조선 제17대 임금 효종孝宗(재위 1649~1659)과 인선왕후仁宣王后 장씨의 능인 영릉寧陵에 제사하기 위해 1674년(현종15)에 세운 재실齋室이다. 영릉은 초장, 이장, 합장이라는 총 세 번의 장례가 치러진 능이며, 이에 따라 재실도 1659년(현종1) 초창된 후 1673년과 1674년에 두 번의 이건과정을 거쳐 현재의 위치에 자리 잡았다. 효종의 능은 본래 경기도 양주군 건원릉(현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서쪽 산기슭인 원릉 자리에 조성되었었다. 재실은 7월 27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8월 26일에 상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산릉을 조성하고 얼마 되지 않아 석물이 벌어지고 현궁까지 물이 침투할 것을 염려하여 1673년(현종14) 현재의 위치로 천릉하고 재실도 그대로 이건하였다.

재실은 이듬해인 1674년 효종비인 인선왕후가 승하하자 현종릉과 합사合祀하면서 재실은 다시 한 번 옮겨졌다. 구 재실을 철거하여 이건하였기 때문에 건축의 규모와 형식은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때 이전된 재실이 현존하는 재실로 추정된다.

초창 영릉 재실의 규모와 배치는『효종영릉 산릉도감의궤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에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고 장릉長陵의 예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조사한 내용이 의궤에 기록되어 있다. 다만 초창 재실을 철거하여 이건한 기록인『효종천봉 산릉도감의궤』에는 재실의 규모와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하면서 약간은 변경이 있었겠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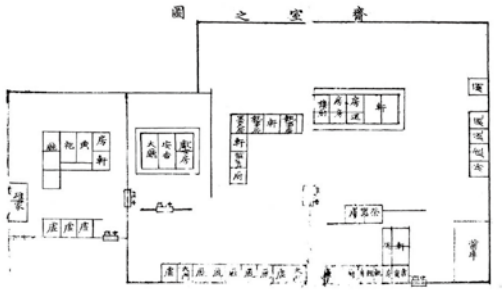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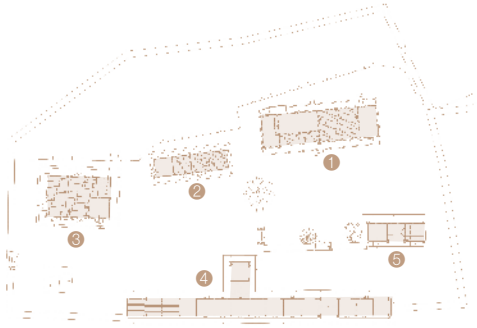
1. 여주 효종 영릉 재실,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안향청,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여주 효종 영릉과 재실 항공사진, 2011_ 경기문화재연구원

영릉재실은 안향청, 집사청, 전사청, 참봉청, 행랑, 침가砧家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안향청, 제기고(집사청), 재실(참봉청), 행랑채부속동(제기고), 행랑으로 구성되어 있다. 1900년경 영릉 재실을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능제규례陵祭規例』의 「재실지도齋室之圖」와 비교해 보면 현재 재실은 능역을 관리하는 참봉의 거처였던 참봉청, 제기고 건물은 집사청, 현 행랑채 부속동은 제기고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례 시 왕과 헌관이 머물었던 안향청은 재실 건물 중 가장 격식이 있는 건물로서 본래 주위에 담장을 둘러 영역을 구분하였으나 지금은 담장이 철거된 상태이다. 또한 안향청 향좌측에는 전사청이 있었으나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영릉재실은 의궤의 기록과 『능제규례』을 비교해 볼 때 전사청과 침가가 소실되고 일부 실들의 기능이 변하였지만 처음 조성되었던 재실의 모습을 대체로 잘 유지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조선왕릉의 재실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멸실되고 원형이 훼손되었으나 영릉재실은 기본 형태가 잘 남아있고, 간결하고 소박하면서 짜임새 있는 건물의 구성은 조선 왕릉의 재실 건축의 표본이 되고 있다.



『능제규례』의 「재실지도」



❶ 재실
❷ 제기고
❸ 안향청
❹ 행랑채
❺ 행랑채 부속동





보물 제1535호

숙빈최씨 소령원도

淑嬪崔氏 昭寧園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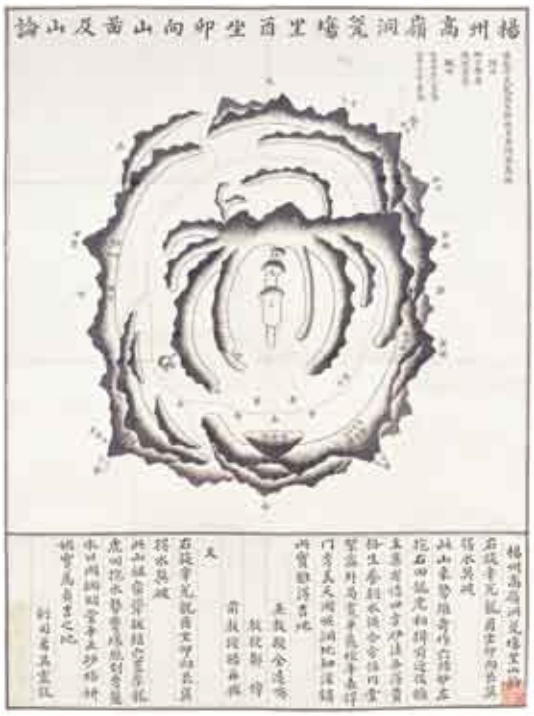
조선시대
4종
①소령원도 - 세로 115.7㎝, 가로 87.4㎝
②묘소도형여산론 - 세로 79㎝, 가로 59.4㎝
③소령원배치도 - 세로 93.8㎝, 가로 75.2㎝
④소령원화소정계도 - 세로 89.8㎝, 가로 74.3㎝
종이(닥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2007.12.3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1

2

1. 묘소도형여산도, 2011_ 한국학중앙연구원
2. 소령원도, 2009_ 한국중앙연구원



<숙빈최씨 소령원도>는 조선 제21대 임금 영조英祖(재위 1724~1776)의 생모 숙빈최씨淑嬪崔氏(1670~1718)의 능묘인 소령원昭寧園 일대를 그린 묘산도墓山圖이다.

숙빈최씨의 본관은 해주海州이며, 최효원崔孝元과 남양홍씨의 딸로 서울 여경방餘慶坊에서 출생했다. 7세에 입궁하여 숙종의 후궁이 되었다. 1693년 숙원淑媛이 되어 첫째 영수永壽를 낳았으나 두 달여 만에 사망했고 1694년 숙의淑儀가 되어 둘째 금昤을 낳았으며 1695년 셋째를 낳았으나 사흘 만에 사망했다. 1699년 숙빈淑嬪에 봉해지고 아들 금이 연잉군延礽君에 책봉되었다. 1716년 병환이 들어 창의동彰義洞의 사제私第에 나가 요양하다가 1718년(숙종44) 3월 19일에 49세로 사망하였다. 그해 5월 12일 양주 고령동 옹장리 묘향에 묻혔는데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소재한 소령원昭寧園이다. 영조는 1725년(영조1)에 생모 숙빈최씨를 위해 숙빈묘를 조성하고 육상묘毓祥廟(현 서울 종로구 궁정동 칠궁)를 건립하여 어머니의 신위를 봉안하였다. 1744년(영조20) 소령이라는 묘호가 정해져 소령묘昭寧墓로 고쳐 부르다가 1753년(영조29) 묘소는 소령원으로, 신위를 모신 사당은 육상궁毓祥宮으로 승격되었다.

왕실가족이 상喪을 당하면 우선 능을 조성하기 위해 택지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관과 풍수에 밝은 대신들이 한양 주변 백리 안팎의 명당을 둘러보고 풍수적으로 이상적인 곳의 산도를 그렸다. 이를 토대로 왕과 신하들이 의논한 후 최종적으로 왕이 능지를 결정했다. 이후 선정된 택지의 명당공간과 산맥체계를 대신과 지관이 논평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공이 그림을 그린다. 즉, 능지 선정과정에서 두가지 성격의 산릉도가 탄생하는데, 그 두가지가 바로 후보지에 대한 풍수적 논평을 기록한 보고서 형식의 산릉도와 능지를 완성한 후 능 주변의 지형과 지물을 기록한 배치도 형식의 산릉도이다.

「소령원도」는 소령원 일대의 모습을 산도의 형식으로 그린 그림으로 소령원 일대 전답과 묘소의 봉분 주변의 석물石物, 제청祭廳, 제실祭室, 원직園直, 기임각祈稔閣, 비각碑閣 등의 모습을 배치도 형식으로 자세히 묘사하였다. 일반 산릉도에서는 장식적이고 도식적으로 산세를 묘사하는 반면 「소령원도」에서 그려지는 산세는 피마준披麻皴과 미점준米點皴을 사용하여 황녹색 담채로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산릉도에 자세히 그려지지 않은 수목들을 수종에 따라 다양한 수지법으로 묘사한 점이 특징이다. 이미 풍수적 검증인 끝나고 소령원이 완성된 후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산맥의 표현보다는 묘소가 위치한 지형과 지물을 사실적으로 그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숙빈최씨 소령원도 중 「묘소도형여산론墓所圖形輿山論」은 1718년 숙빈최씨가 죽은 직후 능지 선정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전통 산도 제작기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원도이다. 그림의 상단에는 '揚州高嶺洞瓮場里酉坐卯向山罡及山論(양주고령동옹장리유좌묘향산비급산론)'라는 제목이 쓰여 있고, 그 밑으로 산도의 주제인 묘좌사향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림의 가운데에는 산맥과 원형의 혈이 위치한 곳이 그려져 있다.


昭寧園

산도의 시점은 부감법을 사용하면서도 주요지형만을 인식하는 반투시법을 사용하였고, 산맥의 표현은 능선과 사면의 산악 입체도로 표현되고 있다. 산맥의 가장자리와 평지의 경계는 검은 실선으로 그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실선으로 표현된 산맥의 경사면은 검정색, 완경사면은 첨필尖筆로 마무리 하였다. 그림의 부기附記에는 물의 내거來去와 방위, 주요 사격의 명칭, 지리적인 위치로 지명과 지물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의 하단에는 묫자리에 대한 해설이라 할 수 있는 산론山論을 적었다. 선旋과 좌향坐向, 득수得水와 파구波丘 등 주변 지형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이에 대한 풍수적 논평을 넣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림의 우측하단에 '延礽君章연잉군장'이라는 인장이 찍혀있어 이 그림은 아마도 연잉군이 소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소령원화소정계도」는 능원에 산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리까지 초목을 불살라 제거하는 화소火巢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의 방위를 나타내고 있는 점과 그림의 전체적인 구도, 원소園所 주변 산들의 배치와 기록하는 방식에서 기존의 「묘소도형여산론」과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거친 필치의 피마준으로 산수 표현을 하였다. 묘의 수구水口를 점선 묵으로 묘사하였고, 붉은 주선으로 화소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의 성격상 지명과 경계에 치중하여 지형을 세밀하게 묘사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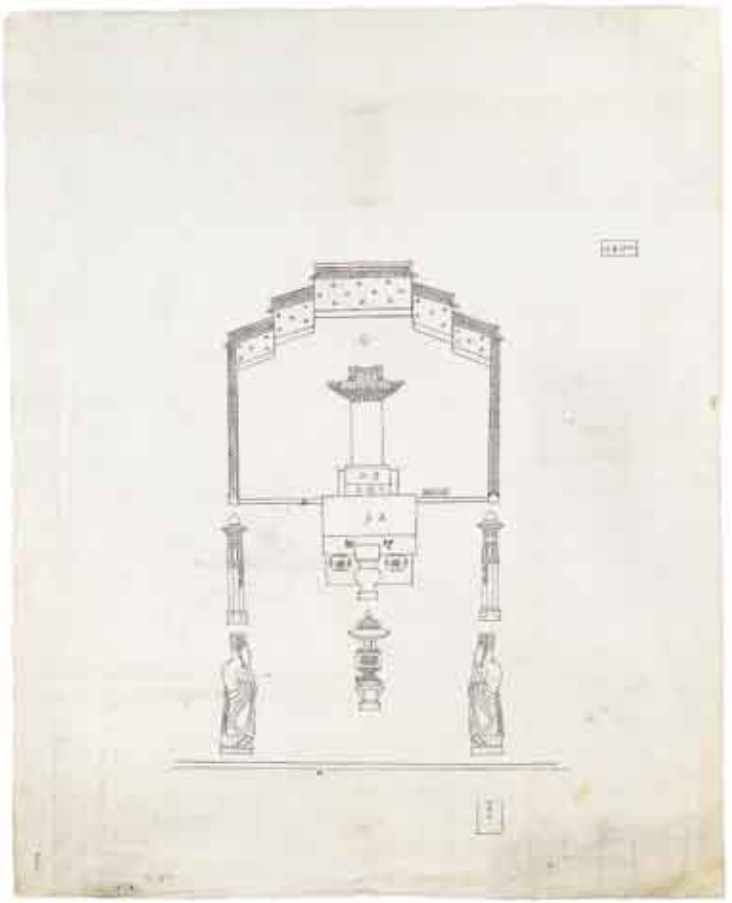
「소령원화소정계도」와 「소령원도」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숙빈최씨의 묘소를 소령원으로 승격시킨 이후 1753년경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묘소석물배열도」는 1718년(숙종44) 숙빈최씨가 죽은 직후 소령원의 제청 및 석물을 조성하며 그린 그림으로, 『제청급석물조성시등록祭廳及石物造成時謄錄』의 도식과 거의 일치한다. 이 그림을 통해 봉분 주변의 산신상석山神床石, 제주병석祭酒甁石, 비석의 개첨盖添-표석標石-대석臺石, 혼유석魂遊石, 상석床石, 향로석香爐石, 망주望柱, 장명등長明燈, 내계체內堦砌, 외계체外堦砌, 중배설석中排設石 등의 명칭과 무덤 내 설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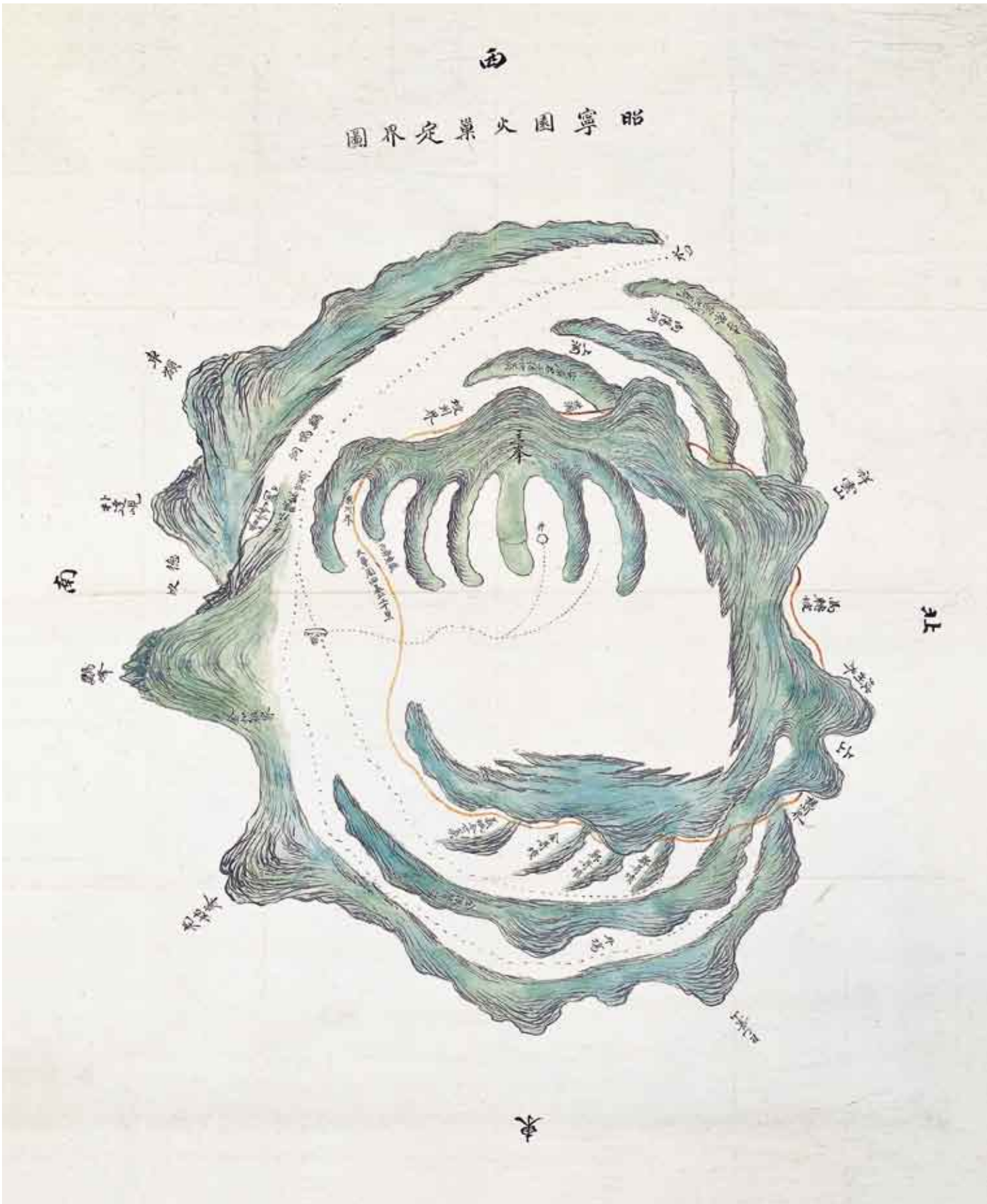
「숙빈최씨 소령원도」 관련 기록화들은 숙빈최씨의 사후 장지 선택과 묘역의 석물 조성, 제청의 건립 등 조선 왕실의 능묘 조성 과정을 비롯하여 추숭 당시의 현황을 상세히 보여주는 자료로, 함경북도 소재 조선태조의 4대조 선조들의 능묘와 태조 관련 사적지를 산도 형식으로 그린 『북도각릉전도형北道各陵殿圖形』과 함께 조선 왕실의 능묘 문화를 검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1

2



1. 숙빈최씨묘소석물배열도, 2011_ 한국학중앙연구원
2. 소령원화소정계도, 2011_ 한국학중앙연구원


西
昭寧園火巢定界圖
北
南
東

보물 제1536호

월중도

越中圖

조선시대(1698년)
1첩
화첩 - 세로 35.9㎝, 가로 20.5㎝
화면 - 세로 29.0㎝, 가로 33.5㎝
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2007.12.3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1. 월중도 표지,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2. 제1면 장릉도,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3. 제2면 청령포도,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월중도>는 영월에 남겨진 단종端宗(재위 1452~1455)의 자취와 충신의 의지가 깃든 장소를 8폭의 그림으로 제작한 화첩이다.

단종은 문종과 현덕왕후 권씨顯德王后權氏사이에서 태어나 1448년(세종30) 8세 때 의정부의 청으로 왕세손에 책봉되고, 1450년 문종이 즉위하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가 1452년 5월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사망하자 그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그러나 1455년(단종3) 숙부인 수양대군首陽大君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상왕上王이 되어 수강궁壽康宮으로 옮겨 살다가 1457년(세조3)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되어 강원도 영월에 유배되었다. 이 해 9월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었던 숙부 금성대군錦城大君이 다시 복위를 계획하다가 발각되었고 이에 다시 노산군에서 서인으로 강봉되었다가, 10월 죽임을 당하였다. 1681년(숙종7) 단종의 복위가 논의되면서 노산대군으로 추봉되었고, 1698년(숙종24) 복위가 최종 결정되었다.

영·정조 때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단종을 추숭하기 위한 작업을 벌였으며, 그 작업의 일환으로 영월에 있는 단종 및 충신들과 관련한 주요 사적을 복원·정비하고 이를 기록화로 남긴 것이 바로 『월중도』이다.

『월중도』에는 「장릉도莊陵圖」, 「청령포도淸泠浦圖」, 「관풍헌도觀風軒圖」, 「자규루도子規樓圖」, 「창절사도彰節祠圖」, 「낙화암도落花巖圖」, 「부치도府治圖」, 「영월도寧越圖」 등 총 8폭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림과 함께 각 화면의 우측상단에는 관련 지지地誌를 기록하였다. 표지는 격자식 능화판 문양이 있는 황색지이며, 백색 비단에 '월중도越中圖'라 묵서로 써서 제첨하였다. 두꺼운 종이에 그려진 각 그림은 선풍엽旋風葉 형태(첩장과 동일하나, 한 장의 표지로 책을 감싸는 형태)로 장황되어 있다.

제1면 「장릉도」는 장릉의 형세를 산도 형식으로 그린 회화식 지도이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를 온 뒤 머물렀던 청령포, 단종의 거처였던 관풍헌과 자규루, 사육신의 사당인 창절사가 있으며, 아래쪽에 단종의 시종들이 단종을 따라 순절한 낙화암을 간략하게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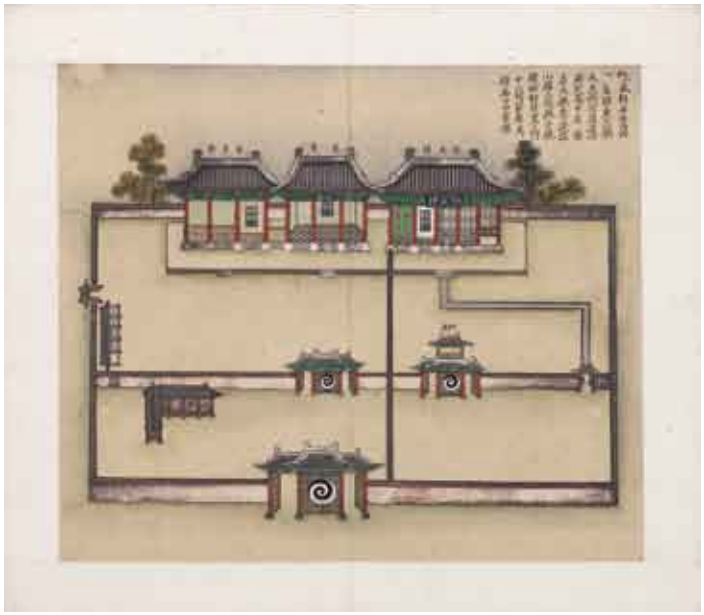
제2면 「청령포도」는 청령포의 실경을 그린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畵이다. 도산刀山을 배경으로 곡수曲水가 감싸고 있는 중앙에는 1763년(영조39) 세워진 금표비와 1791년(정조15) 정조의 지시에 따라 영월부사 박기정이 단종이 거처하였던 터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었던 비각碑閣을 표현하였다.

제3면 「관풍헌도」는 단종이 1456년 이후 거처하다 이듬해 사약을 받고 숨진 관풍헌의 건축도면이다. 관풍헌은 객관인 나성관奈城館의 우측에 있으며, 1791년 영월 부사에 의해 대규모 중수가 이루어졌다.

제4면 「자규루도」는 관풍헌의 동남쪽에 있는 누각인 자규루를 그린 것이다. 자규루는 1605년(선조38) 홍수에 의해 무너져 유실되었으나, 1791년 강원도 관찰사 윤사국尹師國이 매몰된 자규루의 터를 찾아 중건하였다.












제5면 「창절사도」는 단종에 절의를 지킨 사육신死六臣 등을 배향한 사당인 창절사를 그린 것이며, 제6면 「낙화암도」는 영월의 동쪽 금강 변에 위치한 낙화암을 비롯하여 민충사와 금강정을 그린 실경산수화이다.

제7면 「부치도」는 관아와 창절사, 관풍헌, 자규루를 중심으로 한 영월부의 치소治所를 그린 회화식 지도이다. 제8면 「영월도」는 영월부의 치소를 중심으로 영월 경내의 지리적 형세를 그린 지도이다. 해당 화면의 지지에는 민호民戶는 총2,635호로 남자는 4,387명이고, 여자는 4,563명으로 기록하였다.

『월중도』는 그림의 내용과 회화적 수준을 고려할 때, 정조 연간 어람용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796년(정조20) 정조는 단종에 관한 모든 사적을 모아 『장릉사보莊陵史補』를 편찬하였다. 『장릉사보』는 『월중도』에 포함되지 않은 단종의 영월 유배 후 정순왕후의 거처인 「정업원도淨業院圖」와 능묘인 「사릉도思陵圖」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은 『월중도』의 양식적 묘사와 매우 유사하다.

『장릉사보』의 제작과 관련해서는 『홍재전서』에서 1791년 장릉 배식에 관한 제도를 정하고 사관을 보내 실록을 상고하게 하여 자세한 당시의 사실을 얻었으며, 1796년 이서구 등을 통해 능지 편찬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수정하여 『장릉사보』가 완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즉, 1791년 당시 정조에게 장릉에 대한 보고를 위해 어람용으로 제작한 것이 이 『월중도』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1796년 제작된 『장릉사보』에는 『월중도』에 포함되지 못한 정순왕후 관련 사적을 추가하여 보충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작시기와 관련해서는 제1폭의 장릉 배식단, 제2폭의 청령포의 금표비, 제4폭 자규루의 건립 연대가 모두 1791년임을 감안할 때 제작 시기는 적어도 1791년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월중도』는 숙종연간 단종의 복위에 이어 영조 및 정조 연간 지속된 영월의 단종 관련 사적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그린 기록화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또한 18세기 후반 정조연간 회화식 지도, 건축 도면, 실경산수화 등 다양한 회화 양식을 동원하여 어람용으로 도화서 화원의 솜씨를 반영한 수준 높은 회화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제3면 관풍헌도,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2. 제4면 자규루도,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3. 제5면 창절사도,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4. 제6면 낙화암도,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5. 제7면 부치도,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6. 제8면 영월도,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보물 제1573호

청자 양각연판문 접시

靑磁 陽刻蓮瓣文 楪匙

고려시대
1점
높이 4.3㎝, 입지름 16.4㎝, 밑지름 6.3㎝
흙(자기)
이천시 부악로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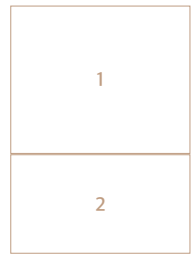
지정일 : 2008.08.28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이천시

<청자 양각연판문 접시>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양각의 청자 연판문 접시이다. 안 바닥은 편평하고 옆선이 부드럽게 꺾여 올라가 사선으로 넓게 벌어진 형태이다. 유색은 담녹청색의 맑고 광택이 있는 비색유로 접시 전면과 굽 바닥 부분까지 모두 깨끗하게 시유되어 있다. 굽 안 바닥에는 세 곳에 규석硅石 내화토 받침을 받쳐서 구운 흔적이 남아있으며, 굽 접지면 일부에는 규석받침용 도침陶枕이 붙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안쪽에는 문양이 없지만, 바깥쪽에는 고부조高浮彫로 단판16엽單瓣16葉의 복련문覆蓮紋과 연화문蓮花紋 사이사이 간엽間葉을 정교하게 양각陽刻하였다. 마치 접시를 뒤집어서 보면 굽 안쪽은 원형의 자방子房처럼 표현하였고, 자방을 따라 돌아가면서 길고 뾰족한 연꽃잎을 배치하여 활짝 만개한 연꽃을 표현하였다.

이 유물처럼 연꽃잎의 가장자리가 뾰족한 형태의 연판문 장식은 고려전기 시흥 방산동 요지와 여주 중암리 요지에서 출토되는 잔탁의 장식 등에 간혹 나타나긴 하지만, 접시나 발鉢 등의 외면을 장식하는 사례는 일반적으로 12세기 이후 강진 일대에서 유행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진이나 부안 지역 외에서는 이 청자 양각연판문 접시처럼 입체형으로 깎은 연판문 장식은 흔치 않으며 대부분 음각선陰刻線으로 그린 경우가 많다.

이 청자 양각연판문 접시는 기형, 문양, 맑고 투명한 청자유, 전체적인 제작수법 등이 매우 뛰어난 작품이다. 특히, 양각과 유약의 농담에 의한 시각적 효과는 고려청자의 조형적 특징인 맑고 선명한 문양 표현력을 증명해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1. 청자 양각연판문 접시 뒷면, 2004_ 문화재청
2. 청자 양각연판문 접시 측면, 2004_ 문화재청





보물 제1577호

증급유방
拯急遺方

조선시대
2권 1책
세로 30.5㎝, 가로 20.4㎝
종이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2008.10.17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증급유방>은 명나라 때의 사람인 섭윤현葉尹賢이 편집한 『의가비전수신비용가감십삼방醫家秘傳隨身備用加減十三方』과 『경험급구방經驗急救方』을 합하여 조선 전기에 간행한 의서醫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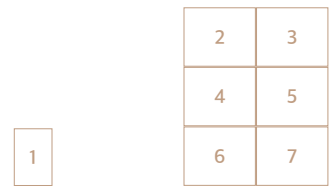
세종 대 이후 『동의보감』이 발간되기까지 200여년 기간 동안 중국 의서의 편찬 작업과 도입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이때 도입된 의서 중 하나가 『증급유방』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453년(단종2) 의료의 불모지였던 함길도에 『화제방和劑方』과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증급유방』 등 각 인본 5건씩을 지방에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증급유방』에는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위급한 병에 대한 치료법들이 담겨있어 의사의 수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치료에 널리 활용되었다.

『증급유방』은 권상, 권하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상에는 『의가비전수신비용가감십삼방』, 권하에는 『경험급구방』이 수록되어 있다. 권상의 『의가비전수신비용가감십삼방』은 목록·본문·발문 및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에는 불환금정기산不換金正氣散·십신탕十神湯·생료오적산生料五積散·이진탕二陣湯 등 13가지 처방과 쓰이는 약재 등이 수록되어 있고, 부록에는 『운급칠첨雲笈七籤』 권48에서 전재한 신침법神枕法을 싣고 있다. 신침법이란 도법에 나오는 서른 두 가지의 생약을 넣어 베개를 만드는 방법이다.

권하의 『경험급구방』은 목록과 본문으로 되어 있다. 본문에 수록된 의방醫方은 목차에 따르면 치곽란토사治癨亂吐瀉(갑자기 어지럽고 구토가 나는 것)부터 치전후풍후폐治纏喉風喉閉, 치소아급만경풍治小兒急慢驚風, 구사부지久瀉不止(설사가 멈추지 않는 것) 등 모두 39개인데 실제 본문에는 유향흑호단乳香黑虎丹과 담약웅황환痰藥雄黃丸 2방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본문에는 이 37방에 대한 구급 의방醫方과 약방문藥方文을 집성한 내용이 담겨있다.

경기도박물관 소장본 『증급유방』은 간행기록이 없어 정확한 제작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판각板刻 상태, 판의 형식, 서체, 지질紙質 등으로 보아 15세기에 간행된 판본으로 여겨진다. 이 책은 한국 의학사와 출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서, 같은 판본으로는 국내외에 알려진 유일한 책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의서이다.





1. 증급유방 표지, 2017_ 경기도박물관
2. 권상 의가비전수신비용가감십삼방 목차, 2017_ 경기도박물관
3. 권상 의가비전수신비용가감십삼방(불환금정기산), 2017_ 경기도박물관
4. 권상 의가비전수신비용가감십삼방(이진탕), 2017_ 경기도박물관
5~7. 권하 경험급구방, 2017_ 경기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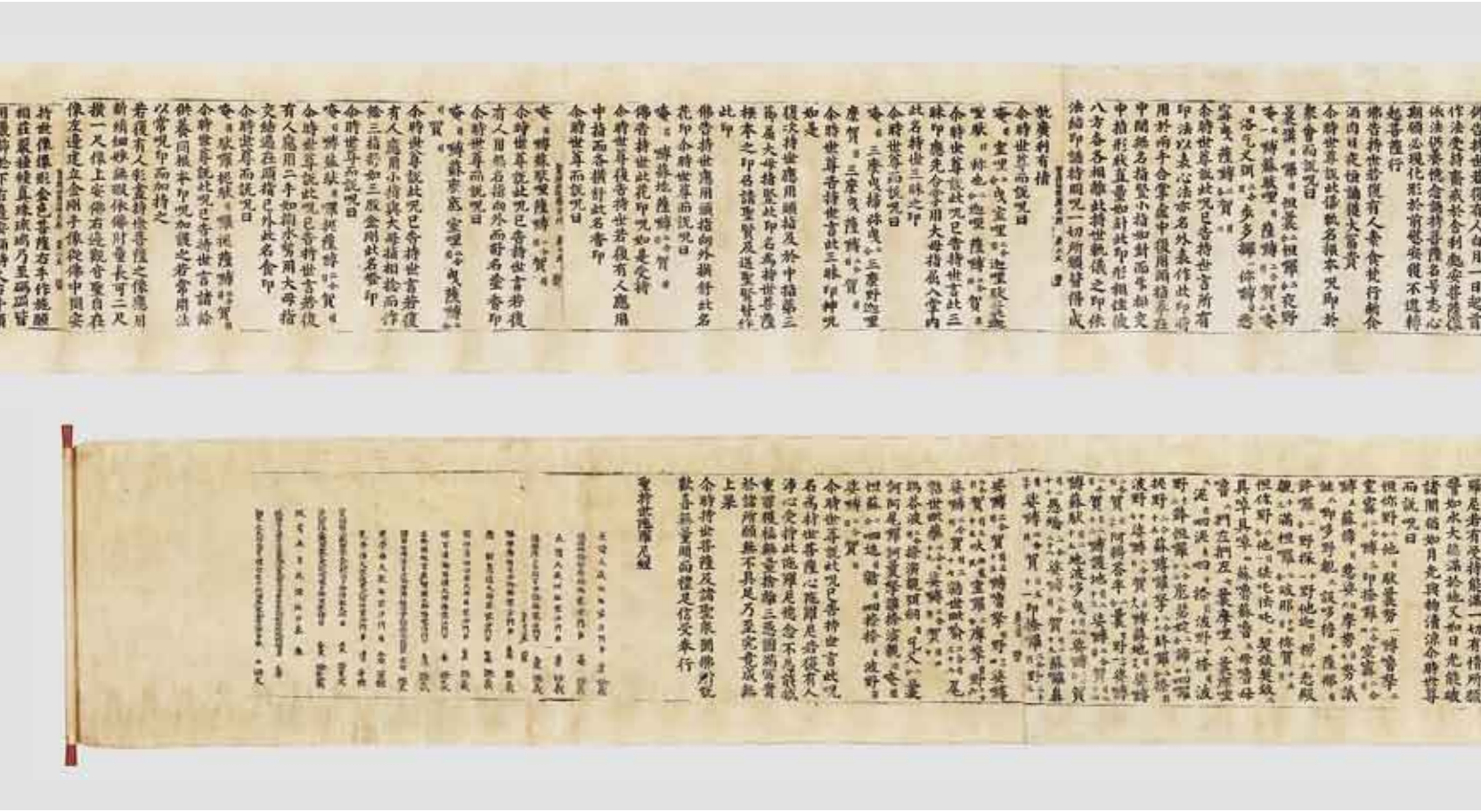












보물 제1579호

초조본 성지세다라니경

初雕本 聖持世陀羅尼經

고려시대
1권 1축
세로 29.5㎝, 가로 548.5㎝
종이(닥종이)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2008.12.22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초조본 성지세다라니경>은 10세기 말에 인도 출신의 학승 시호施護가 번역한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 판본 가운데 하나이다. '성지세다라니聖持世陀羅尼'라는 이름은 '덕망이 높은 지세보살持世菩薩의 주문'이라는 뜻이며, 이 주문을 독송讀誦하면 복을 얻는 수단이 되고, 무거운 죄도 소멸시킬 수 있으며 부처와 비구들을 공양하면서 독송하면 더 큰 복을 얻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

각자刻字가 정교하고, 글자의 먹색 및 지질 등으로 보아 11세기에 인출한 정각본精刻本으로서 초조판初雕板의 원형을 살필 수 있다.

닥종이 11장을 이어 붙인 바탕에 성지세다라니의 제4장丈부터 제12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두卷頭에는 '聖持世陀羅尼經(성지세다라니경)'의 경명經名과 함차函次 '壁(벽)'이 쓰여 있고, 다음 행에는 작은 글씨로 '西天譯經三藏朝散大夫試鴻臚少卿傳法大師臣施護奉詔譯(서천역경삼장조산대부시홍려소경전법대사신시호봉조역)'이라는 역자 사항이 나타나 있다.



권말卷末에는 신역新譯할 때에 참여한 증의證義(역주와 함께 원전의 구성과 뜻을 검토) 9인, 철문綴文(번역된 단어들을 늘어놓고 한문의 문법에 맞게 순서 배열) 1인, 필수筆授(한자로 옮긴 것을 번역) 1인, 증범문證梵文, 증범의證梵義, 윤문潤文 등의 업무 분담 기록이 있어 그 당시 불경을 한역하는 방법 및 역경譯經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1

2

1·2. 초조본 성지세다라니경, 2009_경기도박물관





보물 제1597호

아국여지도

俄國輿地圖

조선시대
1첩
화첩 - 세로 36.0㎝, 가로 27.2㎝
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2008.12.22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아국여지도>는 대한제국기 조선 및 청나라, 러시아의 접경지역인 두만강 유역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그림 형식으로 그린 관방지도關防地圖이다. 이 지도는 19세기 말 조선 조정 모처의 지시를 받아 김광훈金光薰과 신성욱申先郁이 두만강 어귀의 청국령, 러시아령 일대에 잠입한 뒤 은밀히 조사하여 작성한 것으로, 두만강 어귀와 연해주, 그에 이웃한 청국령 일대의 지리와 인구, 물산, 군사 시설 등을 상세히 밝혀놓았다. 지도는 절첩본 양식이며 20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1면의 크기는 세로 36.0㎝, 가로 27.2㎝이며, 전체를 펼치면 3m 가량의 한 폭의 대형지도가 된다. 즉, 한 폭의 긴 종이에 여러 개의 지도를 그려 넣고 이를 접어서 한 권의 책처럼 만든 것이다.

표지에는 '아국여지도俄國輿地圖'라는 묵서가 있는 제첨이 붙어 있고, 첫 장에는 수록된 29곳의 지도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목록 아래로는 해당 지역의 마을별 호구와 인구수가 작은 글씨로 병기되어 있다.

각 면의 지도는 고급 펄프지인 양지洋紙 위에 연해주 지역인 녹둔도鹿芚島부터 청나라 접경지역인 사말리沙末里까지 횡으로 길게 펼쳐 그렸다. 수묵과 채색으로 산세를 표현하였고 그 속에 원근감과 입체감을 살려 서양식 건물이나 항구의 기선, 전봇대와 전선 등을 그려놓았다. 아울러 지도 위와 상하좌우의 여백에는 지명을 비롯한 지역별 가구수, 인구, 물산, 군사 관련 사항, 거리 정보 등의 지리정보를 빼곡하게 글로 설명을 붙여 놓았다.

지도첩의 말미末尾에는 김광훈과 신선욱이 쓴 '청아여지형정석의서淸俄輿地形情釋義序'가 실려 있다. 이 글에는 서양 학문과 세계 사정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것의 중요성과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 신세를 벗어나야한다는 주장에 담겨 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조선과 청의 공동 경계와 우려를 나타내면서 고종 즉위 16년 이래 청나라와 러시아국에 머물면서 대략 그 국경을 엿보고 실상을 정탐한 결과를 이 아국여지도 1본과 정탐기록 초략을 사출하여 만에 하나라도 잘못될까 염려하는 왕의 근심을 해소해드리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지도의 정확한 제작 연도는 불분명하지만 1879년(고종16)이래 정탐 활동을 한 뒤 1884년(고종21) 조선-러시아 수교 이전에 완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하고 있는 이 아국여지도는 조선과 제정 러시아, 청나라의 국경 연구뿐만 아니라, 지도사나 회화사 측면에서 귀한 자료이다. 또한 작성 당시 1만여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던 연해주 일대의 사정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어 러시아지역 한인 이주민의 연구에도 많은 참고가 된다. 특히 지도의 맨 처음 등장하는 녹둔도는 두만강 하류에 있는 하중도河中島로 지금은 러시아 영토로 들어가 있으나, 당시 녹둔도 지역에는 113가구, 822명의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들은 본국 조선의 풍습과 가르침을 높이 숭상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지도가 그려지던 그 시기에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 조선의 땅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지도는 현전하는 조선시대 지도 중에서 가장 후대의 것이면서 조선을 벗어나 타국의 정보를 채색화로 표현한 유일한 군사지도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되었다.

4

1 2 3

1. 아국여지도 표지,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2. 아국여지도 목차,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3. 청아여지형정석의서,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4. 아국여지도 연결한 모습,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1. 목허우영도, 혼춘도, 연추영도,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2. 연추아민촌도, 지신허아민촌도, 한천구아민촌도, 아지미아민촌도, 시지미아민촌도,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3. 해삼위도,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4. 허발영도, 2014_ 한국학중앙연구원

보물 제1598호

함경도·경기도·강원도 지도

咸鏡道·京畿道·江原道 地圖

조선시대
4장
함경도(북도) - 세로 152㎝, 가로 120㎝
함경도(남도) - 세로 243.7㎝, 가로 137.5㎝
경기도 - 세로 82.5㎝, 가로 101.5㎝
강원도 - 세로 164.3㎝, 가로 152.9㎝
종이(닥종이)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지정일 : 2008.12.22
소유자 : 경희대학교(사유)
관리자 : 혜정박물관

<함경도·경기도·강원도 지도>는 조선후기 함경도와 경기도, 강원도를 그린 지도이다.

신경준은 1770년 조정에 소장된 각종 지도와 정항령의 지도를 참고하여 「팔도도八道圖」를 제작하였고, 「군현도列邑圖」, 「전도全圖」를 모두 만들었다는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열읍도列邑圖」 계통은 많이 발견되었지만 「팔도도」와 「전도」는 발견되지 않고 있었다.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소장본인 이 지도는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1770년(영조46) 신경준의 주도로 제작되어 영조에게 제출된 『팔도도』 1권에 수록되었던 도별 원본 지도에 아주 가깝게 필사한 사본으로 추정된다.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소장본인 이 지도는 원래 팔도도 별도가 함께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함경도·경기도·강원도 지도만 남아있다. 우리나라 전국의 산줄기와 물줄기, 해안선을 묘사하고 그 위로 각 고을의 읍치와 면 단위 지명을 비롯하여 역, 창, 성, 봉수, 서원, 사찰 등의 각종 인문 지리정보와 산과 하천의 지명 등 자연 지리정보를 수록했다. 각 고을의 읍치에는 관아 건물과 성곽 등을 직접 묘사했으며 그 위로 고을의 지명을 병기했다. 다만 도로는 표시하지 않았고, 고을 사이의 경계도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경기도 지도는 한성의 도성都城과 그 내부를 회화식으로 묘사하여 궁궐과 사직社稷 등 구체적인 건물을 그린 점이 독특하다. 강원도 지도는 관동팔경關東八景을 모두 회화식으로 묘사했고, 금강산과 그 일대의 사찰이 이름과 함께 그려져 있다. 아울러 울릉도 동쪽에는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함경도 지도는 남도와 북도의 2매로 제작되었다. 백두산은 회화식으로 강조하여 묘사했고, 1712년(숙종38)에 세워진 임진정계비壬辰定界碑와 함께 목책·석퇴가 그려져 있다.

이 지도의 정확한 제작 연도는 불분명하지만 지도의 내용과 시기적 지명변화가 18세기 후반 주척周尺 1촌寸을 1선線으로 하는 20리 방안 위에 그려진 고을지도에 실린 지리 정보와 그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므로,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소장본인 이 지도는 화려하고 선명한 색상, 양호한 보관 상태, 현재까지 동일 계통의 지도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희소성 등을 고려할 때 매우 가치가 높다.

경기도 지도, 2008_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1

2

3

1. 강원도 지도, 2008_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2. 함경북도 지도, 2008_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3. 함경남도 지도, 2008_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보물 제1622호

서거정 필적

徐居正 筆蹟

조선시대(1476년)
1첩
세로 38.2㎝, 가로 17.6㎝
종이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2010.01.04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서거정 필적>은 문장과 글씨에 능했던 조선 전기 문신 서거정徐居正(1420~1488)의 필적 서첩이다. 1476년(성종7) 1월 말 우리나라에 온 명나라 사신 호부낭중戶部郎中 기순祁順과 사신일행을 맞이했던 원접사遠接使 서거정徐居正의 글씨가 함께 실려 있다.

이 서첩의 표지에는 '天使詞翰眞蹟(천사사한진적)'이라 쓰여 있다. 표지를 제외한 첩의 내지는 기순의 필적 3면, 서거정의 필적 3면, 필자미상의 발문跋文 2면이 실려 있다.

서첩 앞쪽에는 기순이 40일쯤 머문 뒤 3월 11일에 의주 의순관義順館에서 당시 통역을 맡았던 사역원정司譯院正 장유화張有華에게 지어 써준 오언장시五言長詩가 실려 있다. 그리고 서첩 뒤쪽에는 기순이 사신으로 왔던 1476년 당시 원접사 겸 관반館伴 겸 반송사伴送使를 맡았던 좌참찬 서거정이 그해 6월 갑술일(3일)에 장유화에게 지어 써 준 「증장원정서贈張院正序」가 실려 있는데 앞부분은 탈락되어 있다.

서첩의 말미에는 이 서첩을 얻은 사람이 '무신년(1718)에 이 필적을 김홍기金弘基에게서 얻어 이를 첩으로 장황裝潢했으며, 서첩을 입수했을 때부터 첫머리가 결락되고 1행부터 7행까지 간간히 떨어져나가 읽을 수가 없었다'고 기록한 1736년(영조12) 9월 14일의 발문이 함께 첨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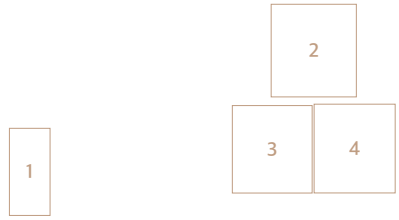
서거정의 행서 원문은 그의 문집인 『사가집四佳集』 권6 「증장원정서贈張院正序」에 실려 있으며, 『통문관지通文館志』 권7에도 수록, 전해지고 있어 결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첩에 실린 서거정의 글씨는 행서行書로서 송설체松雪體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연약하지 않으며, 방직方直한 짜임에 필획筆劃의 바깥쪽이 둥글게 휜 모양으로 그만의 독특한 필법을 보이고 있다.

조선 초기의 서예유물은 매우 희귀한데, 이 서첩은 원형 그대로 남겨진 15세기 조선의 문인명필 서거정의 대표적인 필적이다. 뿐만 아니라 명나라 사신의 필적이 함께 실려 있어 양국의 교류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필적이다.

각 글씨 끝에는 연월일과 관직, 인명人名 그리고 자호字號가 기록되어 있고 이 필적의 전래과정을 알려주는 1736년의 발문은 작품의 가치를 한층 높여 주고 있다.





1. 서거정 필적 서첩 표지, 2009_ 경기도박물관
2. 서거정 필적 서첩 발문, 2009_ 경기도박물관
3. 명나라 사신 기순이 장유화에게 써준 오언장시의 첫 장, 2009_ 경기도박물관
4. 서거정이 장유화에게 써준 서문의 둘째 장, 2009_ 경기도박물관



我宋皇帝以中業明哲之君奉我東方使之由請使我
成廟以聖德太平之主恪勤保度至誠事大實藍相望使事絡繹時
宇時序皇不誠感且長載而今不可復覩矣中華陸沉百年于
今禮樂文物慶作經營而堂
聖朝又不先庶幾之因當此時也得此詩序嘉觀皇華之儀倍激下
衆之思作爲悟于朝夕凡乘每一披玩未嘗不三復太息焉爲告
于後者其謹守而勿失也
聖上十二年丙辰九月小望



天子命兩使東來經海隅鴨
江越漢城尚宿千里餘
邦人遠相送心類語則
殊係備使到耳剌不
受呼贊成張司譯水道
自潘都幸勤侍行李竢
涉凌險途語言賴以通
恩德由以敎往回適一月奉



使如從容融洽神奈不可無識知名者寡矣
於張名者不啻如同列之稱字相之以通知
明主者非偶然也郡幸使乃中原文獻祥樂之
邦名其愛若於名臣勤鄭重者至此
爲人可知也已嗚呼秀吉之事不必知敎
之美張名常被選如
京者數矣同列稱其曉純字相崇其幹爲贈
名文遂於
宸聽今兹之行又重選張名文首膺焉名臣始
與之同事誠其言語之精熟其同列之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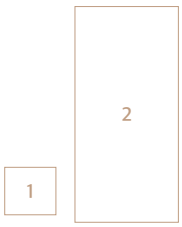
보물 제1627호

인목왕후 어필 칠언시

仁穆王后御筆 七言詩

조선시대
1축
세로 105.0㎝, 가로 67.3㎝
종이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

지정일 : 2010.01.04
소유자 : 칠장사(사유)
관리자 : 칠장사



1. 인목왕후 어필 칠언시 발원문 글자, 2008_ 안성시
2. 인목왕후 어필 칠언시, 2008_ 안성시

老牛用力 已多年(노우용역이다년)
늙은 소는 힘을 다한 지 이미 여러 해

領破皮穿 只愛眠(영파피천지애면)
목이 찢기고 가죽 뚫어져 그저 달디 단 잠뿐이로구나

犁耙已休 春雨足(여파이휴춘우족)
밭갈이는 이미 끝나고 봄비도 충분히 오는데

主人何苦 又加鞭(주인하고우가편)
주인은 어이하여 괴롭게 또 채찍을 드는가

<인목왕후 어필 칠언시>는 인목왕후仁穆王后(1584~1632)가 해서체楷書體로 쓴 칠언절구七言絶句의 시이다. 인목왕후는 조선 제14대 임금 선조宣祖의 계비繼妃로 1602년(선조35)에 왕비로 책봉되었다. 1613년(광해군5) 친정아버지 연흥부원군 김제남金悌男이 영창대군永昌大君(1606~1614)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다는 대북파大北派의 모함으로 사사되고, 아들인 영창대군 마저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그 곳에서 사망했다. 본인 역시 서궁西宮으로 유폐되었다가 1623년 반정으로 인조가 등극하자 대왕대비로 다시 복귀하게 되고, 친정아버지와 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칠장사를 원찰로 삼아 크게 중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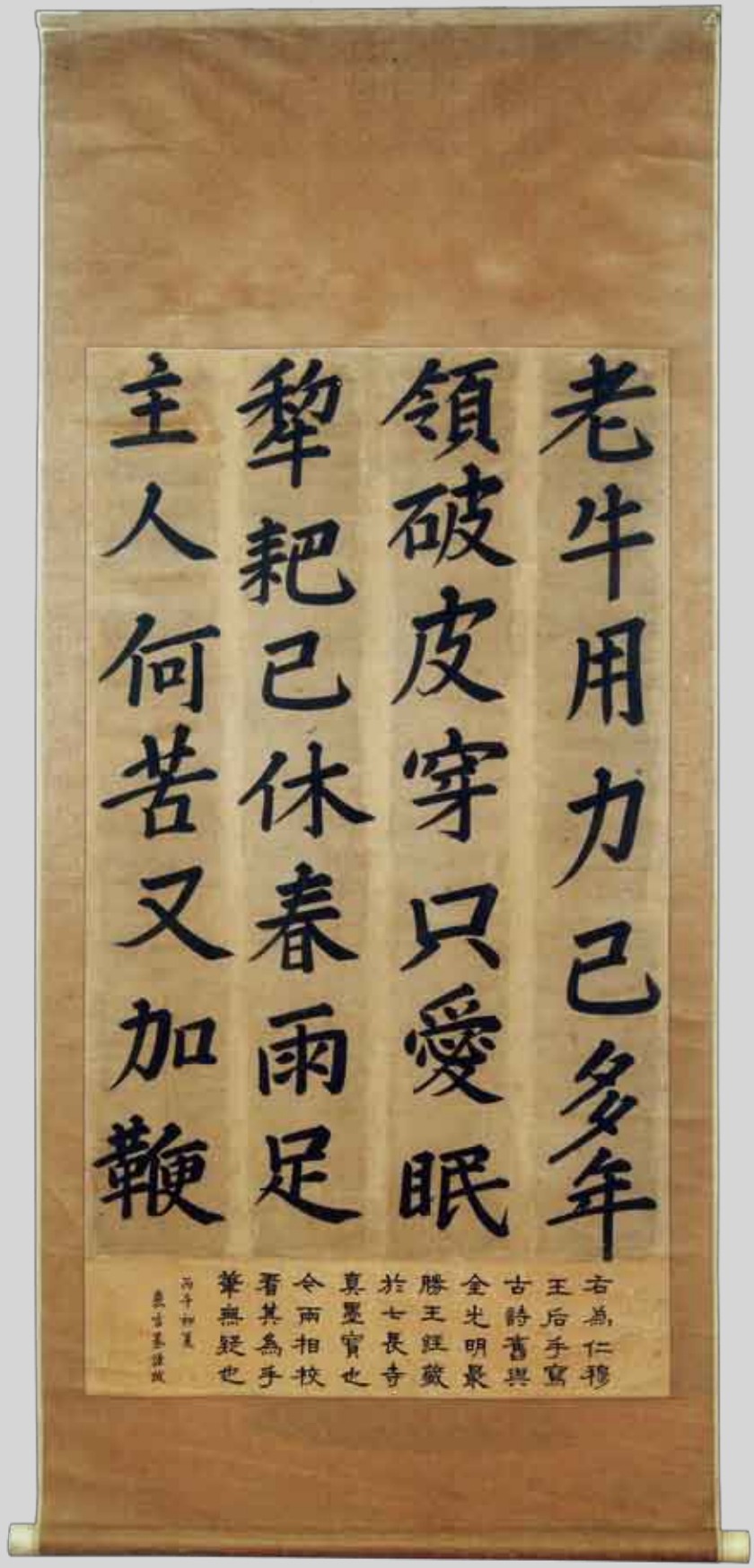
칠언시의 아랫부분에 있는 1966년 배길기裵吉基의 발문跋文에 의하면 1613년 이이첨李爾瞻 등에 의해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추대하려 했다는 공격을 받아 사사賜死된 친정아버지 연흥부원군 김제남金悌男과 아들 영창대군을 위하여 칠장사를 원당願堂으로 삼아 중건하면서 이 시를 썼으며,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 10권을 필사筆寫한 사경과 함께 김광명金光明에게 준 것이라고 한다. 『금광명최승왕경』은 1965년 동국대학교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제1권이 결실되어 제2권부터 10권까지 총 9권이 남아있는데 인목왕후 어필 칠언시의 내용은 중국 명나라 장면蔣冕(1462~1532)의 노우시老牛詩이다. 인목왕후는 대북파의 위세에 시달리던 자신의 처지를 늙은 소에 비유하고, 광해군은 그 늙은 소에 채찍을 가하는 주인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종이에 4행(각행 7자) 28자를 대자大字 해서楷書로 썼으며, 근대에 족자로 장황되었다.

28자의 획 안에는 발원문 29자를 작은 글자로 진하게 적어놓았다. '比丘祉誼保体 衣食宝貨孝養上佐 具足成就之大願 釋比丘濟月堂謹封(비구 사의가 몸을 보전하고 의식과 보화로 상좌를 효양하며 구족하게 성취하기를 크게 바랍니다. 석 비구 제월당이 삼가 봉하다)'라는 내용을 칠언시 한 자마다 한 글자씩 쓰고 마지막 자에 두 글자를 써놓았다. 필사연대는 없으나 정황상 1623년 인조반정 직후로 여겨진다.

인목왕후의 글씨는 1712년(숙종38) 글씨의 보전을 위해 나무판에 모각模刻되었다. 모각본은 명안공주 관련 유물(보물 제1220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인목왕후가 쓴 글씨 등이 전하는데 칠언절구 28자를 3행으로 배열하고(각행 10자) 글자 사이를 조절한 것만 달라졌을 뿐 모두 이 인목왕후어필 칠언시에 쓰인 글자의 모양과 같다.

조선시대 왕후의 어필로는 17세기 이후 한글편지가 다수 전하기는 하지만 이 인목왕후 어필 칠언시처럼 한자 대자로 쓴 예는 드물다. 또한 조선 후기에 종친의 주도로 역대 임금의 어필이 다수 모각되었는데, 이 칠언시처럼 모각된 어필과 원적原蹟이 남아 있는 경우도 역시 드물다. 인목왕후 어필 칠언시는 1973년 경기도유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다가 2010년 보물로 승격되었다.




老牛用力已多年
領破皮穿只愛眠
犁耙已休春雨足
主人何苦又加鞭
右為仁穆王后手寫古詩舊與金光明最勝王經藏於七長寺真墨實也今兩相校看其為手筆無疑也

보물 제1630호

숙종어필 칠언시

肅宗御筆 七言詩

조선시대
1점(보관함 포함)
세로 29.7㎝, 가로 58.2㎝
종이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2010.01.04
소유자 : 이용우(사유)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숙종어필 칠언시>는 조선 제19대 임금 숙종肅宗(재위 1674~1720)이 병자호란 때의 명신이던 백헌 이경석白軒李景奭(1595~1671)의 시문을 모은 『백헌집白軒集』을 살펴본 뒤 느낀 바를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쓴 필적으로,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시문집인 『열성어제列聖御製』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경석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서예가로,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상보尙輔, 호는 백헌白軒,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인조·효종·현종 3대에 걸쳐 안팎으로 얽혔던 난국을 적절하게 주관했던 명재상이다. 그는 65세 때인 1659년에 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로서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고, 74세 때인 1668년(현종9) 11월 27일에는 이원익李元翼(1547~1634)이 1623년(인조1) 궤장几杖을 하사 받은 이후 약50년 만에 임금으로부터 궤장을 하사받는 영예를 얻었다.

숙종어필 칠언시는 오른편 하단에 채색된 꽃무늬가 찍혀 있는 상급의 어찰지御札紙(왕의 편지지)에 유연하고 단아한 송설체松雪體의 서풍으로 쓰였다. 숙종어필 칠언시의 제목은 '觀白軒集有感賦詩(관백헌집유감부시)'로, 본문에서 숙종은 '여러 해 찾던 중 이제야 보게 되었는데 온종일 보아도 피곤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경석이 임금에 대한 충성스런 사랑과 나라를 지키려는 성심의 마음을 가졌기에 현종께서 궤장几杖(의자와 지팡이)을 내려 융숭한 은혜를 베푸셨고, 효종께서도 감귤을 내려 총애하셨으며, 그 덕이 삼공三公에 부합할 만한 어진 재상으로서 송나라 문정공 이항文靖公李沆에 견줄 만하다'고 찬미하였다.

숙종이 언제 이 시를 짓고 글씨를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백헌집』이 1700년(숙종26)에 교서관校書館에서 원집 53권, 부록 3권, 모두 18책으로 간행되었음으로 대략 이 숙종어필 칠언시는 그로부터 몇 년 후 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숙종은 이 글씨를 이경석의 후손에게 하사하였고, 이경석의 후손들은 뚜껑에 '肅廟聖製寶墨(숙묘성제보묵)'이라고 전서체篆書體로 음각한 작은 나무상자에 넣어 보관하였다.

숙종어필칠언시는 1668년 11월 이경석이 받았던 현종顯宗으로부터 하사받은 궤장과 그것을 받았을 때의 잔치장면 등을 묘사한 『사궤장연회도첩賜几杖宴會圖帖』(보물 제930호)과 더불어 군신君臣 사이의 깊은 의리를 보여주는 소중한 유물이다. 전주이씨 덕천군파 백헌상공 종중에서 경기도박물관에 위탁하여 현재 경기도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多年求覓得何遲(다년구멱득하지)
여러 해 찾다가 이제야 구하여 보았는데

終日披看不自疲(종일피간불자피)
온종일 읽어도 피곤한 줄 모르겠네.

衷款愛君章奏見(충관애군장진견)
왕을 사랑하는 마음 상소문 곳곳에 보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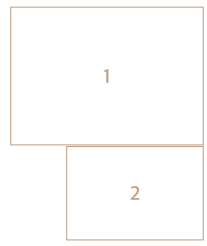
誠純體國鬼神知(성순체국귀신지)
나라를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 귀신들도 알리라

先祖賜杖隆恩禮(선조사장융은례)
선왕(현종)이 궤장(의자와 지팡이)을 내려
은혜를 베풀었고

聖祖頒柑荷寵私(성조반감하총사)
성조(효종)는 감귤을 내렸으니 총애를 입었구나

德協台司賢宰相(덕협태사현재상)
덕이 높은 어진 재상이었으니

宋時文靖可方之(송시문정가방지)
송나라 문정공에 견줄 만하네



1. 숙종어필칠언시, 2010_ 경기도박물관
2. 숙종어필칠언시 나무보관함, 2010_ 경기도박물관

觀白軒集有感賦詩

多年求覓浔何遲
終日披看不自疲
忠款愛 君章奏見
誠純體國思神知
先朝賜扶隆恩禮
聖祖頒柑荷寵私
德叶台司賢宰相
宋時文靖可方之



보물 제1631-1호

영조어필–숙빈최씨사우제문원고

英祖御筆-淑嬪崔氏祠宇祭文原稿

조선시대(1726년)
1점
세로 43.2㎝, 가로 98.4㎝
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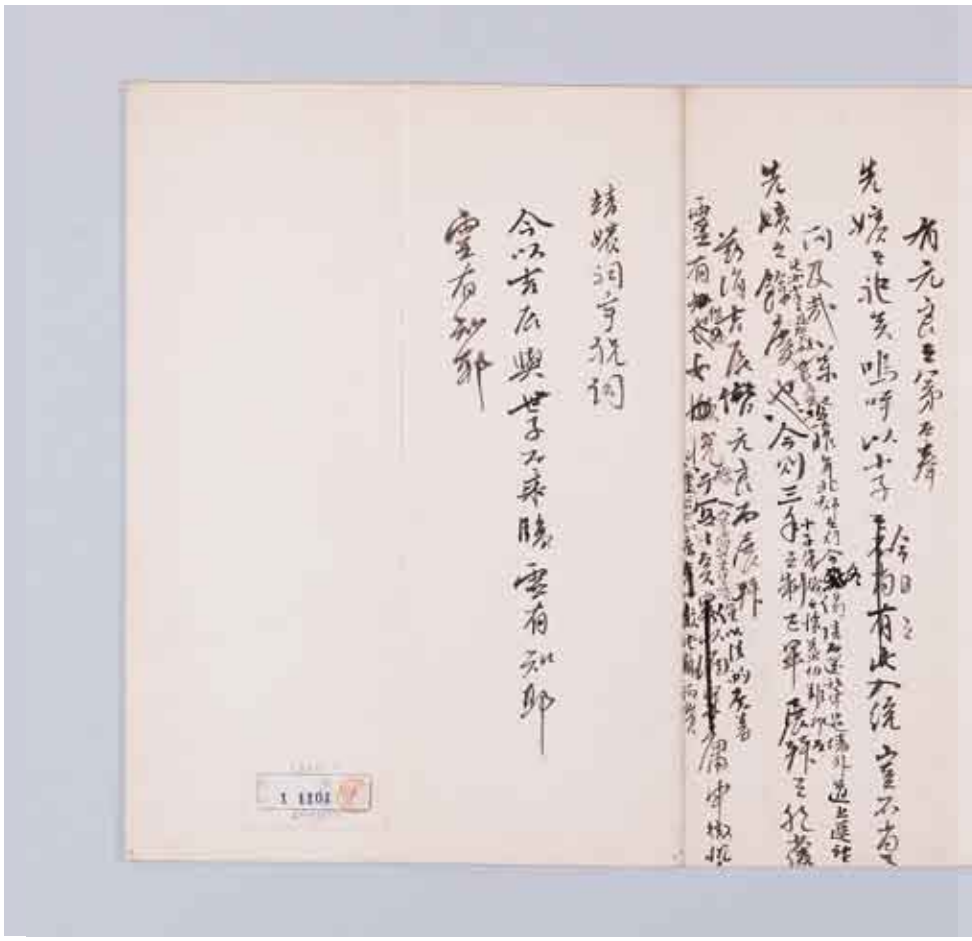
지정일 : 2010.01.04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숙빈최씨사우제문원고>는 조선 제21대 임금 영조英祖(재위 1724~1776)가 1726년(영조2) 11월 6일에 선빈先嬪 즉, 생모 숙빈 최씨淑嬪崔氏(1670~1718)의 생신을 맞이하여 숙빈묘淑嬪廟에 올렸던 제문의 원고이다. 주홍색 화문 비단으로 싼 앞 표지의 오른편에는 '御筆親祭祭文草(어제친제제문초)', 왼편에는 '英祖御製御筆, 淑嬪崔氏几筵 及 靖嬪李氏祠宇致祭文「抄本」(영조어제어필, 숙빈최씨궤연 및 정빈이씨사우치제문「발본」)'이란 근대 글씨가 있다. 이 중 치제문은 '신하를 보내 제사 지내는 글'이란 뜻이므로 잘못 쓴 것이다.

제문원고는 흔히 전문箋文(나라에 길흉이 있을 때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던 사육체 글)에 사용되는 절첩折帖에 쓰여 있다. 제문의 첫 면에는 본래 써져 있던 내용을 벗겨내고 썼는데, 평소 물자를 아꼈던 영조의 절약정신을 엿볼 수 있다.

제문의 내용을 보면 영조는 선왕 숙종과 선빈의 은혜로운 사랑으로 성장하던 중 선빈의 삼년상을 마치는 1720년 6월에 부왕마저 돌아가시자 깊은 슬픔에 빠졌고, 1721년 8월 왕세제王世弟로 책립됨에 따라 선빈의 영전을 떠났으며, 즉위 후 1725년 12월에 선빈의 사당을 경복궁 뒤쪽에 세웠으나 찾아가지 못하다가 경종의 국상이 끝난 1726년 11월에서야 전배례展拜禮를 올리게 되었다고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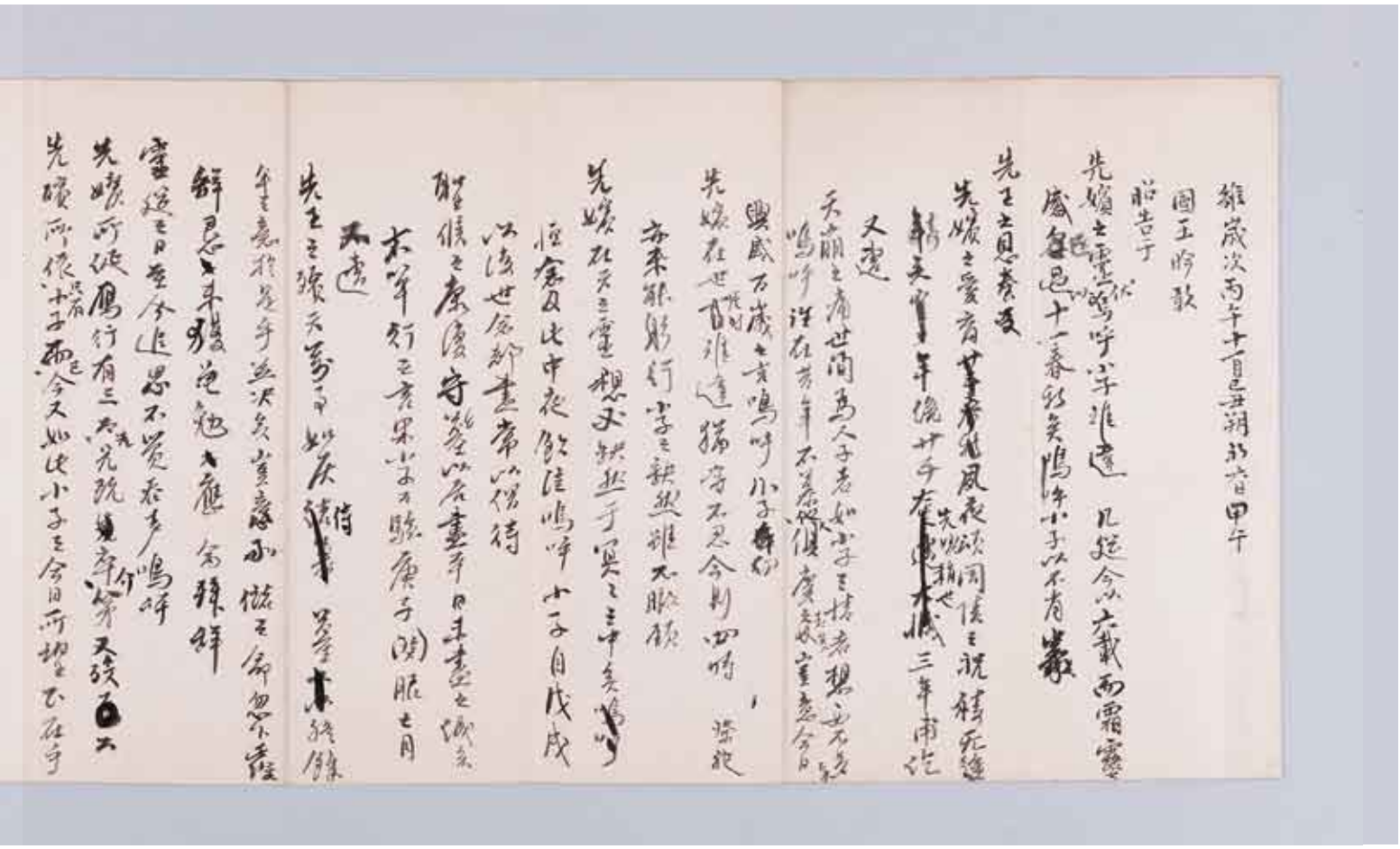


숙빈최씨의 본관은 해주海州이며, 최효원崔孝元과 남양홍씨의 딸로 서울 여경방餘慶坊에서 출생했다. 7세에 입궁하여 숙종의 후궁이 되었다. 1693년 숙원淑媛이 되어 첫째 영수永壽를 낳았으나 두 달여 만에 사망했고, 1694년 숙의淑儀가 되어 둘째 금昤을 낳았으며, 1695년 셋째를 낳았으나 사흘 만에 사망했다. 1699년 숙빈에 봉해지고 아들 금이 연잉군延礽君에 책봉되었다. 1716년 병환이 들어 창의동彰義洞의 사제私第에 나가 요양하다가 1718년(숙종44) 3월 19일에 49세로 사망하였다. 그해 5월 12일 양주 고령동 옹장리 묘향에 묻혔는데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소령원昭寧園이다.

영조는 1725년(영조1)에 친어머니를 위해 육상묘毓祥廟(현 서울 종로구 궁정동 칠궁)를 건립하여 어머니의 신위를 봉안하였다. 처음에는 소령묘昭寧墓, 육상묘이던 것을 1753년에 소령원, 육상궁毓祥宮으로 승격시켰다.

제문 뒤쪽에는 영조의 후궁이며 추존왕 진종眞宗(1719~1728)의 생모인 정빈 이씨靖嬪李氏(1694~1721)의 사당에 올리는 짧은 축사祝詞가 딸려 있다. 정빈이씨는 이후철李後哲의 딸로 1701년 연잉군과 혼인하여 효장세자孝章世子(1719~1728)를 낳았다. 이른 나이에 병이 심해 장동壯洞의 사제에서 요양하다가 1721년 11월 26일 사망하여 숙빈최씨 묘소 앞 산자락(지금의 수길원)에 묻혔다. 영조는 즉위 후 그를 정빈으로 추증하고 묘비를 세웠으며, 숙빈최씨 사당에 가까운 경복궁 북쪽에 사당을 두었다.

「숙빈최씨사우제문원고」는 영조의 성정이 드러나는 특유의 서풍이 나타나기 시작한 33세의 필적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여러 영조어필 시문원고 가운데 낱장이 아닌 왕실의례용 공첩空帖에 직접 쓴 희귀한 예에 속하며, 「숙빈최씨소령묘갈문원고」(보물 제1631-2호)와 더불어 의미 깊은 필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1. 숙빈최씨사우제문 표지, 2011_ 한국학중앙연구원
2. 숙빈최씨사우제문 원고 본문, 2011_ 한국학중앙연구원

보물 제1631-2호

영조어필–숙빈최씨소령묘갈문원고

英祖御筆-淑嬪崔氏昭寧墓碣文原稿

조선시대(1744년)
1점
세로 43.1㎝, 가로 92.7㎝
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2010.01.04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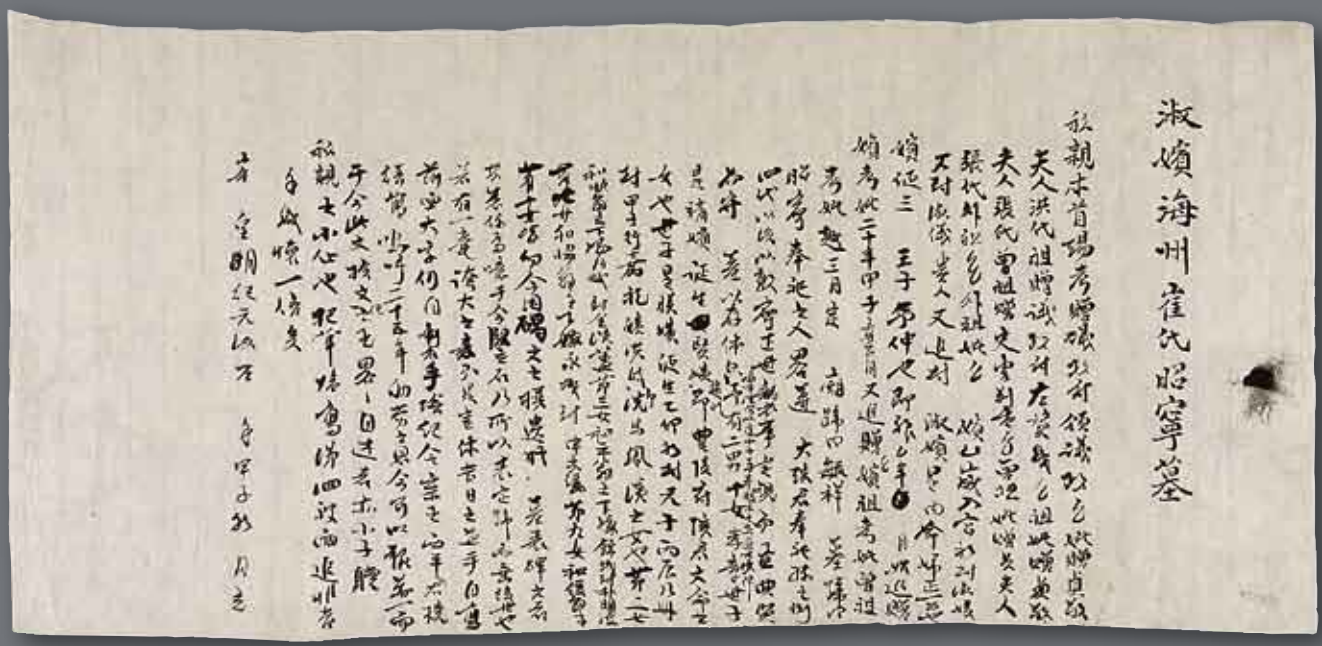
<숙빈최씨소령묘갈문원고>는 조선 제21대 임금 영조英祖(재위 1724~1776)가 1744년(영조20) 7월에 생모 숙빈최씨淑嬪崔氏(1670~1718)의 소령묘에 세우고자 짓고 쓴 묘갈문墓碣文의 초안 원고로, 제목은 '숙빈해주최씨소령묘淑嬪海州崔氏昭寧墓'이다.

내용은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의 부모·조·증조·외조와 숙빈의 입궁 후 품계, 즉위 후 숙빈의 부모·조·증조를 추증한 일, 숙빈의 사당과 묘소 이름을 육상毓祥과 소령昭寧으로 정한 일, 제사 받드는 봉사인奉祀人을 대원군의 봉사손 예에 따르고 4대 이후로는 돈녕정敦寧正을 세습하도록 규정한 일, 자신의 자녀로 2남의 소생과 봉작·혼인, 그리고 제2~10녀와 사위, 비문을 지은이와 새긴이 및 맺음말로 되어 있다.

원고에는 어머니 조상의 이름과 추증 연월, 어머니가 궁에 들어간 나이 등이 비어 있는데, 현재 숙빈 최씨의 무덤인 소령원昭寧園에 세워진 묘갈문에는 모두 채워져 있으며 내용도 일부 추가되어있다. 또 원고에서는 영조가 앞면의 대자大字를 쓰고 서평군 이요西平君李橈(1687~1756)가 비의 뒷면을 쓴다고 했는데, 현재 묘갈문에는 영조가 앞면 대자와 음기 및 음기 위쪽 '소령묘갈'이란 전자篆字를 쓰고, 서평군이 묘표(1718), 신도비(1725), 묘갈을 받치는 농대석籠臺石에 묘갈을 세운 곳과 묘갈을 세운 날짜를 썼다고 되어 있다.

영조는 즉위 이듬해인 1725년 12월에 숙빈의 사당을 순화방順化坊 북쪽 산기슭 아래에 세우고, 1734년에는 숙빈의 부모를 추증하였으며, 1744년에는 조부모와 증조부모를 추증하였다. 3개월 뒤에는 사당과 묘소 이름을 육상毓祥과 소령昭寧으로 정하고는 「소령묘갈」을 세웠다. 그 뒤 1753년에 화경和敬이란 시호를 올리면서 사당과 묘소를 육상궁宮과 소령원園으로 격상시켰고, 1755년·1772년·1776년에 각각 휘덕徽德·안순安純·수복綏福이란 존호를 올렸다.

숙빈최씨소령묘갈문원고는 영조가 즉위한 뒤 생모에 대한 추숭사업의 과정에서 남긴 필적의 하나로서 영조의 까다로운 성격이 그대로 연상되는 영조 노년의 독특한 어필서풍을 보여준다. 이 원고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여러 영조어필 시문원고 가운데 「숙빈최씨사우제문원고」(보물 제1631-1호)와 더불어 의미 깊은 필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숙빈최씨소령묘갈문원고, 2010_ 한국학중앙연구원

보물 제1631-3호

영조어필-읍궁진장첩

英祖御筆-泣弓珍藏帖

조선시대(1761년~1770년)
1첩(18장)
세로 36.4㎝, 가로 23.7㎝
종이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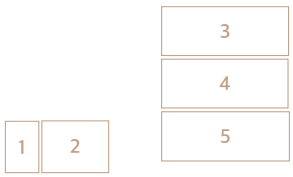
지정일 : 2010.01.04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수원박물관

<영조어필-읍궁진장첩>은 조선 제21대 임금 영조英祖(재위 1724~1776)가 노년에 쓴 여러 어제어필을 모아 1첩 18장으로 꾸민 것이다. 겉표지 오른쪽 위에는 '英廟御筆(영조어필)', 왼쪽에는 '泣弓珍藏(읍궁진장첩)'이라고 적혀있다. 여기서 '읍궁泣弓'이란 중국 상고시대 황제黃帝가 승하하자 백성들이 그의 승천을 막았는데, 이에 황제가 쥐고 있던 활을 떨어뜨리자 백성이 그 활을 끌어안고 슬프게 울었다는 고사에서 나왔다.

서첩에는 모두 12점의 어필이 실려 있다. '辛巳正月十六日藥院批(1761년 1월 16일 내의원에 답한다)'라고 쓴 부전지附箋紙(간단한 의견을 적어 덧붙이는 쪽지)를 붙인 비답批答(임금에게 아뢰는 글에 대한 임금의 답변)을 비롯하여 1761년과 1763년에 도승지에게 전한 전교傳敎, 1765년 3월 효종의 잠저 어의궁於義宮에서 읊은 사언구四言句의 인본印本, 1770년(영조46) 7월 11일 세손과 함께 홍문관에서 관원들과 야대夜對한 뒤 내린 사언시四言詩 「서시옥당書示玉堂」, 이틀 뒤 홍문관에 써 준 「학사관學士館」 대자大字, 1771년 4월 홍문관 교리 겸 시독관 심이지沈頤之를 충청도 직산현에 어사로 파견할 때 써준 「직산稷山」 대자 등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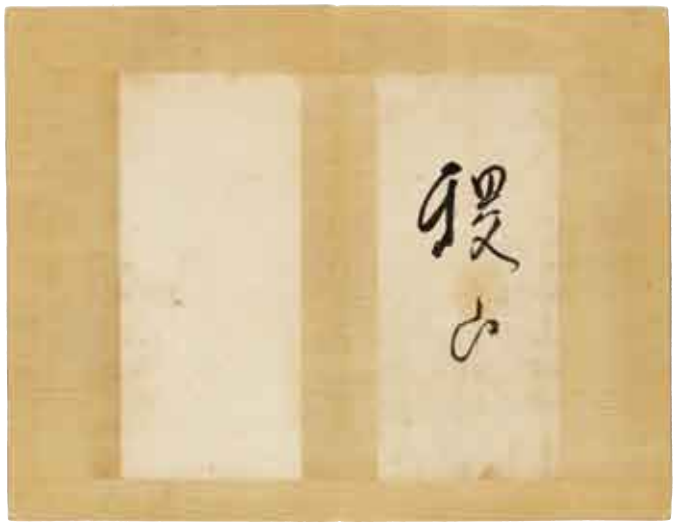
『읍궁진장첩』 내 어필들은 영조 때 문신이던 심수沈鏽(1707~1776)와 그의 아들 심이지沈頤之(1735~1796)가 모은 것으로 추측된다. 심수의 본관은 청송靑松으로 1727년 생원시 입격, 1745년 정시문과 합격 후 승정원 부승지·승지로 내의원 부제조·제조를 겸했고, 1760년 도승지에 특별히 제수된 뒤 1764년 5월까지 영조를 측근에서 보필하였다. 그 뒤 예조·형조·이조판서와 함경감사·한성판윤·경기감사 등을 지냈고 1776년 기로소에 들어가 그해 사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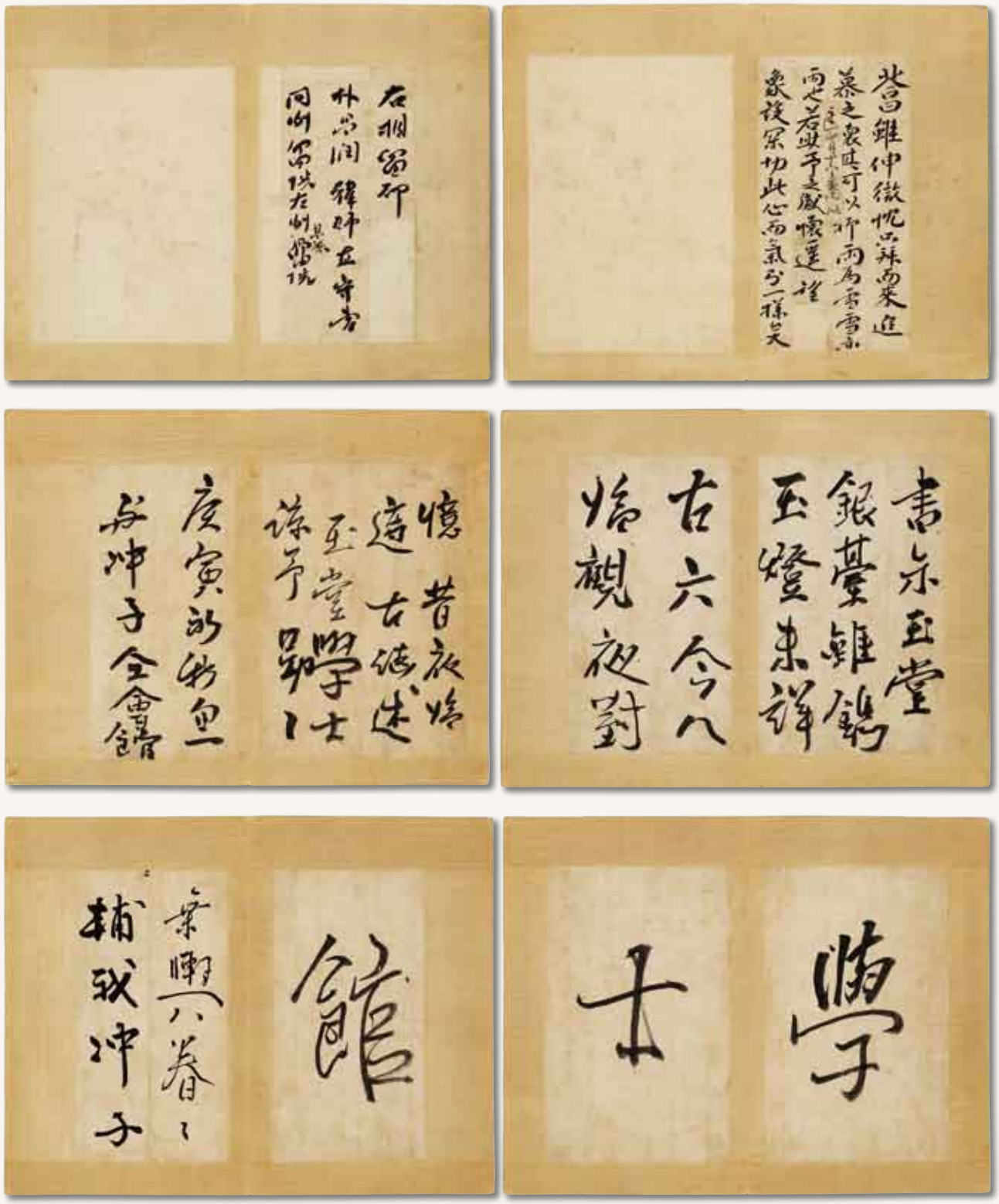
『읍궁진장첩』은 연대를 알 수 있는 필적이 많아 영조의 노년 서풍을 잘 살필 수 있다. 또한 조선후기 궁중 장황으로 꾸며져 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하여 어필 자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1. 읍궁진장첩 표지, 2011_ 수원박물관
2. 1771년 4월 홍문관 교리 겸 시독관 심이지를 충청도 직산현에 어사로 파견할 때 써준 '직산' 대자, 2011_ 수원박물관
3. 1761년 1월 16일 약원에 내린 비답, 2011_ 수원박물관
4. 1770년 7월 11일 세손과 함께 홍문관에서 관원들과 야대한 뒤 내인 '서시옥당' 사언시, 2011_ 수원박물관
5. 1770년 7월 13일 홍문관에 써준 '학사관' 대자, 2011_ 수원박물관







보물 제1632-3호

정조어필-시국제입장제생

正祖御筆-示菊製入場諸生

조선시대(1798년)
1점
세로 112.0㎝, 가로 210.5㎝
종이(닥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2010.01.04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시국제입장제생>은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正祖(재위 1776~1800)가 1798년에 쓴 어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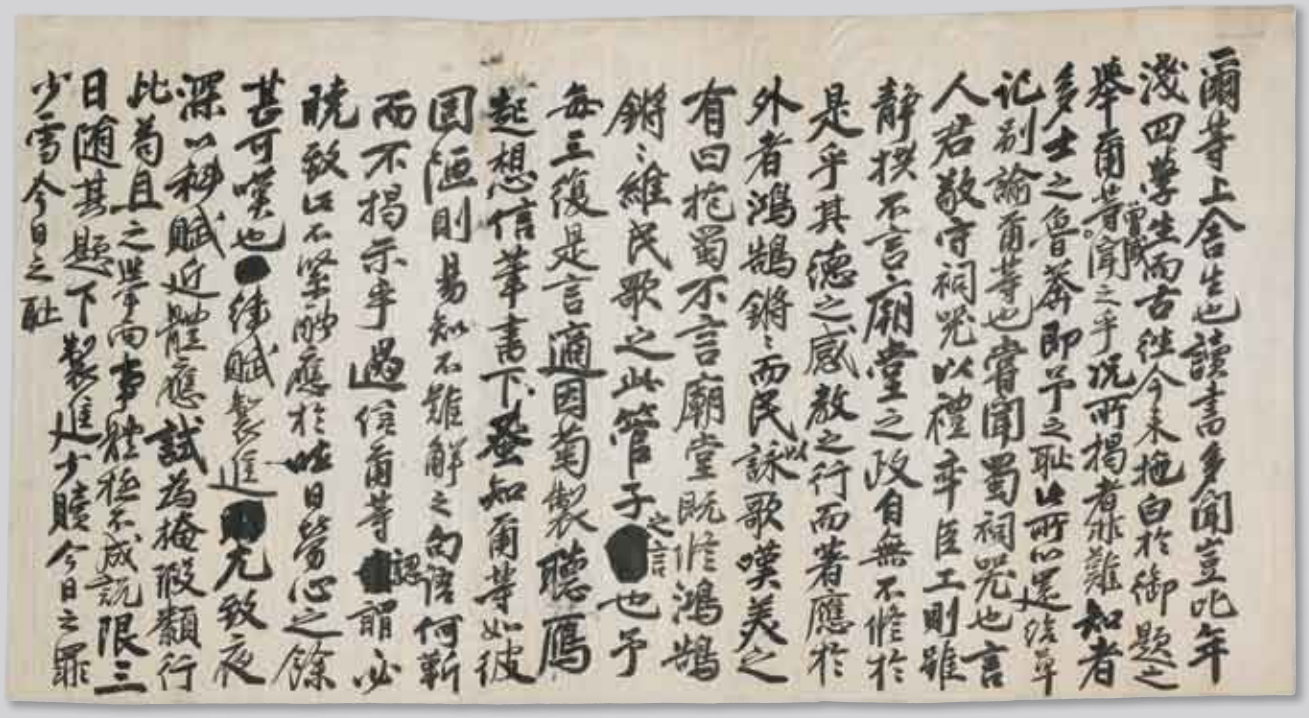
1798년 9월 9일 성균관에서 열렸던 국제菊製 시험에서 정조가 관자管子의 '포촉불언抱蜀不言 홍곡장장鴻鵠鏘鏘'이란 구절을 어제御題로 출제했는데, 당시 응시했던 유생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백지와 거친 답안이 나오자 삼일 기한을 주고 다시 지어 올리라고 한 별유別諭(왕이 특별히 내리는 지시나 분부) 필적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승정원일기』, 『정조실록』, 『홍재전서』 권56 「시국제입장제생示菊製入場諸生」에서 모두 확인된다.

정조의 별유는 닥종이 세 장을 이어붙인 종이바탕에 북송의 문인 소식蘇軾(1037~1101)의 해서풍楷書風으로 굵직한 획에 파임과 갈고리를 강조한 글자로 작성하였다. 글자 사이에 글씨를 추가하거나 적절치 않은 글자는 먹으로 뭉개고 다시 썼다. 종이바탕 위쪽에는 이 별유를 게시하기 위해 잘랐던 것으로 보이는 칼집 자국이 여섯 군데나 있다.

별유의 내용은 '여러 유생들은 진사와 생원 출신으로 서책을 많이 읽었을 것이니, 어찌 사학四學의 유생들과 비교할 수 있나. 예로부터 지금까지 어제御題의 뜻을 몰라 백지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출제 문제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이러하니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그대들의 실력이 다듬어지지 않은 것은 나의 수치이다. 그리하여 이렇게 특별히 깨우침을 주려 한다.'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글 중간에는 어제로 출제한 '抱蜀不言 鴻鵠鏘鏘(포촉불언 홍곡장장)'의 의미가 나오는데, 정조의 설명에 따르면 이 말은 '임금이 공경하는 자세로 제기祭器를 지키며 백관百官들을 통솔하면 아무 말 없이 있어도 그 덕이 알려져 교화가 이루어진다. 그 효과는 큰 기러기가 날개를 활짝 펴고 높이 날아오르는 것과 같으니 백성이 이를 노래 부르며 찬미한다.(抱蜀不言 廟堂旣修 鴻鵠鏘鏘 維民歌之)'는 의미이다. 별유의 마지막에는 '사흘의 기한을 줄 것이니 제목에 따라 글을 지어 올려 조금이라도 오늘의 수치를 씻어라.'고 지시가 적혀 있다.

이 어필은 조선시대 임금이 성균관 유생에게 내린 별유로서 그들의 학업을 독려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 정조 재위 후년의 다른 어필에 비해 글자가 크고 필치도 활달하며, 정조의 모훈謨訓(뒤의 임금에게 계가 되는 가르침)으로서 봉모당奉謨堂에 보존되어왔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높다. 더구나 당시 행사의 면모와 제왕의 신념이 잘 드러나 있어 역사적·학술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시국제입장제생, 2018_ 한국학중앙연구원

보물 제1658호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42

再雕本 瑜伽師地論 卷四十二

고려시대(1247년경)
1권 1축
세로 36.5㎝, 가로 1,189㎝
종이(닥종이)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137-48

지정일 : 2010.08.25
소유자 : 원각사(사유)
관리자 : 원각사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42>는 1247년(고려 고종34)에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간행한 재조본 고려대장경 판본 중 하나이다.

『유가사지론』은 서기 300년에서 350년 사이에 성립된 불교 유가행파瑜伽行派의 기본경전 중 하나로, 인도의 미륵彌勒보살이 지은 글을 당나라 현장玄奘이 646년에서 648년 사이에 100권으로 한역漢譯한 것이다. 유가사瑜伽師란 유가행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유가사지瑜伽師地는 유가사들이 실천해 가는 수행과정을 일컫는다. 유가사지론은 본지분本地分(권1~50), 섭결택분攝決擇分(권51~80), 섭석분攝釋分(권81~82), 섭이문분攝異門分(권83~84), 섭사분攝事分(권85~100) 등 오분五分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은 다시 지地·처處 등 여러 품으로 나누어져 있다.

원각사 소장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42는 1247년에 대장도감에서 간행한 재조본 고려대장경 판본 가운데 하나로, 전체 100권 중 권42이다. 권42는 본지분本地分 15번째인 보살지菩薩地의 초지유가처初持瑜伽處(권35~46)에 해당하는 제10~12품인 계품戒品, 인품忍品, 정진품精進品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초지유가처는 유가수양을 논설한 첫 부분이고, 계품은 육바라밀 중에서 지계바라밀持戒波羅蜜을 논설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지계는 계율을 잘 지켜서 악을 막고 선을 실천하는 생활을 말한다.

권두에는 '瑜伽師地論 卷第四十二(유가사지론 권제사십이)'이란 권두제와 권차가 있고 그 아래 '因(인)'자의 함차函次 표시에 이어 행을 달리하여 '彌勒菩薩說(미륵보살설)' '三藏法師玄奘奉 詔譯(삼장법사현장봉 조역)'이라는 역자譯者가 표시되어 있다.



1

3 2

1.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42, 2010_ 문화재청
2.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42 제15장, 2013_ 문화재청
3.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42 권말, 2013_ 문화재청



권말卷末에는 권말제에 이어 '丁未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정미세고려국대장도감봉칙조조)'라는 간기刊記가 남아있어 1247년(고종34)에 대장도감에서 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형태는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판식은 상하단변上下單邊, 광고匡高는 22.8㎝이며, 1장은 22행 14자, 2장부터 24장까지는 23행 14자로 전형적인 재조대장경본의 형태를 보인다.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42는 재조본 고려대장경을 완성한 직후인 13세기 중후기에 인출한 초기 간본으로 인쇄상태가 선명하고 정교하며 보존상태가 비교적 온전하다. 『유가사지론』 권제64(보물 제969호), 『유가사지론』 권제55(보물 제972호)와 동일 인출본으로, 훼손 부위가 동일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동일 조건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물 제1668호

이지정 초서 취영구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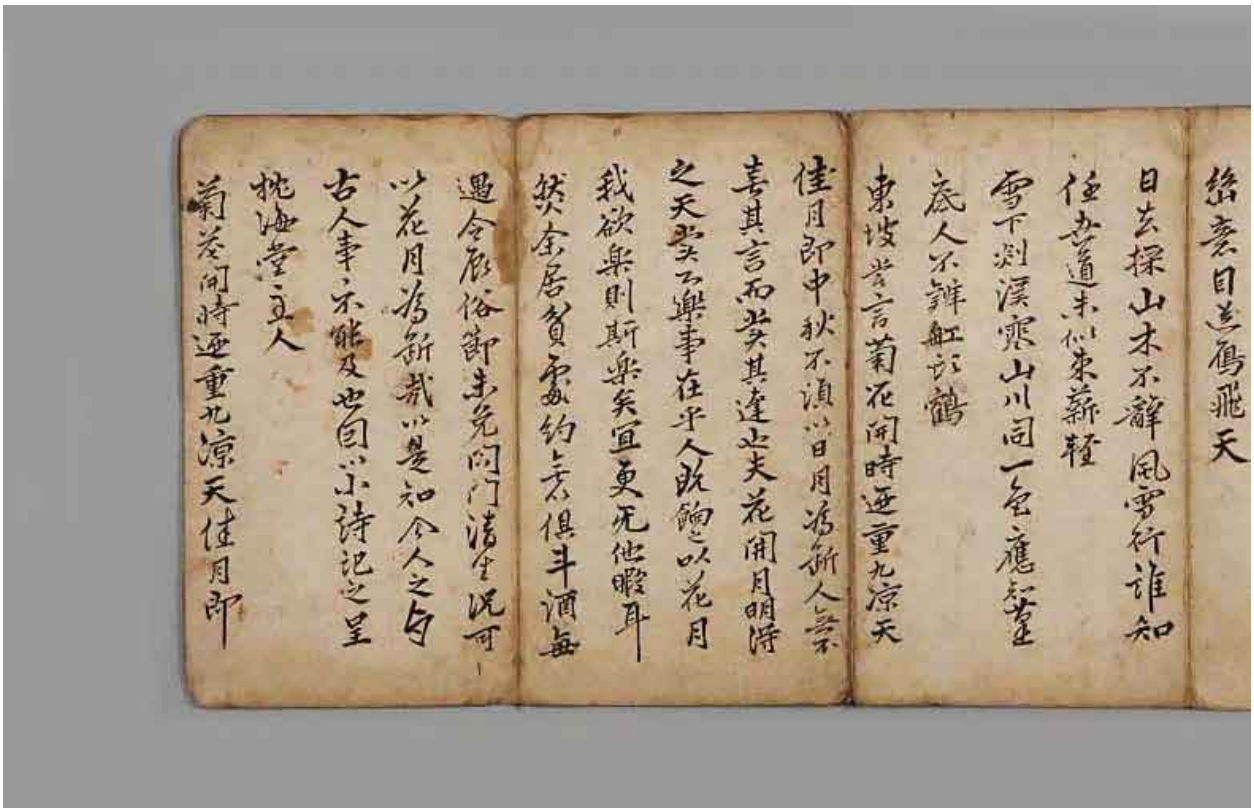
李志定 草書 醉詠九絶

조선시대(1647년)
1첩
세로 27.7㎝, 가로 15.7㎝
종이
과천시 중앙동

지정일 : 2010.10.25
소유자 : 조창현(사유)
관리자 : 조창현

<이지정 초서 취영구절>은 1647년(인조25) 이민구李敏求(1589~1670)가 지은 시를 이지정李志定(1588~1650)이 쓴 서첩이다. 이민구는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당시 강도검찰부사江都檢察副使로서 인조를 제대로 피신시키지 못한 죄로 영흥永興에 유배되었다가 1643년(인조21)에 아산牙山으로 이배되었고 1647년 4월에 사면되었다. 이지정은 사위 이계李烓가 명나라의 상선과 밀무역한 죄에 연좌되어 1642년 성천부사成川府使직에서 파직당한 뒤 이민구의 유배지인 아산에 인접한 계두리鷄頭里에 거처하며 이민구와 두터운 교분을 나누었다. 이민구가 지은 절구 9수는 사면을 받은 뒤 귀경을 목전에 두고 성시망成時望의 주선으로 이지정과 함께 서호西湖에서 작별을 겸한 마지막 뱃놀이를 하며 지은 것으로, 지난날의 회한과 이별을 앞둔 진한 아쉬움이 표현되어 있다.

『취영구절』은 모두 20면으로 이루어진 절첩折帖으로, 서첩의 이름인 '취영구절醉詠九絶'은 발문의 내용에서 따온 것이다. 오언절구 「舟回(배를 돌리다)」의 바로 뒤에는 '丁亥夏五月十七日 東州爲喚魚亭主人翁 醉詠九絶 聽蟬書(정해년(1647) 여름 5월 17일에 동주가 환어정喚魚亭 주인옹을 위해 취중에 절구 9수를 짓고 청선이 쓰다)'라는 발문이 있어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환어정 주인은 성시망成時望을 가리킨다. 그는 젊었을 때 장현광張顯光(1554~1637)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나, 중년 이후로는 학문을 버리고 어업에 종사하여 소금과 어류를 판매하여 부를 축적한 인물이다. 그는 또한 공진貢津(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환어정과 침해당枕海堂을 지어 한때 이름을 떨쳤다고 하는데, 그 지역은 이민구의 유배지이자 이지정이 '청선聽蟬'이란 편액을 걸고 한묵翰墨으로 여생을 마감한 곳이기도 하다. 발문의 내용대로라면 절구 9수가 실려 있어야 하는데 현재 서첩에는 7수만 실려 있으며, 뒤쪽에 오언절구 4수가 더 실려있다.



이지정 초서 취영구절, 2010_ 문화재청

『취영구절』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 중 10수는 이민구의 문집 『동주집東州集』 권11에 실려 있다. 칠언절구 8수는 「將北歸 泛舟西湖 醉占八絶 請蟬翁放筆(장차 북쪽으로 돌아가려고 서호에 배를 띄우고 취중에 절구 여덟 수를 지어 청선옹에게 붓을 휘둘러 줄 것을 청하다)」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고, 오언절구 2수는 「賦小姬(소희를 읊다)」와 「舟回(배를 돌리다)」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이지정의 글씨는 칡뿌리로 만든 붓인 갈필葛筆로 쓴 듯한 거친 필획, 자획에 강약을 주어 변화와 생동감을 주는 활달한 기운이 있다. 그의 초서草書는 거친 감필법減筆法과 점획의 굵고 가늚을 나타내는 태세太細의 변화가 황기로黃耆老보다 극대화되어 획 사이를 잇는 필획이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취영구절』은 아산 서호라는 문화적 공간을 배경으로 17세기를 대표할 만한 문장가 이민구와 명필 이지정이 유배의 시름과 파직의 고통을 시와 유묵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이지정 초서의 유일한 기년작이자 만년의 필적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보물 제1669호

조문수 필적 위심수재서

曺文秀 筆蹟 爲沈秀才書

조선시대(1647년)
1첩
세로 29㎝, 가로 17㎝
종이
과천시 중앙동

지정일 : 2010.10.25
소유자 : 조창현(사유)
관리자 : 조창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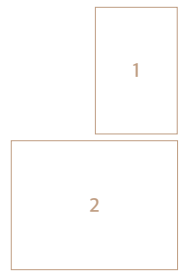
<조문수 필적 위심수재서>는 문신이자 명필인 설정 조문수雪汀曺文秀가 1647년에 심수재沈秀才를 위해 쓴 서첩이다. 이 서첩에 수록된 글씨는 세 가지인데, 송나라의 유학자 범준范浚이 지은 「범씨심잠范氏心箴」을 쓴 해서, 당나라 두보杜甫의 칠언장시 「애강두哀江頭」를 쓴 행서, 그리고 두보의 칠언율시 3수를 작은 행초가 바로 그것이다.

서첩의 말미에 '丁亥孟冬雪汀翁爲沈秀才書于城西草屋(정해맹동설정옹위심수재서우성서초옥)'란 기록이 있어 그의 나이 58세인 1647년(인조25) 4월에 조문수가 심수재를 위해 도성 서쪽 초가에서 썼음을 알 수 있다. 조문수는 1645년 9월에 개성유수開城留守로 나갔다가 1647년 4월 이후에 서울로 돌아왔고, 다시 1647년 10월 22일에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 임지로 떠나 그해 12월 30일에 원주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글씨는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기 직전의 필적으로 볼 수 있다.

조문수의 글씨에 대해서는 그의 증손 조하망曺夏望(1682~1747)이 지은 행장行狀을 보면, "글씨에 일가를 이루었는데 본래 송설松雪(조맹부)을 좋아했으나 그 필색이 외형미에 치우친 점이 싫어 왕희지王羲之의 법을 참작하니 체기體氣가 농수濃粹하였다.… 당시 송설을 구사했던 남창南窓(김현성), 동회東淮(신익성) 등이 모두 그를 찬미하기를 '조문수가 왕희지와 조맹부 사이를 절충한 것은 우리들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처럼 조문수는 '왕조지간王趙之間' 즉 동진 왕희지와 원나라 조맹부의 서풍을 두루 구사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위심수재서』는 바로 그러한 면을 잘 보여주는데, 앞쪽의 「범씨심잠」은 단정한 짜임과 명료한 획법에서 왕희지를 따른 석봉 한호石峯韓濩(1543~1605)의 『천자문千字文』 판본과 유사하고, 「애강두」 행서와 「두시칠율3수杜詩七律三首」 행초는 지나치게 완곡한 조맹부 서풍에 비하여 맑고 간명簡明한 풍격風格이 돋보이고 있어 조선 초 이래 유행된 조맹부 서풍의 변화를 보여준다.

조문수의 필적은 몇몇 간찰簡札 외에 보기 드문데, 이 서첩처럼 서풍書風이 뛰어나고 수증자受贈者와 연대年代까지 쓰여 있으며 보존상태까지 양호한 예는 아직까지 없다.



1. 조문수 필적 위심수재서 표지, 2010_ 문화재청
2. 조문수 필적 위심수재서 본문, 2010_ 문화재청




王敏老挽詞壁
下佐房兒火者
壞道哀滿瀉萬
叙玄笙竽秋色
亟潘洒英人爲
英士況乃粉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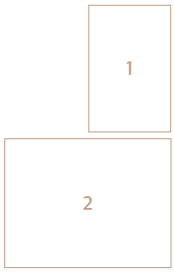
보물 제1672-1호

송준길 행초 동춘당필적

宋浚吉 行草 同春堂筆跡

조선시대(1666년 이후)
1첩
세로 54.5㎝, 가로 34.5㎝
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2010.10.25
소유자 : 정춘목(사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1. 송준길 행초 동춘당필적 표지, 2010_ 문화재청
2. 송준길 행초 동춘당필적 본문, 2010_ 문화재청

<송준길 행초 동춘당필적>은 조선시대 문신이자 명필로 이름난 동춘당 송준길同春堂宋浚吉(1606~1672)이 17세기 후반 남송 유학자 주희朱熹의 「학고재명學古齋銘」과 장인이었던 우복 정경세愚伏鄭經世(1563~1633)의 「우곡잡영20절愚谷雜詠二十絶」을 필사한 것이다.

송준길의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명보明甫, 호는 동춘당同春堂이다. 어려서 율곡 이이를 사숙했고 20세 때 김장생金長生(1548~1631)의 문하가 되었다. 1624년(인조2)에 진사가 된 뒤 학행으로 천거 받아 1630년 세마洗馬에 제수되었다. 이후 효종 즉위 때까지 여러 관직에 임명되나 대부분 나가지 않았다. 1649년 김장생의 아들 김집金集(1574~1656)이 이조판서로 기용되면서 송시열과 함께 발탁되어 부사직·장령 등을 거쳐 사헌부집의에 올랐다. 그해 인조 말부터 권력을 잡았던 김자점·원두표 등의 반정공신 일파를 탄핵하여 몰락시켰으나, 김자점이 효종의 반청정책反淸政策을 청나라에 밀고하여 벼슬에서 물러났다. 1659년 병조판서·지중추원사·우참찬으로 송시열과 함께 국정에 참여하던 중 효종이 사망하자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服喪 문제로 예송禮訟이 일어났는데 송시열의 기년제朞年祭(만1년)를 지지하며 남인南人 윤휴尹鑴·허목許穆·윤선도尹善道 등의 삼년설과 논란을 거듭한 끝에 기년제를 관철시켰다. 사후 1673년 영의정에 추증되나 1674년 효종비 인선대비仁宣大妃가 사망하자 다시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인이 서인을 누르고 정권을 장악하자 1675년(숙종1) 허적·윤휴·허목 등의 공격을 받아 관작官爵을 삭탈당했다가 1680년 경신환국庚申換局으로 관작이 복구되었다. 송시열과 일가이며 학문경향이 같고 이이의 학설을 지지했다. 1681년 '문정文正'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1756년 문묘에 제향되었다. 예학에 밝았고 문장과 글씨에도 능하여 송시열과 함께 당대의 많은 비갈문碑碣文을 짓고 썼다.

『동춘당필적』은 모두 28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쪽 8면에는 남송 유학자 주희의 「학고재명」, 뒤쪽 나머지 면에는 장인이었던 우복 정경세가 쓴 「우곡잡영20절」이 필사되어 있다. 앞쪽에 가지런한 행서로 쓴 「학고재명」은 퇴계 이황의 서풍을 수용한 면모를 보여주며, 뒤쪽의 「우곡잡영 20절」은 송준길의 전형적인 행초 서풍을 보여준다. 「우곡잡영20절」에 수록된 칠언절구 20수는 정경세가 44세 때인 1606년 삼월 하순에 자신의 복거처인 경상북도 상주의 우곡愚谷 10여 리의 뛰어난 경치를 읊은 것으로 『우복집愚伏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송준길은 이이李珥 이래로 김장생, 김집 등 기호학파畿湖學派의 학맥을 계승하면서 초년에는 율곡계 명필 석봉石峯 한호韓濩의 글씨를 익혔고, 뒤에는 영남학파 학자였던 장인 정경세를 통하여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학문뿐 아니라 글씨까지 수용하였다. 이 서첩이 바로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는 예로서 이황 글씨를 가미한 송준길의 전형적인 서풍이 잘 나타나 있다. 필사한 시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63세가 되던 1669년(현종10)에 쓴 「민기신도비명閔機神道碑銘」, 「서증손병하書贈孫炳夏」와 유사하여 노년의 필적으로 추측된다.



步、凌雲興未窮、
根於天地與流前
杜詩集回英今已逝
自立碑　右羽化翁

桓柚實霜自熟於杜
人癡飛湯雪已成
勿文撞月好談山門
非今仙　右蠡杜石

보물 제1673호

이하진 필적 천금물전

李夏鎭 筆蹟 千金勿傳

조선시대(1600년대 중반)
10첩
세로 45㎝, 가로 28㎝
종이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31

지정일 : 2010.10.25
소유자 : 안산시
관리자 : 성호기념관

<이하진 필적 천금물전>은 조선 후기의 문신 이하진李夏鎭(1628~1682)이 1680년경에 쓴 서첩이다. '천금물전'은 '천금을 주더라도 남에게 전하지 말라'는 뜻으로 중국 동진의 왕희지王羲之(303~361)가 옛 스승 위부인이 쓴 「필진도筆陣圖」를 읽고 난 뒤 자신이 평생 경험한 바를 적어 자손에게 남긴 「제위부인필진도후題衛夫人筆陣圖後」의 끝 구절 "가장지석실可藏之石室, 천금물전비기인千金勿傳非其人"에서 따 왔다.

이하진의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하경夏卿, 호는 매산梅山 또는 육우당六寓堂이다. 이우인李友仁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좌찬성 이상의李尙毅, 아버지는 지평 이지안李志安, 어머니는 영제군寧堤君 이석령李錫齡의 딸이며, 실학자 이익李瀷의 아버지이다. 1654년(효종5)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676년(숙종2) 공조참의·대사성을 지낸 뒤, 1678년에는 도승지·대사헌에 이르렀다. 1680년(숙종6) 대사간 재임 시 영의정 허적許積의 서자庶子인 허견許堅의 불법을 허목許穆이 상소하여 관직에서 쫓겨나자 허목을 두둔하다가 숙종의 진노를 사서 진주목사로 좌천되었다. 얼마 뒤 관직을 그만둔 뒤 1682년 배소에서 사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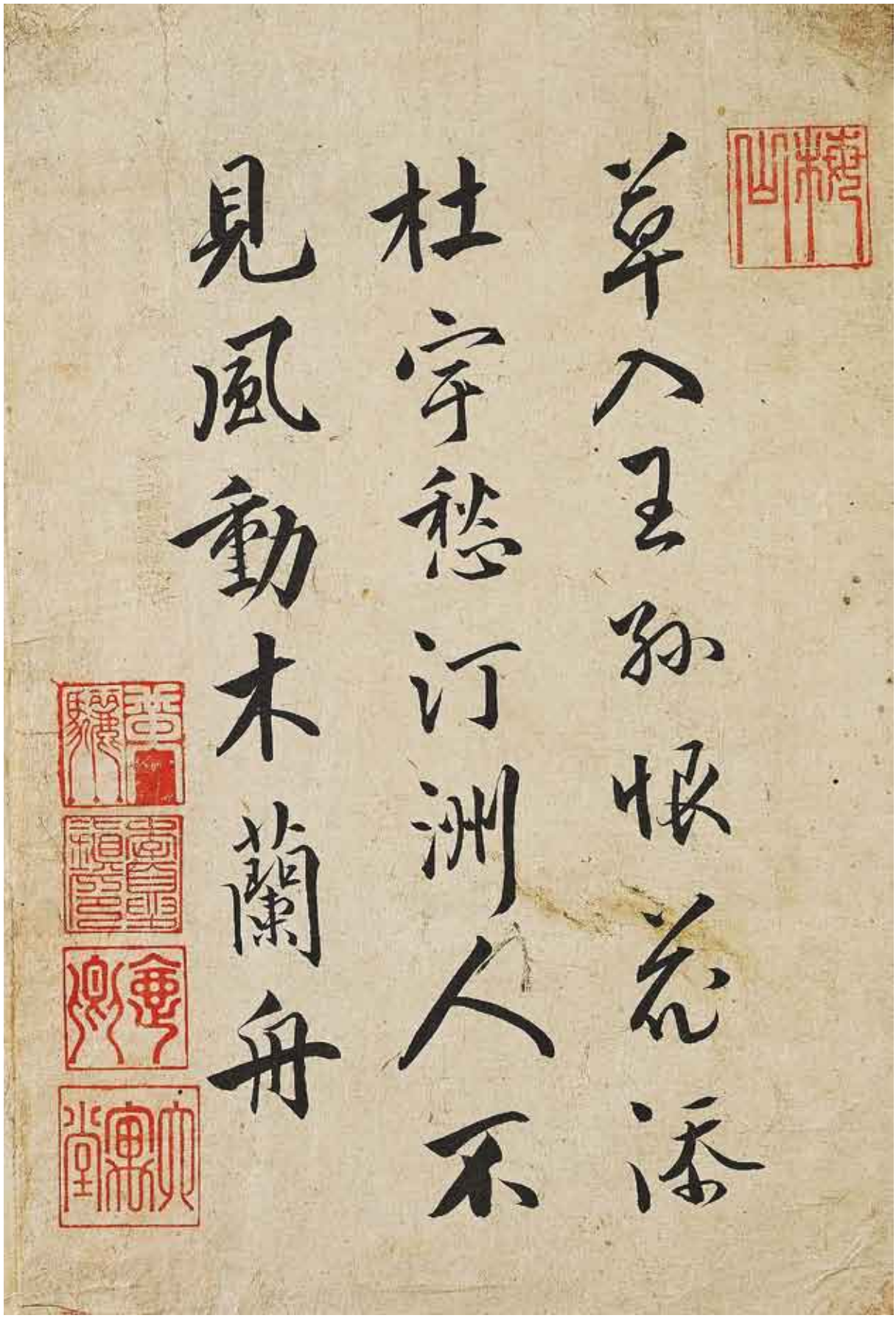
『천금물전』의 필사 시기는 적혀 있지 않으나 이하진의 시문집 『육우당유고六寓堂遺稿』 제2·3책 「서호록西湖錄」에 실린 8수의 시와 같은 것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680년(숙종6) 5월 11일 삭탈관직이 되어 도성 밖으로 쫓겨난 뒤 그해 10월 2일 평안도 운산雲山으로 유배되기 전까지 서호西湖(현재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서강西江 일대)에 머물렀던 시기에 쓴 것으로 여겨진다.

1

2

1. 이하진 필적 천금물전, 2014_ 성호기념관
2. 행서 오언절구, 2013_ 성호기념관




草入王孫恨芳洛
杜字愁汀洲人不
見風動木蘭舟

『천금물전』에 실린 여러 시문의 내용을 보면, 이하진이 추구했던 삶의 이상을 짐작하게 한다. 동산명월東山明月, 북창청풍北窓淸風, 성서초당城西草堂, 매헌죽오梅軒竹塢 등의 대자 글씨, 서호 주변에서의 감흥을 읊은 절구 16수, 향기가 나는 열두 가지 완상식물(十二芳翫)에 대한 칠언절구 12수, 동쪽 정원의 여덟 가지 짝(東園八伴)에 대한 육언고시 8수, 자신의 소박한 여덟 가지 애완물(八種愛玩)의 이름에 대하여 새기고, 주변 산천의 자연물과 자신의 소박한 소유물에 정의情意를 붙여 자족하려 했던 노년의 삶을 연상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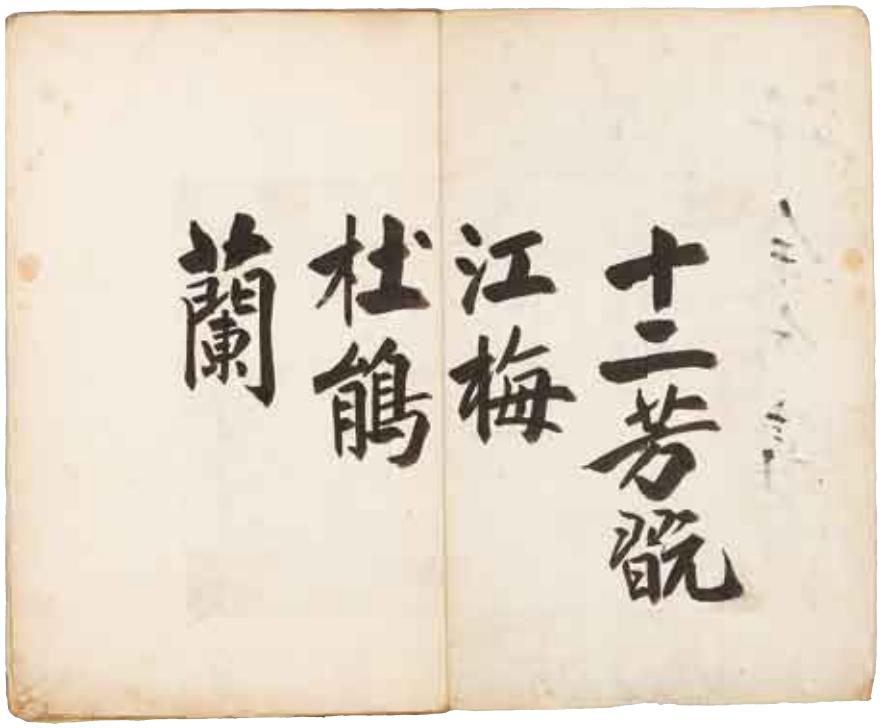
○ 십이방완十二芳玩 : 열두 가지 향기 나는 완상식물
- 강매江梅·두견杜鵑·난蘭·연蓮·단계丹桂·황국黃菊·송松·죽竹·석류石榴·동백冬柏·석죽石竹·두형杜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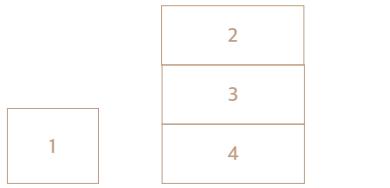
○ 동원팔반東園八伴 : 동쪽 정원의 8가지 짝
- 금琴·학鶴·시詩·주酒·서書·화畵·검劒·기碁

○ 팔종애완八種愛玩 : 자신의 8가지 애완물
- 장생표長生瓢·구절장九節杖·고검古劒·현금玄琴·서안書案·기국棋局·매장梅藏·괴석怪石

'천금물전'이란 표제가 왕희지의 53세 글에서 나왔듯이 『천금물전』이 제작된 1680년은 이하진이 53세가 되는 해로 여유가 생기자 왕희지처럼 자손에게 길이 전할 글씨를 남긴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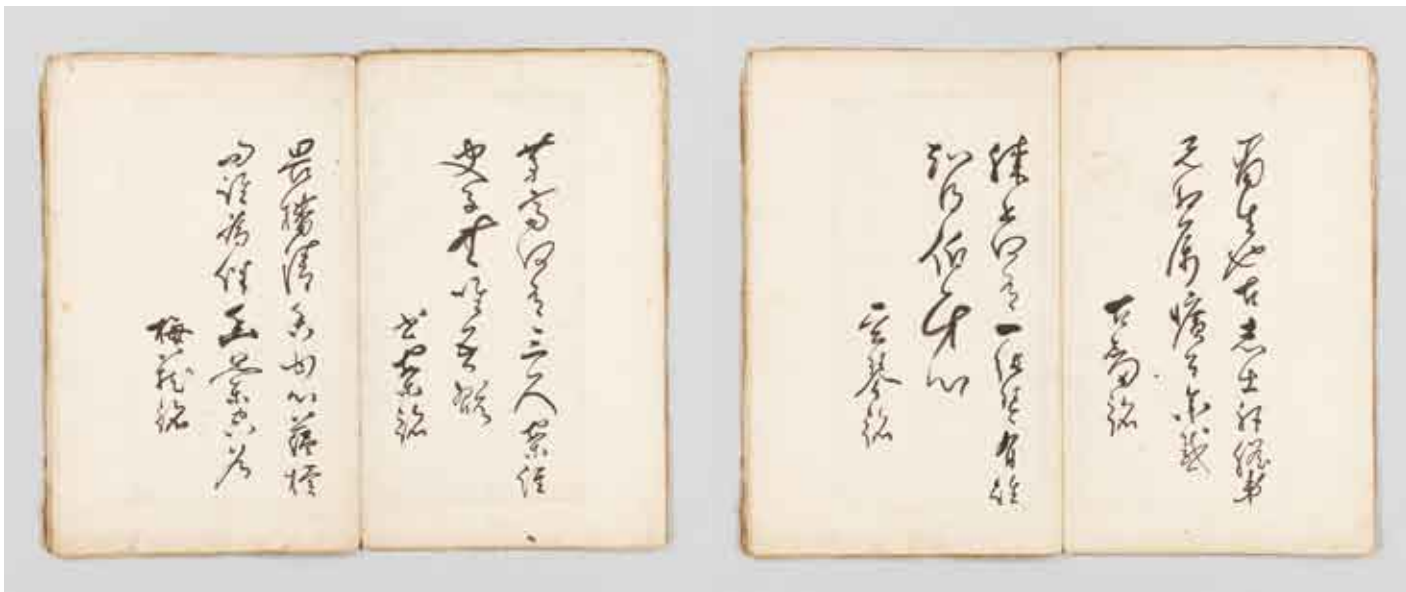
『천금물전』의 글씨는 여러 크기로 썼는데, 해서楷書는 왕희지의 소해小楷를 바탕으로 했으나 획이 좀 무르고 짜임이 느슨하며, 행서行書는 해서를 흘려 쓴 정도로 좀 거칠다. 이에 비해 초서草書는 가는 획으로 분방한 필치를 보이는데 16세기 초서 명필 고산孤山 황기로黃耆老의 서풍을 따랐던 숙부 청선聽蟬 이지정李志定에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천금물전』 10첩은 17세기 문인의 애호완상 경향과 이하진의 노년 서풍을 살필 수 있는 예이다. 특히 그의 초서는 숙부 이지정에게 전수받아 아들 이서李漵·이익李瀷 형제 및 이서의 제자 윤두서尹斗緖 등으로 이어져 조선 후기 남인 초서풍의 한 갈래를 이룬 점에서도 소중한 자료이다.





1. 향기가 나는 열두 가지 완상식물의 명칭(대자행서), 2014_ 성호기념관
2. 자신의 소박한 여덟 가지 애완물 중 고검·현금·서안 관련 글(행서), 2014_ 성호기념관
3. 자신의 소박한 여덟 가지 애완물 중 고검·현금·서안·매장 관련 글(초서), 2014_ 성호기념관
4. 북창청풍(대자서), 2014_ 성호기념관






清風
水宜

보물 제1674호

박세당 필적 서계유묵

朴世堂 筆蹟 西溪遺墨

조선시대(1697년~1699년경)
3첩
세로 35㎝, 가로 24㎝
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2010.10.25
소유자 : 박범서(사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세당 필적 서계유묵>은 조선중기 문신이자 학자인 박세당朴世堂(1629~1703)이 문인 이정신李正臣(1660~1727)에게 써준 시문과 간찰을 모아놓은 서첩이다.

박세당의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계긍季肯, 호는 서계西溪 또는 잠수潛叟이다. 아버지는 이조참판 박정朴炡, 어머니는 양주윤씨 관찰사 안국安國의 딸이다. 1660년(현종1)에 증광문과에 장원, 성균관 전적에 제수되고, 좌랑·정언·정랑·지평·교리·함경북도병마평사 등을 지냈다. 1668년 서장관書狀官으로 청에 다녀온 뒤 당쟁에 혐오를 느껴 사직하고 양주 수락산 석천동石泉洞으로 물러났다. 당쟁의 소용돌이로 아들 태유泰維(1648~1686), 태보泰輔(1654~1689) 형제를 잃자 여러 번 출사권유에도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학문과 제자양성에 힘썼다. 그 뒤 대사헌·판윤·이조판서 등이 주어졌으나 나가지 않았고, 1702년(숙종28) 이경석李景奭의 신도비명에서 송시열을 낮게 평가했다 하여 노론에게서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 지탄을 받기도 했다.

병자호란과 당쟁 격화로 국력이 약해지고 민생이 도탄에 허덕이자 현실을 직시하며 국가보위와 사회개혁을 통한 민생구제를 목표로 학문을 펼쳤다. 주자학을 비판하고 노장老莊사상을 도입해 새로운 시각을 모색하였다. 대외정책에서 의리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고, 일상에서는 도심道心 못지않게 인욕人慾의 충족을 중시하는 등 백성의 의식주와 직결되는 실질적인 학문을 지향했다.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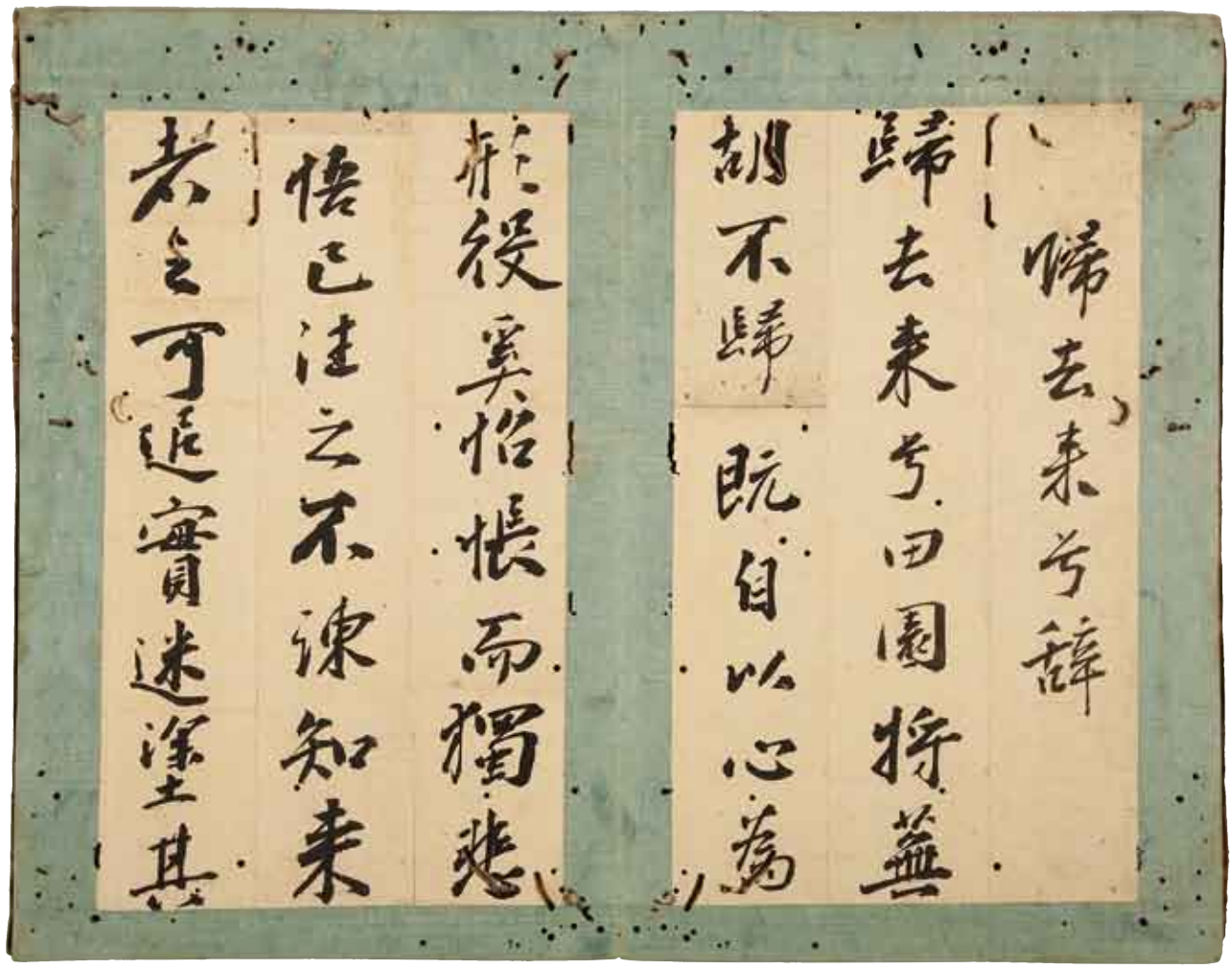
1. 서계유묵 상·중·하첩, 2011_ 한국학중앙연구원
2. 서계유묵 상첩 '고황천석', 2011_ 한국학중앙연구원
3. 서계유묵 상첩의 '귀거래사', 2011_ 한국학중앙연구원



『서계유묵』은 상첩·중첩·하첩 총3첩으로 구성 되어있다. 해·행·초楷行草로 쓰였고, 글씨의 크기는 대·중·소자가 다양하게 구사되어 있다. 상첩은 이정신의 시를 차운次韻한 자작시와 중국의 역대 시문을 행초行草로 써서 이정신에게 준 것이다.

내용은 주로 자연에 대한 사랑과 혼탁한 세상에서 멀어지려는 것들인데, 특히 앞쪽에 대자로 쓴 '고황천석膏肓泉石', '벽산청류碧山淸流', '춘풍추월春風秋月', '만수청풍滿袖淸風'은 박세당의 연하벽煙霞癖(본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평소 은자隱者의 전형으로 동경한 도잠陶潛(365~427)의 「귀거래사歸去來辭」와 당나라 여암呂巖, 잠삼岑參, 이백李白 등 호방한 은사의 시를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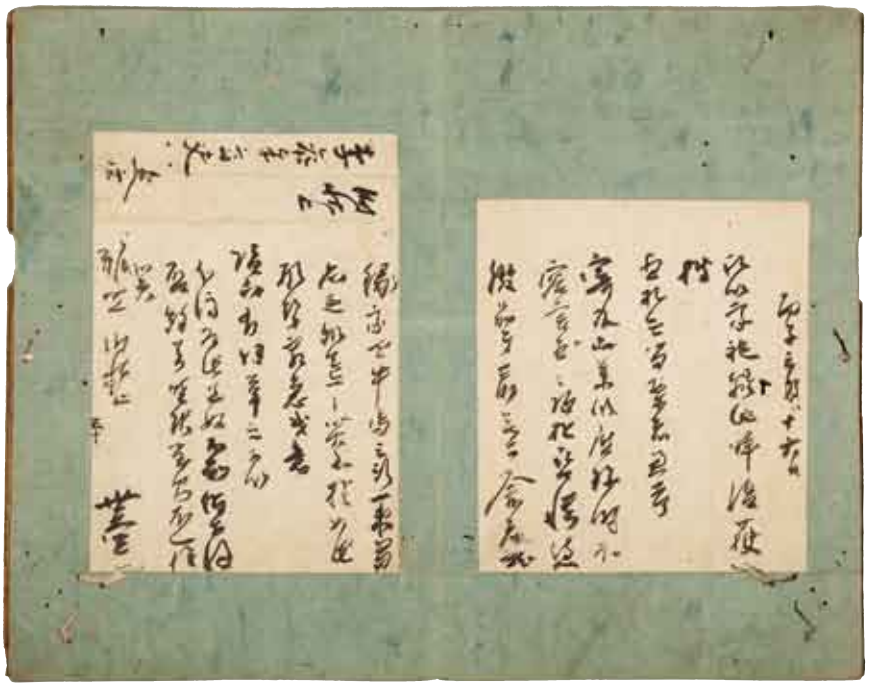




중첩과 하첩에는 각각 29통과 25통의 간찰이 실려 있다. 중첩의 29통 중 28통은 이정신에게 보낸 것이며 마지막 1통은 처남 남구만南九萬(1629~1711)에게 보낸 것이다. 하첩의 25통 중 19통이 이정신에게 보낸 것이며 마지막의 6통은 둘째아들 박태보朴泰輔(1654~1689)의 간찰이다.

박세당의 간찰은 1679~1702년 작성된 것으로 대부분 『서계집西溪集』에 실리지 않았다. 간찰의 내용은 일상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중 1696년 박세당이 이정신에게 중국 서화첩을 빌려본 뒤 조맹부趙孟頫·문징명文徵明 등 역대 명가 글씨에 대해 품평한 대목과 1688년 박태보가 「서계초상」의 제작에 따른 제반절차를 언급한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특히 한사韓師(한시각韓時覺)·윤사尹師(윤상익尹商翊)·조사曺師(조세걸曺世傑) 중 누구를 택할 것인지의 화사畵史 물색, 비단·아교·물감·종이 등의 재료 마련, 채색의 방식과 복식의 형태 등을 논의한 간찰이 주목된다.

박세당의 서풍畵風은 조선중기 당나라 안진경顔眞卿 서풍을



지금 집안의 마소 세 마리를 먹일 한 단의 건초도 마련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네. 흉년의 재앙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형세가 궁하고 급하네. 그대 집에 나눠 줄만한 여분의 건초가 있을 듯하여 노복을 보내네. 얻을 수 있겠는가?

-『서계유묵』(중첩), 병자(1696) 3월 16일 이정신에게 보낸 서간-



이정신으로부터 빌린 서화첩을 보고 박세당이 품평한 내용

-『서계유묵』(하첩), 병자(1696) 제일除日 이정신에게 보낸 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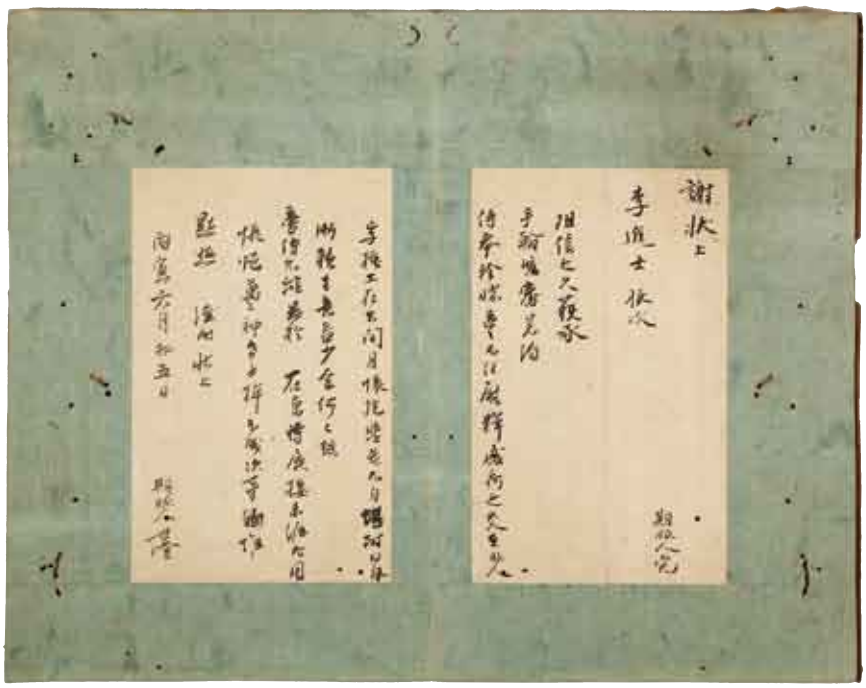
수용하여 짜임과 필획이 천연스럽고 질박하다. 3첩 가운데 「귀거래사」 등이 실린 상첩은 이러한 박세당 서풍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그의 서풍은 처남 남구만과 두 아들 태유와 태보에게 영향을 미쳐 안진경체의 본격적인 수용을 촉진시켰고 이후 18세기 안진경 서풍의 유행을 이끌었다.

『서계유묵』은 박세당과 이정신의 사제관계를 알려주는 필적으로, 중국 역대명가 글씨에 대한 박세당의 품평과 감식안, 그리고 「서계초상」 제작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다.

1 2

3 4

1·2 『서계유묵』 중첩 서간 일부, 2011_ 한국학중앙연구원
3·4. 『서계유묵』 하첩 서간 일부, 2011_ 한국학중앙연구원



죽은 아들(태유)을 지난 윤달 땅에 묻었는데, 슬프고 괴로운 마음 감당키 어렵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살고 싶은 마음은 더욱 줄어드니 이를 어찌 하겠습니까.

-『서계유묵』(중첩), 병인(1686) 6월 5일 이정신에게 보낸 서간-



이진사에게 보낸 5점 중 1688년에 박태보가 <서계초상화>의 제작에 따른 제반절차를 논의한 간찰

-『서계유묵』(하첩), 무진(1688) 6월 20일 서간-

보물 제1675호

박태유 필적 백석유묵첩

朴泰維 筆蹟 白石遺墨帖

조선시대
1첩
세로 29㎝, 가로 18㎝
종이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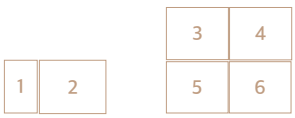
지정일 : 2010.10.25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수원박물관

<박태유 필적 백석유묵첩>은 조선중기의 문신이자 명필인 박태유朴泰維(1648~1696)가 당시唐詩 여러 수를 쓴 글씨와 회소懷素 「자서첩自叙帖」의 일부를 임서臨書(곁에 놓고 보면서 쓰는 것, 그리고 그렇게 쓴 글씨)한 글씨를 모아놓은 서첩이다. 필사한 연유나 시기 및 글씨를 받은 사람의 이름 등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전형적인 법서法書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누군가의 글씨 학습을 위한 법서 제작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박태유의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사안士安, 호는 백석白石으로, 박세당朴世堂(1629~1703)의 큰아들이다. 1666년 진사시 합격, 1681년 태릉참봉이 되었고, 같은 해 알성문과 을과로 급제, 병조좌랑 등을 거쳐 경기도사를 지냈다. 부실한 보고를 한 수령을 대거 파면시키고, 지평持平에 임명되었을 때 자신을 탄핵한 김익훈金益勳을 동료 지평과 함께 탄핵하는 등 사무처리와 대응이 강직했다. 이러한 탄핵이 임금에게 거슬려 거제현령으로 좌천되나 바로 복직되었다. 이후에도 직언을 하다가 고산도찰방高山道察訪으로 좌천되었는데 낮은 직위임에도 거리낌없이 남병사南兵使 이하를 모두 탄핵하였고, 이에 상관을 지나치게 규탄한다 하여 평안도찰방으로 이직시키려 했으나 본래 건강하지 못한데다가 고산의 기후 때문에 풍토병이 악화되어 1695년 사직한 뒤 얼마 안되어 사망하였다.

『백석유묵첩』은 44면의 절첩折帖으로 표장表裝되어 있다. 내용은 9수의 당시唐詩와 2개의 단구短句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서楷書·행초行草·초서草書·예서隸書·행서行書 등 다양한 서체로 제작되었다.

이 서첩에 쓰여 있는 해서는 소해小楷·중해中楷·대자서大字書로 다양하다. 대자해서로는 우무릉于武陵의 오언절구 「환주歡酒」, 중자해서로는 당나라 가지賈至의 「조조대명궁정양성료우早朝大明宮呈兩省寮友」, 소자해서로는 왕유王維의 칠언율시 3수 「칙차기왕구성궁피서勅借岐王九成宮避暑」, 「춘일여배적신창리방여일인불우春日與裴迪過新昌里訪呂逸人不遇」, 「적우망천장작積雨輞川莊作」과 최호崔顥의 칠언율시 「행경화음行經華陰」을 썼다. 특히 중자해서로 당나라 가지의 칠언율시 「조대명궁정량성료우朝大明宮呈兩省寮友」



1. 박태유 필적 백석유묵첩 표지, 2013_ 수원박물관
2. 박태유의 호인 '백석' (해서), 2013_ 수원박물관
3. 우무릉의 오언절구 「환주」 중 일부 (해서), 2013_ 수원박물관
4. 이백의 칠언절구 「아미산월가」 중 일부 (행초), 2013_ 수원박물관
5. '서유육의'(예서), 2013_ 수원박물관
6. 회소의 「자서첩」 중 '사지격절' (초서), 2013_ 수원박물관





를 쓴 글씨는 당나라의 안진경顔眞卿 서풍을 수용한 것이 잘 드러나며, 왕유의 칠언율시를 쓴 소자해서는 전세대의 명필인 한호韓濩 서풍을 바탕으로 안진경의 해서풍이 약간 가미되어 있다.

중자행초로는 이백李白의 칠언절구 「아미산월가蛾眉山月歌」, 「망천문산望天門山」, 소자행서로는 왕유의 칠언율시 「작주여배적酌酒與裴迪」을 썼다. 대자초서는 광초狂草의 대가 당나라 회소懷素의 「자서첩自叙帖」구절인 '사지격절辭旨激切 이식현오理識玄奧', 대자예서로는 '서유육의書有六義' 4자를 썼다.

행초를 섞어 쓴 이백의 칠언절구 「아미산월가」와 「망천문산」은 아버지 박세당의 서풍을 따랐으며, 한 면에 두 글자씩 큰 초서로 쓴 '사지격절辭旨激切 이식현오理識玄奧'는 국내의 서예가가 회소의 글씨를 임서臨書한 것으로 남아있는 보기 드문 예이다. 이밖에 예서로 쓴 '서유육의書有六義'는 한자의 기본 서체인 육서六書를 가리키는데, 아직 한예漢隸의 정형이 구사되지 않고 해서의 필획이 남아있어 김수증金壽增을 비롯한 17세기 중반 예서의 일반적 경향을 보인다.

박태유와 동생 박태보朴泰輔(1654~1689) 형제는 17세기에 당나라 안진경 서풍을 선구적으로 수용한 명필로 알려져 있다. 박태보가 『정재집定齋集』에 기록한 형 박태유의 가장家狀(조상이나 한 집안 어른의 평생 동안 행적을 기록한 글)에 따르면 박태유의 글씨를 "뼈대와 살집이 서로 조화로우며 매끄러운 숫돌에 광채가 나는듯하여 글씨가 크면 클수록 더욱 건장하고 작을수록 더욱 생기발랄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당시의 자체字體가 크게 변하고 연경燕京의 서점에 있는 안진경의 서첩 값이 올라갔다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당시 박태유는 기존에 큰 영향을 미쳤던 한호 서풍에서 벗어나 본인 스스로 안진경 서풍을 선구적으로 수용하고 있었으며, 안진경체의 본격적인 수용을 촉진시키는 역할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백석유묵첩』은 박태유의 다양한 서체가 실려 있고 글씨의 크기도 다양하여 박태유 서예의 면모를 한 눈에 살펴보기에 적합한 자료이다. 아울러 회소의 「자서첩」 일부를 임서한 글씨도 있어 서예사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이다.



보물 제1680호

강세황 행초 표암유채

姜世晃 行草 豹菴遺彩

조선시대(1790년)
1점
세로 54.7㎝, 가로 31.5㎝
종이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2010.10.25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강세황 행초 표암유채>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 문인서화가이자 평론가인 표암 강세황豹菴姜世晃(1713~1791)이 역대 명인의 시구詩句 가운데 일부 구절을 뽑아 쓴 행초行草 서첩이다.

강세황의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광지光之, 호는 첨재儉齋·산향재山響齋·박암樸菴·의산자宜山子·노죽露竹·표암豹菴 등 이다. 할아버지는 강백년姜栢年, 아버지는 강현姜鋧으로, 조부 강백년과 부친 강현에 이어 강세황 역시 71세 때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감으로써 삼세기영지가三世耆英之家로 칭송받았다. 영조의 배려로 61세에 처음 벼슬길에 올라 64세 때 기구과耆耉科, 66세 때 문신정시에 수석 합격하였다. 관직은 영릉참봉英陵參奉·사포서별제·병조참의·한성부판윤 등을 지냈다. 72세 때 북경사행을 하고, 76세 때 금강산을 유람하여 기행문과 실경사생을 남겼다. 시서화 삼절로 높은 안목을 갖춘 사대부화가로 그림과 화평畵評을 통해 당시 화단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특히 남종문인화 정착에 크게 기여했고, 진경산수화의 발전, 풍속화의 유행, 새로운 서양화법의 수용에도 업적을 남겼다.

강세황은 자신의 글씨를 '이왕미조二王米趙'라 하여 왕희지王羲之를 바탕을 미불米芾과 조맹부趙孟頫를 더했다고 평하였다. 중년 이후 미불을 중심으로 특유의 행서풍을 노년에까지 구사했다. 『표암유채』는 강세황이 78세 되던 1790년(정조14) 겨울에 쓴 것으로, 그는 그 해 겨울을 채 못 넘기고 이듬해 정월에 세상을 떠났으니, 이 『표암유채』는 죽음을 불과 며칠 앞두고 쓴 글씨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황의 필적에서는 중년 이후 형성된 강세황의 특징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필력의 하향세를 전혀 느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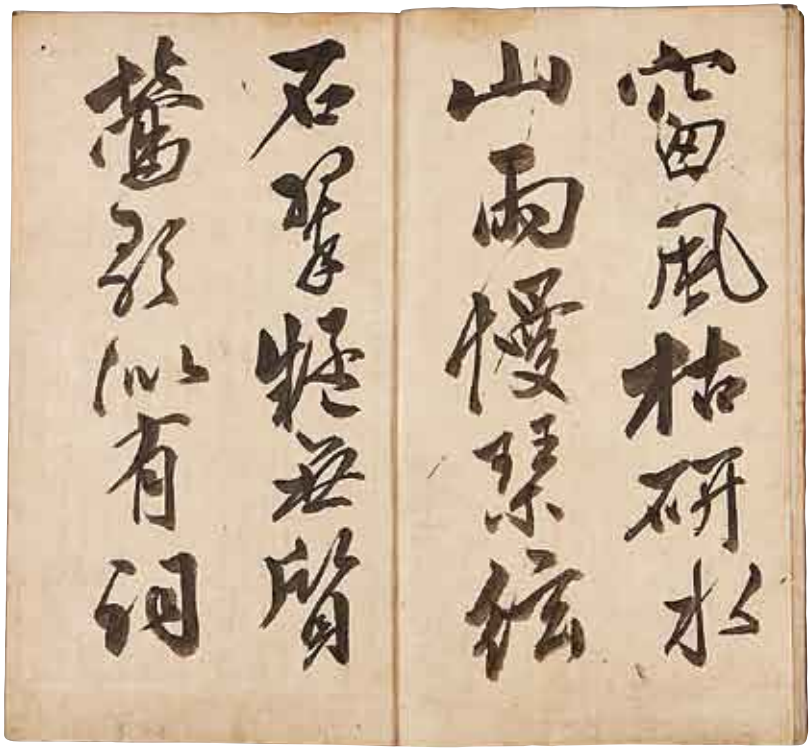
1

2 3

4

1. 강세황 행초 표암유채 표지, 2010_ 경기도박물관
2. 양거원의 「춘일봉헌황수무강사」 중 일부, 2010_ 경기도박물관
3. 도잠의 「무궁화」 중 일부, 2010_ 경기도박물관
4. 강세황의 발문 일부, 2010_ 경기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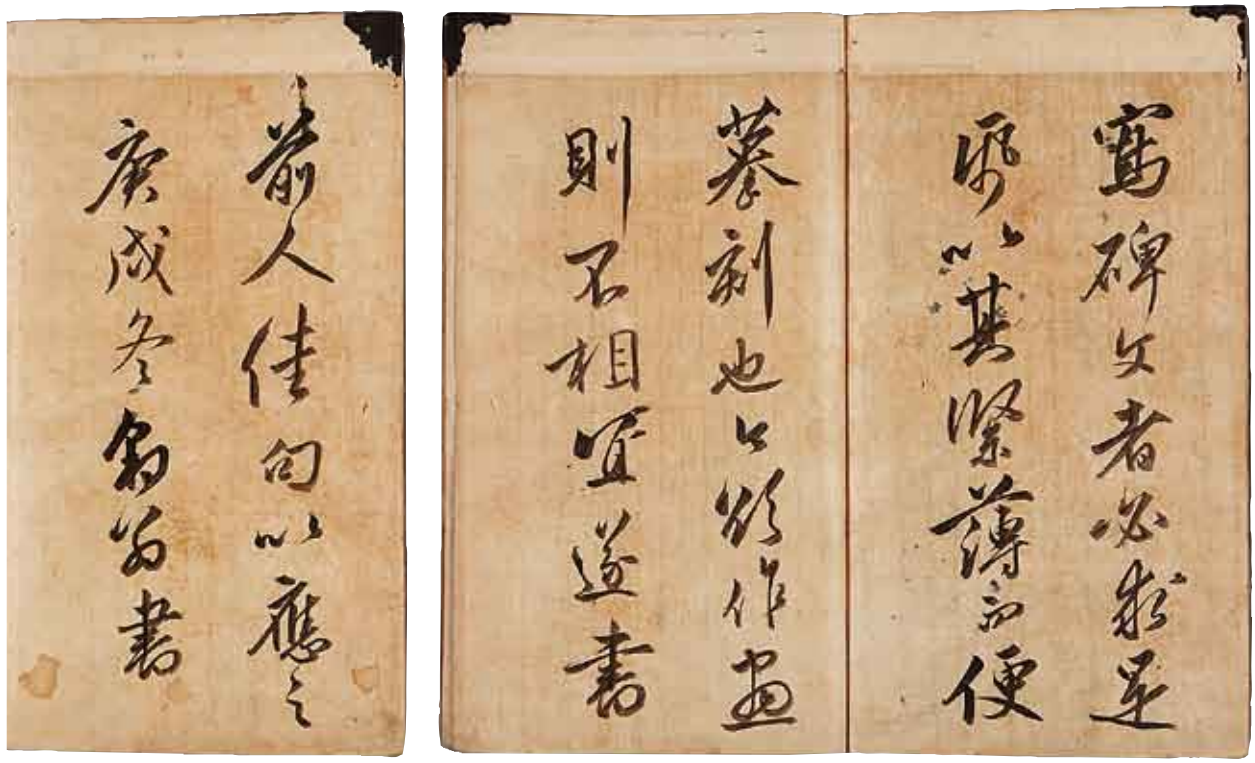




선장線裝으로 장정되어 있는 표지에는 후대에 쓴 것으로 보이는 '표암유채豹菴遺彩'라는 글씨가 행서로 씌어있다. 총 13장 26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씨는 대부분 행서를 위주로 초서를 간간이 섞어 썼다. 내용은 당나라 양거원楊巨源의 「춘일봉헌황수무강사春日奉獻皇壽無疆詞(봄날 황제의 만수무강을 위해 삼가 올리다)」 중 일부를 포함한 오언시五言詩 6수, 당나라 도잠陶潛이 자신이 늙은 나이에도 이룬 게 없음을 근심하면서 지은 사언시四言詩 「무궁화槿木」 중 일부, 당송唐宋 칠언시七言詩 6수, 마지막으로 강세황 자신의 발문이 있다. 말미에 강세황의 자발自跋에는 '此紙名竹淸紙 出於我東之南邑 凡寫碑文者 必求是紙 而其緊薄而便於摹刻也. 今欲作畵則不相宜 遂書前人佳句而應之 庚戌冬豹翁書(이 종이의 이름은 죽청지竹淸紙로, 우리나라 남쪽 고을에서 생산된다. 비문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이 종이를 구하는데, 촘촘하고 얇아서 모각摹刻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지금 그림을 그리려 해보니 잘 맞지 않아 마침내 전인前人의 아름다운 구절을 써서 이에 응한다. 경술년(1790) 겨울 표옹豹翁이 쓰다)'라고 적혀있다. 이처럼 서첩의 내용 가운데 특정 종이를 재료로 썼음을 언급한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강세황의 말대로 죽청지는 약간 누런 색상에 표면이 매끈하여 그림 그리기에 부적절하지만 두께가 얇고 바닥이 비쳐 비문 글자를 본뜨기에 좋은 종이로서 예로부터 비문을 쓰기에 적합한 종이로 문헌에 자주 언급되어 왔다.

오늘날 강세황의 필적으로 서첩·간찰·병풍 등이 다양하게 전하지만, 『표암유채』처럼 연대와 내력이 분명한 예는 드물다. 또한 강세황의 유묵 중 가장 말년작에 속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보물 제1708호

반야심경소현정기(언해)

般若心經疏顯正記(諺解)

조선시대(1495년)
1책
세로 25.5㎝, 가로 19㎝
종이(닥종이)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550번길 346-11

지정일 : 2011.02.25
소유자 : 송암사(사유)
관리자 : 송암사



<반야심경소현정기(언해)>는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국역본 불교경전 주석서의 후인본後印本이다.

당나라 삼장법사현장三藏法師玄奘(602~664)이 648년 번역한 『반야바라밀다심경』을 바탕으로, 702년 당나라 법장法藏이 주석을 단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般若心經略疏』에 송나라 중희仲希가 찬술한 『현정기顯正記』를 저본으로, 1044년에 다시 편찬한 것이 『반야심경소현정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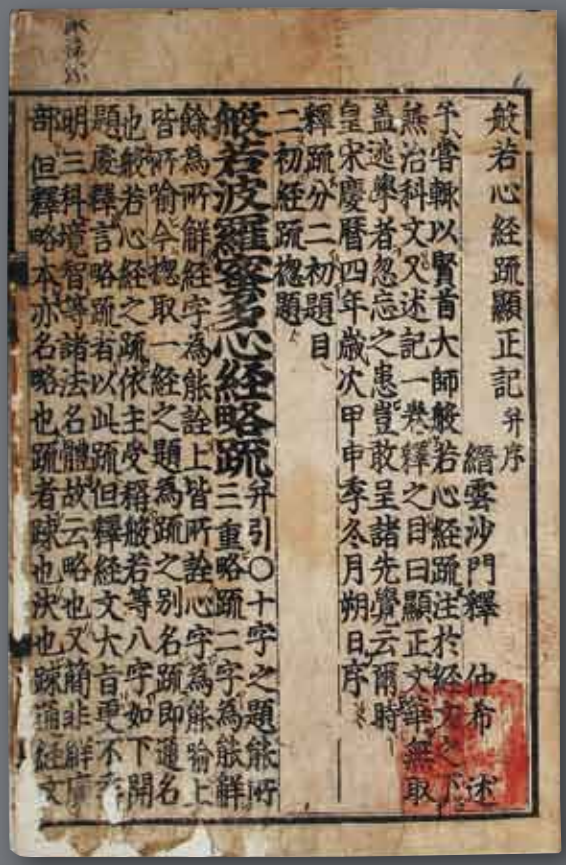
이 책은 세조의 왕명에 따라 효령대군孝寧大君과 한계희韓繼禧(1423~1482) 등이 국역하여 1464년(세조10)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목판으로 판각한 초인본을 1495년(연산군1)에 후인한 불경이다.

이 책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판식版式은 사주쌍변四周雙邊에 계선界線이 있고, 반엽을 기준으로 8행에 한 행의 글자 수는 19자이다. 중앙의 판심부에는 상하에 대흑구大黑口가 보이며, 그 사이로 상하흑어미上下黑魚尾가 서로 내향하고 있다. 상어미 아래에는 '심경心經'이란 판심제가 보이며, 그 아래에는 장수가 표시되어 있다.

권두제에는 '般若心經疏顯正記幷序(반야심경소현정기병서)'라는 서제序題가 기재되어 있고, 다음 행에 '縉雲沙門釋 仲希 述(진운사문석 중희 술)'이란 저자 표시가 있다. 그리고 5행에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라는 서명이 보이고 있으며, 이하 약소의 내용이 장14까지 수록되어 있다. 장15부터는 반야심경의 내용이 주석과 함께 수록되어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 본문자체 중 한글은 정방형 고딕체로 작은 글씨로 쓰여 있으며, 한문은 원필圓筆의 안진경체의 필의가 보이는 대자로 쓰여 있다. 판서자板書者는 1467년에 개판된 『수심결』에 안혜安惠·유환柳晥·박경朴耕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는데, 자체가 유사하여 이들에 의해 정서淨書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책에는 1464년 간행된 『반야심경소현정기』 초인본에 수록되어 있는 황수신黃守身(1407~1467)의 진전문進箋文 '진금강경심경전進金剛經心經箋'과 한계희의 발문은 생략되어 있는 대신 후인할 당시 학조學祖가 지은 발문을 을해자乙亥字로 인출하여 권말에 수록하였다. 학조의 발문에 '弘治八年(1495)秋八月下澣黃岳山人學祖敬跋'이라는 간행기록이 남아 있어 1495년 8월에 후인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뒤표지 내면의 묵서를 통해 '청파靑坡스님이 화암사에서 우신于信'에게 전해준 이력이 있고, 근래의 이력으로는 1972년 여름에 '오제봉이 최범술'에게 기증하였다는 내용이 권말에 기록되어 있다.

송암사 소장 『반야심경소현정기(언해)』는 후인본이지만 글자의 인쇄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다. 비록 간경도감에서 처음 인출할 당시 수록되어 있던 '진금강경심경전'과 '한계희의 발문'은 없으나, 1495년 후인 당시 학조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어 초인본과 31년이 지나 후인본을 간행할 때의 행태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般若心經疏顯正記 幷序

繕雲沙門釋 仲希 述

予嘗輒以賢首大師般若心經疏注於經文之下無治科文又述記一卷釋之目曰顯正文義無取益迷學者忽忘之患豈敢呈諸先覺云爾時皇宋慶曆四年歲次甲申孟冬月朔日序

釋疏分二初題目二初經疏總題

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 幷引〇十字之題能所三重略疏二字為能詮餘為所詮經字為能詮上皆所詮心字為能詮上皆所喻今總取一經之題為疏之別名疏即通名也般若心經之疏依主受稱般若等八字如下開題慶釋言略疏者以此疏但釋經文大旨更不委明三科境智等諸法名體故云略也又簡非解廣部但釋略本亦名略也疏者踈也決也踈通經文



卷後壬子夏坐節菴中吳濟峰賢弟示贈 多幸與予人晚生記

己亥仲夏青坡老衲花岩寺傳千信次題

1. 반야심경소현정기 표지, 2011_ 문화재청
2. 반야심경소현정기 권수, 2011_ 문화재청
3. 반야심경소현정기 권말, 2011_ 문화재청

보물 제1709호

수원 방화수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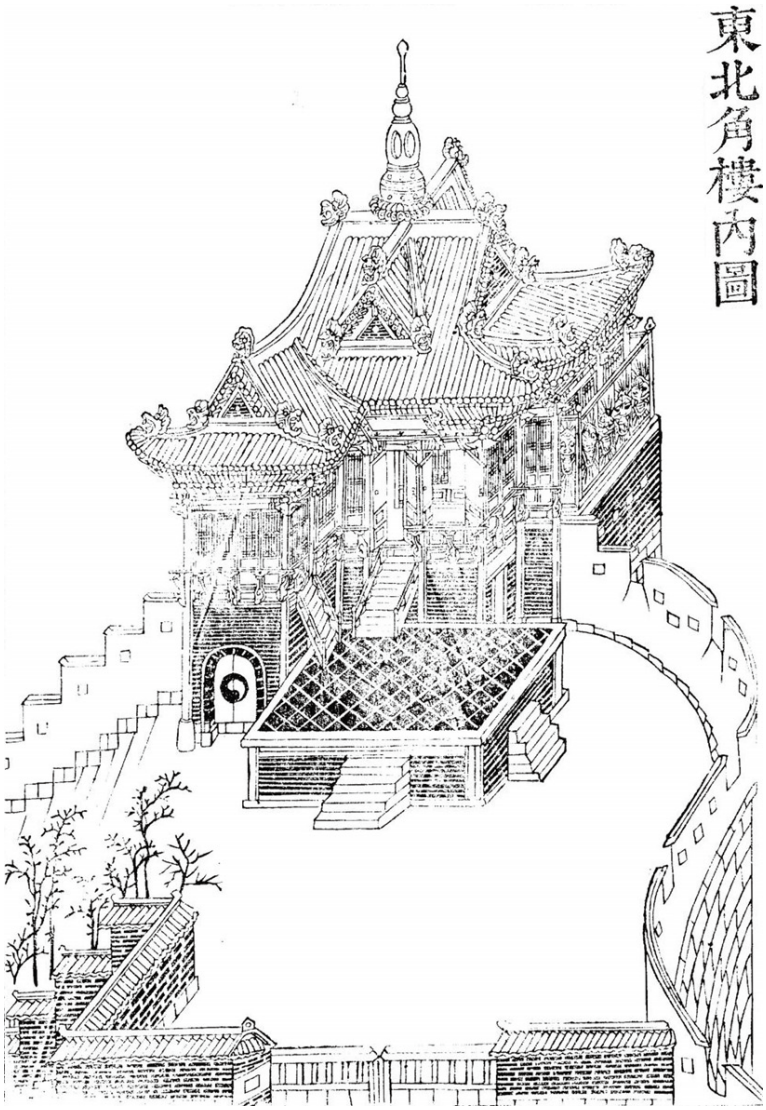
水原 訪花隨柳亭

조선시대(1794년)
1동
정면 3칸, 측면 2칸, 중층 누각건물
목재, 전, 석재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392번길 44-6

지정일 : 2011.03.03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수원시

<수원 방화수류정>은 수원 화성 내에 군사지휘를 위해 1794년(정조 18)에 건립한 각루角樓 시설이다. 수원 화성에는 동북각루, 서북각루, 서남각루(화양루), 동남각루 등 네 곳의 각루가 있는데 방화수류정은 이 중 동북각루의 이름이다. 각루의 이름은 중국 송나라의 시인인 정호程顥의 시 「춘일우성春日偶成」 중 '방화수류과전천訪花隨柳過前川'에서 따왔다고 한다.

화성 성곽의 동북쪽 모퉁이에 솟아있는 바위 위에 자리한 방화수류정은 원래 화성의 동북쪽 군사지휘부인 동북각루로 만들었다. 그러나 성곽 아래에 있는 용연 등 경관이 좋은 위치에 자리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군사시설로만 활용하지 않고 경치를 조망하는 정자의 역할도 겸하였다. 건물은 2층 구조이며, 평면은 불규칙한 지형과 바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品'자형으로 지었다.



1

2

1. 화성성역의궤 동북각루내도, 200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수원 방화수류정, 2009_ 수원시

상층은 사방이 트인 누각으로 동서 세 칸 중 가운데에 온돌방을 두고 북쪽에 한 칸, 남쪽에 반 칸의 마루를 물리었다. 또 서쪽의 한 칸은 길게 2칸으로 늘렸다. 특히 용연 방향으로는 작은 쪽마루 툇간을 달아내어 평난간을 둘렀다. 하층 벽체는 아래에 돌을 쌓고 그 위는 전돌로 쌓았으며, 성 바깥쪽으로 총안을 뚫었다.

이 건물은 평면의 형태가 복잡한 만큼 지붕도 단순하지 않다. 팔작지붕을 'ㄱ'자로 꺾어서 짜고 다시 툇칸이 생기는 부분마다 작은 지붕을 덧붙여 놓아서 용두龍頭 위에 우뚝 솟은 건물의 모습은 동서남북 위치에 따라 각기 달리 보인다. 지붕의 한복판 위에는 절병통節甁桶을 세웠으며, 용마루와 내림마루에는 용두를 설치하였다. 이 건물은 형태가 불규칙하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주변 경관과 어울림이 뛰어난 건물로, 조선시대 정자 건물의 높은 수준을 잘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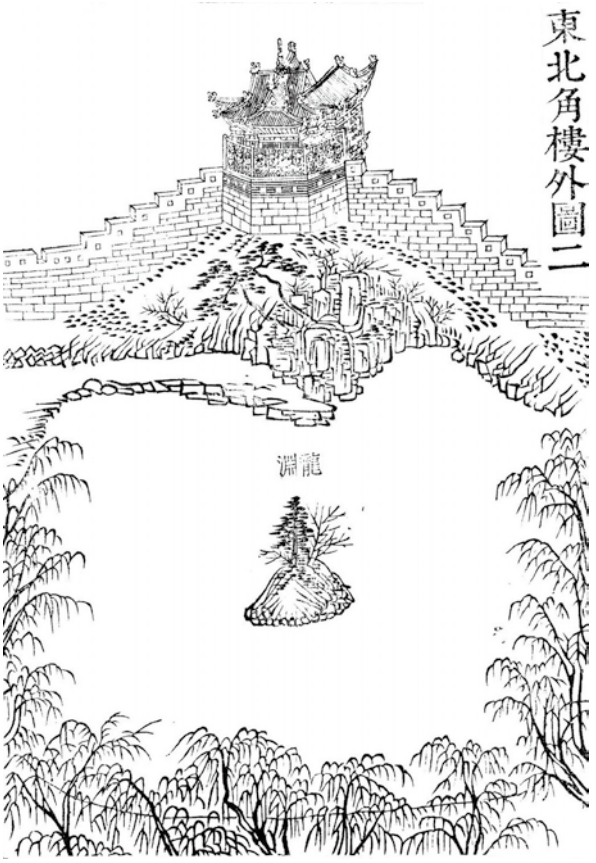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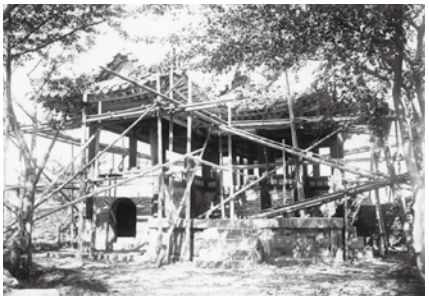


1. 수원 방화수류정 전경, 2018_ 경기도지적연구회
2. 화성성역의궤 동북각루 외도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수원 방화수류정 수리공사, 일제강점기_ 국립중앙박물관
4. 수원 방화수류정, 일제강점기_ 국립중앙박물관
5. 화홍문과 방화수류정, 일제강점기_ 국립중앙박물관

방화수류정은 화성의 축성 전반부 시점인 1794년(정조18) 9월 4일 터다지기 공사를 착수하여 10월 4일 주춧돌을 놓아 기둥을 세웠고, 7일 상량上樑, 10월 19일에 완공하였다.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연설筵說에는 1795년 2월 14일에 화홍문을 경유하여 방화수류정에 임금과 신하가 거동한 기록이 있고, 1797년 1월 29에 이곳에서 임금과 신하가 활쏘기를 하고 화성성역의 노고를 치하한 기록이 있다. 방화수류정은 1848년(헌종14)에 팔달문, 장안문과 함께 중수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도 여러 차례 수리되었다. 『화성성역의궤』 「동북각루내도東北角樓內圖」와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사진에는 방화수류정에 오르는 계단이 2개소가 있었으나 현재 1개소만이 남아있다.

방화수류정은 정조와 관련된 많은 역사적 사실을 간직하고 있는 각루로서 군사적 목적은 물론 정자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조영함으로써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지형과 지세를 고려한 독특한 평면 및 건물의 형태와 구조는 18세기 정자 건축의 뛰어난 기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보물 제1710호

수원 서북공심돈

水原 西北空心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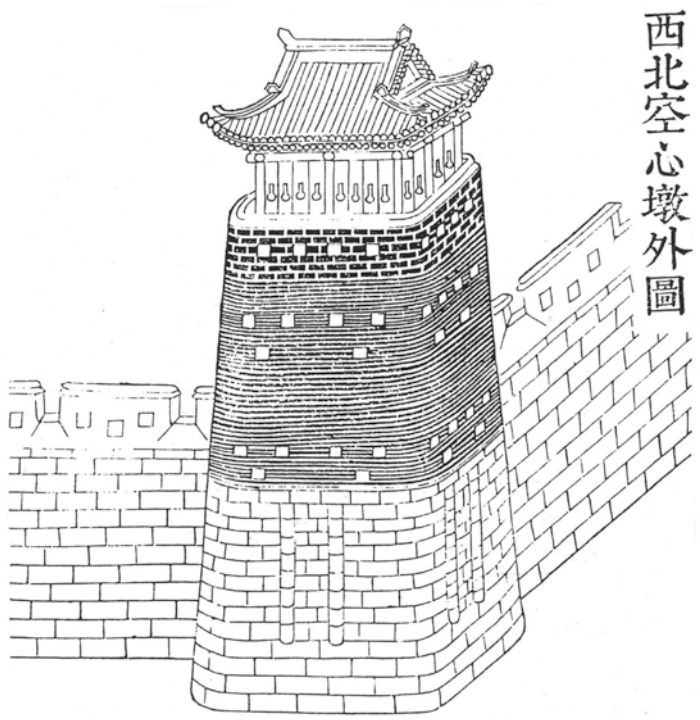
조선시대(1796년)
1동
포루 - 정면 2칸, 측면 2칸, 중층건물(3층 - 1, 2층 : 전돌성벽, 3층 : 포루)
목재, 전, 석재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332

지정일 : 2011.03.03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수원시

<수원 서북공심돈>은 수원 화성 내에 방어와 감시를 위해 1796년에 건립한 망루 시설이다.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도설에 따르면 서북공심돈은 치雉에 돈墩을 설치하여 만든 것인데 이는 중국의 『성서城書』 제도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화성이 벽돌을 주재료로 사용하면서 중국과 일본 성곽의 장점을 살려 축성하였으며 이전 한국성곽에는 없던 시설 중에 하나가 바로 공심돈과 같은 시설이다.

기존의 성곽 시설 중 하나인 치는 적에게 공격하는 모습이 노출되고, 아군을 보호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벽의 일부를 돌출시켜 치雉를 만들고 그 위에 전돌로 3층의 돈을 쌓은 뒤 망루 꼭대기에 포사舖舍를 지어 군사들이 오르내리면서 입체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원 화성에는 서북공심돈, 남공심돈, 동북공심돈 등 세 곳의 공심돈空心墩이 있는데 서북공심돈은 화서문의 북치北雉 위에 세워져 있다.

공심돈의 하부 치성雉城은 방형의 석재로 쌓았는데 아래는 장방형 석재를 세로로 세워쌓고, 위쪽은 가로로 눕혀서 쌓았으며 모서리는 비교적 큰 석재를 사용하여 둥글게 원호로 쌓았다. 성벽 높이까지 흙으로 바닥을 채웠으며 그 위에는 전돌로 가운데를 비운 방형 통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어 내부에 3개 층을 구성했다. 내부는 목조 기둥과 보, 도리, 마루귀틀 등으로 가구架構하여 층을 구성하였다. 1층은 바닥이 강회다짐이고, 2층과 3층은 마루를 깔았다. 각 층마다 목제 사다리를 놓아 오르내리게 하였다. 3층 망루의 포사舖舍는 정면 2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다. 벽면 위쪽 판문板門에는 전안箭眼이 뚫려 있으며 돈대의 외벽에도 총안과 포혈砲穴을 뚫어 군사들이 밖을 내다보면서 화살과 화포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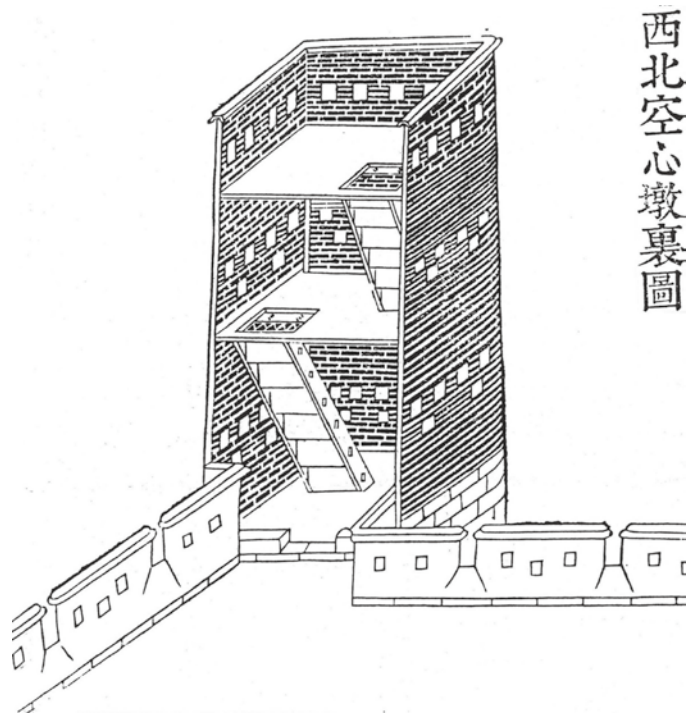
1. 화성성역의궤 서북공심돈외도, 200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수원 서북공심돈, 2018_ 경기도지적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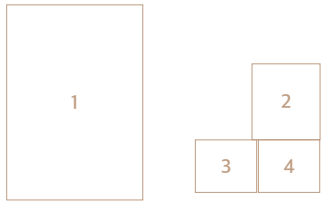




서북공심돈은 화성의 막바지 공사가 이루어지던 시점인 1796년(정조20) 3월 10일에 완공되었다. 이후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오다가 1846년 6월 9일 전국적인 대홍수가 발생하여 다른 시설들과 함께 수리되었고 1925년에 을축년 대홍수가 발생한 이후에는 1933년에서 1935년에 걸쳐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실시되었다. 1975년에는 화성정비공사 2단계의 일환으로 단청칠, 기와고르기, 토수교체, 당판문 교체 등이 이루어졌고 1993년에는 기와고르기와 양성바르기 및 출입문 교체작업이 있었다. 서북공심돈은 초창이후에 여러 차례 보수가 있었으나 큰 변화 없이 원형이 보존되어 오고 있다.

수원 서북공심돈은 석재와 전돌, 목조를 기능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치성의 석재 쌓기 기법과 상부인 공심돈의 전돌의 축조기법, 현안懸眼과 총안, 전안 등의 중요한 시설 등 독창적인 건축형태와 조형미를 갖고 있다. 서북공심돈처럼 돈의 내부가 비어 있는 형식은 우리나라 성곽 축조에 처음 채용된 것으로 현존하는 성곽 중 수원화성에서만 볼 수 있다. 또한 서북공심돈은 성곽과 전축甎築, 누각 모두 200여년 전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건축적 가치가 큰 건축물로 손꼽힌다.





1. 서북공심돈,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화성성역의궤 서북공심돈 이도, 200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화서문과 서북공심돈, 일제강점기_ 국립중앙박물관
4. 서북공심돈, 일제강점기_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1724호

박사익 초상

朴師益 肖像

조선시대(1726년)
1점
세로 220㎝, 가로 105㎝
비단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2011.11.01
소유자 : 박만춘(사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익 초상>은 조선 후기 문신 박사익朴師益(1675~1736)을 그린 초상화이다. 박사익의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겸지兼之, 호는 노주鷺洲, 시호는 장익章翼으로 박동량朴東亮의 후손이며 참봉 박필하朴弼賀의 아들이다. 1710년(숙종36) 생원이 되고, 1712년(숙종 38)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관史官으로 발탁되어 벼슬길에 올랐고 경종과 영조 대에 걸쳐 외직과 내직을 두루 거쳤다. 1727년(영조3) 병조판서가 되고 이어 금원군錦原君에 봉해졌으며, 이후 대사헌, 형조, 예조판서를 거쳐 좌참찬이 되었다. 글씨에도 뛰어나 「우의정민진원비」, 「예조참판안적비」 등이 전한다.

박사익 초상은 오사모에 녹색 단령을 입고 의자에 공수拱手자세로 앉아 얼굴을 살짝 돌려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사모의 높이는 제법 높아 영조 연간 초기의 모제를 반영하고 있다. 가슴에는 쌍학문양雙鶴紋樣의 흉배를 착용하고 있고, 허리춤에는 학정금대鶴頂金帶를 두르고 있어 그의 품계가 정3품 이상이었을 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자에는 모피가 깔려 있으며, 족좌대足座臺 위에 '八'자형으로 벌린 양발 사이로는 표범의 얼굴이, 그리고 족좌대 바깥쪽으로는 표범의 양 발이 자연스럽게 놓여 있다.

안면은 전체적으로 밝은 살구색을 사용하였고, 보다 짙은 색으로 외곽선과 굴곡진 이목구비를 표현하여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눈썹은 옅은 먹선으로 중간에서 끊겼다가 다시 시작하는 등 정성스레 묘사하였으며, 양 눈머리에는 붉은 색을 살짝 삽입하였다. 위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은 검은 선으로 묘사하고, 속눈썹은 위에만 그려 넣었다. 수염은 밑에 니금색을 칠하고 한 올씩 그려 넣었는데, 숱은 적지만 단아한 느낌이다. 미간 사이의 세로 주름 선과 귀밑 점 등 박사익의 개성적 특징을 잘 포착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약간 경직되고 근엄한 표정을 통해 그의 성정이 잘 드러나 있다. 옷주름은 주로 선묘로 처리하고 선을 따라 짙은 색을 칠해 음영을 주었다. 관복은 당시의 복식제도가 반영된 넓은 소매통때문에 공수한 부분 아래쪽으로 주름진 부위가 늘어져 있어 약간 기울어진 느낌이 있으며 이는 18세기초 관복본 초상화에 나타나는 한 특징이기도 하다.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금원옹52세상錦原翁五十二歲像'이라고 적힌 글로 미루어 이 작품은 박사익이 52세가 되던 해, 즉 병조판서에 제수되고 금원군에 봉해졌던 1727년(영조3)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사익 초상은 표범가죽이 깔린 의자, 얼굴 표현에서 보이는 운염법暈染法 등 이전과는 다른 18세기 이후 변화된 조선후기 초상화 양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박사익 초상은 반남박씨 종손가에서 보존해오다가 현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위탁 보관되고 있다.



1



2

1. 박사익 초상 안면부, 2013_ 한국학중앙연구원
2. 박사익 초상, 2013_ 한국학중앙연구원


錦原留五十二歲像

보물 제1728호

허전 초상

許傳 肖像

조선시대
1폭
세로 136㎝, 가로 71.5㎝
비단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2011.12.23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1 2

1. 허전 초상 안면부, 2014_ 경기도박물관
2. 허전 초상, 2014_ 경기도박물관



<허전 초상>은 조선 말기 문신 허전許傳(1797~1886)을 그린 초상화이다. 허전의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이로而老, 호는 성재性齋이다. 허병許秉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허윤許玧, 아버지는 허형許珩, 어머니는 이중필李重泌의 딸이다. 1835년(헌종1)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840년 기린도찰방麒麟道察訪, 1844년 전적典籍·지평持平을 거쳐 1847년 함평현감이 되었다. 1850년(철종1) 교리·경연시독관經筵侍讀官·춘추관기사관 등을 역임하면서 경연에 참가해 국왕에게 유교경전을 해설하였다. 1855년 당상관에 오르면서 우부승지와 병조참의에 이르렀다. 1862년 진주 민란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민란이 들끓자, 그 해소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1864년(고종1) 김해부사로 부임해 향음주례鄕飮酒禮를 행하고 향약을 강론하는 한편, 선비들을 모아 학문을 가르쳤다. 그 뒤 가선대부嘉善大夫를 거쳐, 1876년 정헌대부正憲大夫, 1886년(고종23) 90세로 숭록대부崇祿大夫에 올라 돈녕부판사가 되었다.

허전은 이익李瀷(1681~1763), 안정복安鼎福(1712~1791), 황덕길黃德吉로 이어지는 기호畿湖의 남인학자로서 실심實心·실정實政을 강조하였으며, 영남 퇴계학파를 계승한 유치명柳致明(1777~1861)과 더불어 학문적으로 쌍벽을 이루었다. 저서로는 『성재문집性齋文集』과 선비의 생활의식을 집대성한 『사의士義』, 이상적 군주상을 그린 『종요록宗堯錄』, 『철명편哲命編』 등이 있다.

허전 초상은 흑관黑冠에 심의深衣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렸다. 앞에는 책상이 놓여 있고, 그 위에는 포갑包匣된 『주자대전朱子大全』과 그 중 한 권은 빼내어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조선시대 초·중기 초상화에서 일반적으로 어탁이나 집기 등의 표현은 18세기 중반이후에 나타나며 윤동섬 초상, 임매 초상, 이하응 초상 등에서 보인다.

허전 초상의 중요한 구성요소는 모두 선묘로 되어 있으며, 화가가 허전이란 인물을 마주하고 얼마나 세밀한 관찰을 하였는가가 잘 드러나 있다. 안면의 피부의 결은 입체감이 드러나도록 잔붓질을 하여 높고 낮은 형세를 원숙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눈은 속쌍꺼풀에 위 눈꺼풀이 늘어진 모습까지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동공 역시 검은 색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홍채부분은 살구색이 감도는 회색을 칠하여 나이가 들면서 탁해진 노인 특유의 흰 자위를 보여준다. 눈꼬리는 매섭게 치켜 올라가 있어 노학자의 꼿꼿한 성품을 잘 나타내고 있다. 옷주름은 윤곽선을 선으로 묘사한 후 그 위에 짙은 회색 선으로 덧그려서 선을 따라 음영처리하였다. 문중의 전언에 의하면 이 작품은 어명으로 생전에 그려졌다고 하므로 1886년 이전에 제작된 것이며, 조선후기 유복본儒服本 초상화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허전 초상은 본가에 보존되어 있었는데 1891년(고종28) 허전의 재실인 이택당麗澤堂(여택당), 1916년 물산영당勿山影堂(허전 영정을 모시기 위해 세운 곳)으로 이안하였다가, 2008년 경기도박물관에서 기증받아 소장·관리되고 있다.



보물 제1741호

구리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

九里 東九陵 健元陵 丁字閣

조선시대(1408년)
1동
정전 - 정면 3칸, 측면 2칸
배위청 - 정면 1칸, 측면 2칸
목재, 석재
구리시 인창동 66-10

지정일 : 2011.12.26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

<구리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은 동구릉 내 건원릉 아래에 건립된 조선 초기 '丁'자형 제향공간이며, 건원릉은 태조의 능으로서 경기도 구리에 있는 동구릉 경내에 위치하고 있다.

건원릉은 고려의 왕릉인 현릉玄陵(공민왕릉)의 제도를 표본으로 1408년(태종8)에 조성되었다. 정자각은 고려시대부터 건립되어 조선 건국 초기부터 왕릉에 조성하였으며 능제陵制에 따라 능침 남쪽에 낮게 자리하고 있다.

건원릉 정자각은 1408년(태종8) 태조의 능침陵寢인 건원릉을 조성하면서 함께 건립되었다. 이후 1586년(선조19)에 중수했다고 전하며, 1592년(선조25) 임진왜란 때에는 왜군이 방화하려 했으나 불이 붙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숙종실록에는 숙종이 건원릉을 수리하려 했지만 왜란의 신기한 사연을 듣고 손대지 않았다고 전한다. 그러나 건물이 크게 퇴락하자 1764년(영조40) 중수도감重修都監을 설치하여 건물을 수리하였고, 1784년(정조8)에 소규모 수리가 있었다. 1879년(고종16)에는 건원릉 외에 목릉, 휘릉, 숭릉, 혜릉, 원릉, 수릉, 경릉의 정자각을 고치면서 수리하였는데 『일성록日省錄』에 의하면 이때 주로 비각과 정자각의 계단석이 기울어져서 수리하였다고 한다. 그 후 1988년과 2006년에 기단석 해체보수 및 연목이상 해체 후 부식재 교체, 번와보수, 단청공사 등이 이루어졌다.



1. 구리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 일제장점기_ 국립중앙박물관
2. 구리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3. 구리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과 비각,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정자각은 홍살문 북쪽 능의 남쪽에 있다. 장대석을 4단 이상 쌓은 기단 위에 정면 3칸 측면 2칸인 정전正殿과 정면 1칸 측면 2칸인 배위청拜位廳이 평면 '丁'자형으로 건립되었다. 배위청 동측의 향로香路 계단석 우석은 테두리만 조금 남고 마모가 심하여 문양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본래는 다른 정자각과 마찬가지로 구름무늬가 새겨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전은 전면 3칸에 모두 사분합 세살문을 설치하고, 후면 가운데는 능을 향해 열 수 있도록 문을 두고 있다. 정전은 기능상 내부를 통칸으로 구성하고, 배위청은 창호없이 외부와 개방된 구조이다.

공포는 정전이 1출목 2익공이고 배위청은 출목없이 2익공으로 꾸며서 정전과 차이를 두었다. 공포의 세부적인 수법은 18세기의 양식을 따르고 있어 1764년 중수 때의 시대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붕은 겹처마 맞배지붕이며 용마루와 내림마루에는 취두와 용두, 잡상을 설치하였다.

건원릉 정자각은 건립 이후 몇 차례의 중수가 있었지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길례吉禮 단묘도설壇廟圖說에는 건원릉 정자각에 대해 '산릉의 침전寢殿(정자각)은 능실陵室 남쪽에 있는데, 북쪽에 자리하여 남쪽을 향하게 하고 모두 3칸으로서, 동쪽과 서쪽에 계단이 있고, 신좌申坐는 북쪽에서 남쪽을 향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건원릉 정자각은 전체적으로 전형적인 조선시대 정자각의 규모나 외관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 공포 등 세부 수법에서는 18세기의 양식을 따르고 있어서 1764년(영조40) 도감을 설치하고 실시한 중수 때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조선 1대 태조의 능인 건원릉의 정자각이라는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조선의 능침제도에서 정자각의 표준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건물이다.





보물 제1742호

구리 동구릉 숭릉 정자각

九里 東九陵 崇陵 丁字閣

조선시대(1674년)
1동
정전 - 정면 5칸, 측면 2칸
배위청 - 정면 1칸, 측면 3칸
목재, 석재
구리시 인창동 66-25

지정일 : 2011.12.26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

1 2

1·2. 구리 동구릉 숭릉 정자각,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구리 동구릉 숭릉 정자각>은 동구릉 내 숭릉 아래에 건립된 조선 후기 '丁'자형 제향공간이다. 숭릉은 조선 18대 임금 현종과 비 명성왕후를 모신 능침으로 동구릉 서쪽 끝에 자리하고 있다.

숭릉은 하나의 곡장 안에 왕과 왕비의 능을 나란히 조성한 쌍릉의 형식이다. 1674년(숙종1)에 현종의 능을 조성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684년(숙종10)에 현종의 비 명성왕후의 능을 왕릉 옆에 나란히 조성하였다. 능 아래에는 정자각과 비각이 자리하고 있다. 능역 남쪽이 저습하여 진입로 등이 쉽게 물난리를 겪는 등 진입부분이 지형적으로 취약하지만 능역은 비교적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의 거리가 비교적 멀고 정자각이 경사지 위에 있어서 멀리서 보기에도 우뚝한 모습이 돋보인다.

숭릉 정자각은 1674년에 현종의 능침인 숭릉을 조성하며 함께 건립되었다. 건립 이후 정자각은 몇 차례 수리가 있었다. 1828년(순조28)에는 정자각 월대를 개축했다는 기록이 순조실록에 보이고, 1879년(고종16)에는 첨계석을 수리하였으며, 1899년(고종36)에 배위청 기둥이 기울어 보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997년에는 해체·보수하였다.

숭릉 정자각은 정전 5칸, 배위청 3칸으로 전체 8칸 규모이며, 조선왕릉 정자각 중 유일하게 팔작지붕을 하고 있다. 정전은 5칸 중 가운데 3칸은 좌우에 전돌로 화방벽을 쌓고 양 끝 한 칸 즉 익각翼閣은 기둥만 세우고 개방하였다.





정자각은 정전 3칸, 배위청 2칸의 5칸 정자각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으나 숭릉 정자각은 규모가 확대된 8칸 건물이다. 『숭릉산릉도감의궤崇陵山陵都監儀軌』 계사, 9월 16일조에는 "총호사가 아뢰기를, '각능 정자각은 모두 정각 3칸, 전면 2칸으로 조성되어 합쳐서 5칸인데 유독 광릉 정자각은 정각 3칸의 밖에 또 좌우 익각이 있고 전면에도 1칸을 추가하여 합쳐서 8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년에 영릉寧陵 정자각에 대해 전교하시기를 광릉의 제도를 모방하여 8칸으로 조성하라고 하시었습니다. 이제 이 정자각은 각릉의 제도를 따를 것인지 영릉의 제도를 따를지 여부를 감히 품하여 아룁니다'하니 왕이 답하여 '한결같이 영릉의 제도를 따르도록 하라'고 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 그러므로 지금의 숭릉 정자각의 모습은 바로 광릉의 제도를 따른 영릉을 본받은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지붕이 팔작지붕인 것도 영릉의 형태를 따른 것으로 보여지나 영릉 정자각이 고종 연간에 일반적인 모습의 5칸 정자각으로 개조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그 유래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숭릉산릉도감의궤』에 기록된 소요자재를 보면 '선자연扇椽 156개', '사래舍羅' 등 팔작지붕과 관련된 부재들이 언급되어 있어 숭릉정자각은 창건 시부터 팔작지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포는 정전은 일출목 이익공, 배위청은 이익공의 구조이다. 정자각은 규모가 8칸으로 확대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건축된 외관을 보여주고 있다.

숭릉정자각은 조선왕릉 정자각 중 유일한 팔작지붕을 한 정자각이며 규모가 8칸이다. 8칸 정자각은 광릉 이후에 기록상으로 선릉, 정릉, 효릉, 강릉, 장릉 등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현존하는 것으로는 숭릉 외에도 익릉, 휘릉, 의릉의 정자각이 있다. 그러나 이들 정자각은 지붕이 모두 맞배지붕이며 숭릉 정자각만이 팔작지붕을 하고 있다.

숭릉 정자각은 영릉寧陵의 제도를 따라서 정전 5칸, 배위청 3칸의 전체 8칸으로 지어진 건물이며 유일하게 팔작지붕인 정자각이다. 또한 이러한 규모나 지붕 형식은 창건된 1674년의 형태를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건물은 17세기 정자각의 다양한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다.

보물 제1743호

구리 동구릉 목릉 정자각

九里 東九陵 穆陵 丁字閣

조선시대(1608년)
1동
정전 - 정면 3칸, 측면 2칸
배위청 - 정면 1칸, 측면 2칸
목재, 석재
구리시 인창동 66-6

지정일 : 2011.12.26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

<구리 동구릉 목릉 정자각>은 동구릉 내 목릉 아래에 건립된 조선 초기 丁자형 제향공간이다. 목릉은 조선 14대 임금 선조와 원비 의인왕후 박씨, 계비 인목왕후 김씨의 능으로 현재 동구릉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원래 목릉의 능역은 1600년(선조33) 의인왕후가 승하하자 왕비릉인 유릉裕陵의 터로 정해진 곳이다. 목릉은 1608년(광해군1)에 선조가 승하하자 건원릉의 서편에 조영되었는데, 능에 물이 차고 터가 좋지 않다는 상소에 따라 1630년(인조8) 현 위치로 천릉遷陵하고 유릉과 목릉의 능호를 합하여 목릉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후 1632년에 선조의 계비 인목대비가 세상을 떠나자 계비의 능을 왕릉의 동편 언덕에 조영하게 되어 각기 다른 언덕에 왕과 왕비의 능을 조성한 동원이강릉同原異岡陵의 형식으로 능역 안에 하나의 정자각과 3기의 능이 자리하고 있다. 정자각은 왕릉 앞에 세워져 있다.

정자각은 1608년에 건립한 것을 1630년에 천릉하면서 이건移建하였다. 이건 이후에도 여러 차례 건물 수리가 있었지만 건물 자체에 손을 댄 기록은 보이지 않으며, 1879년(고종16)에 계단석을 고쳤다는 기록이 있다.



2

1

1. 구리 동구릉 목릉 정자각, 일제강점기_ 국립중앙박물관
2·3. 구리 동구릉 목릉 정자각 전경,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목릉 정자각은 정전과 배위청이 '丁'자형 평면을 이루며, 일반적인 정자각의 규모와 형태이다. 장대석으로 조성된 기단은 남북으로 긴 장방형이며 상면은 3개의 단을 이루고 있다. 즉 전면의 월대, 월대 상면에 비해 반 단 정도 높게 조성한 배위청 기단, 그 뒤에 월대 보다 1단 높게 정전의 기단을 설치하였다.

정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에 다포식多包式 공포栱包를 짰다. 현존하는 정자각 중에 다포식 공포를 갖춘 건물은 이 건물이 유일하다. 공포는 내외 1출목이며 외부 살미는 약간의 곡선을 갖추면서 아래로 처져있고 소첨차小檐遮와 대첨차는 높이에 비해 길이가 길어 안정된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17세기 초에 다시 지어진 문묘文廟 대성전大成殿의 공포 짜임과 유사하며 이 시기 많지 않은 다포식 공포의 좋은 사례이다. 지붕은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배위청은 정면 1칸, 측면 2칸이다. 공포는 출목없이 기둥 위에 주두柱枓와 보머리가 바로 얹어지며, 기둥 사이는 내외단을 삼분두형으로 처리한 살미와 첨차를 결구하여 화반華盤 역할을 하도록 꾸몄다.

정전은 일반적으로 측면 2칸 구조에서 평주와 합장보를 사용하는데 비해 드물게 2개의 고주를 세워 벽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창호나 화방벽을 한 벽체 등은 조선시대 일반적인 정자각의 제도를 잘 따르고 있다.

목릉 정자각은 1630년에 작성된『선조목릉천봉도감의궤宣祖穆陵遷奉都監儀軌』와 보면 현재의 모습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이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조선왕릉 정자각 가운데 유일한 다포형식의 건물로 살미의 형태나 구조가 장식화되기 이전의 전기적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크다.



보물 제1754호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

조선시대(1796년~1799년경)
73판(목판 42판, 동철판 7판, 석판 24판)
목판 - 세로 1.5㎝, 가로 53.5㎝ 내외
동판 - 세로 22.5㎝, 가로 44.5㎝ 내외
석판 - 세로 27.5㎝, 가로 43.0㎝ 내외
목재, 금속(동, 철), 석재
화성시 용주로 136

지정일 : 2012.02.22
소유자 : 용주사(사유)
관리자 : 용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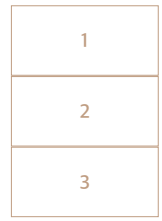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은 정조가 생부生父인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세자의 능인 현륭원顯隆園을 수원부의 읍치가 있는 화산花山으로 옮긴 후 1790년 갈양사 자리에 능사陵寺로서 용주사를 세우고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뜻에서 제작되었다.

『불설부모은중경佛說父母恩重經』은 부모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고 깊음을 설하여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가르친 경전으로, 본래 경명은 원래 경명은 『부모은중대승마하반야바라밀경父母恩重大乘摩訶般若波羅蜜經』이며, 약칭하여 『부모은중경』, 『은중경』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유교사회였던 조선시대에 많이 간행되었으며 조선 초기부터 삽화를 곁들인 판본이 많이 간행되었으며, 조선 중기 이후에는 언해본이 출판되기도 했다.

용주사 소장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은 현재 목판 42판, 동철판 7판, 석판 24판 등 모두 73판이 남아있다. 목판 42판은 변상도佛說大報父母恩重經圖, 과판佛說大報父母恩重科判, 한문본佛說大報父母恩重經, 국문본(불셜대보부모은듕경장) 등이 4판의 단면(4장)과 38판의 양면(76장)에 양각되어 있다. 석판 24판은 과판, 한문본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동철판은 변상도 7판이 단면에 양각되어 있다.

변상도는 모두 7종 14도로서 본문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 별개의 판으로 제작되었다. 본문 내용의 전개에 따라 여래정례도如來頂禮圖, 십게찬송도十偈讚頌圖 10폭(회탐수호은懷耽守護恩, 임산수고은臨産受苦恩, 생자망우은生子忘憂恩, 인고토감은咽苦吐甘恩, 회건취습은回乾就濕恩, 유포양육은乳哺養育恩, 세탁부정은洗濁不淨恩, 원행억념은遠行憶念恩, 위조악업은爲造惡業恩, 구의연민은究意憐愍恩), 주요수미도周遶須彌圖, 아비타고도阿鼻墮苦圖, 상계쾌락도上界快樂圖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전의 판화와는 달리 경판의 변상도는 공간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변상도는 특별히 목판을 바탕으로 동철판에 판각되었는데 목판의 도각刀刻 흔적까지 복제해놓은 듯 목판과 거의 동일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용주사 소장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은 경문과 변상도의 새김이 매우 정교한 필치로 묘사되어 있다. 경판의 글씨에 대해 이능화李能和는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에서 "영의정 채제공蔡濟恭이 썼다"고 하였고, 송환기宋煥箕는 『성담선생집性潭先生集』에서 당대의 명필가인 황운조黃運祚(1730~1800)가 경판을 조성하기 한 해전인 1795년에 "왕명으로 은중경을 써서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변상도는 당대 최고 수준의 도화서圖畫署 화원이 그린 것으로 판단되는데 당시 용주사 불화제작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단원 김홍도金弘道(1745~?)가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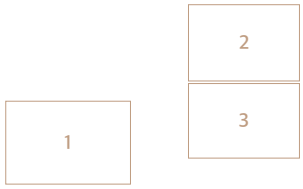


1.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 목판(한문본), 2012_ 문화재청
2.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 목판(언해본), 2012_ 문화재청
3.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 목판(변상도), 2012_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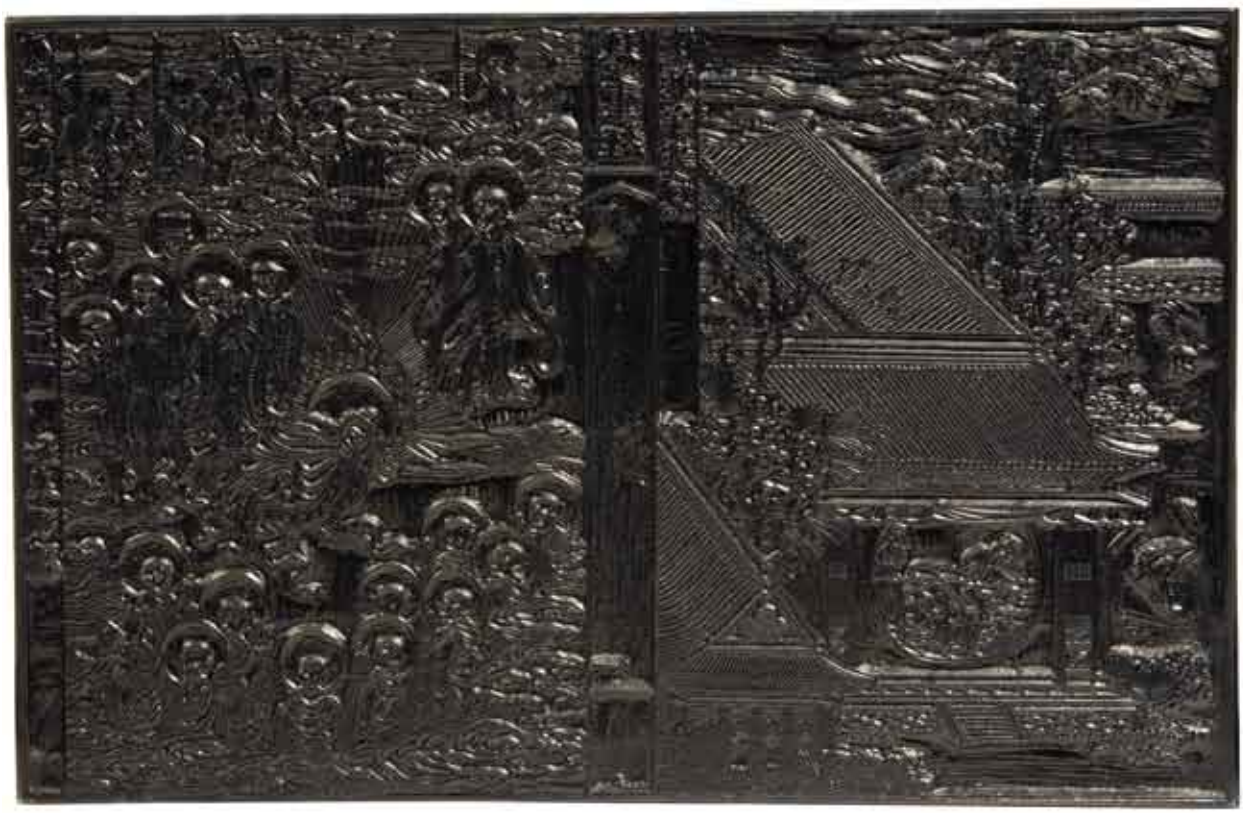


용주사 소장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의 목판과 석판의 권말에는 '歲柔兆執徐(丙辰)仲夏開 印藏于花山龍珠寺'라는 간행기록이 있어 이 경판들이 1796년(정조20) 5월에 조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에서 "1796년 우연히 『대보부모은중게大報父母恩重偈』를 읽고 감동하여 그것을 단오와 제석에 인쇄하여 올리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주자소응행절목鑄字所應行節目』의 책판 조의 기록에 따르면 철판(동철판) 7판, 경문(한문본) 13판, 도(변상도) 5판, 언해(국문본) 25판, 『기복게』 9판, 『은중경진언』 대판 1판과 소판 1판 등은 병진년(1796), 석판 12판은 기미년(1799)에 조성하여 주자소에 내입內入하였고, 이 중에서 경문(한문본) 13판, 도(변상도) 5판, 언해(국문본) 25판과 『기복게』 9판 등을 용주사에 내려 보냈다고 밝히고 있다. 석판의 경우 석판의 권말에 새겨진 간행기록에는 목판과 같이 1796년에 조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자소응행절목』에서는 이보다 3년 뒤인 기미년(1799)에 조성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두 기록 모두 신빙성이 있으므로 석판은 1796년부터 1799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 같다. 또한 동철판 7판과 석판 24판에 대한 이송移送 기록은 없으나 용주사에 현재까지 모든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이 전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철판과 석판 역시 목판을 용주사에 보냈던 시기에 함께 이송된 것으로 판단된다.

용주사 소장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은 정조의 명으로 조성하였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장인들의 솜씨와 예술성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문판과 한글판이 모두 남아있어 18세기 말의 국어사 자료로서도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1972년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다가 2012년 보물로 승격되었다.



1.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 동철판(변상도), 2012_ 문화재청
2·3.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 석판(한문본), 2012_ 문화재청







보물 제1756호

김응남 호성공신교서 및 관련 고문서

金應南 扈聖功臣敎書 및 關聯 古文書

조선시대
- 호성공신교서(1604년)
- 증시교지(1753년)
2점(교서 1축, 교지 1점)
공신교서 - 세로 39.0㎝, 가로 295.0㎝
증시교지 - 세로 59.0㎝, 가로 106.0㎝
비단, 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2012.02.22
소유자 : 김명호(사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응남 호성공신교서 및 관련 고문서>는 1604년(선조37) 10월 선조가 김응남金應南(1546~1598)에게 상장과 훈장을 내린 교서와 그의 사후 1753년(영조29)에 내려진 증시교지이다.

김응남의 본관은 원주原州, 자는 중숙重叔, 호는 두암斗巖이다. 1567년(명종22)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568년(선조1) 증광문과에 급제하였다.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으로 왕이 피난길에 오르자 유성룡柳成龍의 천거로 병조판서 겸 부체찰사가 되었다. 이듬해 1593년 이조판서로서 선조와 함께 환도還都하였고, 1594년 우의정, 1595년 좌의정이 되어 영의정 유성룡과 함께 임진왜란 후의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켰다. 그러나 1597년 정유재란 때 안무사按撫使로서 영남지방에 내려갔다가, 풍기豊基에서 병이 위독해져서 귀경 후 사직하고 이듬해 사망하였다. 그는 1604년 임진왜란 때 병조판서, 부제학, 대사헌, 예조판서,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역임하면서 왕을 호종하고 돌아온 것을 공로로 사후 호성공신 2등에 녹훈되었고, 원성부원군原城府院君에 봉해졌다.

김응남 호성공신교서의 내용을 적은 바탕은 두꺼운 선지宣紙에 명주를 접착한 것이 사용되었고, 천두天頭와 지두地頭 부분은 쪽빛으로 염색된 비단이, 교서의 상하 가장자리는 밤색 비단이 사용되었다. 글이 쓰여 있는 부분의 위·아래로 굵은 주사선朱砂線이 각각 한 줄씩, 본문 행간 사이에는 가는 주사선이 가늘게 그어져 있다. 내용은 총 70행에 걸쳐 해서楷書로 묵서墨書되어 있다. 교서의 첫머리에는 「敎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 兼 領經筵監春秋館事世子傅 贈 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原城府院君 金應南 書(교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 영경연감 춘추관사 세자부증 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 원성부원군 김응남 서)」라는 문서의 정확한 제목이 적혀 있다. 제목의 좌측 '王若曰(왕약왈)' 이하는 전형적인 공신교서의 양식에 따라 공을 치하하고 공신으로서 받게 될 상전과 특권을 적었다.



좌측에는 총 86명의 공신명단功臣名單을 3단으로 적었다. 1등에는 이항복李恒福·정곤수鄭崑壽 2인, 2등에는 후翎(신성군信城君), 부琈(정원군定遠君)·이원익李元翼 등 31인, 3등에는 정탁鄭琢·이헌국李憲國·유희림柳希霖 등 53인의 이름이 적혀 있다.

김응남은 2등 공신명단의 세 번째 단 3번째에 기록되어 있다. 교서에는 김응남과 그의 부모·처에게 각기 2품계씩을 올려주며, 큰 아들의 경우 김응남이 누리던 지위를 영원히 세습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노비 9구, 밭 80결, 은 7량, 옷감 1단, 말 1필 등을 내리도록 하라는 지시가 적혀있다. 교서의 마지막에는 교서를 내린 날짜인 '만력萬曆 32년 10월 일'이 적혀 있고, 바로 아래에 정방형의 「시명지보施命之寶」란 어보御寶가 찍혀 있다. 이 외에 공신교서의 뒷면 하단에 '안대진安大進 제製· 오정吳靖 서書'라고 적혀 있어 이 교서의 문장을 지은 사람은 안대진(1561~?)이고, 글씨를 쓴 사람은 오정(1579~1623)임을 알 수 있다. 김응남 호성공신교서는 겉면과 안면의 표장, 축두軸頭의 형태, 축을 묶는 색실띠와 상아침象牙針 등이 최초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현존하는 여러 호성공신교서와 비교할 때 기준이 된다.

김응남 증시교지는 1753년(영조29) 좌의정 김응남에게 '충정忠靖'이라는 시호諡號를 적어 발급한 왕명문서이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나라에서 시호를 내려주는 대상은 종친 및 문무관 실직實職 정2품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으나 후에는 정2품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시호를 내리는 예외들이 생겼다.

김응남의 호성공신교서 및 증시교지는 현재 보물로 지정된 여러 호성공신교서 중에서도 1604년 책록 당시의 원장原粧을 잘 보존하고 있어 호성공신교서의 기준이 되며, 교서문을 지은 사람과 교서문을 쓴 사람이 적힌 희소성으로도 중요한 자료이다.

1

2

1. 김응남 증시교지, 2012_ 문화재청
2. 김응남 호성공신교서, 2012_ 문화재청





보물 제1781호

대혜원명 동종

大惠院銘 銅鍾

고려시대(1223년경)
1점
총높이 73.4㎝, 음통 15.8㎝, 입지름 44.5㎝
금속(청동)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지정일 : 2012.12.27
소유자 : 우학문화재단(사유)
관리자 : 용인대학교

<대혜원명 동종>은 1223년(고려 고종10) 죽주 지역에 있던 대혜원大惠院의 동종이다. 대혜원명 동종은 불룩한 몸체가 아래로 갈수록 살짝 오므라드는 형태이며, 한 마리의 용으로 만들어진 종뉴鐘紐와 긴 음통音筒을 갖추고 있다. 종뉴의 용은 발가락이 4개인 사조룡四爪龍으로 여의주를 물고서 Ω식으로 몸을 구부린 채 음통을 싸고 있다. 음통은 5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단과 2단에는 복련과 앙련, 3단은 연화문, 4단과 5단은 앙련이 고부조高浮彫로 새겨져 있고, 그 끝에는 작은 구슬이 장식되어 있다.

천판天板과 이어지는 부분에는 상대와 연결되어 연잎을 세운 모양의 입상화문대立狀花文帶 장식이 둘러져 있다. 상대에는 국당초문이, 하대에는 모란당초문이 섬세하게 표현되어있다. 상대 아래 바로 붙은 4개의 연곽대에는 뇌문雷紋을 장식하였고, 연곽 안에는 연판으로 연꽃봉우리장식이 표현하였다.

유곽과 유곽사이의 아래쪽 종복에는 당좌와 보살좌상이 교대로 배치되었는데 보살상은 높은 삼면관三面冠을 쓰고 있으며 합장한 자세로 구름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다. 종을 치는 자리인 당좌는 연판으로 장식된 테두리 안에 범어梵語의 하나인 실담자悉曇字가 부조되었으며, 가운데 부분에 연밥모양을 넣거나 무늬를 넣지 않는 것이 많은데, 이처럼 실담자가 장식된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예이다.





보살상과 당좌 사이에는 조성 시기와 조성목적, 봉안처, 발원자 등 범종제작과 관련한 12행 94자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명문의 내용을 보면 이 종은 죽주 대혜원의 종으로 만든 것이며 안일호장 최씨, 동량도인, 대혜원 주지, 남일월사 등 관리와 승려들이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국왕의 장수와 국가의 안위, 그리고 깨달음의 지혜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발원하였다. 또한 계미년 8월 28일에 중량 163근을 들여 만든 것으로 기록되어, 제작연대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입상화문대의 표현, 당좌의 장식, 연곽대의 뇌문 등의 특징으로 볼 때, 계미년은 고려 후기인 1163년, 1223년, 1283년에 해당될 수 있는데 종의 전체적인 외형과 세부 장식에서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포항 오어사 동종(1216년 제작, 보물 제1280호)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을사명 동종의 제작 시기와 비교해 보면 1223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혜원명 동종은 종뉴와 종신의 외형, 상·하대의 위치, 요식의 종뉴의 모습에서는 통일신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지만 입상화문대의 표현이나 범어가 부조된 당좌와 같은 새로운 요소가 첨가된 작품으로 고려 후기 범종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奉佛弟子南贍副州高麗國
부처를 섬기는 제자 남섬부주 고려국
竹州大惠院金鐘造成 特爲
죽주 대혜원에서 금종을 조성함에 특히
聖窮萬歲國土太平法界
국왕의 무궁한 장수와 국가의 태평법계를 기원하고
生亡共增菩提之愿以
삶과 죽음에서 모두 거듭 보리심[깨달음의 지혜]을 바라니
前上戶長同心爲金鍾入重
전 상호장 이 같은 마음으로
壹百陸十三斤印
무게 163근의 금종을 만든다

時癸未八月二十八日 계미년 8월 28일
安逸戶長崔 안일호장 최
棟梁道人賢堪 동량도인 현감
院主大師智成 주지대사지성
南日月寺依 芙〇〇希素 남일월사〇〇희소

대혜원명 동종, 2010_ 우학문화재단





보물 제1789호

안성 청룡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安城 靑龍寺 塑造釋迦如來三尊像

조선시대(1603년)
3구
석가여래 - 높이 179.0㎝, 무릎폭 129.0㎝
문수보살 - 높이 163.0㎝, 어깨폭 40.0㎝
보현보살 - 높이 164.0㎝, 어깨폭 4.2.0㎝
흙
안성시 서운면 청룡길 140

지정일 : 2012.12.27
소유자 : 청룡사(사유)
관리자 : 청룡사

<안성 청룡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은 안성 청룡사 대웅전에 봉안된 조선시대 소조석가여래삼존상으로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문수보살文殊菩薩과 보현보살普賢菩薩이 배치되어 있다.

석가여래상은 머리의 크기에 비해 어깨는 좁은 편이며, 신체는 평면적이다. 곧고 당당한 자세로 앉아 있는데 무릎이 높아 신체비례가 알맞다. 머리에는 발제선髮際線(머리털이 난 끝선)을 따라서 작은 크기의 나발이, 그 위쪽으로는 큰 나발이 있으며, 정수리에는 정상계주가 표현되어 있다. 얼굴은 턱이 좁은 역삼각형으로 갸름한 편이며, 두터운 눈두덩이, 기다란 눈, 이마와 연결되는 편평한 콧등, 돌출된 인중, 입 꼬리가 살짝 올라간 작은 입이 표현되어 있다. 양손은 나무로 제작되었는데, 왼손은 무릎 위에 두고 엄지와 맞대었고 오른손은 무릎 위에 살짝 내려놓은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결하고 있다. 착의법은 변형 우견편단식右肩偏袒式으로 대의를 양 어깨에 걸치고 있지만 왼쪽 팔을 드러내고 있으며, 밋밋한 가슴 아래에는 연꽃잎 형태로 주름잡은 승각기가 보인다. 오른쪽 어깨를 덮은 대의 옷주름이나 왼쪽 팔목 아래로 무릎에 드리운 넓은 나뭇잎 형태의 옷자락, 두 다리 사이의 옷주름 등은 입체적이면서도 유연하게 표현되었다.

석가여래상 좌우의 보살상들은 머리가 크고 신체 길이가 짧아 불균형한 신체 비례를 보인다. 곧은 자세로 서 있으며, 얼굴 표현은 석가여래상과 유사하다. 보살상은 머리에 꽃과 화염보주가 화려하게 장식된 높은 보관을 쓰고, 정수리에 높은 상투머리를 틀고 있으며, 어깨 위로 머리카락이 굴곡지게 흘러내리고 있다. 귀에는 띠형 귀걸이, 가슴에는 큼직하고 둥근 꽃무늬가 장식된 목걸이, 팔에는 둥근 팔찌를 착용하였다. 착의법은 좌협시左脇侍인 문수보살상은 어깨 위에서 손목까지 천의자락을 걸친 천의형天衣形이고, 우협시右脇侍인 보현보살상은 대의大衣를 입은 가사형袈裟形이다. 두 보살상 모두 가슴 아래로 승각기가 보이고 이를 묶은 띠매듭이 두 가닥으로 짧게 드리워져 있다. 두 보살상의 착의법이 다르지만 볼륨감 있고 번잡한 옷주름의 표현은 유사하다.

석가여래상의 내부에서 푸른 비단에 붉은 색 글씨로 적힌 발원문 4매와 『묘법연화경권妙法蓮華經』 권4가 발견되었다. 발원문에는 제작시기와 불상 조성에 관여한 승려의 소임과 명단이 적혀 있는데, 이 기록을 통해 1603년(선조36) 8월 수조각승 광원廣圓과 만주萬珠, 유일有一, 이금정李今貞, 각통覺通, 정현晶玄 등 승려 장인과 함께 일반 장인 의해 제작되었음이 밝혀졌다.

안성 청룡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은 조성시기와 제작자가 명확한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초반의 작품으로 17세기 불교조각의 태동과 변화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안성 청룡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2016_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1790호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

楊平 龍門寺 金銅觀音菩薩坐像

고려시대
1구
높이 72.5㎝, 무릎폭 43.0㎝
금속(금동)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782

지정일 : 2012.12.27
소유자 : 용문사(사유)
관리자 : 용문사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양평 용문사 관음전에 봉안되어 있는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보살상은 머리에 꽃과 화염보주가 화려하게 장식된 높은 보관을 쓰고 있다. 상투형 머리는 높게 올려 세우고 중간을 묶어 고정시킨 후 그 끝을 부채살과 같은 형태로 말아 올렸으며, 이마선 위나 어깨 위로 흘러내리는 굴곡진 머리카락은 촘촘히 선각하여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얼굴은 방형으로 수평의 작은 눈, 오뚝한 코, 입술선이 또렷한 입, 귓바퀴와 외이도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귀 등은 온화하고 인간적인 인상을 풍긴다. 오른손은 가슴 위로 왼손은 무릎 가까이에 둔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說法印을 결하고 있다.

착의법은 변형통견식의 소매가 있는 대의 안에 내의內衣를 입고 있으며, 내의를 묶은 띠매듭이 표현되어 있다. 왼쪽 가슴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긴 삼각형 모양의 내의장식은 헝겊을 두껍게 겹쳐 만든 장식을 연결하여 어깨에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귀에는 둥근 화형 귀걸이, 목에는 둥근 구슬과 꽃모양으로 장식된 목걸이, 팔에는 띠형 팔찌, 양 무릎 위에는 목걸이와 비슷한 형태의 영락장식을 표현하였다.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에서 나타나는 머리카락 표현, 변형통견식 착의법, 화려한 영락장식 등은 고려후기 14세기에 크게 유행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금동보살상의 전형적인 요소이며,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1330년), 일본 사가현佐賀縣 장득사長得寺 소장 금동보살좌상, 일본 보명사普明寺 소장 금동보살좌상,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보물 제986호), 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보물 제280호) 등이 같은 양식범주에 포함된다.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신체와 정교한 세부표현이 돋보이는 불상으로 고려 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1 2



1.2.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보물 제1791호

여주 신륵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驪州 神勒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조선시대(1610년)
불상 3구
불상 - 높이 149.5㎝, 무릎폭 96.9㎝
관음보살상(좌) - 높이 177.5㎝
대세지보살상(우) - 높이 174.2㎝
목재
여주시 신륵사길 73

지정일 : 2012.12.27
소유자 : 신륵사(사유)
관리자 : 신륵사

<여주 신륵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여주 신륵사 극락보전에 봉안된 조선시대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으로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상이 배치되어 있다.

아미타여래좌상은 얼굴과 목이 길고 어깨와 무릎은 넓어 전체적으로 길쭉하면서도 비례가 안정적이다. 머리에는 육계가 유난히 높아 독특하고, 정수리에는 정상계주를 표현하였으며 큼직한 나발을 빼곡히 조각하였다. 긴 얼굴은 눈두덩이가 두터운 좌우가 긴 눈, 기다란 코, 작지만 도톰한 입술 등을 표현하여 근엄하고 이국적인 인상을 풍긴다. 특히 아래눈꺼풀을 바깥 방향으로 굴곡지게, 인중을 돌출되게 표현하고 입술 양 끝을 오목하게 패이도록 조각하여 얼굴의 입체감을 더하였다. 수인은 중품하생인中品下生印을 결하고 있으며, 곧고 긴 목에는 삼도三道가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다. 착의법은 오른쪽 팔에 편삼을 두르고 그 위로 대의를 걸친 변형 통견식으로 목깃이나 옷주름 등이 두껍고 간결하며 두 다리 사이의 옷은 그 끝을 각 지게 주름잡아 딱딱한 인상을 준다.

보살상들은 긴 신체비례나 얼굴 표현은 본존불상과 유사하지만 착의법이나 화려한 보관과 장신구의 표현에서 차이를 보인다. 좌협시인 관음보살상은 양 손을 배 부분에 둔 형상이며 어깨 위를 덮고 흘러내린 천의는 팔목을 감아 길게 내려와 있다. 허리에서 무릎 아래에는 화려한 장식을 걸쳤으며, 무릎 부분에는 띠로 묶어 위아래를 볼록하게 표현하고 있다.





2

1

1. 여주 신륵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2018
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여주 신륵사 목조아미타여래상, 2018
_ 경기문화재연구원

우협시인 대세지보살상은 손과 변형 통견식 대의와 두터운 옷주름의 표현은 본존불상과 유사하다. 옷주름은 전체적으로 간결하지만 주름에 변화되는 곡선을 주어 입체적으로 처리하였다. 머리카락은 관음보살상은 어깨 위에 여러 가닥의 보발이 흘러내리지만 대세지보살상은 생략되었다. 장식은 두 보살상 모두 큰 화형 귀걸이를, 둥근 화형문에 구슬이 달려 있는 간결한 형태의 목걸이를 착용한 형태이다.

아미타여래상의 내부에서 봉안처, 제작시기, 제작자 명단이 적힌 발원문이 발견되었다. 이 기록을 통해 이 삼존상은 1610년 백여 명이 넘는 승속인들이 발원한 불상으로 조각승 인일仁日과 수천守天에 의해 제작되었음이 밝혀졌다.

여주 신륵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좌상의 여래, 입상의 보살로 이루어진 삼존의 구성과 두 협시보살상의 다른 착의법 등 17세기 전반기의 특징이 반영된 작품으로 유난히 높은 육계, 이국적인 얼굴에서 새로운 조형적 특징을 보인다.

보물 제1792호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南楊州 奉先寺 毘盧遮那三身掛佛圖

조선시대(1735년)
1폭
세로 785㎝, 가로 458㎝
종이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 32

지정일 : 2012.12.27
소유자 : 봉선사(사유)
관리자 : 봉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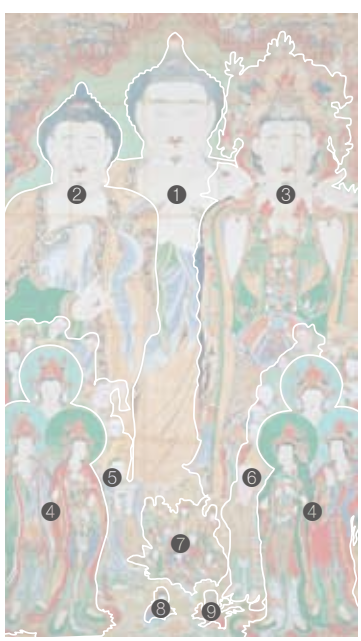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는 1735년(영조11) 상궁 이성애李性愛가 숙종의 후궁인 영빈 김씨寧嬪金氏(1669~1735)의 명복을 빌며 제작한 불화이다. 세로 144.4㎝, 가로 95㎝의 종이를 각각 세로 폭에 6매씩, 가로 폭에 5매씩 총 30매를 이어 붙여 제작하였다.

화면은 전체적으로 크게 상·하 2단 구도로 나뉘어져 있다. 상단 중앙에는 삼신불 즉, 법신法身 비로자나불, 우측에는 보신報身 노사나불, 좌측에는 화신化身 석가모니불이 배치되어 있다. 본존인 비로자나불과 오른쪽 석가모니불은 불형佛形으로, 원만한 얼굴에 머리는 높이 솟아오른 육계肉髻에 반달모양의 계주髻珠를 갖추었으며, 노사나불은 화려한 보관을 쓴 보살형이다. 비로자나불은 지권인智拳印을, 보관을 쓴 노사나불은 양손을 어깨까지 올려 설법인을, 석가모니불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채 왼손은 가슴까지 올리고 오른손은 배에 대고 설법인을 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삼신불과 권속들을 함께 그렸지만 언뜻 보면 삼신불 중심의 구도로 연상될 만큼 화면 상단의 삼신불을 큼직하게 배치하였다. 이러한 삼신불 중심의 구성은 이 괘불도를 비롯하여 학림사 괘불도(1774년 중수) 및 원통암 괘불도(1806년) 등 18세기 중후반 경의 서울·경기 지역의 삼신괘불도에서 주로 볼 수 있다.

화면 하단에는 6보살과 제석·범천, 10대 제자, 천인, 설법을 경청하는 대중들을 V자형으로 배치하였으며, 하단 중앙부에는 각종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천인과 설법을 경청하는 인물을 구름으로 구획하여 배치하였다.

화기의 내용을 통해 이 불화는 상궁尙宮 이씨가 영빈 김씨의 영가천도를 위해 조성한 것이며, 수화승首畵僧 각총覺聰을 비롯한 칠혜七惠, 두책斗策, 태운太雲, 만빈萬彬이 제작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각총은 이 괘불도 외에 여주 신륵사 삼장보살도(1758년)의 수화승으로 참여하였으며, 칠혜는 18세기 전반에 학림사 괘불도를 조성하였다. 1774년 학림사 괘불도 중수화원이었던 처징處澄이 1758년에 각총과 함께 신륵사 삼장보살도(1758년)를 제작했기 때문에 두 작품 간의 도상적 유사성을 살펴볼 수 있다.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는 등장인물이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구사된 필선이 매우 힘차고 생동감이 있으며, 짜임새 있는 구성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괘불도로서는 드물게 종이 바탕에 맑은 담채의 황색, 청색, 양록색, 녹색, 하늘색 등 밝고 화사한 색과 굵고 대담하면서도 능숙한 묵선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인물들의 움직임 및 옷자락의 자연스러운 주름, 힘찬 동세動勢 등을 표현하고 있어 왕실 발원 불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2012_ 성보문화재연구원



보물 제1793호

가평 현등사 동종

加平 懸燈寺 銅鍾

조선시대(1619년)
1구
높이 73.5㎝, 입지름 57.5㎝
금속(청동)
가평군 조종면 현등사길 34

지정일 : 2012.12.27
소유자 : 현등사(사유)
관리자 : 현등사

1

2

1·2. 가평 현등사 동종, 2013_ 금강문화유산연구원



<가평 현등사 동종>은 1619년(광해군11) 천보天寶의 주도로 제작된 범종이다. 동종은 둥근 곡면을 이루는 천판에서부터 종구鍾口로 내려오면서 조금씩 그 폭이 조금씩 넓어지는 형태로 고려 후기 연복사演福寺종에서 비롯된 중국종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종뉴鐘紐는 단용單龍과 음통音筒으로 고리를 형성하는 전통형 동종과는 달리 쌍용이 서로 등진 모습으로 종의 고리가 만들어져 있고 음통은 없다. 종뉴의 용은 부리부리한 눈과 큰 코, 좋굿한 귀와 날카롭게 뻗어 올라간 뿔, 천판을 딛고 있는 강직한 발과 비늘 등이 매우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다.

반구형인 상부 천판天板의 가장자리에는 넓은 복엽연화문이 둘러져 있고 중앙을 향해 보상화문처럼 말린 형태의 연화문 위에 구슬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종신鐘身의 상단에는 용두를 기준으로 전후좌우 네 곳에 마름모꼴의 연곽을 배치하였고 연곽대는 당초문으로, 연곽 내에는 연판 화문좌 위에 높게 돌출된 9개씩의 구슬모양 연꽃봉우리가 부조되었다. 종복鐘腹 가운데에는 3줄의 돌대를 돌려 상단과 하단으로 구획되며 상단에는 당초문대와 화려한 보상화문대가 상·하 2중으로 돌려져 있고, 하단에는 입화문대와 파도무늬가 상·하 2중으로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종복鐘腹의 중앙 돌대 아래에는 반듯한 해서체로 제작과 관련한 내용을 양각하였다. 이 기록에는 '奉先寺鍾銘幷序 萬曆四十七年己未四月十一日 化主 天寶 謹作 綠化比丘 玄玉 正會 大元 塋仁(봉선사종명병서 만력사십칠년기미사월십일일 화주 천보 근작 녹화 비구 현옥 정회 대원 영인)'으로 이 범종이 '만력 47년'인 1619년에 화주 천보天寶의 주도로 봉선사에 봉안되기 위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종을 만들게 된 연유, 종 제작에 사용된 재료의 양과 무게, 발원하는 내용, 참여한 사람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 종의 제작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주종장鑄鍾匠은 일반적으로 주종기를 작성한 천보로 보고 있는데, 그는 조선후기 승려 주종장 가운데 유일하게 임진왜란 이전부터 활동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의 승장의 계보나 범종의 양식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인물이다. 이 종은 현등사의 본사인 남양주 봉선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나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봉선사가 전쟁의 피해를 입게 되자 말사인 현등사로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가평 현등사 동종은 종의 외형이 중국 범종 양식을 모방하면서도 종신의 연곽과 중·하대문양 등 부분적으로는 우리나라 범종의 양식이 반영되어 있는 작품으로 조선 중기 한·중 혼합 양식의 조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종은 조성 연대가 명확히 밝혀져 있고, 거창 고견사 동종(1630년) 및 파주 보광사 숭정칠년명 동종(1634년)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조선 중기 범종의 조형성과 주조기법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편년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이 종을 필두로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대대적인 사찰불사와 더불어 17세기 한국 종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 범종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보물 제1794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 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9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諺解) 卷九

조선시대(1462년)
1권 1책
세로 37.2㎝, 가로 24.2㎝
종이(닥종이, 고정지)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137-48

지정일 : 2012.12.27
소유자 : 원각사(사유)
관리자 : 원각사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9>은 1461년 교서관校書館에서 한계희韓繼禧와 김수온金守溫 등이 번역하여 간행한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의 언해본 중 권9이다.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대승경전大乘經典의 하나로, 당나라 때 반랄밀제般剌密帝가 처음 한역漢譯하고 송나라 휘종 때 계환戒環이 중요한 부분을 뽑아 주해한 것으로 『수능엄경首楞嚴經』 또는 『능엄경楞嚴經』으로 약칭된다.

『능엄경』은 여래장如來藏 사상을 근간으로 하며, 한국 불교에 큰 영향을 끼쳐 『금강경金剛經』, 『원각경圓覺經』,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과 함께 불교 강원의 사교과四敎科를 구성하는 과목이 되었다. 『능엄경』의 주된 내용은 대·소승과 현교·밀교를 포괄하고, 아울러 성리학性理學과 사상적 연관성을 갖고 있어서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은 물론이고 유가儒家에서도 널리 읽혀졌다.

조선시대에는 세종世宗이 1449년 수양대군에게 『능엄경』의 번역을 명하였으나 바로 완성하지 못하였다. 1461년(세조7)에 언해가 모두 이루어지고, 같은 해 을해자乙亥字와 새로 주조한 한글 활자(을해자병용 한글자)를 이용하여 인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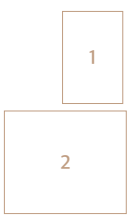
『능엄경』 언해본의 간행 경위는 권말의 발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발문의 내용을 보면, 1449년(세종31)에 세종이 수양대군에게 『능엄경』을 번역하라는 명을 내리면서 『능엄경』의 언해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바로 완성하지 못하고, 1461년 8월 22일에 이르러서야 언해가 마무리되었다. 언해 작업이 완성되자 세조는 교서관校書館에 인쇄하라는 명을 내려 10월에 『능엄경』 언해본을 반포하였다.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9의 형태적 사항을 보면 변란은 사주단변四周單邊에 반곽半郭의 크기는 세로 27.1㎝, 가로 19.5㎝이며, 판심은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판심제는 '능엄경楞嚴經'이다. 본문은 9행 16자로 배열되어 있고, 주는 쌍행雙行이며 계선이 있다.

한편 본문에 주서朱書로 교정 지시를 한 부분이 간간히 보이므로 본 책이 교정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정 지시는 을해자본 『능엄경』 언해가 구성이나 내용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1462년(세조8)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는 을해자본 『능엄경』을 교정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하게 된다.

1461년에 간행된 을해자본『능엄경』언해는 현재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전 10권이 모두 전존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소장된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보물 제763호) 중 권9는 본 책과 동일한 판본이다.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9의 본문에 기입된 언해는 조선 전기 우리말의 양상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써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이는 교정 지시가 1462년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목판본의 원문과의 반영 정도를 비교할 수 있어서 서지학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1.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 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9 권수, 2012_ 문화재청
2.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 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9 본문, 2012_ 문화재청



大方廣佛華嚴經疏鈔會本卷第九
首楞嚴經卷第九
二色界十八天
雖離欲染心尚有色質故名色界
欲天但十善
欲界



楞嚴經卷第九 四
濃詳辨五 一色陰三 初示陰相
阿難當知汝坐道場銷落諸念
其念若盡則諸離念一切精明
動靜不移憶忘如一當住此處
入三摩地如明目人處大幽暗
性妙淨心未發光此則名為色陰
區宇

보물 제1795호

안성 청원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복장전적

安城 淸源寺 乾漆阿彌陀如來坐像 腹藏典籍

고려시대(1324년)
2종 4점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12 - 세로 32.6㎝, 가로 806.4㎝
권40 - 세로 32.5㎝, 가로 719.4㎝
권41 - 세로 32.5㎝, 가로 706.4㎝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16 - 세로 32.6㎝, 가로 734.1㎝
종이(닥종이)
화성시 용주로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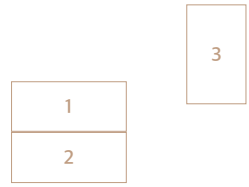
지정일 : 2012.12.27
소유자 : 청원사(사유)
관리자 : 용주사

<안성 청원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복장전적>은 1974년 개금불사 때 안성 청원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복장腹藏에서 수습된 복장전적 일괄을 일컫는다. 이 때 수습된 전적은 『감지은니보살선계경紺紙銀泥菩薩善戒經』 권8(보물 제740호), 『백지금니묘법연화경白紙金泥妙法蓮華經』 권4·5,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 주본周本 권12·40·41,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貞元本 권16,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17, 『백지은니지장보살본원경白紙銀泥地藏菩薩本願經』등으로 대부분 동국대학교박물관에 기탁되었고,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2·40·41과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16만이 보물 제1795호로 지정되었다.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2·40·41은 실차난타實叉難陀(652~710)가 한역한 80권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중 일부로 1324년(고려 충숙왕11) 감지에 은니로 서사書寫한 고려시대 사경寫經이다. 매 장의 뒷면에는 '주경권제○○ ○복周經卷第○○ ○卜'을 기록하고 있어 주본화엄경임을 알 수 있다.







1.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16 권수, 2012_ 문화재청
2.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16 권말 사성기, 2012_ 문화재청
3.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1 신장상, 2012_ 문화재청

본문은 1장은 30행 17자로 배자되어 있고 6행마다 절첩折帖되어 있다.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0의 권말에는 대사大師 연홍演洪, 영휘永暉가 은銀을 시주하여 태정원년泰定元年(1324) 6월 9일에 사성을 마치고, 그 해 8월에 김생金生이 사성기寫成記를 기록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1의 권수에는 신장상神將像 수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왕발원사경의 경우에만 신장상이 수록되는 것에 반해 이 사경은 개인발원사경임에도 불구하고 권수에 신장상이 수록된 점이 특이하다.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16은 반야가 한역한 40권본인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중 1종에 해당된다. 1324년 감지에 은니로 서사한 고려시대 사경寫經으로 정원본 권40을 완성한지 4개월 후인 1324년 12월에 완성하였다. 권16의 권말에는 사성기가 있는데, 함께 발견된 『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40의 끝에 있는 사성기와 내용이 유사하다. 사성기에는 1324년 12월에 김생이 사성기를 기록하고 이 경을 베낀 사람은 그의 제자 이환而幻임을 밝히고 있다. 권40의 사성기에는 '원인형 시종금일 종지보리願仁詗 始從今日 終至菩提'라 기록하고 있으나 권16에는 '인형仁詗'을 '제자弟子'라 표기한 것이 다른 점이다. 사성기 앞부분에는 '제자비구 인형 이차경사弟子比丘仁詗 以此敬寫'라 기록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제자도인 이환인청경사弟子道人 而幻 因請敬寫'로 되어 있다.

안성 청원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2·40·41과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16에는 사경의 조성시기 및 조성자를 파악할 수 있는 사성기가 포함되어 있어 고려시대 사성된 사경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보물 제1796호

정선필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 화첩

鄭敾筆 海嶽八景 및 宋儒八賢圖 畵帖

조선시대
1첩(16폭)
세로 30.3㎝, 가로 20.3㎝
비단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지정일 : 2013.02.28
소유자 : 우학문화재단(사유)
관리자 : 용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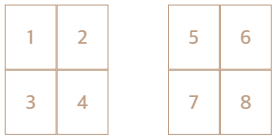
<정선필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 화첩>은 조선 후기의 문인화가 정선鄭敾이 금강산의 경관을 그린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 8폭, 송대 유학자의 행적과 시문을 주제로 그린 고사인물화故事人物畵 8폭으로 구성된 화첩이다.

『정선필해악팔경및송유팔현도화첩』은 '겸재화謙齋畵'라는 표제가 묵서된 능화지菱花紙 표지에 화첩 안에는 진경산수화 8폭과 고사인물화 8폭만 실려 있을 뿐 제작 시기나 경위 등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제발題跋은 없다. 다만 화면의 매 폭에 그림의 제목과 '겸재謙齋'라 쓴 서명이 있고, '정鄭'과 '선敾'을 각각 새긴 백문방인白文方印이 찍혀 있다.



『정선필해악팔경및송유팔현도화첩』에는 각각 금강산과 송대 유학자라는 공통 분모를 토대로 8폭씩 그린 그림이 묶여 있다. 앞부분에 실린 진경산수화 8폭은 모두 정선이 1711년(숙종37) 처음 금강산을 유람한 이후 말년까지 반복적으로 제작한 금강산도이다.

첫 장에 실린 「단발령」은 한양을 떠나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 거쳤던 고갯마루와 그 곳에서 바라다 보이는 금강산의 모습을 담고 있다. 「비로봉」은 금강산의 최고봉最高峰을, 「혈망봉」은 내금강內金剛 망군대望軍臺 구역에 자리한 바위봉우리를 근접 포착한 것이다. 「구룡연」은 외금강外金剛의 명소인 구룡폭포를, 「웅천」은 동해변에 우뚝 솟은 독 모양의 둥근 바위벼랑을, 그리고 「고성문암」은 고성에 있는 문 형상의 바위에서 일출을 감상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총석정」은 통천의 바닷가에 서 있는 주상절리柱狀節理의 돌기둥 무더기와 절벽 위의 정자를, 「해금강」은 말 그대로 해금강 구역의 경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1. 해악팔경 중 「단발령」, 2009_ 우학문화재단
2. 해악팔경 중 「비로봉」, 2009_ 우학문화재단
3. 해악팔경 중 「혈망봉」, 2009_ 우학문화재단
4. 해악팔경 중 「구룡연」, 2009_ 우학문화재단
5. 해악팔경 중 「웅천」, 2009_ 우학문화재단
6. 해악팔경 중 「고성문암」, 2009_ 우학문화재단
7. 해악팔경 중 「총석정」, 2009_ 우학문화재단
8. 해악팔경 중 「해금강」, 2009_ 우학문화재단





1	2	5	6
3	4	7	8

1. 송유팔현도 중「염계상련」, 2009_ 우학문화재단
2. 송유팔현도 중「방화수류」, 2009_ 우학문화재단
3. 송유팔현도 중「부강풍도」, 2009_ 우학문화재단
4. 송유팔현도 중「화외소거」, 2009_ 우학문화재단
5. 송유팔현도 중「횡거영초」, 2009_ 우학문화재단
6. 송유팔현도 중「온공낙원」, 2009_ 우학문화재단
7. 송유팔현도 중「무이도가」, 2009_ 우학문화재단
8. 송유팔현도 중「자헌잠농」, 2009_ 우학문화재단

이어지는 고사인물화 8폭도 정선이 여러 차례 그렸던 내용이 주를 이룬다. 각 장면의 내용은 중국 송대宋代 유학자 8명의 행적 혹은 시문詩文과 관련이 있다. 「염계상련」은 만년에 여산廬山에 염계서당濂溪書堂을 짓고 살았던 주돈이周敦頤(1017~1073)가 「애련설愛蓮說」에서 연꽃을 군자의 꽃이라 상찬한 일화와 관련된다. 「방화수류」는 정호程顥(1032~1085)의 시 「우성偶成」의 한 구절을 화제로 쓴 것이다. 「부강풍도」에는 정이程頤(1033~1107)가 배를 타고 유배 가던 중 거센 풍랑을 만났는데, 두려움에 떨었던 동승자들과 달리 의연한 자세를 유지했다는 고사를 재현하였다. 「화외소거」는 사마광司馬光(1019~1086)이 낙중洛中에 은거할 때 소요부邵堯夫, 즉 소옹邵雍(1011~1077)을 기다리며 쓴 시 중 "林間高閣望已久 花外小車猶未來(수풀 속 높은 누각 기다린 지 오래건만/ 꽃 밖의 작은 수레 아직도 오지 않네)"라는 구절을 화제로 삼았다. 「횡거영초」는 파초를 좋아했던 장재張載(1020~1077)가 주인공이며, 「온공낙원」에는 송대 재상으로 봉해진 온국공溫國公 사마광이 낙양에 독락원獨樂園을 짓고 은거했던 이야기를 담았다. 「무이도가」는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朱熹(1130~1200)가



무이산에 은거했던 행적과 연계되며, 「자헌잠농」은 이동李侗(1093~1163)이 농사짓고 누에치는 일의 중요성을 읊은 시 「자헌柘軒」이 모티프이다.

진경산수화와 고사인물화에 적용된 화풍은 서로 달라서 일시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금강산도의 경우에는 대담한 구도와 거침없는 필치, 서명과 인장 등을 참조할 때 1740년대 이후 말년에 제작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사인물화 8폭은 주인공 인물을 산수 배경과 자연스럽게 조화시키는 정선식鄭敾式 고사인물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인물의 옷주름 표현에 가는 먹 선을 사용한 점은 금강산도와 마찬가지로 정선의 노년기 인물화법에 가깝다. 조선시대 고사인물화가 대개 중국 성현과 은자들을 광범하게 포괄하는 양상과 달리 정선은 송대 유학자에 국한시켜 그린 점이 이례적이다. 이는 평소 정선을 후원했던 주변 문인들의 이념적 지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선필해악팔경및송유팔현도화첩』은 정선의 회화 세계는 물론 조선 후기 산수화와 인물화의 제작 경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보물 제1798호

남양주 흥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16나한상 일괄

南楊州 興國寺 塑造釋迦如來三尊坐像 및 十六羅漢像 一括

조선시대
23구
석가여래 - 높이 54.5㎝, 무릎폭 40.6㎝
제화갈라(우) - 높이 50.5㎝, 무릎폭 32.2㎝
미륵보살(좌) - 높이 51.8㎝, 무릎폭 33.0㎝
흙
남양주시 덕릉로1071번길 58

지정일 : 2013.02.28
소유자 : 흥국사(사유)
관리자 : 흥국사



<남양주 흥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16나한상>은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에 봉안된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16나한상이다. 본래 2011년 3월 소조석가삼존불좌상만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54호로 지정되었다가 이후 16나한상과 중수 관련 기록들이 추가 발견되면서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을 포함한 16나한상들이 일괄 보물로 지정되었다.

소조석가여래좌상의 머리는 육계肉髻와 경계 없이 둥그스름한 타원형 중앙계주만 표현되어 있다. 얼굴은 턱이 좁고 갸름한 편이며 눈 아래 광대뼈가 강조되었고 눈꼬리가 올라간 작은 눈, 작은 입 등이 표현되어 있다. 수인은 배 부분에 왼손을 두고 무릎 위에 오른손 끝을 가지런히 둔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결하고 있다. 착의법은 변형 우견편단右肩偏袒식으로 대의를 양 어깨에 걸치고 있지만 오른쪽 팔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며, 밋밋한 가슴 아래에는 연꽃잎형태로 주름잡은 승각기가 보인다. 오른쪽 어깨를 덮은 대의 옷주름이나 왼쪽 팔목 아래로 무릎에 드리운 넓은 나뭇잎 형태의 옷자락 등은 입체적이면서도 유연하게 표현되었다.

석가여래상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미륵보살상과 제화갈라보살상이 배치되어 있다. 보살상들은 신체비례, 얼굴 표현 등이 본존불상과 유사하다. 정수리에 상투형 머리를 올렸으며 어깨 위의 머리카락은 생략되었다.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는데 좌협시는 왼손을 가슴 부위에, 오른손을 배 부분에 두었고 우협시는 그 반대의 손 모습을 취하고 있다. 착의법은 편삼 위에 대의를 걸친 변형 통견식이나 옷주름 세부 표현 역시 본존불상과 같다. 신체에는 화형 귀걸이, 세 줄의 수식이 드리워진 목걸이, 간결한 형태의 팔찌 등을 착용하였다.

불보살의 전체적인 조형감은 1458년 제작된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국보 제282호), 1466년에서 1474년 사이 제작된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1615호), 1501년 제작된 경주 기림사 건칠보살좌상(보물 제415호), 1482년에 제작된 칠곡 천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에 조성된 불상들과 상통하고 있다.



남양주 흥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16나한상들은 작은 얼굴에 상반신이 길고 무릎이 낮은 길쭉한 비례에 마른 모습이며 사실적으로 얼굴 표정이 묘사되어 있다. 나한상들은 사자, 호랑이 등의 동물과 함께 앉아 있거나 염주, 불자, 파초, 경책을 든 모습, 합장한 모습 등 독특하고 다채롭게 표현되었다. 16나한상의 바닥면에는 각각 묵서로 번호가 적혀있어 나한상의 순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제1존자는 복두를 쓴 모습인데, 긴 눈썹과 탄력 잃은 얼굴의 주름과 앙상한 목주름 등을 통해 노쇠한 나한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복두나한은 조선후기 나한상에서도 빠짐없이 등장한다. 제2존자는 이를 드러내 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으며 두 손으로는 호랑이를 안고 있다. 제3존자는 단엄한 표정을 짓고 두 손으로 호랑이를 잡고 있다. 제4존자는 고개를 살짝 돌려 어딘가를 보고 있으며 손을 들어 설명하는 듯한 손짓을 하고 있다. 제5존자 눈을 지그시 감고 염주를 돌리며 깊은 명상에 잠겨 있는 모습이다. 특히 야무지게 다문 입가에 잡힌 세밀한 잔주름이 인상적이다. 제6존자는 정면을 주시한 엄숙한 모습이며 축 늘어진 근육이 드러난 가슴을 드러내고 양손으로 불자를 잡고 있다. 제7존자는 측면관을 하고 들어올린 오른손으로 붉은색 구슬을 받치고 있다. 제8존자는 측면관을 하고 오른손을 들어 파초를 잡고 있다. 제9존자는 경권을 펼쳐들고 독경하는 모습이다. 제10존자는 청년 비구형의 단정한 용모를 보이며 호랑이를 안고 있다. 제11존자는 청년 비구형으로 손을 단전에 모으고 삼매에 빠져든 모습이다. 제12존자는 원점문이 있는 가사를 입고, 측면관을 하였으며 세운 왼쪽 무릎을 두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다. 제13존자는 청년 비구형의 단정한 용모로 오른손은 들어 내밀고 있고, 왼손은 무릎 위에 다소곳이 내려놓은 모습이다. 제14존자는 청년 비구형으로 고개를 약간 숙여 깊은 사유에 잠긴 듯 한 모습이다. 제15존자는 청년 비구형의 부드러운 용모를 하고 있으며 합장하고 있다. 끝으로 제16존자는 통통한 청년 비구형으로 오른손으로 붉은 구슬을 잡았고 왼손은 세운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다. 나한의 연령은 크게 청년, 중년, 노년으로 분류되며, 1존자에서 16존자로 넘어 갈수록 젊어지는 경향이 보인다. 나한상과 함께 표현된 각종 지물들은 신체와 함께 조각하거나 파초와 같이 따로 만들어 끼웠는데 대체로 중국의 오대, 송, 남송기에 유행했던 지물들과 유사성을 보인다. 다만 사나운 표정에 이를 드러내고 누워 있는 마치 개처럼 생긴 동물은 중국의 나한상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독특한 형상이다.



제석천은 보관을 쓰고 천의를 걸친 의좌상倚坐像으로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자상은 2구가 남아 있는데, 모두 두건을 쓰고 손에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인왕상은 굳게 입을 다물고 있으며, 검을 쥐고 위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16나한상들 가운데 제1존자상과 제2존자상에서는 원문이 발견되었고, 10존자상의 바닥면에서는 중수와 관련된 묵서가 발견되었다. 제1존자상과 제2존자상의 원문에 따르면 16나한상은 원래 전라도 고산高山 안심사安心寺 약사암藥師庵에 모셔져 있었던 것인데, 상궁 박씨와 상궁 김씨, 청신녀淸信女 양씨의 시주로 1891년 수락산 흥국사로 옮겨와 1892년에 새롭게 점안·봉안하였으며, 이때의 점안중수에는 금곡영환金谷永煥, 한봉창엽漢峯倉曄, 덕월응륜德月應崙 등의 불화승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또한 10존자상 바닥면의 묵서에 따르면 순치順治 7년 즉, 1650년(효종1)에는 대화사大化士 해청海淸이 주관하고 서희瑞熙, 상민尙敏, 조능祖能, 성일性日 등의 화원畵員에 의해 세 번째 중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수화원 서희는 17세기에 제작한 작품이 거의 없다. 그러나 상민은 혜희의 차화승으로 보은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55)과 갑사 보장전 목조불좌상을 제작하였으며 조능은 수조각승으로서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55),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57) 등을 조성하였다.

남양주 흥국사 16나한상은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나한상 가운데 일괄로 조성된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비교적 작품 수량이 적은 조선 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1	2	3	4	5
11	12	13	14	15

6	7	8	9	10
16	17	18	19	20

1. 제1존자상 2. 제2존자상 3. 제3존자상 4. 제4존자상 5. 제5존자상
6. 제6존자상 7. 제7존자상 8. 제8존자상 9. 제9존자상 10. 제10존자상
11. 제11존자상 12. 제12존자상 13. 제13존자상 14. 제14존자상 15. 제15존자상
16. 제16존자상 17. 제석천상, 18·19. 사자상 20. 인왕상,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보물 제1803호

구리 태조 건원릉 신도비

九里 太祖 健元陵 神道碑

조선시대(1409년)
1기
전체높이 448㎝, 비신높이 227㎝, 너비 120㎝
두께 21㎝, 이수높이 116㎝, 귀부높이 105㎝
석재(화강암)
구리시 인창동 66-10

지정일 : 2013.07.16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조선왕릉관리소

1

2

1. 구리 태조 건원릉 신도비, 일제강점기_ 국립중앙박물관
2. 구리 태조 건원릉 신도비,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구리 태조 건원릉 신도비>는 동구릉 내 조선 제1대 임금 태조의 능인 건원릉에 세워진 신도비이다.

1408년 9월 건원릉을 조성하고 다음 해인 1409년(태종9) 4월 능상陵上 아래 동남쪽 방향에 신도비를 세웠다. 비신碑身의 앞면에는 권근權近이 지은 비문이 성석린成石璘의 단정한 해서체楷書體로 쓰여 있다. 비문에는 태조가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아 탁월한 무공武功과 정치력으로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을 거쳐 조선을 개국한 후 왕위에 올라 선정을 펼친 전 과정이 개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비문의 첫 머리에 '有明 謚康獻 朝鮮國太祖 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 健元陵神道碑銘幷序(유명시강헌조선국태조지인계운성문신무대왕건원릉신도비명병서)'라 표기되어 있고, 비신의 상단 중앙에 새긴 '太祖健元陵碑(태조건원릉비)'라는 전액으로 건원릉신도비임을, 비문 말미에 새겨진 '永樂 七年 四月 日 立石(영락칠년사월일입석)'이라는 연대를 통해 1409년(태종9) 4월에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신의 뒷면에는 변계량卞季良이 짓고 성석린이 쓴 비음기가 새겨져 있다. 비음기에는 태종의 특명으로 51명의 개국공신을 비롯하여 1398년(태조7) 제1차 왕자의 난 때 태종을 도와 공을 세운 22명의 정사공신定社功臣과 1400년(태종1) 태종의 즉위에 공을 세운 43명의 좌명공신佐命功臣 등 총 116명의 공신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건원릉 신도비에 공신의 명단을 새긴 것은 태종의 왕위계승 정통성을 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비음기 말미에 성석린이 글씨를 썼을 때의 나이가 72세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태종은 글씨를 쓴 공로로 성석린에게 안마鞍馬를 하사하면서 칠십이 넘었음에도 필력이 매우 뛰어나니 후세 사람이 보면 크게 탄복할 것이라며 칭찬하였다고 한다.

건원릉 신도비는 비석 양식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장엄한 귀부이수龜趺螭首 양식을 갖추고 있다. 당대 최고의 공장工匠들이 참여하여 조각 수준도 매우 높고 사실적이다. 건원릉 신도비의 이수와 비신은 한 덩어리의 대리석을 다듬어 만들었다. 이수에는 좌우 각각 2마리씩 총 4마리의 용이 비신 상단을 입에 꽉 물고 승천하는 형상을 표현하였다. 이수 가운데에 공간을 마련하여 비의 명칭을 전서篆書로 새겼다. 화강암으로 조각된 귀부는 수많은 연잎이 거북이를 떠받치고 있는 모습으로 거북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어 친근감을 준다. 몸체를 두른 귀갑龜甲 밖에는 꼬리와 네 발이 나와 있고 귀갑 위에 마련된 비좌碑座 위에 비신이 세워져 있다. 귀부 아래에는 직사각형의 복련覆蓮 대좌가 설치되어 위엄을 강조하고 있다.

건원릉 신도비는 조선시대 왕릉에 건립된 최초의 신도비이며 양식과 장식이 화려하고 장엄하여 이후 건립되는 왕릉 신도비와 사대부 신도비의 귀감이 되었다. 현존하는 왕릉 신도비 중에서 유일하게 건립 당시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어 조선 초기 왕릉제도와 석조 미술 연구의 귀중한 유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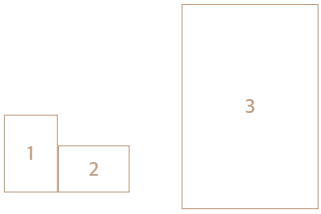
보물 제1808호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南楊州 水鐘寺 八角五層石塔

조선시대(1493년경)
1기
높이 3.3m
석재(화강암)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433번길 186

지정일 : 2013.09.04
소유자 : 수종사(사유)
관리자 : 수종사



1.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일제강점기_ 국립중앙박물관
2.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전경,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은 남양주 운길산 중턱에 위치한 수종사에 전해오는 조선시대의 석탑이다.

지대석 위에 팔각의 대석을 올리고 그 위에 불상의 팔각연화대좌와 같은 형식의 기단이 올려져 있다. 팔각 대석의 각 면을 2등분하여 장방형의 액額을 새기고 그 안에 안상眼象을 표현하였는데 안상은 기단의 받침과 탑신 받침에도 같이 새겨져 있다. 기단부는 상대 앙련석과 하대 복련석에 16엽의 연화문이 장식되어 있는데, 연판蓮瓣에는 고려 중기부터 유행했던 화려한 꽃머리 장식이 새겨져 있고, 팔각 중대석에는 각 모서리에 원형의 우주隅柱가 입체적으로 조각되었다. 5층의 탑신 역시 팔각 모서리에 원형의 우주가, 옥개석에는 각각 3단의 받침이 새겨져 있다. 옥개석 처마의 부드러운 곡선과 원형 기둥, 옥개받침 등은 목조 건축을 석재로 옮긴 모습을 잘 나타낸다. 정상부에는 합각지붕 형태의 삼각형 문양이 조각된 복발과 보주가 올려져 있다.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은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이나 북한의 향산 보현사 팔각십삼층석탑과 같은 고려시대 팔각석탑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규모가 작아지고 장식적으로 변모한 조선 초기 석탑의 형태를 잘 보여준다. 1957년 이 탑을 해체수리할 때에 1층 탑신과 옥개석, 기단 중대석에서 19구의 불상이, 1970년 이전할 때에 2층, 3층 옥개석에서 12구의 불상이 발견되었다. 함께 발견된 묵서명을 통해서 이 불상들 가운데 태종의 후궁이었던 명빈 김씨(?~1479)가 발원조성하고, 성종의 후궁들이 홍치 6년(1493)에 납입했다고 하는 불상 2구(석가여래 1구와 관음보살 1구)와 인목대비(정의대왕대비)의 발원으로 조성된 금동불·보살상, 숭정원년(1628)에 조각승 성인性仁이 조성한 금동비로자나불좌상(대좌바닥에 명문음각)이 확인되어, 석탑 건립연대는 늦어도 1493년(성종24)에 건립되었고 이래 1628년(인조6)에 중수했음을 알 수 있다.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은 건립연대가 확실하고, 각부의 부재가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된 조선시대 유일의 팔각오층석탑으로서 역사적·학술적으로 가치가 인정되어 2013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2호에서 보물로 승격 지정되었다.





보물 제1830호

분청사기 상감 '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

粉靑沙器 象嵌 '正統四年銘' 金明理墓誌

조선시대(1439년경)
1점
전체 높이 34㎝, 동체 폭 23.5㎝, 밑지름 21.5~23㎝
흙(자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2014.07.02
소유자 : 안동김씨 문온공파 대종회(사유)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분청사기 상감 '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는 조선시대 성천도호부 부사成川都護府副使였던 김명리金明理(1368~1438)의 묘지이다.

김명리 묘지는 형태는 전체적으로 종 형태인데, 상부에서 저부로 내려오면서 직경이 약간 좁아지는 비대칭의 원통형이다. 태토는 완전히 자기질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유약의 시유 상태는 좋지 않다. 상면 중앙에는 높이 4㎝의 연봉형蓮峰形 꼭지가 부착되어 있다. 연봉형 꼭지는 연꽃잎으로 장식했는데, 꽃잎의 윤곽은 음각선으로 표현하였고, 윤곽선 안에 삼각형 투각문透刻紋을 상단 9개 하단 10개씩을 서로 엇갈리게 배치했다. 바닥의 접지면은 환형環形으로 유약이 입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行者學敏 山直丹同(행자학민 산직단동)'이라는 8자가 둥근 바닥면을 따라 새겨져 있다.

묘지문은 동체 측부 외면 전면에 걸쳐 백상감 기법으로 새겼다. 다만 동체 측면의 상면 가장자리에 2줄, 저부 바닥에 가깝게 1줄의 백상감선을 둘러 묘지문을 기명할 측면을 확보했다. 이렇게 상하단을 구획하고, 다시 동체 측면에는 세로로 얕은 백상감선을 2.1~2.2㎝ 간격으로 그었다. 이 백상감선 사이에 묘지문을 해서체楷書體로 새겼다. 지문誌文은 김명리의 가계 계보·부모·이력·성품·부인과 자녀에 대한 내용을 적은 글로, 지은이는 집현전직제학集賢殿直提學을 지낸 유의손柳義孫(1398~1450)이며, 김명리의 첫째 아들 맹헌과의 교분으로 지문을 짓게 되었다고 한다.

글을 지은 시기는 김명리가 1438년(세종20) 12월 죽은 후 이듬해인 1439년 10월 하순이다. 따라서 묘지의 제작 시기 역시 1439년 10월 하순 이후로 추정된다. 묘지가 제작된 곳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김명리가 퇴직 후 광주 탄동리廣州 炭洞里에 머물렀고, 무덤이 경기도 광주시 광남동 목동(출토당시 경안읍 목리)에 위치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경기도 광주의 가마터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분청사기 상감 '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는 1989년 3월 경기도 광주시 광남동 목동(출토 당시 경안읍 목리)에 위치한 김명리 부부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출토되었는데, 김명리 무덤 앞 상석 뒤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출토된 후 1996년까지는 안동김씨 문온공파 종손이, 그 후에는 안동김씨 문온공파 대종회 회장이 보관하였다가 2011년 10월부터 경기도박물관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다.

이 묘지는 비록 개인사를 적고 있으나 조선 초기의 사료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 자료적 가치가 높고, 깔끔한 해서체 각서는 조선 초기 서예사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출토지가 확실하고 1439년이라는 명확한 제작시기, 희귀한 종모양의 형태 등은 도자사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1
2
3

1. 분청사기 상감 '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 바닥면, 2007_ 경기도박물관
2. 분청사기 상감 '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 윗면, 2007_ 경기도박물관
3. 분청사기 상감 '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 2007_ 경기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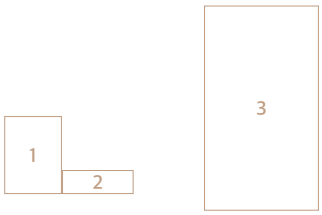
보물 제1897호

서경우 초상 및 함

徐景雨 肖像 및 函

조선시대
1건 2점(초상화 1폭, 함 1점)
초상 - 세로 175.4㎝, 가로 98.8㎝
비단
포천시 호국로

지정일 : 2016.05.03
소유자 : 서동성(사유)
관리자 : 서동성



1. 서경우 초상 안면부,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서경우 초상 나무함,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서경우 초상,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서경우 초상 및 함>은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서경우徐景雨(1573~1645)를 그린 초상화와 초상화를 넣었던 나무함이다. 서경우의 본관은 달성達城, 자는 시백施伯, 호는 만사晩沙이다. 1603년(선조36)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1612년(광해군4) 정주목사定州牧使가 되었다. 다음 해 선조의 유교遺敎를 받은 신하들이 배척될 때 아버지가 유배당하자 벼슬을 버리고 10년간 은거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다시 기용되어 1625년(인조3) 예조참의·승지 등을 지냈다. 이듬해 대사간이 되고, 1627년의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왕을 호종하였으며, 1630년 좌승지를 거쳐 다시 대사간·대사헌·경기감사·대사성·도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643년 형조판서로서 성절 겸 진하사聖節兼進賀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우의정에 승진하였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서경우 초상은 오사모에 흑색 단령을 입고 의자에 공수拱手자세로 앉아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검은색 사모紗帽는 모정이 평평하고, 양쪽으로 펼쳐진 둥근 날개는 넓고 짧은 형태로 17세기 초의 모제帽制를 반영하였다. 사모는 굵고 검은 선으로 윤곽을 규정하고, 그 안에 엷은 먹으로 운문雲紋을 그려 넣었다. 단령은 검은색 운문단 무늬로 채색을 두텁게 입혀 의습衣褶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주름들을 간략하게 나타내 몸체의 윤곽과 굴곡을 드러내지 않았다. 단령의 틈새로 섬세한 문양이 새겨진 녹색 내공內工과 청색 철릭帖裏이 드러나 있으며, 단령 자락이 뒤로 뾰족하게 뻗쳐있다. 가슴에는 한 쌍의 백학과 구름, 모란을 수놓은 흉배胸背를 착용하고 있다. 인물의 양옆으로는 의자의 손잡이가 뻗어 나와 있는데 입체감이 전혀 표현되지 않았다. 바닥에는 화려한 채전이 높게 깔려있으며, 돗자리가 덮인 족좌대足座臺 위에는 흑피혜黑皮鞋(검은 가죽신)를 신은 발을 '八'자형으로 올려놓았다.

안색은 옅고 밝은 살빛을 띠며, 이목구비는 약간 짙은 갈색 선으로 하였다. 이목구비는 선묘로 그렸고 눈썹과 수염의 검은 부분은 담묵처리를 한 후 털 올을 그렸는데, 전반적으로 세밀한 묘사와 표현이 돋보인다. 코는 옆에서 본 형이고, 팔자주름 부위에도 약간의 선염渲染을 넣어 입체감을 주었다.

화면 우측상단에 '우의정만사서공화상右議政晩沙徐公畫像'이라는 표제가 있어 이 초상은 서경우가 우의정에 오른 1644년(인조22) 이후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서경우의 나이가 71세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초상의 모습과 일치시키기 어렵다. 흉배의 도상과 초상 속 인물의 모습을 보면 서경우가 40~50대 장년이었던 광해군대에 그려놓은 초본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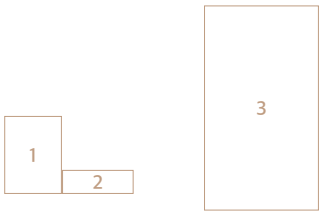
보물 제1898호

서문중 초상 및 함

徐文重 肖像 및 函

조선시대(18세기 초)
1건 2점(초상화 1폭, 함 1점)
초상 - 세로 155.0㎝, 가로 103.2㎝
비단
포천시 호국로

지정일 : 2016.05.03
소유자 : 서동성(사유)
관리자 : 서동성



1. 서문중 초상 안면부,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서문중 초상 나무함,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서문중 초상,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서문중 초상 및 함>은 조선 후기의 문신인 서문중徐文重(1634~1709)을 그린 초상화와 초상화를 넣었던 나무함이다. 서문중의 본관은 달성達城, 자는 도윤道潤, 호는 몽어정夢漁亭이다. 당숙인 함경도관찰사 서원리徐元履에게 입양되었다. 1657년(효종8) 생원시에 합격하고, 1673년(현종14)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동몽교관童蒙教官에 임명되었다. 1680년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당상관에 올랐으며, 다음 해 광주부윤廣州府尹이 되어 남한산성 수축에 힘썼다. 1682년 경상도관찰사에 제수되었으나, 빠른 승진으로 회자되자 부임하지 않았다가 이듬해 호조참판을 거쳐 경상도관찰사가 되었다. 그 뒤 예조참판·도승지·좌윤·공조참판을 거쳐 1686년 공조판서, 1698년에는 우의정, 1699년에는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이 되었다. 정치적으로 소론小論에 속했으며, 군사제도와 기근구제 등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서문중 초상은 오사모에 담홍색 시복時服(관원들이 평상시 공무복으로 입던 옷)을 입고 의자에 공수拱手자세로 앉아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검은색 사모의 각角은 왼쪽을 조금 길게 하여 인물의 얼굴과 시선의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단령은 깊게 파이지 않았고, 옷주름은 비수肥瘦의 변화가 거의 없는 분홍색의 가는 선으로 묘사하여 다소 경직된 느낌을 주고 있다. 가슴에는 삽은대鈒銀帶를 둘렀으며 의자에는 표범가죽이 덮여 있고, 족좌대足座臺에는 무늬가 없는 민돗자리가 깔려있다. 족좌대의 모습은 정면의 모습과 측면의 모습이 혼재되었으며, 돗자리 윗부분은 역원근법으로 뒤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이다. 좌안 7분면의 얼굴은 코와 눈두덩 주위의 움푹 들어간 부분, 입 주위 등의 주름을 뚜렷하게 한 후 음영을 넣어 묘사하였다. 특히 풍성한 수염의 치밀하고도 섬세한 묘사가 돋보인다. 얼굴과 신체의 비례가 적절하고 인물의 개성과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표피豹皮를 제외하면 흑색, 담홍색, 하늘색, 흰색만을 사용하였고, 옷주름이나 기타 세부 표현을 간략하게 묘사하였다. 이에 비해 표피와 삽금대는 세밀하고 정교하게 표현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끌어내고 있다.

서문중 초상은 알맞은 신체 비례와 비교적 사실적인 옷주름선, 상과 교의, 족좌대의 모습 등에서 조선 중기 17세기 초와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18세기 초 이후의 양식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는 수작이다. 조선시대 후기에 제작된 나무함이 함께 남아있어 보물로 일괄 지정되어 있다.






領議政夢湖徐公直像

보물 제1901-2호

조선왕조의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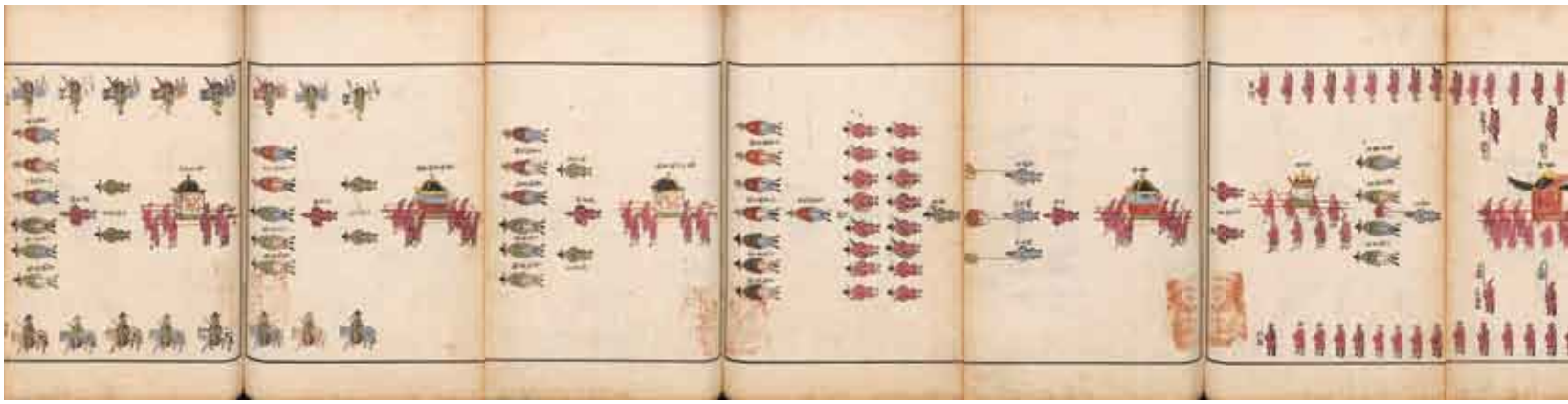
朝鮮王朝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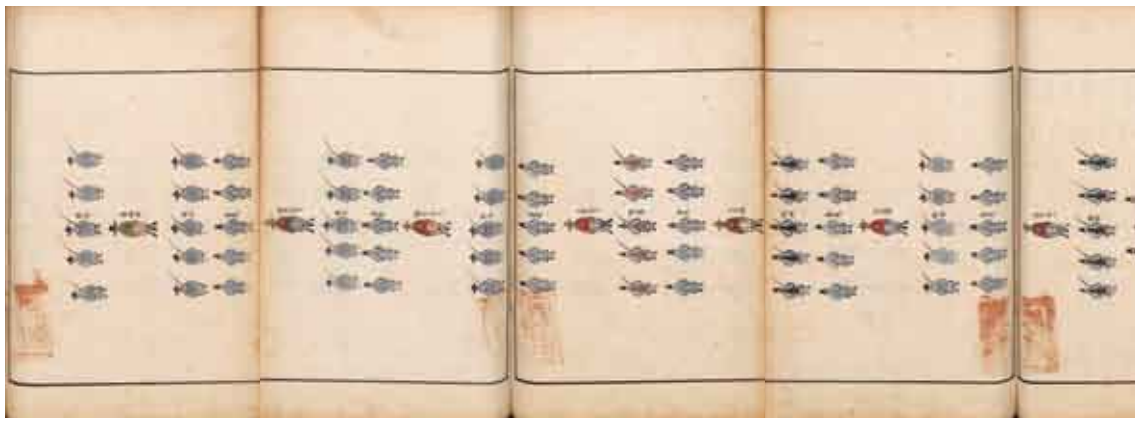
조선시대(1616년~1909년)
291건 384책
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2016.05.03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왕조의궤>는 조선왕조에서 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嘉禮를 비롯한 여러 대사大事를 치를 때 후세의 참고를 위하여 그와 관련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자세하게 정리한 책이다. 의궤는 태조 때 최초로 편찬하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까지 계속되었으나, 조선 전기 의궤는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모두 임진왜란 이후에 제작한 것이다. 조선왕조의궤는 제작 방식에 따라 손으로 쓴 필사본筆寫本과 활자로 찍어낸 활자본活字本으로 구분할 수 있고, 열람자에 따라 임금이 보는 어람용御覽用과 춘추관·지방사고史庫 등에 보관하기 위한 분상용分上用으로 나누어진다.

의궤가 작성되는 주요 행사로는 왕비·세자 등의 책봉冊封이나 책례冊禮, 왕실 구성원의 결혼, 선대先代 인물들의 지위를 높이는 추숭追崇이나 존호가상尊號加上, 빈전殯殿이나 혼전魂殿의 마련에서 능원陵園의 조성 및 천장에 이르는 각종 상장례喪葬禮, 신주를 태묘太廟(종묘)에 모시는 부묘祔廟(신주를 태묘에 모시는 부묘)를 비롯한 여러 제례祭禮가 있다. 그밖에 국왕이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몸소 농사를 짓는 친경親耕, 궁궐건물의 건설 및 보수, 공신 녹훈, 왕실 인장印章이나 국왕 초상화의 제작 등에 편찬되었으며, 정조대에는 화성의





건설과 국왕의 행차에 대해서도 각기 장편의 의궤가 작성되었다. 행사가 끝나면 의궤를 편찬할 기구와 담당자가 결정되고 주관 관서인 도감과 관련 관서의 기록들을 자료로 삼아 편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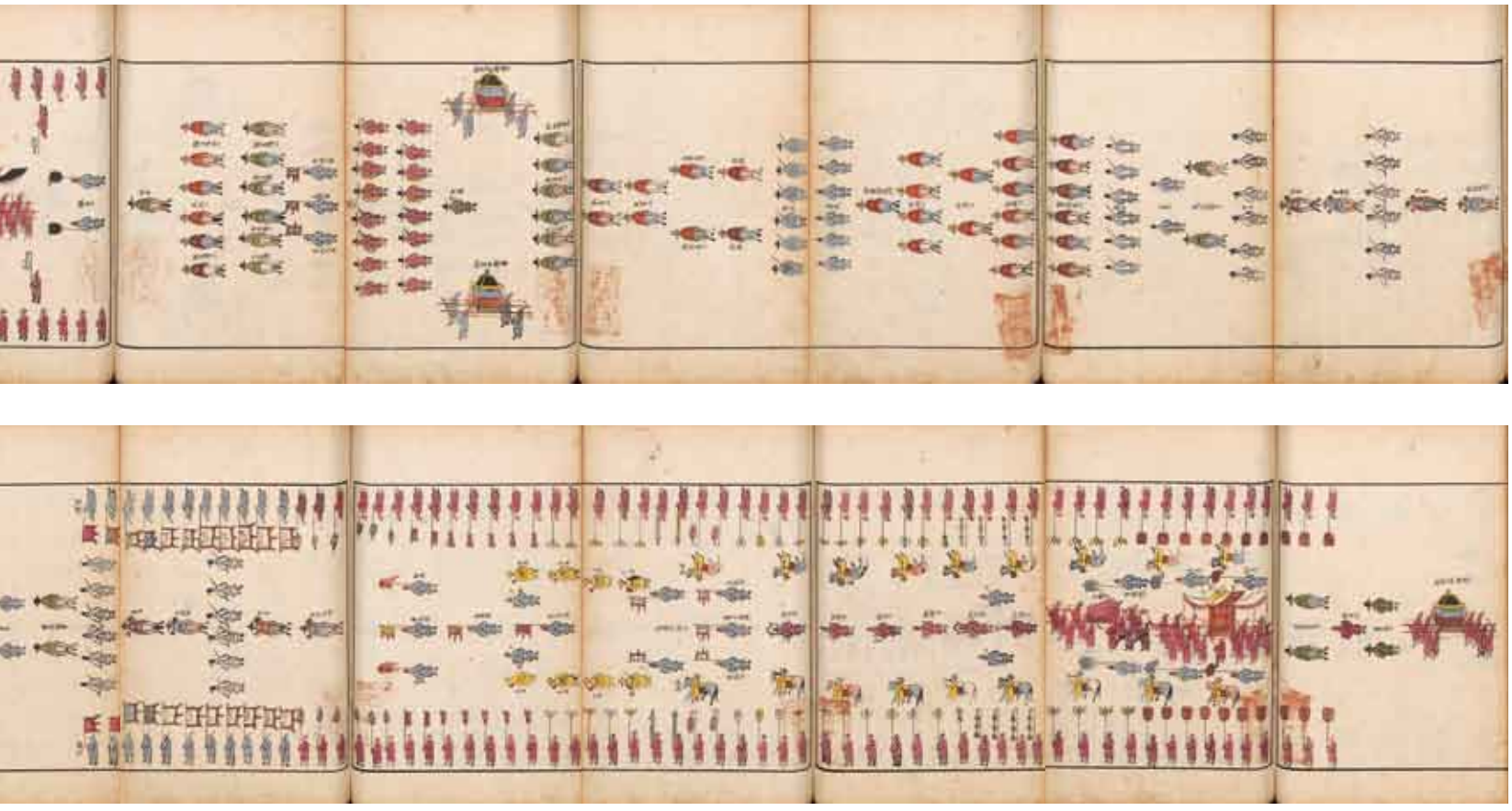
의궤에 기록되는 내용은 행사 전반에 관한 것으로 행사의 과정을 날짜에 따라 기록한 각종 공문서를 비롯하여 업무의 분담, 담당자의 명단, 동원된 인원, 소요된 물품, 경비의 지출,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것들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행사의 가장 중요한 행렬은 반차도班次圖를 통해 표현했다.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조선왕조의궤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조선왕조의궤는 일제강점기 이왕직도서관에서 관리하던 것으로, 해방 이후 구황궁사무청 장서각(1945년),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창경원사무실(1955년), 문화재관리국 창경원사무실(1961년), 문화재관리국 장서각사무소(1969년) 등을 거치면서 일부 도서·고문서가 추가되어 1981년 11월에 한국학중앙연구원(당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에 이관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조선왕조의궤는 총 291건 384책으로, 어람용이면서 비유일본이 14건, 분상용이면서 유일본이 28건, 분상용이면서 비유일본이 249건이다. 이 자료들은 적상산성사고赤裳山城史庫, 종묘서宗廟署, 사직서社稷署, 선원전璿源殿, 예조禮曹 등에 분상되어 있던 것으로 이중 대부분의 의궤는 전라도 무주 적상산 사고에 보관되었던 분상용 의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적상산 사고본 의궤의 경우 대부분 본문 중에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무주적상산사고소장 조선총독부기증본)'과 '李王職圖書之章(이왕직도서지장)'이란 도장이 찍혀 있으며, 1918년과 1919년에 표지를 개장改粧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종묘서, 예조 등에 분상되었던 의궤는 원래 표장을 유지하고 있어 조선시대 의궤의 원래 표장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의궤의 가치는 의례의 과정을 정리한 내용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장황의 정수精髓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비단이나 종이로 서책이나 문서를 꾸미는 장황은 당시의 문화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된다.

[정조] 부묘도감의궤 반차도, 2016_ 한국학중앙연구원





의궤는 임금에게 올리는 어람용과 관리나 사고에 보관하는 분상용으로 나누어 제작하는 데, 동일한 내용을 수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원래 분상용 의궤의 장황은 어람용 의궤와 달리 삼베로 표지를 만들고, 별도의 제첨 없이 표지에 직접 제목을 썼다. 또한 의궤는 크기와 분량 때문에 책을 고정하기 위해 실로 묶는 대신 그 자리에 변철을 대고 못(釘)으로 고정하였다. 이때 변철을 어람용은 문양을 새긴 주석으로 제작하지만 분상용은 문양이 없는 무쇠를 사용하였다. 사용하는 못도 어람용 5개, 분상용 3개로 차이가 있다. 특히 어람용에는 변철과 못 사이에 국화동이라는 장식을 덧대었다. 현재 적상산사고 의궤는 일관되게 붉은 색 종이로 만든 표지로 개장하고, 변철과 못을 제거하였으며, 뒤표지 안쪽 면에 개수改修 일자를 찍어놓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조선왕조의궤 중에는 다른 기관 소장본과는 달리 적상산사고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한 의궤가 존재한다. 적상산사고 의궤 중 일부에는 해당 의례에 따른 의궤의 제작부수와 분상처가 적혀 있다. 통상 의궤는 4건에서 9건을 제작하여 각 처에 분상하지만 일반적으로 강화부,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의 4사고四史庫라고 해서 모든 의궤를 봉안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선원보략수정전라도무주적상산봉안의궤璿源譜略修正全羅道茂朱赤裳山奉安儀軌』는 1757년 2월 15일 왕비인 정성왕후貞聖王后가 승하하고, 3월 26일에는 대왕대비이자 영조의 모후인 인원왕후仁元王后가 승하하자 이에 따라 1758년(영조34)에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을 수정하며 제작한 것인데, 내제에 오직 무주 적상산사고에 봉안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조선왕조의궤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조선만의 독특한 전통으로서, 예법을 중시하고 기록을 철저히 보존하려는 조선시대의 통치이념과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 장릉봉릉도감의궤, 2016_ 한국학중앙연구원
2. [고종·순종] 어진도사도감의궤 표지, 2016 _ 한국학중앙연구원
3. [정조] 부묘도감의궤, 2016_ 한국학중앙연구원





用端川青玉圖徑六寸一分好徑四分通厚七分有奇
黃琮一坐 地壇玉位用

用端川黃玉方徑四寸有奇中厚七分邊厚二分微作斜首
下正方一角有縱理如山形亦以象地



金節一柄
柄用槍柄木長八尺朱紅漆杠圖四寸三分金龍首上施圖



圖說
朝鮮國王之印 銀鍍黃金鈕 龍頌龜身



板脊補鈕以銀改鑄方四寸高一寸一分鼻五分鈕長四
寸一分廣二寸四分頭高二寸六分體高一寸七分用體
腹下有橫穴全體并鍍黃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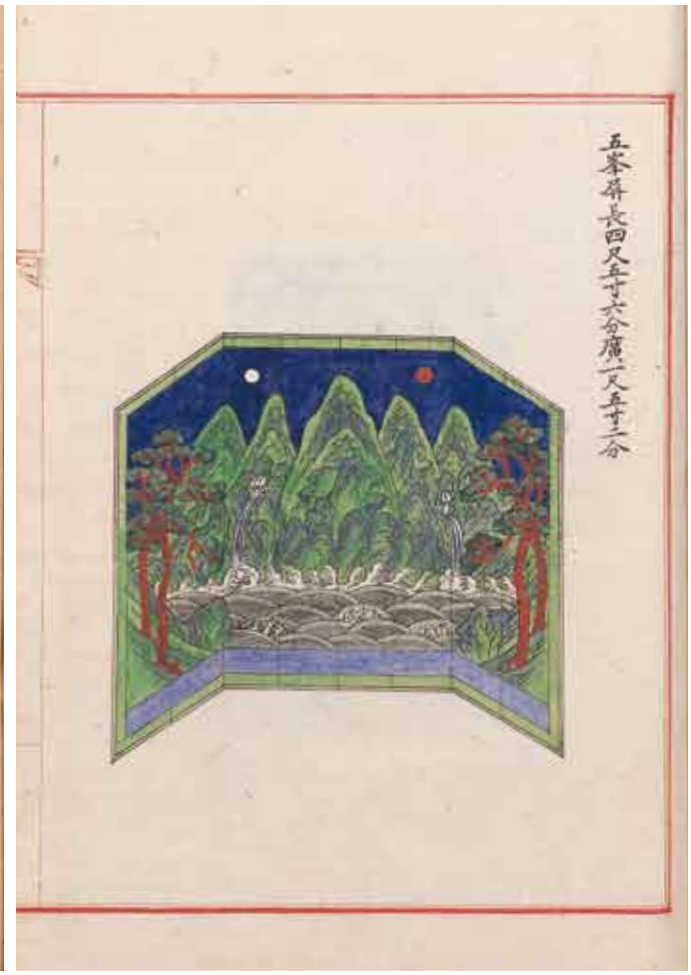


用松板長三尺五寸七分廣一尺七寸五分足長一尺一寸厚七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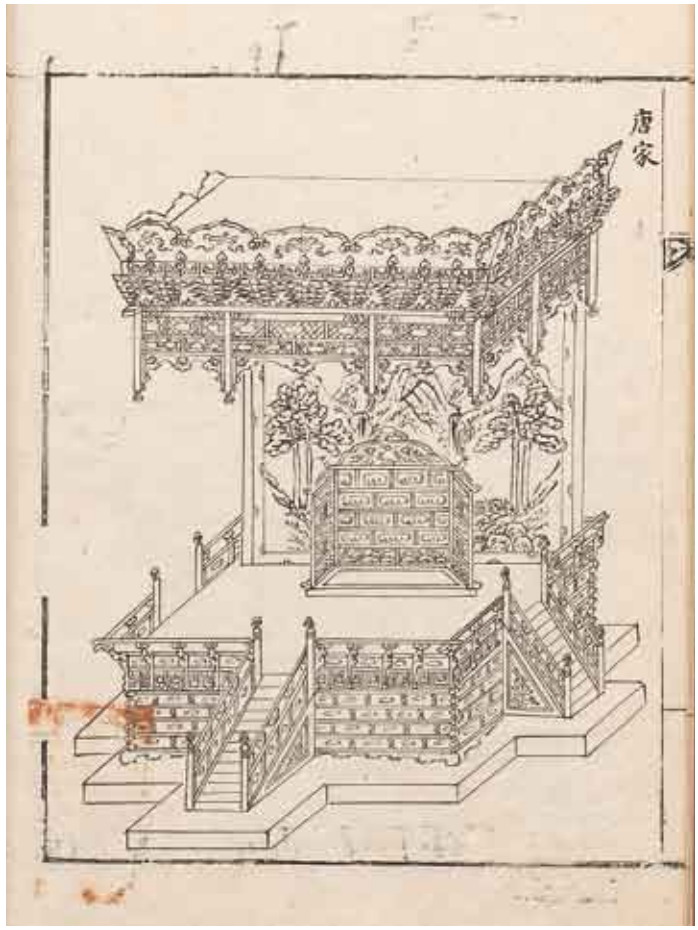
朱簫機 標上有雲角有圓環及懸索下有算葉風穴

用真木掇木柱次真木長八尺廣厚各二寸五分二条槃次真木長六尺廣厚二寸五分三条照湯次松木長六尺廣六寸厚三寸二片風穴板次薄掇板一立小攔次薄掇板一尺五寸算葉次松板長二尺廣一尺厚一寸二片

茶明入 丁粉一升五合 朱土一斗 硃朱紅一兩三錢阿膠二兩石硼朱一兩五錢片腦腊半半片明油三合



五峯屏長四尺五寸六分廣一尺五寸二分



唐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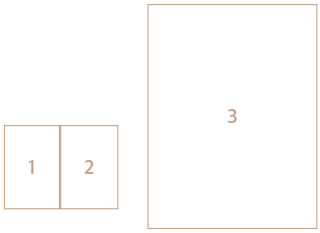
보물 제1924호

조선경국전

朝鮮經國典

조선시대
1권 1책(79장)
세로 27.1㎝, 가로 17.7㎝
종이(닥종이)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

지정일 : 2016.11.16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수원화성박물관



1·2. 조선경국전 서문, 2012_ 수원화성박물관
3. 조선경국전 전문 중 정보위, 2012_ 수원화성박물관

<조선경국전>은 1394년(태조3) 3월 정도전鄭道傳(1342~1398)이 저술하여 그해 5월 태조에게 지어 바친 사찬私撰 법전으로 건국이념과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기본 방향이 담겨있다.

『조선경국전』의 서론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요지로서 정보위正寶位·국호國號·정국본定國本·세계世系·교서敎書를 실었다. 천지자연의 이치에 따라 인仁으로써 왕위를 지켜 나갈 것, 국호를 '조선'으로 정한 것은 기자조선箕子朝鮮의 계승이라는 것, 왕위 계승은 장자長者나 현자賢者로 해야 한다는 것, 교서는 문신의 힘을 빌려 높은 수준으로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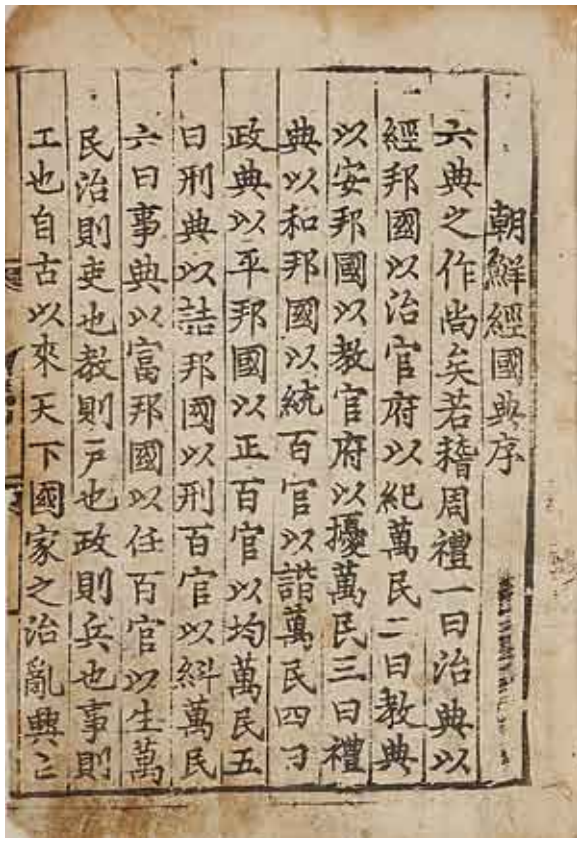
서론 다음에는 본론으로 치전治典·부전賦典·예전禮典·정전政典·헌전憲典·공전工典 등 6전六典으로 되어 있다. 각 전典은 총서에 이어 주요 소관업무를 소목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치전에서는 군신君臣의 직능과 관리 선발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였다. 특히 재상宰相이 통치의 실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해 능력 본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부전에서는 국가의 수입과 지출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야 하고, 국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 군현제도와 호적제도를 정비하고 농상農桑을 장려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국가 수입을 공정히 분배하기 위해 국민의 토지 소유를 균등하게 할 것, 병작반수竝作半收를 금할 것, 부세賦稅를 가벼이 할 것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의 지출 항목으로는 상공上供·국용國用·군자軍資·의창義倉·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을 들었다. 되도록 지출을 억제해 국가의 예비경비를 많이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正寶位

易曰聖人之大寶曰位天地之大德曰生何以守位曰仁天子享天下之奉諸侯享境內之奉皆富貴之至也賢能効其智豪傑効其力民庶奔走各服其役惟人君之命是從焉以其得乎位也非大寶而何天地之於萬物一於生育而已蓋其一原之氣周流無間而萬物之生皆受是氣以生洪纖高下各形其形各性其性故曰天地







1
2
3

4

1. 조선경국전 치전 중 관제 관련 조목, 2012_ 수원화성박물관
2. 조선경국전 공전 중 궁원, 관부 관련 조목, 2012_ 수원화성박물관
3. 조선경국전 헌전 중 포망단옥, 영조, 하방 관련 조목, 2012_ 수원화성박물관
4. 조선경국전 헌전 중 후서, 2012_ 수원화성박물관


之利然則其所以時其役而程其力者皆有法存焉有司之所當知也

後序

臣又按憲者六典之一而五者莫不資是以有成故吏典之黜陟非憲則無以公其選戶典之徵斂非憲則無以均其法禮典之節度非憲則無以肅其儀政典之號令非憲則無以威其衆工典之興作非憲則無以省其力而合其度矣若夫刑律又即憲中之憲也蓋五者各一其事有錯見於六典之中者則各於其典隨其義而論之而憲典無乎不在輔治之法莫備於此也然孔子曰道之以德齊之以刑民免而無恥道之以德齊之以禮有恥且格觀此可以知本末輕重之倫矣今我

殿下德敎乎仁禮得其序可謂得爲治之本矣其議刑斷獄以輔其治者一以大明律爲據故臣亦其總目作憲典諸篇又述其略作後序云

工典總序

예전에서는 조회·제사·교육·외교, 기타 관혼상제 등에 관한 의례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예는 질서로 정의되고, 그 질서는 상하 차등을 전제로 하되 상하가 서로 협력하는 조화관계가 중시되었다. 교육과 관련해 서민 이상 신분의 교육 참여 기회를 넓히고, 고시제도를 강화해 능력 본위로 인재를 뽑을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언로를 개방해 상하의 통정通情을 원만하게 할 것과 사대외교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관혼상제의 의례는 종전의 토속적이며 불교적인 의례를 버리고, 유교적 의례로 대치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물질적 낭비의 폐단을 경계하고 있다.

정전은 곧 병전에 해당한다. 병전을 정전이라 한 것은 병제가 사람을 바르게 하는 도덕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입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병제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병농일치, 중앙군과 지방군의 이원 체제, 무기 개량과 훈련 개선, 둔전屯田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운영원칙으로서 백성과 군사를 아끼고 나라를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전제하였다.

헌전에서는 형벌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형벌은 어디까지나 정치의 보조수단이지 정치의 근본이 되어서는 안 되며, 형벌과 법은 도덕정치를 구현하는 예방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공전에서는 국가의 각종 물품 제조나 토목공사 등을 운영, 집행하는 원칙을 다루고 있다. 사치를 금지하고 재정 낭비를 경계할 것, 백성을 지나치게 부려 피로하게 하지 말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 법전에서 제시된 통치규범은 주나라 제도인 『주례周禮』의 6전六典 체제를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중국 역대의 제도를 절충하였으며 그것을 다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주례』에서는 재상·과거·병농일치 제도의 이상을 빌려 왔으며, 한나라·당나라의 제도에서는 중앙집권 및 부국강병과 관련되는 부병府兵·군현·부세·서리胥吏선발제도의 장점을 흡수하였다. 또한, 헌전은 『대명률大明律』에 의거하였다.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은 비록 개인의 사찬私撰이기는 하지만, 그가 조선건국의 중심에 있었고, 실제적으로 조선건국의 이념을 창안한 실질적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그의 이 저작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이 책이 토대가 되어 이후 『경제육전經濟六典』·『육전등록六典謄錄』등 법전의 편찬단계를 거쳐서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편찬에 모체가 되었다는 점과, 조선전기의 간본으로는 이 책이 유일한 책이라는 점에서 도서출판과 법전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보물 제1926호

협주명현십초시

夾注名賢十抄詩

조선시대(1452년)
3권 3책
세로 32.0㎝, 가로 20.4㎝
종이(닥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2017.01.02
소유자 : 손성훈(사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협주명현십초시>는 생몰년 미상의 유자儒者가 고려 초에 편찬한 시선집인 『십초시十抄詩』에 고려 말의 승려 자산子山이 주석注釋을 붙여 편찬한 책이다.

최치원崔致遠, 박인범朴仁範, 최승우崔承祐, 최광유崔匡裕 등 신라인 4명을 포함한 당나라의 저명한 시인 30명의 칠언율시七言律詩를 각 10편씩 뽑아 총 300편을 수록하였다. 최치원, 박인범, 최승우, 최광유는 당나라로 유학 가서 빈공과賓貢科에 급제한 신라인들로 이들의 시 30수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의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작품들이다.

『협주명현십초시』는 목판본 3권 3책으로 상·중·하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석을 붙인 자산의 서문과 중간重刊의 책임자였던 이운준李云俊의 발문, 권람의 발문이 남아있어 그 간행목적과 배경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자산의 서문에 '우연히 본조(고려)의 앞선 위대한 유학자가 당나라 현인들의 전집에 의거해 유명한 시 각각 10수씩 모두 300수를 가려서 이름을 십초시라고 한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전해진 것이 유래가 오래되었고, 시체의 풍격이 모범적이고 단아하여, 후진 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 이 책은 고려인에 의해 편찬되었고, 시문詩文을 배워서 관직에 나가려는 후진 학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2

1·2. 협주명현십초시, 2016_ 문화재청

간행 목적과 관련해서는 이운준의 발문에서도 '이백상李伯常이 학문을 흥성시키려는 뜻을 가지고 『십초시』 한 권을 얻어 목판에 새겨 널리 보급하였다'고 간행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권람權擥(1416~1465)의 발문에 따르면 『협주명현십초시』는 후지원後至元 3년 정축년丁丑年 즉, 1337년(충숙왕 복위5)에 안동부安東府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는데, 이를 권사복權思復(1280~1360)이 진사進士시험을 준비하면서 필사해 놓은 것을 1452년(단종1)에 권람의 교정을 거쳐 밀양부사密陽府使 이백상李伯常과 이긴李緊이 중간重刊하였다고 한다.

『협주명현십초시』는 우리나라에서 한시를 수용하기 시작한 사정과 문학적 성과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자료로써 고려 말과 조선 초 서적의 유통과 문화 수용의 양상, 한시의 학습과 활용 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16세기 중반 조선의 학문과 출판 수준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보물 제1927호

박동형 초상 및 함

朴東亨 肖像 및 函

조선시대
- 전신좌상본(1728년)
- 반신상본(1751년)
2건 4점
전신좌상본 - 세로 172㎝, 가로 103.0㎝
반신상본 - 세로 45.5㎝, 가로 30.0㎝
종이, 비단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2017.01.02
소유자 : 박무남(사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동형 초상 및 함>은 조선 중기의 문신인 박동형朴東亨(1695~1739)을 그린 초상화와 초상화를 넣었던 나무함이다.

박동형의 본관은 충주, 자는 수부秀夫, 호는 소와당笑臥堂, 시호는 충효忠孝이다. 아버지 박세량朴世良과 어머니 개성차씨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나 이듬해 백부인 박세화朴世華의 양자가 되었다. 당시 노론의 영수였던 도암 이재의 문하생으로 사헌부 감찰과 병조참의兵曹參議 등을 역임하였다. 1728년(영조1) 이인좌李麟佐, 정희량 등이 주도하여 일으킨 무신란 발발 당시 호남 지역에서 난에 가담한 태인현감 박필현朴弼顯을 포획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분무공신奮武功臣 3등에 책록된 후 중추부 동지사(종2품) 가선대부를 제수받고, 충원군忠原君에 봉해졌다.

박동형 초상은 1728년에 그려진 전신좌상본과 1751년에 그려진 반신상본 두 점이 전해진다. 박동형 초상은 오사모에 단령을 입고 의자에 공수拱手자세로 앉아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검은색 사모는 높이가 상당히 높고 날개가 좌우로 곧게 뻗어 있는 모습이다. 짙은 청록색 단령團領은 깃이 깊게 파여 있고 소매는 밑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모습으로, 선묘로만 윤곽과 주름을 나타냈다. 가슴에는 오색구름과 쌍학이 수놓인 흉배를 착용하고 있으며, 허리춤에는 학정금대鶴頂金帶를 두르고 있어 분무공신에 녹훈되어 종2품의 중추부 동지사가 되었을 때의 품계와 부합한다.

안면은 전체적으로 밝은 살구색을 주조로 하고, 머리에서 턱으로 이어지는 골격과 눈두덩 주위의 움푹 들어간 부분, 입 주위의 주름 등은 보다 짙은 색으로 농담을 조절하여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눈 밑으로는 약간 붉은색을 사용하여 생기 있는 모습을 구사하였다. 인물의 양옆으로는 의자의 손잡이가 나와 있는데 심하게 구부러지고 입체감을 전혀 표현하지 않았다. 의자에는 표범가죽이 깔려 있다. 표범의 얼굴 부분을 족좌대 위 중앙에 살짝 내비치고 표범의 앞발부분은 족좌대의 양옆으로 내려놓았으며, 좌측 의자 옆으로는 표범의 뒷발이 표현되어 있다. 나뭇결이 정교하게 묘사된 족좌대足座臺 위에는 검은 가죽신을 신은 양발이 '八'자형으로 놓여있다.

박동형 초상은 표현형식과 기법면에서 18세기 초반의 초상화들에서 전형적으로 엿볼 수 있는 특징을 보인다. 전신좌상본과 반신상본은 동일초본으로 그린 것으로 동일한 시기, 동일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다만 전신좌상은 유소流蘇를 비롯해 옛 장황을 간직한 반면, 반신상은 후대 장황으로 바꾼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편 초상과 함께 나무함이 전해내려 오는데 초상화가 제작될 때 함께 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1 2

1. 박동형 초상(반신상본), 2016
2. 박동형 초상(전신좌상본), 2016_ 문화재청

보물 제1942호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華城 龍珠寺 大雄寶殿

조선시대(1790년)
1동
정면 3칸, 측면 3칸, 단층건물, 팔작지붕
목재
화성시 용주로 136

지정일 : 2017.08.14
소유자 : 용주사(사유)
관리자 : 용주사



1.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전경,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내부 천장,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일제강점기_ 국립중앙박물관
4.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1969_ 경기도
5.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1980_ 화성시

<화성 용주사 대웅전>은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륭원縣隆園의 능침사찰陵寢寺刹로 건립된 용주사의 주불전이다. 사찰 창건이 엄격하게 금지된 조선시대에 조선 왕실은 숭유억불로 대표되는 불교시책과는 별도로 왕실 조상들의 명복을 비는 원당사찰願堂寺刹을 조성하였다. 특히 무덤 곁에 마련하는 능침사찰은 대표적인 원찰 가운데 하나이며, 제수를 장만하는 일 가운데 두부를 제조하므로 조포사造泡寺로도 불렸다. 정조가 친부인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전하면서 곁에 조포사로 마련한 사찰이 바로 용주사였다.

용주사의 건립은 왕실의 공사발주, 관부로부터 재원조달, 계획부터 공사감독까지 관 주도로 이루어졌다. 1790년 2월 19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4월 15일에 상량을 하였고, 마무리 건축 공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불상을 조성하여 점안·봉안하였다. 『정조실록正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현륭원의궤顯隆園儀軌』,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 등 관련 사료를 통하여 당시의 공사내용, 공사재원, 공사집행 및 공사인력 등 공사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전각은 그 기능에 따라 대부분 승장들이 맡아서 지었다.

용주사 주지였던 등운等雲이 1825년에 기록한 「본사제반서화조작등제인방함本寺諸般書畵造作等諸人芳啣」을 살펴보면, 대웅전의 목공사를 맡은 도편수는 전라도 장흥 천관사의 문언文彦이며, 대웅전의 단청은 가선嘉善과 민관敏寬이 그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용주사 대웅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겹처마, 팔작지붕건물이며 18세기 후반 불전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면서 왕실이 주도



적으로 창건한 사찰의 주불전인 만큼 조선시대 궁궐, 관아, 왕릉 등에서 보이는 형식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어칸이 넓고 협칸이 좁은 평면, 내부에서 측면 기둥열보다 약간 뒤로 물려 고주高柱를 배치한 점, 파련각波蓮刻의 소란小欄을 끼우고 그 위로 꽃이 그려진 양판을 덮은 우물천장 구성방식, 각 칸마다 창방에 별지화別枝畵를 그린 점, 전면 어칸 좌우 기둥과 귀공포에는 용조각이 끼워져 머리 부분이 돌출되어 있는 점 등은 모두 18세기 후반 재건되거나 중건된 불전에서 파악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양식 이외에 장대석 기단과 원형주좌圓形柱座를 둔 방형초석, 계단 대우석大隅石, 대웅보전 둘레에 깔려있는 전돌, 지붕의 취두와 용두, 양성바름 등은 18세기 일반사찰의 주불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요소들로 용주사의 왕실 원찰적 요소로 파악된다.

용주사는 창건 이후 1900년(고종37)에는 성용해成龍海 스님이, 1931년에는 강대련姜大蓮 주지가 중수하였다. 이에 따라 용주사 대웅보전 역시 몇 차례의 보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1965년에 관응觀應 스님이 대웅보전을 중수한 것과 1987년 서정대 주지가 대웅보전 중수한 기록이 남아 있다.

용주사 대웅보전은 여러 번의 중수가 있었지만 외부 단청을 제외하고는 초창 때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고 능침사찰의 주불전으로 권위와 격식, 시대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건축물로 1983년 경기도문화재자료 제35호로 지정된 이후 2017년 보물 제1942호로 승격되었다.









보물 제2003호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

南楊州 佛巖寺 木造觀音菩薩坐像

조선시대(1649년)
보살상 1구, 복장유물 3점
(조성발원문 1점, 후령통 1점, 중수발원문 1점)
보살상 - 전체높이 67.0㎝, 어깨폭 23.0㎝, 무릎폭 35.2㎝
조성발원문 - 33.2㎝, 33.2㎝
중수발원문 - 33.2㎝, 22.7㎝
후령통 - 높이 18㎝, 너비 3.0㎝
목재, 종이, 금속
남양주시 불암산로 190

지정일 : 2018.10.30
소유자 : 불암사(사유)
관리자 : 불암사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17세기 전반기 전국 각지에서 크게 활약한 조각승 무염無染을 비롯하여 성수性修, 심인心印, 상림尙林, 경성敬性 등 모두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여 1649년(인조27)에 제작한 불상이다.

관음보살상은 연화대좌에 가부좌하고 있으며 아담한 규모에 비례가 알맞고 얼굴을 비롯한 상반신을 약간 앞으로 구부려 아래를 내려다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머리에는 연꽃과 불꽃문양으로 장식된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데 장식을 입체적으로 매달아 중앙의 화불化佛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한 점이 특징적이다. 상투형 머리는 높게 올려 세우고 중간을 묶어 고정시킨 후 그 끝을 말아 올렸다. 이마선을 따라 타고 내려온 굴곡진 머리카락은 귀를 감싸 돌아 어깨 위로 뭉쳤다가 세 갈래로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얼굴은 방형에 가까우며 기다란 눈, 오뚝하고 큰 코, 입 꼬리가 올라간 작은 입, 또렷한 인중, 귓바퀴와 외이도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귀 등 이목구비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자비로운 인상을 주고 있다.

별도로 만들어 끼운 두 손은 왼손을 어깨 위로 들고 오른손을 하복부 쪽에 둔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을 결하고 있다.

1 2 3

1.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정면,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측면,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세부,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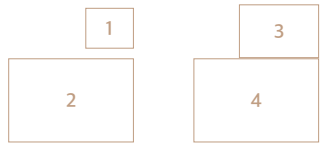
착의법은 대의大衣를 두벌 겹쳐 입은 변형 우견편단右肩偏袒식으로 오른쪽 어깨에 부견의覆肩衣로 불리는 옷이 걸쳐지고 대의자락이 왼쪽 어깨 뒤로 넘겨져 늘어졌다. 앞가슴은 U자형이며 넓게 열려 안에 입은 내의가 접혀서 사선의 주름을 이루는 것이 잘 드러나고 가부좌한 두 다리를 덮은 옷자락은 오른발을 반쯤 덮고 무릎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양 무릎위에 주름을 이루고 있다. 목에서 가슴으로 이어져 늘어져 있는 목걸이 장식은 보관의 구름과 꽃, 화염보주 및 화불 등 입체적인 화려한 조각, 꽃 모양의 큼직한 귀걸이, 팔찌 등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바닥면에는 주서명朱書銘과 묵서명墨書銘이 남아있다. 가로로 쓰인 묵서명은 '化主 德忍 畵員 無染 妙(화주덕인화원무염묘)'로서 화주는 덕인비구가 담당하였고, 화원 무염이 조성하였다는 내용이며, 세로로 쓰인 주서명은 '順治六年己丑(순치육년기축)'으로 1649년에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불상의 복장품으로는 후령통 등을 비롯한 「佛像造成記(불상조성기)」와 「改金重修記(개금중수기)」가 발견되었다. 불상조성기에는 불상을 조성한 배경과 조성과 관련된 시주자, 당시 사찰 운용 및 불사를 지휘했던 스님들의 명단과 공양을 맡았던 공양주 등이 기록되어 있다. 불상조성기의 기록 중 '順治六年歲次己丑十一月初五日 大芚山妙蓮庵佛像造成記'라는 내용을 통해 1649년 11월5일 대둔산 묘련암에 봉안하고자 조성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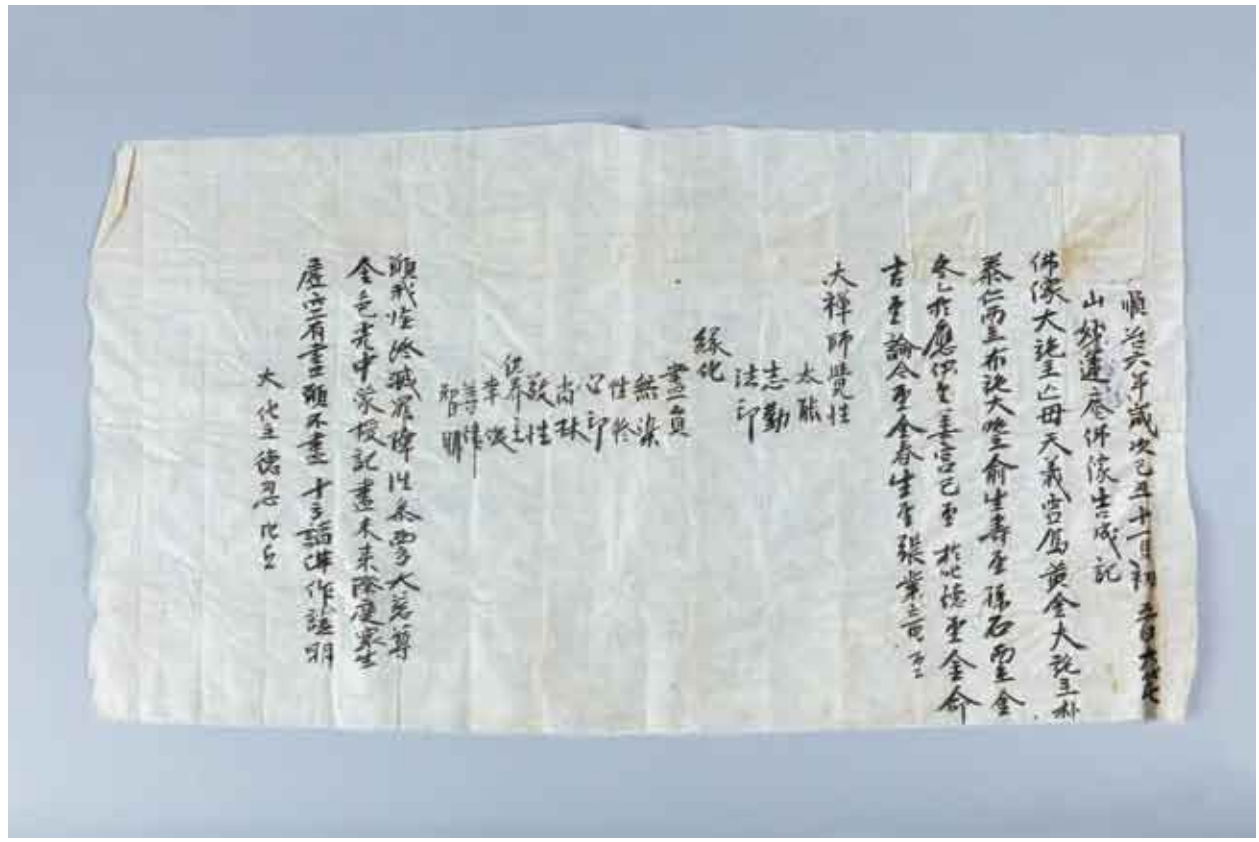


개금중수기에 기록된 '大韓光武十一年丁未三月初七日神供二十四日落成點眼'이라는 내용을 보아 1907년 3월 7일 개금중수 불사를 시작하여 3월 24일 끝마치고 점안하였음을 알 수 있고, '觀世音菩薩二位改金重修奉安于楊州天寶山佛巖寺萬日會水月道場'라는 내용을 통해 본 상을 비롯한 2구의 관음보살상을 개금하였으며, 개금을 마친 뒤에는 천보산 불암사에 봉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불상은 정확한 제작시기와 봉안처를 알 수 있고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하여 17세기 전반 불교조각사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이다.



1.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바닥면, 2018 _ 경기문화재연구원
2. 개금중수기,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3. 후령통,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4. 불상조성기,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3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楊州別山臺놀이

양주시 유양동

지정일 : 1964.12.07
보유단체 :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
보유자 : 김순희(경기/2002.02.05)
전수교육조교 : 유경수(서울), 신해춘(경기), 홍상현(경기), 유한수(경기), 석종관(경기), 김순흥(경기), 김정선(경기)

<양주별산대놀이>는 양주지역에서 1600년대 초부터 서울지역의 본산대놀이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다. 양주별산대놀이는 서울의 본산대놀이 중에서 각각 아현 산대, 사직골(현 사직동) 딱딱이패, 구파발 산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는 세 가지 영향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양주지역에 온 본산대패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본산대패들이 지방공연으로 약속된 공연날짜를 지키기 어려웠고, 특히 초파일이나 단오, 추석 등과 세시 명절이 끼어 있을 때에는 여러 지역에서 초청하는 관계로 본산대패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에 다양한 본산대패들이 다녀갔던 것으로 보인다.

양주에서 산대놀이가 전승될 수 있었던 배경은 '양주'라는 지역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양주는 지리적으로는 서울에서 함경도 지역으로 나아가는 주요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 관아가 있는 읍치邑治(고을)로서 행정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큰 상권이 형성되어 있던 지역이다. 관아에 소속되어 있는 향리 및 관속들이 대거 양주에 거주하면서 초기 정착 시기에는 관의 하급 잡역부들이 직접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지속시켜 왔으며, 관官과 민民의 매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양주는 일찍이 본산대의 놀이패를 불러 놀이판을 벌일 정도로 물적 기반이 형성된 곳이었음으로 상인세력이 연희의 전승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양주별산대놀이는 18~19세기 중엽 관과 민의 밀접한 관련 속에 산대놀이가 지역 공동체 문화로 정착이 되었다. 연희 주도층은 관아의 하급 잡역부와 상인 계층이었다. 당시 초파일 공연의 실시와 무계巫系의 핵심적 참여로 산대놀이는 무속·불교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녔다. 따라서 이 당시 양주별산대놀이는 지역의 세시적 대동놀이로 전승되었다.

1

2



1. 양주별산대놀이, 1950년대_ 양주시
2. 먹중과 옴중놀이, 2010_ 양주시



갑오개혁 이후부터 1920년대에는 상업성이 강화되면서, 지역의 판주와 상인층이 개최를 주도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양주별산대놀이는 종교적 성격이 약화되고 연희시기가 다양화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놀이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일시적으로 외부 공연이 시도되었지만, 지역에서 벌이는 세시적 대동놀이의 구심체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였다. 일제강점기 말 1930년대에는 일제의 억압에 의해 세시적 공연이 중단되고, 마을이 빈한한 농촌으로 바뀌게 되어 전승이 침체되었다. 당시 산대놀이는 일부 주민들의 내적 욕구에 의해 자발적인 신명풀이의 형태로 전승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비세시적인 상업적 공연을 통해 양주별산대놀이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한국전쟁이 일어나 탈이 소실되고 다수의 연희자들이 사망하면서 타격을 입게 된다. 산대놀이는 지역 문화의 구심체에서 마을 단위의 놀이로 축소됨과 동시에 공동체적 성격도 약화되었다.

1964년에 이르러 양주별산대놀이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사단법인 양주별산대놀이 보존회가 결성되고 전수관이 건립되었으며, 체계적인 전수 교육과 놀이마당에서의 정기적인 공연이 이루어져 전승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자체 전승 기반이 약해지고, 탈지역화 현상으로 인해 지역민의 공동체문화로서 지녔던 위상은 크게 약화되어가고 있다.

양주별산대놀이의 과정은 각 판본에 따른 마당의 구성과 등장인물의 명칭에서 차이가 있다. 1920~1930년대 채록본에서는 10과장 또는 11과장이라고 되어 있으나, 1958년 이후 본들에서는 8과장으로 대체로 정리된다.

현재 연희되고 있는 8과장 8경은 길놀이와 서막序幕고사에 이어 제1과장 상좌춤, 제2과장 옴중춤, 제3과장 옴중과 먹중, 제4과장 연잎과 눈끔적이, 제5과장 제1경 염불놀이·제2경 침놀이·제3경 애사당 법고놀이, 제6과장 제1경 파계승놀이·제2경 신장수놀이·제3경 취발이놀이, 제7과장 제1경 의막사령依幕使令놀이·제2경 포도부장놀이, 제8과장 신할아비와 미얄할미의 순서로 진행한다.

양주별산대놀이에서 구사하는 춤은 거드름춤과 깨끼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거드름춤은 몸의 마디마디에 멋을 집어넣은 동작으로 사방치기, 용트림, 합장재배, 부채놀이로 다시 세분된다. 깨끼춤은 4박 타령장단에 맞추어 멋을 마디마디로부터 풀어내는 춤으로, 깎아 내리는 무예적인 깨끼사위와 고개를 끄덕거리며 상대를 유혹하는 고개잡이가 있다. 그리고 팔뚝잡이, 삼진삼퇴, 자라춤, 까치걸음, 여닫이(여다지), 멍석말이, 곱사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주별산대놀의의 춤사위는 한국의 민속가면무 중에서 가장 분화 발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2

1. 포도부장놀이, 2010_ 양주시
2. 집 나간 도끼를 찾아 모친(미얄할미)의 죽음을 알리는 신할아비, 2010_ 양주시



길놀이(거리굿)와 서막고사

각종 기, 탈패, 악사 등이 마을을 한 바퀴 돌며 길놀이를 하고, 일부 집을 방문해 걸립을 한다. 이어 놀이마당에 이르러 한바탕 논 다음에 탈을 앞에 진열해 놓고 탈고사를 지낸다.

제1과장 상좌춤

첫째 상좌가 등장해서 중앙에서 합장재배와 천신재배를 하고, 이어서 4방위를 향해 사방치기춤을 비롯한 다양한 춤을 춘다. 이어 둘째 상좌가 등장해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축귀逐鬼 의식무의 과장이다.

제2과장 옴중과 상좌

옴중과 상좌가 등장해 막대기와 제금(바라)을 들고 서로 상대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대립하다가 옴중의 힘에 밀려 상좌가 물러난다.

제3과장 먹중과 옴중

옴중이 등장해 먹중의 얼굴을 치며, 옴이 오른 얼굴 모습과 머리의 벙거지 등 외모와 복식에 대해 희롱을 한다. 나중에 옴중이 먹중의 힘에 밀려 쫓겨나며, 이어 먹중 1, 2가 차례로 등장하여 춤을 춘다.

제4과장 연잎과 눈끔적이

연잎은 부채로, 눈끔적이는 장삼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등장하며, 옴중과 먹중 등이 차례로 다가가 정체를 확인한다. 연잎은 부채로 춤을 추고 눈끔적이는 먹중을 쫓고 서로 춤을 춘다.

제5과장 팔먹중놀이

- 제1경 염불놀이 : 완보를 비롯한 여덟 먹중이 등장해 자신들은 겉은 중이지만 실제는 오입쟁이임을 밝힌다. 그리고 염불을 외우면서, 중의 신분에 맞지 않는 언어의 유희로 비속한 말장난을 하고 <백구타령>을 부른다.
- 제2경 침놀이 : 먹중이 산대 구경을 나왔다가 같이 온 자식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다며, 완보와 신주부에게 도움을 청한다. 완보는 <백구타령>을 하며 신명으로 살려 보려 하지만 실패하며, 신주부는 살이 낀 먹중의 자식들을 진맥하고 침을 놓아 소생시킨다.
- 제3경 애사당 법고놀이 : 왜장녀가 먹중에게 돈을 받고 딸인 애사당을 시중들게 한다. 이어 애사당이 법고를 치며 춤을 추자, 먹중은 애사당을 탓하며 법고를 빼앗고 쫓아낸다. 먹중과 완보가 법고치기를 하며 서로 상대를 희롱하며 장난을 친다.

제6과장 노장

- 제1경 파계승놀이 : 노장이 상좌를 데리고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하자, 팔목(완보와 먹중들)은 한 사람씩 노장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접근한다. 이들은 노장을 향해 <백구타령>과 <뱃노래>를 부르며 희롱한다. 노장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춤을 추다가 2인의 소무에 현혹된다. 두 소무에게 다가가 춤을 추며 유혹하지만 거절당하자, 노하여 송낙과 장삼을 벗어 던지고 다시 접근한다. 결국 소무는 노장을 받아들이고, 노장에게 옷과 염주를 착용시켜 주고 함께 어울려 춤을 춘다.
- 제2경 신장수놀이 : 신장수가 원숭이를 데리고 등장하여 신을 판다. 그는 노장이 소무의 신을 사려는 의도를 알고 치수를 요구하지만 흥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포기한다. 신장수는 젊은 여자와 놀아나는 노장을 힐난하고, 원숭이는 소무를 유혹한다.
- 제3경 취발이놀이 : 취발이가 2인의 소무를 거느린 노장에게 다가가 노장을 질책하고 노장에게서 소무를 빼앗으려 시도한다. 노장은 이를 몸으로 막고 장삼까지 던지며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취발이의 힘에 밀려 소무 한 명을 빼앗기고 나머지 소무를 데리고 물러난다. 취발이가 소무와 결합하고, 소무는 아이를 잉태해서 사내아이를 출산한다. 취발이는 아이를 안고 어르고 노래하며 <천자풀이>·<언문풀이>로 글 공부를 시킨다.

제7과장 샌님

- 제1경 의막사령놀이 : 말뚝이가 샌님·서방님·도련님을 모시고 등장해서, 친구인 의막사령 쇠뚝이로 하여금 사처를 잡아 줄 것을 요구한다. 쇠뚝이는 사처를 돼지우리로 잡고 샌님에게 문안을 하며, 비속한 말로 샌님 일행을 희롱한다. 말뚝이는 이를 빌미삼아 쇠뚝이를 문책하게 하지만, 나중에 도리어 샌님에게 잡혀서 돈을 주고 풀려난다.
- 제2경 포도부장놀이 : 샌님이 젊은 소실인 소무를 데리고 등장하고, 젊고 힘센 포도부장과 삼각관계가 형성된다. 샌님은 재물로 소무를 유혹하며 포도부장을 막으려 하지만, 소무는 포도부장에게 마음이 돌아서서 샌님을 구박한다. 결국 샌님은 울면서 소무를 포기하고, 소무는 포도부장과 어울린다.

제8과장 신할아비와 미얄할미

신할아비가 산대놀이에 함께 온 미얄할미를 구박하자, 미얄할미가 갑자기 죽는다. 신할아비는 미얄할미를 회생하려다 실패하고 통곡을 하다가, 노름하다 집을 나간 아들 도끼와 3년째 소식이 없는 딸 도끼 누이를 부른다. 이어 도끼 누이가 무당이 되어 굿을 하며 가족들이 미얄할미의 넋을 풀어 준다.



양주별산대놀이에 등장하는 배역은 모두 32명이나 겸용하는 탈이 있어 실제 사용되는 탈의 수는 22개이다. 상좌(2개), 옴중, 목중(4개), 연잎, 눈끔적이, 완보, 신주부, 왜장녀, 노장, 소무(2개), 말뚝이, 원숭이, 취발이, 샌님, 포도부장, 신할아비, 미얄할미 등이다. 탈은 전부 바가지탈에 창호지를 덧대어 색칠을 한다. 그리고 눈과 입에 구멍을 뚫고, 코는 송피로 붙이며 눈과 입은 한지를 말아서 만든다. 크기는 대개 가로 20㎝ 정도, 세로 24~25㎝ 내외이며, 다른 탈에 비해 눈꼬리가 긴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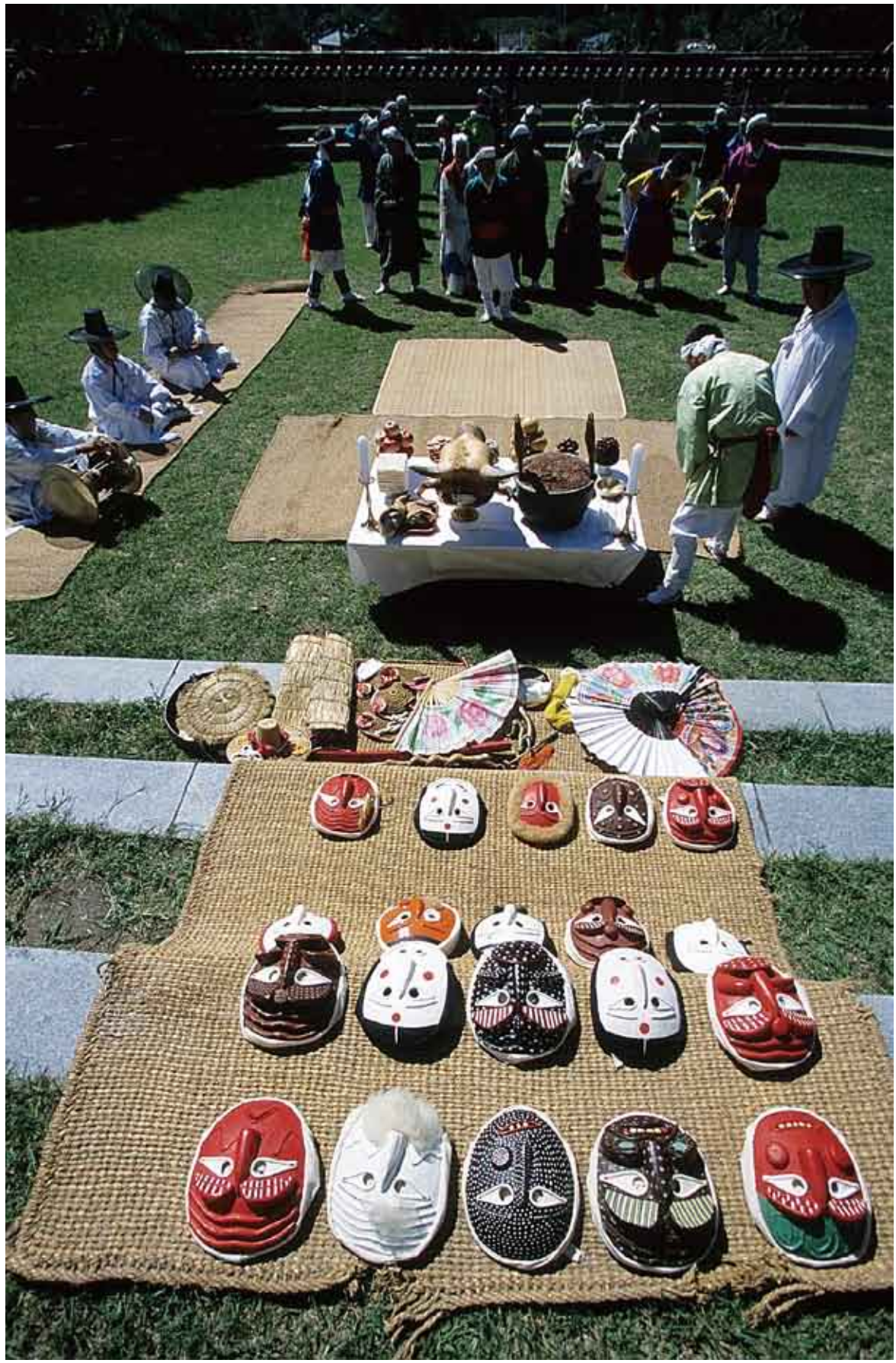
양주별산대놀이의 놀이공간은 원래 불곡산佛谷山 아래 사직골에 있는 사직단社稷壇이었다. 이곳에는 마을 제사를 지낸 후 의상, 소도구 등을 보관하던 사직당이라는 당집이 있으나 1964년에 백화암 산사태로 소실되어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이후 놀이공간을 마을 뒷산 송림松林 속의 잔디밭, 현 놀이마당 뒤편의 방선폭포 주변의 완만한 산비탈, 향교 외삼문外三門 안마당, 옛 전수관 동쪽 언덕의 솔밭, 마을 앞의 밤나무 동산, 승학교乘鶴橋 건너의 놀이판 등이 사용되다가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대규모 원형 야외 공연장이 완성되어 매년 정기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연희시기는 원래 사월초파일과 오월단오가 중심이고, 주요 세시명절에 연희되었다. 20세기 초반만해도 음력으로 삼월삼짇날, 사월초파일, 오월단오, 중양절에 연희되고 국가의 경사, 관아의 나례儺禮, 기우제, 타 지역 초청시에 비정기적으로 공연하였으며, 대략 1년에 최소 5회 정도, 많으면 10회 이상을 실시하였다. 현재는 양력 5월 5일의 어린이날과 봄부터 가을까지 토요일 오후에 정기적인 공연과 외부 초청에 의한 부정기적인 공연이 이루어진다.

핵심 전승 계보를 보면, 19세기 초·중반 초기의 핵심 인물로 이을축·유인혁·노경무 등이 있으며, 1964년 지정 당시 보유자로는 신순봉(소무·상쇠), 고명달(노장·눈끔적이), 석거억(먹중·피리), 서정주(취발이), 함춘길(장구·먹중), 유경성(왜장녀·가면제작), 박교응(첫 상좌·완보·옴중·말뚝이) 등이 있었고 이후에는 이병권(상좌·먹중), 김상용(먹중), 노재영(옴중·취발이) 등이 있었으나 모두 타계하였고, 현재는 보유자 김순희(소무·미얄할미·해산 어멈)를 필두로 전수조교 유한수·석종관·김순홍·홍상현·신해춘·김정선·유경수 등이 주축이 되어 전승을 이어가고 있다. 양주의 경우 대를 이은 연희자들이 다수 나타나는데, 박준섭-박교응, 김성운-김성태-김상용-김정선(현 전수조교), 석성묵-석거억-석종관(현 전수조교)이 대표적이다.

양주별산대놀이에는 인물의 갈등 방식을 바탕으로 전승 집단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당시 사회의 신분적 불평등, 가부장제 아래 여성의 핍박, 불교의 폐단, 교육 기회의 불균등, 가난과 질병 등으로 고달픈 민중들의 삶을 보여 주면서 풍자하는 한편,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염원을 대동 놀이의 집단적 신명풀이로 표현하고 있다.



1~8. 미얄할미, 상좌, 샌님, 소무, 연잎, 옴중, 원숭이, 포도부장, 2000 _ 국립무형유산원
9. 탈고사 모습, 2000_ 국립무형유산원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

平澤農樂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지정일 : 1985.12.01
보유단체 : 평택농악보존회
보유자 : 김용래(경기/2000.08.22)
전수교육조교 : 황홍엽(경기), 조한숙(충남),
김양원(경기), 황영길(충남)

<평택농악>은 경기도 평택 지방에 전승되던 마을 두레패 농악에 경기 남부 전문 연희패 농악이 강하게 결합되어 평택 팽성읍 평궁리平宮里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농악이다.

우리나라의 농악은 크게 평택농악이 속한 웃다리농악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 산악지역의 호남좌도 농악, 전라도 평야지역의 호남우도 농악, 경상도 지방의 영남농악, 태백산맥 너머의 영동농악 등으로 나누어진다. 각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받은 6개의 농악만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있다.

평택지역은 소샛들이라는 넓은 들을 끼고 있어 농산물이 풍부했고, 이러한 산물의 풍요로 평택지역은 농악이 성행했다. 평택농악의 형태로는 정초에 주로 행해졌던 지신밟기와 농사철의 두레굿 그리고 전문 연희패가 하는 난장굿과 걸립 등이 있었다.

평택의 지신밟기는 대문 밖에서 수문장굿을 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우물굿, 터주굿, 조왕굿, 고사, 마당굿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평택의 두레 농악은 모내기에서 가을걷이에 이르는 논농사 기간과 함께 하지만, 특히 짧은 기간에 많은 품을 들여야 하는 모내기와 김매기에는 반드시 두레가 행해졌다. 모내기에서 시작되어 세벌 김매기 때까지 행해진다. 두레 농악은 세벌 김매기가 끝날 때쯤인 백중날에는 '백중놀이' 또는 '호미씻이'라고 하여 마을 공터에서 술과 음식을 차려 놓고 판굿을 했다고 한다.







2 3 4

1

1. 평택농악,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촌걸립, 1996_ 국립무형유산원
3. 두레굿, 1996_ 국립무형유산원
4. 지신밟기, 1996_ 국립무형유산원

난장이란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 외에 임시로 열리는 특별한 시장을 말한다. 난장이 열릴 때 보다 많은 상인들과 사람들을 끌어 모아 시장 경기가 부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예를 가진 풍물 단체를 불러 장터 한가운데서 굿을 놀게 했다. 이것이 바로 난장굿이다. 이런 난장굿은 평택 뿐 아니라 안성·오산·안산·용인·수원 등지에서도 열렸다고 한다.

걸립乞粒은 어떤 공동체에서 공동의 기금을 마련하거나 특별한 경비를 모을 필요가 있을 때, 집집마다 다니면서 풍물을 치고 고사를 통해 축원 등을 해 주며 그 대가로 돈이나 곡식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 걸궁·걸량이라고도 부르는데,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대체로 걸립이라 부르고 이런 일을 하는 풍물패를 걸립패라 한다. 걸립을 다닐 때 하는 고사에 대해 '1960~70년대 절걸립패의 이름난 고사꾼으로 평택의 최은창과 대전의 김복섭이 있었다. 고사 잘하기는 최은창이요, 돈 잘 뺏기는 김복섭이다'라는 재미있는 일화가 나돌 정도로 최은창의 고사소리가 빼어났다고 한다. 최은창은 평택 팽성읍 평궁리 출신으로 16세 때부터 마을 농악의 상쇠를 맡았고, 20세 되던 해에는 걸립을 시작하여 광복 후에는 경기·충청을 근거로 서울·강원·경상도에 이르기까지 남사당 못지않은 활동 영역을 자랑했다.

경기·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문 걸립패를 '행중'이라 칭했는데, 광복 이후 박치삼 행중, 남운용 행중, 최성구 행중, 이원보 행중, 송순갑 행중, 최은창 행중 등 여러 패들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최은창은 걸립을 다니면서 전문적인 기량을 지닌 여러 명인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넓혀 나간 것으로 보인다. 최은창의 활동에서 주요 인맥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으로는 안성 출신의 상쇠 이원보, 천안에서 활동했던 법고잽이 이돌천, 천안 출신의 법고잽이 김용래 등이 있으며, 평택에 머물지 않고 안성·천안 등지의 여러 명인들과 교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평택농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뒤에는 천안의 이돌천과 함께 판굿의 정비와 구성원들의 교육에 힘썼으며, 지금의 평택농악은 1980년대 최은창과 이돌천 등에 의해 편성과 내용을 갖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택농악이라는 명칭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해 열리는 농악경연대회에 최은창이 '평택농악단'을 꾸려 나가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1980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평궁리 사람을 중심으로 천안·안성 등지의 이름난 사람들과 함께 경기도 대표로 '평택농악'이 참가하여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1985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919~1994)은 수법고로 보유자 지정이 되었다. 이돌천의 타계 후 2000년에 김용래金龍來가 상쇠·무동놀이·버꾸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으며, 2002년 최은창의 타계 후 예능보유자 김용래를 필두로 황홍엽(태평소) 등 4명의 전수교육조교를 중심으로 전승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렸을 때 걸립을 시작으로 농악을 접하고 줄곧 법고잽이로 활동을 한 김용래 예능보유자의 영향으로 평택농악은 기존의 예술적 연행에 더 기예화되고 다채로운 무동놀이를 행하게 되었다.

평택농악에 사용되는 악기로는 꽹과리, 징, 북, 법고, 호적, 나팔이 있다. 편성은 영기수令旗手, 농기수農旗手, 나팔수, 호적수, 상쇠, 부쇠, 종쇠, 징수1, 징수2, 설장구, 부장구, 상장구, 북, 상법고, 부법고, 종법고, 꼬리법고, 상무동, 종무동, 삼무동, 칠무동, 중애(사미), 양반으로 되어있다. 농악수들은 옛날 군졸들이 입었던 의상을 입고 그 위에 색띠를 걸쳐 매며 머리에는 벙거지나 고깔을 쓴다. 악기는 징과 북이 타 지역에 비하여 적으며 소고와 법고의 구별이 없다. 가락의 가림새가 분명하며 노래굿이 있는 것도 특이하다. 또한 길군악칠채(3분박과 2분박이 혼합된 혼소박 장단)는 경기지역 농악에만 보이는 장단으로 평택농악의 길군악칠채는 다른 지역과 구분된다.

평택농악의 판굿은 전통적으로 '입장 및 인사굿-돌림법고-당산벌림1-오방진-돌림법고-당산벌림2(찍금놀이·절구댕이법고놀이)-사통백이-돌림좌우치기-합동좌우치기-쩍쩍이춤(연풍대)-돌림법고-개인놀이-무동놀이-12발 채상놀이-인사굿'의 순서로 진행된다. 1980년대 자료들을 보면 합동좌우치기와 쩍쩍이 사이에 '가새발림'이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 '가새발림' 연행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근래에도 가새발림은 연행되지 않는다. 순서 중 주목할 만한 점은 당산벌림2의 찍금놀이와 절구댕이법고놀이이다. 이 두 놀이는 농사모의 동작에 해당하여 두레농악과 연희농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요소로 보이기 때문이다.

찍금놀이는 상쇠가 무동과 법고잽이들을 차례로 불러내 함께 노는 것이다. 삼채 첫 장단에 앉고, 두 번째 장단에 오른손을 땅에 짚었다 뗀다. 세 번째 장단에 왼손을 땅에 짚었다 떼고, 네 번째 장단에 양손을 땅에 짚었다가 다섯 번째 장단에 일어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렇게 손을 번갈아 땅에 짚었다 떼는 것은 모를 논에 심는 동작을 본 뜬 것으로, 연희 농악에서 찾아볼 수 있는 농사모의의 예술적 형상화라고 할 수 있다. 절구댕이 법고놀이는 찍금놀이와 같이 두 번째 당산벌림에서 놀아지는데, 찍금놀이를 마친 법고잽이들이 두 줄로 나누어 서서 번갈아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는 것이다. 두 줄의 법고잽이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은 두 사람이 마주서서 절구공이를 번갈아 내리 찧는 모습을 본 뜬 것으로, 이 놀이 역시 찍금놀이와 마찬가지로 농사모의의 예술적 형상화라 볼 수 있다.

평택농악은 칠채와 사통백이(판굿 놀음에서, 풍물재비들이 큰 원을 돌다가 네 패로 나뉘어 각기 작은 원을 사방에 만드는 놀이)·화려한 법고놀이(법고를 연주하면서 춤을 추며 펼치는 놀이)·농사모의 동작(논갈고 씨뿌려서 추수할 때까지 한 해의 농사짓는 동작)·무동타기 등 경기·영서·충청도에 전승되는 웃다리 농악의 특징을 모두 지녔다. 평택농악은 평택 관내에서 전승되어 오던 마을 두레패 성격의 농악에 광복 이후 전문연희패의 걸립활동으로 발전한 경기·충청 농악의 뛰어난 기예요소가 결합하여 1950년대 말부터 평택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집중적으로 보존·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복합성과 총체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평택농악,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每緝匠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지정일 : 1968.12.21
명예보유자 : 김희진(서울)
보유자 : 정봉섭(경기/2006.11.16)
김혜순(경기/2017.12.29)
전수교육조교 : 박선경(경기)

<매듭장>이란 끈목多繢을 만들고 이를 사용하여 여러 종류의 매듭을 지으며, 술을 만드는 기술 또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매듭의 기원은 원시시대부터 볼 수 있으나 그 목적이 장식을 위한 것이든, 실용적인 것이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매듭의 기법은 삼국시대에 중국을 통해 들어온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소속의 매듭장이 있었음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매듭장은 경공장에 속하여 본조本曹에 2명, 상의원에 4명이 배치되었다. 경공장으로 기록된 장인들 중 연사장練絲匠, 합사장合絲匠, 홍염장紅染匠, 청염장靑染匠, 다회장 등이 매듭장와 관련이 깊다. 연사장과 합사장은 끈목을 짜기 전에 명주실의 정련과 합사를 담당했으며, 홍염장과 청염장은 준비된 명주실을 염색하는 작업을 했다. 다회장이 다회 틀로 매듭에 필요한 끈목을 짠 뒤, 매듭장이 매듭을 조이는 등 장인간의 협력을 통해 매듭제작이 진행되었다.

매듭은 노리개, 호패술(호패에 다는 술), 선추술(부채에 다는 술)과 같은 장신구용으로 제작되거나 각종 주머니를 장식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또는 종교의식용으로 사용되던 연·번幡·불자를 만들 때, 민간의·예식용으로 가마나 상여를 장식하는 유소를 만들 때 제작되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김희진 매듭장(명예보유자), 2008_ 문화재청
2. 정봉섭 매듭장(보유자), 2016_ 국립무형유산원
3. 김혜순 매듭장(보유자),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4~12. 국화, 나비, 가지방석, 벌, 병아리, 석씨, 세벌국화, 안경, 양생쪽매듭, 2016_ 국립무형유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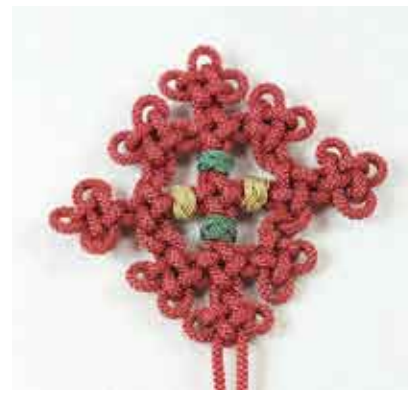


매듭의 시작은 실을 염색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된다. 먼저 염색을 위해 얼레에 감겨 있는 실을 한 올 또는 여러 올 모아서 테를 만든다. 그 다음 전통적으로 매듭의 종류와 쓰임새에 맞춰 다양한 천연염료로 염색을 한다. 보통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등의 오방색과 자색과 벽색, 녹색 등의 오방간색이 사용되는데, 현재는 화학염료 등을 혼합하여 다양한 색상으로 염색작업을 하고 있다. 염색이 모두 끝나면 건조과정을 거치는데 색이 서로 묻지 않도록 실을 잘 펴서 장대에 걸어둔다. 염색과 건조가 끝난 명주실을 자새(자애)에 걸고 자구리(얼레)에 옮겨 감아 잘 말린 후 용도에 맞게 합사하여 사용한다.

끈목은 여러 가닥의 실을 합해서 3가닥 이상의 끈을 짜는 것을 말하는데, 그 종류에는 둘레가 둥근 끈으로 노리개나 주머니 끈에 주로 쓰이는 동다회, 넓고 납작한 끈으로 허리띠에 자주 사용되는 광다회가 있다. 조바위나 선추 등 가는 끈목은 한 가닥, 일반 노리개는 두세 가닥, 낙지발노리개는 서너 가닥을 겹쳐 나며, 굵은 끈목이 필요한 유소는 일곱, 여덟 가닥을 나르기도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합사된 실을 여러 올 모아 짜거나 꼬아서 끈목을 만든다.










매듭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끈목 중심을 잡는 것부터 시작한다. 중심에서 내려오는 두 가닥의 끈목을 순서에 맞춰 조이고 풀어가며 원하는 형태를 만든다. 손으로 끈목의 모양을 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송곳이나 대바늘 등의 도구를 사용한다. 매듭의 종류에는 도래매듭(외도래매듭, 귀도래매듭), 연봉매듭, 생쪽매듭(양생쪽매듭), 잠자리매듭, 가락지매듭, 국화매듭(세벌국화매듭), 벌매듭, 병아리매듭, 나비매듭 등이 있다.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온갖 물건과 꽃, 곤충 등을 형상화한 모양이 많다.

끈이나 매듭의 하단에 다는 것을 술이라 하는데 매듭과 짝을 이루어 사용된다. 술실은 끈목에 사용되는 실과 제작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술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 연사작업을 거친 명주실을 술틀에 걸어놓고 비틋을 돌려 실을 꼬아 술실을 만든다. 술실의 종류는 크게 재료가 술실인 것과 끈목인 것으로 나눠볼 수 있다. 술실이 재료인 것은 봉술과 딸기술이며, 끈목이 재료인 것은 방울술과 낙지발술이 있다. 매듭과 술은 쓰임새에 따라 다양했으며, 같은 종류라도 궁중과 지방에 따라 그 품격이 달랐다.

생활문화양식이 서구화되면서 매듭 또한 점차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이에 1968년 12월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을 지정하였고, 정연수程延壽(1904~1974)를 기능보유자로 인정하였다. 정연수 보유자는 1904년 매듭장 마을인 서울 중구 광희동에서 태어나 1920년대부터 최동근崔東根에게 매듭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25세부터 독립하여 직업으로 삼았다. 전통기술의 단절위기에서도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마하며 상여에 장식되는 유소(술)나 인로왕번引路王幡(죽은 사람의 넋을 맞아 극락으로 인도하는 보살의 이름을 쓴 깃발에 단 술) 등 장례와 불교제례 때 쓰이는 매듭을 주로 제작했다.

1974년 정연수 보유자가 타계한 이후 1976년 정연수의 아내였던 최은순崔銀順(1917~2005) 그리고 김희진金喜鎭(1937~)이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최은순 보유자는 생업을 위해 남편으로부터 매듭을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1960년대 말까지는 정연수 보유자와 함께 주로 유소와 술을 많이 제작했고, 1974년 정연수 보유자가 타계한 이후부터는 벽걸이장식, 노리개, 주머니끈 등 실생활이나 혼례예물로 사용하기 위한 매듭을 꾸준히 만들었다. 2009년 2월 노환으로 별세하기까지 전승공예대전, 한중일삼국국제매듭전,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작품전 등에 출품하였다.

최은순 보유자의 전통 매듭 기술은 그의 딸인 정봉섭程鳳燮이 전수받아 2006년 보유자로 인정되었고, 외손녀인 박선경朴仙暻이 전수교육조교가 되어 대를 이어 전통 매듭기술을 계승해나가고 있다. 정봉섭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어받은 매듭을 그대로 전승하면서도 현대의 감각과 실용성을 더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작품들을 제작하고 있다. 한편 김희진 보유자는 1963년 매듭장 정연수를 만나면서부터 매듭을 배우기 시작하여, 조선의 마지막 다회장인 박용학 선생, 매듭장 강기만 선생, 매듭장 심칠암 선생과 김입비 선생의 전통기법과 솜씨를 이어받았다.

김희진 보유자는 명맥이 끊기거나 여기저기 흩어진 기법을 수집하고 복원하여 매듭 기본형 38종과 10종의 술 기법을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16사, 24사, 28사, 36사로 광다회 짜는 기법을 복원하는 등 매듭연구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1976년 국가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지정 이후에는 한국매듭연구회를 조직하여 매듭을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 승화시키고자 국내외 작품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13년 매듭장 명예보유자가 된 이후에도 전승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2017년에는 김희진 보유자로부터 매듭기술을 전수받아 40여 년간 각종 강좌와 전시, 유물복원 등을 통해 전통매듭의 전승과 보급에 힘써 온 김혜순金惠淳(1944~)이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1

2

1. 은삼작노리개(정봉섭작), 2016_ 국립무형유산원
2. 은장식노리개(김희진작), 1996_ 국립무형유산원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僧舞

과천시 삼현로

지정일 : 1969.07.04
보유자 : 이애주(경기/1996.12.31)
전수교육조교 : 김정수(서울), 김묘선(인천)

<승무>는 승복을 입고 추는 춤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춤 가운데 하나이다. 불교적 색채가 강한 민속춤이기는 하지만 불교의식에서 승려가 추는 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승무는 고대 부족국가시대부터 하늘을 숭배하고 제의를 지내던 몸짓, 수렵과 사냥의 몸짓, 농사의 몸짓 등 우리가 대대로 살아왔던 삶의 몸짓에서 그 골격이 세워졌다. 예를 들면 지신을 밟고 씨를 뿌리는 모습, 김매고 추수하는 움직임에서 승무의 가고 오는 발놀림이라든지 장삼을 뿌리고 앉는 사위 등이 서로 일맥상통하고, 둘러 메고 타작하는 모습 등이 승무에서는 어깨에 메고 흩뿌리는 춤사위로 나타난다. 종교적인 차원 이전에 원시사상을 토대로 하여 토속적 무속신앙과 선仙·불佛·유儒 등 모든 믿음의 형태가 융합되며 마지막에 불교의 색채를 짙게 띤 승무로 정립이 된 것이다. 굿에서 제석거리 및 제석굿, 탈춤의 상좌춤·노장춤·만석중놀이·한량무에서 중춤, 그리고 불교작법의 나비춤·바라춤·법고의 기본동작이 승무의 춤사위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즉, 승무는 조선시대 말 위의 모든 의식, 놀이, 춤 등을 수용·습합하면서 총체적으로 아우른 민속춤으로 정립된 것이다.

승무는 흰 장삼에 붉은 가사를 걸치고 하얀 고깔과 버선을 신은 차림으로 염불, 도드리, 타령, 굿거리, 자진모리 등 장단의 변화에 따라 춤을 춘다. 승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춤사위에는 바탕이 되는 기본 춤사위가 있는데, 바로 답지저앙踏地低昻, 어깨춤, 장삼놀림이다. 답지저앙은 한 걸음을 짚어서 다른 발을 떼기까지 무릎을 굽혔다 피는 오금질 동작을 말한다. 어깨춤은 무릎을 굽히고 펴며 몸의 기운을 어깨로 전달하여 좌우로 번갈아 가며 원심적으로 사지에 확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어깨춤은 다른 말로 '저정거린다'라고도 말하는데, 이 움직임은 외형적으로는 어깨만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나 실은 보이지 않는 몸의 하단에서부터 출발하여 몸 전체가 움직여지는 몸짓이다. 장삼놀림(장삼뿌리기와 장삼치기)은 장삼을 어떤 형태로든 뿌려서 놀리게 되는 동작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위로·밑으로·앞으로·옆으로 다양하게 뿌리면서 엎고 제치게 된다.

승무는 '염불과장, 타령과장, 굿거리, 법고 굿거리'라는 주제를 일컫는 '과장'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과장은 춤이 시작되어 맺음 하는 각각의 단락을 일컫는 '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단락이 여러 개 모여 각 과장을 이루고 그러한 각 과장이 모여 춤 한판을 이룬다.



1 2

1·2. 승무(이애주 보유자), 1997_ 국립무형유산원





염불과장은 태초에 우주가 생성되는 모습을 형상화한 과장이다. 태극太極에서 음양, 즉 하늘과 땅이 만나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을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를 상징하는 절을 드리는 춤사위로 시작한다. 염불과장은 모든 춤 중에서 제일 느린 춤으로 제일 느린 장단에 맞추어 춘다. 여기에서 느리다는 의미는 속도의 개념을 뛰어넘어 춤으로 보면 늘린다는 의미로 서서히 기운을 쭉 펼치면서 늘리듯이 기운을 확장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춤사위 구성은 천지인절 드림·좌우틀기·합장·삼진삼퇴三進三退·지수기(어깨춤)·봉솟음·엎고 제쳐 틀기·북어르기(잦은염불) 등이다. 염불 과장에서는 천지인으로 우주가 형성되고 타령과장에서 본격적인 일의 몸짓이 시작된다. 타령과장은 일(노동)의 동작이 시작되는 과정이다. 사방에 방위가 형성되고 장단 또한 네 기둥을 세우듯이 '덩 딱 덩 따 쿵'의 네 박으로 영글게 박아 친다. 타령의 춤사위 구성은 뿌려 앉기·가새치기·장삼 허리감기·북어르기(잦은타령) 등이다. 굿거리과장에서는 개개인의 삶이 펼쳐지며 인생에서 일어나는 생로병사, 희로애락의 갖가지 형태와 감정 등이 춤으로 형상화된다. 굿거리 춤사위 구성은 모셔들이기·궁글리기·가새치기·좌우치기·까치발·저정거리기, 북어르기(잦은굿거리) 등이다. 법고과장에서는 북을 치며 신명을 내면서 최고조에 달해 맺음을 하고 이어서 당악춤을 춘다. 당악춤은 북을 치면서 춤을 추는 것으로 바람을 맞으며 꽃잎이 흩뿌려지고 맺은 열매까지도 후다닥 떨어지듯이 모든 것을 비우게 된다. 마침내 땅과 하나 되어 잠장潛藏하면서 본래 무無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법고의 춤사위 구성은 늦은 자진모리·자진모리·휘모리이고, 당악은 북어르기·갈지之자 삼진삼퇴·앉아 뛰기·돌아들어가기·변죽치며 허리돌리기·팔휘돌려 북치기 등이다. 굿거리과장은 승무 전체를 마무리하며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과정으로 회귀와 복원의 의미를 갖는다. 연풍대燕風臺 춤사위를 하며 제비가 바람을 일으켜 날아돌듯이 큰 원으로 돌아 지금까지의 한판을 정리하고 제자리로 회귀하며 대단원을 마무리진다. 굿거리 춤사위 구성은 삼진삼퇴, 연풍대, 서서 합장 절드림 등이다.

현재의 승무는 한영숙이 중심이 되는 경기승무와 이매방이 중심이 되는 호남승무의 두 유파로 구분되고 있다. 두 유파 사이에 부분적인 차이점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구성상으로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무형문화재 보존사업이 시작된 이후 1969년에 춤분야에서는 최초로 '승무'가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되어 한영숙韓英淑(1920~1989)이 첫 보유자가 되었고, 호남 지역의 갈래로는 1987년 이매방李梅芳(1927~2015)이 보유자가 되었다. 이후 한영숙의 제자인 이애주李愛珠(1947~)는 1996년에, 정재만鄭在晩(1948~2014)은 2000년에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

2



1·2. 승무(故이매방 보유자), 1997_ 국립무형유산원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京畿民謠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지정일 : 1975.07.12
명예보유자 : 이윤란(서울)
보유자 : 이춘희(경기/1997.11.11)
전수교육조교 : 김금숙(서울), 김혜란(서울), 이연화(서울), 김장순(서울), 김영임(서울)

<경기민요>는 서울과 경기도 지방에서 전승되는 민요이지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기민요는 '경기좌창'이라 불리는 '경기 긴잡가'이다. 잡가雜歌는 가곡이나 가사와 같은 '정가正歌'와 대비되는 '속가俗歌'라는 뜻으로 쓰였으나, 오늘날에는 속가 중에서도 긴형식의 노래를 앉아서 부르는 것을 잡가라 한다. 경기잡가 가운데 느린 장단으로 된 '12잡가'를 '긴잡가'라 한다. 현재 행해지는 12잡가에 해당하는 악곡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널리 불리기 시작하였으며 악곡을 잡가로 불렀다.

경기 긴잡가는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소춘향가, 선유가, 집장가, 형장가, 평양가, 십장가, 출인가, 방물가, 달거리 등 12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산가'는 봄철의 산놀이 내용으로 사설이 시작되는 만큼 밝고 화사한 느낌을 지니고 있으며, 앞부분에는 한자漢字 구절이 많고, 뒷부분에서는 의태어나 의성어를 적절히 구사하여 산천경관을 묘사하는 대목이 돋보인다.

'적벽가'는 적벽대전에서 크게 패한 조조曹操가 화용도로 도망하여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마침내 관운장關雲長을 만나 구차스럽게 목숨을 구걸하는 광경과 관운장의 너그러운 덕으로 조조가 목숨을 구하여 화용도를 빠져나가는 내용을 잡가조로 엮은 것이다.

'제비가'는 판소리 춘향가의 '긴사랑가'와 판소리 홍보가의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에서 빌려온 사설을 서울지방잡가의 창법으로 부르는 곡이다.

'소춘향가'는 춘향가의 한 부분을 따 온 것으로, 그 내용은 앞부분이 춘향의 집 풍경을 묘사하는 듯 하지만 이어서 다소 두서없는 사설이 이어진다.

'집장가', '십장가', '형장가'는 판소리 춘향가에서 춘향이가 매질을 당하는 대목을 경기잡가의 곡조로 엮은 곡이다. '집장가'는 춘향이가 매를 맞기 전 집장군로의 행동거지를 중심으로 노래하는 것이고, '십장가'는 매를 맞으며 매의 숫자에 맞추어 춘향의 심경을 토로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그리고 '형장가'는 매를 맞은 이후의 사정을 소리로 엮은 것이다.

'평양가'는 평양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도읍지로서의 평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평양 기생 월선이를 주제로 유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선유가'는 '배를 타고 놀러 가세'라는 내용의 후렴구 사설이 붙은 노래이다.

'출인가'의 첫 부분은 판소리는 판소리 춘향가에서 빌려 온 이도령과 춘향의 오리정 이별대목이 나오고, 그 뒤에는 이런 저런 내용의 사설이 두서없이 붙여져 있다.

'방물가'는 '임을 이별하는 여인네의 탄식', '여인을 달래려는듯이 온갖 방물을 나열하는 대목', '온갖 것이 다 싫고, 날 다려 가라는 여인네의 절규' 등 서민적인 인정, 사랑 등을 노래하고 있다.

'달거리'는 월령체의 노랫말을 엮어 부르는 노래로 현행 달거리는 3월까지만 노래하고, 그 이후는 잡다한 사설을 엮어 부른다.



경기민요 보유자 故이경옥, 이춘희, 이윤란, 2008_ 국립무형유산원



경기 긴잡가의 특징은 경기 특유의 율조로서 대개 서경적 혹은 서정적인 긴사설로 비교적 조용하고 은근하며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서정적인 표현이 많다. 또한 열 두 곡의 긴잡가는 대부분 느린 6박 도드리장단이나 좀 느린 3박 세마치장단으로 된 경우가 많다. 선율은 서도소리제인 수심가토리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경기소리제인 진경토리가 뒤섞인 특이한 음조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경기민요는 1975년 7월 12일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로 지정되면서 이경옥李瓊玉(묵계월, 1921~2014), 안복식安福植(안비취, 1926~1997), 이윤란李潤蘭(이은주, 1922~) 등 세 명창이 첫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었고, 이후 안복식 보유자의 제자인 이춘희李春羲(1947~)가 1997년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1

2
3
4

1. 이춘희 소리극, 2008_ 국립무형유산원
2. 적벽가를 부르는 故이경옥 보유자와 제자들, 2008_ 국립무형유산원
3. 평양가를 부르는 이윤란 명예 보유자와 제자들, 2008_ 국립무형유산원
4. 유산가를 부르는 이춘희 명예 보유자와 제자들, 2008_ 국립무형유산원







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
줄타기

과천시 갈현동

지정일 : 1976.06.30
보유자 : 김대균(경기/2000.07.22)



<줄타기>는 공중에 맨 줄 위에서 재미있는 이야기와 발림을 섞어가며 여러 가지 재주를 보여주는 놀이이다. 줄 위를 마치 얼음지치듯 미끌어지며 나가는 재주라 하여 '어름' 또는 '줄얼음타기'라고도 한다. 주로 음력 4월 15일이나 단오날, 추석 등 명절날에 연희되었으며, 개인의 초청에 응해서 돈을 받고 놀아주는 경우도 있었다. 줄타기 놀이의 유래는 서역에서 비롯되었다는 설과 중국 한나라 때 발생했다는 설이 있으나 확실한 것은 없고,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기록으로 처음 등장하고 있다. 고려시대부터 나타나는 줄타기 관련 기록을 보면, 답삭희踏索戱, 답삭踏索, 주삭走索, 보삭步索, 삭상재索上才, 주승走繩, 이승履繩, 사연삭索, 긍희戱, 환희戱, 희승戱繩, 무환舞, 고환高, 승기繩技, 승도繩渡, 도백삭渡白索, 주질注叱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한자어들은 공통적으로 '줄 위에서 재주를 부리며 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표현의 다양함에서 온갖 재주가 다 망라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전승되는 줄타기는 연행자의 성격을 기준으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가 '광대 줄타기'이며 다른 하나는 '뜬광대 줄타기'이다. '광대 줄타기'는 관아에 예속되어 정착한 대령광대待令廣大가 연행하는 것이다. 반면에 '뜬광대 줄타기'는 '어름 줄타기'라고도 불리는데, 유랑광대流浪廣大에 의해 연행되는 것이다. '광대 줄타기'는 주로 양반층을 위해 공연되었던 줄타기로 순수하게 줄타기로만 구성되어 기술의 종류가 다양하고 솜씨에서 뛰어났으며, '뜬광대 줄타기'는 서민들을 위해 공연되었던 만큼 재담이나 오락성이 뛰어났다. '광대 줄타기'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로 지정되어 현재 그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뜬광대 줄타기'는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남사당놀이의 한 종목으로 전승되고 있다.



줄타기(김대균 보유자), 2010_ 양주시

'광대 줄타기'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를 계승한 것으로 예능보유자 김대균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이 줄타기의 특징은 짧은 시간에 몇 가지 재미있는 잔노릇(기예)만 보여주는 '도막줄'이 아니라, '판줄'이라는 데 있다. '도막줄'이란 줄광대 혼자서 간단한 재담과 잔노릇 몇 가지만 짧은 시간에 보여주는 줄타기 연행을 말한다. 이에 비해 '판줄'은 줄광대가 다양한 잔노릇은 물론이고, 줄타기 기예 가운데 가장 어렵다는 살판, 갖가지 소리·재담·춤·흉내 내기 등이 어우러지는 중놀이와 왈자놀이 등을 어릿광대와 악사인 삼현육각재비와 함께 길게 연행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의 줄타기와 달리 줄을 타는 곡예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노래와 재담을 곁들여 줄을 타는 사람과 구경꾼이 함께 어우러진 놀이판을 이끈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줄광대는 줄 위에서 여러 가지 잔노릇으로 재주를 선 보일뿐만 아니라, 재담과 노래 및 춤까지 보여주는 이를 말한다. 사실상 '판줄' 연행을 주도한다. 줄광대가 소리를 하고 춤을 출 때 바탕이 되는 반주를 하는 이들이 삼현육각재비들이며, 줄광대의 재담을 받아주고 되받아치는 이가 어릿광대이다. 어릿광대는 줄광대가 줄을 탈 때 땅 위에서 움직이며 익살을 부리고, 줄광대와 재담을 주고받는다. 어릿광대의 주된 역할은 줄 밑에서 줄광대의 상대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놀이 대목에서는 장삼과 고깔, 죽장 등과 같은 의상과 소도구들을 줄광대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왈자놀이 대목에서는 왈자로 변해서 줄광대와 파자破字놀이를 하기도 한다. 줄광대와의 공존 속에서 판줄을 연행하는 또 하나의 주요 연행자가 어릿광대인 것이다. 삼현육각재비는 북, 장구, 피리, 대금, 해금 등을 연주하는 악사들을 일컫는다. 삼현육각재비의 반주는 줄광대의 기예를 율동감있고 날렵한 느낌이 나게 만들어준다. 줄타기 연행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반주는 연행판의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 또한 줄광대 연행 사이사이에 단독 연주와 합주를 하여, 줄광대가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며 연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줄광대와 어릿광대가 신명나게 연행을 하고, 이에 관중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이 삼현육각재비들이라 할 수 있다.

줄타기는 마당 양편에 말뚝을 각각 두 개씩 박고, 작수목을 세우고 줄을 걸쳐 맨 다음 줄 가운데에 고사상을 차린다. 줄에 오르기 전에 줄광대가 지내는 줄고사는 줄타기 스승과 선배들에게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줄을 타게 해달라고 빌고, 관중들 역시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줄고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줄타기 연행이 이루어진다. 줄타기는 줄광대가 염불장단에 맞추어서 줄에 오르는 것으로 시작된다. 줄의 높이는 일정하지 않으나 대략 3~5m이고, 길이는 10~13m정도이다. 줄 위에 올라갈 때는 손에 부채나 수건을 들었는데 동



작이 멋있어 보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사용된다. 줄광대가 작수목에 오르면 쉬- 하고 반주소리를 그치게 하고 재담을 하면서 비교적 쉬운 잔노릇들을 보여준다. 잔노릇은 '판줄' 연행의 뒷부분에서 벌이는 '살판'과 같은 큰 놀음의 반대 개념으로, 한 발을 굽히고 한 발을 줄 밑으로 늘어뜨리는 '외홍잡이', 몸을 날려 돌아앉는 '거중틀기', 왼발을 꿇고 오른발을 세우고 앉는 '무릎꿇기' 등과 같은 잡다한 곡예 동작을 말한다. 비교적 쉬운 잔노릇 연행에 이어서 중놀이, 왈자놀이가 이어진다. 줄광대와 어릿광대의 댓거리를 기반으로 하여 재담과 소리 그리고 흉내내기가 이 대목에서 흥겹게 연행된다.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줄타기 기예가 갖는 긴장감이 이 대목에서 다소 완화되는 효과를 낳는다. 중놀이, 왈자놀이에 이어 다시 줄타기 기예를 중심으로 한 연행이 벌어진다. 전반부에서 펼쳐진 기예가 비교적 쉬운 잔노릇이었다면, 후반부에는 '칠보 달어치기', '허공잡이', '살판' 등과 같은 고난도의 연결 및 결합 동작이 주로 연행된다. 줄 위에 일어서서 뒤로 뛰어올라 몸을 날려 공중제비를 한바퀴 한 다음 줄 위에 앉는 '살판'과 같은 기예가 이 대목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살판이 끝나면 줄타기를 마무리 하는 대목이 이어진다. 줄광대는 관중에게 감사의 인사와 건강과 행운을 다시 한 번 기원하고, 줄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줄 아래에서 어릿광대와 함께 관중들과 악사석에 인사를 마치고 퇴장하는 것으로 줄타기가 끝난다.

줄타기 종목의 예능 보유자로는 김영철金永哲(1920~1988)이 1976년 최초로 인정받았고, 그가 타계한 이후 2000년에 제자였던 김대균金大均이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김대균 보유자는 1976년 9세의 나이에 당시 줄타기 전수 제자가 없었던 김영철 보유자의 제안으로 줄타기에 입문하였다. 판줄의 교예巧藝에 빼어났던 김영철의 '잔노릇' 43가지를 오랜 시일에 걸쳐 이어받고, 이동안李東安으로부터는 재담과 소리를 배움으로써 교예와 재담, 소리를 섭렵하였다. 김대균 보유자는 1991년 줄타기보존회를 설립하여 한국의 고유한 줄타기를 전승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줄타기는 전 세계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단순한 곡예 수준의 줄타기가 아니라, 줄광대, 어릿광대, 삼현육각이 펼치는 춤과 노래, 재담이 어우러진 종합예술로서,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 2 3

1. 어릿광대와 삼현육각재비, 2000_ 국립무형유산원
2. 김대균 보유자의 두무릎 꿇기 기술, 2000_ 국립무형유산원
3. 故 김영철 보유자에게 사사받고 있는 김대균 보유자, 촬영일미상_ 국립무형유산원





국가무형문화재 제70호

양주소놀이굿

楊州소놀이굿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지정일 : 1980.11.17
보유단체 : 양주소놀이굿보존회
보유자 : 김봉순(경기/2013.12.31)

<양주소놀이굿>은 설과 입춘을 맞아 가족의 번창과 풍년을 기원하는 굿으로, 소굿·쇠굿·소놀음굿·마부타령굿이라고도 한다. 양주소놀이굿의 유래는 양주지방에서 산신으로 여기는 감악사紺岳祠에서 나왔다는 설과 농경의례의 하나로 풍년을 비는데서 나왔다는 설, 소장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서 나왔다는 설, 궁중의례에서 나왔다는 설, 굿의 여흥으로 이루어졌다는 설이 있으나 정확한 유래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경사慶事(또는 재수굿류)의 제석거리에 이어서 진행되는 소놀이굿의 형식이 농경의례와 깊은 관련이 있고 무당굿 형식이 더해진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소와 말, 하늘을 숭배하는 소먹이 놀이에 기원을 두고 무속의 제석거리와 마마배송굿 등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된 놀이로 보고 있다.

양주소놀이굿은 경사굿에서 열세 번째 거리인 제석거리와 열네 번째 거리인 호구거리 사이에 행해진다. 전체적 구성을 보면 무당과 마부와의 대화, 반주 장단에 맞춰 부르는 마부의 타령과 덕담, 마부의 동작과 춤, 그리고 소의 동작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등장인물은 무당과 원마부, 악사와 조무助巫, 곁마부, 만든 소, 구경꾼들이다.

제석거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소놀이굿이 시작된다. 장고 앞 목두木斗에 콩을 수북이 담고 북어 한 마리를 꽂아 소고삐를 말뚝으로 삼는다. 악사와 장고를 맡은 조무助巫가 마당을 향해 앉고, 소가 들어오기 전에 서주序奏가 굿거리장단을 울리면 흰 고깔에 흰 장삼을 차린 주무主巫가 오른손에 제석부채를 들고 마루 끝에 나와 선다. 송아지가 먼저 들어와 춤추며 놀다가 굿청에 뛰어들어 무녀의 입을 맞추는 등 장난한다. 무당이 대문으로 가서 소장수와 소를 부르면, 송아지가 대문의 향해 마부와 소를 인도해 들이는 시늉을 한다. 원마부는 소의 고삐를 잡고 들어오며, 곁마부가 채찍을 들고 원마부를 따른다.

1 2

1·2. 양주소놀이굿, 2010_ 양주시



원마부는 검은 전립을 쓰고 남색 전복을 입고 홍띠를 두른다. 오른손에는 삼신부채를 들고 왼손으로 소의 고삐를 잡는다. 곁마부의 복색은 원마부와 같다. 그러나 보통은 약식으로 하여 복식을 갖추지 않고 손에 채찍을 들고 원마부를 따른다. 무당은 제석거리에서 착용한 신복 차림 그대로, 흰 고깔에 흰 장삼을 입고 오른손에 흰 제석 부채를 든다. 소는 고무래를 짚으로 싸서 머리를 만들고 멍석을 만들고 멍석을 반으로 접어 그 안에 5~6명이 들어가 소 역할을 하게 된다.

마부가 소장수가 뭐냐고 따지자 무당이 소장수 서방님이라 부르고, 마부는 '누가 나를 찾나' 타령을 부른다. 이어 소장수의 이름을 묻는 무당의 물음에 마부는 타령조로 '성명풀이'를 한다. 그리고 '마부 노정기', '보물타령', '마부 대령 인사' 등의 사설과 타령이 진행된다. 이로써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소의 마모색 타령으로 넘어간다. 소의 머리, 뿔, 귀, 눈, 입, 이, 혀, 꼬리, 다리, 굽, 색色을 타령으로 소개하고 '소의 장식치레'를 거쳐 '잡곡농사 씨타령'으로 끝난다. 이들은 모두 무당의 물음에 마부가 사설이나 타령으로 답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무당과 마부의 대화에는 익살스러움이 묻어나온다.

그 사이사이에 무당과 마부의 사설 끼어드는데 예를 들면 '소의 머리치레'에 이어 대청의 성주신에게 인사를 드리는 '절타령'이 있고, 타령이 끝나면 소가 대청마루를 향해 성주신에게 세 번 절한다. 소 흥정에서는 무당이 먼저 흥정을 걸고 마부는 '소 흥정하는 대목'을 부른다. 이에 무당은 그 집주인을 내세워 콩이 담긴 목두에 꽂아 놓은 북어에 명주 끈으로 된 고삐를 걸게 하고 소 값으로 마부에게 돈을 주게 한다. 이때 마부는 '말뚝타령'을 부른다. 소 흥정이 진행되는 동안 술을 마실 경우에는 '뜸물타령'을 부르기도 한다. 소의 흥정에 '소장수 마누라타령'이 곁들여지는 수도 있다. 소 매매가 끝나면 소놀이굿은 종반에 접어든다. 이제 '성주풀이' 및 '과거풀이'와 축원으로 소를 산 집이 잘되기를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살풀이를 해서 살을 막아 주는 것으로 소놀이굿은 막을 내린다. 소놀이굿의 타령들은 잡가의 일종으로 내용이 재미있고 세련된 평민가사체로 되어 있어 문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소놀이굿은 양주뿐 아니라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황해도, 평안남도 등의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행해졌다. 양주지역의 소놀이굿은 무부巫夫 팽수천彭壽天(?~1939)에 의하여 전승되었다. 그의 곁마부로서 마부타령을 배운 우용진, 고관성, 오복삼 등과 우용진에게서 배운 조만봉, 조영자로 대표되는 양주 지역 무당을 중심으로 양주소놀이굿의 맥이 이어져 왔다. 1980년 양주소놀이굿이 국가무형문화재 제70호로 지정되었을 때는 조만봉의 곁마부 역을 맡았던 김인기金仁起(1914~2000)가 원마부 역으로, 고희정高熙貞(1921~2005)이 악사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송아지 역의 김남강, 만신 역의 김봉순, 곁마부 역의 김환익, 원마부역의 박형배 등이 전수교육 조교로서 활동하며 양주소놀이굿의 전승을 이어나가다가 악사 역의 김병옥金炳玉(1931~2017)이 2005년 보유자, 2012년 명예보유자로 인정받았고, 만신 역의 김봉순金鳳順이 2013년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太平舞

성남시 분당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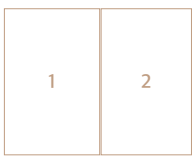
지정일 :1988.12.01
전수교육조교 : 이현자(서울), 이명자(서울), 양성옥(경기)

<태평무>는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기리는 뜻을 춤으로 표현한 것이다. 태평무는 크게 한성준韓成俊(1875~1941), 이동안李東安(1906~1995)류의 두 유파가 있다. 한성준의 태평무는 경기무악장단과 춤사위를 바탕으로 창작되어 1938년 5월 2일 조선음악무용연구회의 발표에서 이강선과 장홍심張紅心(1914~1994)에 의해 초연되었다. 이후 1940년에는 강선영姜善泳(1925~2016)과 한영숙韓英淑(1920~1989)이 왕과 왕비 역을 맡아 추어졌다. 1960년대 한영숙이 승무와 학무 보유자로 지정되면서 태평무는 강선영에 의해 왕비 춤을 독무로 재구성되어 1988년 12월 1일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한성준의 태평무는 한영숙류와 강선영류가 다르게 전승되고 있다. 강선영류는 활옷을 입고 한삼을 끼고 추다가 상궁이 받아들면 당의를 입고 추며, 퇴장하면서 끝이 난다. 율동이 큰 편이고 화려하다. 한편 한영숙류는 처음부터 당의만 입고 추며 한삼을 끼지 않고, 마지막 포즈로 무대에서 끝을 맺는다. 강선영류에 비해 담백하며 조금 더 절제되어 있다.

한성준의 초기 태평무 화보는 조선일보기사에서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다. 1938년 6월 19일의 화보는 이강선과 장홍심이 왕과 왕비로 분한 모습이다. 어깨에다 일, 월을 붙이고, 색색으로 만든 색동다리 소매가 있는 활옷을 입고 있으며, 머리에는 백제의 왕관을 연상하게 하는 관을 착용하고 있다. 반면 1939년 11월 8일자의 화보는 한성준 자신이 직접 조선시대 고관의 조복朝服과 유사한 복식을 착용한 모습이다. 이로 볼 때,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의 당의와 남·홍치마, 활옷, 큰머리, 뒷댕기(도투락댕기) 등은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에 전통성을 근거로 착용한 복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동안의 태평무는 한성준의 태평무가 한영숙과 강선영에 의해 여성의 춤으로 전승된 반면, 남성의 춤으로 후세에 남겼다. 이동안은 경기도 화성재인청 3대 도대방을 지낸 인물로, 춤은 물론 각종 광대놀음에도 뛰어난 재주꾼이었다. 이동안의 태평무를 설명한 『중요무형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당초 원님들이 관복官服을 입고 그 해의 풍년豐年을 축복하는 뜻에서 관가官家나 궁宮에서 추어 온 것이라 하나 구전口傳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 유래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동안의 태평무는 "바지저고리에 버선을 신고 행전에 대님을 매며 그 위에다 파란색의 관복官服을 착용하고 머리에는 관모官帽를 쓰고 목화(신)를 신으며 팔에는 한삼을 끼고 그것을 휘돌리면서 춤을 춘다."고 하였다. 이동안의 태평무는 길군악(낙궁)으로 시작하여 부정놀이채, 반서름, 엇중모리, 올림채, 돌림채, 터벌림채, 자진굿거리로 진행하는데, 넘김채와 자진굿거리로 가면 무당의 도무와 같은 형태로 춤을 추기도 한다. 춤의 한삼 사위가 매우 다양하게 연행되는데, 대체로 이 춤은 음악적 즉흥성을 따라서 개성적이며 자유로운 동작으로 춤춘다.



1. 태평무(故 강선영 보유자), 1996_ 국립무형유산원
2. 치마 잡는 춤사위 팔동작(故 강선영 보유자), 1996_ 국립무형유산원

태평무의 초입부는 나라의 태평과 평안을 비는 것으로 오방五方을 두루 사용하는 팔 사위는 신과의 대화를 의미한다. 중반부는 신을 맞이하는 과정으로 신을 어르고 달래는 의미로 섬세하고 잦은 발 디딤새가 특징이다. 종반부는 풀이의 장으로 신과의 대화로 한을 풀어내 태평성대를 기원한다.

태평무는 남녀가 왕과 왕비의 복장을 하여 궁중풍의 웅장하고 화려함을 보여주며, 그 음악은 낙궁장단, 터벌림, 올림채, 도살풀이, 살풀이 등 경기무악巫樂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춤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롭다. 태평무의 춤은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우아하다. 장단의 변화와 함께 따라 붙이는 걸음, 잔걸음, 무릎들어걷기, 뒤꿈치찍기, 앞꿈치꺽고 뒤꿈치 디딤, 뒤꿈치 찍어들기, 발 옆으로 밀어주기 등 발디딤의 기교가 섬세하고 다양하다. 장단과 발디딤이 현란한 멋을 보여주지만 상체의 호흡은 절제미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

京畿道都堂굿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지정일 : 1990.10.10
보유단체 : 경기도도당굿보존회
전수교육조교 : 장영근(경기), 오진수(경기), 김경진(경기), 변진섭(경기)

<경기도도당굿>은 경기도 일대의 한강 이남지역에 전해져 오는 마을굿으로, 지금은 부천의 장말에서만 완전한 형태의 경기도도당굿을 볼 수 있다. 도당굿은 서울을 비롯한 한강 이북지방과 수원·인천 등지에서 마을의 평화와 풍년을 목적으로 매년 또는 2년이나 그 이상의 해를 걸러 정월초나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굿을 말한다. 경기도도당굿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이규경李圭景(1788~1856)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이능화李能和(1868~1945)의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 최영년崔永年(1856~1935)의 『해동죽지海東竹枝』 등의 문헌사료를 통해 그 유래를 짐작할 수 있다. 문헌사료들에 따르면 도당굿은 고려시대의 금성신당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호환虎患을 벗어나고자 마을의 산신에게 지낸 굿이며, 남무와 여무의 가무를 동반한 마을 굿으로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띠고 경기도 전역에서 거행되었다고 한다.

1980년대 경기 도당굿은 일제강점기 이후 정치적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시흥·인천·부천·화성·수원 등 경기 남부 서해안 연안과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축소된다. 경기 남부 도당굿의 기본 순서는 16거리로 이루어진다. 굿은 오전에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에 끝나며, 집안의 대를 이어 기능을 연마하고 음악과 무용에 뛰어난 세습무당이 진행한다. 세습무당인 화랭이들은 남자무당으로 줄을 타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거나 재주놀이를 하면서 굿을 축제분위기로 이끈다. 도당굿은 굿을 하기 전날 당주堂主의 집에서 벌이는 '당주굿'으로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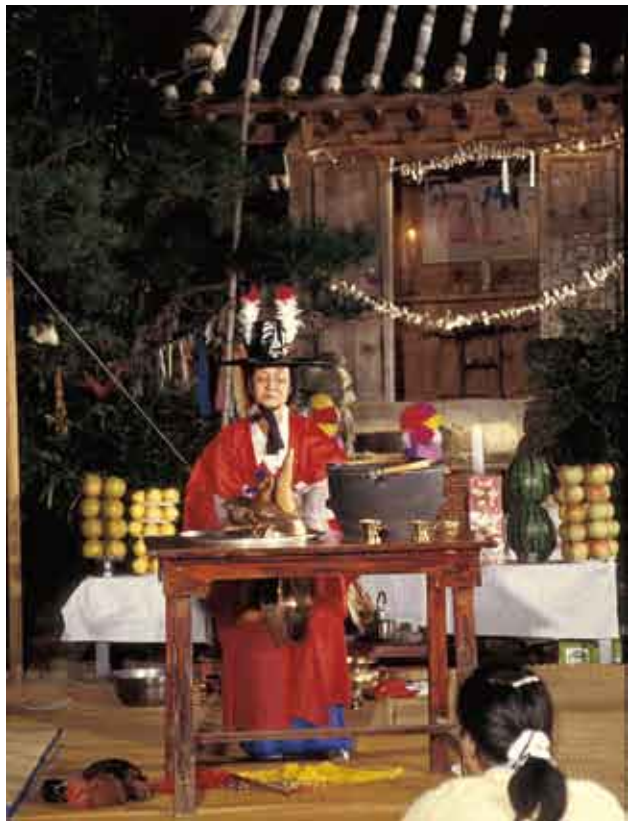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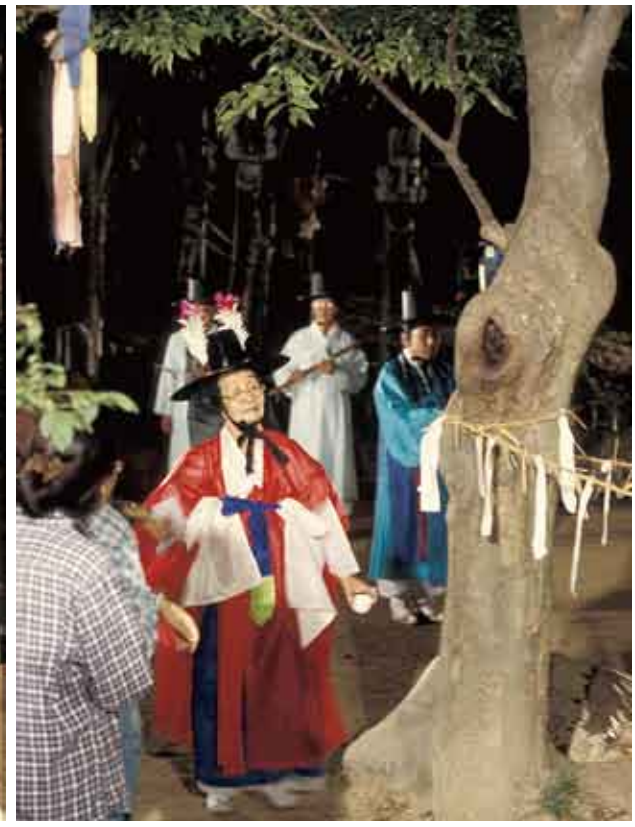
다음에는 당주집에서 굿당까지 올라가는 중간에 길거리에서 부정을 가시는 '거리부정'을 하고 굿당에 도착해 주변의 잡귀잡신에게 시루를 먹이는 '안반고수레', 굿을 벌일 장소를 정화하는 '부정굿', 신대를 꺾어 든 마을의 대잡이에게 신이 내리면 당가리 앞으로 가 도당신을 모시고 굿청으로 되돌아오는 '도당모시기', 마을의 장승과 공동우물, 원하는 집을 돌며 마을과 집안의 평안을 비는 '돌돌이', 굿당에서 군응마나님께 대취타연주를 올리는 '장문잡기', 도당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굿을 잘 받으셨는지를 시루가 쉽게 들어 올려지는 지로 확인하는 '시루말', 제석청배와 바라춤을 추는 '제석굿', 군웅조상과 도당조상, 본향조상을 모셔서 집안의 평안과 자손번창을 축원하는 '본향굿', 화랭이들이 한 사람씩 나와 춤과 묘기를 보이는 '터벌림', 손님인 마마신을 위한 '손굿', 굿꾼과 무녀의 쌍군웅춤인 '군웅굿', 날이 밝아 도당신을 당가리로 다시 좌정시키고 돌아오는 '도당 모셔다 드리기', 고깔과 장삼 차림의 굿꾼이 놀며 동네축원과 중수비를 풀어주는 '중굿', 굿에 따라든 잡귀들을 풀어 먹여 보내는 '뒷전'으로 굿은 끝난다.

경기도도당굿은 다른 지방의 도당굿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남자무당인 화랭이·남무·산이라고 불리는 무부巫夫들이 굿거리를 가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은 굿을 하면서 반주음악을 하는 악사이자 소리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음악과 장단이 판소리기법을 따르고 있어 예술성이 뛰어나고 전통문화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1990년 조한춘趙漢春은 악사(해금)로, 오수복吳壽福(1924~2011)은 무녀로서 국가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의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현재는 보유자들이 모두 타계하여 경기도당굿보존회에서 모든 행사 및 각 도당의 제의를 담당하고 있다.

1 2 3

1·2. 군웅굿(故 오수복 보유자), 1998
_ 국립무형문화원
3. 돌돌이장승고사(故 오수복 보유자), 1998
_국립무형유산원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佛畵匠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지정일 : 2006.01.10
보유자 : 임석환(경기)
전수교육조교 : 이경아(서울), 하경진(울산)

<불화장>은 불교교리를 알기 쉽게 회화적으로 표현하여 예배용·교화용 탱화를 제작하는 기능 또는 장인을 일컫는다. 불화란 불교회화佛教繪畵의 준말로서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전해질 때 같이 들어온 것으로 추측된다.

불탑佛塔, 불상佛像 등과 함께 불교의 신앙 대상으로, 제작 형태에 따라 탱화幀畵, 경화經畵, 벽화壁畵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탱화는 복장식服裝式, 점안식點眼式 등의 신앙의식 절차를 거쳐 불단佛壇의 주요 신앙대상물로 봉안된다.

우리나라 전통사찰에 전해오는 불화는 탱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불화 제작을 담당하는 장인을 특별히 금어金魚, 화승畵僧, 화사畵師, 화원畵員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부처님을 표현하는 성화聖畵이므로 일반적으로 화승畵僧들에 의해서 그려지고 전승되어 왔다. 과거에는 불화제작 작업이 전적으로 사찰의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묘사작업 뿐만아니라 증명證明·복장服裝·점안點眼 등 이른바 엄숙한 성불의식이 행해졌으나, 오늘날에는 생략되거나 간소화되기도 한다.

불화의 제작은 백묘화 초본을 바탕에 놓고 그 위에 화선지를 덧댄 다음 먹선으로 바탕초를 제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은 밑그림 그대로 모사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등긋기'라 한다. 바탕초는 선대로부터 전해져오기도 하는데 세부 형태는 조금씩 수정하여 묘사하게 된다. 불화의 바탕재료는 마, 견, 면, 한지 등으로 다양하다. 과거에는 주로 삼베를 이용하였지만 오늘날에는 면이 가장 많이 애용되고 있다. 바탕틀에 바탕감을 끈에 엮어 부착할 수 있도록 바탕감의 사방 끝부분을 적당히 접어서 박음질을 해야 한다. 준비된 바탕감은 바탕틀에 팽팽히 고정시켜 바탕감 짜기를 완성한다. 잘 짜인 바탕감의 앞뒷면에는 교대로 아교를 발라 건조하는 과정을 5회 정도 반복한다.

바탕감에 바른 아교액이 완전히 건조되면 탱화초 등긋기를 위해 틀에서 바탕감을 분리한 다음, 미리 준비한 등긋기 초본을 깔아놓고 그 위에 바탕감을 중심에 잘 맞추어 덧 댄 다음 먹선으로 바탕감 등긋기를 한다. 모가 가늘고 탄력이 좋은 세필에 잘 갈아진 수묵을 묻혀 형태의 윤곽을 따라 선을 그어나간다. 등긋기가 완료되면 배접을 위해 바탕감을 화틀에 다시 메운 뒤 준비된 배접지에 물풀을 고루 발라 바탕감의 뒷면에 배접한다. 전체 한 겹을 붙이고 완전히 건조한 후에 다시 붙이는 순서를 반복한다. 채화작업을 위해 화틀에서 바탕감을 풀어낸 다음 작업에 용이하도록 가장자리를 적당히 재단한다.

임석환 보유자 바탕초 제작 모습, 2009_ 서헌강/문화재청



채색을 위해 자연안료에 아교액를 섞어가며 알맞은 묽기의 채료를 만든다. 불화에는 주홍, 양록, 장단, 삼청, 황 등의 초빛을 먼저 바르고 석간주, 연지, 양청, 녹청, 하엽 등의 2빛, 3빛을 순서대로 칠해 나간다. 채색은 고르게 한 번 바르고 난 후 완전히 건조한 다음 다시 칠하는 것을 3회 이상 반복한다.

채색이 모두 끝나면 가사의 주름이나 구름, 각종 지물 등 양감이 나타나는 곳에 백반수를 바르고 바름질을 한다. 바름질은 바탕색보다 약간 어두운 색을 바르고 물붓으로 신속하고 부드럽게 붓질을 한다. 인물의 육색만을 제외한 모든 곳의 채색이 완료되면 형태의 윤곽선을 따라 선긋기를 한다.

윤곽에 선긋기가 완료되면 황선긋기를 한다. 이 작업은 주홍색이 칠해진 가사의 주요 외곽 테두리나 각종 의관, 천의, 영락 등 폭이 좁은 부분에 선묘된다. 황선긋기는 황색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금색을 사용하여 장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도 한다. 황선긋기 후에는 가사 위에 각종 문양을 그려 넣고, 장식부위와 주요 부분에는 금박장식을 곁들인다.

각종 도채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인물의 얼굴과 팔다리에 육색을 칠하고, 선으로 이목구비 등의 상호를 묘사한다. 탱화가 완성되고 이미 준비한 틀에 맞추어 탱화를 붙이면 불화제작이 마무리된다.

불화 제작기능은 1972년부터 지정된 단청장丹靑匠의 기능에 포함되어 전승되어오다 2016년 단일종목으로 분리하여 불화장으로 지정하였다. 불교경전내용을 도상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회화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기량과 함께 안료와 배접방법에서도 전통적인 제작방법을 충실히 지켜가고 있는 장인 임석정林石鼎(1928~2012)과 임석환林石煥(1948~)이 불화장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임석정 보유자는 1941년 당대 최고의 불모 일섭스님의 문하에서 불화를 그리기 시작한 이후 199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2006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에 지정되었다. 임석환 보유자는 혜각스님으로부터 단청을, 혜암스님으로부터 불화를 사사 받고 2005년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2006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에 지정되었다.

1 2

1·2. 세부 채색 작업(임석환 보유자), 2009_ 서헌강/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제120호

석장
石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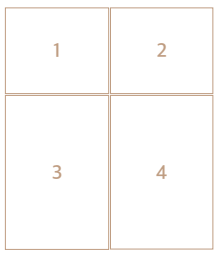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구리시 건원대로

지정일 : 2007.09.17
보유자 : 이의상(경기)
이재순(석조각/경기)

<석장>이란 석조물을 제작하는 장인으로, 석조물은 돌을 재료로 가공하여 제작한 모든 조형물을 말한다. 선사시대에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던 실용적인 도구였지만, 후대엔 당시 사람들의 예술적인 의미와 신앙을 표현하는 소재로 돌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석조물의 제작 기술은 궁궐이나 성곽, 사찰 등의 다양한 건축물을 건립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국가의 국력과 위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것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장인들이 동원되었으며, 그들 중에는 석장石匠도 포함되어 공사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석조물을 제작하던 과정이나 세부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삼국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다채로운 석조문화재가 전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석조물 제작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기계 도입 등으로 인하여 전통 석조물 제작 기법이 사라져가자 석조물 제작의 전통기법과 기능을 보존·전승하기 위해 2007년 석장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이의상과 이재순을 석장 기능보유자로 인정하였다. 이의상 보유자는 주로 산성의 복원과 정비, 각종 석조물의 해체 및 보수 공사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성곽의 보수와 석탑의 해체 및 복원에 있어 능숙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순 보유자는 부도를 비롯한 석조물의 복원과 정비, 각종 불상 및 석비의 재현·제작에 참여한 장인으로, 주로 석조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두 보유자는 석재의 절단과 치석, 조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통을 잘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구조 및 석조각 분야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장인정신까지 고루 갖춘 장인으로 평가되었다.

석조물의 재료로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화강암을 비롯하여 대리석, 사암(오석), 셰일(청석)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석재를 절단하고 다듬기 위해서는 메, 쐐기, 정, 망치, 도드락망치, 양날망치, 털이개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한다. 메는 큰 석재를 할석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쳐내는 도구이다. 쐐기는 돌을 나누는 도구로 쓰임새에 따라 그 크기가 다양하다. 망치는 석재를 절단하거나 다듬을 때 쓰는 도구로 정과 함께 짝을 이루어 사용한다. 정에는 할석을 위한 정과 석재의 거친 표면을 다듬는 가공정 등이 있다. 도드락망치는 석재를 정리할 때 쓰는데 표면을 좀 더 평평하고 곱게 다듬을 수 있다. 양날망치는 도드락 다듬질 후 잔다듬을 할 때 쓰인다. 반면 한쪽에만 날이 있는 털이개는 돌을 깨뜨려 떨어내는데 사용한다.

석조물 제작은 석재를 채취하고 할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석재의 절리를 확인한 후 절리에 맞춰서 쐐기구멍을 뚫고, 쐐기를 박아 넣어 석재를 균열시켜 자른다. 원하는 크기로 석재를 할석한 다음 메다듬, 정다듬, 줄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물갈기 순서로 석재의 다듬질이 이루어진다. 메다듬은 돌의 결 방향에 맞추어 거칠게 다듬질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이 과정은 겉다듬기, 혹두기, 혹떼기라고도 하는데, 석재의 도드라져서 튀어나온 부분이나 모서리의 불필요한 부분을 쇠메로 쳐서 떼어내는 것이다. 메다듬이 끝나면 끝날이 뾰족한 정으로 석재의 표면을 쪼아서 석재를 평평하게 다듬질을 하는



1. 이의상 보유자 성곽수리모습, 2009_ 국립무형유산원
2·4. 보수·복원된 성곽, 2009_ 국립무형유산원
3. 이의상 보유자 석구조물 제작 모습, 2009_ 국립무형유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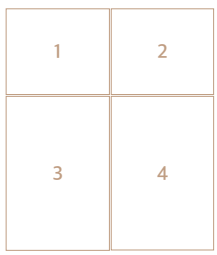
데, 이를 정다듬이라고 한다. 정다듬 과정에서는 거친 다듬에서 고운 다듬까지를 반복하면서 석재를 다듬는다. 정다듬이 끝나면 도드락망치를 사용하여 도드락다듬을 한다. 도드락다듬의 과정도 정다듬과 비슷한데 처음에는 25눈의 도드락망치로 거칠게 다듬다가 점차 64눈, 100눈의 도드락망치로 보다 세밀하게 석재를 다듬는다. 도드락다듬 이후 석재의 평면을 더욱 평탄하고 균일하게 다듬는 과정인 잔다듬은 도드락다듬한 면을 다시 양날망치나 외날망치를 사용하여 석재 표면이 일정한 방향을 이루도록 나란하게 찍어서 평탄하게 하는 과정이다.

석축과 성곽 쌓기는 다듬어진 석재를 서로 결구하면서 쌓아올리는 최종과정이다. 석재를 쌓을 때에는 석재의 접합부분인 줄눈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또 사용재료가 막돌인지 다듬돌인지, 어느정도 높이로 쌓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쌓기방식을 선택한다. 쌓기의 방식으로는 바른층쌓기, 허튼층쌓기, 층지어쌓기, 허튼쌓기, 내쌓기와 퇴물림쌓기 등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작업은 석축이나 성곽의 원형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한 뒤 이루어진다. 성곽의 보수에 앞서 행해지는 해체작업은 발굴조사에 버금갈 만큼 정확하게 현상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해체과정에서 원형의 현상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파손의 우려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석조 조각품을 제작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작품을 구상하고 이를 도면으로 그려내는 것부터 시작한다.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작품이 설치될 장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상된 작품의 형태와 세부적인 특징, 정확한 치수가 표시되어야 하며, 겉감이나 전체적인 색감의 조화를 고려해서 재료를 결정해야 한다. 불상의 경우에는 불교경전에서 각 존상尊像의 도상을 규범화하고 있으므로 그에 맞도록 구상하여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불상의 성격에 따라서 수인手印이나 자세, 지물, 착의법 등의 특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면이 완성되면 흙이나 석고를 사용해서 모형을 제작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은 석재보다 조각이 쉽고 간단한 흙이나 석고를 이용해서 의도하는 작품을 정확한 비례에 맞게 만든 후에 그대로 실제 작품에 적용함으로써 설계 도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의도하지 못한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제작된 모형에 중심선을 잡고 실제 제작하고자 하는 상과의 비율을 계산하여 등분한다. 실제 석조조각품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석재에도 먹줄과 먹칼 등을 사용하여 같은 비율로 앞면과 뒷면, 측면의 중심선을 잡고 나면, 이를 기준으로 상의 전체적인 비례를 염두에 두고 등분하게 된다. 이를 모형 본뜨기 작업이라고 한다. 작품 제작을 위해서 마련된 석재에 모형을 본뜨고 나면 본격적인 작품 제작 작업이 시작된다.

쐐기를 사용하여 떼어 내거나 메로 쳐서 석재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은 뒤 모형제작을 통해 완성된 석조 조각품의 형태를 그대로 그려내는 밑그림 작업이 이루어진다. 밑그림을 바탕으로 석재를 순서대로 다듬질하게 되는데, 앞서 살펴본 다양한 종류의 정과 메, 도드락망치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석재를 떼어내고 다듬기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조각품의 세밀한 부분까지 표현해낸다. 작품이 완성되면 작품이 놓을 위치와 방향, 주변 환경 등 전체적인 조화를 확인하고 마무리하게 된다.



1. 이재순 보유자 석조각품 제작 모습, 2009_ 국립무형유산원
2. 이재순 보유자의 작품들, 2009_ 국립무형유산원
3. 도드락다듬질, 2009_ 국립무형유산원
4. 모형제작, 2009_ 국립무형유산원











4

국가민속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호

덕온공주 당의

德溫公主 唐衣

조선시대
1점
길이:71.5㎝, 화장:69㎝, 품:36㎝, 진동:17㎝
비단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지정일 : 1964.12.07
소유자 : 단국대학교(사유)
관리자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덕온공주 당의>는 조선시대 순조(재위1800~1834)의 셋째 공주인 덕온공주德溫公主(1822~1844)가 입었던 당의이다.

덕온공주는 1822년(순조22) 순조와 순원왕후 김씨(1789~1857) 사이에서 태어났다. 효명세자(문조), 명온공주明溫公主, 복온공주福溫公主의 동복 여동생이 된다. 8세가 되는 1829년(순조29)에 '덕스럽고 온화하다'는 의미의 '덕온'이란 이름을 받아 정식으로 공주에 책봉되었다. 16세가 되던 1837년(헌종3) 윤두수의 10세손인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1823~1887)에게 하가下嫁하였다. 살림집은 저동(서울 중구)에 마련되어 '저동궁'이라 불렸다. 하지만 슬하에 자녀를 두지 못한 채 22세가 되는 1844년(헌종10) 사망하였다.

공주의 사망이후 윤의선의 집안에서는 윤용구尹用求를 양자로 받아들였는데, 윤용구의 첫째 딸이 윤백영尹伯榮(1888~1986)이다. 덕온공주 당의는 공주의 손녀인 윤백영이 저고리와 노리개, 원삼 등과 함께 아버지인 윤용구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윤백영이 7살 되던 해인 1894년(고종31) 고종 내외를 배알하러 입궐할 때 자신의 몸에 맞게 고쳐 입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윤백영이 소중하게 보관해오다가 1959년 석주선石宙善(1911~1996)에게 기증하였고 현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덕온공주 당의는 덕온공주가 1837년 혼례를 치른 해의 첫 동지冬至에 입었다고 전해진다. 오늘날의 동지는 팥죽을 먹는 날로만 알려져 있지만, 궁중이나 경사대부의 집안에서는 동지하례冬至賀禮 또는 동지헌말冬至獻襪이라는 의례와 풍속이 있을 정도로 중시했던 절기이다. 덕온공주는 동지를 맞이하여 동지 고유의 계절감을 담은 자주색으로 소례복小禮服인 당의를 지어 입은 것으로 추측된다.

덕온공주 당의는 자주색 도류불수문挑榴佛手紋 비단에 '壽(수)', '福(복)'자를 금실로 직금織金한 겉감, 그리고 다듬이로 손질한 홍색 명주를 안감으로 덧대어 만들어졌다. 모양은 저고리와 비슷하지만 앞과 뒤의 길이가 길고 진동선 밑으로 양옆이 트여 있다. 배례는 소매길이의 중간지점까지 수평을 이루다가 수구 쪽에서 급격한 곡선을 이루다가 줄어든 형태이며, 도련은 진동선에서 직선으로 내려와 아래쪽에서 반월형半月形의 곡선을 이룬 형태이다. 자적색 공단으로 만든 겉고름과 명주로 만든 안고름이 달려있고, 소매 끝과 동정에는 흰색 공단의 거들지를 덧대었다. 깃은 끝이 다소 각진 당코 깃이며, 안깃은 안섶 위에 주름을 잡아 마무리하여 안길이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

덕온공주 당의는 착용자의 신분이 뚜렷하고 연대가 확실한 왕실의 유물로서 조선 후기 상류층의 복식제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1

2

1. 덕온공주 당의 앞모습, 2012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 덕온공주 당의 뒷모습, 2012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壽
福


壽
福

국가민속문화재 제2호

심동신 금관조복

沈東臣 金冠朝服

조선시대
1습 8점
① 양관 : 높이 19.7㎝
② 적초의 : 길이 91㎝, 화장 99㎝, 품 49㎝, 진동 56㎝
③ 적초상 : 길이 86㎝, 너비 41㎝
④ 중단 : 길이 124㎝, 화장 98㎝, 품 59㎝, 진동 50㎝
⑤ 후수와 대대 : 길이 66㎝, 너비 25㎝
⑥ 패옥 : 길이 50㎝, 너비 8㎝
⑦ 서대 : 길이 132㎝, 띠돈 20개, 도금구 4개
⑧ 홀 : 길이 25㎝, 폭 4.5㎝
비단, 옥 등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지정일 : 1964.12.07
소유자 : 단국대학교(사유)
관리자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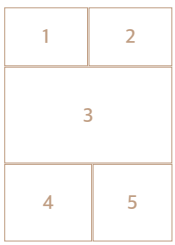
<심동신 금관조복>은 조선말기 문신 심동신沈東臣(1824~?)이 참판 벼슬을 지낼 때 착용했던 조복이다.
조복은 문신과 무신들이 동지와 설날,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나 종묘와 사직에 제사 지낼 때 입는 배사복陪祀服으로 붉은색 의衣와 상裳을 기본으로 양관梁冠·중단中單·폐슬蔽膝·수綬·패佩·대帶·화靴·말襪·홀笏과 함께 일습을 갖추는 것이다.
심동신 금관조복은 이 중 화靴(신발)와 말襪(버선)을 제외한 8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손들에 의해 보관되어 오다가 1948년 7대 손부孫婦가 석주선石宙善(1911~1996)에게 기증하였고, 현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심동신 금관조복 일습은 1890년대를 전후한 시기의 유물로 착용자가 확실하고 조복의 의, 상, 양관뿐만 아니라 부속품까지 견실히 갖추고 있어 복식사적 가치가 큰 유물이다.

• 양관梁冠

양관은 조복을 입을 때 착용하는 관모로 조선시대 정조正祖시기 이후 흑칠을 한 제복관과 구별되어 조복관으로 착용되었다. 품계에 따라 모옥帽屋 위에 세로 방향의 금줄인 양梁의 수를 달리하며, 1품은 5개의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량관五梁冠이라고 하고, 금칠이 되어 있어 '금관'이라고도 한다.
심동신의 양관은 5개의 금색선이 붙여진 오량관으로, 관무와 배면은 새와 화문을 투조하여 새긴 후 금색을 칠하고 나머지 부분은 검게 칠하였다. 뒤에는 관을 가로질러 목잠(나무비녀)은 꽂았고, 목잠 양옆으로는 옥색의 술 끈을 한 번 감아 늘어뜨려 장식하였다. 조선시대 말기 사모를 비롯한 관모가 다소 낮아진 것처럼 양관도 다소 낮아진 형태이다.

• 적초의赤綃衣

적초의는 중단 위에 입는 붉은 색의 포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적초의赤綃衣로 기록되어 있으나, 후대에는 초綃뿐만 아니라 명주, 은조사, 민항라無紋亢羅, 사紗 등 다양한 옷감이 사용되었다. 심동신의 적초의는 홍색 항라로 만든 홑옷으로, 깃은 목판 당코깃이며 깃·도련·옆선·수구 등에 흑색선이 둘러져 있고 그 사이에는 흰색이 가늘게 둘러져 있다. 흑선과 바탕 사이에 가는 흰 색 선을 넣어 장식하는 형태는 18세기 초 이후 나타나는 특징이다. 소매는 넓고 옆은 트여 있으며, 양쪽 겨드랑이에는 가는 홍색 대끈이 달려 있다.
폐슬은 적초의를 입고 허리 앞으로 드리우는 장식으로, 무릎을 가린다 하여 폐슬이라고 불린다. 붉은 색의 사각 형태로 예를 섬기고 집행하는 공경의 표시로 사용되는 상징적 장식이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직사각형의 직물을 혁대에 걸어 착용했으나, 17~18세기가 되면 끈에 꿰어 허리에 두르는 형식으로 변화된다. 조선말기에는 의제의 간편화로 조복 가슴 부위에 폐슬이 부착되어 상징적 장식으로만 사용되었는데 심동신의 조복 의에도 깃 아래 가슴 부위에 직선형 폐슬이 부착되어 있다.



1.2. 양관, 2005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3. 적초의, 2005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4.5. 폐슬, 2005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적초상赤綃裳

적초상은 조복과 제복을 입을 때 중단 위에 두르는 붉은색 의례용 치마이다. 앞자락은 양의 수인 3폭, 뒷자락은 음의 수인 4폭을 연결해서 허리에 맞도록 주름을 잡았으며 허리에 달아 착용하였다. 초기에는 여자 치마처럼 주름을 허리에만 접었으나, 18세기 이후부터는 주름을 허리부터 단 아래까지 눌러 접은 형태로 변화하였다. 적초의와 같이 적초상의 흑선과 바탕 사이에 가는 흰 색 선을 넣어 곱게 장식하였다.

심동신의 적초상은 조복과 같은 옷감인 홍색 9족 항라로 만들었다. 길이 86㎝, 앞폭 38㎝, 뒷 폭 41㎝이다. 위에서 아래까지 주름을 잡은 후 7.5㎝ 너비의 5족 항라로 흑색선을 둘렀으며 사이에 흰색의 실선을 둘렀다. 위쪽에는 흰색 명주로 허리말기를 달아 오른쪽 허리에서 여며 입게 되어 있다.

• 중단中單

중단은 적초의 속에 받쳐 입던 옷으로 평상복과 예복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한다. 초기에는 흑색 선을 두른 백초중단白綃中單을 입었으나 17세기 이후 청색 창의氅衣를 중단으로 입게 되었고 조선말기 고종高宗대에 이르러 남색에 흑선을 두른 청초중단靑綃中單으로 변화되었다. 심동신의 중단은 청색 명주로 만들었다. 길이 124㎝, 화장 98㎝, 품 50㎝, 진동 50㎝이며 수구, 섶선단, 옆트임 도련단에 6.5㎝ 너비의 흑색선을 둘렀는데 5족 항라로 만들었다.

• 후수後綬와 대대大帶

수는 조복·제복 등에 부가되는 장식물로서 품계를 나타내는 표식 중의 하나이며, 뒤에 늘어뜨린다고 하여 후수라고도 칭하였다. 『경국대전』이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등에는 품계에 따라 색상과 무늬, 환의 재질과 개수를 세세히 기록해 놓았다. 1~2품은 황·록·적·자黃綠赤紫의 네가지 색사에 운학문雲鶴紋을 수놓고 두 개의 금환을 달았다. 3품은 황·록·적·자의 네가지 색사에 반학문盤鶴紋을 수놓고 두 개의 은환을 달았다. 4품은 황·녹·적의 세 가지 색사에 연작문練鵲紋을 수놓고 두 개의 은환을 달았다. 5~6품은 4품과 같으나 동환을 달았다. 7~9품은 황·녹의 두 가지 색사로 계칙문鸂鶒紋을 수놓고 두 개의 동환을 달았다. 조선전기에는 대대와 수가 따로











1. 중단, 2005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 후수와 대대, 2005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3. 서대, 2005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4. 패옥과 패옥주머니, 2005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5. 홀, 2005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제작되었으나 조선말기에 이르면 대대大帶에 후수를 꿰매어 사용하였으며, 기록된 제도와는 달리 모두 운학문으로 수를 놓았다.

심동신의 후수는 가장자리에 흑선을 두른 대대와 함께 부착되어 있다. 길이 66㎝, 폭 25㎝로 홍색의 융絨을 바탕직물로 하여 청·황·백색 3쌍의 운학을 수놓았다. 윗부분 양쪽에는 금환을 달았는데, 두 개 중 하나가 분실되어 1개만 남아 있다. 운학 바탕아래에는 청사망靑絲網이 드리워져 있고 좌우 양옆에 홍색의 소수小綬가 달렸다. 대대는 백색의 명주로 만들었으며, 양끝에는 끈이 달려 여미게 되어 있다.

• 패옥佩玉

패옥佩玉은 조복을 입을 때 허리의 양 옆에 하나씩 달아 늘어뜨리던 장신구이다. 패옥의 맨 위에는 품대에 걸 수 있는 고리가 달려 있다. 심동신의 패옥은 심청옥深靑玉과 백옥白玉을 섞어서 만들었으며 위에는 놋쇠로 된 고리가 달려있다. 패옥이 엉키지 않도록 청색비단로 만든 주머니에 넣어져 보관되고 있다.

• 서대犀帶

서대는 조복에 쓰던 허리띠이다. 대대를 두르고 그 위에 착용하였고, 좌우에는 패옥을 달았다.

• 홀笏

홀은 조복을 입을 때 양손에 쥐어 예를 표시하던 물건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조복·제복·공복에 1~4품은 상아, 5~9품은 나무로 만든 홀을 사용하였다. 심동신의 홀은 장방형의 상아홀로, 길이 25㎝, 너비 4.5㎝이다. 손으로 잡는 곳은 청색비단으로 싸여있다.

국가민속문화재 제11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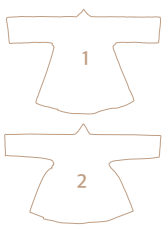
과천 출토 광주이씨 의복

果川 出土 廣州李氏 衣服

조선시대
일괄 20점
• 장옷
① 솜장옷(1) : 길이 122㎝, 화장 110㎝, 품 78㎝, 진동 33㎝
② 솜장옷(2) : 길이 120㎝, 화장 102㎝, 품 82㎝, 진동 38㎝
• 액주름
③ 누비액주름 : 길이 103㎝, 화장 95㎝, 품 70㎝, 진동 34㎝
④ 겹액주름 : 길이 102㎝, 화장 108㎝, 품 72㎝, 진동 38㎝
• 저고리
⑤ 적삼(1) : 길이 63㎝, 화장 78㎝, 품 66㎝, 진동 31㎝
⑥ 적삼(2) : 길이 68㎝, 화장 84㎝, 품 68㎝, 진동 32㎝
⑦ 솜저고리(1) : 길이 55㎝, 화장 72㎝, 품 75㎝, 진동 30㎝
⑧ 솜저고리(2) : 길이 80㎝, 화장 100㎝, 품 64㎝, 진동 33㎝
⑨ 솜저고리(3) : 길이 67㎝, 수구 32㎝, 화장 60㎝, 진동 34㎝
⑩ 솜저고리(4) : 길이 75㎝, 화장 : 95.5㎝, 진동 31㎝
⑪ 금선단회장저고리(1) : 길이 55㎝, 화장 70㎝, 품 70㎝
⑫ 금선단회장저고리(2) : 길이 56㎝, 화장 67㎝, 품 74㎝
• 치마
⑬ 포도동자문단직금대란치마 : 길이 131㎝, 치마폭 250㎝
⑭ 솜치마 : 길이 9㎝, 폭 8폭만 남음(1폭 너비 50㎝)

⑮ 목겹버선 : 목둘레 34㎝, 회목 16.5㎝, 볼 12㎝, 수눅 10㎝
⑯ 악수 : 세로 12㎝, 가로 24㎝
⑰ 멱목 : 세로 73㎝, 가로 27㎝
⑱ 멱목 : 세로 82㎝, 가로 27㎝
⑲ 습리 : 높이 4㎝, 길이 25㎝, 폭 10㎝
⑳ 널이불 : 세로 440㎝, 가로 65㎝
비단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지정일 : 1981.11.29
소유자 : 단국대학교(사유)
관리자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 소매 끝을 소색으로 달아접은 장옷, 2007
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 누비 액주름, 2007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과천 출토 광주이씨 의복>은 1979년 4월 20일 서울대공원의 부지 조성으로 광주이씨 선산(당시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소재) 묘지를 이장하던 중 이언웅李彦雄 묘와 그의 며느리 청주한씨淸州韓氏묘에서 출토된 복식 20점이다. 지정당시에는 이언웅의 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과천출토광주이씨 의복'으로 명칭이 정해졌으나 후에 며느리의 묘에서도 의복이 출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언웅의 생몰년을 알 수 없으나 그의 아들인 이집일李執一(1574~1613)의 생몰년으로 보아 조선 중종中宗대에서 선조宣祖대의 인물로 추정된다. 그의 며느리 청주한씨는 이집일의 부인이자, 중종과 문정왕후의 2녀인 의혜공주懿惠公主의 딸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고 한다. 이들의 묘에서는 남녀 의복류와 염습구 등 54점이 수습되었으나 초기 발굴시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아 남녀 복식이 섞인 채 출토되어 성별 구분에 주의가 요구되는 자료이다. 그 중에서 선별된 20점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지정된 유물은 포도동자문금선단대란치마葡萄童子紋緞金線緞大襴裳 1점, 무명누비 액주름포腋注音袍 1점, 무명겹액주포 1점, 장옷 2점, 솜저고리 4점, 금선단, 회장저고리 2점, 모시적삼 2점, 솜치마 1점, 무명버선 1점, 악수 1점, 멱목 2점, 습신 1점, 천금 1점 등 총 20점이다. 이 유물들 중에는 단저고리형, 중저고리형, 장저고리형이 함께 출토되어 16세기 여성저고리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쪽 허리 밑에 정교하고도 세밀한 주름을 잡은 누비직령포, 겹유저고리, 악수 등이 특이한 형태로 출토되어 복식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 장옷長衣

장옷은 2점이 지정되었다. 16세기까지는 남녀 공용의 겉옷이었으며 이후 여성의 대표적인 외출복으로 입혀졌다. 형태는 깃 모양이 겉깃, 안깃 모두 섶 안으로 들여 달린 목판깃이 특징이며, 섶과 함께 좌우 대칭형을 이루고 겨드랑이에 작은 삼각무, 옆선에 사다리꼴 큰무가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옷감은 2점 모두 명주로 된 겉감과 안감 사이에 솜을 넣어 만든 솜 장옷이다. 1점은 아무런 장식이 없이 전체가 짙은 갈색이며 나머지 1점은 소매끝을 소색으로 달아 접어서 입는 거들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겨드랑이의 작은 삼각무가 화문단花紋緞으로 되어 있다.

• 액주름腋注音

액주름은 누비옷 1점과 겹옷 1점 등 총 2점이 지정되었다. 액주름은 사대부들이 포 안에 속옷의 개념으로 착용하였으며 신분이 낮은 자들의 경우에는 관복으로도 입었다. 겨드랑이 아래에 주름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임진왜란 이전 시기의 출토 복식에 집중되어 나타나며, 임진왜란 직후 17세기 전반까지 나타난다. 목면 누비액주름은 면으로 된 겉과 안 사이에 솜을 얇게 두어 0.15㎝ 간격으로 곱게 누빈 것이다. 동정은 겉감과 다른 명주로 달려 있으며 고름은 넓게





달렸던 흔적이 남아 있다. 나머지 1점은 면으로 된 겹 액주름으로 쪽빛이 이염된 듯이 남아 있다. 크기는 길이 102~107㎝, 화장 92~108㎝, 품 68~72㎝의 범위이다.

• 저고리赤古里

저고리류는 적삼 2점, 솜저고리 4점, 금선단 회장저고리 2점 등 8점이 지정되었는데, 모두 여성용 저고리로 추정된다. 16세기의 여성 저고리는 깃머리가 각이 진 목판깃이고 옆선에는 두 쪽 무 또는 한쪽 무가 달리거나 옆트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신체에 비해 길이가 길고(50~80㎝ 전후) 품이 넓어(70㎝ 전후) 누구나 입을 수 있는 크기이다. 가장 짧은 단저고리형은 길이가 50㎝ 전후로서 허리를 덮어주며 60~70㎝ 전후 길이는 중저고리형에 해당한다. 가장 긴 장저고리는 80㎝ 전후의 길이로서 엉덩이가 가려질 정도로 길고 양 옆선이 트여 있다. 본 유물 8점도 전형적인 16세기의 저고리 양식이다. 단저고리형에 해당하는 저고리가 3점이 있는데 깃·섶·끝동·곁마기 부분을 연화만초문蓮花蔓草紋 직금織金으로 장식한 금선단 회장저고리가 2점이 있으며 깃과 소매끝동이 모란문단



으로 장식된 명주솜저고리 1점이 있다. 중저고리형은 2점인데 1점은 오른쪽 길과 소매만 남아 있는 갈색 당초문단 솜저고리이며 나머지 1점은 연갈색 명주 솜저고리로 오른쪽 소매가 소실되어 없는 상태이다. 장저고리형은 '겹유저고리'로 지정된 1점인데 길이 81㎝, 품 76㎝, 화장 100㎝이며 옆트임이 있다. 겉감은 고운 명주, 안감은 거친 명주로 하고 사이에 솜을 넣은 명주 솜장저고리이다. 이외에 모시로 만든 홑적삼 2점이 있다. 2점 모두 어깨에 바대가 대어 있고 진동과 수구의 너비 차이 없이 일자형이다.

• 치마赤勿

치마는 포도동자문단직금대란치마(예복용 홑치마) 1점과 겹치마 1점이 지정되었다. 포도동자문단직금대란치마는 치마 중간에는 연화만초문단 바탕에 28㎝ 정도 너비의 포도동자문葡萄童子紋이 두 줄 직금織金된 스란단이 직성織成되어 있고 도련에는 보문이 직금된 6㎝너비의 금선이 장식되어 있다. 1폭에 62㎝정도 되는 옷감 9폭을 이어 만들었는데 허리말기는 탈락되어 달려 있지 않은 상태이다. 나머지 1점은 명주로 만든 솜치마이다. 허리말기와 고름이 모두 남아있다.



1. 연화만초문 직금으로 장식한 회장저고리, 2007
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 솜저고리, 2007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3. 포도동자문단직금대란치마, 2007
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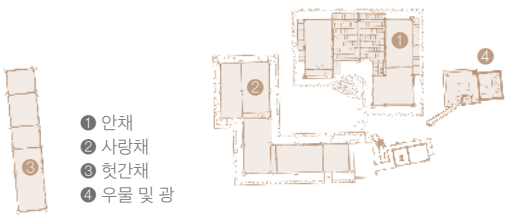
국가민속문화재 제123호

수원 광주이씨 고택

水原 廣州李氏 古宅

조선시대
일곽
안채 : 정면 4칸, 측면 3칸
사랑채 : 정면 4칸, 측면 5칸
헛간채 : 정면 5칸, 측면 1칸
목재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56-9

지정일 : 1984.01.14
소유자 : 이용승(사유)
관리자 : 이순흥



<수원 광주이씨 고택>은 광주이씨 17세손인 이명회李明會가 분가할 때 처음 건립하여 그 후손들이 대대로 거주하고 있는 가옥이다.

안채 대청 위 종도리 장여에서 '광서십사년무자삼월십팔일입주상량光緖十四年戊子三月十八日立柱上樑'이라고 적힌 묵서명이 발견되어 1888년 3월 18일에 상량한 집임을 알 수 있다. 건립 당시에는 모두 초가지붕이었으나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에는 집이 국도 옆에서 보인다는 이유로 안채만 제외하고 행랑채는 양기와, 헛간은 슬레이트지붕, 사랑채는 양식기와로 변경되었다. 1984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1993년과 1994년에 걸쳐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일부 변경된 벽체와 지붕을 원형으로 복원하였다. 수원 광주이씨 고택은 지정 당시 가옥 소유자의 이름을 따서 '파장동 이병원 가옥'으로 명명되다가 2007년 '수원 광주이씨 월곡댁'으로 변경되었고, 2017년 문화재청의 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수원 광주이씨 고택은 파장골 입구의 익주 아파트 길 건너 맞은편에 서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고택의 평면은 'ㄷ'자형의 안채와 'ㄴ'자형의 사랑채가 합하여 튼'ㅁ'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안채의 뒤뜰에는 우물이 있고, 대문의 바깥에는 넓은 마당이 있으며, 바깥마당 건너 헛간채가 사랑채와 나란히 놓여 있다.

안채는 'ㄷ'자형으로 가운데 2칸의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건넌방, 우측에는 안방이 마주하고 있으며, 안방의 전면에는 부엌이 위치하고 있다. 대청의 좌측면에 위치한 건넌방은 대청에서 반 칸 나온 형태를 취하고 있고, 반침을 두어 방을 위와 아래로 구분하였다. 반침 밑의 외부에는 솥과 아궁이가 설치되어 건넌방의 난방시설로 사용되었다. 안방의 우측면, 대청의 후면, 건넌방의 좌측면에는 쪽마루가 각각 길게 연결되어 있다. 부엌은 입식으로 개조했으며, 안채의 뒤뜰에 있는 우물은 1980년대 중반까지 사용되다가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3
4
1
2

1. 수원 광주이씨 고택 전경, 2018 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안채 전경,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안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사랑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사랑채는 안채와 직각으로 위치하고 있다. 대문간을 중심으로 좌측에 정면 2칸, 측면 2칸의 규모의 사랑방이 놓여있고, 방의 우측으로는 대문간과 광(창고)이 있고 광의 배면쪽으로 방이 2칸 있으며 방 뒤쪽으로 조적조로 된 세면장이 설치되어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사랑방의 아궁이가 있는 측벽으로 인하여 대문이 열려있어도 외부에서 안채가 잘 보이지 않는다.

헛간채는 고택의 주 진입부인 바깥마당의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식은 정면 5칸, 측면 1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량식 가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내부의 용도는 좌측에 광이 3칸이 있고, 우측에는 방이 1칸 설치되어 있다. 가옥의 가택신으로는 터주신을 모셨는데, 광에다 터줏단지를 두어 햇곡식을 담아두었다고 한다. 수원 광주이씨 고택은 가구架構의 전체적인 수법으로 보아 민가民家로서는 법식法式에 따라 정성껏 지은 집으로 여겨지며, 안채에서 발견된 묵서명墨書銘으로 건축 연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조선 말기 살림집의 특색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국가민속문화재 제12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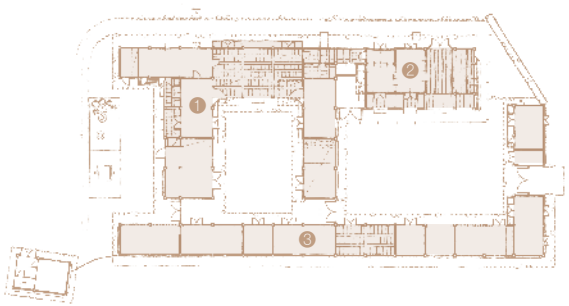
화성 정시영 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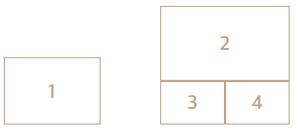
華城 鄭時永 古宅

조선시대
일곽
안채 : 18.5칸
사랑채 : 9칸
행랑채 : 18칸
목재
화성시 서신면 오얏리길 44-17

지정일 : 1984.01.14
소유자 : 정융구(사유)
관리자 : 정융구

<화성 정시영 고택>은 솟을대문에서 1887년(고종24) 문을 세웠다는 묵서墨書가 발견되어 당시 고택의 소유자였던 정시영(1841~1905)이 문을 세운 것으로 추측되며, 고택의 다른 건물들 역시 19세기 초엽 문이 세워지던 시기를 전후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화성 정시영 고택은 본래 '정용채 가옥'으로 명명되다가 2017년 문화재청의 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화성 정시영 고택은 서쪽에 낮은 산줄기를 등에 지고, 북쪽으로 펼쳐진 넓은 논과 멀리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쪽을 향해 배치되어 있다.
고택의 평면은 크게 남쪽의 안채 공간과 북쪽의 사랑채 공간으로 나뉘고, 앞쪽에는 이 구역을 길게 가로질러 행랑채가 놓여 있다. 각각 안마당과 사랑마당을 만들어 전체적으로 '月'자형의 닫힌 공간을 이룬다. 이러한 형식은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보편성을 가진 반가班家 형식이기 보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모습으로 보여 진다. 다시 말해 부농형 안채, 사랑채의 구분 그리고 곳간, 사랑마당, 안마당의 구획은 반가형식이 도입된 경우로 경기도 민가의 형식을 취하지 않지만, 부엌 뒤뜰이나 건물이 횡으로 배열되는 것은 경기도 민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1. 화성 정시영 고택 전경, 2015_ 화성시
2. 안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안채 대청,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대청과 사랑방 연결공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안채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부엌, 안방, 윗방(찻방), 안대청, 건넌방, 부엌이 'ㄷ'자 모양을 하고 있으며, 전면으로 행랑채가 이어져 있다. 특히 안방과 건넌방 그리고 좌우 부엌이 같은 규모로 좌우대칭인 것이 매우 이채로우며, 윗방이 뒤뜰 쪽으로 연장되어 행랑채의 튀어나온 부분과 다시 'ㄷ'자 형태로 뒤뜰 공간이 만들어진 점이 특이하다. 부엌은 외벽이 화방벽으로 되어 있고, 광살창 위에 여닫이창이 있다. 뒤뜰은 부엌의 아래쪽으로 난 작은 문을 통하거나 부엌을 통해 출입할 수 있는데, 이곳에는 수돗가와 장독대가 있다. 안방의 툇마루와 윗방의 쪽마루가 'ㄱ'자를 이루며 뒤뜰 공간과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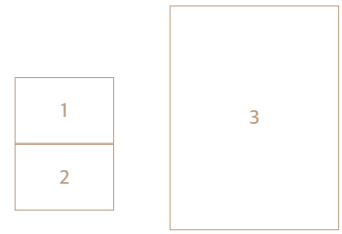
대청은 전면 툇칸이 있는 우물마루로 전면 3칸이 개방된 형태이며, 대청 좌측에 다과를 보관하는 윗방(찻방)이 뒤뜰 쪽으로 길게 나 있다. 또한 대청의 우측에 나 있는 문을 통하면 건넌방 뒤의 연결통로를 지나 사랑방으로 통하게 되어 있고 사랑채 마당의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줄 행랑채와 직각으로 마주하는 곳에 안채로 출입하는 중대문이 있다. 안채의 기단은 자연석 위에 시멘트로 마감하였으며, 방형초석을 사용하였다. 가구는 오량구조에 판대공을 받치고 있으며 그 결구가 견실하다. 지붕은 홑처마에 한식기와 맞배지붕이다.







사랑채는 솟을대문으로 들어서면 서쪽(우측)에 위치하며, 사랑방은 미세기로 서로 연결되어 사랑채의 대청까지 어어 진다. 사랑채는 정면 4.5칸, 측면 2칸의 전후퇴집으로, 가운데 사이장지로 아랫방, 윗방을 나누었다. 아랫방의 남쪽은 벽장이고, 서측에는 반 칸 크기의 골방을 두었으며, 골방이 안대청과 이어지는 통로와 연결된다. 사랑대청은 장마루로 되어 있고, 뒤쪽의 사분합문과 전면의 툇마루로 이어진다.
사랑채의 툇마루는 장마루이며, 너비 540㎜, 높이 340㎜의 머름난간이 사랑방 전면 툇기둥 사이의 일부분에 꾸며져 있다. 사랑대청 쪽으로 들어오지도 않고도 사랑방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였다. 사랑채의 기단부는 긴 장대석과 마름모꼴의 주초에 장식된 각주를 사용하였고, 가구는 납도리의 오량구조이며, 지붕은 한식기와를 올린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행랑채는 전체가 하나로 길게 연결되어 안채와 사랑채를 이어주고 있어 외부에서 가옥의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하였다.



1. 사랑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행랑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중대문에서 바라본 사랑채 마당과 솟을대문, 2015_ 화성시







국가민속문화재 제125호

화성 정수영 고택

華城 鄭壽永 古宅

조선시대
일곽
안채 : 8칸
사랑채 : 11.5칸
목재
화성시 서신면 오얏리길 56

지정일 : 1984.01.14
소유자 : 화성시(공유)
관리자 : 화성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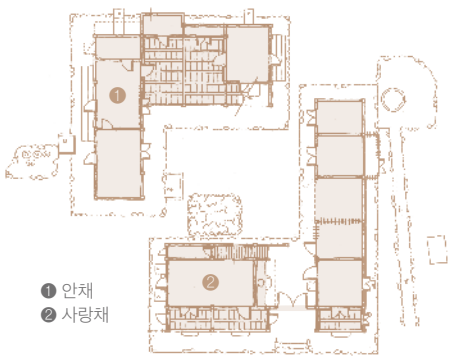
<화성 정수영 고택>은 안채 상량문에 '大韓光武三年己亥二月二十四日未時立柱上樑(대한광무삼년기해이월이십사일미시입주상량)'이라고 적혀 있어 정수영鄭壽永(1837~?)이 1889년에 지은 집으로 추측된다. 본래 '박희석 가옥', '정용래 가옥'으로 명명되다가 2017년 문화재청의 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화성 정수영 고택이 위치한 마을은 본래 초계 정씨의 세거지로 아랫말 혹은 오야니라고 불리는 곳이다. 고택은 서신에서 남양만 방향으로 난 큰 도로에서 1km정도 떨어진 나지막한 산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동북쪽을 향해 배치되어 있다.

고택의 평면은 'ㄱ'자형 안채와 'ㄴ'자의 사랑채로 구성된 튼'ㅁ'자형 집이다. 마을의 안길과 사랑채는 나란히 있어 별도의 바깥마당 없이 사랑채와 길이 바로 면해있다.

안채는 전면 툇간이 있는 대청(2칸)을 중심으로 좌측에 안방과 입식부엌, 우측에 건넌방이 있다. 안방(2칸)의 윗목에는 옷가지를 넣어두는 벽장(반 칸)이 있다. 부엌(1.5칸)은 입식으로 개조하였으며 안방으로 통하는 문을 설치하였다. 대청은 전면 툇간이 있는 2칸으로 건넌방에 면한 칸의 뒷벽에는 벽감이 있다. 건넌방은 1칸으로 전면 밑에는 아궁이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는 대청보다 490㎝나 높은 지점에 툇마루를 만들어 놓았다. 안채의 기단과 주초는 자연석이고 가구는 오량구조이며, 지붕은 우진각 홑처마 초가지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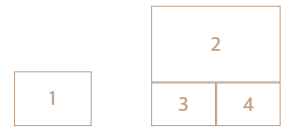
사랑채는 전후에 툇간을 둔 대문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큰사랑방, 우측에 작은사랑방과 광, 나뭇간, 광이 있다. 큰사랑방은 앞뒤에 툇간이 있으며, 바깥마당에 면하고 있는 툇마루의 좌·우 끝에는 문이 있다. 안마당에 면한 툇간에는 나뭇간과 툇마루를 놓았으며, 안마당에 면한 툇마루는 토벽으로 마감하였다. 툇마루의 토벽을 반칸 정도 길게 처리하여 대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시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작은 사랑방은 단칸으로 외부에 면한 전면은 툇마루를 놓았으며, 북쪽은 판문을 달아놓았다.





작은사랑방부터 나뭇간까지의 북쪽 벽에는 화방벽을 쌓아 놓았다. 작은사랑방 아궁이는 큰사랑방과 같이 등을 돌리고 대문간에 있다. 현재 작은사랑방에 면한 광은 원래 외양간이었으며, 소죽은 큰사랑방의 아궁이에서 쑤었다고 한다. 사랑채 측면에 화장실과 곳간(1칸), 그리고 사랑채와 부엌을 연결하는 담이 있었다고 하나 철거되었다. 사랑채의 가구는 주칸의 차이에 따라 다르며 대문간 쪽과 나뭇간 쪽은 평사량구조와 삼량구조로 결구하였다. 지붕은 홑처마로 우진각 초가지붕이며 기단과 주초는 자연석이다.

화성 정수영 고택의 특징은 사랑채의 큰사랑방과 대문간의 전후 양쪽으로 툇간을 꾸며 놓은 점이다. 또한 외부의 길에 면한 큰사랑방과 작은사랑방의 툇간을 완전히 개방한 점도 경기도 민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 화성 정수영 고택 전경, 2015_ 화성시
2. 안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사랑채(대문 좌측),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사랑채(대문 우측),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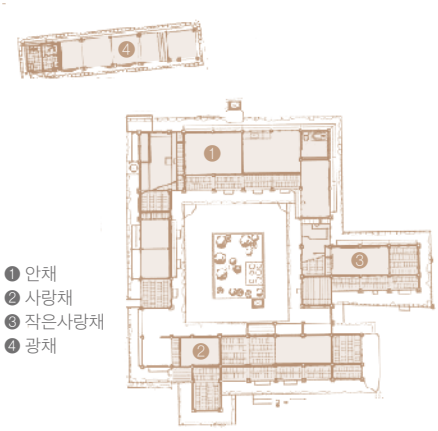
국가민속문화재 제126호

여주 보통리 고택

驪州 甫通里 古宅

조선시대
일곽
안채 : 21칸, 큰사랑채 : 13.5칸, 작은사랑채 : 4.5칸, 헛간채 : 6칸
목재
여주시 대신면 보통1길 98

지정일 : 1984.01.14
소유자 : 이앵자(사유)
관리자 : 김영구



<여주 보통리 고택>은 경기도 동부지역의 전형적인 사대부士大夫 가옥이다. 임진왜란 때 창녕 조씨昌寧曺氏인 조경인曺景仁(1555~1615)이 전란을 피해 외가였던 무송 윤씨의 터전 보통리로 들어와 세거하기 시작하였고, 정조 때 광흥창수廣興倉守를 지낸 조명준曺命峻(1728~1796), 이조판서 조윤대曺允大(1748~1813)를 비롯하여 이조판서 조봉진曺鳳振(1777~1838), 문정공文靖公 조석우曺錫雨(1810~1878), 독립운동가 조성환曺成煥(1875~1948) 등의 후손들이 대대로 거주하였다. 조성환의 부친인 진사進士 조병희曺秉憙(1855~1938)가 독립군의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때 함께 매각하였고, 일제강점기 때 이윤종씨가 매입한 것을 1970년대에 현재의 가옥주가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1999년 5월 안채의 수리 공사 중에 '崇禎紀元後三年癸酉二月二十七日巳時上樑壬坐丙向(숭정기원후삼계유이월이십칠일사시상량임좌병향)'이라는 상량문이 확인됨에 따라 1753년(영조29) 전후로 고택이 처음으로 건립된 것으로 추측된다.

여주 보통리 고택의 동쪽으로 나지막한 언덕이 있고, 서쪽으로는 남북으로 난 마을길이 있으며, 기와를 쌓아 만든 담과 시멘트 블록으로 만든 담이 안채의 서쪽과 뒤쪽을 두르고 있다. 여주 보통리 고택의 평면은 남동향의 'ㄷ'자형 안채와 '一'자형 큰사랑채, '一'자형 작은사랑채, '一'자형 헛간채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는 'ㅁ'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마을길에서 가옥으로의 진입은 서쪽에 기와를 쌓아서 만든 담에 난 작은문을 이용하거나, 가옥의 남쪽에 2단으로 된 텃밭을 좌측에 끼고 돌아 진입한다. 한편 안마당으로의 출입은 이중 대문이 달린 대문간을 이용하거나 작은사랑채와 큰사랑채 사이에 난 작은 대문을 이용한다.



안채의 중심은 안방과 대청이다. 일반적으로 'ㅁ'자형 가옥에서 안방은 'ㄱ'자로 꺾이는 측면에 자리를 잡는 것에 비해, 여주 보통리 고택은 그 자리에 부엌을 두고 안방과 대청을 중앙부에 두었다. 안채의 뒤편과 동쪽 기단 위에는 안채의 외벽에 면하여 쪽마루가 있으며, 안채의 좌측 부엌 상부에는 통나무 널을 깔아 다락을 꾸며 수장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안채의 기단은 다듬은 장대석 외벌대이고 바닥은 강회다짐으로 마감을 하였으며, 주초는 다듬은 제형주초이다. 가구는 오량구조이고 지붕은 한식기와를 올린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사랑채는 큰사랑방 앞 누마루가 돌출된 'ㄴ'자형 평면 형태를 갖추고 있다. 큰사랑채는 전면 툇마루가 있는 사랑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에 벽을 튼 방과 아궁이간, 우측에 큰사랑방과 대문간이 있으며, 사랑방 전면 툇마루 남쪽에는 정면으로 돌출한 누마루가 있다. 사랑대청 우측 방은 작은방 2개를 터 넓게 사용한다. 기단은 장대석 이벌대이고 바닥은 강회다짐이며, 주초는 다듬은 제형이고 누마루의 주초는 제형의 장주초이다. 가구는 오량구조이고 지붕은 한식기와를 올린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작은사랑채는 전면에 툇마루가 있고 뒷면은 쪽마루를 달아 놓았으며 작은사랑방과 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기단은 장대석 외벌대로 세워쌓기를 하였고 바닥은 흙이며 주초는 다듬은 제형 주초이다. 가구는 오량구조이며 지붕은 한식기와를 올린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작은사랑채 앞에는 바깥마당이 있으며, 안채 뒤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담 없이 트여 있다. 안채의 북서쪽 담 모서리에는 창고와 광, 헛간으로 구성된 헛간채가 있다. 가구는 삼량구조이고 지붕은 시멘트 기와를 올린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큰사랑채의 남쪽 텃밭은 행랑채와 행랑마당이 있던 곳으로, 행랑마당 중앙에는 정자가 있었으며, 행랑채 우측 곽선영 가옥 사이에는 큰 대문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2
1
3

1. 여주 보통리 고택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헛간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안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국가민속문화재 제127호

이천 어재연 고택

利川 魚在淵 古宅

조선시대
일곽
안채 : 정면 4칸, 측면 4칸
사랑채 : 정면 7칸, 측면 2칸
광채 : 정면 4칸, 측면 2칸
목재
이천시 율면 일생로897번길 2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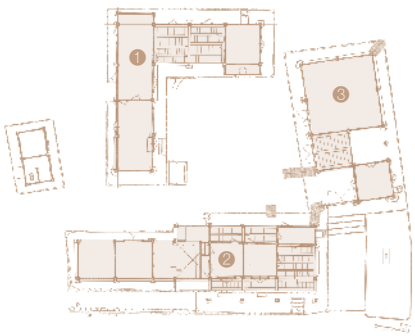
지정일 : 1984.01.14
소유자 : 어홍(사유)
관리자 : 어홍선

<이천 어재연 고택>은 1871년(고종8) 신미양요 때 강화도 수비의 책임자로서 광성진에서 전투를 벌이던 중 장병과 함께 순절한 어재연 魚在淵(1823~1871)장군의 생가로 알려져 있다. 서울의 고가古家를 옮겨지었다고 전하나 확실한 근거는 없고, 고택의 구조 및 건축수법 등으로 미루어 보아 19세기 말경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옥은 송림이 형성되어 있는 야산 기슭에 북서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넓은 바깥마당에 면하여 '一'자형의 사랑채와 헛간채가 있고, 그 뒤쪽에는 'ㄱ'자형 안채와 '一'자형 광채가 안마당을 둘러싸서 전체적으로는 튼'ㅁ'자형 배치구조를 이루고 있다. 광채의 끝부분에 위치한 대문간을 지나 내·외벽을 우회하면 안마당에 진입하게 된다.

안채는 7칸 규모의 우진각 초가로 'ㄱ'자형의 구조이다. 건넌방 1칸, 대청 2칸과 안방 2칸, 부엌 1칸, 광 1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방과 대청 그리고 건넌방에는 헛기둥을 세워 반침을 설치하였다. 가구는 3량의 구조에 정면과 배면에 퇴칸이 붙은 2고주5량가二高柱五樑架 구조로 좌측면에 붙어 있는 3량가 구조의 창고부분은 후설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랑채는 6.5칸 규모의 우진각 초가로 '一'자형의 구조이다. 우측면으로부터 대청 1칸, 사랑방 2칸, 부엌 1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후설 된 듯한 3칸 규모의 헛간채가 연결되어 있다. 사랑채 뒷면에 툇마루를 설치하여 안마당을 중심으로 생활하도록 설계하였다. 부엌의 상부에는 다락방을 만들어 사랑방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랑방에는 반침을 두었다. 광채는 8칸 규모의 우진각 초가로 '一'자형 구조이다. 고택의 주출입구인 대문간이 우측면 전퇴칸에 위치하고 있다. 4칸의 광과 마루방, 방, 대문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채와 달리 측면이 2칸인 양통집(겹집)의 평면구조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안채 배면 뒤뜰은 석축을 쌓아 층이 지게 하였고, 광채 모서리를 기점으로 뒷간에 이르는 구역에 토담을 돌려 집안을 둘러싸 공간을 형성하였다.

이천 어재연 고택은 여러 번의 수리에도 불구하고 원형이 잘 남아 있으며, 건물과 외부공간이 매우 짜임새 있게 구성된 조선 후기의 살림집이다.



❶ 안채
❷ 사랑채
❸ 광채











2
3 4
1 5

1. 이천 어재연 고택 전경, 2018_ 경기도지적연구회
2. 안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안채 부엌,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사랑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5. 광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국가민속문화재 제128호

양주 매곡리 고택

楊州 梅谷里 古宅

조선시대
일곽
안채 : 12.5칸
행랑채 : 14칸
목재
양주시 남면 휴암로443번길 65

지정일 : 1984.01.14
소유자 : 백승진 외 5인(사유)
관리자 : 백선현

<양주 매곡리 고택>은 조선시대 말기인 1870년경 명성황후가 은신처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또는 철원)에 있던 오래된 가옥을 옮겨지은 것이라고도 전하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 행랑채 용마루 망와望瓦에 '康熙二十一年(강희 21년, 1682년)'이라는 각자가 남아 있는데, 이는 건물 축조 연대와는 관계없이 옮겨 사용한 기와로 보이며, 가구의 구성이나 사용된 기법으로 보아 19세기 말에 지어진 집으로 추정된다. 양주 매곡리 고택은 본래 지정 당시 가옥 소유자의 이름을 따서 '백수현 가옥'으로 명명되다가 2017년 문화재청의 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지정 당시 가옥의 소유자였던 백수현의 조부가 1910년경 당시 소 아홉 마리를 주고 구입한 것이라고 한다.

양주 매곡리 고택은 해발 360미터 정도 되는 매봉 아래 구릉지에 자리 잡고 있다. 본래에는 사랑채, 별당채를 두루 갖춘 전형적인 사대부士大夫집이었으나, 한국전쟁 이후 사랑채와 별당채는 지대석만 남긴 채 소실되어 현재는 안채와 중문간 행랑채만 남아있다. 고택의 평면은 'ㄴ'자형 행랑채와 꼬리가 달린 'ㄱ'자형의 안채로 구성된 튼 'ㅁ'자 형태이다. 외부공간은 행랑채 앞의 사랑마당과 집안의 안마당 그리고 안채 뒤뜰로 이루어졌다. 동남쪽에 있는 행랑채 중문을 통해 들어서면 안마당의 안쪽에 남동향으로 안채가 자리한다.

안채는 엄밀하게 보면 'ㄱ'자형에서 약간 벗어나 부엌 옆으로 한번 꺾어 2칸을 덧붙인 '乙'자 모양이다. 중앙에 정면 2칸, 측면 1칸의 대청을 중심으로 서쪽에 안방, 부엌, 광, 뒷방을 두고 꺾어져서 동쪽에 건넌방을 두었다. 안방은 비교적 넓은 3칸 규모이며, 뒷마당 쪽으로 쪽마루를 내어 두 개의 쌍여닫이문을 내었고 부엌 쪽으로 벽장을 두고 문을 내어 달았다. 예전에는 방 중간에 미닫이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윗방과 안방이 통합되었다.

안대청 2칸의 대들보 사이에는 시렁을 걸었다. 대청 시렁은 교자상이나 병풍처럼 제사와 접객에 사용하는 살림살이를 보관한다. 다른 집에 비해 시렁이 큰 것을 통해 손님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안방에 연접하여 3칸 크기의 부엌이 있다. 부엌은 안마당에서 뒷마당 쪽으





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부엌 상부에는 다락을 두어 살림살이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엌 앞에 만들어진 선반은 당초무늬가 아름답게 아로새겨진 까치발로 받치고 있어서 인상 깊다. 부엌에서 꺾어져 뒷마당 쪽으로 1칸 크기의 광이 있고, 연이어 사랑채의 터에서 뒷마당으로 통하는 1칸 크기의 뒷방이 있는데 뒷마당 쪽으로 사분합문을 달아낸 점이 특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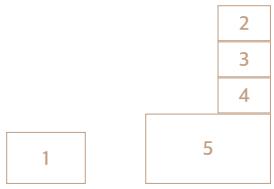
안채의 가구는 일고주오량一高株五樑구조로 홑치마의 팔작지붕을 이루고 있다. 지대석은 화강암을 잘 다듬어 깔았고, 기둥과 도리는 각각 방형 단면의 네모기둥과 납도리를 구성하였다. 대청 중앙에는 긴 대들보를 걸치고 그 위에는 다시 종보를 두었으며, 그 위에 판대공을 얹었다.

행랑채는 삼량三樑집으로, 맞배지붕을 이루고 있으며, 길게 축조되어 안채 전체를 감싸고 있다. 서쪽에서부터 부엌, 문간방, 광, 대문간, 마구간 및 마부방을 두었고 북쪽으로 꺾어서 부엌, 2칸 뜰아랫방, 고방(쌀광), 2칸 광을 배치했다. 행랑채는 모두 안마당 쪽으로 동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대문 옆의 방들은 모두 쪽마루를 내어 사랑방처럼 만들었다. 행랑은 모두 안마당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랑 앞은 사랑마당이 있고 사랑채와 별당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1. 양주 매곡리 고택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안채에서 바라본 행랑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사분합문이 달린 안채 뒷방,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행랑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안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국가민속문화재 제129호

남양주 동관댁

南楊州 東官宅

조선시대
일곽
안채 : 14.5칸
사랑채 : 6.75칸
광채 : 9칸
사당 : 3칸
문간채 : 5칸
목재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961번길 25-14

지정일 : 1984.01.14
소유자 : 여인중(사유)
관리자 : 최중환

<남양주 동관댁>을 마을사람들은 연안 이씨延安李氏의 동관댁이라고 부르는데 전 소유자 여경구呂卿九의 장인인 이덕승의 8대조八代祖가 지은 집이라고 전한다. 건축기법 등으로 미루어 보아 18세기 말에 지어진 집으로 추정된다.

남양주 동관댁은 태묘산 줄기를 배산背山으로 하여 서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안채와 사랑채·문간채·행랑채·사당祠堂이 연결되지 않고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전체적으로 동남쪽에 안채를 두고 그 옆 서북쪽에 사랑채를 두었으며, 다시 그 옆에 문간채를 두어 건물 측면으로 출입하도록 해놓았고 사랑채 뒤편으로 사당을 두었다.

안채는 자연석으로 기단을 높이 쌓고 그 위에 'T'자형으로 앉혔다. 안채의 맞은편 서남쪽에는 'ㄴ'자형의 광채가 있어 전체적으로 튼 'ㅁ'자형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사랑채는 본래 사랑방과 대문간 및 헛간채를 두어 'ㄷ'자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一'자형 사랑채와 문간채만 남았다. 안채는 부엌(2.5칸), 안방(2칸), 대청(3칸), 건넌방(2칸)의 평범한 'ㄱ'자형 집에 안방의 동쪽으로 꺾어져서 골방과 뒷방, 광을 둔 특이한 공간구성을 보이고 있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는 사랑채 옆의 협문夾門 또는 광채의 꺾인 부분에 중문간中門間을 두어 사랑마당에서 중문을 지나 안마당으로 통하게 했다.

사랑채는 위·아래 사랑방과 대청, 건넌방의 차례로 배치되고 전퇴에는 마루를 깔았다. 사랑채의 대청은 양쪽 구들과 전면 모두 사분합문을 시설해서 삼면을 개방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문간채는 솟을 대문으로 만들었으며 방과 외양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당은 사랑채의 뒤편 한단 높은 터전에 따로 꾸몄다. 사당 측벽側壁의 화방장火防墻을 자연석과 기와를 이용하여 아름답게 쌓은 것이 인상적이다.

남양주 동관댁의 가구는 안채와 사랑채가 일고주오량一高柱五樑구조인데 안채 대청 부분만 오량五樑으로 처리하고 광채와 문간채는 맞걸이 삼량三樑가구이다. 사당은 일고주사량一高柱四樑으로 처리해서 전면 지붕이 뒷면보다 길게 되었다. 이것은 경사가 급한 지형에서 자주 쓰이는 기법이다.













2
3 4
1 5

1. 남양주 동관댁 전경, 2018_ 경기도지적연구회
2. 안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사랑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안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사당,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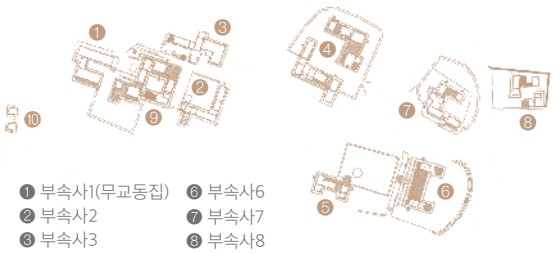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

남양주 궁집

南楊州 宮집

조선시대(1765년~1771년)
일곽
정침공간 : 정면 5.5칸, 흑면 2칸
동서날개채 : 정면 3칸, 측면 1칸
문간채 : 정면 5칸, 측면 1칸
사랑채 : 정면 4칸, 측면 2칸
목재
남양주시 평내로 9

지정일 : 1984.01.14
소유자 : (재)무의자문화재단
관리자 : 심상희



❶ 부속사1(무교동집)
❷ 부속사2
❸ 부속사3
❹ 부속사4(용인집)
❺ 부속사5
❻ 부속사6
❼ 부속사7
❽ 부속사8
❾ 궁집
❿ 대문채

<남양주 궁집>은 조선시대 영조와 숙의 문씨 사이에서 낳은 화길옹주和吉翁主(1765~1772)가 능성위 구민화綾城尉具敏和(1754~1800)와 혼인을 하자 왕이 그들을 위해 나침반을 놓아 직접 집터를 잡고, 목재와 목수를 보내 지어 준 집이라고 전해진다.

조선시대에는 세자를 제외한 대군大君, 군君, 공주公主, 옹주翁主등이 혼례를 치르면 궁 밖으로 나와 생활해야했는데 그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나라에서 재목과 목수를 보내줬기 때문에 흔히 마을에서는 그 살림집을 '궁집'이라고 불렀다. 현재 조선시대 궁집은 서울 번동 창녕위궁재사(복온공주 궁집, 등록문화재 제40호), 안국동 윤보선가(영혜옹주 궁집, 서울시민속자료 제18호), 장위동 김진흥가(덕온공주 궁집, 서울시 민속자료 제25호), 김정희선생고택(화순옹주 궁집,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3호), 운현궁(대원군이하응 궁집, 사적 제257호) 등 여러 곳에 남아 있으나 화길옹주의 궁집만이 '궁집'이라는 문화재명칭으로 지정되어 있다.

화길옹주는 출가하여 죽을 때 까지 이곳에 거주하였으며, 화길옹주 사후에는 일제강점기 때까지 후손들이 거주하며 관리하였다. 일제강점기 때는 한때 후손들이 거주하지 않고 재실로만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 후 1944년에 김우경金宇卿에게 매도되었고, 1967년에 다시 조창원趙昶元에게 매도되었으며 1968년에 조병일趙炳日에게 상속되었다. 그 후 1972년에 현 소유주가 매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남양주 궁집은 북한강변에 위치한 산기슭에 위치하여 자연적인 조경이 잘 이루어져 있다. 집 앞 50m 가량 되는 거리에는 조그만 동산이 하나 있는데 이 동산이 바로 안산이다. 여기에 집주인인 화길옹주의 묘가 조성되어 있어서 사랑의 누마루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있다.





남양주 궁집의 건물 배치는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사대부가의 배치로써 남향으로 자리 잡았다. 동쪽에 'ㅁ'자형으로 안채를 놓고 그 서남쪽 모퉁이에 'ㄴ'자 평면의 사랑채를 연결한 형태를 하고 있다. 건물은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안채의 동남쪽 모퉁이에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대문간을 두었다. 본래는 문간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는 소실되었고, 담이 공간의 구분을 대신하고 있다.

안채는 서에서 동으로 부엌·안방·대청을 '一'자로 두는 남도방식南道方式의 평면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당시의 정형화되어 있는 주거건축의 형식을 따르기보다는 안주인의 주요 거주공간인 안방의 일조, 실용성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부엌, 안방, 대청을 '一'자로 배치하고 양쪽 측면을 꺾어 동쪽에는 건넌방과 부엌, 서쪽에는 아랫방과 사랑뒷마루를 놓았다.

안방 전면의 공간은 동쪽에서부터 대문간과 광, 책방이 차례로 배치되어 사랑방으로 연결된다. 안방과 건넌방 부엌에는 상부에 다락을 두었으며, 부엌 출입문은 가운데 청판을 중심으로 위아래 세로살을 끼워 만들어 설치하였고 그 위에 작은 한식 세살창을 달았다.

2

1

1. 남양주 궁집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궁집 안채,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사랑채는 안채의 서남쪽 모퉁이에 배치하였는데, 안채의 아랫방을 통하여 사랑채와 연결되어 있다.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정면 4칸, 측면 2칸에 1칸의 내루內樓를 돌출시켜 전체적으로 역'ㄱ'자형을 하고 있다. 서쪽에서부터 대청마루 2칸, 사랑방 2칸이 배치되어 있으며, 사랑방 앞쪽으로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또 대청마루의 남쪽으로는 대청마루보다 1자 정도 높여 내루를 만들어 돌출시켰다. 사랑채의 샛문과 전면의 문, 안대청의 샛문과 전면의 문이 모두 분합문으로 되어 있으며, 사랑채에는 툇마루 앞에도 분합문을 달았다. 사랑채 앞에는 마당이 있고, 사랑채로의 진입은 사랑마당의 동, 서쪽 담장에 낸 협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단은 마름질이 잘 된 화강석을 이용하여 건물 주위를 전부 둘렀다. 지반높이에 따라 외벌대에서 삼벌대로 축조했으며 기단 바닥은 흙과 시멘트로 되어 있다. 건물의 가구는 안방과 사랑 부분을 모두 일고주오량一高柱五梁구조로 하였고, 보칸을 2칸 너비로 처리하였으며 기타 안채 날개와 대문간은 맞걸이 삼량三梁구조로 꾸몄다. 지붕은 팔작, 맞배, 우진각지붕 등 한식지붕 모양을 모두 갖추었고, 기와 마구리를 막새로 마감해 놓았다. 남양주 궁집은 원형에서 수차례 보수가 있었으나 축조 당시의 모습이 현재까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며, 건립된 절대연대의 추정이 가능하고 왕가 주변에서 이루어진 건축물의 조영기술을 파악할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건물명	본래 가옥주, 가옥위치	평면 구성	상량기록	이건/건립 시기
부속사1 (무교동집)	서울 무교동에 있던 신태악辛泰嶽 (1902~1980)의 가옥	'ㄷ'자형	甲寅 □□七月 □□午時 重建 (갑인 □□칠월 □□오시 중건)	1974년
부속사2	-	'ㄱ'자형	일제강점기 이전	-
부속사3	-	'一'자형 +'ㄷ'자형	甲寅年 九月 初九日□□□ (갑인년 구월초구일□□□)	1974년
부속사4 (용인집)	송병준宋秉俊(1857~1925)의 가옥	튼'口'자형	己未年 陰曆六月十日 申時 上樑 (기미년 음력6월10일 신시상량)	1979년
부속사5	서울 낙성대 내 강감찬 장군 유적지의 서당	'ㄷ'자형	壬戌年 陰曆七月二十八日 午時上樑 (임술년 음력7월28일 오시 상량)	1982년
부속사6 (군산집)	군산시 문화동에 있던 신정왕후 조씨(1808~1890) 친정집의 일부	'ㄷ'자형	辛酉年 陰曆五月十二日 午時 上樑 (신유년 음력5월12일 오시 상량)	1981년
부속사7 (초가집)	궁집의 일을 거들던 아랫사람들이 거처하던 집	'ㄷ'자형	궁집 건립시기 전후(추정)	-
부속사8	-	튼'口'자형	檀紀 四二七九年 丙戌九月初六日辰時立柱上樑 (단기4279년 병술구월초육일진시입주상량)	194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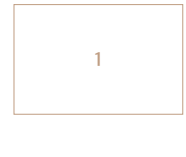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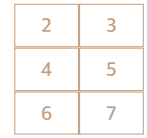
※ 궁집과 가까운 거리순








현재 남양주 궁집은 약 8,000여 평의 넓은 영역에 10여동의 부속사와 일곽을 이루고 있다. 궁집과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2채의 초가 이외의 건물은 한옥에 관심이 많았던 현 소유주가 서울, 용인, 군산 등에서 철거되던 한옥을 구입해 이건移建한 것으로서, 1974년부터 1982년경에 조성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각각의 건물들의 이건 이전以前의 건축연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다만 각 건물의 이건공사는 당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도편수 장용득(1931~2005)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각 건물은 방바닥 구조의 변경 외에는 본래의 형상대로 옮겨서 지었다고 전한다.

1. 궁집 사랑채,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부속사1(무교동집),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부속사4(용인집),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4. 부속사5,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5. 부속사6(군산집),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6. 부속사7(초가집),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7. 부속사8, 2018_ 경기문화재연구원

국가민속문화재 제209호

김함의 묘 출토의복

金涵의 墓 出土衣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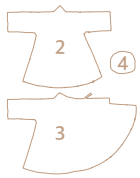
조선시대
일괄 17점
• 장옷
① 면주 누비장옷 : 길이 121㎝, 화장 85㎝, 품 80㎝, 진동 34㎝
② 화문단 누비장옷 : 길이 122㎝, 화장 83㎝, 품 75㎝, 진동 34㎝
③ 무명 솜장옷 : 길이 116㎝, 화장 85㎝, 품 82㎝, 진동 32㎝

• 저고리
④ 저고리(1) : 길이 58.5㎝, 화장 83㎝, 품 83㎝, 진동 31.5㎝
⑤ 저고리(2) : 길이 64㎝, 품 68㎝, 진동 30㎝

• 바지
⑥ 삼베 바지 : 길이 83㎝, 부리 68㎝, 밑아래 36㎝, 옆트임 14.5㎝
⑦ 솜누비 바지 : 길이 92.5㎝

⑧ 소모자 : 길이 19㎝, 지름 33㎝
⑨ 누비무명버선 : 길이 32㎝, 발길이 24㎝, 볼너비 10㎝
⑩ 부들신 : 발길이 26.5㎝, 볼너비 9㎝
⑪ 이불 : 세로 161㎝ 잔존, 가로 175㎝
⑬ 목걸이 : 구슬 30개, 구슬지름 0.8~1.2㎝
⑫~⑰ 제웅 : 크기 23~56㎝
비단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지정일 : 1987.02.12
소유자 : 단국대학교(사유)
관리자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

1. 제웅, 2009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3. 누비장옷, 2006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4. 소모자, 2007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김함의 묘 출토의복>은 1985년 4월 15일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학계리에서 김해김씨金海金氏 문중이 선산의 묘역을 재정리·확장하기 위하여 이장移葬하던 중 출토된 일괄 유물로, 현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김함金涵(1568~1598)은 1588년(선조21)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이 되었으며, 1598년(선조31) 한산도에서 부친인 부사府使 김극희金克禧(1532~1598)와 함께 이순신李舜臣 장군 휘하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해전海戰에서 전사한 김함의 시신을 찾지 못하자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 염습하고 장례를 치룬 의리장衣履葬의 장속葬俗으로 발견되었다. 목에는 30과顆로 꿰어진 목걸이가 있었으며 팔 아래로는 삼껍질로 만든 제웅이 5점 출토되었는데, 이는 군졸軍卒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출토유물은 장옷 3점, 저고리 2점, 바지 2점, 모자 1점, 누비무명버선 1쌍, 부들신(명주실이나 무명실을 꼬아서 매듭지은 실로 엮은 신) 1쌍, 이불 1점, 구슬목걸이 1점, 제웅 5점 등 총 17건이 수습되었다.

김함의 묘 출토의복은 매장주체의 신분이 밝혀진 16세기 선전관의 복식으로 임진왜란 당시의 의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의리장의 장속은 『송자대전宋子大全』을 포함한 일부 문집에서 보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유일한 자료로서 장례풍속을 연구하는 자료로서도 의미가 있다.

• 장옷長衣

김함 묘에서 발굴된 3점의 포袍류는 모두 장옷으로 면주綿紬 누비장옷 1점, 화문단 누비장옷 1점, 무명 솜장옷 1점이 있다. 깃은 들여 달린 목판깃에 소매는 끝동이 달린 일자형이며, 겨드랑이 아래 작은 삼각무와 옆선에 큰 사다리꼴무가 부착되어 있다. 면주 누비장옷과 화문단 누비장옷은 겉감이 아청색이며 안에 솜을 두어 누빈 솜누비옷이다. 특히 겨드랑이 삼각무는 무늬 없는 공단과 운문단雲紋緞을 사용하여 겉감과 다르게 장식하였다. 나머지 무명솜장옷도 겉감이 아청색이며 두 점의 누비장옷보다 길이는 짧으나 품은 더 넓은 편이다.

• 소모자小帽子

모자의 겉감은 아청색 무문단無紋段이며 안감은 소색 명주로 만들었다. 상단은 여섯 개의 삼각형 천을 이어서 만들었고, 하단에는 일자로 테두리를 둘렀으며, 모자의 정수리에는 매듭단추를 달았다. 이러한 모자는 변수邊修(1447~1524), 김흠조金欽祖(1461~1528), 이석명李碩明(1513~1583), 이응태李應台(1556~1586), 심수륜沈秀崙(1534~1589)의 묘에서도 나와 조선전기에 실용 목적으로 썼던 모자의 종류로 추측된다.



• 저고리赤古里

김함 묘에서는 2점의 저고리가 출토되었는데 1점은 명주, 1점은 무명으로 만들었다. 모두 아청색이 남아있고 목판깃이 섶에서 반쯤 들여서 달려 있으며 소색 세주로 만든 동정이 달려 있다. 화장에 비해 품이 상당히 넉넉하며 옆트임이 없고 소형의 사각무가 겨드랑이에 달려 있지 않은 한쪽 무로 구성되었다. 나머지 면주 솜저고리는 현재 깃, 동정 끝동이 없으며 솜이 밖으로 내보이는 형태로 남아 있다.



• 바지袴

김함의 묘에서는 바지 2점이 출토되었다. 완형의 삼베 바지는 홑옷으로 바지 부리가 넓은 너른바지 형태이며, 정삼각형의 밑바대가 허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양쪽 가랑이와 연결되어 있다. 솜누비바지는 면綿으로 만들었으며 밑 트인 바지 부리 한쪽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소실된 상태이다.



1. 면주솜저고리, 2009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 무명저고리, 2009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3. 삼베바지, 2007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4. 누비무명버선, 2009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5. 부들신, 2009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국가민속문화재 제210호

고종의 누비저고리

高宗의 縷緋저고리

조선시대
1점
길이 57.5㎝, 화장 80.5㎝, 품 49㎝, 진동 24.5㎝
비단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지정일 : 1987.02.12
소유자 : 단국대학교(사유)
관리자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고종의 누비저고리>는 조선시대 제26대 임금이자, 대한제국 제1대 황제 고종高宗(재위 1863~1907)이 평상복으로 입었던 오목누비五目縷緋저고리로, 고종의 질녀姪女인 안동김씨安東金氏 김인규金仁奎의 부인夫人이 입궐하였을 때 고종으로부터 하사받은 유물 중 하나이다.

1969년 7월 3일 김인규의 후손 김현원金賢源이 석주선石宙善(1911~1996)에게 기증하였으며, 1987년 2월 12일 국가민속자료 제210호로 지정되어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겉감은 자주색 숙사熟紗를, 안감은 다듬이 한 명주를 사용하였고 겉감과 안감 사이에 아주 얇게 솜을 넣어 0.3~0.5㎝ 간격으로 정교하게 누볐다. 잘게 누빈 누비선을 안쪽에서 한줄씩 풀을 칠하고 인두로 다려줌으로써 거죽은 마치 코르덴직물처럼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누비형태를 오목누비라고 한다. 겉감은 일정한 크기의 작은 운문 사이에 박쥐문으로 되었는데 이와 동일한 문양의 옷감이 고종의 후궁이었던 광화당의 원삼(국가민속문화재 제52호)에 부착된 한삼에 사용되어 흥미롭다. 동정은 없고 고름만 달려 있는데 동정부분의 누비 간격이 5㎜ 정도로 넓어진 것으로 보아 원래는 동정이 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방한용이기 때문인지 깃이 넓은데도 고대가 좁고 화장이 길다. 옷고름은 누비지 않은 상태이다. 겉깃의 모양은 둥근 반달깃 형태이며, 안깃은 목판깃으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저고리 형태와 같다. 길이는 57.5㎝이며 화장 80.5㎝, 품 49㎝이다. 진동(24.5㎝)에서 수구(20.5㎝)에 이르는 배래 너비가 크지 않은 완만한 곡선을 보인다.

조선 말기의 왕실유물들이 다소 현존하고 있지만 대부분 예복 중심의 유물들이다. 그러나 이 누비저고리는 평상복으로 고종이 입었던 옷이라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



고종의 누비저고리, 2006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국가민속문화재 제211호

덕온공주 의복

德溫公主衣服

조선시대
일괄 6점
① 원삼 : 길이 164㎝, 화장 164㎝, 품 44.5㎝, 진동 23㎝
② 당의 : 길이 73㎝, 화장 67㎝, 품 36㎝, 진동 15.5㎝
③ 장옷 : 길이 113㎝, 화장 69㎝, 품 41㎝, 진동 19㎝
④ 삼회장저고리(1) : 길이 16㎝, 화장 53㎝, 품 34㎝, 진동 14.5㎝
⑤ 삼회장저고리(2) : 길이 19㎝, 화장 67㎝, 품 38㎝, 진동 17㎝
⑥ 삼회장저고리(3) : 길이 19.5㎝, 화장 65㎝, 품 35.5㎝, 진동 17.5㎝
비단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지정일 : 1987.02.12
소유자 : 단국대학교(사유)
관리자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덕온공주 의복>은 조선시대 순조(재위 1800~1834)의 셋째 공주인 덕온공주德溫公主(1822~1844)가 혼인할 때 가지고 온 원삼圓衫 1점과 당의 1점, 장옷 1점, 삼회장 저고리 1점, 누비삼회장저고리 1점 등이다.

덕온공주는 1822년(순조22) 순조와 순원왕후 김씨(1789~1857) 사이에서 태어났다. 효명세자(문조), 명온공주明溫公主, 복온공주福溫公主의 여동생이다. 8세가 되는 1829년(순조29)에 '덕스럽고 온화하다'는 의미의 '덕온'이란 이름을 받아 정식으로 공주에 책봉되었다. 16세가 되던 1837년(헌종3) 윤두수의 10세손인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1823~1887)과 혼인하였다. 살림집은 저동(서울 중구)에 마련되어 '저동궁'이라 불렸다. 하지만 슬하에 자녀를 두지 못한 채 22세가 되는 1844년(헌종10) 사망하였다. 공주의 사망이후 윤의선의 집안에서는 윤용구尹用求를 양자로 받아들였는데, 윤용구의 첫째 딸이 윤백영尹伯榮(1888~1986)이다.

덕온공주 당의는 공주의 손녀인 윤백영이 아버지인 윤용구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1960년대에 석주선石宙善(1911~1996)이 인수하였고, 현재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덕온공주 의복은 의식용과 평상복 일습으로서 왕실 의생활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사용자와 사용연대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원삼, 2012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원삼

원삼은 겉감과 안감을 각각 독립된 옷으로 따로 만든 후, 겉과 안을 깃과 도련을 합하여 한벌 옷으로 입기도 하며, 대한제국 때의 궁중 원삼은 겉안감을 함께 붙여서 바느질하기도 했다. 덕온공주의 원삼은 1837년 공주의 길례에 사용된 옷으로, 겉감과 안감이 따로 바느질되어 있다. 녹색 화접문사花蝶紋紗 겉감에 옷 전체에 '壽수'자 금박이 고루 찍혀 있다. 본래 홍색 본사本紗로 안을 받친 겹옷이지만 6.25 전쟁 때 안감이 없어지고 겉감만 남아 있다. 뒷길이는 길고 앞길이는 짧으며 깃은 배자褙子깃에 소매가 넓고 길다. 소매에는 붉은색·황색의 색동과 흰색의 한삼을 달았으며, 깃에는 2개의 은단추가 정면에 달려있다.

• 당의

덕온공주의 당의는 여름용 홑당의로, 녹색의 도류사桃榴紗(복숭아와 석류무늬가 있는 얇은 옷감)에 옷고름은 겉고름과 속고름 모두 자적색紫赤色 도류사로 만들었다. 당코깃에 동정이 있고 좁은 소매이며, 소매 끝에는 흰 명주 거들치가 달려있다. 옷 전체에는 '壽(수)'자와 '福(복)'자가 금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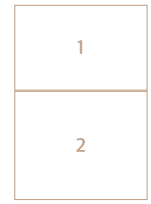
• 장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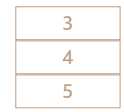
덕온공주의 장옷은 짙은 녹색 경광주綆光紬에 흰색 모시 안을 넣은 겹옷으로 짙은 자주색의 깃에 흰색 명주로 만든 동정이 달려 있다. 소매는 좁고 길며, 양쪽 겨드랑이 밑에는 자주색 비단으로 만든 작은 삼각형 무가 달려있으며, 소매 끝에는 흰 명주 거들치가 달려있다. 겉깃에는 다홍색과 자색의 고름이 비교적 크게 쌍으로 달려있고, 안깃 쪽에는 1장의 자색 고름이 달려있다.

• 삼회장저고리

두록색 삼회장저고리는 공주가 9세 때 착용하였던 것으로 두록색 도류사桃榴紗에 흰 모시안을 넣어 겹으로 만들었으며 속고름은 다홍색, 깃·고름·끝동·견마기 끝동은 자주색이다. 소매 끝에는 흰색 거들치가 달려있고, 옷 전체에는 '壽(수)'자와 '福(복)'자가 금박되어 있다. 누비삼회장저고리 1점은 옥색 설한단雪寒緞에 모시안을 넣어 아주 정교하게 누빈 춘추용 저고리이다. 속고름은 연한 분홍색, 깃·고름·견마기 끝동은 자주색이다. 깃은 당코형이며 도련과 배래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나머지 누비삼회장저고리 1점은 송화색松花色 도류사에 모사로 안을 넣어 겹으로 만들었으며 속고름은 다홍색, 깃·고름·끝동·견마기 끝동은 자주색이다. 고름을 제외하고 모두 정교하게 누벼져 있으며, 전체적인 형태는 옥색 누비삼회장저고리와 같다.





1. 당의, 2012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 장옷, 2012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3. 두록색 삼회장저고리, 2012
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4. 옥색 누비 삼회장저고리, 2012
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5. 송화색 누비 삼회장저고리, 201
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국가민속문화재 제212호

덕온공주 유물

德溫公主遺物

조선시대
일괄 33점
① 자라줌치노리개 : 길이 41㎝
② 제비부리댕기 : 길이 107㎝, 폭 5㎝
③ 매개댕기(1) : 길이 147㎝
④ 매개댕기(2) : 길이 147㎝
⑤ 떠구지댕기 : 길이 113.5㎝, 폭 5.5㎝
⑥ 화각참빗(1) : 길이 4.5㎝, 폭 3.5㎝
⑦ 화각참빗(2) : 길이 4.5㎝, 폭 3㎝
⑧ 화각빗 : 길이 4㎝, 폭 2.5㎝
⑨ 주칠빗(1) : 길이 5㎝, 폭 3㎝
⑩ 주칠빗(2) : 길이 5.5㎝, 폭 4㎝
⑪ 주칠빗(3) : 길이 12.5㎝, 폭 7㎝
⑫ 주칠얼레빗 : 길이 8㎝, 폭 4㎝
⑬ 화각부채빗 : 길이 7.5㎝, 폭 4.5㎝
⑭ 분첩(1) : 지름 5.5㎝
⑮ 분첩(2) : 지름 6㎝
⑯ 연지첩 : 지름 4㎝
⑰ 연지곤지 찍는 도장 : 지름 1.5㎝, 높이 2.7㎝
⑱ 소자 : 지름 1.8㎝, 길이 6.3㎝
⑲ 어깨걸이 : 길이 152.5㎝, 폭 37㎝
⑳ 노리개보(1) : 길이 30㎝, 끈길이 59㎝, 끈너비 1.3㎝
㉑ 노리개보(2) : 길이 38㎝, 끈길이 87㎝, 끈너비 1.4㎝
㉒ 노리개보(3) : 길이 32㎝
㉓ 날염보 : 세로 104㎝, 가로 109㎝, 끈길이 135㎝, 끈너비 16㎝
㉔ 족두리보 : 길이 52㎝, 끈너비 1.7㎝
㉕ 아청모시보 : 길이 76㎝, 폭 106㎝, 끝너비 8㎝
㉖ 패물선 : 길이 35㎝, 폭 31.5㎝
㉗ 패물선집 : 길이 38㎝, 폭 31㎝
㉘ 화각모필 : 길이 19.5㎝, 폭 1㎝
㉙ 주단척 : 길이 50㎝
㉚ 색헝겊상자 : 세로 15㎝, 가로 18.5㎝
㉛ 양념국자 : 길이 20㎝
㉜ 저울 : 길이 44.5㎝, 지름 13㎝
㉝ 저울집 : 길이 51.5㎝, 지름 14.5㎝
직물, 목재, 금속 등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지정일 : 1987.02.12
소유자 : 단국대학교(사유)
관리자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덕온공주 유물>은 조선시대 순조(재위1800~1834)의 셋째 공주인 덕온공주德溫公主(1822~1844)가 사용했던 유물들로 자라줌치 노리개 1점, 댕기 4점, 빗 8점, 화장도구 6점, 보자기 6점, 재봉도구 2점, 식기류 3점, 부채류 2점, 화각모필華角毛筆 1점 등 총 33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덕온공주는 1822년(순조22) 순조와 순원왕후 김씨(1789~1857) 사이에서 셋째 딸로 태어났다. 8세가 되는 1829년(순조29)에 '덕스럽고 온화하다'는 의미의 '덕온'이란 이름을 받아 정식으로 공주에 책봉되었고, 16세가 되던 1837년(헌종3) 윤두수의 10세손인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1823~1887)에게 하가下嫁하였다.

덕온공주의 살림집은 저동(서울 중구)에 마련되어 '저동궁'이라 불렸다. 하지만 슬하에 자녀를 두지 못한 채 22세가 되는 1844년(헌종10) 사망하였다. 공주의 사망이후 윤의선의 집안에서는 윤용구尹用求를 양자로 받아들였는데, 윤용구의 첫째 딸이 윤백영尹伯榮(1888~1986)이다.

덕온공주 유물은 공주의 손녀인 윤백영이 저고리와 노리개, 원삼 등과 함께 아버지인 윤용구에게 물려받은 뒤 소중하게 보관해오다가 1959년 석주선에게 기증하였고, 현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유물들은 덕온공주가 생전에 사용하던 것들로 노리개, 수식류를 비롯하여 생활용품까지 포함되어 있어 당시 공주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 자라줌치노리개

공주가 유년 시에 패용하였던 노리개이다. 백색 공단에 십장생十長生을 수놓은 자라모양의 작은 주머니(줌치)를 다홍색 술에 연결하여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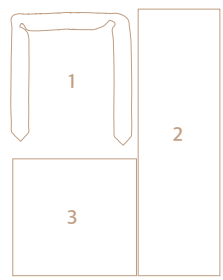
• 댕기 4점

- 매개댕기 2점

자적색 명주로 만들어진 가늘고 긴 형태의 댕기이다. 양쪽 끝은 가늘게 되어 있고 중간 부분은 조금 넓고 도톰하다. 궁중의식 때 가체를 이용하여 머리를 크게 성장할 때 연결부분에 사용하였다.

- 떠구지댕기 1점

떠구지는 나무로 만든 가발의 일종으로 나무를 깎아 머리를 땋은 것처럼 무늬를 새기고 검은 옻칠을 한 것이다. 떠구지댕기는 떠구지에 매는 댕기로, 덕온공주의 떠구지댕기는 흑공단에 장식이 없다.



1. 제비부리댕기, 2008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 자라줌치노리개, 2008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3. 자라줌치노리개 세부, 2008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제비부리댕기 1점
덕온공주가 일곱 살이 되던 1828년에 공주로 책봉되면서 사용하였던 댕기이다. 자적색 항라에 화문과 '福(복)', '壽(수)'자를 금박으로 장식하였다.





• 빗 8점

- 화각빗 4점

대나무 빗살에 꽃무늬를 그려 넣은 화각(소뿔) 또는 대모玳瑁(바다거북의 껍데기)로 빗 틀을 만든 장방형 참빗 2점, 반원형 화각빗 1점, 화각부채빗 1점이 있다.

- 주칠빗 4점

나무에 붉은 색을 칠한 반달형의 빗으로, 빗살이 촘촘한 편이다. 반달형의 주칠빗 2점, 빗살 부분도 둥글어 타원형을 이루고 있는 주칠빗 1점, 빗살이 성근 반달형 얼레빗 1점이 있다.

• 패물선과 패물선집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파초芭蕉 형태의 부채이다. 몸판은 동물의 뼈 또는 뿔을 가늘고 길게 끈과 같이 조각내어 서로 교차하여 만들었으며 중심과 테두리는 대모玳瑁로 둘렀다. 상부는 여의무늬 옥玉, 중심부는 상아로 조각내어 칠을 한 것이고 하부는 구리로 무늬를 내고 유리구슬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황초와 분홍명주로 된 패물선집이 함께 남아 있다.

• 분첩, 연지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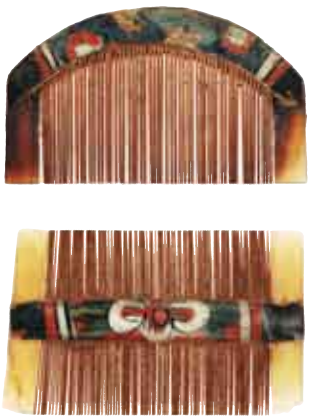
풀솜으로 동그랗게 만든 모양으로, 분이나 연지를 바를 때 사용하였던 것이다. 한쪽에는 손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꼭지가 달려 있다.

• 연지곤지 찍는 도장

연지나 곤지를 찍을 때 사용했던 것이다. 아랫부분은 도장처럼 동그란 형태이며, 사용이 편리하도록 조롱박 모양의 손잡이가 달려있다.

• 소자掃子

빗을 청소할 때 쓰던 솔이다. 솔의 손잡이는 조롱박 모양으로, 나무에 주칠을 하고 '壽(수)·福(복)' 문양을 넣었으며, 원통형의 끝에는 저모猪毛(돼지털)로 된 솔을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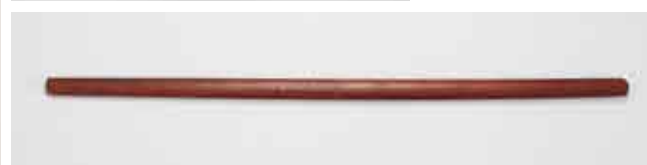












• 어깨걸이

모시로 된 긴 수건모양으로 화장 또는 머리를 빗을 때 어깨에 두르고 사용하던 것이다.

• 화각모필

붓자루와 뚜껑이 화각으로 꽃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 주단척紬緞尺

화류樺榴로 만든 자로 비단을 잴 때 쓰던 자이다.

• 색형겁상자

청홍색 보배무늬 금선단金線緞을 배접하여 만든 것으로 마치 책을 접어놓은 것과 같은 형태이다. 홍, 황, 양회, 두록, 청, 분홍, 자적색의 색지色紙로 크고 작은 칸을 만들어 그 안에 비단 조각, 골무 등 필요한 재봉 도구를 담아 두도록 하였다. 대형 칸 1개, 중형 칸 2개, 소형 칸 4개로 이루어져 있다.

• 양념국자

놋으로 만든 양념국자이다. 국자의 자루 뒷면에 '뎡유듕추뎌동궁길녜시고간이뉴사'라 음각되어있다. '정유년丁酉年'은 덕온공주가 혼례를 올린 해이며 '저동궁苧洞宮'은 덕온공주의 살림집이다. 덕온공주의 혼수품에 넣어 보낸 생활용품의 하나이다.

• 저울과 저울집

저울접시는 놋쇠로 손잡이는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접시에는 왕실어인王室御印이 찍혀있다. 저울은 나무로 만들어진 저울집에 담겨져 있는데 저울의 접시, 추, 손잡이 자루가 들어가도록 팠으며 접시를 넣는 곳에는 '어御'자가 찍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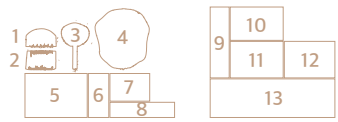












1~3. 화각빗, 2012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4. 패물선, 2012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5. 화각모필, 2012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6. 소자, 2012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7. 연지곤지 찍는 도장, 2012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8. 주단척, 2012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9.10. 양념국자, 2012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1. 저울과 저울집, 2012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2·13. 색형겁상자, 2012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보자기

- 노리개보①

노리개를 쌌던 겹보자기이다. 방형의 녹색 비단에 한쪽 끝에는 두 가닥의 다홍색 끈이 달려 있고, 끈이 달린 쪽에는 한글로 '옥편복일장진쥬구'라고 쓰여 있다.

- 노리개보②

노리개를 쌌던 겹보자기이다. 겉감은 청회색靑灰色 대화단大花緞, 안감은 다홍색 명주이며, 끈은 홍색 도류불수단이다. 노리개는 남아 있지 않으나 겉감에 '산호화지 공쟉석화지 옥불슈'라는 명칭이 쓰여 노리개의 종류를 짐작할 수 있는데 산호가지와 공작석가지, 옥으로 조각된 불수를 의미하며 삼작으로 꾸며진 노리개로 추측된다.

- 노리개보③

노리개를 쌌던 겹보자기이다. 겉감은 청색의 도류불수단, 안감은 양회색 설한단雪寒緞으로 만들어졌다. 「늬ᄉᆞ죠롱일목」이라는 명문이 한글로 쓰여 있다.

- 날염보捺染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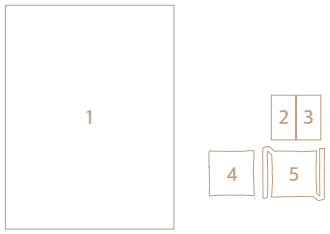
옷감에 안료를 사용하여 직접 그림을 그려 넣어 염색한 회염繪染보자기이다. 궁에서 사용하던 보자기宮褓는 다채한 색의 안료를 사용하여 화려하고 강렬하다. 이 유물은 34㎝ 너비의 면포綿布 3폭을 이어 대형 사각형으로 재단하고 가장자리는 접어 공그르기 하였다. 끈은 모서리 안쪽에 11.5㎝ 크기의 단을 덧대어 박음질로 부착하였다. 보자기 바탕은 다채한 안료를 사용하여 크고 작은 사각형 안에 여러 가지 무늬를 그려 넣었는데 가장 중앙에는 봉황이 머리를 맞대고 있으며 그 가장자리를 전보錢寶, 서보書寶, 서각犀角, 법라法螺, 보병寶甁, 선보扇寶, 경磬 등의 길상무늬와 화문花紋을 그려 넣었다.

- 족두리보

겉감과 끈은 자주색, 안감은 남색의 명주로 만든 보자기로, 족두리를 쌀 때 사용하였다. 가늘고 긴 끈이 보의 중앙에 달려있어 양쪽으로 여며 묶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청모시보

모시 두 폭에 아청鴉靑을 염색한 보자기로, 모서리 두 곳에 끈이 달려있다.



1. 날염보, 2012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 노리개보①, 2012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3. 노리개보②, 2012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4. 족두리보, 2012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5. 아청모시보, 2012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국가민속문화재 제213호

항아당의
姮娥唐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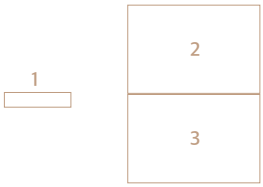
조선시대
1점
길이 75㎝, 화장 67㎝, 품 46㎝, 진동 26㎝
비단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지정일 : 1987.03.09
소유자 : 단국대학교(사유)
관리자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항아 당의>는 조선시대 순조(재위1800~1834)의 셋째 공주인 덕온공주德溫公主(1822~1844)가 1837년 혼례하던 날 궁중의 나인인 항아姮娥(궁중나인)가 입었던 예복이다.
덕온공주는 1822년(순조22) 순조와 순원왕후 김씨(1789~1857) 사이에서 셋째 딸로 태어났다. 8세가 되는 1829년(순조29)에 '덕스럽고 온화하다'는 의미의 '덕온'이란 이름을 받아 정식으로 공주에 책봉되었고, 16세가 되던 1837년(헌종3) 윤두수의 10세손인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1823~1887)과 혼인하였다. 덕온공주의 살림집은 저동(서울 중구)에 마련되어 '저동궁'이라 불렸다.
항아당의의 모양은 저고리와 비슷하지만 앞과 뒤의 길이가 길고 진동선 밑으로 양옆이 트여 있다. 검은 자색 명주 겉감에 짙은 분홍 명주로 안을 넣은 겹당의로 겉감과 안감 모두 다듬이한 명주를 사용하였고, 겉감에 금박이나 직금 등의 화려한 장식은 없다. 안고름과 겉고름 모두 옅은 자색으로 형태는 짧고 좁다. 당의 길이에 비하여 품과 소매가 크고, 전체적인 선이 투박한 형태이다. 깃은 너비 9㎝의 넓은 목판 당코깃으로 다소 넓은 편이다. 배래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소매 끝에는 흰 한지로 만든 거들지를 달았다.
당의 안깃의 안쪽에는 언문으로 '뎡유밍추길례시뎌동궁고간이류구'라는 글이 묵서되어 있다. 정유년은 1837년(헌종3) 덕온공주가 혼인하던 해를 말하며, 저동궁(뎌동궁)은 공주의 당호이다. 따라서 정유년 공주의 혼례 시 항아가 입었던 예복으로 전해져 오는 당의이다.



실제 혜경궁홍씨가 일생을 기록한 『한중록』에 글월 비자가 흑단장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 말기 자료인 「궁중발기」 중에서 정유년 덕온공주 길례시(뎡유 가례시 뎐묘불긔)에 나인(비자)들에게 아청주鴉靑紬 겹당저고리와 치마가 제공된 사례가 확인된다. 이에 본 유물과 같은 옷을 나인들이 입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덕온공주 당의(국가민속자료 제1호)와 덕온공주 의복(국가민속자료 제211호)이 금박이나 직금으로 화려하게 수식된 것에 반해 항아당의는 장식의 유무, 조형적 형태, 색상 등에서 차이를 보여 동시대 신분간의 복식을 비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1. 항아당의 안깃 묵서, 2012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 항아당의, 2012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3. 항아당의 펼친 모습, 2012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국가민속문화재 제214호

흥선대원군 자적 단령

興宣大院君 紫赤 團領

조선시대
1점
길이:121㎝, 화장:86㎝, 품:47㎝, 진동:20㎝
비단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지정일 : 1987.03.09
소유자 : 단국대학교(사유)
관리자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흥선대원군 자적단령>은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 이하응興宣大院君 李昰應(1820~1898)이 입었던 자적색 겹단령袷團領이다.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조선시대 제26대 임금이자, 대한제국 제1대 황제 고종高宗의 친아버지로, 1820년(순조20) 영조의 증손인 남연군의 아들 구球의 넷째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다. 1843년(헌종9) 흥선군으로 봉해지고, 1863년 그의 아들 명복命福(고종)이 즉위하면서 대원군에 봉해졌다.

단령은 관리들이 집무를 볼 때 입는 평상복으로 깃 모양이 둥글어 단령이라고 부른다. 당시 조선 조정의 관리들은 단령의 가슴과 등에 달린 흉배와 허리에 매는 띠로 신분을 구별하였다.

1895년(고종32) 복제개혁에 따라 소매의 너비로 대례복과 소례복을 구별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4월 23일 거북흉배龜胸背로 바뀌어 사용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 자적단령의 제작 및 착용 시기는 복제개혁 이전, 특히 흥선대원군의 섭정기간인 고종재위 초반부 10년 간(1864~1873년) 입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흥선대원군 자적단령 기린흉배는 아청색 공단貢緞에 금사金絲와 은사銀絲를 이용하여 징금수로 정교하게 수놓았다. 도약하는 모습의 기린을 중심으로 하단에는 바위·물결·불로초를 배치하고 좌우 상단에는 구름을 배치하였다. 이와 유사한 기린흉배(국가민속자료 제65호 흥선대원군기린문수흉배)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겉감은 자주색 본사本紗이고 안감은 붉은색 본사로 만들었다. 옆선에 붙은 무는 뒷길로 젖혀져 상부 23.5㎝까지 뒷길에 부착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트여 있는데 이러한 구성은 조선말기 제작된 단령의 특징으로 보인다. 고름은 홍색과 자색을 한 쌍으로 겹쳐 달아서 모두 4개가 좌우에 달려 있으며, 각대를 끼울 수 있는 끈이 겨드랑이 양쪽으로 각각 달려 있다. 겉감은 둥근 단령 깃이고, 안감은 곧은 직령 깃으로 되어 있으며, 넓은 동정이 달려 있다. 소매는 아래가 둥글려진 두리소매형 넓은 광수廣袖이다. 옷의 크기로 보아 흥선대원군의 체구가 작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흥선대원군의 자적단령에 부착되어 있는 기린흉배麒麟胸背는 대군 신분이라야 할 수 있는 흉배로 『경국대전』 의장조儀章條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흥선대원군 자적단령은 보존상태가 양호할 뿐 아니라 기린흉배까지 포함된 완전한 형태의 왕실유물이므로 복식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인정되고 있다.



2

1

3

1. 흥선대원군 자적 단령 앞모습, 2014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 흥선대원군 자적 단령에 부착된 기린흉배, 2014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3. 흥선대원군 자적 단령 뒷모습, 2014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국가민속문화재 제215호

광해군비 당의

光海君妃 唐衣

조선시대
1점
길이 71㎝, 화장 91㎝, 품 52㎝, 진동 29.5㎝
비단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지정일 : 1987.03.09
소유자 : 단국대학교(사유)
관리자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 2

3

1. 당의 겉깃 안쪽 묵서, 2015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 당의 겉깃 안쪽 묵서 세부, 2015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3. 광해군비 당의, 2015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광해군비 당의>는 조선시대 15대 임금 광해군光海君의 비妃 류씨柳氏(1576~1623)가 입었던 홑당의이다. 광해군비 류씨는 판윤 류자신柳自新의 딸로, 1587년(선조20) 선조의 차남 광해군의 비로 간택되어 문성군부인文城郡夫人으로 봉해졌다. 그 뒤 광해군이 왕세자王世子로 책봉되자 왕세자빈王世子嬪이 되었으며, 광해군이 즉위하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 이후 광해군과 함께 폐위되어 강화도에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광해군비 당의의 모양은 장저고리와 비슷하지만 앞과 뒤의 길이가 길고 진동선 밑으로 양옆이 트여 있다. 길소매는 북청색 봉화문단鳳花紋緞, 동정은 흰색 소화문단小花紋緞, 고름은 자적색 생명주로 만들어졌다. 깃 모양이 전형적인 17세기의 목판 당코깃이고, 넓은 흰색의 동정이 달려있다. 깃 아래에는 좁고 짧은 고름(2×36㎝) 1쌍이 달려 있는데, 안고름이 달렸던 흔적은 없다. 소매는 수구 쪽으로 좁아지는 통수형筒袖形으로, 끝동 장식이나 거들지는 없다. 그러나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청연군주淸衍郡主(1754~1821) 당의처럼, 안에 받쳐 입는 내공內拱에 거들지를 달아 녹색당의 겉으로 접어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 당의에는 겉깃 안쪽 화문단 동정 안쪽에 '丙子生王妃柳氏願命衣(병자생왕비유씨원명의)'라는 먹으로 쓴 글씨가 적혀있어 광해군비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광해군비 류씨의 의복유물로 해인사 장경판전에서 발견된 홍색 토주 장저고리(국가민속문화재 제3호 광해군 내외 및 상궁 옷)가 있다. 홑과 겹의 차이, 그리고 깃의 색상과 소재에 차이가 있으나, 깃모양과 옆트임, 배래 모양 등 전체적인 형태가 유사하고 공통적으로 왕비 류씨의 무병장수를 발원하는 명문이 남아있다. 홍색 토주 장저고리와 함께 발견된 상량문上樑文에 광해군이 폐위되기 1년 전인 천계天啓 2년(1622)에 발원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광해군비 당의'의 연대 역시 유사할 것으로 추측되며, 마찬가지로 왕실과 인연이 있는 사찰의 불상에 봉헌되었던 불복장품佛腹藏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987년 문화재지정 당시에는 복식사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였으므로 '중궁유씨의 청삼靑衫'으로 명명되었으나, 이후 수정되어 '광해군비 단배자短背子'라고 명명되었다. 2006년 조선시대 분묘에서 출토된 복식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광해군비 당의唐衣'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광해군비 당의는 착용자의 신분이 뚜렷한 조선시대 왕실 예복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임진왜란 이후에 등장하는 목판당코깃이 달려있는 여자 옷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국가민속문화재 제216호

윤용구 유물

尹用求遺物

조선시대
일괄 4점
① 관복 : 길이 123㎝, 화장 89㎝, 품 41㎝, 진동 29㎝
② 동다리 : 길이 114㎝, 화장 90㎝, 품 44㎝, 진동 29㎝
③ 철릭 : 길이 116㎝, 화장 96㎝, 품 42㎝, 진동 22㎝
④ 광다회 : 길이 368㎝, 폭 3㎝
비단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지정일 : 1987.03.09
소유자 : 단국대학교(사유)
관리자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윤용구 유물>은 덕온공주德溫公主(1822~1844)의 아들인 운용구尹用求(1853~1939)의 유품으로 관복官服 1점, 상의와 하의를 따로 구성하여 허리에 연결시킨 특이한 형태의 옷인 철릭帖裡 1점, 전복 안에 입는 것으로 두루마기와 비슷하지만 뒤가 트인 옷인 동달이 1점, 명주실을 여러 겹을 꼬아 납작하게 짠 끈인 광다회 1점, 총 4점이다.

1844년(헌종10) 순조의 3녀인 덕온공주가 슬하에 자녀를 두지 못한 채 사망하자 부마 남녕위 윤의선南寧尉尹宜善(1823~1887)의 집안에서 윤용구를 양자로 받아들였다. 윤용구는 1871년 문과에 급제한 뒤 병조판서 등의 벼슬을 지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정부에서 수여한 작위를 거절하고 세상일을 멀리한 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 유물들은 윤용구의 첫째 딸 윤백영尹伯榮(1888~1986)이 아버지인 윤용구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덕온공주 당의, 저고리와 노리개, 원삼 등과 함께 소중하게 보관해오다가 석주선石宙善(1911~1996)에게 기증하였고, 현재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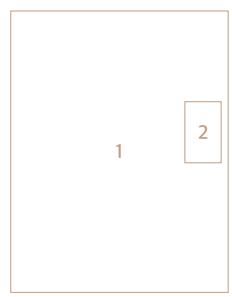
조선 말기에는 갑신정변(1884)으로 의제衣制가 개편되고 갑오개혁(1894)으로 의제개혁이 단행되어 간소화된 복식형태가 제도화되었다. 윤용구의 복식은 갑오개혁을 전후한 시기와 한일병합 이후의 복식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 철릭

철릭은 청색 구름무늬 비단으로 만든 홑옷이다. 허리선이 절개되어 허리 아래로 잔주름이 잡힌 넓은 치마가 연결되어 있다. 곧은 깃의 직령이며 동정이 있고 소매는 통이 크다. 왼쪽소매는 단추로 연결되어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어 활동에 편리하며, 주름 잡힌 넓은 치마 부분이 허리에 연결되어 있다.

• 광다회

광다회는 철릭에 매는 띠로 홍색명주실로 짰다. 홍색 명주실을 여러 겹 합사하여 표면을 납작하게 짰다. 끈 좌우 양끝에 망사매듭과 술이 있다.



1. 철릭, 2012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 광다회, 2012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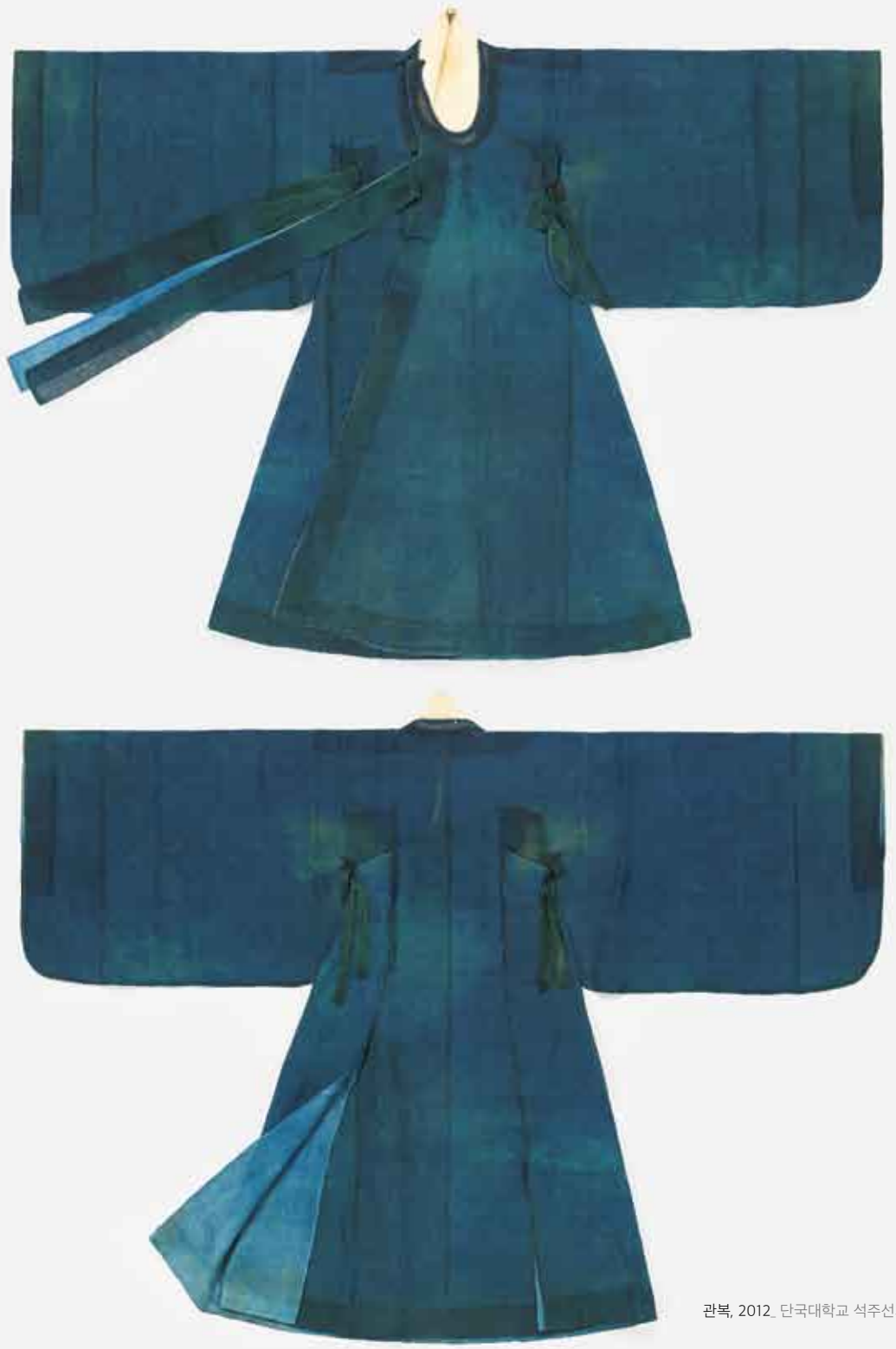




동달이, 2012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동달이

동달이는 전복과 함께 군복軍服으로 갖추어 입는 것으로 옷감으로는 원용圓龍무늬 갑사甲紗를 사용하였다. 검은 두루마기에 붉은 소매로 길은 주황색이며 곧은 깃에 양쪽 겨드랑이 아래로는 무가 달려있다.



관복, 2012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관복

관복의 겉감은 짙은 청색의 비단으로 둥근 깃의 단령團領이며, 안감은 남색 비단으로 곧은 깃의 직령이다. 깃에는 넓은 동정이 달려있고 소매의 통이 크며 흉배는 부착되어 있지 않다. 소매배래, 길, 무 등이 안감과 함께 바느질되어 있으며 시접은 서로 마주보고 있다. 겨드랑이에는 품대를 지탱하기 위한 좁고 긴 고리를 달았다.

국가민속문화재 제243호

이언충 묘 출토복식

李彦忠 墓 出土服飾

조선시대
7종 24점
① 철릭(1) : 길이 102.5㎝, 화장 123㎝, 품 72㎝
② 철릭(2) : 길이 116㎝, 화장 93.5㎝, 품 67㎝
③ 철릭(3) : 길이 127㎝, 화장 125㎝, 품 76㎝
④ 철릭(4) : 길이 108㎝, 품 63㎝
⑤ 직령(1) : 길이 122㎝, 화장 127.5㎝, 품 83㎝
⑥ 직령(2) : 길이 134㎝, 화장 126㎝, 품 75㎝
⑦ 직령(3) : 길이 127㎝, 화장 113.5㎝, 품 73㎝
⑧ 직령(4) : 길이 138㎝, 화장 115㎝, 품 74㎝
⑨ 답호(1) : 길이 129㎝, 화장 57㎝, 품 70㎝
⑩ 답호(2) : 길이 129㎝, 화장 57㎝, 품 70㎝
⑪ 답호(3) : 길이 130㎝, 화장 50㎝, 품 68㎝
⑫ 답호(4) : 길이 127㎝, 화장 55㎝, 품 64㎝
⑬ 답호(5) : 길이 130㎝, 화장 50㎝, 품 70㎝
⑭ 답호(6) : 길이 131㎝, 화장 48㎝, 품 68㎝
⑮ 액주름 : 길이 110㎝, 화장 117㎝, 품 70㎝
⑯ 적삼(1) : 길이 53㎝, 화장 70.5㎝, 품 66㎝
⑰ 적삼(2) : 길이 56㎝, 화장 70㎝, 품 63㎝
⑱ 바지(1) : 허리둘레 95㎝, 바지길이 82㎝, 밑위길이 43㎝
⑲ 바지(2) : 허리둘레 90㎝, 바지길이 84.5㎝, 밑위길이 42㎝
⑳ 바지(3) : 허리둘레 102㎝, 바지길이 84.5㎝, 밑위길이 41㎝
㉑ 바지(4) : 허리둘레 100㎝, 바지길이 84㎝, 밑위길이 45㎝
㉒ 바지(5) : 허리둘레 95㎝, 바지길이 84㎝, 밑위길이 56㎝
㉓ 바지(6) : 허리둘레 95㎝, 바지길이 82.5㎝, 밑위길이 46㎝
㉔ 명정 : 세로 222㎝, 가로 60㎝
비단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지정일 : 2002.07.18
소유자 : 단국대학교(사유)
관리자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이언충 묘 출토복식>은 조선 전기의 문신인 이언충李彦忠(1524~1582)의 묘에서 출토된 유물들이다. 이언충은 세종대 영의정을 지낸 이직李稷의 6대 손으로, 명종 때에 종2품 대사헌을 지낸 관료이다.
이언충 묘 출토복식은 2000년 4월 22일 성주이씨星州李氏 도정공파都正公派 문중 소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선산에 있는 이언충·창녕성씨昌寧成氏 합장묘의 이장 중에 발견되었다. 이때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던 이언충의 시신이 염습상태로 이장되었고, 관 내부를 채우기 위해 넣었던 보공의류補空衣類가 수습되었다.
수습된 복식류는 7종 24점으로 직령 4점, 답호 6점, 철릭 4점, 액주름 1점, 적삼 2점, 바지류 6점, 명정銘旌 1점 등이다. 조선시대의 복식제도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양분되는 시대적 특징을 보인다. 이언충이 활동했던 시기는 16세기 중반으로 이언충 묘 출토복식은 조선전기 복식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언충 묘 출토복식은 묘주의 인적사항이 확실하여 다른 묘 출토유물의 연대를 추정하는 기준이 되며, 출토복식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복식의 세부형태, 직물의 조직과 문양, 색상, 구체적인 바느질 기법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 복식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 답호

이언충 묘에서는 6점의 답호(홑답호 2점, 겹답호가 4점)가 출토되었다. 명주綿紬, 방공사方空紗, 문릉紋綾 등이 사용되었으며, 겹 답호 속에는 무 부분에 한지로 심을 넣은 것도 있고, 이중 깃과 1쌍 또는 2쌍 고름(직접부착형, 간접부착형)이 확인되었다. 또한 길 양쪽에 달린 무는 '대소 안팎주름형'이며 '전단후장前短後長'형태로서 조선 전기 임란 전 답호의 특징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1

2

1. 답호, 2009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 직령, 2009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직령直領

이언충 묘에서는 모두 4점의 직령이 출토되었다. 무명 홑직령 1점, 명주 겹직령 1점, 명주 솜직령 2점이다. 칼깃형의 이중 깃, 2쌍 고름, 세 조각으로 구성된 'H'자형 어깨바대 등 조선 전기에만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그 외에 앞이 짧고 뒤가 긴 전단후장前短後長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 액주름

이언충 묘에서는 1점의 액주름이 출토되었다. 겨드랑이 아래 주름이 잡혀 있는 액주름은 전기에만 보이는 포제로 액주름의 포함여부는 시대 구분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언충 묘에서 출토된 액주름은 모시 홑액주름이다. 깃은 칼깃이지만 다른 포 종류와는 달리 이중 깃은 아니다. 안깃은 안섶 쪽으로 4㎝ 들여 달렸다. 겉섶은 이중 섶이며 고름은 직접 부착형으로 1쌍이 달렸고 안고름도 좌우 모두 남아 있다. 그리고 어깨 안쪽에는 '요凹'자형 어깨바대가 붙어있다.

• 철릭

이언충 묘에서는 4점의 철릭(홑철릭 3점, 솜철릭 1점)이 출토되었다. 모시와 화문단 무문 주(노방주 유사), 명주 등이 사용되었다.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의 길이는 약 1:1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허리에는 0.2~0.3㎝의 잔주름이 잡혀 있다. 다만 솜철릭은 맞주름으로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치마폭은 비단은 8폭, 모시는 13폭, 명주는 10폭으로 만들었다. 전기 특징인 이중 깃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매는 통수형으로 모두 긴소매이다. 그 밖에도 고리를 달아 끼우는 간접 부착형 고름 또는 고름바대를 대고 직접 붙이는 쌍고름이 달려 있어 전기의 특징을 골고루 나타내고 있다. 감침질, 박음질, 홈질, 공그르기 등 바느질이 매우 정교하다.



1. 액주름, 2009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3. 철릭, 2009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4. 적삼, 2009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5. 바지, 2009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6. 명정, 2009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적삼

이언충 묘에서는 2점의 적삼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모시로 만든 것이다. 깃은 목판깃이고, 겨드랑이에는 사다리꼴 무 또는 'ㄱ'자형 무가 달려 있다. 도련의 정교한 감침 바느질이 돋보이며, 고름이 달리는 부분에 힘받이로 대어 준 바대의 처리 등 빈틈없이 바느질되어 있다. 출토된 적삼들은 포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품과 화장 그리고 길이가 짧은 편이라서 당시의 장례풍습에 따른 배위용이거나 가족 혹은 친지용 적삼일 가능성이 있다.

• 바지

이언충 묘에서는 6점의 바지가 출토되었다. 발굴성과로 보면 임진왜란 이전의 남자 바지는 여자의 것과 동일한 형태인 것으로 밝혀져 있다. 따라서 남자가 착용하였던 바지형태가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바지는 밑이 막힌 합당고형이 3점, 트임이 있는 개당고형이 3점이다. 합당고형 바지는 무명과 삼베로 만든 홑바지이며 개당고형 보다 바지통이 넓다. 개당고형 바지는 명주와 무명으로 만든 겹바지와 무명으로 만든 누비바지가 있다. 누비바지의 좌우 가랑이에는 대형 사다리꼴형과 사각접음형의 각기 다른 형태의 당이 달려있다. 밑단 안쪽에는 너비 1.2㎝의 단을 대어 주었다. 바지길이가 90㎝를 넘지 않고, 당시의 착장법을 고려한다면 여성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명정

명정은 망자의 생전 관직이나 본관 등을 기록하여 관 위에 덮는 옷감으로 붉은 색 옷감絳帛을 사용하며 폭은 원단 폭을 그대로 사용하되, 신분에 따라 길이를 달리 하였다. 이언충 묘에서 출토된 명정은 견직물로 만들어졌으며, '及第李公之柩(급제이공지구)'라는 묵서墨書가 확인된다.



국가민속문화재 제276호

의원군 이혁 일가 묘 출토유물

義原君 李爀 一家 墓 出土遺物

조선시대
130종 181점
① 망건(능창대군) : 길이 39.3㎝
② 단령(의원군) : 길이 130.6㎝, 화장 116.3㎝, 품 50㎝
③ 철릭(의원군) : 길이 117㎝, 화장 117㎝, 품 67㎝
④ 답호(의원군) : 길이 130㎝, 뒷품 66㎝, 진동 37.5㎝, 섶넓이 5.7㎝
⑤ 원삼(안동 권씨) : 앞길이 128㎝, 뒷길이 141㎝
⑥ 당의(안동 권씨) : 길이 78㎝, 화장 83㎝, 품 48㎝
⑦ 치마(안동 권씨) : 허리둘레 73㎝, 길이 129㎝, 폭 464㎝
⑧ 습신(안동 권씨) : 길이 26㎝, 높이 6㎝, 폭9㎝
⑨ 마고자(이연응) : 길이 74㎝, 화장 78㎝, 품 50㎝
⑩ 묘지석(이연응) : 세로 39.7㎝, 가로 31.7㎝, 두께 4.5㎝
비단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2013.08.22
소유자 : 경기도(공유)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1

2

1. 원삼(안동 권씨) , 2009_ 경기도박물관
2. 단령(의원군), 2009_ 경기도박물관

<의원군 이혁 일가 묘 출토유물>은 1999년 7월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에 위치한 인평대군파 복녕군손 의원군 등의 묘소 5기를 포천군 신북면 인평대군 묘역 주변으로 이장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출토된 조선 중·후기의 유물이다. 경기도박물관이 1999년 8월 전주이씨 인평대군파 종회로부터 기증받아 1999년, 2000년 보수 및 복원을 완료하였다.

인조의 동생인 능창대군綾昌大君(1599~1615)묘, 능창대군의 증손인 의원군 이혁義原君李爀(1661~1722)과 그의 부인 안동 권씨安東權氏(1664~1722)의 합장묘, 의원군의 5대손인 이연응李沇應(1818~1879)의 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복식服飾 127종 178점과 기타 서간書簡, 지석誌石 3종 3점으로 총 130종 181점에 이른다. 이 중에는 능창대군의 망건網巾(이마에 쓰는 장식), 의원군의 단령團領(운학흉배가 달린 관복), 철릭帖裏(주름이 있는 치마와 상의가 연결된 예복), 답호褡護(소매 없는 고급 옷), 의원군 부인 안동 권씨의 원삼圓衫(여성 예복), 당의唐衣(봉황흉배가 있는 간이 예복), 이연응의 마고자麻掛子(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 등 복식사적 가치가 뛰어난 유물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고운 말총으로 무늬를 넣어 짠 능창대군의 망건은 현재까지 문헌으로만 전하던 것이 처음 발견된 것이어서 조선후기 수공예 기법을 엿볼 수 있는 주요한 자료로 주목받았다. 의원군 이혁 일가 묘 출토유물은 왕실 종친 가문의 예법과 시대에 따른 상장례의 변화, 염습의와 평상복의 구분, 복식의 변천 및 직물의 사용과 문양, 중국과의 교류 등 조선시대 중·후기(18세기 초~19세기 말)의 사회전반에 관한 많은 사실을 제공해 주는 훌륭한 자료로 평가된다.

• 원삼(안동 권씨)

안동 권씨 원삼은 당의 위에 입혀져 있어, 습의 가운데 최상의 예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원삼은 원삼 대대大帶와 함께 출토되었고, 겉감과 대대는 직금운용문단, 안감은 보상화문단, 겉감과 안감의 덧단은 보상화문단과 화문단을 사용하였다. 겉감과 안감을 각각 바느질하였고, 안감의 시접과 솔기는 바깥으로 나와 있다. 소매 끝에 색동은 달려 있지 않고, 수구 끝에 안감과 동일한 소색 보상화문단 한삼이 달려있다. 조선시대 원삼 중 시기가 이른 것으로 당시 왕실 종친 여성의 예복 형태를 알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 단령(의원군)

단령은 조선시대 궁중을 출입하는 문무관리가 업무를 볼 때 갖추어 입었던 예복이다. 목선이 둥글다하여 단령이라 부르며, 흉배의 문양과 허리띠의 재료로 신분을 구별한다. 의원군의 단령은 구름과 보배무늬가 있는 고급비단을 사용하였고, 품계를 알 수 있는 1품 운학흉배(30.8×34㎝)를 가슴과 등에 부착하였다. 단령의 속옷인 직령 깃이 당코깃인 것이 특징이며, 무의 고정은 매듭단추로 되어있다.







• 철릭(의원군)

철릭은 상의와 주름잡은 치마가 허리에서 연결된 독특한 형태의 남자 옷으로, 평상시에 입기도 하였지만 국가의 위급 상황 시에는 군복(융복)으로도 착용기도 하였다. 적어도 숙종 이전 시점에 '구군복具軍服'이라는 군복이 새롭게 생기면서 융복용 철릭은 점차 예복화 되기 시작한다. 이 철릭은 구름무늬가 있는 고급 비단을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 정교한 주름과 바느질 기법 등 왕실 복식의 기품을 담고 있다.

• 답호(의원군)

답호는 남자의 긴 포袍위에 착용한 조끼형 옷이다. 이 답호는 큰 구름과 작은 구름무늬가 있는 비단을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 재질이 독특하여 일반적인 사대부가의 옷과는 구별되며 고급스러움이 돋보인다.

• 마고자(이연응)

마고자는 저고리 위에 덧입는 방한복의 하나로 청나라 때 옷인 마괘馬褂에서 비롯되었으며, 저고리와 비슷하나 깃과 고름이 없고 앞을 여미지 않는다. 이 마고자는 좌우 깃이 중심에서 마주하여 만나는 대금對襟형으로 고급 비단에 원용문圓龍紋을 수놓았다. 오늘날 마고자의 초기 형태를 알 수 있는 중요 유물로 평가되고 있다.

• 묘지석(이연응)

이연응의 묘에서 출토되었으며 석재는 화강암이다. 글씨는 행서를 음각하고 주묵朱墨을 이용하여 부각시켰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資憲大夫知宗正卿府 / 事禮曹判書兼知 經
筵義禁府春秋館事同 / 知成均館事五衛都摠
府都摠管全州李公諱 / 沆應之墓 亥坐之原

• 망건(능창대군)

능창대군의 망건은 말총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상·하 색을 달리하였고, 상부와 하부 양쪽에는 격자무늬를 넣어 짰다. 착용 시 상투부분만 남기고 이마에서 머리전체를 감쌀 정도의 규모이다. 위쪽에는 오므려 묶을 수 있도록 비단실을 꼬아 만든 끈이 꿰어져 있으며, 아래쪽 끈과 가장자리는 비단을 사용하였다. 양쪽 측면 하단에는 옥으로 만든 꽃잎 모양의 보각을 한 옥관자가 1쌍이 붙어 있다.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망건환제변증설網巾環制辨證說」에 의하면, 화양옥권花樣玉圈의 경우 2품의 관자임을 알 수 있다.

• 당의(안동권씨)

당의는 사대부가 여성의 간이 예복이다. 이 당의는 포도와 포도덩굴, 다람쥐 무늬를 수놓은 비단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가슴과 등에는 화려한 금실로 수를 놓은 봉황흉배가 부착되어 있다. 이 당의는 최초로 발견된 흉배가 부착된 것으로 당의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유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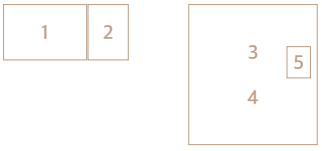
• 화문단 홑치마(안동권씨)

화문단 홑치마는 습용襲用 치마 중 하나로, 여지, 석류, 감, 새, 모란, 복숭아꽃, 수국, 석류꽃, 보문 문양이 새겨져 있으며, 함께 출토된 치마들에 비해 유난히 허리가 작고, 길이가 긴 것이 특징이다.



• 습신(안동권씨)

습신은 시신에 신기는 신발이다. 『사례편람四禮便覽』의 여상女喪에는 채해綵鞋라고 기록되어 있다. 의원군 부인 안동권씨 습신은 겉감을 짙은 색의 화문단을 사용하였으며, 바닥과 신울은 거친 무명을 이용하여 심을 만들어 그 위에 굵은 실로 누볐다. 고운 주를 안감으로 덮어 마감하였으며, 신발의 테두리에는 꼰사를 이용한 장식선이 있고, 신발 코에는 비단실로 둥근 고리 같은 꽃술을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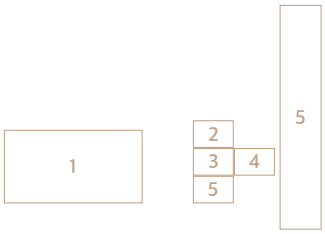
1. 망건(능창대군), 2010_ 경기도박물관
2. 묘지석(이연응), 2002_ 경기도박물관
3. 당의(안동권씨), 2010_ 경기도박물관
4. 화문단 홑치마(안동권씨), 2008_ 경기도박물관
5. 습신(안동권씨), 2010_ 경기도박물관

국가민속문화재 제283호

옥동금
玉洞琴

조선시대
1점
세로 175㎝, 가로 19㎝
목재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31

지정일 : 2014.10.22
소유자 : 안산시
관리자 : 성호기념관



1. 옥동금, 2014_ 안산시 성호기념관
2. 좌단, 현침, 2014_ 안산시 성호기념관
3. 괘, 2014_ 안산시 성호기념관
4. 안족, 줄, 2014_ 안산시 성호기념관
5. 봉미, 부들, 학슬, 2014_ 안산시 성호기념관
6. 옥동금 뒷면, 2014_ 안산시 성호기념관

<옥동금>은 성호 이익星湖李瀷(1681~1763)의 셋째 형인 옥동 이서玉洞李潊(1662~1723)의 거문고로, 거문고 장인 문현립文玄立이 만들었다고 한다. 여주이씨驪州李氏 문중에서 전해지다가 2011년 후손인 이효성李曉成이 안산시에 기증하여 현재 안산시성호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옥동금의 유래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고종高宗(재위 1852~1919)때 문신이자 독립운동가인 수당 이남규修堂李南珪(1855~1907)의 문집 『수당집修堂集』 권1 「군자금가君子琴歌」에 전한다. 이에 따르면 옥동금은 옥동 이서가 금강산 만폭동의 벼락 맞은 오동나무를 얻게 되어 거문고를 만들게 되었고 당시에는 이 거문고를 '군자금君子琴'이라 불렀다고 한다.

옥동금은 형태가 날씬하고 길이도 긴 형태여서 악기형태학적으로 특이하며, 앞판의 현 6개와 함께 봉미鳳尾·부들·학슬鶴膝·안족雁足·귀루鬼淚·십육괘十六棵·현침絃枕·좌단坐團 및 뒤판의 운족雲足에 이르기까지 악기의 전체적인 균형이 좋아 15세기 제작된 거문고인 탁영금(보물 제957호) 이후 근대로 발전하기 전까지 거문고 구조 변천의 중간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거문고 목재의 입수 과정, 제작 장인의 이름, 원 소유자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어 그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높다.

뒤판에는 소장자였던 옥동 이서의 친필을 집자集字한 '玉洞(옥동)'이라는 글자와 낙서駱西 윤덕희尹德熙(1685~1776)가 쓴 시가 새겨져 있어 옛 거문고의 품격과 예술적 조형미를 한껏 높여주고 있다.



蓬萊之洞　幽而世隔　于彼桐矣
神明所惜　邪乘間賊　神怒霹靂
惟我善甫　於我乎寄　叩之知美　成斯美器
外備兩儀　中藏萬理　五聲六律　爰得天心
宣暢堙鬱　蕩滌邪淫　一念之差　於斯乎禁
禁之開之　是我之琴

금강산 만폭동은 그윽이 세상과 떨어진 곳, 거기에 있던 오동나무로다.
신명이 아끼던 곳에 사가 끼어들고 해쳐, 신이 노여워 벼락 쳤도다.
내 벗 선보가 (벼락 맞은 이 오동을) 나에게 맡기어,
두드려 보고 진가를 알아 이 멋진 금을 완성했도다.
밖으로 음양兩儀을 갖추고 그 속에 온갖 이치 숨기고는
오성육률五聲六律로 하늘의 마음을 깨닫는 도다.
막히고 답답함을 후련히 털고 요사스러움 음탕함을 씻어내며,
한 생각의 어그러짐도 이에서 삼갔도다.
억제도 이로써 하고 펴기도 이로써 하니 이것이 곧 나의 금이로다.













5

시·군별 문화재 목록

가평군

가평 현등사 동종	보물 제1793호	406

고양시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보물 제611호	128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	보물 제749호	140
묘법연화경(언해) 권1, 4	보물 제1010-2호	180
자치통감 권193-195	보물 제1281-3호	260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42	보물 제1658호	350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 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9	보물 제1794호	408
불화장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484

과천시

조선방역지도	국보 제248호	18
이지정 초서 취영구절	보물 제1668호	352
조문수 필적 위심수재서	보물 제1669호	354
승무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466
줄타기	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	474

광명시

이원익초상	보물 제1435호	282

광주시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 만행수능엄경(언해) 권3	보물 제948-2호	158

구리시

구리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	보물 제1741호	384
구리 동구릉 숭릉 정자각	보물 제1742호	386
구리 동구릉 목릉 정자각	보물 제1743호	388
구리 태조 건원릉 신도비	보물 제1803호	420
석장	국가무형문화재 제120호	488

군포시

안중근의사유묵-사군천리망안욕천이표촌성행물부정	보물 제569-11호	124

김포시

묘법연화경 권7(언해)	보물 제1225호	250

남양주시

남양주 봉선사 동종	보물 제397호	102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보물 제1792호	404
남양주 흥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16나한상 일괄	보물 제1798호	416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보물 제1808호	422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보물 제2003호	446
매듭장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462
남양주 동관댁	국가민속문화재 제129호	518
남양주 궁집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	520

동두천시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보물 제1211호	244

성남시

통감속편	국보 제283호	26
동의보감	국보 제319-2호	32
월인천강지곡 권상	국보 제320호	36
이충원 호성공신교서	보물 제874호	148
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	보물 제1008호	176
대방광불화엄경소 권21, 24	보물 제1128호	196
대불정다라니	보물 제1129호	198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보물 제1130호	200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10의하	보물 제1131호	202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보물 제1132호	204
조온 사패왕지	보물 제1135호	208
입학도설	보물 제1136-1호	210
기묘제현수필	보물 제1197호	236
기묘제현수첩	보물 제1198호	240
손소 초상	보물 제1216호	246
청자 상감오리모양 주전자	보물 제1398호	274
분청사기 상감모란당초문 장군	보물 제1400호	276
국조정토록	보물 제1511호	296
20공신회맹축 - 영국공신녹훈후	보물 제1512호	298
20공신회맹축 - 보사공신녹훈후	보물 제1513호	300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상1의1	보물 제1514호	302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 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2, 10	보물 제1515호	304
숙빈최씨 소령원도	보물 제1535호	314
월중도	보물 제1536호	318
아국여지도	보물 제1597호	328
영조어필-숙빈최씨사우제문원고	보물 제1631-1호	342
영조어필-숙빈최씨소령묘갈문원고	보물 제1631-2호	344
정조어필-시국제입장제생	보물 제1632-3호	348
송준길 행초 동춘당필적	보물 제1672-1호	356
박세당 필적 서계유묵	보물 제1674호	362
박사익 초상	보물 제1724호	380
김응남 호성공신교서 및 관련 고문서	보물 제1756호	394
조선왕조의궤	보물 제1901-2호	430
협주명현십초시	보물 제1926호	440
박동형 초상 및 함	보물 제1927호	442
매듭장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462
태평무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480
경기도도당굿	국가무형문화재 제98호	482

수원시

수원 창성사지 진각국사탑비	보물 제14호	62
수원 팔달문	보물 제402호	104
수원 화서문	보물 제403호	108
채제공 초상 일괄 - 시복본	보물 제1477-1호	284
박유명 초상	보물 제1489호	294
영조어필-읍궁진장첩	보물 제1631-3호	346
박태유 필적 백석유묵첩	보물 제1675호	366
수원 방화수류정	보물 제1709호	372
수원 서북공심돈	보물 제1710호	376
조선경국전	보물 제1924호	436
경기도도당굿	국가무형문화재 제98호	482
석장	국가무형문화재 제120호	488
수원 광주이씨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123호	504

시흥시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보물 제1324호	272

안산시

이하진 필적 천금물전	보물 제1673호	358
옥동금	국가민속문화재 제283호	558

안성시

칠장사오불회괘불탱	국보 제296호	30
사인비구 제작 동종-안성 청룡사 동종	보물 제11-4호	52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보물 제435호	112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보물 제488호	114
안성 석남사 영산전	보물 제823호	144
안성 청룡사 대웅전	보물 제824호	146
안성 봉업사지 석조여래입상	보물 제983호	174
칠장사삼불회괘불탱	보물 제1256호	256
청룡사영산회괘불탱	보물 제1257호	258
청룡사감로탱	보물 제1302호	266
인목왕후 어필 칠언시	보물 제1627호	338
안성 청룡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보물 제1789호	398

안양시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보물 제4호	42
경국대전 권3	보물 제1521호	308

양주시

양주 회암사지 선각왕사비	보물 제387호	92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보물 제388호	96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앞 쌍사자 석등	보물 제389호	100
반야심경소현정기(언해)	보물 제1708호	370
양주별산대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	452
양주소놀이굿	국가무형문화재 제70호	478
양주 매곡리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128호	516

양평군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보물 제531호	116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보물 제1790호	400

여주시

여주 고달사지 승탑	국보 제4호	10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보물 제6호	44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	보물 제7호	46
여주 고달사지 석조대좌	보물 제8호	48
여주 창리 삼층석탑	보물 제91호	64
여주 하리 삼층석탑	보물 제92호	66
여주 신륵사 조사당	보물 제180호	72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보물 제225호	74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	보물 제226호	78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보물 제228호	80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	보물 제229호	82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	보물 제230호	84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앞 석등	보물 제231호	86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보물 제1144호	217
묘법연화경 권1	보물 제1145호	216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24	보물 제1146호	218
여주 효종 영릉재실	보물 제1532호	312
여주 신륵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보물 제1791호	402
여주 보통리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126호	512

용인시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17	국보 제244호	16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	국보 제256호	20
백자 달항아리	국보 제262호	22
백자 청화산수화조문 항아리	국보 제263호	24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보물 제9호	50
안중근의사유묵- 육보동양선개정략시과실기추회하급	보물 제569-21호	126
김중만 초상	보물 제715호	132
헌종가례진하도 병풍	보물 제733-2호	136
이경석 궤장 및 사궤장 연회도 화첩	보물 제930호	150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및송언신초상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	보물 제941-1호	154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및송언신초상 -송언신초상	보물 제941-2호	156
백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9	보물 제978호	160
분류두공부시(언해)권13	보물 제1051-1호	182
천태사교의	보물 제1052호	184

진언권공(언해)	보물 제1053호	186
백자 태항아리 및 태지석	보물 제1065호	188
정몽주 초상	보물 제1110-2호	194
원균 선무공신교서	보물 제1133호	206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보물 제1148호	220
신간표제공자가어구해	보물 제1149호	222
이중로 정사공신교서 및 초상 -이중로 정사공신교서	보물 제1174-1호	224
이중로 정사공신교서 및 초상 -이중로 초상	보물 제1174-2호	226
심대 호성공신교서	보물 제1175호	228
유수 초상	보물 제1176호	230
오명항초상및양무공신교서	보물 제1177호	232
감로탱화	보물 제1239호	252
수월관음도	보물 제1286호	262
조영복 초상	보물 제1298호	264
이십삼 상대회도 및 김종한 교지	보물 제1406호	276
심환지 초상	보물 제1480호	288
김유 초상	보물 제1481호	292
증급유방	보물 제1577호	324
초조본 성지세다라니경	보물 제1579호	326
함경도·경기도·강원도 지도	보물 제1598호	332
서거정 필적	보물 제1622호	336
숙종어필칠언시	보물 제1630호	340
강세황 행초 표암유채	보물 제1680호	368
허전 초상	보물 제1728호	382
대혜원명 동종	보물 제1781호	396
정선필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 화첩	보물 제1796호	412
분청사기 상감 '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	보물 제1830호	424
경기민요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470
덕온공주 당의	국가민속문화재 제1호	494
심동신 금관조복	국가민속문화재 제2호	496
과천 출토 광주이씨 의복	국가민속문화재 제114호	500
김함의 묘 출토의복	국가민속문화재 제209호	524
고종의 누비저고리	국가민속문화재 제210호	528
덕온공주 의복	국가민속문화재 제211호	530
덕온공주 유물	국가민속문화재 제212호	534
항아당의	국가민속문화재 제213호	540
흥선대원군 자적 단령	국가민속문화재 제214호	542
광해군비 당의	국가민속문화재 제215호	544
윤용구 유물	국가민속문화재 제216호	546
이언충 묘 출토복식	국가민속문화재 제243호	550
의원군 이혁 일가 묘 출토유물	국가민속문화재 제276호	554

의왕시

사인비구 제작 동종-의왕 청계사 동종	보물 제11-7호	56
청동 은입사 향완	보물 제288호	90

이천시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보물 제822호	142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보물 제982호	170
청자 양각연판문 접시	보물 제1573호	322
이천 어재연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127호	514

파주시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보물 제93호	68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보물 제1323호	270

평택시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제565호	120
평택 만기사 철조여래좌상	보물 제567호	122
평택농악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458

포천시

서경우 초상 및 함	보물 제1897호	426
서문중 초상 및 함	보물 제1898호	428

하남시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보물 제12호	58
하남 동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3호	60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보물 제981호	166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상2의2, 권하3의1~3의2	보물 제1219-2호	248

화성시

용주사 동종	국보 제120호	14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물 제980호	146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불좌상복장전적일괄	보물 제1095호	190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	보물 제1754호	390
안성 청원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복장전적	보물 제1795호	410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보물 제1942호	444
화성 정시영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124호	506
화성 정수영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125호	510

총괄
김성명 | 경기문화재연구원장
박종달 | 경기도 문화유산과장

기획
김영화 |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장
이재복 | 경기도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장
김선미 | 경기도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 학예연구사

진행
김영화 |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장
김다혜 |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 연구원

진행보조
강미숙 |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 연구원
박한별 |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 연구원
전재희 |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 연구원

사진촬영
오세윤 | 문화재사진연구소
김다혜 |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 연구원
김종헌 |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 선임연구원
경기도지적연구회

사진촬영 협조
개인소장자
국립과천과학관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남양주)
대한불교조계종 흥국사(남양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남양주)
수원시 화성사업소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양평군)
육군 제1보병사단
유엔사령부
조선왕릉 동부지구 관리소
조선왕릉 서부지구 관리소
충현박물관
포천시 한탄강사업소 지질공원팀

사진제공 협조
경기도문화재돌봄사업단
경기도박물관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광명시 문화체육과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여성사전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기남문화재연구원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대한불교조계종 청룡사
명지대학교박물관
문화재청
미래엔·교과서박물관
반남박씨 금계군종택
반남박씨 서계종택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서울대학교박물관
성보문화재연구원
성호기념관
수원박물관
수원시 문화예술과 문화재활용팀
수원화성박물관
시흥시 관광과 오이도박물관팀
여주박물관
연천군 문화체육과
오산시 문화체육관광과
용인대학교 박물관·우학문화재단
용인시 문화예술과
의왕시 문화체육과
전곡선사박물관
전주이씨 완양부원군 종택
지평의병·지평리전투기념관
철도박물관
파주시 문화예술과
하남역사박물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한백문화재연구원
한양대학교박물관
한양문화재연구원
환기재단·환기미술관
LG인화원

경기도 문화재 총 람

국가지정편 _ 1

국보
보물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발행일 2019년 3월 31일

발행 경기도
경기문화재연구원

편집디자인 칼라뱅크
인쇄·제작 경인M&B

ISBN 979-11-88858-30-9 (제1권)
979-11-88858-29-3 (전2권 세트)

발간등록번호 71-6410000-000243-14

(비매품)
이 도서의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도서에 수록된 사진자료의 사용권한은 경기도와 각 소장처에 있습니다.

비매품
94080
9 791188 858309
ISBN 979-11-88858-30-9
ISBN 979-11-88858-29-3(전2권 세트)